

〈연구보고서 01-1〉

한국 편수사 연구(Ⅱ)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School
Curriculum and Textbook(Ⅱ)

연구 책임자 : 허 강(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사무국장)

공동 연구자 : 곽상만(한국교육개발원 자문교수)

김용만(동경한국학교 교장)

정태범(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함수곤(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윤종영(전 금천고등학교 교장)

김영일(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이종국(대전 혜천대학 교수)

연구 보조자 : 박소희(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사무원)

유장상(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재단
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연구 자 문 〉

장기주(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환동(한국2종교과서협회)

김만곤(교육인적자원부)

김태환(교육인적자원부)

박용진(전 문교부)

백승탁(전 문교부)

양철우((주) 교학사)

유위준(한국교원대학교)

이경환(교육인적자원부)

이대의(장왕사)

이승구(대한교과서(주))

이현일(교육인적자원부)

임용빈(교육인적자원부)

정완호(한국교원대학교)

정준섭(전 문성중학교)

정형진(전 한국2종교과서협회)

최영복(전 문교부)

최해홍(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명희(전 영등포고등학교)

황태랑(대한교과서(주))

이 연구는 2001년도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것입니다.

머 리 말

학교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 교육과정에 있으며,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교과용 도서가 편찬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역대 정권 하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과정 개혁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 중요과제로 선정한 데는 교육의 핵심인 교육내용의 중요성과 교육내용이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인식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한 나라의 교육의 질은 교육과정의 질에 좌우되며,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교과서는 국민교육의 기본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교육과정이 우리 나라는 광복 이후 반세기 동안 7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이 때마다 교과서를 편찬하여 우리 교육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간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편수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해 봄으로써 한 나라의 교육을 통한 인간형성, 학문의 발달과정 및 국가 발전의 과제, 국민의식의 변화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편찬·발행의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장차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시사받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또,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우리 나라 편수 업무의 관(觀)이 정립되고, 둘째, 한 차례 연구·개발하여 적용한 후 사장되고 소멸되기 쉬운 편수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수집·분석·정리해 놓음으로써 편수 업무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살리고, 연구·개발 실적을 정리·보관해 두는 데도 큰 의미를 지니게 하며, 셋째, 교육과정기별로 체계화하는 최초의 연구서로서, 이것이 기반이 되어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 심화·보완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주제별 또는 내용별로 전문화(상세화)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연구 내용이 그 동안에는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과서 편찬에 관한 내용이 대체로 문서적 나열이나 이론적 측면에 치우쳤던 점에 비추어,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고 극명하게 분석·정리함으로써 정평의 밑거름이 되게 한 것과 또 교육과정기별로 편년식으로 정리하는 개념이 있게 한 것은 새로운 영역에 해당되며 새롭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이번 '한국편수사 연구(Ⅱ)'는 제4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를 정리한 것으로 2000년도의 '한국편수사연구(Ⅰ)'의 후속편이며, 연구(Ⅰ), (Ⅱ)의 내용과 함께 부록으로 정리해 놓은 각종 교과서 관련 자료가 사료적(史料的)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자료가 교육과정·교과서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책임자를 비롯하여 공동연구자,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연구자문을 하여주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01년 12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김 효 수

【 연구 요약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 나라는 광복 이후 반세기 동안 7차에 걸친 교육과정의 개정과 수많은 교과용 도서의 개발을 통하여 우리 교육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아직 편수 업무는 제도상 그리고 운영상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즉, 현재로는 한국 편수와 관련된 사적 연구에서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과서 편찬 등 부문별로는 약간의 단편적인 연구가 있을 뿐이며, 이들을 사실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나라 교육에 중심을 이루는 교육 내용이나 교과서에 대해 그 개발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우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의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장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 받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첫째, 한국 교육의 민족적 편수를 위한 관(觀)과 한국의 교육 이념을 확립하는데 있다.

둘째, 편수업무와 관련된 제도상의 문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구, 개발, 현장 적용 및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셋째, 편수사는 단순한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 일관된 인식과 철학이 뒷받침 되도록 한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의 편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II. 연구 내용

- ① 우리 나라의 교육 이념과 교육 과정 제정 과정과의 관련
- ②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과정의 전체 구조의 변화 측면
- ③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편찬에 관한 연구·평가의 변화 측면
- ④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의 편찬, 발행, 공급 방식의 변화 측면

⑤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현장 적용과의 관련

⑥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미래상

○ 제1차 연도 연구

- 미군정기와 교수요목기(1945. 8 ~ 1954. 4)
- 제1차 교육과정기(1954. 4 ~ 1963. 2)
- 제2차 교육과정기(1963. 2 ~ 1973. 2)
- 제3차 교육과정기(1973. 2 ~ 1981. 12)

○ 제2차 연도 연구

- 제4차 교육과정기(1981. 12 ~ 1987. 3)
- 제5차 교육과정기(1987. 3 ~ 1992. 6)
- 제6차 교육과정기(1992. 6 ~ 1997. 12)
- 제7차 교육과정기(1997. 12 ~ 현재)

Ⅲ. 연구 방법

- ① 문헌, 자료 수집·분석 : 각 기관 소장 편수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 ② 면접 조사 : 교과서 출판인, 교과서 저자, 편수 행정가 등을 방문하여 역사적 상황을 면접·조사한다
- ③ 비망·증언 자료 수집·위촉 : 교육과정기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전문가 및 편수진에게 비망·증언 등의 자료수집 또는 원고를 위촉한다.
- ④ 연구 협의회 운영 : 연구 추진 과정에서 본 연구진을 중심으로, 또 연구 전문가와 협의회를 통해 편수사 연구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연구·협의·조정한다.

Ⅳ. 연구 결과

각 교육과정기의 특징은 군정기·교수요목기는 긴급조치에 의한 특수성을, 제1차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제2차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제3차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제4차는 국민정신 교육의 강조를, 제5차는 국민학교 통합 교육과정을, 제6차는 21세기 대비 교육 개혁과 교육과정 운영 체제 재혁을, 그리고 제7차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및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교과용 도서의 편찬은 체제상 큰 변화가 없었으며, 단지 제7차 부터 전통성을 벗어나 새 교과서관에 따라 내용 조직이나 편집 디자인 측면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1. 요약

(1) 군정기·교수요목기

① 미군정기

㉠ 식민 잔재를 불식하기 위한 가장 중용한 당무로 선택한 과제가 교육이었으며, 그 실질적인 대안은 새로운 교수 요목을 갖추는 일이었고, 교과용 도서를 시급히 편찬·발행하는 일이었다.

㉡ 편수과(국)를 학무 행정 체계의 수석 기구로 편제함으로써 교과서 편찬 등의 당무 해결에 최우선을 두었다.

㉢ 한국어 교재를 통한 국어 회복 노력은 우리의 교육 과정·교과서사뿐만 아니라, 주권 교육의 현실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② 정부 수립기

㉣ 광복 이후의 교육과정·교과서사에 있어 극심한 가변적 상황이 거듭된 때가 정부 수립으로부터 6·25 전란기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 실업 전문 교육과 그에 따른 교과용 도서 편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오늘의 실정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동인을 제공한 것이었다.

㉥ 정부 수립을 거쳐 6·25 전란기에 이행된 편수 활동은 주목되는 선례를 남겼다. 당시의 편수 책임자들은 행정적 직능자를 지양하여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했다. 예컨대, ‘우리말 어휘 사용 빈도 조사’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 6·25 전쟁으로 고착화된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이데올로기 문제가 교육 과정과 교과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 불박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2) 제1차 교육과정기

① 교육과정 개발

㉠ 새로 제정된 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교육내용에 관한 것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적 요구가 있었다.

㉡ 처음의 학습지도 방법 연구에서 교육과정 연구 쪽으로 방향을 바꾼 새교육 운동의 연구가 교육과정 사조상의 교과중심, 경험중심 교육과정 제정을 유도하고 촉진시켰다.

㉢ 총론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각론에 해당되는 각급학교의 「교과과정」이 동시에 공포되지 않고 시차를 두고 따로 공포되었다.

② 교과용 도서 편찬

㉠ 제1차 교육과정이 최초의 체계적, 종합적 교육과정이었듯이 교과용 도서도 비로소 전학교급별에 걸쳐, 전학년에 걸쳐서 일제히 함께 편찬, 공급된 것은 무엇보다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교육법과 동법 시행령과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 「국정 교과용 도서 심의회 규정」,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 등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국정, 검인정 교과용 도서는 먼저 일정한 규격이나 체제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 이후의 모델이 되었다.

(3) 제2차 교육과정기

① 교육과정 개발

제2차 교육과정은 그 동안 꾸준히 제안되어 온 생활 중심 교육과정관을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기초 학력의 충실을 기한다.

㉡ 교육과정의 계열을 합리화하여, 각 학교 사이의 일관성을 지니도록 한다.

㉢ 제2차 교육과정의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구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육과정 전체를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서술했고, 총론에서는 초·중등학교에 공통되는 개정의 취지, 일반 목표, 개정의 요점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학교급별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활동별 운영 계획을 교과 활동, 반공·도덕 활동, 특별 활동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② 교과용 도서 편찬 등

제2차 교육과정기의 국정 교과서 체제는 판형이 제1차 교육과정기의 4·6판에서 5·7판(국판)으로 바뀐 그대로였으며, 활자는 개량된 것을 사용하였다. 용지는 모조지(표지)를, 본문(갱지이지만 저학년은 백상지 사용)은 갱지를 사용하였다. 활자 크기는 가독성을 중시하였으며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활자보다 큰 쪽을 사용하였다.

표지 인쇄는 저학년은 원색을, 고학년은 단색을 썼으며, 제본은 제1차 때와 같이 침철 클로스로 하였다. 원색 삽화는 국민학교의 경우 ‘자연’은 4학년 일부까지, ‘바른 생활’은 3학년, 그 밖에 교과는 2학년까지만 적용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의 검인정 교과서는 시행 연도에 맞추기 위하여 1963년 2월 15일에 검정 실시를 공고하였다.

당시의 검인정 교과서 제도는, 그의 법적 근거를 ①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1950. 4. 29 ~ 1967. 4. 16) ②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1967. 4. 17 ~ 1977. 8. 21)에 두고 있다.

제2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행정은 국민학교의 전 교과서와 중·고교의 정책교과 일부와 실업고 전문 교과서를 국정제로 하였고, 그 밖의 것은 검인정제로 하였는데, 검인정제는 통제가 강한 편이었다.

(4) 제3차 교육과정기

① 교육과정 개발

제3차 교육과정은 이념적으로는 1970년대 우리 나라 교육 이념을 주도했던 국민 교육 현장 및 유신 교육 등의 이념을 반영하고, 이론적으로는 1960년대 미국 교육 개혁을 주도했던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의 반영이라고 적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차 교육과정 개발 방식은 제1차, 제2차 때와 마찬가지로 문교부(편수국)가 중심이 된 ‘중앙집권형’으로 이루어졌으며, 흔히 말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유일 체제’ 시대였다고 지칭된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을 일반 목표와 학교급별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일반 목표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침과 일반 목표를 다루었으며, 학교급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및 편제와 시간 배당, 그리고 운영 지침을 다루고 있다.

② 교과용 도서 편찬

교과용 도서 편찬 제도가 소위 말하는 ‘검인정 교과서 사건’을 계기로 대변혁이 일어났는데, 법령상으로는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시대’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대’로 옮겨져 운영된 시기였으며 편수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즉, 우리 나라는 광복 후 줄곧 국민학교에서는 국정 제도를, 중등학교에서는 국정과 검인정 제도를 혼용해 오다가 1977년 소위 ‘검인정 교과서 사건’ 이후 1978년부터 국민학교와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 교과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과목 중 국어(독본), 국민윤리, 국사와 문교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4조, 1978. 2. 9 개정)는 1종 도서로 하도록 규정되었고, 공급도 공급인을 통하던 종래의 방식과는 달리 교과서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기관으로 하여금 시·군 교육청 단위로 공급 담당 사원을 주재시켜서 행하도록 하였다.

(5) 제4차 교육과정기

① 교육과정 개발

제4차 개정의 정치 사회적 배경으로는 제3, 4공화국의 퇴조와 제5공화국의 출범 및 1980년 교육개혁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 개발은 문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그 답신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 제4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학교 1, 2학년의 경우, 교과의 통합운영이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도덕, 국어, 사회를 묶어 ‘바른생활’로, 산수와 자연을 묶어 ‘슬기로운 생활’로, 체육, 음악, 미술을 묶어 ‘즐거운 생활’로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당했다. 그러나 국민학교 3학년 이상의 교과 편제는 9개 교과별로 각각 제시되었다.

㉡ 인간중심교육과 미래지향적인 과학교육을 강조하였다. 교육과정이 제시한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주체적인 사람이었다.

㉢ 중·고등학교의 1종 도서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국어, 도덕, 국민윤리, 국사 교과에 국한시키고, 나머지 교과는 모두 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2종 도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검정 도서 출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였으니 종래 ‘최근 3년간에 매년 5 종류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에서

‘매년 10 종류 이상의 도서 발행 실적이 있는 출판사’로 개정하였다.

- ㊸ 실업계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와 교과서를 없앴 것이다.

(6) 제5차 교육과정기

① 교육과정 개발

제5차 교육과정은 교육 외적인 정세 변화의 영향, 요구를 비교적 받지 않고 이루어진 최초의 교육과정이고, 주기적 교육과정 개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당시와 같은 중앙 집권식 교육과정 구조하에서는 교육과정은 주기를 두고 계속 점검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했다.

- ㉠ 학교 교육에서 꼭 정착시켜야 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내용을 정선하였다.
- ㉡ 교육과정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었다.
- ㉢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추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였다.
- ㉣ 국민학교의 교과는 9개 교과로 하고, 다만 1,2학년은 통합 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 ㉤ 중학교의 기술과 가정 과목 이외에 ‘기술·가정’을 신설하였다.

② 교과용 도서 편찬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는 제4차 교육과정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국정(1종)과 검정(2종) 제도를 양대축으로 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를 편찬하거나 또 검정 교과서를 만들어 당국에 검정 출원하는 절차 등은 마찬가지였다.

제5차 교육과정기 때의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 ㉠ 종래의 1교과 1교과서의 틀에서 탈피하여 국민학교에 복수 교과서를 도입하였다.
- ㉡ 종래의 교과서 중앙 편찬에서 탈피하여 국민학교에 교과서 지방단위 편찬제를 도입하였다.
- ㉢ 2종 교과서의 교과목 수를 확대하고 교과목당 합격 종수를 확대하였다.

(7) 제6차 교육과정기

① 교육과정 개발

제6차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교과서의 지배아래 폐쇄화, 경직화, 획일화의 병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굳어진 학교교육을 보다 탄력적이고,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인 유연한 학교 교육과정의 영향권 속으로 옮겨 놓기 위하여 탄생한 새로운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목적과 의도에서 제6차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각 학교가 직접 편성하는 구체적인 실행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역사상 처음으로 제도화시켰다.

㉠ 수업 시간 배당기준은 과거의 ‘주당 시간 배당형’을 ‘연간 총 시간 제시형’으로 바꿨다. 그래서 주별, 월별, 학기별, 수업 시간은 각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에 당해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배정할 수 있게 되었다.

㉡ 지금까지 국가 수준의 일방적, 획일적인 결정으로 성역화된 편제의 조정 및 결정에 시·도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처음으로 제도적인 보장을 받게 되었다.

㉢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사상 최초로 당해 학교 교육의 기본 설계도인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학교에 ‘학교 재량 시간’을 창설하여 국가 공통의 편제에 제시되지 않은 교육 활동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자율 재량권을 국민학교에 부여하였다.

② 교과용 도서 편찬

㉠ 초등학교 신입생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서 부과되었던 ‘우리들은 1학년’도 그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를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당해 지역과 학교에 적합하게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인정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승인권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함으로써 지역 특성과 학교 실정에 알맞은 교과용 도서를 융통성 있고 자유롭게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제6차 교육과정기에서 터 놓았다.

㉢ 검정 기준의 공개 등으로 검정 업무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8) 제7차 교육과정기

① 교육과정 개발

제7차 교육과정기는 21세기로 진입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점에서 단행한 개정으로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연원은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교육개혁 방안에 두고 있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교육과정 개선 원칙은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이었다.

-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
- ㉡ 고교 2, 3학년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 ㉢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 ㉣ 재량 활동의 신설 및 확대

② 교과용 도서 편찬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용 도서를 개발한다(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 편리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한다).

-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에 적합한 교과용 도서 편찬
- ㉡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 도서 편찬
- ㉢ 연구·개발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과용 도서 편찬
- ㉣ 1종 도서의 발행권 부여가 2002년부터 적용되는 교과서부터 6개 출판사로 확대되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제6차 교육과정기의 2종 교과용 도서검정 실시 방법인 중·고등학교별로 학년 구분없이 동시 실시하던 검정 방법을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는 중학교는 1, 2, 3학년 학년별로, 고등학교는 필수과목과 일반선택과목, 그리고 심화선택과목별로 검정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교과용 도서검정 업무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대폭 위임하였다.

㉥ 교과서 공급 제도를 개선하여 재단법인 한국교과서 연구재단이 2001학년도 교과서 공급시부터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지방 공급 조직을 흡수하여 교과용 도서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2. 결 론

이 연구는 광복 후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사실(史實)을 서술하고 극명하게 분석·정리하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우리 나라의 교육 이념은 교육법, 국민교육헌장 등에 제시되어 있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이념 등은 광복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이념들은 각 교육과정기마다 어느 것은 더 강조하고, 어느 것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는 신축성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교육 이념(창의성 신장, 정보화 능력 등)은 새롭게 강조되고, 어떤 교육 이념(반공 정신 함양 등)은 소멸되어 그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되기도 했다.

둘째, 우리 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결정 방식은 교수요목기로 부터 제5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중앙집권형으로 일관되어 왔다. 이것은 획일성, 경직성, 폐쇄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 점을 개선한 것이 제6차 교육과정이었다. 즉,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의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국가수준에서의 과도한 규제와 세밀한 관여를 가능한한 완화하고 분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셋째, 우리 나라의 교과서 제도는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 시기(1950~1967)와 ‘교과용 도서 저작 검·인정령’ 시기(1967~1977)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기(1977~현재)로 구분되며, 교과용 도서의 체제 등이 변화한 시점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기였다. 즉, 제3차 교육과정기인 1977년 ‘검인정 교과서 사건’이 계기가 되어 편찬 과정, 체제 및 공급 등에 크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교과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은 정보화, 교재의 다양화, 다양한 교수·학습 추진에 두어야 한다. 또, 교과서의 질 향상과 개성 있는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과 교육 내용의 선정(new basic) 및 수준 유지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저작·편집 기능의 향상과 연구 개발 체제가 확립되어야 하겠다.

이 밖에도 교육 당국이 우선하여 편수 행정 조직을 강화하고, 편수직의 전문성 제고에 가일층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 차 례 】

제 1 부 서 론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5
4. 연구의 제한점 및 연구의 기대 효과	6
5. 연구 보고서의 구조	7
 제 2 부 한국 편수사 연구(Ⅱ)	 9
V. 제4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11
1. 서 론	11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13
3.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	83
4. 결 론	132
VI. 제5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137
1. 서 론	137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139
3.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	201
4. 결 론	258
VII. 제6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265
1. 서 론	265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268
3.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	336
4. 결 론	356

VIII. 제7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363
1. 서 론	363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366
3.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	427
4. 결 론	470
IX. 요약 및 결론	475
1. 요 약	475
2. 결 론	486

부 록

부록 1	491
부록 2	523

표 차 례

〈표 V-1〉 제4차 교육과정 당시의 문교부 직제 변천 과정	24
〈표 V-2〉 한국 교육개발원이 수행한 교육과정 관련 기초 연구	26
〈표 V-3〉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문교부와 한국 교육개발원의 역할 분담	29
〈표 V-4〉 1981년 한국 교육개발원의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현황	31
〈표 V-5〉 제4차 교육과정 연구 개발 및 확정 절차	33
〈표 V-6〉 제4차 교육과정 심의 위원 현황 및 문교부 담당자	42
〈표 V-7〉 국민학교 시간 배당 기준	57
〈표 V-8〉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	62
〈표 V-9〉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	67
〈표 V-10〉 편찬 대상 도서 총괄	85
〈표 V-11〉 제4차 교육과정기 1종 도서 편찬 현황	85
〈표 V-12〉 개발 기관별·학교별 교과목	86
〈표 V-13〉 교과서 편찬 요령	93
〈표 V-14〉 교사용 지도서 편찬 요령	94
〈표 V-15〉 교과서 개발 단가	95
〈표 V-16〉 국민학교 교과서 업무 추진 현황 및 담당자	96
〈표 V-17〉 중학교 교과서 업무 추진 현황 및 담당자	97
〈표 V-18〉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서 업무 추진 현황 및 담당자	98
〈표 V-19〉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서 업무 추진 현황 및 담당자	99
〈표 V-20〉 국민학교 자연과 교과서 개발 퍼트(예시)	101
〈표 V-21〉 교육과정 변천과 교과서 제도의 변천	108
〈표 V-22〉 일본 교과서 시정 내용	118
〈표 V-23〉 공산 사회의 변화 및 좌경 급진 사상 비판 내용	126
〈표 VI-1〉 제5차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정 계획	143
〈표 VI-2〉 제5차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기초 연구 목록	154
〈표 VI-3〉 제5차 교육과정 총론 작성 관련 협의회(유·초·중등학교)	156
〈표 VI-4〉 전계열 및 일반계 고등학교 총론 및 교과별 협의회	157
〈표 VI-5〉 국민학교 시간 배당 기준	175
〈표 VI-6〉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	179
〈표 VI-7〉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	182
〈표 VI-8〉 제5차 교육과정기에 적용된 교과서 발행 실태	202

〈표 VII - 9〉 제5차 교육과정기 편수관리관실 재직자 명단	216
〈표 VII -10〉 교과서 정가 사정 방법	219
〈표 VII -11〉 제5차 교육과정기(1999학년도 발행) 국민학교 교과용 도서	221
〈표 VII -12〉 편찬 절차 및 추진 일정 등	222
〈표 VII -13〉 중학교 1·2종 교과용 도서 목록	233
〈표 VII -14〉 고등학교 1·2종 교과용 도서 목록	233
〈표 VII -15〉 중학교 1종도서 연구 개발 기관	234
〈표 VII -16〉 고등학교 1종도서 연구 개발 기관	235
〈표 VII -17〉 중학교 2종 교과서 검정 신청종 수 및 합격종 수	239
〈표 VII -18〉 고등학교 2종 교과서 검정 신청종 수 및 합격종 수	239
〈표 VII -19〉 중등학교 2종 교과서 합격 출판사 및 합격종 수	243
〈표 VII -20〉 국사 교육심의회 위원 명단	252
〈표 VII -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공포·고시 및 적용(한국·일본)	266
〈표 VII -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및 적용 계획	267
〈표 VII - 3〉 제6차 교육과정 개선 연구 과제 및 연구자 명단	272
〈표 VII - 4〉 제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안 연구 개발 기관	274
〈표 VII - 5〉 제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안 세미나 실시 상황	275
〈표 VII - 6〉 제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안 현장 검토 학교	281
〈표 VII - 7〉 제6차 교육과정 책자 보급 실적	284
〈표 VII - 8〉 제6차 교육과정 총론의 구체적 개선 사항	290
〈표 VII - 9〉 현행 교육과정	293
〈표 VII -10〉 개정 교육과정	293
〈표 VII -11〉 제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사항	294
〈표 VII -12〉 현행과 개정(안)의 시간 수 비교	297
〈표 VII -13〉 제6차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사항	298
〈표 VII -14〉 전문 교과 편제 개정 사항	301
〈표 VII -15〉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목 개정 사항	301
〈표 VII -16〉 현행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단위 수 비교	308
〈표 VII -17〉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사항	309
〈표 VII -18〉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1종 도서 편찬 총괄표	336
〈표 VII -19〉 교육과정기별 중·고등학교 2종도서 교과목명	339
〈표 VII -20〉 제6차 교육과정기 검정과 과거 검정의 차이점 비교	340
〈표 VII -21〉 교과용 도서 심사(평점) 배점	344

〈표 VII -22〉 제6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2종도서 검정 결과	346
〈표 VII -23〉 제6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2종도서 검정 결과	347
〈표 VII -24〉 초등학교 영어과 2종도서 검정 추진	349
〈표 VII -25〉 부교재 가격 사정 위원회 명단	350
〈표 VII -26〉 부교재 가격 사정 신청 점수 및 처리 현황	351
〈표 VII -27〉 부교재 가격 사정 월별 처리 현황	352
〈표 VII -28〉 사정 신청 회원사별 처리 현황	353
〈표 VII -29〉 제6차 교육과정기(1994~1997) 인정 교과서 발행 현황	355
〈표 VIII - 1〉 교육과정 특별위원회 위원	367
〈표 VIII - 2〉 초·중등학교 신 교육과정 편제표	371
〈표 VIII - 3〉 교육과정 개정의 경과	372
〈표 VIII - 4〉 교육과정 개정 업무 처리 흐름도	374
〈표 VIII - 5〉 교육과정 총론 편제 확정을 위한 집중 작업 참가자	379
〈표 VIII - 6〉 교육과정 총론 편제 작업을 위한 외부 인사	380
〈표 VIII - 7〉 연구 개발 위탁 과제와 연구 개발 책임자	382
〈표 VIII - 8〉 재량 활동의 학교급별 연간 수업 시간 수(단위)	398
〈표 VIII - 9〉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401
〈표 VIII -10〉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402
〈표 VIII -11〉 편수 연구직 정원 변경	411
〈표 VIII -12〉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전후 장·차관·국장·과장	414
〈표 VIII -13〉 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418
〈표 VIII -14〉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기관 및 협력 연구학교	423
〈표 VIII -15〉 연도별 초등학교 1종도서 실험학교 운영	425
〈표 VIII -16〉 교육부 지정 교과용 도서 실험 연구학교	426
〈표 VIII -17〉 교과서 명칭 및 의미의 변화	428
〈표 VIII -18〉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인정도서 및 교과서 없는 교과목 현황·	431
〈표 VIII -19〉 제7차 교육과정 1종 교과용 도서 편찬 책수 및 발행권 부여 범위·	434
〈표 VIII -20〉 제7차 2종 교과용 도서 발행권 부여 대상 책수	434
〈표 VIII -21〉 발행사별 발행권 부여 내역	435
〈표 VIII -22〉 2종도서 중학교 1학년 검정 완료·	437
〈표 VIII -23〉 중학교 2학년 본 검정 교과서, 지도서 심사 완료	438
〈표 VIII -24〉 고등학교 교과서, 지도서 본 검정 심사 완료	439
〈표 VIII -25〉 고등학교 교과서 재 검정 심사 완료	440

〈표 VIII -26〉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1종 교과용 도서 개발 계획	449
〈표 VIII -27〉 교육부와 편찬 기관의 업무 분담	457
〈표 VIII -28〉 2000년도 교과용 도서 편찬 보조금 산출 기준 단가	459
〈표 VIII -29〉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개발 계획	461
〈표 VIII -30〉 교과서 심사 공통 기준	463
〈표 VIII -31〉 교과서 공통 기준	464
〈표 VIII -32〉 교사용 지도서 공통 기준	465
〈표 VIII -33〉 검정 관리 위원회 구성	467
〈표 VIII -34〉 연도별 연구과제 및 책임 연구자	468

그림 차례

〈그림 V - 1〉 우리 나라 미래 사회와 교육의 과제	22
〈그림 V - 2〉 제4차 교육과정 개정 절차	34
〈그림 V - 3〉 교육을 통하여 길러야 할 인간상	44
〈그림 V - 4〉 인간상과 교육과정 강조 사항과의 관계	48
〈그림 V - 5〉 단원 전개 관정의 모형	104
〈그림 V - 6〉 국민학교 교과서 표지 및 내용 체제(예)	128
〈그림 V - 7〉 중학교 교과서 표지 및 내용 체제(예)	130
〈그림 V - 8〉 고등학교 교과서 표지 및 내용 체제(예)	131
〈그림 VI - 1〉 제5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 추진 계획(고등학교)	144
〈그림 VI - 2〉 제5차 교육과정 개정 신안 개발팀의 조직	147
〈그림 VI - 3〉 문교부 기구표	193
〈그림 VII - 1〉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철차·과정 ('90~' 95)	283
〈그림 VII - 2〉 교과서 편찬·발행 과정	338
〈그림 VII - 3〉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변천	356
〈그림 VIII - 1〉 교육과정 추진 과정	373
〈그림 VIII - 2〉 편수국의 조직	410
〈그림 VIII - 3〉 교과용 도서 의미의 변화 방향	429
〈그림 VIII - 4〉 제도 개선 후의 교과서 주문·공급 체계도	443
〈그림 VIII - 5〉 1종 교과용 도서 편찬 업무 흐름도	448

제 1 부 서 론〔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제한점 및 연구의 기대 효과
5. 연구 보고서의 구조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편수 업무는 장학업무와 더불어 학교교육의 양대 지주이며, 장학이 편수의 현장적용을 점검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때 학교교육의 핵심은 편수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편수의 주 업무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편수·발행·공급인 바, 한 나라의 교육의 질은 교육과정의 질에 좌우되며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교과서는 국민교육의 기본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광복 이후 반세기 동안 7차에 걸친 교육과정의 개정과 수많은 교과용도서의 개발을 통하여 우리 교육에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편수업무는 제도상 그리고 운영상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현재로 한국 편수와 관련된 사적연구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과서 편찬 등 부문별로는 약간의 단편적인 연구가 있을 뿐이며, 이들을 사실(史實)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나라 교육에 중심을 이루는 교육내용이나 교과서에 대해 그 개발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간된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에 대한 편수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해 봄으로써 한 나라의 교육을 통한 인간형성, 학문의 발달과정 및 국가 발전의 과제, 국민의식의 변화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우리는 교육과정개발과 교과서 편찬·발행의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장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받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 상황에서 추진될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교육의 민족적 편수를 위한 관(觀)과 한국의 교육 이념을 확립하는 데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외국의 교육이론을 추구해 온 결과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일본의 군국주의의 잔재는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였고, 미국 등 외국의 교육이론을 직수입해와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편수사 속에서 우리의 문화, 사회, 경제적 조건에 부합되는 이론을 발전시켜 한국 고유의 민족적 편수를 위한 관(觀)을 정립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편수업무와 관련된 제도상의 문제,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의 연구·개발, 현장 적용 및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효과적인 편수업무의 수행을 위한 제도상의 문제와 지금까지의 편수 업무의 정책 결정의

변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교육과정과 교과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의 연구와 개발 과정이 어떻게 변천하여 왔으며,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현장 적용(편성·운영 등)과 평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 변천해 왔는지도 알아본다.

셋째, 한국 편수사는 단순한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 일관된 인식과 철학이 뒷받침되도록 한다.

하나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그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만들어진 시대의 성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한국 편수사는 시대적 의지가 살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한국편수사는 연구자가 역사의식과 교육 철학이나 역사 철학적인 배경에 뒷받침을 받아서 지주가 확고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의 편수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 편수사 연구는 단순한 과거 사실을 나열하고 수집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의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앞날의 발전을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앞으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있다 하겠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앞의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것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교육과정 제정 과정과의 관련
- ②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편찬과정의 전체 구조의 변화 측면
- ③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편찬에 관한 연구·평가의 변화 측면
- ④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의 편찬·발행·공급 방식의 변화 측면
- ⑤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현장 적용과의 관련
- ⑥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미래상

그리고, 본 편수사 연구는 편수업무가 갖는 특수성에 맞게 시간의 원근, 사회발전 및 민족

의 성장, 역사서술의 주제, 지배 세력의 변화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8단계로 구분하여 2개년에 걸쳐 연구한다.

○ 제 1차 연도

- 미군정기와 교수요목기(1945. 8 ~ 1954. 4)
- 제 1차 교육과정기(1954. 4 ~ 1963. 2)
- 제 2차 교육과정기(1963. 2 ~ 1973. 2)
- 제 3차 교육과정기(1973. 2 ~ 1981. 12)

○ 제 2차 연도

- 제 4차 교육과정기(1981. 12 ~ 1987. 3)
- 제 5차 교육과정기(1987. 3 ~ 1992. 6)
- 제 6차 교육과정기(1992. 6 ~ 1997. 12)
- 제 7차 교육과정기(1997. 12 ~ 현재)

3. 연구 방법

① 문헌, 자료 수집 · 분석

각 기관 소장 편수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 정리한다.

(예) 교육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개발원, 국사편찬위원회, 대한교과서(주), 한국2종교과협회, 한글학회, 삼성출판박물관, 각 교과서 출판사 등

② 면접 조사

원로 교과서 출판인, 교과서 저자, 편수행정가 등을 방문하여 역사적 상황을 면접 조사한다.

③ 비망 · 증언 자료 수집 · 위촉

교육과정기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전문가 및 편수진에게 비망 · 증언 등의 자료수집 또는 원고를 위촉한다.

④ 연구협의(회) 운영

연구 추진 과정에서 본 연구진을 중심으로, 또 연구 전문가와의 협의(회)를 통해 편수사 연구에 관한 문제점을 연구 · 협의 · 조정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및 연구의 기대 효과

(1)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한국 편수사를 다루는 첫 번째의 본격적인 연구로서 연구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로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발행 등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이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초·중고 기간학교 이외에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기술학교와 특수학교 따위와 문교부 편수국에서 관장하던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교육과정 행정은 다루지 않는다.

둘째, 각급학교(초·중·고) 교과목별 목표, 내용, 방법 및 유의점(평가) 등의 변화 측면은 특수한 경우 이외는 다루지 않는다.

셋째, 공통적으로 합의한 제목 이외에 교육과정기별로 특성있는 제목 설정이 요구되는 가급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넷째, 본 연구 주제는 '한국 편수사 연구' 이므로 교육과정 개발 집필(연구) 분량에 비해 교과용 도서 편찬 분야에 그 비중을 강화·할애하기로 한다. 이것은 교육과정기별로 교육과정 개발 분야의 집필(연구) 분야에 제한을 두고 있음을 뜻한다.

다섯째, 교육과정기별로 비망·증언의 게재 빈도에 차이가 나며, 특히 교수요목기, 제 1차 및 제 2차의 경우가 낮은 경향인데, 이것은 당시 관계했던 사람들의 사망·노령화 등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편수와 관련된 특징이나 문제점을 강조하려면 여러 근거가 있어야 하나 이것들의 자료가 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기별 특수영역 연구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분야는 앞으로 심도있는 자료 개발로써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교육과정기별로 전·후기(前後期)의 내용이 중복되어 게재되는 게 있는데, 이 경우 불필요한 중복은 제한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놔두도록 하였다. 이것은 중복된 것이라 해도 각 교육과정기별로 보면 그 내용이 독립적인 성격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여덟째, 사진·삽화 등 일러스트에 관한 영역은 이번 기회에 다루지 않는다.

(2) 연구의 기대 효과

본 연구를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수사 연구 및 집필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문화, 사회 경제적 조건에 부합되는 한국의 주체성에 입각한 편수업무의 관(觀)을 정립하고 나아가 한국 교육이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의 개발, 교과서의 편찬·발행·공급 등 편수업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차기에 발전적인 편수업무를 수행하는데 좋은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셋째, 한 번 연구·개발하여 적용한 후 사장되고 소멸되기 쉬운 편수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해 높음으로써 편수업무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살리고, 연구 개발 실적을 정리, 보관해 두는 데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넷째, 한국 편수사는 광복 후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서 편찬 등을 교육과정기별로 체계화하는 최초의 연구서(Ⅰ, Ⅱ)로서, 이것이 기반이 되어 앞으로의 연구는 더욱 심화 보완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또 주제별로 또는 하위 내용별로 전문화 연구가 이루어지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5. 연구 보고서의 구조

본 연구 보고서는 제1부 서론과 제2부 한국 편수사 연구(Ⅱ)로 구분된다. 제1부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의 제한점 및 연구의 기대 효과’, 그리고 ‘연구 보고서의 구조’ 등이 포함된다.

제2부 한국 편수사 연구(Ⅱ)는 한국 편수사 연구(Ⅰ)의 후속 연구 내용으로, 제4차 교육과정으로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등에 대해 그 사실(史實)을 서술하고 분석·정리하였다.

즉, 제4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에 대한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 정태범 교수가,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에 대한 집필은 전 금천고등학교 윤종영 교장이, 제6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은 한국교원대학교 함수곤 교수가 맡아 집필하였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에 대해 그 사실은 서울교육청 김영일 장학관이 서술하고 분석·정리하였다.

한국 편수사 연구(Ⅱ)는 (Ⅰ)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기별 주제하에 하위 중·소 제목은 집필자가 특성 있게 꾸밀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다만 서론과 결론의 형식을 갖추게 하

여 각 교육과정기별로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을 제시하게 하였다.

본 연구 보고서는 한국 편수사 연구(Ⅰ), (Ⅱ)가 연계되는 성격 때문에, 미군정기·교수요목기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으로부터 제7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까지를 한 군데에 모아 요약·결론을 제시하였다.

또, 부록에 게재하는 자료는 ‘집대성의 개념’과 ‘유용성의 가치’ 쪽을 감안하여 정리하였으며, 부록 1, 2로 나누었다.

즉, 부록 1은 ‘교과용 도서에 반영된 편차 변천 연구’ 논문으로서 편차의 개념, 편차의 기능과 모형 및 한국의 역대 교과서에 적용된 편차 사례 등을 논증한 점에서 교과서 편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록 2에 게재할 ‘한국 편수사’ 관련 자료 중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개요’, ‘각급 학교 교육과정 개발 일람’,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문교부 포함) 직제 변천’, ‘교육과정 관련 제 법령’, ‘해외 교포 교육용 학습 교재 개발 및 보급’, ‘검정교과서 관련 자료’ 등은 교육부 발간 「교과서 백서」(2000. 12)와 그 밖의 해당 전문 도서 등에 발표되었기에 본 보고서에는 게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록 2에 게재하려고 계획한 바 있는 교과용 도서 생산(공급) 통계는 자료 범위가 방대하고, 집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료도 일실된 것이 있어 수집 과정에서 이 자료의 게재는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 통계 자료의 정리는 앞으로 교육 당국 또는 해당 기관에서 주선해 주는 것이 일관성에서, 또 정확한 자료 정리(집성 가능성 등)라는 점에서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제 2 부 한국 편수사 연구(Ⅱ)

- V. 제4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 VI. 제5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 VII. 제6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 VIII. 제7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 IX. 요약 및 결론

V. 제 4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정태범*

1. 서 론

제4차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시행된 1980년대의 우리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교육계에서도 참으로 많은 변화·발전 또는 갈등이 있었다. 특히, 민주화 교육의 열망에서 분출한 여러 가지 교육 문제들이 소리높이 논의되어 온 시기였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학원의 민주화·자율화의 소리가 높아졌다. 그 중에도 1980년 5월에 들어서는 대학생들이 정치적 민주화를 촉진하자는 시위가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나 5·17 사태 이후 학원 민주화 운동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지만 부분적으로 또는 외형적으로 교육의 민주화는 진행되었다. 예컨대, 1983년도부터 고교생들에게 자유복을 입게 하였으며, 두발도 자유롭게 기르게 한 점 등은 학생들의 개성을 신장시키고 미적 품성을 함양하고 활동적인 옷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조치였다. 그러나 교복, 두발 등의 자유화에 대한 단점도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1986년부터는 학교에 따라 교복 착용을 할 수도 있게 하였다.

1985년 전반기부터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교육개혁심의회’가 발족되어 교육계의 현안 문제와 앞으로의 개혁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198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활동 결과 42개 중요 정책 과제를 추출하였다. 여기에서 집약·건의된 10대 과제는 ① 학제의 개편 ② 입시 제도의 개혁 ③ 학교 시설의 현대화 ④ 우수 교원의 확보 ⑤ 교육내용과 방법의 쇄신 ⑥ 과학 두뇌의 개발 ⑦ 대학 교육의 수월성 추구 ⑧ 평생교육 체제의 확립 ⑨ 교육자치제의 실천 ⑩ 교육 투자의 획기적 증대 등 2000년대의 교육현대화 또는 민주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① 각급 학교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 ② 각급 학교 교사들의 권리 신장 ③ 대학 교수회의 활성화 ④ 교수 임용 승인 제도의 폐지 ⑤ 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⑥ 대학입학시험제도의 점진적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민주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교원대학교 교수

제3차 교육과정의 말기에 해당하는 1977년은 문교부의 교육과정 행정사상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업무 담당 편수관들이 교과서 검정과 관련된 교과서 출판사와의 연루 의혹 때문에 거의 전원이 자리를 떠나는 매우 불행한 ‘검인정 교과서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편수행정 조직과 역할 기능은 다음과 같이 대폭적인 개편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대 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4차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4차 교육과정이 1981년 12월 31일 공포(문교부 고시 제442호)되어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대폭 개정되었다. 새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로 단계적으로 유치원과 국민학교 1, 2, 3학년, 그리고 4, 5, 6학년의 도덕, 사회, 중학교의 도덕과 국사, 고등학교의 국민윤리 및 국사는 1982년 3월 1일부터, 국민학교의 4, 5, 6학년의 나머지 교과는 1983년 3월 1일부터, 중학교의 전학년과 고등학교의 신입생은 1984년 3월 1일부터 전국의 각급 학교에 적용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은 문교부의 교육내용 행정 수행에 있어서 역할 기능상의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제4차 교육과정의 개발이 연구개발형(Research and Development)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즉, 문교부가 지금까지 전담해왔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업무를 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과 분담하여 수행하는 체제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1978년부터 문교부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기본 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심의 기구 구성과 심의회의 운영, 개정 최종안의 정리 확정 및 고시 등의 정책, 기획,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연구 개발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뉘었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패키지로 묶어 일선에 보급하였다.

새 교육과정에는 국민정신교육, 과학기술교육, 전인교육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정신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정신에 따라, 기초교육이 더욱 강조되었고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이 적정하게 통합·조정되었다. 특히 새 교육과정에서는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이 조화를 이루어 반영되도록 하였다. 종래의 교육과정에서는 지식 체계와 탐구 방법의 지나친 강조로 개인적 차원의 인간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졌으며, 사회적 차원의 국민정신교육이 체계화되지 못하였으나, 이번의 교육과정에서는 ① 사회적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국민정신교육을 체계화하였고, ② 개인적 차원이 되는 인간교육이 강조된 외에, ③ 학문적 차원인 과학교육을 비롯한 기초교육이 강화되었다.

여기에서는 크게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등 두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과정 개발은 제4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경과,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특색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을 기술하였으며, 다음으로 교과용 도서 편찬에서는 각급 학교 교과서 편찬·발행 현황을 정리하였다.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1) 교육과정 연구·개발 동향

이제까지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고의 흐름은 시대에 따라 단일적인 사조나 이론의 지배를 받아온 감이 없지 않았다. 예를 들면 교과중심 교육과정, 경험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과 같은 특수한 입장들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교육과정이 적용된 이론적 배경과 시대적 특수성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과정은 과거처럼 어느 특정의 단일한 입장을 통해 이해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한 나라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데 있어 어느 특정한 관점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개발하려고 한다면 그 견해의 단일성으로 말미암아 교육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데 제한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¹⁾

1) 변화와 미래 사회에 대한 인식

현대사회의 특징은 변화라고 할만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 국가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의 발전 방향과 그 미래가 조망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교육내용에 반영할 것인가가 교육과정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 부단히 변화하는 사회상황 속에서 생기기 쉬운 문제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창조·수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변화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이 미래사회의 인간상에 대한 부단한 구는 교육과정 개발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1) 문교부, 중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연수자료(문교부, 1982), pp. 1-3.

학교교육에서는 학생이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이 끝난 후에도 필요에 따라 계속 학습할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과 태도를 길러주며, 새롭게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고력, 즉 과학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와 같은 고등정신 기능을 길러주어야 한다.

2) 교육과정의 적합성에 대한 반성

교육과정의 적합성은 크게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다. 즉, 개인과 사회와 학문이 그것이다. 교육과정은 개인의 요구, 능력, 포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개인적 적합성), 사회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사회적 적합성), 학문적 지식체계 및 탐구방법과 일치하여야(학문적 적합성)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합성 가운데 어느 특성의 것을 교육과정에서 특별히 강조하거나 소홀히 다룰 때 학교교육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다. 지금까지 학문적 적합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다른 측면의 고려가 희박하였다는 반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편, 개인에게 의미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그런 의미 있는 것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는 것이 학교의 책임이라고 보는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은 개인의 적합성이라는 면에서 우리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다시 어느 한 측면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과정 개발이 요청되는 것이다.

3) 정치 이념의 반영에 대한 갈등

교육은 정치에 예속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고 정치에서 중립적일수록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을 좀더 확대해나가면 교육의 내용은 진리에 관한 순수하고 중립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사회나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항존주의 또는 본질주의 입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교육과정에 주는 주요한 시사점은 교육과정은 시대적 변화에 크게 영향 받음 없이 인간의 정신도야에 기초가 되는 기존의 중요한 지식체계를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한 국가 또는 사회체제를 형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전개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중요시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문제는 순수한 지식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정치적 이념 문제도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때 상당한 부분이 국가·사회체제의 주류를 이

루고 있는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이나 경험이 탈이념적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과정이 정치적, 사회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면 이 외적 요구를 교육적으로 해석하여 교육내용에 통합시키는 일은 교육과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2)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 및 배경

이 절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의 개정의 필요성과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

① 제3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제3차 교육과정은 1973년에 개정 공포된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10호 : 1973. 2)과 1974년에 개정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²⁾ 제3차 교육과정은 교과학의 핵심적인 지식체계의 구조화와 그것을 발견 탐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시키자는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과 국가적으로 새마을 운동의 적극 추진, 유신과업의 강력한 수행을 위한 국적 있는 교육에 그 특징을 두고 있다.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구현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교육의 강화, 지식기술교육의 쇄신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한편 교육과정 내용의 선택과 조직을 보면,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여 각 학년과 각급 학교사이에 계통적 학습이 강조되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의 방법으로 기억 위주의 단순한 암기방법이 아니라, 발견·탐구의 학습과정과 기본 개념의 이해 과정을 강조하였다. 교육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얻어진 학습의 결과보다 학습의 과정에 역점을 두어 사고력, 응용력, 창의력 등의 발달을 중요시하는 교육의 방향에 초점을 두었다.

편제는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나누었으며 국민학교는 9개 교과, 중학교는 12개 과목으로 하되, 실업·가정은 필수와 선택으로 하였다.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분리하여 삼원화된 편제를 두고 있다. 인문계의 교과활동은 필수·선택 교과목과 과정별 선택 교과목으로 나누었다. 교과는 13개 교과와 기타 교과로 구분하고 학생의 진로선택에 따라 2학년부턴 인문, 자연, 직업과정으로 분하여 편성하였다. 각 과목별

2) ① 1974년에 개정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문교부령 404호로 1977년 2월에 부분적으로 개정되고 다시 424호로 1979년 3월에 부분적인 개정을 보았다. ② 424호로 부분 개정 공포된 교육과정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단위 수는 3년간에 이수하여야 할 단위수로 표시하였고 각 과정별로 3년간에 이수하여야 할 총 단위 수는 특별활동을 포함하여 204~222 단위로 하였다. 여기서 1단위라 함은 50 분을 1단위 시간으로 하여 매주 1단위 시간씩 1학기(18주 기준)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한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목은 보통과목과 전문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과목은 다시 8개 과목의 필수와 9개 과목의 선택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3년간 총 이수하여야 할 단위수는 인문계와 마찬가지로 204~222 단위로 하였다. 이상은 제3차 교육과정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본 것이다. 이상 1973년에 개정된 제3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교육자 및 학부모 사이에서 지적되거나 조사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

가. 학습 내용의 과다

가르쳐야 할 내용이 너무 많게 되면 결국 학습시간을 연장시키며 일정 기간 내에 진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수 수준을 ‘평균 학생’에게 두게 되므로 학습 부진아의 보충학습이나 우수학생의 심화학습은 소외당하게 된다. 과밀 학급 내에서 과다한 학습내용을 취급해야 하는 학습조건은 암기식·주입식 교수방법을 유도하게 된다.

나. 학습하기 어려운 교육 내용

교과의 학문적 구조와 발견·탐구학습을 강조한 결과로 수학·과학 등 일부 교과에서 학습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는 순수지식·추상적 지식을 거의 절대적으로 강조하여 저학년 교과목에서부터 어려운 개념이 도입되거나 탐구학습을 강조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제시함이 없이 탐구문제만을 제시한 데서 온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지식의 실용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여 일상생활과 관련한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다. 교과목 위주의 분과 교육

지식의 학문적 성격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에서 학문간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부터 교과로 분리된 지식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교과목 위주의 교육은 수업을 아동의 다양한 흥미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하며 탐구과정을 분산된 지식 영역의 범주 안에서만 강조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에 보다 적절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탐구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의 방향탐색, 1979; 현행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및 개선방향, 1979;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실태 조사연구,” 1980;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의 관심 및 요구조사 연구,” 1980;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1980.

· 문교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1980; 한국교육 30년, 한국교육 30년 편집위원회, 1980.

라 기초 교육, 일반 교육의 소홀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지식의 전문화를 강조함으로써 일반교육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와는 달리 실질적인 문제로서 실업고등학교의 경우 실업·기술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고등 보통교육이 너무 소홀히 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미래의 고도산업사회, 지식산업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인력은 신체 동작기능에만 충실한 기능공이 아니라,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 창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화 적응력으로서의 기초적 자질을 갖춘 고급기술인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행 기능적 기술교육위주의 실업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교과 기술교육은 튼튼한 기초 보통교육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에 대한 요청이다.

마. 전인 교육·인간 교육의 미흡

이 문제는 교육과정의 측면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과 입시제도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의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지식을 강조한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에 기인하는 바도 없지 않다. 즉 학습할 내용이 어려워 학생들이 학문적 지식을 아는 데에만 전념하게 되고, 또 동일교과의 수준이 획일화되어 있어 학생의 능력에 맞는 학습프로그램을 선택할 여유가 없고, 그러한 결과로 주지과목 이외의 교과들, 도덕적 심미적 교과와 특별활동이 소홀히 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준비에 치중하고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기능적 기술교육에 치중하여 다같이 기초일반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전인교육, 인간교육이 경시되고 있다.

② 교육과정 개정의 이유

제3차 교육과정을 개정할 첫째 이유는 이상에서 언급한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내용을 지식의 학문성에서뿐만 아니라 유용성 면에서 적합하도록 정선하고 그 수준을 적정화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둘째 이유는 80년의 교육 정당화를 위한 7. 30 조치에 따라 대량 고등 교육체제로 우리나라 교육이 전환된 데 대한 대책으로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7. 30 조치로 단행된 대학 입시 제도의 개혁은 우리 나라 고등교육을 개방 체제로 접근시킨 획기적인 조치였다.

이 개혁이 단행된 동기는 과열과외라는 비정상적인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적 노력

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대량 고등교육체제로의 진입을 단순한 과열 과외 병폐 해소라는 소극적 측면에서 보다 미래의 개인적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근원적으로 고등지식사회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왜 우리가 고등학력 또는 고등지식사회로 이행하여야 하는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답을 구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특수상황에서 개인적, 사회적 진로개척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즉,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여건 하에서 우리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두뇌산업, 지식산업으로 활로를 열어야 할 것을 전망할 수 있다. 즉,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국민의 지력과 사고력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산업구조로 우리 나라의 산업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전망에 대한 관찰은 교육과정 개편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의식과 과학 기술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현실과 이에 파생되는 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남북분단의 현실과 냉엄한 국제사회의 환경 속에서 우리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정치발전의 미숙은 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함을 우리 사회는 10. 26 사태와 그 이후의 경과를 통해서 입증하여 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공동체의식형성을 위한 국민정신교육은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현실과 관련하여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국민정신교육이 과거에도 자주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정치와 사회의 변동에도 원인이 있지만 교육이 종래에 단편적·형식적 접근에 머무른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 국민정신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개념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요소를 체계화할 것이 요청된다.

2)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① 우리 나라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과 교육의 과제⁵⁾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 나라는 이제 중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으며 오늘의 초·중·고 학생들이 활약하게 될 2천년 대에는 선진국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이승윤, “교육과정 탐색의 방향: 경제적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방향탐색,” (한국교육개발원) 1979.

5) 신세호 외 5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0), pp. 109-114.

그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갈망하는 새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구는 민주주의가 토착화되고, 사회 정의가 구현되며, 국민의 복지가 실현되는 사회의 건설이다. 이러한 전망은 미래 사회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라기 보다는 우리 국민의 의지가 담겨진 지향 목표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제와 요인으로서 교육의 힘이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토착화, 정의사회의 구현, 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한 미래 전망과 이의 실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민주 사회

우리의 미래 사회는 자유와 평등의 보편적인 원리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사회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며 국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의정치가 이루어지고, 공익을 앞세운 자유 경쟁의 경제체제가 실현되는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민주사회에의 꿈은 그간 남북대결에 따르는 긴장과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한계상황 속에서도, 각박한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정과 총화를 이루어야 했던 힘겨운 정치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기면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야 했던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온 국민이 꾸준히 추구해 온 이상이었다.

민주사회에 대한 국민의 꿈은 1980년대에 와서는 토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는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 데다 선진국 대열에 접근해가고 있는 국민경제의 잠재력과 이에 따르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 및 남북대결에서의 우위 확보 등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이다.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정신의 함양이 필요하다. 자유를 누리되 이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다수의 의사에 의한 결정에 따르되 소수의 의사를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의 이해에 앞서 공익을 생각하며 국가발전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적 능력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육은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고도 산업 사회

우리 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계속하게 될 것이며 1991년에는 국민총생산이 1975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볼 때 4배 이상에 달하는 고도 산업 사회화되어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광공업과 사회간접자본의 구성비가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노동 공급원인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3%씩 증가하여 1991년에는 총 취업자수가 약 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고용구조의 개편이 예상된다. 즉, 유희 노동력과 잠재 실업군을 노동생산성이 높은 2·3차 산업으로 흡수해야 하며 농업부문의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고용구조는 산업 구성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격면에서도 현저하게 고도화 될 것이다. 중화학공업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의 발달로 전체 취업인구 중에서 과학기술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할 것이며 특히 과학기술자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 예측된다.

그러므로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은 일부의 선택적인 사람에게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전 국민의 자질을 계발하고 향상시키는 대량의 고등교육으로의 개방체제로 나가야 할 것이다.

고도의 산업체제를 유지·발전시키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고도의 적응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또한,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지식과 정보 속에서 본질적인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며 전이효과가 높도록 학습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아울러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과 같은 고등정신기능을 배양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는 지식보다 지적 능력을, 단순한 사실보다 기본적인 개념체계를 탐구하게 하며, 응용된 기술의 습득보다는 기초 원리를 이해하게 하는 등의 기초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 건전한 사회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산업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병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갈등, 물질만능사조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조리, 기계화된 사회에서 비롯되는 인간소외 현상, 그리고 인간성의 상실에서 연유되는 각종 범죄 및 청소년 문제, 가정 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노후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된다.

이러한 병리현상은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풍요로운 물질문명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는 구현되지 않는다.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건전한 정신풍토가 형성되어 인정과 의리가 넘치고 서로 신뢰하며 정직하게 노력하는 자가 대우를 받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인간교육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을 위한 가치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여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관념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문화 사회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 빈번해지는 국제간의 교류로 인하여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며, 외래문화의 유입에 따른 문화적 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적 주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장점을 살리면서 유용한 외래문화를 섭취하여 재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 등의 물질 문명의 발달에 맞추어 예술과 종교 등의 정신 문화를 창조하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전통 문화의 가치를 재음미·재정립하고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달에 유용한 외래 문화를 선별할 수 있는 안목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 통일 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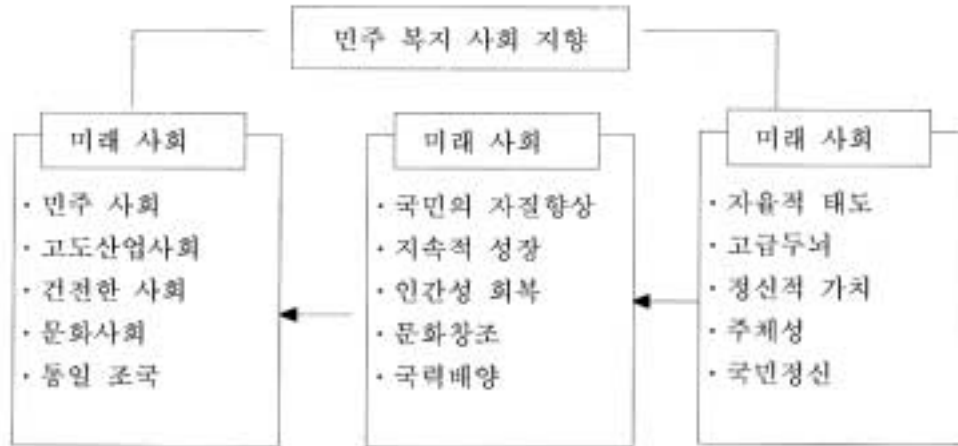
해방 후 35년에 이르는 민족의 분단 상황은 그 동안 우리 민족 모두에게 슬한 비극과 역경을 안겨 주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에 있어서도 과다한 국방비의 부담, 계속되는 긴장 속의 대치, 국제사회에서의 끝없는 외교전 등 힘겨운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국가발전과 복지사회의 상황 속에서 민족의 동질성이 무너지고 민족문화가 변질되어 영원히 화합하기 어려운 「남」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국의 통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염원이며 기필코 이룩해야 할 민족적 과제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일면으로는 힘, 일면으로는 대화라는 양태로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대화에서 우위적 입장을 유지하기 위한 국력의 배양과 정신적 단결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에서는 우리의 민족 정통성과 민주사회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 그리고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는 국민정신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밝힌 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1〉 우리 나라 미래 사회와 교육의 과제



(3) 교육과정 개정의 경과⁶⁾

1) 편수행정 기구의 개편과 구조조정

제3차 교육과정의 말기에 해당하는 1977년은 문교부의 교육 내용 행정사상 잊을 수 없는 중요한 기록을 남긴 해였다. 당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편수관들이 교과서 검정과 관련된 교과서 출판사와의 비리 의혹 때문에 거의 전원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던 매우 불행한 ‘검인정 교과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중대 사건을 계기로 편수 행정 조직과 역할 기능은 대폭적인 개편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육내용 행정의 일대 전환기가 바로 이때라고 할 수 있다.

첫째, 1977년의 ‘검인정 교과서 사건’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편수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개 채용 시험에 의하여 임용되었다. 그 당시 엄격한 공개 채용 관문을 통과하여 교육 연구관이란 직명으로 임명된 편수직은 박용진(역사-공주교대 교수), 이광섭(체육-안동교대 교수), 문찬호(물리-청주교대 교수), 이광복(수학-안동교대 교수), 정태위(도덕-진주교대 교수), 김동규(수해운-여수 수산 전문대), 박병호(사회-서울고), 정완호(생물-서울고), 김동식(화학-경북사대부속고), 송병선(상업-선린상고), 전동기(영어-서울교육청), 이태식(미술-서울 교육청) 등으로서 교육대학 교수들의 대거 전입이 특히 눈에 띄었다.

둘째, 편수 업무를 전담하던 편수국이 1978년 3월 장학실과 통합되어 장학실이 크게 비

6) 함수근,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pp. 74-95 를 참고하여 정리함.

대해지는 기구상의 대 변화가 있었다. 편수와 장학 기능이 통합된 장학실은 실장 밑에 장학 업무에 두 명의 담당관(교육연구, 새마을 교육)과 편수 업무에 네 명의 담당관을 두고 있었다. 즉, 편수 행정은 인문교육 담당관, 사회과 교육 담당관, 과학교육 담당관, 교과서 행정 담당관이 맡고 있었다. 인문, 사회과, 과학 교육 담당관실에는 국장급 장학관을 담당관으로 하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 32명의 전문직이 교과목별로 배치되어 편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교과서 행정 담당관실에는 부이사관 밑에 서기관과 사무관 등 8명의 일반행정직이 배치되어 편수와 발행에 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셋째, 제4차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문교부의 편수 업무 담당 부서에 특기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문교부 측의 기획, 조정, 종합 등의 역할을 담당할 부서를 창설한 점이다. 그 당시의 문교부의 편수 업무 담당 기구는 인문교육 담당관(최식근 장학관), 사회교육 담당관(박용진 장학관), 자연교육 담당관(김인숙 장학관), 교과서 행정 담당관(이홍업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었다. 여기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교육과정 심의관’을 1979년 4월 임시로 추가해서 설치했다. 당시 교육과정 심의관은 박용진 사회교육 담당관이 겸임하였고, 사회과 교육 담당관실의 정태위 교육연구관과 새마을 교육장학관실의 함수곤 교육연구사가 교육과정 심의관실에 배치되었다.

직제에도 없는 기구로 새로 발족한 교육과정 심의관실은 인문, 사회과, 과학교육 담당관실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과정 개정 추진의 기획, 연락, 조정, 종합 업무 기능을 수행하면서 한국교육개발원과의 공동연구 추진의 창구 역할과 협조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였다. 교육과정 심의관실은 1980년에 직제 개편을 단행하여 장학실에서 편수 기능이 독립되어 편수국으로 다시 환원될 때 정식 기구로 확정되었고 부서의 명칭도 ‘교육과정 담당관실’로 변경되었다. 초대 교육과정 담당관은 박용진 장학관이 임명되었고 손재수, 정태위 교육연구관과 함수곤, 윤병호 교육연구사 등 4명의 실무진으로 출발하였다. 편수국으로 독립 개편되면서 교과서 행정 담당관은 폐지되었고 그 대신 편수과와 발행과의 2개 과가 새로 생기게 되었던 것도 이 때의 변화였다.

문교부의 편수국은 직제 개편에서 1978년에 폐지되어 장학실에 통합되었다. 필자는 1980년에 편수국이 다시 부활되어 운영되었던 1981년에 편수국장으로 취임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과용 도서의 편찬 업무를 수행하면서 편수 책임자의 자리가 3번 바뀌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편수국장에서 1981년에 편수총괄관으로, 그리고 1982년에는 편수관리관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편수직의 최고 담당자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업무나 편수담당자나 인원이 감축된 것은 전연 없었다. 교육부 직제 개편이 있을 때마다 도

마에 제일 먼저 오르는 것은 항상 편수진용이었다. 한 나라의 교육제도 운영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교부의 부서는 편수기능을 담당하는 편수진용이다. 그래서 문교부에서는 편수기능을 문교부의 핵이라고 말한다. 사실 국민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편수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핵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수에 대한 그 중요성의 인식과 실제 직제 개편과는 항상 차이가 있었다.

제4차 교육과정 당시의 교육부 편수 조직의 직제 상 변천 과정은 <표 V-1>과 같다.

<표 V-1> 제4차 교육과정 당시의 교육부 직제 변천 과정



자료 : 유위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미출간 원고), pp. 128-129.

편수진은 전부가 전문직이다. 편수담당자야 말로 교육의 전문직 중에 전문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과와 내용체계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지도기술에 탁월성을 지닌 전문

가라고 할 수 있다. 편수담당자는 누구건 교과와 관련되는 사회적 상황의 변천, 교과에 대한 철학, 내용체계, 지도방법과 적용 및 해당 학생의 특성과 학교운영 상황 등을 파악하고 그 교과의 구성내용과 실천상황을 예상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전문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편수담당자는 학문적 견해와 전문적 능력 및 연구적 태도를 갖고 그 직에 임해야 한다. 그리하여 편수 담당자는 교과에 관한 한 대학의 학문영역과 연계되어야 하며 실천을 전제로 학생의 수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교과의 현장적용을 위하여 학교 환경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교과에 관련되는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편수직은 안정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그 자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제4차 교육과정 개정의 경과와 담당자

가. 개정의 경과

제4차 교육과정은 이러한 구조조정과 대 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제4차 교육과정의 개정과 관계없이 이미 1977년부터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조직적인 연구 개발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많은 연구 보고서가 나온 것은 우리 나라 교육과정 연구사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으로 기록될 수 있다. 특히 1979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문교부로부터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을 정식으로 위탁받은 후부터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한 기초 연구의 주제와 연구자, 연구 시기 등을 살펴보면 <표Ⅴ-2>와 같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연구를 구분하면, 크게 교육과정 정책 및 방향 모색과 관련된 연구, 현행 교육과정 분석 및 외국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연구, 학교 급별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교육과정 정책 및 방향 모색과 관련된 연구로는 ‘교육과정 정책과 그 운영의 개선점’,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 등을 들 수 있으며,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는 ‘특별활동의 위치와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학교 급별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선연구’, ‘중학교 교육의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와 각종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밖에도 현행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등 외국의

〈표 V-2〉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한 교육과정 관련 기초 연구

연구주제	연구자	년도	비고
1. 사회과 교육과정의 구조화를 위한 연구	정세구, 한명희, 송용의, 한정자	1977	위촉연구
2. 교육과정 정책과 그 운영의 개선점	강우철	1978	
3.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	이영덕, 박도순, 송용의, 유원영	1978	
4.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	신세호, 이병호, 김재복	1979	세미나보고
5.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 및 개선방향 탐색	황정규	1979	위촉연구
6. 학교교육 목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분석	김종복, 정영수, 강승규	1979	위촉연구
7.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	장언효, 임세운, 강선보	1979	
8.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김재복, 배호순	1979	
· 교육과정에서의 특별활동의 위치와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함종규, 정태위, 손재수, 윤병오		
· 각급 학교 교과 조직에 관한 연구	강우철		
· 초·중·고·대 국민윤리 (도덕 교육내용의 재검토)	박용현		
· 교육과정의 적합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이상주, 이미나		
·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개선에 관한 연구	김은진, 최현섭		
· 정치 발전을 위한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정세구, 김기열, 박병호, 박관봉		
· 학교급별 국가교육 내용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이원순, 김용만		
· 초·중·고 격리 교육과정의 구성에 관한 연구	이 찬, 엄덕순		
· 외국어 교육과정 상세화를 위한 연구	문 용		
· 중학교 교육과정 내용(체·윤·미) 선정 을 위한 기초 연구	이금세, 이광섭, 이태식, 최종진		
· 과학과 개념개통 탐색에 관한 연구	박승제		
· 국민학교 과학내용의 통합단원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오계철, 문환호		
· 중학교 수학에 있어서 타교과에서 필요 로 하는 수학내용의 선정에 관한 연구	김지영		
· 설립계 고등학교 유사 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분석 연구	송해균		
·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개정방향 탐색	현기순, 한희수, 이정숙		

연구주제	연구자	년도	비고
· 공업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이재원		
· 공업고등학교 전력과 직업분석에 관한연구	원종수		
9.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이영덕, 남억우, 신세호, 이병호, 김재복	1979	
10. 중학교 교육의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장석우, 전성연, 한글원, 이영재, 오해영	1979	
11. 농업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곽상만, 강성원, 윤인경	1980	
12.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 분석 연구	이용건, 이돈희, 김종서, 이홍우, 김순택	1980	
13.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실태 조사연구	안귀덕, 배호순, 현 주	1980	
14.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의 관심 및 요구 조사	안귀덕, 배호순, 현 주	1980	세미나보고
15. 학교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발전방향 탐색	신세호, 김윤태, 윤정일, 전성연, 서정화, 안귀덕	1980	
16.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유형별 적용 연구	곽상만	1980	
1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신세호, 안귀덕, 김재복, 진권장, 배호순, 현 주	1980	
18. 공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이정근, 김만길, 김영우, 김진구, 최두영	1980	
19. 새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술계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	이정근, 윤인경	1981	위촉연구
20.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류성규, 이병기, 이 진, 여금희	1981	위촉연구
21.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김동기, 김철호, 최광희, 황호중	1981	위촉연구
22.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맹해열, 박경자, 손재원, 이은영, 홍문자	1981	위촉연구
23.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송해균, 박원경	1981	위촉연구
24. 공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및 목표 설정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 충남 대학교공업교육연구소	1981	위촉연구
25. 공업 고등학교 분야별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	이진우 외 10인	1981	
26.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가정 교육과정 개선 연구	곽상만, 김성수, 전경숙	1981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문교부는 1978년 6월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발 업무를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정책을 확정하였고, 한국교육개발원은 정관에 ‘교육과정 개발센터’(Curriculum Development Center : CDC)의 기능과 업무를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문교부에서는 교육과정과 1종 교과용 도서의 연구 개발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79년 1월부터 교육과정 연구부를 설치하였다. 교육과정 연구는 교육과정 연구 조정실과 10개의 교과 교육 연구실을 두고 교육과정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까지 문교부 편수관 주도형이었던 교육과정 개발 및 결정체제가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은 연구기관 위탁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문교부와 연구기관의 새로운 역할 분담체제의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교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편수 업무의 한계와 역할 등을 합리적으로 분담 조정하기 위하여 1979. 2. 26과 4. 17 두 차례에 걸쳐 관계자 협의를 가졌다. 참석자는 문교부의 김상준 장학실장을 비롯한 편수 담당자 15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영덕 원장과 교육과정 연구부 연구원 14명, 그리고 외부 관계자로서 김종서(서울대) 교수와 강우철(이화여대) 교수였다. 이 협의에서는 교육과정 연구 개발 및 결정에 있어서 양 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조 체제, 교육과정 개발 일정과 업무 내용, 그리고 참여 인사 등에 관하여 주로 논의하고 확인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은 당초 1979년에 국민학교 교육과정, 1980년에 중학교, 1981년에 고등학교의 순으로 단계적인 개정 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런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1980년 7월 30일 ‘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이라는 교육개혁조치를 갑자기 발표하였다.

당시의 교육개혁 조치의 중요한 골자는 ‘과외금지’와 ‘초·중등학교 교육내용의 양의 축소와 수준의 하향 조정’이었다. 즉, 지금까지의 초·중등 교육내용의 학습량이 과다하고 수준이 난해한 것이 과외의 원인이라고 보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축소·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던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제4차 교육과정 개정 계획은 당초의 학교 급별 단계적 개정 방침을 변경하게 되었던 것이다. 문교부는 1980. 10. 13. 한국교육개발원에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

〈표 V-3〉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문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 분담

절 차	기능 분담		참 여 인 사								
	문 교 부	국 교 육 개 발 원	사 회 각 계 대 표	학 계 대 표	교 과 전문 가	교 육 심 리 학 자	교 육 과 정 전문 가	교 육 행 정 가 (교 장)	교 육 평 가 전문 가	학 교 교 사	학 생 학 부 모
1. 교육과정 개정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개정 정책안 수립 · 심의·의결 · 교육과정 개정 정책확정 	●	▲									
2. 교육과정 개정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개정 계획 작성 · 교육과정 개정안 작성 의회 	●	▲					○				
3. 현행 교육과정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분석 기준 설정 · 교육과정 분석 · 교육과정 분석결과검토 협의 		●	△	△	○	○	○	△	△	○	△
4. 교육과정 개정 기본방향 및 학교급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방침안 작성 · 학교 급별 일반목표 작성 · 심의·의결 	▲	●			○		○		△	△	
5. 학교 급별 교육목표의 상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별 목표전술 · 학년별 목표전술 · 검토·협의 		●	○	○	○	△	○	△		○	
6. 교육내용의 선정 및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의 범주결정 · 내용 체계 작성 · 내용의 학년 수준 결정 · 검토·협의 		●			○	△	○	△	△	△	
7. 심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기준작성 · 심의(심의회, 공청회) 	●		○	○	○	△	○	△	△	△	△
8.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결과 종합 · 수정, 보완, 확정 	▲	●			○	△	○	△	△		○
9. 확정 및 고시	●										

10. 모니터링	●	▲		△	○	△	○	△	○	○	○
• 모니터링 대상 선정											
•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결과 협의 검토 및 반영											
11. 교원연수	●	▲		△	○	△	○	○		○	
• 연수계획 작성											
• 연수교재 개발											
• 연수실시											
• 결과점검											
12. 장학	●				△		△	○		○	
• 장학계획 준비											
• 장학자료 개발											
• 장학실시											
• 결과점검											

표시 : ●표 주관, ○표 주된 역할 담당자, ▲표 협조, △표 참여 인사

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정안 연구 개발'을 새로이 위탁하기에 이르렀다. 그 위탁 내용의 골자는 새 교육과정은 가급적 교과목수를 축소하고, 내용 수준을 하향 조정할 것과 1981년 7월 31일까지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개정안을 모두 연구 개발하여 문교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위탁을 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은 1980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연구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고 교육과정 연구 위원회도 다시 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은 <표 V-3>에서 제시한 바 있는 문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 분담을 근거로 하여 제4차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및 확정 절차를 <표 V-5>와 같이 결정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의 총론 개정안은 1980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총론안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먼저 작성한 후 총론 초안 수정 보완 실무진 협의회에서 다듬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이 협의회는 문교부, 한국교육개발원, 외부 교수 등 3자 합동으로 구성되었고 1981년 2월에 5회 정도의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실무진으로 참여한 인사는 문교부 측에서는 박용진, 함수곤, 강기주, 문찬호, 임덕순, 이병진이었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신세호, 김재복, 곽상만, 안귀덕, 곽병선, 이연섭, 박혜정이었다. 그리고 대학 교수로서는 김중서, 이돈희, 황정규, 함종규가 참여하였으며, 이들 실무진은 총론 초안을 직접 작성,

검토, 수정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총론 개정안은 1981년 3월 12일 최종적인 교육과정 연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교육과정 개정안(총론)의 연구 개발’이라는 제목의 답신 보고서로 1981년 3월 31일 문교부에 제출되었다.

문교부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4차 교육과정의 총론 안을 보고 받아 1981년 4월에 집중적인 심의를 하였다.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교육과정 심의회’는 각 학교 급별

〈표 V-4〉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현황

구 분		교육개발원 연구원	문교부 관계관	대학교수	학교장 및 교사	계	연구 책임자
총 론		14	11	18	5	48	신재호
유 치 원		10	7	25	5	47	박해경
국 민 학 교	도 덕	5	2	11	2	20	안귀덕
	국 어	2	3	8	1	14	이병호
	사 회	7	6	17	7	37	한면희
	산 수	4	2	11	6	23	안희중
	자 연	9	5	11	6	31	한종하
	체 육	3	1	10	1	15	류삼태
	음악	3	1	12	7	23	김재복
	미술	3	1	10	4	18	김영태
	실 과	2	3	9	3	17	이정근
	복 활	2	1	4	6	13	진권장
계		54	36	121	48	259	
중 학 교	도 덕	5	2	11	2	20	안귀덕
	국 어	2	3	13	3	21	이병호
	국 사	2	3	4	2	11	한면희
	사 회	7	6	17	7	37	한면희
	수 학	4	2	10	6	22	안희중
	과 학	9	5	10	7	31	한종하
	체 육	2	4	15	9	30	류삼태
	음악	3	1	12	8	24	황명훈
	미술	3	1	10	7	21	김준일
	한 문	8	4	12	6	30	이병호
	실업·가정	16	10	17	27	70	이정근
	외 국 어	4	1	8	1	14	이희숙
	복 활	3	1	3	9	16	진권장
계		70	41	142	64	347	

구분	교과명	교육개발원 연구관	문교부 관계관	대학교수	학교장 및 교사	계	연구책임자
고 등 학 교	국민윤리	5	2	11	1	19	박천환
	국 어	6	4	14	3	27	이병호
	사회(국사포함)	7	6	17	7	37	한면희
	수 학	4	2	10	6	22	김진락
	과 학	15	4	24	12	55	한종하
	체 육	5	2	13		26	류삼태
	교 련	5	2	6	7	20	류삼태
	음 악	3	1	12	6	22	황병훈
	미 술	3	1	10	8	22	김춘일
	한 문	3	4	12	6	25	이병호
	외국어	27	6	22	1	56	이희숙
	실업·가정	21	13	16	30	80	김성수
	특 활	3	1	3	8	15	진권장
	실업계 총론	3	8	9	13	33	곽상만
	농업계	2	4	4	13	23	곽상만
	공업계	4	13	32	31	88	이정근
	상업계	3	2	5	15	25	곽상만
	수산·해운계	3	1	11	7	24	곽상만
	가사·실업계	2	1	5	7	15	이옥임
	체육계	4	2	3	11	20	류삼태
	계	128	79	249	198	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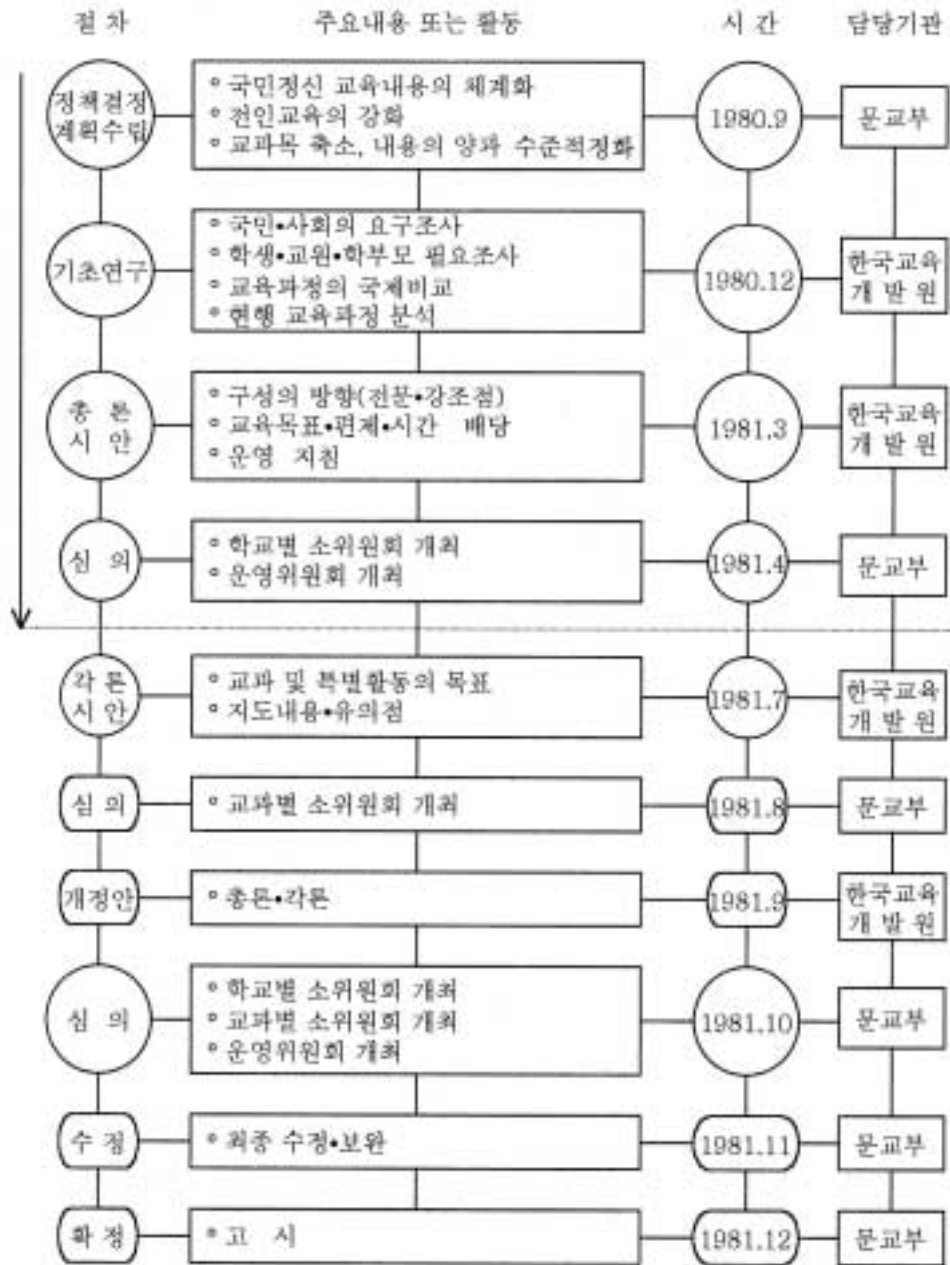
소위원회와 교과별 소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는 학교 급별 소위원회에서 주로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각급 학교의 교육 목표와 편제, 운영지침 등에 대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이 심의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문교부와 한국 교육 개발원의 실무진은 총론 안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은 <표 V-3>에서 제시한 바 있는 문교부와 한국교육 개발원의 역할 분담을 근거로 하여 제4차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및 확정 절차를 <표 V-5>와 같이 결정하였다.

〈표 V-5〉 제 4차 교육과정 연구 개발 및 확정 절차

총론안의 연구·개발	각론안의 연구·개발
<p>(1) 기초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운영실태 분석 · 외국의 교육과정 국제 비교 ·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분석 · 미래 사회에서의 인간상 규명 · 기초 연구 결과 검토 및 정리 <p>(2) 총론안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목표 추출 및 편제안 작성 · 초·중·고 계열설 및 편제안의 내용 협의 · 총론 초안 작성 및 운영지침 진술 · 총론 초안 검토 협의 · 총론 초안에 대한 외부 의견 조사 · 총론안 수정·보완 및 문교부 제출 <p>(3) 문교부 심의 및 수정·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 심의 ·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 수정된 안의 검토 협의 · 검토 결과 반영 	<p>(1) 교과별 기초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교육과정 문제점 분석 · 국제 비교 연구 · 기초 연구 결과 검토 및 정리 <p>(2) 교과별 목표 추출 및 내용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방향 설정 · 기본 방향에 대한 검토 협의 · 목표 상세화 및 체계표 작성 · 내용 선정 및 체계표 작성 · 목표 및 내용 체계표 검토 협의 · 목표 및 내용 체계표 수정·보완 <p>(3) 교과별 초안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및 내용 진술 · 평가시의 유의점 진술 · 진술된 초안의 검토 · 초안의 수정·보완 · 수정된 안의 검토 협의 · 초안의 재수정 및 문교부 제출
교육과정안의 평가 및 확정	
<p>(1) 문교부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기준작성 · 교육과정 안에 대한 심의회 개최 · 수정·보완될 사항 통보 <p>(2) 공청회 또는 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개최 · 교육과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p>(3) 교육과정안의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 심의결과 · 공청회 결과 · 교육과정안의 수정·보완 · 보완된 안의 검토·협의 · 안의 수정 및 문교부 제출 <p>(4) 문교부 심의 및 고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 심의 · 문교부에서의 수정·보완 · 결재 및 확정·고시

〈그림 V-2〉 제 4 차 교육과정 개정 절차



한국교육개발원은 초·중등학교의 각 교과 교육과정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각 계열별 교육과정도 1980년부터 총론과 병행하여 그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중등학교 각 교과 교육과정의 체제, 진술방식 등에 대한 조정은 김재복이, 실업계의 각 계열별

교육과정의 조정은 학사만이 각각 담당하였다. 그리고 문교부에서는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 조정을 맡게 되었다. 유치원, 초등학교는 함수곤 연구관이 중·고등학교는 이상룡 연구사가, 실업계 고등학교는 윤병호 연구사가 각각 그 기획과 조정, 종합을 담당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V-2〉와 같다. 제4차 교육과정 개정과정 요약하면, 먼저 국가·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며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져 개정의 방향과 그 구체적 추진 계획이 수립된다. 이렇게 기본정책이 결정되면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가 광범위하게 수행된다. 국가·사회의 요구를 분석하고, 학생·교원·학부모의 필요를 수집·분석하며, 바람직한 인간상이 무엇인가를 탐색한다. 또한, 외국의 교육과정 현황을 관찰·비교하고 기존 교육과정의 여러 장단점을 검토한다. 이러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총론과 각론의 개정 초안이 만들어진다. 만들어진 초안은 문교부의 자문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와 결정기관인 장학편수실의 편수담당 전문직에 의해서 검토 조정되어 확정된다. 확정된 교육과정은 고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 교육과정의 적용은 교원연수, 교과용도서 개발로 연결되어 학교현장으로 보급되는 것이다.

② 교육과정 개정 담당자

제4차 교육과정 개정 기간은 편수 행정 기구의 개편과 구조조정이 있었고 조직이 매우 불안정하였던 시기였다. 즉, 1978년 3월 14일 종전의 편수국이 장학실과 통합되어 ‘장학편수실’이 되었다가 1980년 2월 27일 편수국은 다시 장학 편수실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하였고, 그후 1981년 11월 2월에는 편수국이 또 다시 장학 편수실로 재통합하기에 이르렀다.

제4차 교육과정의 개정 중에 편수국이 이렇게 통합 - 분리 - 통합의 불안정한 변화를 거듭하다 보니 이에 따라 편수행정의 책임자도 빈번하게 교체되었다.

첫째 통합시 장학 편수 실장은 김상준(후에 문교부 차관, 서울 교육감 역임)이었고, 분리 독립된 후 편수국장은 장기옥(후에 중앙 교육평가원장, 문교부 차관 역임, 대천대 학장)에 이어 정태수(후에 국보위 상임위원, 문교부 차관 및 대진대학교 총장 역임), 그 후임으로 김찬재(후 문교부 차관, 사학 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그 후임으로 필자(그후 교직국제국장, 현재 한국교원대 교수)가 그 자리를 이었다. 그러나 재직시 장학편수실로

다시 재통합되는 직제 변경을 겪었다.

편수국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일반행정직 국장이 독점하고 있다가 필자가 편수국장이 됨으로서 근래에 와서 비로소 전문직이 그 소임을 맞게 되었다. 필자는 편수국이 후에 다시 장학실에 통합되는 바람에 ‘편수총괄관’이란 직명을 3개월 동안 갖게 되었고, 후에 ‘편수 총괄관’ 직은 다시 ‘편수 관리관’이란 직명으로 바뀌는 변동을 겪게 되었다.

필자는 제4차 교육과정의 개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부임하여 편수 행정에 사명감을 갖고 전문직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때 필자는 국장으로서 우선, 편수기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의 핵을 구성하는 편수를 문교부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려고 노력하였다. 한 때는 집현전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없는가를 검토한 적도 있다. 업무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개편 시마다 도마에 오르는 변동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특수한 조직으로 부상시키려고 노력해 본 적도 있다. 그리하여 편수 업무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노력하였다. 다음, 편수 조직의 강화와 사기 양양을 위한 부내 인사의 쇄신에 역점을 두었다. 편수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편찬에 관한 지식과 경험 및 현장경험이 업무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문성이 적은 외부 인사 기용이 아니라 전문성을 고려한 내부 승진을 위주로 인사를 단행하였다.

그 다음, 교육과정의 개발에서 그 내용의 체계를 세우는데 기여하였으며 교과를 통합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초등의 통합교육과정, 중학교의 통합교육과정이 개발되었고 실업계 고교에서는 새로운 교과서(농업발전, 공업입문 등)를 추가하게 되었으며 교과와 단원 전개과정의 모형을 개발하는 등 여러 업무를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개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시기에는 워낙 많은 교과서를 단시일에 개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으로서 챙기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았다. 그리하여 경영기법인 퍼트(PERT)⁷⁾를 활용하여 300권이 넘는 교과서 개발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다. 따라서 모든 편수담당자들은 퍼트의 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과서 개발과 관련되는 업무의 진도 상황을 국장에게 보고하여 협의토록 하였다. 그 때마다 필자는 편수담당자들의 교과서 개발과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고받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제4차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편찬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첫째, 일본 교과서의

7) PERT는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라는 글귀의 두음을 따서 만든 합성어로서 프로그램 평가기법 또는 프로그램 진도관리 기법 등 여러 가지로 불리어지고 있다.

한국사 왜곡사건을 들 수 있다. 이 때가 일본 교과서의 검정기간이었다.

일본 교과서 검정 중에 왜곡과 관련되는 일본 교과서(일본사, 현대사회)를 일본 현지에서 구입하여 소위 1982년 “일본 교과서 왜곡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1982년 7월에 시작되어 연일 신문을 장식하다가 9월 정기 국회의 문공위원회에 왜곡사건의 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절정을 이루었다. 일본 정부에서도 왜곡 부분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였고 문부성에서도 시정의 약속을 하였다. 그 후에 편수국에서는 이 사건의 마무리로서 독립기념관을 짓는 기초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때 문교부에서는 “민족박물관”으로 출발하여 만들어진 계획안을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광복기념관”으로 한정하였다. 이 계획으로 “광복기념관” 건립 발기대회까지 마쳤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발기 대회까지 문교부가 맡아서 하고 그 후 건립은 문화재 차원에서 문공부가 맡아서 건립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인수받은 문공부에서는 발기 대회 다음날 “독립기념관”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이것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이다.

둘째, 교과서 발행권의 분배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특히 종전에 국정으로 되어 있던 교과서를 이번에는 검정으로 풀면서 발행권을 일반 인쇄회사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교과서의 분배과정에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 엄청난 이권을 준 것처럼 신문지상에 발표되었으나, 실업계 교과서와 중학교 교과서와를 배합함으로써 일반 교과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에 의하여 그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 개정기의 편수행정 지원체제는 ① 통합기의 교과서 행정 담당관실, ② 분리 독립기의 편수과와 발행과, ③ 재 통합기의 편수 관리관실의 순으로 변동되었다.

교과서 행정 담당관은 이홍업 부이사관에 이어 손용환 부이사관이었고, 편수과장은 정충희, 정희천, 광병광, 김하준, 김상동 서기관 등이 제4차 교육과정 개정기에 근무하였다. 발행과장은 김영희, 이경화 서기관이 맡고 있었는데, 이경화 과장은 제4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개편시 판형과 지질, 색도, 제본 등의 교과서 품질 개선에 노력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의 개정의 주역으로 참여한 각 담당관실의 편수 전문직원의 면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교육과정 담당관실

편수국이 장학실과 통합된 후 편수관들은 과거와는 달리 인문, 사회, 과학 편수관실로 나누어 배정되었다. 그런데 종래의 수석 편수관이 맡아하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의 기획, 조정, 종합의 업무를 담당할 기구의 필요성 때문에 창설된 것이 직제에도 없는 ‘교육

과정 심의관실'이었다. 그 후 1980. 2. 27 정식 직제화 되면서 교육과정 담당관실로 정착되었다.

처음 직제에 없는 심의관은 당시 사회과 교육 담당관이었던 박용진 장학관(전 장학실장, 교원 공제회 이사장 역임)이었고, 그 후 박 장학관은 초대 교육과정 담당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1979년 4월, 제4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의 교육과정 담당관실의 전문직은 정태위 연구관, 함수곤 연구사로 출발하였으나 1979년 9월, 정대영, 윤병호 연구사가 보충되었다. 그 후 정태위 연구관(부산대 장학관 역임), 정대영 연구사(전 인천 선인고 교장)가 교육연구 장학관실로 진출되었고, 그 후임으로 학사 담당관실의 손재수 연구관(작고)과 인문 교육 담당관실의 이상룡 연구사(인천 제물포고 교장 역임)가 전입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의 개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81년 4월, 손재수 연구관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고 그 후임에는 함수곤 연구사(현재 한국 교원대 교수)가 연구관으로 내부 승진되었다. 1981년 3월, 박용진 담당관이 공주교육대학 학장으로 진출되었고, 그 후임은 교육연구 장학관실의 김상대 연구관(전 서울 중암여중 교장)이 담당관으로 승진하여 제4차 교육과정 개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나. 인문 교육 담당관실

제4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 초기에는 최식근 장학관이 담당관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가 1980년 별세한 후 한원영 장학관(국어 전공)이 뒤를 이어 제4차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였다. 한 장학관은 교육과정 개정 중 1983년 3월, 청주 전문대학 학장으로 영전하였다. 그 후임으로 사회과학 담당관실에 근무하던 전동기 장학관이 그 자리를 이었다. 그는 영어과 편수관으로 인문 교육을 담당하면서 체육, 음악, 미술에 관한 교과과정과 교과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국어과는 정진권(한국체육대 교수 역임), 최현섭(현재 인천 교육대 교수) 연구사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제4차 교육과정 개정기에 공보관실에 근무하던 이병진 연구사(현재 한국 교원대학교 교수)가 연구관으로 승진하여 국어과에 잠시 합류하였다가 다시 공보관실로 복귀하였다.

체육과는 이광섭 연구관(한국 체육대학 교수 역임), 음악과는 최종진 연구사(일본 후쿠오카 교육관 역임), 미술과는 이태식 연구관(서울 증산중 교장 역임)이 각각 맡고 있었다. 영어과는 최영옥 연구사(현재 한국 체육대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그 후 한정근 연구사가 담당하였다. 제2외국어는 박승표 연구사(현재 인천대 교수)와 양원 연구사(서울 오류중 교장 역임)가 맡고 있었다.

다. 사회과교육 담당관실

사회과교육 담당관은 이영교 장학관(작고)이었는데, 그는 제4차 교육과정 개정 초기에 참여하였고, 그 후에 김기열 장학관(그후 서울여중 교장, 작고)이 담당하였으며, 그 후임으로 전동기 장학관이 근무하다가 인문과학 편수관실로 가고 그 뒤를 이어 박병호 장학관(그 후 교장, 중앙교육연수원장 역임)이 내부 승진으로 그 자리를 이었다. 그는 사회과 편수관으로 사회과교육은 물론 도덕교육을 담당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정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도덕, 국민윤리과는 홍래 연구관(전 광신고 교장)과 김성환 연구사(현재 둔촌고등학교 교장)가 맡고 있었는데 1980년 3월 홍래 연구관이 서울시 중등 교육과장으로 전출된 후 몇 달의 공백기를 거쳐 7월에 한명희 연구관(편수국장을 거쳐 영등포고교 교장으로 퇴임)이 그 후임으로 전입하여 김성환 연구사와 함께 제4차 교육과정 개정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회과의 공민은 박병호 연구관(편수관리관, 중앙교육연수원장을 거쳐 잠신고 교장으로 퇴임)이 맡고 있었다. 박 연구관은 이데올로기 및 현실 정치문제 등과 민감한 관련을 가진 정치·경제 교과서의 편찬 때문에 남모르는 술한 괴로움과 애로를 극복해야 하는 시련을 겪었는데, 1978년 10월, 박찬봉 연구사(현재 경남 부교육감)가 전입하여 합류함으로써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지리는 임덕순 연구관이 충북대학교 교수로 전출되면서 그 후임으로 민흥기(현재 경기고 교장)연구사가 맡았고, 역사는 김용만 연구관(교육과정담당관, 사회과 편수관을 거쳐 일본 동경한국 학교 교장)과 윤종영 연구사(그후 금천고 교장 역임)가 맡았다. 김용만 연구관은 국민학교의 사회과 전체를 담당하여 사회과 교육의 체계화와 내용 및 방법의 개선에 공헌하였다. 그런데 문교부 편수국에서는 1982년 일본 교과서 한국사 왜곡부분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건을 일으켰다. 일본 교과서 왜곡사건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가 일본에 대하여 교과서 왜곡 부분의 시정을 요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그 후에 국회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어져서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에서도 이 사건의 해결에 성의를 보였다. 이 사건의 처리에서 초기에는 김용만 연구관이 담당하였고, 그 후 구체적인 왜곡 내용의 분석에는 윤종영 연구사가, 한국관 시정 사업에는 민흥기 연구사가 담당하였다.

라. 과학교육 담당관실

과학교육 담당관은 제4차 교육과정 개정 초기에 김학수 장학관(전 군산 수산 전문대학 학장)이 맡았고, 그후에 강기주 장학관이 담당하였다. 강 장학관은 수학과, 과학과 및 실

업계 교과과정 및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강기주 장학관은 “공업입문”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수학과는 이광복 연구관(현재 단국대 교수)이 제4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단국대 교수로 진출하였다. 그 후에 수학과는 안상술 연구관과 한갑주 연구사가 담당하였다. 그 후 안상술 연구관이 주일 한국대사관의 교육영사로 발령되고 난 후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김진락 연구사가 발령되었다. 한갑주 연구사가 현지 교감으로 발령되고 난 후 그 후임으로 강행고 연구사가 발령되어 중등 수학을 담당하게 되었다.

과학과는 물리 문찬호 연구관(서울 잠신중 교장 역임), 화학 김동식 연구관(서울 세륜중 교장 역임), 생물 정완호 연구관(현재 한국 교원대 총장), 지구과학 최명수 연구사(전 동호공고 교장)가 과학교과를 위한 탁월한 팀워크를 이루어 교과과정 개발과 교과서 편찬에 기여하였다. 가정과는 한의수 연구관(서울 신구중 교장 역임)과 이정숙 연구사(서울 중평중 교장 역임)가 맡고 있었다.

과학교육 담당관실은 기초과학에 관한 보통교과와 실업계 고교의 전문교과를 모두 맡고 있었기 때문에 타 담당관실에 비하여 훨씬 방대한 조직이었다. 한 실의 규모가 거의 20여명에 달하여 기초과학과 실업교육의 2개 실로 분리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였으나 끝내 그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전문교과에 있어서 농업과는 정성봉 연구사(현재 한국교원대 교수)가 맡았는데, 농업과의 하위 과목이 많아서 교과서 편찬시 정 연구사는 수십 권의 책을 혼자서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서 초인적인 편수관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정 연구사는 국민학교의 실과도 담당하였는데, 실과 교육 내용의 체계화와 개선에 공헌하였다. 그는 또한 “농업발전”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공업과는 기계 강기주 연구관(전 용산공고 교장)과 이상혁 연구관(현재 한국 교원대 교수), 전기 양재면 연구관(현재 서울산업대 교수), 토목 이혜정 연구사(전 용산공고 교장), 건축 안상덕 연구관(현재 서울 산업대 교수), 화공 최복식 연구사(작고), 전자 고석달 연구사(현재 한국 교원대 연구관) 등이 팀워크를 이루어 많은 전문교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상업과는 송병선 연구관(전 선린 상고 교장), 수산·해운과는 김동규 연구관(전 강원도 김화 여고 교장)이 각각 담당하였다.

이들은 상업 및 수산·해운이라는 교과의 교과과정 개발과 교과서 편찬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였다.

이들이 담당한 제4차 교육과정의 각론 개정안은 1981년 7월 31일에 문교부에 보고되었다. 이 개정안은 1981년 9월에 문교부의 교육과정 심의회 각 교과별 소위원회와 실업계 계열별 소위원회에서 검토와 심의가 있었다. 당시 문교부 교육과정 심의회의 학교 급별 소위원회와 교과별 소위원회에 참여하였던 심의 위원 현황과 각 소위원회별 문교부 담당자는 <표 V-6>와 같다.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절차를 거친 제4차 교육과정 개정안은 확정 고시를 앞두고 1981년 11월 20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 성격의 대규모 세미나를 갖게 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계의 전문가, 학계의 전문가, 교육현장의 전문가 등 4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5명의 발표자와 토론자의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공청회를 마친 후 문교부는 교육과정 담당관실을 중심으로 각 교과 담당관실의 교과 담당자들이 최종 검토와 정리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당시 문교부 이규호 장관은 1981년 12월 31일에 문교부 고시 제424호로 제4차 교육과정을 반포하였다.

새 교육과정에서 유치원과 국민학교 1, 2, 3학년, 그리고 4, 5, 6학년의 도덕, 사회, 중학교의 도덕과 국사, 고등학교의 국민윤리 및 국사는 1982년 3월 1일부터, 중학교의 전학년과 고등학교의 신입생은 1984년 3월 1일부터 전국의 각급 학교에 적용되었다. 특히 도덕과 사회, 국사를 1984년의 적용 예정보다 앞당겨 1982년부터 적용한 것은 사회의 이데올로기 문제와 도덕적 해이 및 5공화국의 정책적 기반을 닦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4) 제4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

1) 교육과정에서 기대하는 인간상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새 정부가 국정 지표로 밝힌 민주주의의 토착화, 정의 사회의 구현, 복지 사회의 건설에서 조명되는 미래 사회를 민주 사회, 고도 산업 사회, 건전한 사회, 문화 사회, 통일 조국을 전망하고 있다.

우리 나라 미래사회의 이상 실현을 위한 교육에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복한 개인으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건실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폭넓은 세계인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인간, 즉, 새 시대가 요구하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러한 인간을 길러내는데 부합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했다.

〈표 V-6〉 제4차 교육과정 심의위원 현황 및 문교부 담당자

구 분		문교부 관계관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교육 전문직	학교 교원	기타	계	문교부 담당자
운영위원회		4	14	3	1	7	1	30	박용진
국 민 학 교	소위원회	5	11	1	2	4	2	25	함수근
	도 덕	1	5	2	3	7		18	김성환
	국 어	3	5	3	1	6		18	최현섭
	사 회	4	10	1		5		20	임덕순, 박병호, 김용만
	산 수	1	10	1	2	2		16	안상술
	자 연	4	12	1	1	6		24	문찬호, 정완호
	체 육	1	12	1		3		17	이광섭
	음 악	1	8	2	1	4	1	17	최종진
	미 술	1	7	1	3	2	3	17	이태석
	실 과	3	7	3	1	5	1	20	정성봉, 한희수
특별활동		1	10	2	2	4	2	21	정태위
계		25	97	18	16	48	9	213	
중 학 교	소위원회	5	10	1	3	5	1	25	이상용
	도 덕	2	10	2	2	5	1	22	한명희, 김성환
	국 어	6	16	1	1	2		26	이병진, 최현섭
	국 사	2	20	1		2		25	김용만, 윤종영
	사 회	4	15	1		5		25	박병호, 김용만, 윤종영
									임덕순
	수 학	2	14	2	2	5		25	안상술
	과 학	4	10	1	1	8		24	정완호, 최명수, 문찬호
									김동식
	체 육	2	14	1	1	7		25	한형식
	음 악	1	17	1	2	4		25	최종진
	미 술	1	16	2	1	3	2	25	이태석
	한 문	3	19	1		2		25	이병진, 최현섭
	외 국 어	1	16	2	2	4		25	양 원
	실업·가정	12	69	5	15	41	4	146	정성봉, 강기주, 한희수
특별활동		1	2		6	11		20	이상용
계		46	248	21	36	104	8	463	

고 등 학 교	소위원회	5	20	2	4	7	3	41	이상용
	국민윤리	2	10	2	2	5	1	22	한명희, 김성환
	국 어	6	16	1	1	2		26	이병진, 최현섭
	국 사	2	20	1		2		25	윤종영
	사 회	4	60	3	1	7		75	박병호, 임덕순, 윤종영
	수 학	2	14	2	2	5		25	안상술
	과 학	6	55	5	8	23	1	98	문찬호, 김동식, 정완호
									최명수
	체 육	2	14	1	1	7		25	한형식
	교 련	2	2	1		4	9	18	이광섭
	음 악	1	17	1	2	4		25	최종진
	미 술	1	16	2	1	3	2	25	이태식
	한 문	3	19	1	1	2		25	이병진, 최현섭
	외국어	6	94	2	12	7		110	양원, 유석인
	실업·가정	9	75	7	6	43	4	150	정성봉, 강기주, 송병선
									김동규, 안상덕, 한의수
	특별활동	1	2		6	11		20	이상용
	농 업 계	5	61	5	2	17	4	98	정성봉
	공 업 계	26	17	2		74	23	29	김학수, 강기주, 윤병호, 고석달
									이상혁, 양재면, 안상덕
	상 업 계	4	22	2	9	29		64	송병선
	수산·해운계	7	52	1	1	2	13	98	김동규
	가사·실업계	8	56	4	5	11	1	85	한의수, 이정석
	계	102	797	43	64	287	61	1,354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앞으로의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상은 올바른 정신과 튼튼한 몸을 가진 사람, 취향이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 사람,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이다.

이 사회에 기대되는 인간상인 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을 길러 내는 데 부합되는 방향에서 교육 과정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V-3〉 교육을 통하여 길러야 할 인간상

연구 주제	연구 자	년 도	비 고
1. 사회과 교육과정의 구조화를 위한 연구	정세구, 한명희, 송용희, 한경자	1977	위촉연구
2. 교육과정 정책과 그 운영의 개선점	강우철	1978	
3.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	이영덕, 박도순, 송용희, 유완영	1978	
4.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	산세호, 이병호, 김재복	1979	세미나보고
5.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 및 개선방향 탐색	황정규	1979	위촉연구
6. 학교교육 목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분석	김종복, 정영수, 감승규	1979	위촉연구
7.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	장언효, 임재환, 강선보	1979	
8. 교육과정 및 교사용도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김재복, 배호순	1979	
교육과정에서의 특별활동의 위치와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함종규, 정태위, 손재수, 윤병호		

제4차 교육과정은 교육을 통하여 기르고자하는 인간상을 분명히 제시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새 시대가 요구하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간상을 정립하여 교육과정에 제시하였다.

① 건강한 사람

건전한 정신과 강건한 신체, 그리고 굳센 체력과 의지를 지닌 인간을 기른다.

② 심미적인 사람

인간과 자연, 그리고 모든 생활환경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을 가꾸어 나갈 줄 아는 인간을 기른다.

③ 능력 있는 사람

국가와 사회, 세계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지닌 능력 있는 사람을 기르고자 한다.

④ 도덕적인 사람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정직, 근면, 성실, 극기의 생활 태도를 지닌 사람을 길러 신의를 지키고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도덕률을 내면화하고 준법 정신과 책임감, 협동과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게 한다.

⑤ 자주적인 사람

민족 공동체 의식과 애국 애족의 정신, 그리고 역사적 사명감을 지닌 한국인을 기르고자 한다.

2)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향

개정된 제4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 사상 처음으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동시에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민주 복지사회를 지향하면서 교육을 통하여 길러야 할 인간상을 정립하고 새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으로는 국민정신교육의 체계화, 전인교육의 충실, 과학기술교육의 강화 등 세 가지에 두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교육과정 정신이라고 불렀다. 제4차 교육과정 연수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 정신을 특히 강조하였다. 우선, 제4차 교육과정 개정의 전체적인 과정에 일관되게 나타난 기본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① 국민 정신 교육의 체계화

국민정신교육은 학교교육 전반을 통하여 국가체제의 정당성에 관한 신념을 가지게 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국민정신교육은 국민적 통합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관련된다. 따라서 국민정신교육은 지금까지도 계속 강조되어 왔으나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이를 체계화하는데 힘썼다.

첫째, 대한민국체제에 대한 이념교육을 근간으로 하여 민족공동체 의식, 국민경제의식, 민주적 생활태도를 기르는데 관련된 지식, 이론, 가치를 교육내용의 근간으로 삼아, 이를 체계화하여 관련 교과교육에 반영토록 하였다.

둘째, 국민정신교육은 학교교육 전반을 이념교육의 입장에서 보고 교과 프로그램만이 아닌 특별활동에서도 이들 요소를 활용하여 내용을 구성토록 하였다.

셋째, 유치원에서 시작하여 상위급별 교육기관에서 일관되게 국민정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교 수준에 맞게 체계화하여 해당 영역 또는 교과에 반영하여 하였다.

넷째, 전체 수업시간이 현행 교육과정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신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과는 가급적 현행의 시간수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였다.

② 전인 교육의 충실

전인교육은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국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며 자아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덕·체 또는 지·정·의의 제반 요소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을

8) 문교부, 중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연수자료(1982), pp. 10-15.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전인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문의 특성을 강조한 나머지 지식이 가치 있는 교육내용으로 간주되고 학문 성격과 구조가 불분명한 교과나 특별활동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전인교육을 강조하기 위하여 첫째, 수업시간과 교과내용의 양을 줄이고 수준을 하향 조정하여 학습부담을 줄이고 여가활동의 시간을 늘리도록 하였다.

둘째, 초기에는 교과간의 종합을, 그리고 학년이 점차 올라감에 따라 점차 교과목을 분화, 학습이 심화·확대되도록 한다. 이는 학생의 심신발달과 인지적 구조의 측면을 고려한 사항이며, 또한 전체적인 안목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능력과 태도를 키우기 위함이다.

셋째,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 실업계 공통교과목을 인정하여 이수케 함으로써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일반교육을 강화하였다.

넷째, 주지교과와 도덕·예·체능 및 실업·가정 등에 대한 교과의 균형 있는 시간안배를 기하려고 하였다. 이는 지·적·체 또는 지·정·의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기 위함이며, 현재 편중되어 있는 특정 영역의 교과와 소홀히 취급되는 교과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③ 과학 기술 교육의 강화

과학·기술교육은 고도 산업 사회를 지향하는데 있어 그 기반이 되는 과학 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기술의 생활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또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스스로 계속 학습할 수 있고, 변화되는 사회에서 자기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는 것이다.

첫째, 과학·기술문명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발전 추세와 우리 나라의 경제적 특성에 비추어 고도 지식정보 산업화하는 국가경제와 진로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의 분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직업사회의 가치, 직업의 존귀함에 대한 의식을 길러주고 미래사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발견·탐구하도록 개개인에 맞는 소질과 능력을 개발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변화와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주체로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의지와 태도를 길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능 훈련보다 오히려 계속적 학습과 탐구를 가능케 하는 기초교육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다음

과 같은 점을 특히 고려하였다.

첫째, 각 교과에서는 개인과 사회문제·자연현상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정신기능의 배양에 힘썼으며,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기초과학교육과 수학교육을 강화하였다.

둘째, 기본능력과 관련된 기술교육을 강화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기초교육과 관련하여 동통 필수 교과목을 새로 선정하였으며 과학은 그 수준을 I·II로 구분하여 I은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II는 진로에 따라 선택하게 하였다.

셋째, 특수 과정의 설정 근거를 마련하고 과목의 선택 폭을 확대하였다. 고등학교를 비롯한 기타 계열의 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편제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일반계의 직업과정과 실업계의 전문교과 중 선택과목을 완전히 개방하여 진로와 능력에 따라 택할 수 있게 하였다.

3) 제4차 교육과정의 강조 사항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앞에서 밝힌 우리 나라의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교육의 과제에 비추어 정립한 인간상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 방침이 각급 학교 교육목표 설정의 기저가 되며, 각 교과 교육과정 구성의 지침이 되는 학교교육의 강조사항을 두었다. 그것은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 인격의 형성, 민족공동체 의식의 교양이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강조 사항을 상세히 제시하였다.⁹⁾

① 건전한 심신의 육성

교육과정에서는 건강한 신체를 갖고, 풍부한 정서를 가지며, 고상한 취미를 가져 여가활동을 즐기며, 강인한 의지를 가져 충동에 흔들리지 않고, 심미적 태도를 갖고 자연과 생활에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② 지력과 기술의 배양

교육과정에서는 기본학습의 능력을 갖고 장차 생활에서나 다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사회나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능력을 가지며, 변화와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초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하며, 아울러 문제 해결력을 가져야 하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9) 윗책, pp. 1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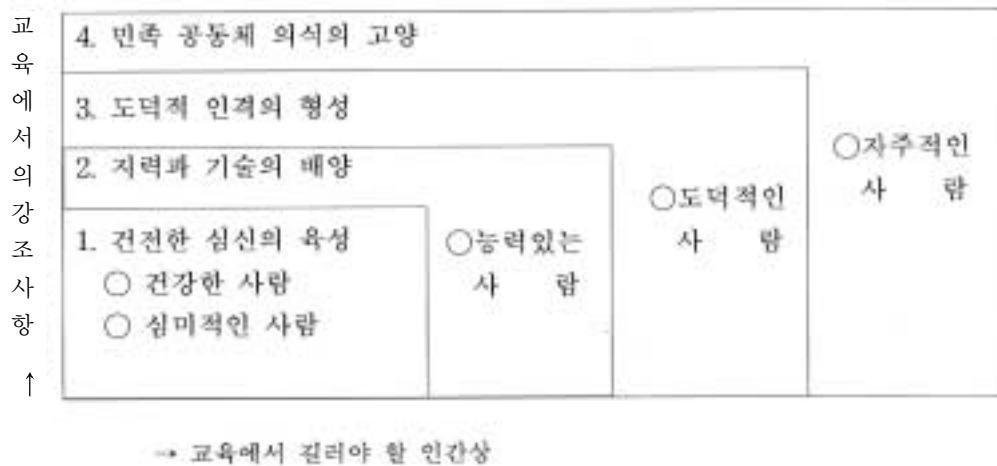
③ 도덕적 인격 형성

교육과정에서는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주체적인 자아의식이 필요하며, 마음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정직성과 성실성을 발휘케 하며, 합리적 판단과 이성 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율성과 맡은 바 업무에 책임을 지는 책임감을 갖게 하며,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합리적 판단과 객관적 가치규범에 의하여 사고하는 공정성과 집단의 가치와 규범을 준수하며 공동생활의 조화를 기하는 질서의식을 갖게 하고, 인간의 가치와 본질에 대한 신뢰감과 사랑을 가지는 인간 존중 태도를 기른다.

④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민주·정의·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국민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우리의 민족정신과 문화전통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문화 창달을 위한 의욕을 가지며, 국가민족 문화 인종 등의 구별 없는 인류 공영의 의식 아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게 한다. 이들 강조 사항을 기대하는 인간상과 관련시켜 나타내면 <그림 V-4>와 같다.

<그림 V-4> 인간상과 교육과정 강조 사항과의 관계



4) 제4차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제4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를 도모하였다.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을 학생의 발달과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조정하였다. 교과목을 통합했거나 통합 운영하도록 개선하였고, 연간 수업 기준 주 수를 축소하여 학교와 교사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 여유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데 힘썼다.

제4차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은 각 급 학교 교육목표의 설정, 교과목간의 통합, 수업시간 및 단위 수의 축소, 고등학교 공통 필수 교과의 부과,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변화, 교원 연수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제4차 교육과정은 제1~3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를 교육과정에 제시하였다. 그래서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는 교육법과 해당 학교 급의 교육과정에 각각 상이한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까지는 학교 급별 교육과정에서 구성 방침을 제시하여 왔으나,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각급 학교별 교육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들 목표는 교육과정 구성 방향에서 밝힌 인간상과 역점 사항의 반영, 각급 학교 학생의 특징 고려, 교과 설정의 근거 및 학습 경험 선정과 지도에의 시사, 내용 및 행동상의 일관성과 계열성 유지 등을 근간으로 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교과목간의 통합 운영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이것은 제4차 교육과정의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은 사회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그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회생활에서의 문제 사태는 교과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들이 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태이며 교과가 그러한 사태와 관련을 맺어야 하는 한 교육과정 내용의 통합은 교육과정의 조직에서 항상 강조되어온 원칙이었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제4차 교육과정은 국민학교 1, 2학년의 경우,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는 교과별로 하되, 수업 시간 배당은 통합군(群)으로 배당하였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통합 배당된 교과의 교과서는 통합 교과서로 개발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즉, 도덕, 국어, 사회를 통합하여 ‘바른 생활’로, 산수, 자연을 통합하여 ‘슬기로운 생활’(1학년만)로, 체육, 음악, 미술을 통합하여 ‘즐거운 생활’로 편찬하기로 하였다. 1학년초 1개월간은 전 교과를 통합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서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과의 통합 운영의 시도는 우리 나라 교육과정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학교에 있어서는 사회과의 경우, 지리, 세계사, 공민 등으로 조직되어 있던 과목식의 내용 조직을 문제 또는 주제 중심으로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합하여 사회 I, II로 조정하였으며 국토지리와 인문지리를 통합하여

지리 I, II로 하였다.

교과목의 통·폐합에 있어서 가장 큰 폭을 나타낸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공업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361개의 전문과목을 150개 전문과목으로 대폭 통·폐합하였다. 이러한 통합에서 국민학교는 제재 및 활동 중심으로, 중학교는 개념 및 주제 중심으로, 고등학교는 개념 및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교육내용의 많은 중복과 반복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인간교육의 일환으로 여가 시간의 확충과 학습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교과목 수 및 연간 수업시간 수를 축소하였다. 이것은 특히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학교의 경우 2, 3학년에서 각각 1과목씩 그리고 주당 1시간씩의 수업시간을 축소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총 이수 단위 수를 6~18 단위 축소하였고, 교과목 수에 있어서도 공통 필수 교과목의 설정과 유사 과목의 통·폐합으로 실업계의 경우 과목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넷째, 고등학교의 경우, 전인교육 강화 책의 일환으로 인문계와 실업계에 공통 필수 교과목을 두고, 초·중·고 교육과정을 일원화하였다. 과거에는 특히 실업계의 경우 교과목의 편제가 지나치게 기능인의 양성에 치우쳐 있어 인문계와 실업계 사이에 공통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부족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보통교과를 공통필수로 하여 전 교과에서 약 30~40% 비중으로 부과하였다.

그리고 국민학교에서는 공민학교 내용을, 중학교에서는 고등공민학교와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학교의 교육내용을, 고등학교에서는 방송 통신 고등학교와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 교육내용을 일반 고등학교에 준하도록 하였고, 실업계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을 서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일원화하였다.

다섯째,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기능이 제4차 교육과정부터 문교부에서 연구 기관으로 이관되었다는 점이다. 문교부는 소위 ‘검인정 교과서 사건’ 이후 문교부의 편수행정 업무를 수습하기 위하여 ‘편수행정 개혁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강우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차관 등 7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발 업무를 전문적인 연구 기관에 위임하도록 하는 안을 건의하게 되었다. 문교부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연구개발 업무와 기능을 좀더 구체화하여 1978년 6월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문교부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업무를 연구기관에 위임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에는 문교부에서 편수관이 중심이 되어 소수 전문가 위주로 이루어지던 연구개발이 연구기관의 조직적인 연구 개발형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제

4차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게 되었고, 한국교육개발원은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섯째, 제4차 교육과정은 그 효과적인 보급과 현장 적용을 위하여 교원 연수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 교육과정에 따른 교원 연수

① 교원의 연수 과정

제4차 교육과정은 교원을 대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하였다. 문교부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교재를 발간하여 전국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연수교재를 발간하면서 당시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대하여, 당시의 편수관리관인 필자는 교육과정 적용 방향(교사, 학생, 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⁰⁾

● 문교부 장관 이규호

우리는 지금 매우 복잡한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빠르고 어지러운 혼동 속에서 우리가 생존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통합과 정체성의 확립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요청은 학교 교육의 기본 설계도가 될 교육과정의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국민정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심화시키는데 적합한 교육과정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교육 혁신과 문화 창달’이 국정 지표의 하나로 설정되었고, 1980년 7월에는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 개혁’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공감적인 호응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 개혁’은 교육의 외형적인 정비와 아울러 내용적인 개선을 이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사회의 요구와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 보완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주된 동인이 되었습니다. 정부 수립 후 네 번째로 전면 개정된 이번 새 교육과정은 우리가 지향해 나가고 있는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새 한국인을 길러내기 위하여, 국민정신 교육의 체계화, 과학·기술 교육의 강화, 전인교육의 충실에 역점을 두어 구성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정신에 부응하여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을 축소 조정해서 학습자에게 알맞도록 적정화한 점이 또한

10) 문교부, 중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1982.

나의 특색인 것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묵묵히 학생지도에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교육동지들께서는 이 연수자료를 통해서 새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새 시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더욱 정성들여 실천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 문교부 편수관리관 정태범

교육과정에는 그것이 달성코자 하는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이것을 일단 교육과정 정신이라고 불러 본다. 새 교육과정에는 국민 정신 교육, 과학 기술 교육, 전인 교육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정신에 따라, 기초 교육이 더욱 강조되었고,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이 적정하게 통합·조정되었다.

특히 새 교육과정에서는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의 조화를 이루어 반영되도록 하였다. 종래의 교육과정에서는 지식 체계와 탐구 방법의 지나친 강조로 개인적 차원의 인간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졌으며, 사회적 차원의 국민정신 교육이 체계화되지 못하였으나, 이번의 교육과정에서는 ① 사회적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국민 정신 교육을 체계화하였고, ② 개인적 차원이 되는 인간 교육이 강조된 외에, ③ 학문적 차원인 과학 교육을 비롯한 기초 교육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과정은 아무리 그 내용이 훌륭하다 하여도, 그 운용에서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반감되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지적하여야 할 것은 새 교육과정의 고시와 병행하여 학교 교육이 사실상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① 교사의 교육 활동 ② 학생의 학습 활동 ③ 학교의 경영 활동 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새 교육과정이 교육 활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기대이기도 하다.

가. 교사의 교육 활동

새 교육과정이 교사의 가르침에 거는 기대는 과거의 입시중심의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국민정신교육, 인간교육을 강화하는 데 있다.

첫째, 교육과정과 교과서와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문서화 된 표현수단이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의 전부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가령 교사가 교과서 한 권을 다 가르쳤기 때문에 교과지도를 끝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는 교과지도의 중요한 부분은 끝냈다고 할지는 모르나 그 전부를 마쳤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과정을 철저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교과서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는 전달할 지식만 훌륭히 지도하면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여기는 일이 없이 교육과정에는

교육의 목적이 진술되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 내용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는 지도 방법과 평가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도에 앞서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만이 담겨 있을 뿐이므로 교과목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면에서 볼 때, 교과서 이외에는 참고서, 인적·물적 학습자원 및 자연환경 등을 중요한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새 교육과정에서는 가르치는 방법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왜냐 하면,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주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스스로 배우는 것이 주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학습동기나 필요성 및 학습자료를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칠판에 가르쳐야 할 내용을 공책에 정리하게 써 주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입시 중심의 암기식 교육이나 단편적 지식 주입은 기초 교육을 중심으로 전이가 높은 교육을 한다는 면에서 볼 때,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교과의 단위 목표에 따라 다양한 학습 방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주는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셋째, 새 교육과정은 교사의 역할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담겨 있는 정신은 교과 활동을 통한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형식적인 학생 지도만으로는 구현될 수 없다.

특히, 학생들의 의식구조나 사고방식, 행동양식 등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새 교육과정의 정신이 담겨있는 내용의 강조·반복 체험을 통하여 바람직하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때, 문서화된 교육과정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학교 교육의 전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을 성장, 발달시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가 교과서를 읽어 주고 그것을 학생으로 하여금 필기하게 함으로써 교육을 다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교수·학습의 일부를 다했을 뿐인 것이다.

새 교육과정은 그 제시하는 기본정신이 학교 교육의 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그 의미가 충분히 구현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인의 참여가 더욱 요청될 것이 기대된다.

나. 학생 등의 학습 활동

새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거는 기대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데 있다. 교사의 지시 일변도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공부거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발적 학습태도를 유발케 하는 데 있다. 그러자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학생들은 공부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겠다.

교과서에서는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단원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확인토록 하였으므로, 교사가 주의 깊게 노력을 기울인다면 과거와 같이 교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배우지 않는 풍토는 시정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은 교과서 이외에도 많은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와 관련되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교과서에 모든 교육 활동을 매단다는 것은 너무 단조로운 교육이 된다. 교과서에 담겨 있는 자구의 해석보다 그 전체적 내용의 이해가 더 중요한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을 알려고 하는 탐구력을 가져야 한다.

지적인 호기심과 그것을 맛보는 즐거움을 갖게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학생들은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적성은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에 의하여 계발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은 어울려 살고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도록 길러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형적 인간 관계는 학습태도 뿐만 아니라, 생활방식을 배우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한다.

다. 학교의 경영 활동

새 교육과정은 학교의 경영활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첫째, 학교교육에서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예상되고 학급경영은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면에서 학교에서 학교행정가가 갖는 지도성은 그 특성이 민주적이며 창의적이어야 할 것이다.

획일적인 지도성의 발휘는 학교 분위기를 경직화시킬 가능성이 짙다. 행정가들은 과업 지향성과 인화 지향성을 조화롭게 배합해 가야 할 것이다. 교육의 과정이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경영 활동에 있어서 지도성의 발휘도 지시적이거나 획일적이어서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율 학습이 가능토록 독서실, 자료실, 실험실, 체육실 및 기타를 포함하는 학교시설이나 설비도구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교과내용의 변함에 따라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시설과 설비를 신속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재정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정되어야 한다. 배분의 단위는 학급, 학생, 서클 등 다양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활동과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할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육은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짙다. 재정은 언제나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학교의 장기 계획도 필요한 것이다.

넷째, 학교 경영은 목적 달성을 위한 관리·지원 활동이기 때문에, 교직원의 협동적 참여를 통하여 교육 활동의 수행 정도를 항상 파악해야 한다.

② 교육과정에 따른 구체적인 연수 과정

제1단계 연수는 문교부가 전 교원에게 새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한 교육과정

연수 교재를 편찬하여 보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각 학교에서 이 연수 교재를 중심으로 학교 자체 연수를 실시하였다.

제2단계는 KBS TV를 통한 방송 연수를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편수국에서 방송 연수를 계획하여 필자가 청와대에 보고하여 협조를 얻고 직접 방송사와 교섭하여 KBS TV방송을 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 문교부 내에서도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었다. 그것은 공영 방송이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육방송을 해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 때 상황은 교육과정의 개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데 대한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이러한 TV방송 연수는 교육과정 개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상당히 큰 화제가 되었고, 운영상의 어려운 점도 많았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당초에는 문교부가 EBS 교육방송에서 제4차 교육과정의 연수에 맞게 제작한 프로그램을 KBS 1 TV에 송출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필자가 KBS 이원홍 사장을 만나러 갈 때 그 분이 과연 수락해 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KBS 이원홍 사장은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 교육과정 개정이 국민정신 교육에, 또 국가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방송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당시 교육방송은 시청 가능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전국 어느 학교에서나 모두 시청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KBS측에서는 교육방송에서 제작한 테이프를 보고서 프로그램의 질이 KBS 1 TV의 수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자신들이 직접 제작하여 방송하겠다고 나섰다. 문교부에서는 KBS의 제작을 인정하고 방영 주제의 선정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KBS가 교육과정에 따른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방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4차 교육과정의 연수는 KBS 1TV를 통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민은 물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청취하게 되었다.

KBS측은 매일 정규 방송이 시작되기 전 1 시간씩 (16:00 ~ 17:00) 2 주일간에 걸쳐 제1방송을 통해서 새 교육과정의 핵심적 내용을 문교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 등의 관계 전문가 및 단원의 지도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을 출연시키는 가운데 전국적인 방송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국의 각 학교에서는 전 교원이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TV 수상기 앞에서 제4차 교육과정의 개요를 편리하게 연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국 대상 방송 매체를 통한 교원 연수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의 이해를 깊게 하였을 뿐 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또 하나의 성과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3단계 연수는 제4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편찬된 교과서의 실험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각 시·도별 강사 요원에 의하여 교과서와 연결된 구체적인 수준에서 새 교육과정의 연수가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제4차 교육과정에 관한 교원연수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계획적이고 충실한 연수로 평가받았다.

방송 연수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끝나자 이번에는 KBS가 문교부에 제작비를 요구하였다. 당초의 KBS와 방송연수를 수락하는 계획에서는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일 때문에 필자가 청와대에 협의하는 한편 김상대 교육과정 담당관은 KBS TV 본부장, 편성국장 등의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공영방송이라는 입장에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제4차 교육과정의 학교 급별 편제 및 운영 지침

제4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 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및 운영 지침을 설정하였다.

1) 초등학교 교육과정

① 교육 목표

국민학교 교육은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생활 태도를 형성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밑바탕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 ① 보건과 안전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된다.
- ②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꿀 줄 알며,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가지게 한다.
- ③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능력과 수리적 사고력을 기른다.
- ④ 자연과 사회의 이해를 위한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게 하고, 지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가지게 한다.
- ⑤ 기초적인 생활 기능과 근검 절약하는 태도를 길러, 자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게 한다.
- ⑥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를 가지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지게 한다.

② 편제와 시간 배당

국민학교의 교과별·학년별 시간 배당 기준은 <표 V-7>과 같다.

<표 V-7> 국민학교 시간 배당 기준

	부	원	대표	대표	가	학자	전문가	(교장)	전문가	교사	모
·과정 개정정책 수립	●	▲									
·교육과정 개정 정책안 수립											
의·의결											
·교육과정 개정 정책확정											
·과정 개정 계획 수립	●	▲					○				
·교육과정 개정 계획 작성											
·교육과정 개정안 작성 의결											
·교육과정 분석		●	△	△	○	○	○	△	△	○	△
·교육과정 분석 기준 설정											
·교육과정 분석											
·교육과정 분석결과검토 협의	▲	●	○	○	○		○		△	△	
·과정 개정 기본방향 및	▲	●			○		○			△	
·급별 목표											
·기본 방침안 작성											
·기본 급별 일반목표 작성											
·의·의결											
·급별 교육목표의 상세화		●	○	○	○	△	○	△		○	
·과별 목표진술											
·년별 목표진술											
·토·협의											
·내용의 선정 및 조직		●			○	△	○	△	△	△	
·표의 범주결정											
·내용 체계 작성											
·내용의 학년 수준 결정											
·토·협의											
·	●		○	○	○	△	○	△	△	△	△

* ① 이 표에 배당된 총 시간 수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 시간량이고, ()안은 주당 평균 시간 수이다.

② 1, 2 학년의 경우, 2~3 교과를 합쳐서 시간을 배당한 것은 통합 교과용 도서 및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교과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③ 1 시간의 수업은 40 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의 특수한 여건이나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 배당 기준에 의한 시간 수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교과 활동 총 이수 시간의 5%에 해당하는 시간을 감축, 운영할 수 있다.

가. 편 제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 ① 교과 활동은 도덕, 국어,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로 편성한다.
- ② 특별 활동은 어린이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로 편성한다.

나. 시간 배당

- ① 교과 활동 시간은 교과간의 연관성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1, 2학년은 교과간의 통합을, 3학년 이상은 분과를 원칙으로 배당한다.
- ② 특별 활동 시간은 3학년 이상부터 배당한다.

③ 운영 지침

가. 계 획

- ①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생의 심신 발달 정도, 학교의 특수성, 지역 사회의 실정에 알맞도록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첫째, 시간 배당 기준을 근거로 하여 연간, 학기간, 주간 및 일일의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주간 및 일일의 시간 배정은 교과와 특성, 학생의 심신 발달 정도, 학교의 실정, 교재, 교구 준비 등을 고려하여, 요일 및 교과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되, 교과와 특성과 특별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몇 시간을 연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

셋째,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어린이회 활동 및 클럽 활동에 한한 것이므로, 학교 행사의 시간은 별도로 확보한다.

- ② 저학년에서의 교과 통합 운영은 교과간의 내용 및 활동의 통합성을 고려하여, 그 연계가 조화 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도덕, 국민 정신, 언어 생활, 건강과 안전, 환경 교육 등은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하되, 특히, 기본적인 생활 습관 형성에 유의하도록 한다.

- ④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교재, 교구 및 시설을 갖추고,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나. 지 도

- ① 교과 간 및 교과와 특별 활동 상호 간의 관련성, 학년 간 및 학교 급별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려 일관성 있는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국민학교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읽기, 쓰기, 셈하기의 지도를 철저히 하여, 기초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③ 지엽적이고 단순한 사실의 기억보다는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④ 생각이나 느낌을 말이나 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⑤ 가정 학습 과제의 내용과 분량은 학생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시하도록 한다.

⑥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는 지역 사회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수준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별도 단원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교육 목표와 학생 수준에 알맞아야 한다.

⑦ 수업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내용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며, 학생수준에 알맞은 것을 선정함에 유의하도록 한다.

⑧ 심신 장애 학생 및 학습 부진 학생의 지도에 있어서는, 이들 학생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평 가

①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목표 지향적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평가 방법은 내용과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③ 지적, 정의적, 기능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도록 평가하고, 단순한 사실의 기억보다는 이해, 적용, 표현 등에 중점을 둔다.

④ 학생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학습 정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1, 2학년의 통합 운영되는 교과는 기본 정신을 고려하면서 타당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며, 1학년 1학기에는 지필 검사 등과 같은 수량적인 평가를 지양한다.

라. 기 타

국민학교 교육은 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학생의 특성과 지역 사회의 특수성에 맞추어 시간 배당 기준과 교과 내용을 적절히 조정하여 지도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① 국민학교 6년 과정을 3년으로 단축하여 지도한다.
- ② 연간 수업 일수는 170일 이상으로 한다.
- ③ 주당 총 수업 시간은 3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학생과 지역 사회의 실정에 따라 20%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 ④ 학생의 학년 배정은 학습 능력에 따라 결정한다.
- ⑤ 초 학습에 관련된 교과를 우선적으로 지도하되, 학생의 흥미, 발달 수준, 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시간 계획을 작성한다.
- ⑥ 수업은 학교, 학생 및 지역 사회의 실정에 따라 주간 또는 야간에 실시할 수 있다.

2) 중학교 교육과정

①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은 국민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 건전한 심신을 기르고, 개성에 맞는 진로 탐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며, 공정한 판단력과 자율적 활동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 ① 강인한 체력과 의지를 가지며,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적응하게 한다.
- ② 건전한 취미를 길러 여가를 선용하고, 풍부한 정서 생활을 하게 한다.
- ③ 언어를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 ④ 자연과 사회현상에 대한 기초 이론과 원리를 이해하며,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 ⑤ 생활에 유용한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탐색하게 하며, 평생 교육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게 한다.
- ⑥ 일상 생활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⑦ 민주적 제도와 생활 원리를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게 한다.
- ⑧ 리의 문화 전통을 이해하고, 주체적인 국가관과 연대 의식을 가지게 한다.

② 편제와 시간 배당

중학교의 교과별 학년별 시간배당 기준은 <표 V-8>과 같다.

가. 편 제

교육과정은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① 교과 활동은 도덕, 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외국어, 실업 가정의 12개 교과로 편성한다.

② 특별 활동은 학생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로 편성한다.

나. 시간 배당

중학교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은 <표 V-8>과 같다.

③ 운영 지침

가. 계 획

①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생의 심신 발달, 학교의 특수성, 지역 사회의 실정에 알맞도록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시간 배당 기준을 근거로 하여 연간, 학기 간, 주간 및 일일의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주간 및 일일의 시간 배당은 교과의 특성, 교제, 교구, 학생의 심신 발달, 학교의 설정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다만, 교과의 특성 및 특별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시간을 연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학생회 활동 및 클럽 활동에 한한 것이므로, 학교행사의 시간은 별도로 확보한다.

② 중학교는 국민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중등 보통 교육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특히 국민학교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 중학교 학생은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발달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자기 발전을 위한 탐색 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기회를 가지도록 배려하고, 학생의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세워 교육의 개별화를 기하도록 한다.

④ 국민정신교육 및 언어 생활의 지도는 해당 교과에서만 아니라 학교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되, 특히 공동체 의식과 준법 정신을 함양하도록 한다.

〈표-8〉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

10. 모니터링	●	▲		△	○	△	○	△	○	○
• 모니터링 대상 선정										
• 계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결과 협의 검토 및 반영										
11. 교원연수	●	▲		△	○	△	○	○		○
• 연수계획 작성										
• 연수교과 개발										
• 연수실시										
• 결과점검										
12. 장학	●				△		△	○		○
• 장학계획 준비										
• 장학자료 개발										
• 장학실시										
• 결과점검										

*① 이 표에 배당된 총시간 수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 시간량이고, () 안은 주당 평균 시간 수이다.

② 1 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40~50분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간 평균 단위 수업 시간은 45분이 되어야 한다.

⑤ 교육 전반에 걸쳐 보건 위생, 건강 증진, 체력 향상 및 안전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보존, 환경오염 및 인구 문제에 대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⑥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과 취미를 신장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실

천하도록 한다.

⑦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교재, 교구 및 시설을 갖추어 바람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⑧ 자유 선택은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및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나. 지도

① 교과 간 및 교과와 특별 활동 간의 관련성, 학년 간 및 학교 급별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지엽적이고 단순한 사실의 기억보다는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③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은 지도 순서를 밝힌 것이 아니므로 순서를 바꾸어 지도 할 수 있으나, 학습 내용의 계열성과 연계성, 그리고 학생의 심신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화된 사고 방식을 가지지 않게 균형 있는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각이나 느낌을 말이나 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⑥ 가정학습 과제의 내용과 분량은 교과 특성 및 학생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게 적절히 제시하도록 한다.

⑦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는 지역사회, 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수준에 알맞도록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별도 단원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교육목표와 수준에 알맞아야 한다.

⑧ 학습 효과가 올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내용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며, 학생 수준에 알맞은 것을 선정함에 유의하도록 한다.

⑨ 심신 장애 학생 및 학습 부진 학생의 지도에 있어서는 이들 학생의 실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평가

①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② 의도한 교육목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의도하지 않았던 성과에 대해서도 유의하도록 한다.

③ 평가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교과와 특성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도구 및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④ 지적, 정의적, 기능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되, 단순한 사실의 기억보다는 이해, 적용, 표현 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도록 한다.

⑤ 학생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학습 정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기 타

①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에서도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와 특별활동의 내용을 모두 지도한다. 다만, 한 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줄여서 할 수 있다.

② 교육법 제103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학교는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시간 배당 기준에 제시된 총 이수 시간의 2/3 이상을 확보한다.

실습을 필요로 하는 교과는 현장 실무로 대체할 수 있다.

○ 기초 학습능력 신장과 국민정신 함양에 관련된 교과내용을 우선적으로 지도하되,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간 계획을 작성한다.

○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기타 학교는 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학생의 특성,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맞추어 시간 배당 기준과 교과 내용을 적절히 조정하여 지도한다. 고등공민학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첫째, 연간 수업 일수는 170일 이상으로 하며, 교과 및 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은 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총 이수 시간의 80% 이상을 확보한다.

둘째,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생 및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르는 특수 분야의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고등학교 교육과정

① 교육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 사회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며, 자신의 진로 개척에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 ① 강인한 체력, 풍부한 정서, 굳센 의지를 길러 건전한 심신을 가지게 한다.
- ② 취미를 살려 여가를 선용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 ③ 정확한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신장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한다.
- ④ 자연 및 사회 현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탐구하여 당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 ⑤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 평생교육에 필요한 자질을 가지게 한다.
- ⑥ 양심과 도덕적 원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자율적 태도를 가지게 한다.
- ⑦ 인간의 존엄성과 가능성을 이해하며, 모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⑧ 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정의 사회 구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며, 봉사와 협동 정신으로 공동 생활에 참여하고, 사회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 ⑨ 우리의 민족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국가 발전에 참여하고, 국가 수호와 평화 통일의 의지를 가지게 한다.

② 편제와 단위 배당

가. 편 제

- ① 교육과정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 ② 교과활동의 편제 및 단위 배당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보통 교과는 국민윤리, 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외국어, 실업·가정의 13개 교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는 농업에 관한 과목, 공업에 관한 과목, 상업에 관한 과목, 수산·해운에 관한 과목, 가사 실업에 관한 과목, 기타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편성한다.

- 공통 필수 과목을 두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및 기타 계열의 고등학생에게 필수로 부과한다.

-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생의 진로 선택에 따라 2학년부터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으로 구분되며, 과정별 선택과목을 두고, 직업 과정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무리하지 않게 운영한다. 다만, 직업 과정은 전문 교과에서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한다.

- 실업계 고등학교는 농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가사 실업계로 구분하며, 보통 선택 과목과 계열별, 학과별 전문 필수 및 전문 선택 과목을 둔다.

- 실업계 고등학교에 준하여 체육계, 예술계, 과학계, 외국어계 및 기타 계열을 둘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명칭과 교육 내용은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특별 활동은 학도 호국단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의 3개 영역으로 편성한다.

나. 단위 배당 기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은 <표Ⅴ-9>와 같다.

③ 운영 지침

가. 계 획

①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생의 심신 발달, 학교의 특수성, 지역 사회의 실정에 알맞도록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단위 배당 기준을 근거로 하여 연간, 학기간, 주간 및 일일의 계획을 수립한다.

- 주간 및 일일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교과의 특성과 교재, 교구, 학생의 심신 발달,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다만, 교과의 특성 및 특별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몇 단위를 연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이 교육과정의 운영은 단위제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는 단위제와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다. 다만,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교과와 신체발달 및 정서 함양과 관련되는 교과는 계속하여 지도되도록 하되 학기에 고르게 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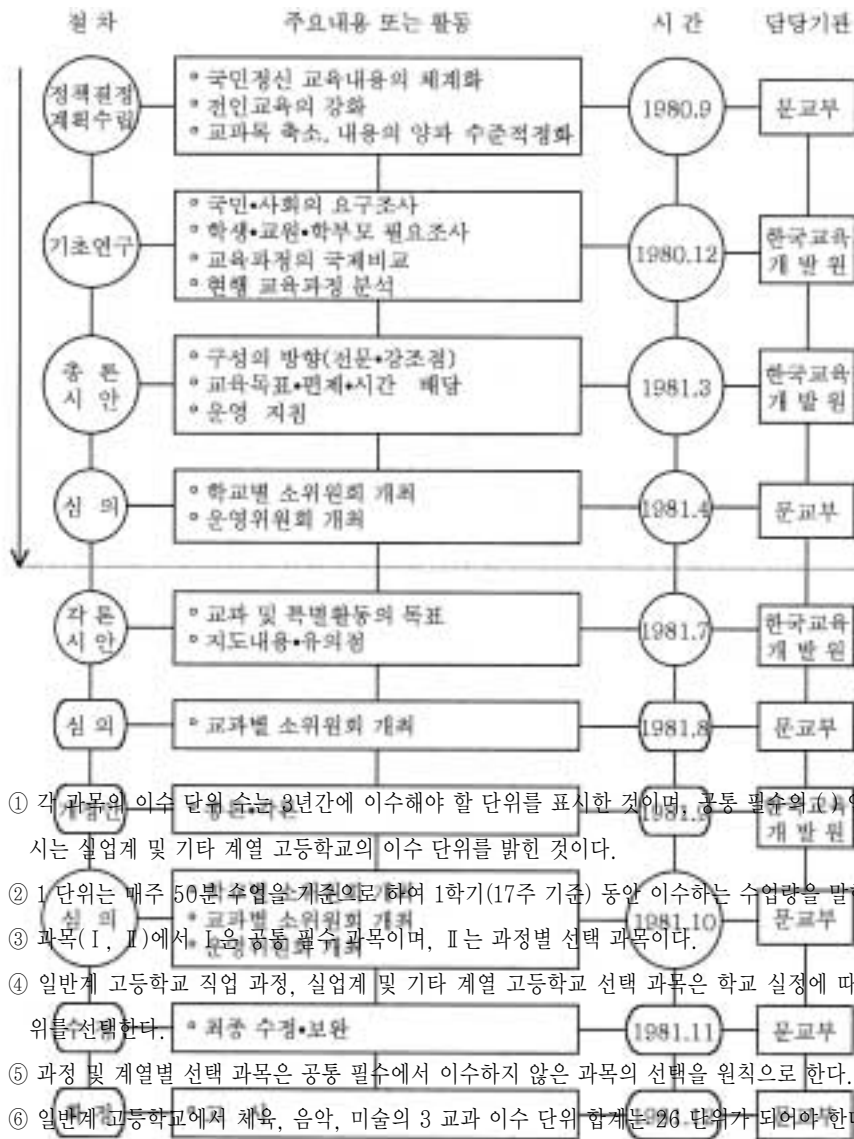
- 1학년은 공통 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이수시키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과정별 혹은 계열별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늘려 가도록 한다.

○ 특별 활동에 배당된 단위는 학도 호국단 활동 및 클럽 활동에 한한 것이므로, 학교 행사 시간은 별도로 확보한다.

② 고등학교 교육은 중견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고등 보통 교육과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되, 중학교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도

〈표 V-9〉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

총론안의 연구·개발	각론안의 연구·개발
<p>(1) 기초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운영실태 분석 · 외국의 교육과정 국제 비교 ·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분석 · 미래 사회에서의 인간상 규명 · 기초 연구 결과 검토 및 정리 <p>(2) 총론안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목표 추출 및 편제안 작성 · 초·중·고 제일심 및 편제안의 내용 협의 · 총론 초안 작성 및 운영자집 진술 · 총론 초안 검토 협의 · 총론 초안에 대한 외부 의견 조사 · 총론안 수정·보완 및 문교부 제출 <p>(3) 문교부 심의 및 수정·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 심의 ·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 수정된 안의 검토 협의 · 검토 결과 반영 	<p>(1) 교과별 기초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교육과정 문제점 분석 · 국제 비교 연구 · 기초 연구 결과 검토 및 정리 <p>(2) 교과별 목표 추출 및 내용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방향 설정 · 기본 방향에 대한 검토 협의 · 목표 상세화 및 체계표 작성 · 내용 선정 및 체계표 작성 · 목표 및 내용 체계표 검토 협의 · 목표 및 내용 체계표 수정·보완 <p>(3) 교과별 초안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및 내용 진술 · 평가시의 유의점 진술 · 진술된 초안의 검토 · 초안의 수정·보완 · 수정된 안의 검토 협의 · 초안의 재수정 및 문교부 제출
교육과정안의 평가 및 확정	
<p>(1) 문교부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기준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 심의결과 · 공청회 결과 · 교육과정안의 수정·보완



- ① 각 과목의 이수 단위 수는 3년간에 이수해야 할 단위를 표시한 것이며, 공통 필수과목(Ⅰ) 안 숫자와 * 표시는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등학교의 이수 단위를 밝힌 것이다.
- ②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기준)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한다.
- ③ 과목(Ⅰ, Ⅱ)에서 Ⅰ은 공통 필수 과목이며, Ⅱ는 과정별 선택 과목이다.
- ④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 과정,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학교 실정에 따라 10~38 단위를 선택한다.
- ⑤ 과정 및 계열별 선택 과목은 공통 필수에서 이수하지 않은 과목의 선택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의 3 교과 이수 단위 합계는 26 단위가 되어야 한다.

록 한다.

③ 고등학교 학생은 가치관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에 있으므로, 지적인 학습과 정의적인 학습을 조화시켜 지성과 덕성의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④ 고등학교 학생은 자기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상담의 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한다.

⑤ 국민정신교육은 해당 교과목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되, 특히 공동체 의식과 준법 정신을 함양하는 데 힘쓴다.

⑥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보건위생, 건강 증진, 체력 향상 및 안전교육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 보존, 공해 및 인구 문제에 대한 교육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⑦ 학생의 과정 선택이나 과목 선택에 있어서는 학생 개개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며,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모든 요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⑧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기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 노력하도록 한다.

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교재, 교구 및 시설을 갖추고, 바람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⑩ 자유 선택은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이나 논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종교 교육 및 교양 등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정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이 때 학교장은 지도하고자 하는 것의 목표와 내용을 분명하게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하되, 2 개 이상의 과목을 설정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⑪ 실업계 및 기타 계열의 전문 과정을 이수하는 고등학교에서는 교육 목표에서 제시한 목표 외에 각 계열별로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여,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도록 한다.

⑫ 실업 계열의 전문 교과 중 기타 과목은 지역 사회의 실정과 각 학과의 분화된 특성에 따라 일정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과목으로 하고, 교육과정 중의 어느 계열에서도 표시되지 아니한 과목의 경우에는 그 과목명, 단위 수, 목표, 지도 내용 등을 학교장이 정하여 미리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도해야 한다. 다만, 기타 과목의 단위 수는 14 단위를 넘을 수 없다.

⑬ 체육계, 예술계, 과학계, 외국어계 및 기타 계열을 이수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공통 필수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 중에서 해당 계열에 속하는 과목은 이를 전문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⑭ 이 교육과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 혹은 학과는 유사 계열 혹은 유사 학과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교육과정과 달리 교육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나. 지 도

① 교과 간, 교과와 특별 활동 간의 관련성, 학년 간 및 학교급별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지엽적이고 단순한 사실의 기억보다는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③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은 지도 순서를 밝힌 것이 아니므로 순서를 바꾸어 지도할 수 있으나, 학습 내용의 계열성과, 연계성, 그리고 학생의 심신 발달을 고려하도록 한다.

④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과 고정화된 사고 방식을 가지지 않게 균형 있는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가정 학습 과제의 내용과 분량은 교과 특성에 따라 학생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게 적절히 제시하도록 한다.

⑥ 교과용 도서는 지역 사회,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수준에 알맞도록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별도 단원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수업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지도 내용 및 단계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내용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며, 학생 수준에 알맞은 것을 선정하도록 한다.

⑧ 심신 장애 학생 및 부진 학생의 지도에 있어서는 학생의 실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⑨ 전문 교과의 학습 지도는 실험, 실습을 50% 이상 과하여 실제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이론과 실체가 유리되지 않게 하며, 아울러 근로 애호의 정신과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⑩ 전문 교과의 학습은 현장 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습은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 내용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하며, 교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다. 평 가

① 평가는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② 의도된 교육목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의도되지 않은 성과에 대해서도 유의하도록 한다.

③ 평가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교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도구 및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④ 지적, 정의적, 기능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되, 단순한 사실의 기억이나 기능의 습득보다는 이해, 적용, 조작 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도록 한다. 특히, 실험과 실습이 요구되는 과목의 경우에는 실험, 실습도 이론과 함께 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학생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학습 정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기 타

①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에서도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와 특별활동의 내용을 모두 지도한다. 다만, 1시간 수업을 40분으로 줄여서 할 수 있다.

② 교육법 제107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 통신 고등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의 일반계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수업은 방송에 의한 수업과 통신에 의한 수업, 학교 출석 수업으로 구분한다.

- 방송에 의한 수업에서의 1 단위 시간은 교과의 특성 및 학생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축할 수 있다.

-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6일 이상으로 한다.

- 방송통신교육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새로 구성할 경우에는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교육법 제10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는,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총 이수 단위의 2/3 이상을 확보한다.

- 실습을 필요로 하는 과목은 현장 실무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실무로 대체하는 실습은 전체 수업의 1/3까지 가능하며, 3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습 능력 및 기술 신장과 국민 정신 함양에 관련된 지도 내용을 우선적으로 지도하되,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영 계획을 작성한다.

(6) 제4차 교육과정 운영의 평가

제4차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국민학교와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교육목표, 편제와 시간배당, 운영지침, 각론에 목표, 내용과

체제, 운영 실태에 나타난 제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¹¹⁾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는 문교부가 11개 시·도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분석되었다.

1)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① 교육목적 및 교육 목표

2000년대 우리 사회를 예견하여 학교 교육을 통하여 길러야 할 인간 특성으로 주체성(1위), 애국심(2위), 정직성(3위), 창조성(4위)을 들고 있고, 국민학교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국민정신교육(1위), 통일안보교육(2위),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는 교육(3위), 미래교육(4위)을 들고 있다. 국민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교육내용은 합리적인 사고 훈련 교육(62.8%)과 정서교육(37.4%), 예절교육(21.5%)이다.

현행 국민학교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해서는 92.7%이 교사가 다가올 연대에 있어서도 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나, 진술방식에 대해서는 31.6%의 교사가 현행보다 상세히 진술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② 각과 목표, 내용 및 체제

국민학교 교육의 일반목표와 각 교과 목표의 관련성에 대해서 ‘대단히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가 57.3%, ‘별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가 40.3%로서 의견이 양분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현행 교과목표를 현재보다 더 여러 개로 나누어 좀 더 상세히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행대로가 좋다’는 반응이 56.2%, ‘현행보다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좋다’가 42.7%이었다.

각 교과의 학년별 목표의 체계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가 41.0%, ‘서로 비슷비슷하여 사실상 구분을 할 수 없다’가 전체 교사중 46.7%이었다. 각 교과 교육과정 체제는 교과목표, 학년목표와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체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75.8%).

각 교과의 내용 분량에 있어서는 도덕과 25.3%, 국어과 40.9%, 사회과 39.7%, 산수과 41.9%, 자연과 27.5%, 체육과 30.6%, 음악과 20.3%, 미술과 22.1%, 실과 38.0%의

11)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조사로 4차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1986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 질문지를 구성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교사가 '내용분량이 많다'고 반응하고 있다.

내용 수준에 있어서 도덕과는 내용 수준이 적당하다고 (81.6%)보고 있는데 반해서 산수과는 3학년 교사의 68.6%가 내용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나머지 학년 교사 대부분이 내용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P<.001$). 그리고 국어과 교사의 26.2%, 사회과 36.9%, 자연과 31.8%, 실과 26%의 교사가 내용수준이 높다는 반응을 하였다.

각 교과 내용의 진술 방법은 61.6%의 교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도 68.3%의 교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③ 편제와 시간 배당

교과 통합 방안에 있어서 현행의 1학년의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바른 생활은 어휘량이 많기 때문에 문자지도에 애로사항을 느끼며, 슬기로운 생활에서 자연, 산수는 이질적인 교과이어서 통합 교과 지도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1, 2학년에서는 통합 교과서를 사용하여 교과 통합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과정 자체는 교과별로 분리·명시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60.8%의 교사가 교육과정도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하고 있다.

국민학교 교과목 수에 대해서 전체 교사의 44.8%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52.8%는 저학년의 경우는 통합교과로 편성되어 있어서 상관없으나, 고학년의 경우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주당 수업시간(24-34시간)에 있어서도 59.0%의 교사가 많다고 반응하고 있다. 특히 1, 2학년보다는 3, 4, 5, 6학년의 고학년 교사들이 주당 수업 시간이 많다고 보고 있다($P<.001$). 77%의 교사가 시간 배당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주당 평균 시간 수를 삭제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1시간당 수업시간을 40분에서 45분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교사의 73.5%가 반대를 하였으며 교과별로 융통성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현행 교육과정에 시간배당 기준에는 학습 영역별(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연간 이수 수업 시수가 고정,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통합 교과는 여러 교과 내용을 관련지어 가르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의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반응하고 있다 (80.9%).

각 교과목의 시간 배당량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간배당이 알맞게 되어 있다고 반응하고 있다. 다만 국어과에 대해서 1학년 교사의 31.7%, 사회과에 대해서 4학년 교사의 36.3%

가, 자연과에 대해서 2학년 교사의 41.4%가 시간이 너무 적게 배당되었다고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산수과에 대해서는 전체 교사의 43.3%가 시간이 너무 적게 배당되었다고 하였다.

④ 운영 지침

현행 교육과정 운영 지침 체제는 계획, 지도, 평가, 기타 4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체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행대로가 좋다’고 반응하고 있다(87.8%). 그러나 교육과정 운영지침은 개정시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자세히 진술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교사가 전체 교사의 72.9%이었다. 현장 교사의 64.1%가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고려한 후, 수업계획 및 학습지도를 하나 35.9%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교육과정을 볼 시간이 부족하거나(48.3%), 운영지침의 내용이 막연한 것이어서 별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36.4%).

⑤ 운영 실태상의 문제

가. 교육과정 운영 지역화

현행 교육과정 운영지침에는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는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수준에 알맞도록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별도 단원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교육목표와 수준에 알맞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운영 지역화는 교육청 또는 시·도 단위별 학력고사의 획일화된 평가(49.9%)와 업무과다(25.5%)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내용의 보편성과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도시·농촌·어촌 등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루 다루도록 원하는 교사가 43.5%이고, 교과서에서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고 지역적인 특수성을 수업시간에 교사가 보완하여 지도하기를 원하는 교사가 33.6%이었다.

반면에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를 위한 한 방안으로 교과단원의 지역화가 가능한 과목 및 단원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고시할 때 중앙에서는 단원명만 설정해 주고 지방에서는 그 단원의 교재내용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해서 학교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2.5%의 교사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능력에 따른 교육과정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야 된다는 것이 교육방법상의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의 일환으로 능력별 학급편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서 58.8%의 교사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교사도 38.4%나 있었다.

현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단일화되어 있어서 능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상에 가르쳐야 할 최소 수준만을 명시하고, 그 이상은 학생 능력에 따라 상급수준을 열어 놓는 방안에 대해서 83.8%의 교사가 찬성하였다.

또한, 이의 일환으로 한 학년의 아동들은 세 그룹(부진아, 보통아, 우수아)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능력에 맞도록 서로 다른 종류의 교과서(3종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60.7%의 교사가 찬성하였고 34.9%는 반대하였다. 특수 학급의 경우에 있어서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67.6%의 교사가 찬성하고 있다.

다. 교과 전담제

현재 상당수의 학교에서 음악은 주로 여교사가, 체육은 주로 남 교사가 전담하여 가르치고 있다. 이는 교과별 전담제 운영의 한 예로서 교육적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교과별 전담제 운영 방안에 대하여 57.8%의 교사들이 과목의 종류에 따라 어떤 과목은 전담제를 운영하고 어떤 과목은 현행처럼 한 교사가 다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반응하고 있다.

라. 교사용 지도서

교사용 지도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사(81.6%)가 수업 운영상에 다소 도움이 되는 하나 보다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보완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마. 특별 활동

현재 특별활동은 어린이회 활동, 클럽활동, 학교 행사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서 어린이회 활동을 학급활동과 어린이회 활동으로 나누어 4영역으로 분리하는 문제에 대하여 59.2%의 교사들이 현행대로가 좋다고 반응하고 있다. 1, 2학년에서 특별활동 시간량의 기술에 대해서는 73.4%의 교사들이 담임교사 재량의 학급활동 중심인 현재대로가 좋다고 반응하고 있다.

2) 중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①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

2000년대 우리 사회를 예견하여 학교교육을 통하여 길러야 할 인간특성으로 주체성(1

위), 애국심(2위), 창조성(3위)을 들고 있고, 중학교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으로는 국민정신 교육(1위), 통일안보교육(2위), 미래교육(3위),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는 교육(4위)을 들고 있다.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교육목표는 전체 교사의 93.2%가 ‘2000년대의 있어서도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중학교 교육목표는 현재 8개의 목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64.0% 교사가 ‘현행대로가 좋다’고 하였고 32.1%의 교사는 ‘현행보다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하였다. 중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내용은 합리적인 사고 훈련교육(46.0%), 정서교육(38.5%), 예절교육(27.0%)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각과 목표, 내용 및 체제

중학교 교육의 일반 목표와 각 교과목표가 ‘대단히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가 66.4%, ‘별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가 32.2%이었다. 현행 교과목표를 현재보다 더 여러 개로 나누어 좀 더 상세히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현행대로가 좋다’는 반응이 57.3%, ‘현행보다 상세히 진술하는 곳이 좋다’가 40.2%이었다. 각 과목의 학년별 교육목표에 대해서는 ‘서로 대단히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가 71.6%, ‘별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가 26.4%이었다.

각 교과 교육과정체제는 가. 교과목표, 나. 학년목표와 내용, 다.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체제에 대해서 68.3%의 교사가 타당하다고 보고, 28.3%의 교사는 그저 그렇다고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각론 구성체제는 무난하다고 볼 수 있다.

교과목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가 64.8%, ‘그저 그렇다’가 31.6%로서 교과목 여부에 대해서는 52.8%의 교사가 ‘타당하게 선정되어 있다’고 하였고, 37.6%의 교사가 ‘그저 그렇다’고 반응하고 있다. 교과 학년별 내용의 계열성에 대해서는 44.3%의 교사가 ‘계열성을 가지고 있다’고 반응하고 있고, ‘그저 그렇다’가 31.2%, ‘계열성이 없다’고 24.3%로 반응하고 있어 학년별 내용은 계열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교육과정 각론에서 내용의 진술 방식에 대해서 ‘현재대로가 적절하다’고 한교사가 37.6%, ‘좀더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었으며 좋겠다’고 한 교사가 59.9%로서 음악, 한문, 실업·가정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사가 내용 진술을 구체적으로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에 있어서도 62.7%의 교사가 좀더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③ 편제와 시간 배당

중학교 교과목 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60.4%의 교사가 '적당하기 때문에 과목 수를 줄일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36.4%의 교사는 '많기 때문에 과목 수를 줄여야 한다'고 반응하였다. 실업·가정과의 통합에 관한 안에 대해서 72.5%의 교사가 찬성하였고 27.5%의 교사는 반대를 하였는데 실업·가정과의 교사가 일반과목 교사 보다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P<.001$).

생활기술과와 가정의 통합 방식에 대해 찬성하는 교사는 50.3%, 현행대로 생활기술, 가정을 존속시키되 이 두 과목을 통합한 과정을 신설하여 학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교사는 46.7%로서 실업·가정과와 일반과목 교사간에 반응의 차가 없었다($P<.05$).

또한 실업·가정과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업가정과 교사의 65.5%가 반대한 반면, 일반 과목 교사들은 60.7%의 교사가 찬성하였다($P<.001$).

현재의 주당 수업시간(34-36시간)에 대해서는 67.3%의 교사가 많다고 반응하고 있다. 또한 64.9%의 교사가 시간배당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주당 평균 시간 수를 삭제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을 찬성하였으며 30.6% 교사는 반대를 하였다. 농어촌의 교사가 중·소도시나 대도시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P<.05$). 자유선택시간 활용 실태에 대해서는 65.5%의 교사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반응하고 있고 그 시간을 대도시나 중·소도시가 농어촌보다 주지교과의 부족시간으로 보충하는 경향이 높았다($P<.001$).

자유선택시간 폐지에 대해서는 53.1%의 교사가 찬성하였고, 24.2%의 교사가 반대를 하였다. 각 교과시간 배당량은 57.4%의 교사가 알맞다고 반응하였고 34.6%의 교사가 시간이 너무 적게 배당되었다고 반응하고 있다. 교과별로 보면 도덕·체육·가정·생활기술 등의 교과는 대체로 시간배당이 알맞다고 보고 나머지 교과는 대체로 시간배당이 적다고 반응하였다.

④ 운영 지침

현행 교육과정 운영지침의 체제는 계획, 지도, 평가, 기타의 4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이 체제에 대해서는 81.3%의 교사가 '현행대로가 좋다'고 반응하고 있다. 또한 63.6%의 교사가 '좀 더 구체화시켜서 자세히 진술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수업계획 및 학습지도시 운영지침을 38.9%의 교사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운영지침의 내용이 막연한 것이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47.2%), ‘교육과정을 볼 시간이 부족하여’ (27.3%), ‘운영지침을 고려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21.6%) 순으로 나타났다.

⑤ 운영 실태상의 문제

가. 교육과정 운영 지역화

교육과정 운영 지역화에 대해서는 79.1%의 교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교육청 또는 시·도 단위별 학력고사 등의 획일화된 평가(45.0%)와 업무과다(21.5%)등을 들고 있다.

교육내용의 보편성과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교과서는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고 지역적인 특수성을 수업 시간에 교사가 보완하여 지도하는 방안을 많은 교사(45.7%)가 지지하였다.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를 위한 한 방안으로 교과 단원의 지역화가 가능한 과목 및 단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고시할 때 중앙에서는 단원명만 설정하고, 지방(각 시·도 교육연구원)에서는 그 단원의 교재 내용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2.5%의 교사가 찬성하였으나 반대하는 교사도 25.8%나 되었다.

나. 능력에 따른 교육과정

능력별 학급편성에 대해서는 69.9%의 교사가 찬성하였으며 현재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단일화되어 능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상에 가르쳐야 할 최소 수준만을 명시하고 그 이상은 학생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상급 수준을 열어 놓은 방안에 대해서는 79.8%의 교사가 찬성하였다.

그러나 아동을 지진아, 보통아, 우수아로 나누고 각 그룹의 능력에 맞도록 서로 다른 종류의 교과서(3종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41.8%의 교사가 반대를 하였고 찬성하는 교사는 52.4%이었다.

특수 학급에 특수 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73.0%의 대부분의 교사가 찬성하였다.

다. 교사용 지도서

교사용 지도서에 대해서는 수업 운영상에 다소 도움이 되기는 하나 보다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을 바라는 교사가 74.3%이었다.

라. 특별 활동

현재 특별활동은 학생회활동, 클럽활동, 학교 행사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다. 여기서 학생회 활동을 학급활동과 학생회 활동으로 나누어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55.7%의 교사가 반대하였고 38.6%의 교사가 찬성하였다.

3)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평가¹²⁾

① 교육과정 편제

가. 이수 단위의 적정선

현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졸업에 필요한 이수단위는 204~216 단위인데 이수단위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현 204~216 단위는 학생들에게 많은 편으로 축소시키자는 의견이 62%로, 현행대로가 좋다는 의견 3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수단위를 늘리자는 의견도 5%를 보이고 있다.

현 이수단위가 많거나 적다고 생각할 때 학생들에게 적합한 이수단위에 대하여는 현행 (204~216)보다 20 단위 정도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68%로 다수이었으며, 160~180 단위로 대폭 축소시키자는 의견도 16%로 나타났다.

나. 이수 과목수의 적정 여부

학생들이 1년간 (또는 1학기 동안)에 이수해야 할 교과목수의 적정여부와 현행 교과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보통교과의 공통필수 이수교과 및 단위수 배정이 합리적인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학생들이 1년간 (또는 1학기 동안)에 이수해야 할 교과목수가 대체로 15~20 교과목으로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80%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1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학생들의 부담이 크므로 교과목수를 통합·조정해야한다는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일선 교사들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과목이 I·II로 통합되어 과거보다 축소되었다고 하나 실제로 교과서는 줄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한 예로 사회교과의 정치·경제와 사회·문화가 두 과목으로 나누었으나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사회 I, 사회 II 두 과목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12) 1986년 문교부 편수관리관실에서 제5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1개 시·도 39 개교를 대상으로 현장면담조사 및 질문지조사를 병행하여 제4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정리하였음.

다. 공통 필수 교과 운영의 타당성 여부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할 보통교과의 공통필수 이수교과 및 단위수가 13 교과 18 과목, 88~102 단위로 편제되어 있는데, 교과목수와 단위수의 배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필수교과 또는 단위수를 줄여 선택교과의 폭을 넓혀주자는 의견이 51%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과의 면담에서 다수의 교사들은 공통필수로 부과하는 교과는 가능한 한 줄이고 동시에 단위수도 축소하여 이에 따라 과정별 선택교과의 폭을 넓혀 인문·사회, 자연, 직업과정 등 과정별 특성을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며, 공통필수의 88~102 단위의 폭을 보다 좁히던가 가능하다면 공통필수의 단위수는 통일을 기하고, 대신 선택교과에서 보다 넓은 단위의 폭을 부여하는 것이 과정별 특성을 살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합리적이라는 의견의 제시도 있었다.

일부 교사는 교과목과 단위수를 통일을 시킬 경우 교과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이 적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라. 각 계열 공통 필수 교과의 통일 여부

고등학교에서 보통교과 공통필수 이수단위가 일반계고등학교는 88~102 단위, 실업계 고등학교 및 기타계열 고등학교는 72~84 단위로 서로 상이한 입장이다. 현행대로 계열에 따라 차이를 두고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통일을 시키는 것이 좋겠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는데, 모든 계열 고등학교가 공통필수 교과목과 단위수만은 같아야 한다는 의견이 62%로 압도적이었다.

일선 교사들은 공통필수를 부과하는 근본목적이 어느 계열의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필수 교양과정의 특성과 기초교육 육성에 있다고 할 때 공통필수 교과목과 단위수만은 모든 계열 고등학교가 통일을 기하고, 반면에 계열별 고등학교의 특성은 선택교과나 전문교과에서 살릴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었다.

그리고 계열별 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통 필수 교과목의 이수 단위가 72~84 단위 (현 실업계 고등학교 및 기타 계열 고등학교의 공통 필수 이수 단위) 범위 내에서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 교원 조직, 교육과정 운영 등 여러 면에서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마. 이수 단위 폭의 적정 여부

교육과정의 단위 배당 기준에서 각 교과목별로 이수단위의 폭을 두고 있는데, 이수단위의 폭을 두므로 인하여 담당교과운영에 있어 학습지도상 문제점은 없는지 그 여부와 어떻

게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알아보았다.

각 교과목을 적정단위수로 고정시키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일정단위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49%로 현행대로 단위폭을 두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케 하자는 의견 4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의 면담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각 교과마다 단위폭을 주고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대학학력고사와 관련하여 주지 교과는 가능한 한 최대 단위로, 그 이외 교과는 최소단위로 운영하고 있어 교과별 이수단위의 폭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각 교과마다 지도서의 교과 지도계획을 보면 최대단위에 맞추어 편성되어 있어 교과서도 최대단위에 근거하여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주어진 단위로는 교과의 양이 많아 교과 지도상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바. 단위제의 타당성 여부

현행 교육과정에는 단위제를 중심으로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학교에서는 단위제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학교현장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학교 현장에서는 현행대로 단위제와 학년제의 병용이 좋겠다는 의견이 50%로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학기별 단위제에서 학년별 단위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29%, 대학과 같이 완전 단위제 적용을 희망하는 의견도 19%로 상당히 많았다.

교사와의 면담결과에서 보면 완전단위제 적용을 위해서는 학생의 교과목 선택에 따른 교원인사 등 문제점이 있어 실제로 학교에서 실시하기는 어려우며 현 여건이나 업무간소화 등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년제 중심의 단위제가 바람직하나 휴학생에 대한 편의제공, 전학생에 대한 이수단위의 기득권 부여, 그리고 현재의 병용제가 학년제 중심 단위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사. 자유선택 교과운영 방안과 자유 선택 교과목의 이수단위 표시

현행 교육과정에는 자유선택 교과목을 제도화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이나 윤리학, 철학, 교육학, 종교교육 및 교양 등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정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과정의 단위배당 기준이 0~8 단위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대학학력고사에 배점이 많은 특정 교과시간에 할애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교과를 선택하는데 따르는 교원의 충원문제와 자유선택교과 선택에 따르는

교과목의 증가로 학생에게 부담만 가중된다는 의견으로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가 49%로 나타나고 있으나 반면 자유선택교과목 설정의 취지에 맞추어 실효성을 기하고자 한다면 2~8 단위로 최소 2단위 이상 부과자는 의견이 48%로 현행대로 운영하자는 의견과 상당히 비등하게 나타났다.

현행 입시제도하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운영과 배워야 할 교과목이 과다한 가운데 자유선택교과를 의무적으로 부과할 경우 학생의 부담만 가중되며,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에 한하여 선택하도록 할 경우에는 대학학력고사에 배점이 높은 주요교과를 선택하게 하여 주요교과의 단위수만 더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자유선택교과의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목 이외의 과목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전공교사의 배치가 가능할 것인지의 문제가 뒤따르며, 현 교사를 재교육시켜 담당하게 할 때 그 실효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② 각 교과목의 내용과 개선 방향

가. 각 교과목의 내용 수준

각 교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의 내용수준이 학생들에게 “높은 편이다”라고 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적당하다”거나 “낮은 편이다”고 하는 교사도 있다.

각 교과 가운데 일반적으로 내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 교과목이 수학, 한문, 화학, 생물이고 부분적으로 수준 높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조금 높은 것으로는 국어, 지리, 물리, 영어, 지구과학, 독일어교과로 나타났다.

나. 각 교과목의 내용 분량

배당된 이수 단위수에 비하여 각 교과목의 내용분량이 어떠한가를 알아본 결과는 전반적으로 모든 교과목이 단위수에 비하여 교재의 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국어, 국사, 사회, 지리, 세계사는 내용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용분량이 적당한 교과목으로는 국민윤리 정도였고 나머지 교과목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교과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

제4차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초·중·고 교육과정이 일괄 고시된 것이다. 이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는 교육과정 고시에 정한 시행연도에 맞추어 출판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1982년에 1, 2, 3학년용, 1983년에 4, 5, 6학년용 교과서가 공급되었고, 중학교도 도덕, 국사는 198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사회, 수학, 과학은 1984년 신입생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그 외의 모든 교과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문교부는 제4차 교육과정 시행에 맞추어 1977년에 제정했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1982년에 개정하게 되었는데(1982. 3. 11), 이 규정에서 1종 도서의 범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2종 도서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1982년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정책은 중·고등학교의 1종 도서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국어, 도덕, 국민윤리, 국사에 국한시키고, 나머지 교과는 모두 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2종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 특징이다.

국가 정책의 실현과 국가관 확립에 유용한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진 1종 도서제도이지만 보다 자율성과 창의성이 높아질 수 있는 2종 도서제로의 확장을 꾀한 문교부의 교과서 정책 변화는 정부의 기본 시책에도 부응할 뿐만 아니라, 출판사, 저작자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선의의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요구에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검정 도서 출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였으나 종래 ‘최근 3년간에 매년 5 종류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에서 ‘매년 10 종류 이상의 도서 발행 실적이 있는 출판사’로 개정하였다(동령, 제14조 2항 1).

그리고 1982년에 문교부는 1984학년도부터 사용할 1종 교과서를 연구 기관 및 대학에 위탁했으며, 2종 교과서를 다음과 같이 확대 공고한 바 있다(1982. 4. 1,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

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1, 2학년)에서 통합교과서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교육과정의 편제는 그대로 두고 교과서만 통합교과서로 편찬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1종 도서의 비율과 종 수가 사상 최대로 많았다. 이것은 1977년의 검인정 교과서 사건 이후 2종 도서 기피현상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해석된다.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 표에 나타난 11개 교과의 17개 교과목 중에서 1종 도서로 발행된 교과서가 14개 교과목에 이르고 검정 교과서인 2종 도서로는 체육(1, 2, 3학년), 음악(1, 2, 3학

년), 미술(1, 2, 3학년), 사회과부도(지도서 없음), 서예와 한문(1, 2, 3학년)에 불과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윤리, 국어, 국사, 사회 I, II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와 전문교과의 교과서가 1종이었고 나머지는 2종 도서였다.

즉, 현대문학, 작문, 고전문학, 지리(I, II), 세계사, 사회과부도(지도서 없음), 수학(I, II), 물리(I, II), 화학(I, II), 생물(I, II), 지구과학(I, II), 체육, 음악, 미술, 서예, 한문(I, II), 영어(I, II),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산업기술, 가정 등의 교과가 이에 해당된다.

고등학교의 2종 교과용 도서의 검정은 1982년 4월 1일 공고하고, 1983년 1월 31일까지 접수하여 검정한 후 1984년부터 사용하도록 했다.

제4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서 달라진 것 중의 하나는 실업계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교과서를 없앴 것이다. 이것은 제4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에 개편되었던 1종 도서부터 적용되기는 하였으나, 전 보통교과의 교과서를 일반계, 실업계(기타계 포함) 구별 없이 하나의 교과서를 쓰게 한 것은 이 시기부터이다.

(1) 교과용 도서 편찬 계획 및 추진 상황

제4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새 시대의 교육이념 구현과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하도록 편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과용 도서 편찬 기본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다.

1) 편찬 대상 도서 총괄

1982년에는 제4차 교육과정에 의한 첫 교과서가 국민학교에서부터 적용되었다. 따라서, 중·고등 학교용 교과서의 경우는 1종 도서 개발이 착수되었고, 2종 도서의 검정 공고가 있었다.

편찬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를 포함하여 국민학교가 161권, 중학교가 264권, 고등학교가 3353권 도합 3778권이였다(표 V-10 참조).

한편, 중·고등학교 교과서 개발 범위도 크게 바뀌었다. 1종 도서의 범위를 축소하고, 2종 도서의 대상을 확대시켰다. 1982~1987년 사이에 발행한 1종 도서는 총 564책에 이른다. 이 중에서 교과서가 487책이고, 교사용 지도서는 77책이다. 이를 학교별로 정리하면 <표 V-11>과 같다.

〈표 V-10〉 편찬 대상 도서 총괄

(): 교과용 지도서의 책 수

구분 연도	국민 학교	중학교	일 반 계 고	실업계 고등 학교							계
				보통 교과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 해운계	가사· 실업계	체육계	
1982	38(38)	39(39)	39(39)	10(10)	7(7)	25(25)	34(1)	5(1)	34		540(99)
1983	42(43)	39(39)	39(39)	10(10)	7(7)	25(25)	34(1)	5(1)	34		544(104)
1984		39(39)	39(39)	7(7)	9(7)	31(35)	40(1)	12	27	13(1)	407(36)
1985		39(39)	39(39)	6(6)	11(7)	36(35)	43(3)	7(1)	33	15(5)	710(75)
1986		38(39)	38(37)		29(16)	21(11)	27(7)	47(2)	25	13(5)	443(77)
1987		38(39)	38(38)		29(16)	21(11)	27(7)	47(2)	25	13(5)	443(82)
합계	80(81)	138(112)	138(122)	33(33)	51(60)	133(43)	204(21)	338(6)	158	40(16)	3285(439)

자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대한교과서사: 1948-1998 (1998), p.8500의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표 V-11〉 제4차 교육과정기(1982-1987) 1종 도서 편찬 현황

구 분		교과서	교과용지도서	계
중 학 교		30	13	43
고등학교	보통(인문계)	20	22	42
	전문(실업계)	437	42	479
합 계		487	77	564

자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847의 자료를 재정리함.

2) 개발 기관별, 학교별 개발 교과목

편찬 도서의 개발 기관별, 학교별 구체적 개발 교과목은 〈표 V-12〉과 같다. 즉, 문교부에서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이에 준거하여 1종 도서를 편찬(개발)하는 경우, 먼저 1종도서 대상 교과목을 선정하는데 이것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다.

1종 도서 편찬 교과목이 선정되면 교과용 도서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교과목별로 개발 기관을 선정·위탁한다.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는 연구 편찬 기관은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편찬에 대한 자질이 풍부한 기관 중에서 문교부가 선정한다. 선정된 개발기관에서는 교과별 도서 개발 기초 연구 및 집필 위원 선정 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집필에 착수한다.

〈표 V-12〉 개발 기관별 · 학교별 개발 교과목

구 분	문교부 관계관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교육 전문직	학교 교원	기타	계	문교부 담당자
영 위 원 회	4	14	3	1	7	1	30	박용진
소위원회	5	11	1	2	4	2	25	함수곤
도 덕	1	5	2	3	7		18	김성환
국 어	3	5	3	1	6		18	최현섭
사 회	4	10	1		5		20	임덕순, 박병호, 김용만
산 수	1	10	1	2	2		16	안상술
자 연	4	12	1	1	6		24	문찬호, 정완호
체 육	1	12	1		3		17	이광섭
음 악	1	8	2	1	4	1	17	최종진
미 술	1	7	1	3	2	3	17	이태식
실 과	3	7	3	1	5	1	20	정성봉, 한의수
특별활동	1	10	2	2	4	2	21	정태위
계	25	97	18	16	48	9	213	
소위원회	5	10	1	3	5	1	25	이상용
도 덕	2	10	2	2	5	1	22	한병희, 김성환
국 어	6	16	1	1	2		26	이병진, 최현섭
학 사	2	20	1		2		25	김용만, 윤종영
사 회	4	15	1		5		25	박병호, 김용만, 윤종영

구 분 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일 반 고 교	실업계 고등 학교							계
				보 통 교 과	농 업 계	공 업 계	상 업 계	수 산 · 해 운 계	가 사 · 실 업 계	체 육 계	
1982	38(38)	30(30)	20(18)	10(10)	73(7)	251(5)	34(1)	51	24		540(98)
1983	42(43)	30(30)	20(18)	10(10)	73(7)	251(5)	34(1)	51	24		544(106)
1984		19(15)	20(20)	7(7)	95(7)	313(3)	40(1)	62	27	15(1)	607(56)
1985		19(19)	20(20)	6(6)	115(7)	381(6)	43(3)	70	33	15(5)	710(75)
1986		18(19)	16(17)		79(16)	215(11)	20(7)	40(2)	25	15(5)	443(77)
1987		18(19)	16(19)		79(16)	215(11)	20(8)	40(2)	25	15(5)	442(82)
합 계	80(81)	130(113)	128(121)	33(33)	526(80)	1625(43)	204(21)	328(5)	158	60(16)	3385(460)

구 분 개발기관별	학 교 별	교 과 목 명	개 발 책 수			비고
			교과서	지도서	계	
서울대농대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중 학 교	농 업 3	1		1	
	고등학교	농 업	1		1	
		농 업 발 전	1		1	
		농업생산환경	1		1	
		농업생산자재	1		1	
		낙농경영실습	1		1	
		시 설 원 예	1		1	
		초 지	1		1	
		농 업 동 력 및 트 래 터	1		1	
		식 품 위 생	1		1	
		농업토목제도	1		1	
		농가환경위생	1		1	
		농 작 업 기	1		1	
		소 계	13		13	
충 남 대 공 대 공 업 교 육 연 구 소	중 학 교	생 활 기 술 1 2	2		2	
	고등학교	공 업 3	1		1	
		공 업 경 영	1		1	
		공 업	1		1	
		소 계	5		5	

구 분 개발기관별	학 교 별	교 과 목 명	개 발 책 수			비고
			교과서	지도서	계	
홍 익 대 1종도서편찬위원회	중 학 교	상 업 3	1		1	
홍 익 대 중화학공업연구소	고등학교	기 초 제 도	1		1	
홍익대환경개발연구소	"	표 현 기 법	1		1	
부 산 수 대 1종도서 연구 개발 위 원 회	중학교	수 산 업 3	1		1	
	고등학교	어 업 2	1		1	
		수 산 가 공 1	1		1	
		양식생물질병	1		1	
		소 계	4		4	
서울대가정대1종도서 연구 개발 위 원 회	"	가 사	1		1	
		아 동 발 달	1		1	
		의 복 구 성	1		1	
		소 계	3		3	
서울대생산기술연구소	"	전 기 일 반	1		1	
		전 기 기 계	1		1	
		기 계 설 계	1		1	
		기 계 일 반	1		1	
		섬유공업일반	1		1	
		소 계	5		5	
서울대경영연구소	"	상 업 부 기	1		1	
		상업부기실습	1		1	
		소 계	2		2	

구 분 개발기관별	학 교 별	교 과 목 명	개 발 책 수			비고
			교과서	지도서	계	
서울대자연과학대 자연과학종합연구소	고등학교	지 질 학	1		1	
연세대생산기술연구소	"	전자계산기	1		1	
연세대산업기술연구소	"	자 동 제 어	1		1	
		공 업 화 학	1		1	
		요 업 일 반	1		1	
		식 품 과 학	1		1	
		제조화학공업	1		1	
		소 계	5		5	
고려대생산기술연구소	"	무 선 공 학	1		1	
		금 속 제 련	1		1	
		소 계	2		2	
고려대무역연구소	"	마 아 케 텅	1		1	
단국대공업기술연구소	고등학교	수 리 토 질	1		1	
부산공전대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	평 관 인 쇄	1		1	
경 기 공 전 대 공 업 교 육 연 구 소	"	건 축 구 조	1		1	
		건축설계제도	1		1	
		소 계	2		2	
한양대산업과학연구소	"	자동차구조	1		1	
		공 업 입 문	1		1	
		산 업 안 전	1		1	
		소 계	3		3	

구 분 개발기관별	학 교 별	교 과 목 명	개 발 책 수			비고
			교과서	지도서	계	
인하대산업과학연구소	고등학교	조선공학일반	1		1	
		자원공학일반	1		1	
		소 계	2		2	
인 하 대 항공경영관리연구소	"	항공기일반	1		1	
		항공기정비일반	1		1	
		소 계	2		2	
광 운 공 대 1종도서 연구 개발 위원 회	"	통 신 실 기	1		1	
철 도 전 문 대 1종도서 개발위원회	"	철 도 일 반	1		1	
		철도차량일반	1		1	
		소 계	2		2	
승전대전자계산연구소	"	프로그래밍	1		1	
		자 료 처 리	1		1	
		소 계	2		2	
해 양 대 1 종 도 서 연구 개발 위원 회	"	해 운 실 무	1		1	
경 상 대 1 종 도 서 연구 개발 위원 회	"	식품가공기계	1		1	
항공대학 1 종 도 서 연구 개발 위원 회	고등학교	통 신 운 용	1		1	
숙 명 여 대 교육문제연구소	중 학 교	특 별 활 동		1	1	
	고등학교	"		1	1	
		소 계		2	2	

구 분 개발기관별	학 교 별	교 과 목 명	개 발 책 수			비고
			교과서	지도서	계	
홍 익 대 1종도서편찬위원회	중 하 교	상 업 3	1		1	
홍 익 대 중화학공업연구소	고등학교	기 초 제 도	1		1	
홍익대환경개발연구소	"	표 현 기 법	1		1	
부 산 수 대 1종도서 연구 개발 위 원 회	중학교	수 산 업 3	1		1	
	고등학교	어 업 2	1		1	
		수 산 가 공 1	1		1	
		양식생물질병	1		1	

3) 교과서 체제

① 교과서

교과서 편찬 요령은 외형과 내용을 구분하여 <표 V-13>과 같이 마련하였다.

② 교사용 지도서

교사용 지도서는 외형과 내용을 구분하여 <표 V-14>와 같이 마련되었다.

4) 교과서 개발 예산

교과서 개발을 위한 원고료, 삽화료 등의 단가가 종전의 비하여 월등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단가는 문교부 담당자가 결정하기 보다 경제기획원의 담당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가격 사정은 교과서 담당자에게는 최대의 난제이었다. 교과서 개발 단가는 <표 V-15>와 같다.

5) 교과서 편찬 업무 추진 현황 및 담당자

문교부 편수국에서는 유·초·중등 교과서의 편찬업무를 이제까지 연차별 학교급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제4차에 와서 교육과정을 일시적으로 개발하였고 그에

〈표 V-13〉 교과서 편찬 요령

구 분 개발기관별	학 교 별	교 과 목 명	개 발 책 수			비고
			교과서	지도서	계	
서울대자연과학대 자연과학종합연구소	고등학교	지 질 학	1		1	
연세대생산기술연구소	"	전자계산기	1		1	
연세대산업기술연구소	"	자 동 제 어	1		1	
		공 업 화 학	1		1	

구 분 개발기관별	학 교 별	교 과 목 명	개 발 책 수			비고
			교과서	지도서	계	
인하대산업과학연구소	고등학교	조선공학일반	1		1	
		자원공학일반	1		1	
		소 계	2		2	
인 하 대 항공경영관리연구소	"	항공기일반	1		1	
		항공기정비일반	1		1	
		소 계	2		2	
광운공대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	통신실기	1		1	
철도전문대 1종도서 개발위원회	"	철도일반	1		1	
		철도차량일반	1		1	
		소 계	2		2	
송전대전자계산연구소	"	프로그래밍	1		1	
		자료처리	1		1	

〈표 V-14〉 교사용 지도서 편찬 요령

구 분		편 찬 요 령 (예시)
외 형	판 형	1. 4 × 6 배판
	쪽 수	1. 별첨 3 참조
	지 절	1. 본문 : 미색경지 2. 속표지 : 모조지
	활 자	1. 본문 9 pt

내 용	표 지	1. 교과 또는 교과서명, 학교별, 학년, 연구기관 표시 : 국민학교 제외 (속표지에는 교과 또는 교과서명, 학교별, 학년, 연구기관 표시 : 국민학교 제외) 2. 지도서 고유번호 명시(국민학교 제외) 3. 표지와 속표지 사이에 국민교육헌장 수록 4. 연구진 등 표시 • 중·고등학교의 최종면(관권 표시면)에 연구진, 집필진을 가, 나, 다 순으로 성명, 소속기관명만을 표시하되, 연구진과 집필진이 중복되는 경우 집필진에만 표시 • 국민학교의 경우는 교과서, 지도서의 연구진, 집필진, 삽화진을 지도서 최종면에 표시한다.
	머리말	1. 지도서의 편찬취지와 활용방법 제시
	차 례	1. 총론과 각론별로 표시
	총 론	1. 교과(목)의 특성 2. 교과(목)별로 교육과정 해설 3. 지도방법 소개 4. 지도계획 제시 5. 기타
	각 론	1. 단원·제재의 개관(해설 포함) 2. 단원·제재의 목표 진술 3. 단원·제재 해설 4. 단원·제재에 대한 다양한 지도방법과 학습활동의 제시 5. 교사용, 학생용 참고도서 목록 및 시청각 자료 제시 6. 평가방법 및 문제 제시 7. 교과서 문제 풀이
	기 타	

〈표 V-15〉 교과서 개발 단가

구분 항목	규격		'82 보조단가	비고
원고료	국교 교과서 200자 원고	쪽 매	7,000 2,400	
삽화료	단색 국판 " 1/2 " 1/4 원색 국판 " 1/2 " 1/4	" " " " " "	6,000 4,000 3,000 12,000 8,000 6,400	
만화료	단색 국배판 원색 국배판	" "	30,000 50,000	
사진작품	단색 실사판 " 복사판 원색 실사판	매 " "	6,000 2,400 9,000	
슬라이드	원색 4×5(35 ^{mm} /m) 원색 6×6(120 ^{mm} /m)	" "	4,500 7,500	
표지도안	국판 국배판 4.6배판	" " "	16,000 24,000 24,000	1책당 1매
모필료	국판	"	4,500	
경필료	국판 " 1/2 4.6배판	" " "	4,000 2,000 6,000	
지도제도	국판 " 1/2 " 1/4	" " "	16,000 11,000 8,000	
회의수당 수정검토료 편집연구보조원수당 사무비 심의본유인	1일 1인 1책 3인 연구기관당 " 복사지 B4	1회 1인 (책당) " 매	10,000 120,000 636,000 115,000 950	10인 8회 1책 추가시 " 92,000 복사지 사용, 1책당 2회
자료구입비 여비		책 "	92,000 184,000 (500,000)	지방의 기관 500,000
연구추진비 집중작업비		" "	184,000 276,000	1책당 3회

따라 학교급별 교과서를 일시적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편찬업무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편찬 업무의 추진, 교과서의 검토·심의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1981년에 개발한 교과서는 유치원과 국민학교 1, 2, 3학년, 그리고 4, 5, 6학년의 도덕, 사회, 중학교의 도덕과 국사, 고등학교의 국민윤리 및 국사 등이다. 이 교과서는 저학년 교과서와 국책 교과서로서 1982년 3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은 전제로 개발되었다.

그리고 1982년 이후 1985년까지 개발한 교과서는 국민학교 저학년과 국책 교과서를 제외한 전 교과서였다.

이 시기에 교과서 편찬업무에 관한 초·중·고별, 교과별, 개발연도별 추진 현황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① 초등학교

〈표 V-16〉 국민학교 교과서 업무 추진 현황 및 담당자

내	표 지	1. 교과 또는 교과서명, 학교별, 학년, 연구기관 표시 : 국민학교 제외 (속표지에는 교과 또는 교과서명, 학교별, 학년, 연구기관 표시 : 민학교 제외) 2. 지도서 고유번호 명시(국민학교 제외) 3. 표지와 속표지 사이에 국민교육헌장 수록 4. 연구진 등 표시 • 중·고등학교의 최종면(판권 표시면)에 연구진, 집필진을 가, 나 순으로 설명, 소속기관명만을 표시하되, 연구진과 집필진이 중되는 경우 집필진에만 표시 • 국민학교의 경우는 교과서, 지도서의 연구진, 집필진, 삽화진을 도서 최종면에 표시한다.
	머리말	1. 지도서의 편찬취지와 활용방법 제시
	차 례	1. 총론과 각론별로 표시
	총 론	1. 교과(목)의 특성 2. 교과(목)별로 교육과정 해설 3. 지도방법 소개

② 중학교

〈표 V-17〉 중학교 교과서 업무 추진 현황 및 담당자

구분 학교별	교과(계)별	총 책수	개발 연도						담당자
			'82~ '83	'83	'83~ '84	'84	'84~ '85	'85	
중학교	수학	3	1		1		1		국승길
	수학지도서	3	1		1		1		※
	과학	3	1		1		1		김동식, 문찬호, 정완호, 이규석
	과학지도서	3	1		1		1		※
	생활기술	2	2						고석달
	생활기술 지도서	2		2					고석달
	가정	2	2						안영희
	가정지도서	2		2					※
	농업	1	1						정성봉
	농업지도서	1		1					※
	공업	1	1						이혜정
	공업지도서	1		1					※
	상업	1	1						신취창
	상업지도서	1		1					※
	수산업	1	1						김동규
	수산업지도 서	1		1					※
	가사	1	1						안영희
	가사지도서	1		1					※
	소계	30	13	9	4		4		

③ 일반계 고등학교

〈표 V-18〉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서 업무 추진 현황

학교별 구분	교과(계)별	총 책수	개발 연도						담당자
			'82~ '83	'83	'83~ '84	'84	'84~ '85	'85	
일반계 고등학교	농업	1	1						정성봉
	농업지도서	1				1			*
	공업	1	1						이혜정
	공업지도서	1				1			*
	상업	1		1					신휘창
	상업지도서	1				1			*
	수산업	1		1					김동규
	수산업 지도서	1				1			*
	가사	1	1						김정자
	가사지도서	1				1			*
	소계	10	3	2		5			

④ 실업계 고등학교

〈표 V-19〉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서 업무 추진 현황 및 담당자

구 분 학교별	교과(계) 별	총 책수	개발 연도						계	담당자
			'82- '83	'83	'83- '84	'84	'84- '85	'85		
실업계고	농업계	81	14	11	7	11	12	5	60	정성봉
	농업계 지도서	16						15	15	·
	공업계	221	34	35	30	38	23	26	186	강기주, 이상혁, 이혜정, 최복식, 고석달, 류완수
	공업계 지도서	11				1	1	8	10	·
	상업계	27	6	4	2	3	2	3	20	신휘창 박덕만
	상업계 지도서	8				2		4	6	·
	수산·해 운계	47	7	7		8	1	9	32	김동규
	수산·해 운계지도 서	4					1	1	2	·
	가사실업 계	27	3		4	2	2	1	12	인영희 김정자
	가사 실업계 지도서									·
	초·중· 고	컴퓨터 교육지도 자료	(2)			(2)			(2)	박덕만
	소계	442 (2)	64	57	43	65 (2)	42	72	343 (2)	
	초·중·고 총 책수	532 (2)	130	68	47	70 (3)	46	72	433 (2)	()는 총계에서 제외함

6) 교과서 편찬 업무 추진을 위한 PERT 활용

새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1981년부터 1985년까지 300여권에 달하는 유·초·중·고교 각 교과서의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게 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에서는 워낙 방대한 양의 교과서를 일시에 개발하기 때문에 편수담당자들이 개발하는 교과서의 개발과정을 책임자(국장)에게 보고하여 협조를 구하는 기회도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편수책임자도 그 업무의 진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공정과 진도 점검에 활용하는 퍼트(PERT)를 활용하게 되었다. 모든 조직은 매년 반복되는 활동을 하고, 제한된 여건 속에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 통제하거나 기존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기법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소요시간·비용·활동간의 관련성 등을 네트워크(網, network)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작업과정의 공정을 파악하고 소요시간이나 비용을 파악하는데 요긴하게 활용되는 방법이다.

퍼트 기법은 생산의 지체·중단 및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반적 직무의 여러 부분을 조정하여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의 완료를 촉진하며, 미리 정해진 일을 예정대로 성취하도록 일정 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원래 퍼트의 기법대로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교과서 개발에서 교과서 개발과정, 교과서의 내용, 소요 인력, 예산 등은 결재과정을 통하여 승인을 받았다. 교과서 개발에 소요되는 전체 개발 과정을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특히 교과서 한 권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전체 과정을 자세히 보고한다 하더라도 편수 업무 전체를 통괄하는 책임자는 그 전체를 파악할 여유가 없었다.

그리하여 편수담당자들은 교과서 개발의 주 공정을 퍼트를 통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전체 편수담당자들은 이 퍼트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교과서 개발과정을 책임자에게 보고하였고, 책임자는 이 보고과정을 통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협조사항을 파악하였다. 교과서의 내용 수정, 인력의 변경, 회의 추진 등 협조에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조정되었다.

당시 국민학교 자연과 교과서와 지도서의 개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교과서 개발에 관한 비교적 단순한 퍼트의 공정이 제시되었지만 편수 업무 추진을 위한 다소 복잡한 공정도 없지 않았다.

〈표 V-20〉 국민학교 자연과 교과서 개발 퍼트 (예시)*

연도 교과명	'82년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자연 교과서																																
4-1																																
5-1																																
6-1																																
지도서																																
4-1																																
5-1																																
6-1																																

*위에 제시한 PERT는 1월과 2월 1·2주까지는 개발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9월 이후의 내역은 교과용 도서 편찬 절차에 준하는 일반적 사항이기 때문에 교과용 도서 편찬 절차에 준하는 일반적 사항이기 때문에 게재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수정본 심의→주정·보완→연구개발 정산 보고→최종 수정본 정리→결재본 확정→결재→생산지시→공급 등이 포함된다.

(2) 교과용 도서의 특징

1) 교과서의 특징

제4차 교육과정기에 와서 교과서는 종전에 비하여 크나큰 진전이 있었다. 우선, 교과서 발행에서 기초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되었으며, 교과서 단원 전개 과정이 변하였고, 교과서의 판형과 장정이 달라지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에 발행된 교과서의 대표적인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제4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이론적 연구가 선행되었던 것이 특징이다. 1979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보고서 1권 및 부록과 예시 교과서 3권이 발행되었다.

② 교과서의 단원 전개 과정이 종전에는 두 단계인데 비하여 4단계로 변화되었다. 종전의 교과서에서는 일정한 단원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 설명이 없이 단원의 내용과 익힘 문제를 제시하였다. 제4차에 와서 교과서의 어떤 단원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의 안내를 제시하였고, 단원의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단원 학습의 내용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활동을 넣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과서는 학생도 학습에 활용할 수 있었고 교사도 지도에 활용할 수 있었다.

③ 새로 만들어진 교과서는 교과서의 특성에 따라 판형을 달리하였으며 또한 칼라 인쇄에 지질, 장정 등의 모든 면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초등 1, 2학년의 교과서는 4·6배판으로 판형이 바뀌었으며, 또 음악, 미술 교과서도 판형이 4·6배판으로 확대되었다. 음악이나 미술 교과서는 국판으로 되었던 것을 4·6배판으로 확대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그리고 원색으로 실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학교 과학 교과서도 교과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형을 크라운 판으로 바꾸었다.

제4차 교육과정 이전의 교과서는 교과서의 특성에 관계없이 국판 일색이었다. 이는 국판 일색의 교과서라는 면에서 볼 때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④ 국민학교에 통합교과서가 탄생되었다. 초등학교에 어린이가 처음 입학하여 1달 동안에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교과서를 배운다. 그 후에 『바른 생활』(국어·도덕·사회), 『슬기로운 생활』(산수·자연), 『즐거운 생활』(음악·미술·체육)이라는 통합 교과서에 의하여 공부한다. 이러한 교과서의 편찬은 교과서사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 변화이다. 이외에도 이 기간에 중학교 사회과, 과학과에 통합 교과서가 처음 발간되었다.

⑤ 교과서의 장정이 달라졌다. 제4차 교육과정 개정 이전의 교과서는 판형이 국판으로 써 지질, 색도 및 디자인 등 외적 체제에서 뒤떨어져 있었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 와서 교과서 외형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의 교과서는 지질, 색도 및 디자인 등 외적 체제를 더욱 발전시켰다.

⑥ 교사들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가 발간되었다. 교사가 비록 전문가라 할지라도 교과서만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를 안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교과서를 제대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는 교육 현장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는 평을 받았다.¹³⁾

2) 교과서의 단원 전개 과정¹⁴⁾

교과서의 내용은 학습 단원으로 주제가 설정되며, 그 주제는 단원 전개 과정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정렬될 수 있다. 교과서에서 단원 전개과정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학교의 교수·학습형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사실 광복 이후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교과서의 단원 전개과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교과서는 교과서의 내용에 따라 그 배열과 조직을 달리하였거나 본문의 내용에 따라 연습문제를 추가하는 형태의 변화가 있었다.

종래의 교과서 편찬에서 단원의 전개과정은 대체로 “학습 내용의 제시”와 “학습결과의 정리 확인”의 두 단계를 거친 데 비하여, 제4차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교과서의 편찬에서 단원 전개과정은 교사의 수업형태와 학생의 자율학습을 고려하여 ① 학습과제의 안내, ② 학습내용의 제시, ③ 학습결과의 정리 확인, ④ 학습내용의 적용 보충과 같은 네 단계를 거쳤다.¹⁵⁾ 이러한 단원의 전개과정 모형을 활용하여 모든 교과서를 개발하게 되었다.

단원 전개과정 모형을 구성할 때 일단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난 후 중요 교과서의 단원 하나를 선정하여 모델 단원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진권 전문위원이 국어 교과서의 단원 하나를 선정하여 모형대로 개발하였다. 이것을 참고로 하여 각 교과서의 단원 전개에서 이 모형을 활용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교과서는 과거 40년간 일본 교과서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 같다. 특히 교과서의 내용 구성에서 단원의 전개 과정은 일본의 교과서 구성과 비슷하였다. 제4차 교과서 편찬에서는 일본의 것도 아닌, 미국의 것과도 다른 모형을 개발하여 교과서를 발전시켰다.

13) 유봉호, 한국 교육과정사 연구 (서울: 교학연구사, 1992)를 참고로 하고 필자의 경험을 근거로 서술하였음.

14) 정태범, “교과서 체제 개선에 관한 고찰,” 교과서연구 제2호 (한국2중교과서협회: 1989. 6): pp.26-28.

15) 문교부 교육과정담당관실, “좋은 교과서란 어떠한 교과서인가?,” (프린트물, 1987), p.18.

자율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서의 편찬 체제를 개선한다는 원칙은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의 개발에 모두 적용되었다. 자율 학습을 강화한다는 편찬의 원칙에 따라 교과서 개발에 적용된 단위 전개 과정의 모델(model)은 <그림 V-5>와 같다.

<그림 V-5> 단위 전개 과정의 모형



이 모델에 따라 각 교과서의 모델 단원이 개발케 되었다. 우선 모델 단원으로 중학교 국어가 먼저 개발되었고, 이를 참고로 각 교과에서도 모델 단원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모델 단원을 근거로,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는 모든 전문가에게 교과서 구성의 형태를 협의케 하여 자문을 얻고, 교과서의 특성에 따라 모델의 다소의 수정도 가능케 하였다.

이 모형에서 종래의 교과서는 (2) 학습 내용(본문)의 제시와 (3) 학습 결과의 정리·확인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은 왜 그 단원을 배우는가를 미리 알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활동도 대단히 미약하였다. 특히 부족한 점을 보충하거나 더 알고 싶은 것을 심화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번의 교과서 편찬에서는 이상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교과서의 편찬에서 단원의 전개 과정은, (1) 왜 그 단원을 배워야 하는가 라는 ‘학습과제를 안내’ 하는 소개의 단계를 두었고, (2) 학습내용의 제시와 더불어 (3) 학습 결과의 정리·확인 등을 하는 두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4) 일단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고

보충하는 학습 활동을 하는 발전의 단계를 두었다. 이렇게 볼 때, 종래의 교과서는 두 단계(학습내용의 제시 학습결과의 정리·확인)를 거쳐 편찬된 데 비하여, 이번의 교과서는 네 단계(학습과제의 안내, 학습 내용의 제시, 학습결과의 정리·확인, 학습내용의 적용·보충)를 거쳐 편찬되었다.

예컨대, 중학교 1학년 국어의 “소설” 단원의 경우, (1) 학습과제의 안내 단계에서는 “소설이란 어떤 글인가를 알아보자, 소설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자”고 하여 이 단원을 학습하는 이유를 제시하였으며, (2)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작품으로 “오영수의 요람기”와 “빌라드의 이해의 선물”을 제시하였으며, (3) 학습결과를 정리 확인하는 과정으로 작품 후미에 “공부할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4) 일단 배운 학습내용을 적용 보충하는 과정으로 “문법과 작문”을 실었다.¹⁶⁾

다른 교과에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서 교과와 특색을 살리게 되었다.

3) 초등학교 일학년 국어의 첫 단원

초등학교 일학년 국어의 첫 단원 내용이 어떻게 진술되는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국민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1개월 동안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교과서를 배우게 된다. 이 교과서는 통합교과서로서 학교생활의 기초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교과와 단원을 배우게 된다.

제1, 2차 교육과정기 국어 첫 단원에는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라고 출발하였다. 이 내용의 주된 비판은 나약한 인간을 기른다는 것이었다. 제3차 개정에서 국민학교 국어의 첫 단원에서는 “나, 너, 우리...”로 출발하였다. 이 내용의 비판은 개인주의적 인간을 기른다는 것이었다.

제4차 때에는 이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시기는 5공화국이 세워진 후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교육으로 국민정신을 강조할 때였다. 그 주된 내용은 국민정신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내용은 “나무, 아기 나무...”로 출발하였다. 이는 우선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혔다.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인가에 대한 정신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문교부 편수국이 중심이 되어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나온 바른생활의 첫 단원에는 “하늘, 파란 하늘, 파란 하늘에 우리 태극기...”로 출발하였다. 이것에 대한 비판은 국수주의적 인간을 기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때 문제된 것은 국민학교 1학년 교사로부터 처음 출발하는 아이들에게 국어의 첫 단원

16) 한국교육개발원, 중학 국어 1-1 (문교부, 1984), pp.75-106.

이 너무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 때 문교부에서는 아이들에게 너무 문자 지도를 중심으로 가르치지 말고 정신적 상징성을 중심으로 지도하라는 지침을 주었다.

4) 사회과 교과서의 “삼강오륜”과 역사 교과서의 “사육신”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유교가 차지하는 위치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서 삼강오륜(三綱五倫)의 내용이 삭제되어 있었으며 역사교과서에 사육신(死六臣)이 삭제되어 있었다. 특히 삼강오륜을 뺀 것은 유교의 교리로서 시대에 뒤져 있는 이념이기 때문에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교과서에서 뺀 것은 종파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평도 있었다. 그리고 사육신 문제는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충신의 기록을 은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 사실을 이규호 장관에게 보고하고 교과서 수정 시기에 수정하였다. 그리하여 중학교 윤리 교과서에 ‘오륜’을 넣고,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는 ‘삼강오륜’을 넣었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에 ‘사육신’을 넣었다.

(3) 2종 도서의 확대와 교과서 발행 방침의 변화

학교 교육활동에서 교육과정은 교육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교육자료가 다양하게 동원될 수 있다. 이 중에 교과서의 위치는 교과과정 운영에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될 수 있으나 교육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 여기 학교교육에서 교과서가 갖는 한계가 있다.

우리 나라의 교과서 정책은 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변화하면서, 점차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가 학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관련이 깊다. 즉, 근대 교육의 도입 이후 우리 나라에서 교과서의 지위는 매우 막강한 것이었다. 학교의 수업은 교과서가 주된 자료였고, 교사는 교과서를 풀어 설명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학생들은 교과서를 보며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였으며, 또한 시험에 대비하여 이를 외우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교과서 자체의 종 수가 늘어나고 발행 형식도 다양해졌으며, 교과서 이외에도 다양한 학습자료들이 발행되고, 교과서 위주의 수업이나 학습에 대한 비판이 점차 거세짐에 따라 교과서를 재구성한 수업, 심지어 교실과 교과서를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등장함에 따라 교과서는 유일한 텍스트로서의 교과서라기보다 주된 교재 내지 주된 참고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1) 2종 도서의 확대와 교과서 발행 방침의 변화

제1차 교육과정기에서 제4차 교육과정기까지 우리 나라의 교과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표 V-21). 제4차 교육과정기에는 제1종 도서인 국정 교과서의 발행이 축소되었으며, 제2종 도서인 검인정 도서는 확대되었다. 그리고 2종 도서의 발행에서 출원회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다.

① 1종 도서의 발행은 국민학교의 교과서 및 지도서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한정하였다. 이들 도서는 종전과 같이 국가가 직접 발행하여 공급하였다.

② 2종 도서는 더욱 확대하였다. 과거의 1종 도서였던 중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사회와 외의 도서 및 고등학교 일부 도서를 2종화하였다.

③ 2종 도서의 출간에서 출판업자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하였다. 최근 3년간 5종 이상 발행 실적이 있는 회사에서 최근 3년간 10종 이상 발행 실적이 있는 출판사로 변경되었다.

④ 2종 도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였다. 5년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교과서 발행권

1종 도서(국정교과서)의 발행권은 제4차 교육과정기인 1982년~1987년간에 조정되었다. 국정으로 불렸던 1종 도서는 교과 내용의 세분화로 그 수가 사상 최대로 많았던 시대이다. 제3차에서는 초등학교는 국정교과서(주), 동아서적, 동아교과서(주), 대한교과서(주) 등의 여러 회사에서 나누어 발행하고 있었으나 제4차 교육과정에 의한 새 교과서부터 그 발행권이 국정교과서(주)와 대한교과서(주) 중심으로 조정되었다.

즉, 1982년 현재 국정교과서(주)가 발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영어(1, 2, 3 교과서 및 지도서), 수학(1, 2, 3 교과서 및 지도서: 동아서적에 재위탁), 과학(1, 2, 3 교과서, 그러나 지도서는 동아서적에 재위탁), 기술(1, 2, 교과서 및 지도서: 대한교과서(주)에 재위탁) 등이었는데, 그 중 수학 교과서는 대한교과서(주)로 (수학 1-1984, 수학 2-1985, 수학 3-1986), 그 교사용 지도서는 국정교과서(주)로 (1984~1985), 과학 교사용 지도서는 동아서적에 재위탁을 취소하여 다시 국정교과서(주)로 (1984~), 가정(1, 2, 3 교과서 및 지도서)과 가사(2, 3 교과서 및 지도서)는 모두 대한 교과서(주)로 (1984~)로 조정되

〈표 V-21〉 교육과정 변천과 교과서 제도의 변천

구 분	주 요 내 용
제 1~2차 교육과정기 (1973년 이전) 1차 : '55. 8. 1 공포 2차 : '63. 2. 15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용 도서의 종류: 국정, 검정, 인정도서로 구분 ○ 국정도서: 국민학교 교과서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서 중 국어, 국민윤리, 국가이념 반영과목, 실업에 관한 교과목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서 ○ 검정 신청 자격: 저작자 및 출판사 ○ 검정 합격 중 수: 제한 없음(원고 심사 기준을 충족한 도서). ○ 교과용 도서 저작 검인정령('77. 8. 20. 폐지)
제3차 교육과정기 ('73 - '81) 중학교: '73. 8. 31. 공포 고등학교: '74. 12. 31.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용 도서의 종류: 1종, 2종, 인정도서로 구분 ○ 1종도서: 국민학교, 중학교의 교과서 및 지도서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서 및 지도서, 인문계 고교의 교과목 중 국어, 국민윤리, 국사 및 사회과 교과서 ○ 검정 신청 자격: 저작자로 제한 ○ 2종 합격 중 수: 5종으로 제한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77. 8. 20)
제4차 교육과정기 ('81 ~ '87) 중학교, 고등학교 - '81. 12. 31.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용 도서의 종류: 1종, 2종, 인정도서로 구분 ○ 1종도서: 국민학교 교과서 및 지도서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서 및 지도서 ○ 2종도서 확대: 중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사회과 외의 도서 및 고등학교 일부 도서의 2종화 ○ 2종도서 출판업자 자격 요건 강화: 최근 3년간 5종 ⇒ 최근 3년간 10종 이상 발행 실적 있는 출판사 ○ 2종도서 유효기간 연장: 5년에서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자료 : 교육부, 교과서 백서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pp.38-39

었다.

그리고 도덕(1, 2, 3)과 사회(1, 2, 3)는 대한교과서(주)에서 동아교과서(주)로 (1983 ~) {단, 도덕 교사용 지도서는 대한교과서(주) (1982~)로} 조정되고, 국사와 국어, 기술(1, 2), 가사(2, 3), 농업(2, 3), 공업(2, 3), 상업(2, 3), 수산업(2, 3)의 교과서와 지도서는 대한교과서(주)에서 계속 발행하게 되었다. 2종 도서는 주로 검인정 도서로서 교과서 검정 출원회사에 의하여 발행되었다.

(4) 교과서 발행 환경

여기서 말하는 ‘교과서 발행 환경’이란,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왜곡과 관련한 시정 사업과 이데올로기 비판에 대한 일련의 문제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교과서를 편찬할 때 국가 사회의 변동 과정은 물론, 여러 시대 정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1)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과 독립 기념관 설립 배경¹⁷⁾

① 일본 교과서 왜곡 사건의 배경

독립기념관이 설립된 직접적인 배경은 문교부 편수국에서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의 왜곡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데서 시작된다. 1981년에 일본 교과서, “일본사, 현대사회” 등에서는 사실과 다른 한국사의 내용을 왜곡 수록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대체로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각 신문사의 특파원들에 의하여 계속 보도되었다. 특히 1981년 9월경에는 도하 각 신문들이 이러한 내용을 대서 특필로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예외 없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의 지면을 채우게 되었다. 각 신문마다 이러한 보도는 그 후에도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다. 특히 1981년은 일본 교과서의 검정기간이었다. 일본 교과서에 사실과 다른 한국사 부분이 보도될 때마다 그 내용은 국민감정을 고조시켰다.

교육부에서 편수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 대체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었다. 그 해결방안은 일본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사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자료를 근거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따지는 방법이 있고, 이와 아울러 교과서 저자들과 학문적으로 접촉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방법도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왜곡관계내용이 신문에 보도될 때마다 담당 편수관(장학관 전동기) 및 담당관(연구관 김용만)과 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다시 정리하여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안기부 및 외무부 등 관계 기관에 보고하였다.

1981년 문교부 편수실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을 일단 끝내고 교과서의 개정에 착수하고 있었다. 더욱이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을 동시에 개발하기 때문에

17) 정태범, 교육정책분석론(서울:원미사, 1999), pp.238-265.

그 업무는 교육과정을 몇 년으로 나누어 개발할 때보다 배가하였다. 그리하여 1981년에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정 때문에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의 왜곡부분에 대하여 이렇다할 대책을 세울 여가가 없었다. 그리고 신문에서는 1982년에도 이러한 왜곡내용을 계속 보도하였다.

특히 1982년 6월말에는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이 끝나 교과서의 선정(채택)을 위한 전시가 7월부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그 전시회에 제출된 일본사 및 세계사 교과서의 견본본(전시본, 백표지)의 내용이 과거 군국주의적 사관을 지니고 있다고 일본 신문들이 비판하고 나섰고, 이를 우리의 신문들이 동경 특파원 발신으로 그 기사를 실음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이에 7월 2일 문교부에서는 일본교과서 한국관계 왜곡내용을 본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수석교육관 안상술에게 일본 교과서를 구입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 내용은 외교행낭을 통하여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에 전달되었다.

마침 그 달 12일부터 17일까지 필자는 이규호 장관을 모시고 태국 공식 방문,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방문을 마치고 귀국시 문제의 교과서를 일본 나리다 공항에서 전달하도록 하였다. 17일 예정대로 나리다 공항에 도착, 문제가 된 교과서의 일부, 복사한 것을 나리다 공항 대합실에서 교육관 박종대로부터 인수받았다. 그 때 교육관으로부터 교과서의 복사본을 받은 것은 그 때가 일본 검정교과서의 전시기간이어서 교과서를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복사본을 교육관으로부터 인수한 사실을 장관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것이 과연 중요 정책의 어젠다(agenda)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왜곡내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어젠다가 되면 그 때 보고하여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문제의 일본 교과서 복사본을 지참하여 문교부 편수관리관실 사회과 담당 편수관(전동기 장학관)에게 빠른 시일에 이를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때 이 업무를 담당한 장학관은 전동기이며 실무 연구관은 김용만이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언론에 발표되는 왜곡관련기사는 동경특파원이 보내오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들 기사가 사회문제로까지 부상되지 못한 것은 이들 기사가 역사 사건의 일부만을 기사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교과서내용이 분석되기도 전에 일본 교과서 입수

경위와 그 대책의 방향이 동아일보에 보도된 데 있었다.

1982년 7월 22일 동아일보 송석형 기자는 오전에 사회과학 편수관실에 일본 교과서의 복사본을 분석하고 있는 김용만 연구관을 보고 그 자료를 어떻게 입수하였으며, 무엇 때문에 분석하느냐고 물었다. 김용만 연구관은 정국장님(정태범 편수관리관)이 태국 방문 후 귀국시 일본에서 입수하여 가져왔으며, 이는 이미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며 이를 정리하는 중이다 라는 등 몇 가지 질의에 답하였다. 그러나 기사를 찾는 기자의 눈에는 이러한 사실이 예사로 지나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김 연구관은 이러한 상황에 접하자 송 기자가 나가자마자 국장실로 전화하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앞으로 진행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불길은 이미 발화점에 닿아 있었다. 우선 연구관에게 “그것을 조심히 다루지 않고...” 한 마디하고, 불현듯 “큰 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앞섰다. 그리하여 대책을 그려보았다. 그러던 중 송 기자가 국장실로 찾아왔다.

“요즈음 편수국이 대단히 바쁘시지요?”

“교육과정 개발을 끝내고 교과서 편찬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진의가 아니었다. 그는 외곽적인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어 일본교과서 문제를 끄집어냈다.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도 그냥 지나칠 수 없지요?”

“일본 특파원들이 보도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아야 할텐데요”

“사회과학 편수관실에서 이미 분석하고 있던데요”

필자는 일부러 그 일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답하였다. 그러나 송 기자는 벌써 상당한 것을 알고 어떤 의지마저 보였다.

“동아일보에도 간혹 왜곡내용이 보도됩니다만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송 기자는 위와 같은 확인을 하고 나갔다.

필자는 이러한 답변을 하였지만 석간에 날 기사를 생각하며 즉시 차관(정태수)에게 보고하고, 장관(이규호)에게 자초지종을 보고하였다. 차관은 그것이 그렇게 문제되느냐 하는 반응이었고, 장관은 문교부가 국가를 위하여 좋은 일 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반응이었다. 그리고 공보관(정연춘)에게 이를 보고하여 발표를 보류할 수 없느냐고 상의해 보기도 하였다. 발표 보류의 이유는 문교부가 그 때까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책적 의제는 과거와 절연하여 일어날 수는 없다. 과거의 문제 속에서 어떤 계기가 있어 정책의제로서 부각되어 나타난다. 여기에 제시하는 의제도 필자가 정상적 절차를 밟아 의제로 성립시키려고 하였으나 시간은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1982년 7월 22일자 동아일보 1면에 일본 교과서 한국관계 왜곡내용에 대하여 세 가지 기사를 실었다.

1) “政府, 日 교과서 是正요구키로, 문교부서 책 입수 정밀분석 의뢰” 하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李奎浩 문교부장관과 鄭泰範 편수관리관은 지난 17일 태국을 공식 방문한 뒤 귀국길에 일본에 들러 왜곡된 내용이 들어 있는 일본 고교 교과서 중 日本史, 現代社會 등 5권의 책 10여장을 복사해 귀국하였다. 문교부는 문제가 된 교과서 10여권을 추가로 입수, 그 내용을 문교부 편수관리관실에 정밀 분석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교육개발원과 국사편찬위원회에 보내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왜곡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일본정부의 의도적인 교육내용수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잘못된 일본교과서의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 나라의 학술단체 등 민간기구와 일본의 교과서발행회사 간에도 민간단체 차원에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¹⁸⁾

2) 같은 지면에 “침략사 왜곡표현 중대문제, 국회 문공위소집 검토”라는 제하에 “여야는 최근 국제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일본문부성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책과 관련, 국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 문공위 소집을 검토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3) 같은 지면에 한국·중국·소련 등 잇단 비난에 “日서 自省論 대두”라는 제목하에 “일본 문부성의 왜곡된 교과서 정책에 대한 한국·중국·소련으로부터 비판이 일자 일본의 일각에서도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석간에 난 동아일보에 이어 익일(1982년 7월 23일) 조간의 도하 각 신문이 대서특필로 왜곡내용을 보도하였다. 모든 신문 방송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왜곡내용을 보도하였다. 사실 일본교과서 왜곡문제는 1982년 7월과 8월에 신문지상을 통하여 연일 보도되는 상황에 있었다.

이 일본교과서의 한국관계 왜곡내용은 요원의 불길처럼 삼시간에 신문지상 및 방송을 타고 전국에 번져갔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제에서 겪은 시련이 상기되었다. 이에 대한

18) 동아일보 1면 (제18707호) 1982.7.22

국민의 분노는 강산을 덮고도 남음이 있었다. 한국에서 불을 지른 이러한 왜곡문제에 대하여 중국, 소련 등도 가세하여 잇단 비난을 가하자, 2차 대전에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전 아시아 국가도 동조하였다.

그 때 온 국민은 이러한 왜곡 기사에 접하여 분노를 금하지 못하였고, 이는 곧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였다. 일본의 비뚤어진 한국사관으로 인한 마찰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으나 이번만은 문제의 양상이 달랐다.

일본 중등학교의 일본사와 세계사에서 한국사의 왜곡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여러 방면에서 찾을 수 있지만, 먼저 제도적으로 그들 교과서의 검정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검정과정은 문부성의 교과서 조사관을 중심으로 한 것을 교과용도서 검정심사위원회가 검정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검정과정에서는 문부성이 고시한 각급 학교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지시하는데 이에 불복할 때는 불합격 처분이 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필자와 출판사가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횡포에 대하여 일본의 일부 역사학자와 교육학자들은 교육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시정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부성은 검정방향을 시정하지 않고 매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다.

일본 교과서에 수록된 왜곡의 주요내용은 대체로 일제의 한국침략, 일제의 한국 주권탈취, 한국 독립운동의 탄압, 토지의 약탈, 3·1운동, 한국어 사용금지, 신사참배 등이다.

일본교과서에서는 한국침략을 진출 본격화와 내정권 접수로, 주권 탈취를 황제에 양위 재촉과 군의 조선 민중 저항 진압으로, 독립운동의 탄압을 조선인의 권리·자유 제한으로, 토지 약탈을 토지 조사후 관유지 접수로, 3·1 운동을 데모·폭동이 조선에 파급으로, 한국어 사용금지를 조선어·일어가 공용으로, 신사참배 강요를 장려로 각각 왜곡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왜곡 내용은 정책 의제가 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②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계 왜곡 내용 파악

이렇게 시작된 일본교과서 문제는 더욱 확산되어 문교부의 가장 주요한 정책과제로 등장되었던 것이다.¹⁹⁾ 1982년 7월 22일 신문보도 이후 왜곡기사는 각 신문에 빠지는 날이 없었다. 연일 교과서 왜곡의 내용이 보도되는 가운데 문교부는 여러 각도의 대책을 세웠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급선무는 일본교과서에 나타난 왜곡내용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알기 위하여 일본대사관 교육관실에서 보내온 관계교과서 원본(백표지 전시본) 모두¹⁹⁾를 국사편찬위원회로 보내어 일본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왜곡내용을 철저히 분석하도록 하였다. 일본교과서 분석에서 사용된 기준은 ① 즉각 시정이 필요한 사항, ② 조기 시정이 필요한 사항, ③ 기타 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여기서 기준 첫째는 논의 없이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둘째는 논의를 거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셋째는 연구를 거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그 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이현중 박사님²⁰⁾이었다. 필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이현중 위원장을 직접 찾아가서 분석 기준을 설명하였다. 그는 그 분석을 꽤히 승낙하였고 위원회에 근무하는 관계전문가를 동원하여 그 일을 착수하였다.

필자는 과제가 완성되는 대로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다음 8월 임시 국회의 문공위원회를 대비하도록 부탁하였다. 이는 물론 극비에 전개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83년도부터 사용될 예정인 검정된 고등학교용 일본사(10종), 세계사(10종), 현대사회(2종)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²¹⁾

일본교과서에 왜곡된 한국관계내용의 분석에서 시대구분은 1945년 이전의 시정내용과 그 후의 것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철저히 분석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그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일본교과서 한국관계 왜곡내용이 대략적으로 알려져 사회적 문제가 된 후에 그 내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일본교과서의 왜곡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막연한 감정적 규탄과 요구만 난무할 뿐이었을 것이다.

이 위원회가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한 1945년 이전의 시정내용은 표Ⅷ-2와 같다.

문교부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분석한 내용을 1982년 9월에 1945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일본교과서의 한국 관계내용 검토 및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관계 서술에는 한국사의 내재적·자율적 발전을 부정하고 외재적·타율성을 강조하였던 일제 식민 사관이 아직도 기초가 되고 있는 것으로

19) 일본교과서 복사본에 이어 원본 백표지를 입수하였는데, 그것은 김용만 연구관이 일본주재 한국 대사관 박종대 교육관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서원을 통하여 고교검정교과서(역사부문) 전시본을 구입하게 하여 파우치로 보내온 것임.

20) 이현중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편사실장으로 있다가 그 해 7월 8일자로 위원장으로 취임하였음.

21) 대한민국 문교부,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계 내용 검토 및 의견(1945년 이전부분) (1982. 9), p.6.

보인다.

둘째,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사관계 내용을 검토해보면, 일본은 19세기 후반 이래의 1세기 남짓한 그들의 우월적 위치에 입각해서 그 이전 전시대의 한일양국관계사의 위상까지도 완전히 전도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갖게 된다.

셋째,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근대의 한국침략과 수탈을 은폐함은 물론, 침략을 진출로 기술하여 이를 정당화함으로서, 그들의 군국주의·제국주의를 합리화하고 이를 찬미하는 듯한 인상이 짙다.

넷째, 일본 세계사교과서의 한국사 관계 서술의 기저에도 종래의 대한식민사관이 변함없이 깔려 있음을 인식한다. 당의 판도내에 신라와 발해를 포함시킨 지도, 조선시대의 당쟁 등을 역설한 것 등은 식민사관 잔존의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²²⁾

따라서 일본 교과서 분석 결과에서는 ① 즉각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19개, ② 협의에 의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19개, ③ 연구에 의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7개 등으로 밝혀졌다.

이상과 같이 한국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왜곡이 밝혀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외교적 차원에서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국회에서도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다. 또한, 국민 차원에서도 강력한 시정 요구를 규탄하였다.

③ 관련 기관의 활동

● 국회 문공위원회 개최

국회에서도 일본교과서 한국관계 왜곡내용에 대하여 격렬한 논의와 대응이 있었다. 1982년 8월 5일 국회 문교공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문공위원회의 주요 의제는 일본교과서의 한국관계 왜곡문제에 대한 토의와 대처방안의 결의였다. 이 때를 대비하여 문교부 편수관리관실에서는 이미 준비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때 이대순 문공위원장은 8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전제하고 국회차원에서 교과서왜곡문제를 제기하였다. 국회의원들은 문교부가 제출한 일본교과서 한국관계 왜곡내용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신랄하게 질의하였다. 국회의원 모두가 왜곡문제가 일어난 역사적 과정과 대처방안을 따졌다.

22) 대한민국 문교부,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검토 및 의견-1945년 이전 부분-(문교부, 1982), pp.1-4 참조.

문공위에서는 이러한 왜곡내용을 논의한 끝에 국회차원에서 대처방안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²³⁾

그후에 국회차원에서 대처방안으로는 한일의원연맹을 결성하여 일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왜곡내용을 시정하도록 노력하였다.

● 관계 부처와 협의

국회 논의 후에 교육부에서는 관계자료를 공식적으로 정부관계부처에 전달하였다. 관계 부처에 전달한 후에 이 과제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부내에서 협의하였다.

문교부에서는 정부의 대처방안을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고 정부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치기로 하였다. 이때 관계부처로서는 외무부, 문공부, 총리실, 안기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이었다. 이들 부처들은 모두 교과서 시정사업에 관련되는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무부는 이 사업을 외교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주무부서이다. 그래서 외무부에서는 관계자료를 사전에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를 따져 묻기도 하였다. 이 사업은 결국 외무부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하는 데 문교부가 주도하는 데 대한 불만도 없지는 않았다.

이때 이규호 장관은 왜곡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조치와 함께 우리의 역량을 길러 “克日”할 수 있는 국력배양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교과서 왜곡내용 시정 조치와는 별도로 우리 나라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되었고, 이것이 광복기념관 건립구상이 나타난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실 국회 문공위원회가 끝나자마자 문교부에서는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분노를 분출시킬 분출구를 마련해야겠다는 취지아래 “민족사박물관” 같은 것을 국민성금으로 건설해야 하겠다는 구상을 하게 되었고, 이 구상을 정리하여 마침 외국(캐나다) 순방길에 있던 전두환 대통령의 귀국 시기에 맞추어 보고토록 할 계획을 짜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문교부에서는 정부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몇 차례 개최하여 자료의 수정과 대처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러한 대책회의는 1982년 8월 31일(화) 14시에 문교부 차관실에서 문교부의 정태수 차관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이후에도 대책회의는 1982년 9월 2일과 9월 8일 두 차례 더 개최되었다.

정부관계부처에서 참석한 인사는 문교부차관, 외무부차관, 문공부차관, 총리실, 안기

23) 대한민국 국회문교공보위원회, 결의문, 1982. 8. 5.

부, 국사편찬위원회 외 4인이었다. 이 때 필자는 편수관리관으로 참석하였다. 이 관계부처 회의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3차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3차 회의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도 포함되었다. 그 이유는 한국관시정사업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 회의의 주요 내용은 시정자료의 내용과 범위였다.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19개항으로 확정하고 해방 이후의 것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그 후 문교부에서는 국회에 제출하였던 관계자료를 다시 일본어로 번역하여 외무부에 전달하였다. 외무부에서는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일본 관리를 불러 그 자료를 전달하였다.

④ 국내외의 동향

● 국내 동향

한편 대일 역사 왜곡 규탄 및 시정요구 국민회의(의장 최창규)는 1982년 7월 30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광복회, 독립동지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순국선열유족회, 3·1 여성동지회, 대한교육연합회, 역사교육연구회 등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는데 신용하, 김학준, 이진희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8월 중순에 접어들며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쟁기대회가 전국적으로 열리는 등 우리 국민의 분노가 가열되어 일본 정부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일본 정부의 반응

한국이 전국적으로 일본교과서 왜곡내용으로 들끓고 있는데 중국도 같은 반응이 일어났으며 아시아가 같은 반응을 일으켰다. 국회 논의 후 구체적인 왜곡내용이 발표되어 국민의 분노는 더욱 심했다.

8월 중순에 접어들며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쟁기대회가 전국적으로 열리는 등 우리 국민의 분노가 가열되자, 일본 정부는 각서를 보내는 한편, 1982년 8월 26일 관방장관을 통해 4개항의 담화를 발표하여 그들 정부의 책임하에 시정할 것을 약속하였다.

일본 관방장관을 통해 발표한 “역사교과서에 관한 담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⁴⁾

24) 일본 관방장관, 역사 교과서에 대한 담화 (1982. 8. 26. 16:00)

〈표 V-22〉 일본 교과서 시정 내용

즉각 시정이 필요한 사항	즉각 시정이 필요한 사항	즉각 시정이 필요한 사항
1. 日本의 韓國侵略	1. 倭寇	1. 漢四郡 位置
2. 제2차 韓日協約	2. 朝鮮前期의 對日交涉	2. 帶方郡 位置
3. 高宗退位	3. 壬辰倭亂	3. 高句麗 建國
4. 韓日 新協約	4. 通信事往	4. 渤海 領土
5. 義兵	5. 韓日修交	5. 韓國文化의 東流
6. 安重根 義士義舉	6. 雲揚號事件	6. 壬那經營說
7. 韓國併合	7. 江華島條約	7. 統一新羅와 日本
8. 武斷統治	8. 壬午軍亂 과 關係	
9. 土地掠奪	9. 甲申政變	
10. 3.1獨立運動	10. 防穀令	
11. 關東大地震	11. 東學農民運動	
12. 神社參拜強要	12. 甲午改革	
13. 韓國語抹殺	13. 明成王后 弑害	
14. 創氏改名	14. 韓日 議定書	
15. 徵兵	15. 제1차 韓日協約	
16. 徵用	16. 海牙密使	
17. 挺身隊	17. 3.1運動의 原因	
18. 抗日獨立運動	18. 植民統治의 轉換	
19. 日帝의 强占延長	19. 光州學生運動	

자료: 대한민국 문교부, 일본 교과서 한국관계 내용 검토 및 의견(1982, 9), pp. 5-8.

“日本政府 및 日本 國民은 과거에 있어서 我國의 行爲가 韓國과 中國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의 國民에게 多大한 苦痛과 損害를 끼친 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와 같은 일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결의 위에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아시아 제국과 우호 친선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과서 내용의 비판을 충분히 경청하여 정부 책임하에 시정한다. 이를 위해서 금후의 교과서 검정조사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검정 기준을 고친다.”

일본 교과서 문제가 한국의 외교현안으로 비화하였던 이 왜곡사건은 9월에 들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것은 일본 관방장관의 담화에서 시정을 약속하였고 국내에서는 문

화공보부(이진희 장관)의 담화가 발표됨으로서 이 사건은 일단 진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민족적 각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즉, 독립을 위해 싸운 민족의 강인한 의지를 계승하여 국력을 계승함으로써 다시는 일제침략과 같은 민족수난을 재현하지 않겠다는 자각과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⑤ 독립 기념관 설립

문교부에서는 일본교과서 한국관계 왜곡문제에 나타난 많은 문제를 어떤 대책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 어떤 결론을 내리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 교과서 왜곡사건에 대한 대책은 ① 국회차원에서는 한일의원연맹을 조직하여 시정사업을 계속하게 되었고, ② 문교부에서는 국사교과서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일정 연구비를 지급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게 하였고, ③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한국관 시정사업을 전개하여 세계 각국의 교과서를 수집 분석하여 시정활동을 전개하게 하였으며, ④ 학자들로 하여금 한일간의 학문교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중요하게 제기된 과제가 우리 민족에게 克日의 정신을 심어주고 민족의 면면한 역사를 기념하는 건물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상은 민족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결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기념관 혹은 박물관 등의 이름으로 독립의 의지를 밝히는 기념물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애국 선열들의 불굴의 독립투쟁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의 건립은 해방 직후에 제기되어 추진된 바 있다. 1946년 2월 12일 기미 독립선언 기념 전국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천도교 회의실에서 독립기념관의 건립을 토의,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위원까지 선출하였다. 또한, 1946년 8월 15일자 동아일보도 해방 1주년을 맞아 [삼천만 심혼을 응집할 대전당 독립회관 건립 기성운동]이라는 제하의 社告를 통하여 동아일보 同人과 독자명으로 독립회관의 건립 계획을 알리고 성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민족진영과 좌익의 갈등 및 6·25 사변 발발 등 혼미한 현대사의 전개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휴전 후 비록 분단된 상태였으나, 독립기념관의 건립 논의는 재개되었다. 이러한 계획이 보다 구체화된 것은 1974년의 일이었다. 1980년 7월 국립중앙박물관 민족박물관 설립사업국이 작성한 [민족박물관 설립추진 계획안]에 의하면 이미 1974년에 민족박물관 설립계획안이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계획안은 여의도 2만여평의 대지에 건평 1만평 예정으로 민족기념관, 문화관, 생활관, 호국관, 선열관, 독립기념관, 6·25 전쟁관, 5·

16 혁명관, 새마을관, 미래관 등 10개의 상설 전시관을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의 추진 경과를 보면 1975년에 이 계획안이 국무총리(당시 김종필)에게 보고되었고, 3명의 전문가가 해외에 파견되었으며, 2회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976년 9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8228호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20여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민족박물관설립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었고, 동8374호로 사무국 직제도 제정되었다. 1980년의 계획안에는 설립 위치 후보지를 당초 예정지인 여의도와 동물원 철거지역의 창경원, 경복궁이 거론되어 창경원안과 여의도안이 각기 따로 수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어떤 일을 하는데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1982년 일본교과서 왜곡사건은 어떤 구조물의 건립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문교부 편수실에서는 1982년 8월 21일 김상돈 과장, 김용만 연구관 및 국사편찬위원회의 신재홍 연구관,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재훈 과장 등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民族歷史館을 건립하는 구상에 착수하였다.

그 작업실은 종합청사에 뒤에 있는 내자 호텔이었다. 필자는 이 과업을 주관하면서 낮에는 국장실에서 근무하고 점심시간이나 근무시간 이후에는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주요 내용을 결정하였다.

민족역사관의 전시관은 고대관, 중세관, 근세관(광복관), 현대관 등을 포함하였고 대지 20만평 내외에 건평 15천평의 규모였다. 물론 지역도 물색한 바 있다. 소요자금은 총 710억으로 하고, 재원의 조달은 국민모금 370억, 독지가성금 340억, 4년간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추진 주체로서 건립준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건립준비위원회는 사회 각계 단체의 대표, 해외 동포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는 문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의 관련부처를 망라하며, 실무작업반은 문교부 편수관리관이 반장이 되어 정부관련 인사로 조직하기로 하였다. 1982년에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1983년에 시설설계 및 공사를 착수하여 1985년에 완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원안은 정부 관련부처와 사계 전문가와 수차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도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전시관은 고대관, 중세관, 근세관, 민족광복관, 민족발전관 등으로 변화하였으며, 대지 20만평에 건평은 2만평으로 늘어났다. 소요자금도 965억으로 늘어났고 준비위원회 구성도 달라졌다.

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념관들이 있다. 대만에 장개석 기념관,²⁵⁾ 필리핀에 리잘 기념관,²⁶⁾ 인도네시아에 메르데카 관장,²⁷⁾ 미국 독립기념관,²⁸⁾ 서독의 다카오 박물관 등이 있다. 물론 이북에 혁명박물관, 중국에 모택동기념관 등이 있다. 이들이 참고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구상은 그 규모면에서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실현의 가능성이 약하다고 하는 판단이 나왔다. 청와대, 안기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과정에서 그 규모는 축소되었다.

수차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 民族光復館의 건립이다. 민족광복관으로 축소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현안의 문제가 일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운양호 사건(1875년) 이후 해방되기까지 72년간의 사건이 주를 이루므로 조국광복을 중심으로 하는 기념관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입장이었다. 우선 민족광복관을 먼저 건립하고 그후에 점차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민족광복관의 내용은 본당, 전시관, 자료관으로 하고, 소요재원은 514억으로 국민모금과 성금 및 정부투자자로 하기로 하였다. 특히 국민 모금은 국민 누구나 벽돌 한 장 값을 내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립 준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재가(광복기념관 건립계획, 1982. 8. 24)를 받고 구체적인 계획에 착수하였다. 우선 작업반에서는 광복기념관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고, 국민모금을 위한 계획을 세워 내무부의 인가(광복기념관 설립기금, 기부심사위원회부의 안건, 1982. 8. 27)를 받았다. 그리고 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제 준비위원회를 가동시키고 그 후에 발기대회를 개최하는 문제만 남았다.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에 누구를 추대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 처음 물망에 오른 분이 김구 주석의 자제 김신이었다. 본인의 사양으로 추대되지 않았다. 다음에 한국일보 천관우 논설위원을 선정하였다. 그 분도 사양하였다. 사양의 이유는 본인이 일제시 창씨 개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그 후에 박순천 여사를 택으로 찾아가서 상의한 결과 그 분은 쾌히 응하여 주었다.

25) 대만의 장개석 기념관에는 중국의 전통과 장개석 총통의 업적 및 역사 사실을 전시할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며, 전시관은 소극장,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 홀, 공원시설 등으로 되어 있다

26) 필리핀의 리잘 기념관은 마닐라 교외 산티아고 요새에 건립되어 있으며, 기념관에는 전시관, 공원, 동상, 운동장, 롤러스케이트 장 등으로 되어 있다.

27) 인니의 메르데카 광장은 광장 중앙의 탑 내부에 선사시대부터 독립까지의 역사를 투시화로 전시하였고, 그곳에는 광장, 분수대, 공원시설 등이 있다.

28) 미국의 독립기념관에는 독립 당시까지의 관련 유물 및 자유의 종이 전시되어 있고, 그곳에는 전시관, 공원, 광장 등이 있다.

1982년 8월 27일 오후 3시에 6개의 민간단체 대표자들이 “한국의 집”에서 모여 광복 기념관의 건립과 발기대회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발기대회 준비위원 6인의 회합이야말로 독립기념관 건립의 실행을 위한 최초의 민간 모임으로서 건립태동의 역사적 장을 열었던 것이다. 이날 참석한 준비위원은 김동리(예술원 회장), 김상길(광복회 회장), 문태갑(한국신문인협회 회장), 박종국(한국문화재보호협회 이사장), 손인실(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원홍(한국방송협회 회장) 등 6인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드시 광복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민의 성금으로 충당할 것과 전시할 역사적 유물, 사진, 문서 등 모든 개인 소장 자료를 헌납 또는 기탁 받는다는 자료수집 운동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 6인의 준비위원들은 범국민적 추진체로서 각계의 저명 인사들을 발기위원으로 선정하고 발기대회의 절차 및 안건 등을 논의하였다. 과거에 독립기념관의 건립이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 추상적이고 계획적 차원에서 그치고 만 것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실무적 차원으로 추진된 것이다.²⁹⁾ 이로써 광복기념관 건립 정책은 명실상부하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2년 8월 28일 오전 10시에 6인의 준비위원회에서 선정된 55개 단체 55명의 대표자들이 “한국의 집”에 모여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광복기념관 건립 발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참가한 사람들은 독립유공 단체, 사회단체, 경제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정계, 기타 등 각계 각층을 망라한 명실상부한 민족대표로서 민족의 자존과 주체의식을 선양할 대성전인 광복기념관 건립을 정식으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발기인 55명의 총의로서 정계 원로인 朴順天 여사를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광복기념관 건립을 위한 발기대회를 마쳤다.

이 발기대회까지를 문교부가 주관하고 그 후에 구체적인 건립은 문공부로 이관되었다. 그 이관의 이유는 정부가 문교부의 교육 차원에서 건립하기보다 문공부의 문화적 차원에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시 김상협 국무총리가 문공부장관(이진희)과 문교부차관(정태수) 및 필자가 임석한 자리에서 설명한 것이다. 그 발기대회에서 제시되었던 광복기념관의 이름은 문공부 이관 후 하루 밤사이에 독립기념관으로 변하였다.

발기대회가 끝나고 그 위임에 따라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로 결정하고 독립기념관 건립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안은 그간 추진되어 오던 계획을

29) 독립기념관 건립사 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건립사, pp.97-100.

기초로 한 것으로, 국난을 극복한 강인한 민족의 의지와 역량을 조명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길이 보존하고 국민정신의 구심점으로 삼아 영원히 전진하는 민족의 기상을 선양함에 목적을 두고 구체적인 사업과 시설의 개요, 추진방침, 연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독립기념관의 준공·개관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문화전당의 건립이라는 의미를 뛰어 넘는다. 그것은 독립기념관이 외세의 속박 하에서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슬픔의 역사를 되새기고, 장하고 끈질겼던 선조들의 발걸음을 이어서 다시는 외세에 의해 우리 민족의 행복과 진보를 저해 당하는 비운을 겪지 않겠다는 온 국민의 뜻을 모은 전당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설립과정 분석을 통해서 이 정책의 평가 내지는 개관의 역사적 의의를 다음의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민족의 자주 독립 의지의 상징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군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 나는 조짐을 보면서, 이 엄청난 역사적 재앙을 영원히 기억하여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또다시 외침과 민족적 수모가 되풀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독립기념관 건립운동은 이러한 민족적 각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길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배양한 우리의 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다시는 외세의 침략주의의 희생이 될 수 없다는 결의가 응집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따라서 독립기념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응집된 자주 독립의 의지를 상징하는 기념비인 것이다.

둘째, 자주 독립의 민족사적 전통의 재확인 우리 역사의 독특한 일면은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2천년이나 간단없이 국가 생활을 지속해 왔다는 점이다. 일제에 대항하여 우리 독립투사들이 벌인 끈질긴 독립운동은 독립국가적 전통과 문화적 자부심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독립기념관의 건립은 이러한 민족사의 자주 독립의 전통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셋째, 민족 교육 도장으로서의 역할 기대

해방 45여 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어린이가 초로의 연륜을 갖게 되고 식민통치하의 고난과 해방의 감격을 아는 층이 전국민의 20% 밖에 되지 않고 절대 다수의 국민이 해방과 독립이 갖는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독립기념관의 설립으로 선열들의 호국·애국사상을 선양하고 민족사의 올바른 인식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민족의 교육장이 마련되게 된 것이다.

넷째, 독립운동사·국난극복사 자료의 보존·연구

일제의 침략 실상과 그 극복을 위한 독립운동에 관한 가능한 한 모든 사실과 자료는 밝혀져 정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방 후 남북 분단, 6.25 동란, 그리고 우리들의 무관심으로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이에 독립운동의 주역과 증인들이 세상을 떠났고 귀중한 자료는 손실되거나 흩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기념관이 설립됨으로써 이제라도 수집이 가능한 모든 공사의 유물·기록·관계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전시와 보관·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섯째, 민족 통일 국가 건설의 초석 마련

우리의 근대 민족운동은 항일 독립운동과 근대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귀결된다. 해방이 자주 독립의 단일 근대 민족국가 건설로 이어지지 못하고 국토가 분단됨으로써 통일은 민족의 지상과제로 남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분단의 장기화와 극단적 상호 단절·대립으로 이어져 온 남북관계에서 분단해소와 대승적 합일의 정신적 기저가 바로 독립기념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전세계 반제국주의 운동과 인류 공영의 이상 상징

우리 민족만큼 열강의 식민지·반식민체제에 대항하여 끈질기고도 격렬하게 저항한 민족은 없을 것이다. 특히 3.1 운동은 전세계 약소 민족 해방운동의 일대 선구적 횃불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독립기념관은 전세계에 대해 침략주의·강권주의에 대한 영원한 저항의 상징이며 동시에 인류 공존 공영의 이상을 반영하는 세계사적 의미의 기념관이라 할 수 있다.³⁰⁾

우리는 민족광복관 설립으로부터 시작하여 독립기념관 건립과정에 대한 분석과 규명을 통하여 정책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이 정책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고 중지를 모음으로써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과거 어떤 정책은 정당이나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기되고 채택되어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적이 있다. 독립기념관 설립정책의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여론과 관계기관의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정책결정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세상에도 도전과 응전은 있게 마련이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 없는 내일이 없다. 우리의 번영과 자존을 보장하는 길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배양하는 우리의 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을 독립기념관 설립과정 분석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지나온

30) 독립기념관 건립사 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건립사, pp.470-483참조.

가지가지 영욕의 발자취 속에서, 얼마나 슬기롭게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려, 새로운 발전의 의지를 가다듬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나라의 자존을 지키려면 국력의 신장과 그것을 향한 국민의 결의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점을 독립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³¹⁾

①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의 배경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남북한 이산 가족 고향 방문단이 오고 가는 등 남북간에 접촉이 빈번해지고, 사회주의권 국가들과도 교류가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사회상이 남한으로 전달되었으며, 이 중에는 비판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하여 분별 없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도 좌경 급진 사상을 지도하여 이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같은 필요성은 1987년의 6·29 선언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② 교과서를 통한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데올로기 문제를 다룬 교과서는 「국민 윤리」가 대표적인 도서이다. 1987년에 「국민 윤리」를 개편하면서, 이 교과서에서의 이데올로기 비판 내용을 2개 단원에 걸쳐 보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표Ⅴ-23>과 같다.

<표Ⅴ-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히 종속이론, 매판자본, 신제국주의론, 신마르크스주의 등 급진 사상에 대한 비판 내용을 보완한 것이 눈길을 끈다. 당시 종속이론 등의 급진 사상은 젊은이들에게 폭넓게 번지고 있었던 이데올로기이기도 했다. 예컨대, 종속이론에 의하면 선진국은 후진국과의 불평등한 수직적 관계로 인하여 후진국이 선진국 경제에 예속, 지배당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제 관계에서의 실리 추구와 그 유대를 부정하는 논리로 비약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구조를 의미하였다.

1980년대는 우리 사회에 있어 견잡을 수 없는 이데올로기 시험에 휩싸여 있었다. 학생

3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871-874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표 V-23〉 공산 사회의 변화 및 좌경 급진 사상 비판 내용

보완 내용	관련 단위	비고
1. 공산 사회(경제 정책)의 변화	V. 북한 공산 체제의 현실 VI-1 공산주의 본질 VI-3 우리의 통일 노력	• 중공 당 사오핑의 경제 개혁 • 소련 고르바초프의 경제 실재 • 북한의 합영법
2. 북한의 통일 방안 비판	VI-3 우리의 통일 노력	• 소위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설 방안 등 추가
3. 종속 이론 비판	V-2 현대 국가관의 여러 형태 VI-2 북한 공산 집단의 도전	
4. 대관 자본론 비판	V-4 복지 국가의 건설	
5. 신제국주의론 비판	VI-2 북한 공산 집단의 도전	
6. 신마르크스주의	VI-1 공산주의의 본질	• 교과서에는 핵심만 간단히 설명하고, 교사용 지도서에 상세히 기술함.

자료: 문교부, 고등학교 국민윤리 보충 지도 자료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6), 1.

들과 재야 세력들은 ‘5·18 민주화 운동’을 내면화한 채 그 실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응집된 욕구들이 연일 거리를 메웠다.

이렇듯, 당시 급진 이데올로기의 쇄도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일부 중·고등학생들에게도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게 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이 추진되었고, 그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 교과로 편제된 국사와 윤리, 도의, 사회과 등 관련 교과목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5) 제4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모습

1) 모든 교과서에 고유 번호 부여

제4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는 각각의 고유 번호를 붙였다. 이것은 1979학년도부터 사용되는 교과서(1종 및 2종)부터 채택된 각 계열별 단위 교과서마다 고유번호(국·검인정의 표시)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1984년부터는 신편 또는 개편되는 도서의 경우에 그 신·개편된 연도를 표시하는 방식(도서 목록상의 고유 번호를 사용하고, 이를 책 표지 오른쪽 상단에 표시하여 그 개발 연도를 식별하고, 분류 편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채택하였다.

이 방식은 1992년 8월 29일 교육부 고시 제1992-13호 중 ‘별표’로 기준으로 하였다. 이로써 행정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표지 구성의 한 요건으로 수용하여 오늘날까지도 그 관행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①	① 문교부(교육부) 저작, 문교부(교육부) 검정, 시·도 교육감 인정의 표시	
②	② 1종 도서의 경우 : 학교급 구분	
③	2종 및 인정도서의 경우 : 검·인정 연월일의 표시	
	③ 단위 도서의 고유 번호	

□ 고유 번호의 예(1979~1983)

- ① 중학교용 도서의 예 : 1111 국어 1-1, 1112 국어 1-2, 1110 국어 1 교사용 지도서
- ② 고등학교용 도서의 예 : 2111 국어 1, 2112 국어 2, 2110 국어 1 교사용 지도서, 21120 국어 2 교사용 지도서
- ③ 고등학교용 도서의 예 : 87-7189 금속 화학, 87-71890 금속 화학 교사용 지도서

이와 같이 1979~1993학년도에는 교과 계열 코드군으로 분류하여 중학교 교과서는 네 자리 숫자로 매겨 교과 조직별로 일련 번호를 부여했고, 그 지도서의 경우는 다섯자리 숫자를 붙이되, 독본의 고유 번호에 ‘0’을 덧붙인 형식을 사용하였다.

1984학년도부터는 신·개편 도서의 경우에 그 신·개편이 이룩된 연도를 교과군별로 일련 번호 앞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1989학년도부터는 단위 교과서당 여덟 자리 숫자로 표시하여 그 고유 번호를 더욱 구체화시켰다(*예 : 8911-0201 『중학 국어 11』, 9011--14020, 『정보 산업』).

2) 교과서 외적 체제의 발전

제4차 교육과정기에 발행된 교과서는 제3차 교육과정기에 발행된 교과서에 비하여 지질, 색도 및 디자인 등 외적 체제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실 제4차 교육과정 개정 이전의 교과서는 판형이 국판으로써 지질, 색도 및 디자인 등 외적 체제에서 뒤떨어져 있었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 와서 교과서 외형 체제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제4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발행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일부 교과서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³²⁾

① 국민학교

〈그림 V-6 국민학교 교과서 표지 및 내용 체제(예)〉

○ 바른 생활 2학년 2학기(82년 발행)/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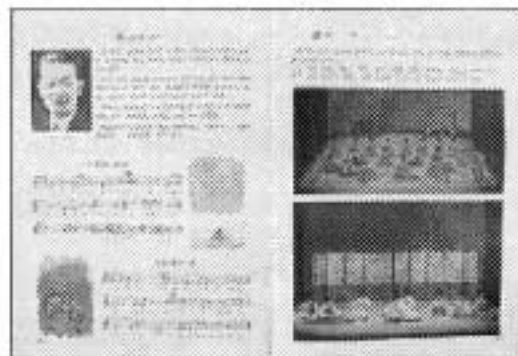
○ 바른 생활 2학년 2학기(82년 발행)/본문



○ 음악 6학년(83년 발행)/표지



○ 음악 6학년(83년 발행)/본문



3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daehane.com>)의 사이버 박물관 “교과서가 걸어온 길”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 받아 정리하였음.

○ 사회 4학년 1학기(84년 발행)/표지



○ 사회 4학년 1학기(84년 발행)/본문



○ 미술 5학년(86년 발행)/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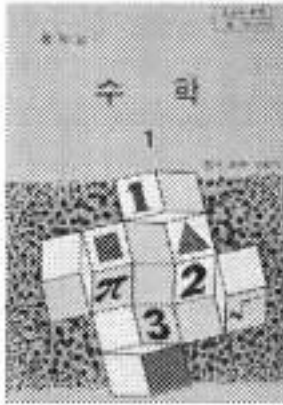
○ 미술 5학년(86년 발행)/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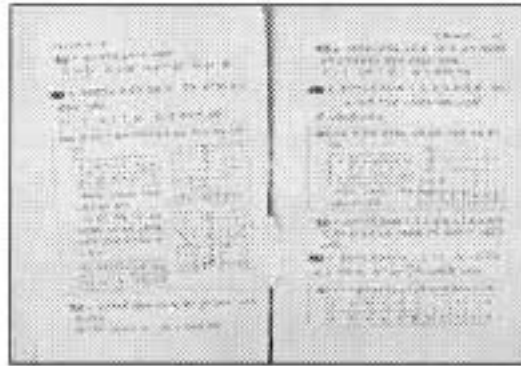
② 중학교

〈그림 V-7〉 중학교 교과서표지 및 내용 체제(예)

○ 수학 1학년(86년 발행)/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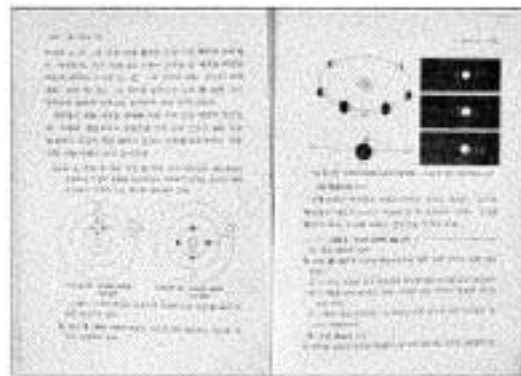
○ 수학 1학년(86년 발행)/본문



○ 과학 3학년(86년 발행)/표지



○ 과학 3학년(86년 발행)/본문



○ 국사(하) (83년 발행)/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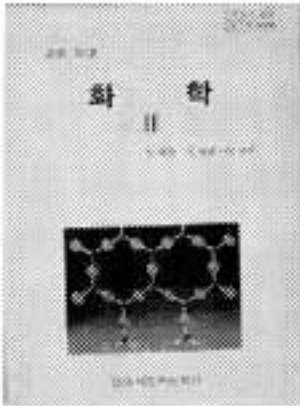
○ 국사(하) (83년 발행)/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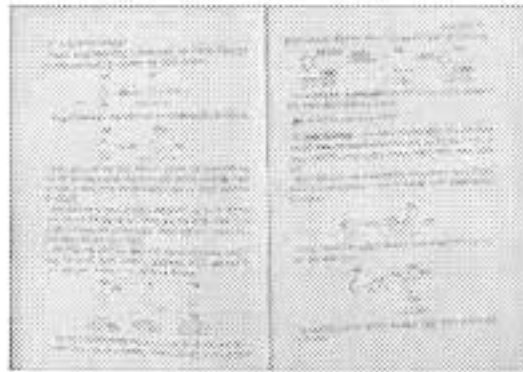
③ 고등학교

〈표 V-8〉 고등학교 교과서 표지 및 내용 체제(예)

○ 화학 II (83년 발행)/표지



○ 화학 II (83년 발행)/본문



○ 농업계 축산(86년 발행)/표지



○ 농업계 축산 (86년 발행)/본문



○ 실업계고 수학 II-1 (84년 발행)/표지



○ 실업계고 수학 II-1 (84년 발행)/본문



4. 결 론

제4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공포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 개정시에 정치 사회적 배경으로는 제3, 4공화국의 퇴조와 제5공화국의 출범 및 1980년 교육개혁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제4차 교육과정은 개정의 절차와 과정에서 이전까지의 개정 작업과 현저하게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개발 과정에서 교육과정 연구 전담기관의 주도에 의한 연구·개발 절차를 따른 점이다.

즉, 문교부는 1980년 10월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과정 개정안 개발을 위촉하였고,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과정 기초연구, 전국 규모의 세미나 결과 등을 토대로 1981년 3월에 총론을, 8월에는 각론 시안을 만들어 문교부에 제출했다. 문교부에서는 이 안에 대한 교육과정 심의회를 거쳐 1981년 12월 말에 새 교육과정으로 고시하게 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큰 특징은 국민학교 1, 2학년의 경우, 교과와 통합운영이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도덕, 국어, 사회를 묶어 ‘바른생활’로, 산수와 자연을 묶어 ‘즐거로운 생활’로, 체육, 음악, 미술을 묶어 ‘즐거운 생활’로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당했다. 그러나 국민학교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은 9개 교과별로 각각 제시되었다.

둘째, 인간중심교육과 미래지향적인 과학교육을 강조하였다. 미래지향적인 인간상으로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주체적인 사람을 제시하였다.

셋째, 일반계의 보통교과와 실업계 및 특수 목적계의 전문교과로 구분하는 고등학교 교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넷째, 고교 3년간 이수해야 하는 단위 수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나 연간 기준 주간 수가 제3차의 36주에서 제4차에는 34주로 2주가 감소되었다. 공통필수 교과의 수는 15개로 변함이 없으나 필수교과의 이수 단위 총수는 88~102 단위로 제3차의 140~160 단위보다 크게 감소되었다.

다섯째, 인문과정의 경우 3년간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수는 23~24개로서 제3차 때와 별 차이가 없었으며, 실업·가정과의 과목들이 공통필수에서 과정별 필수로 전환되었다.

교과용 도서 편찬에서는 1종 도서의 범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2종 도서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중·고등학교의 1종 도서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국어, 도덕, 국민윤리, 국사에 국한시키고, 나머지 교과는 모두 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2종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 특징이다.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검정 도서 출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였으니 종래 ‘최근 3년간에 매년 5 종류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에서 ‘매년 10 종류 이상의 도서 발행 실적이 있는 출판사’로 개정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1, 2학년)에서 통합 교과서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교육과정의 편제는 그대로 두고 교과서만 통합 교과서로 편찬한 것이었다. 중학교의 경우는 교과용 도서의 비율과 종수가 사상 최대로 많았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국민윤리, 국어, 국사, 사회 I·II,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와 전문교과의 교과서가 1종이었고, 나머지는 2종 도서였다.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의 교과서를 없앴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편수 업무 편람(편수 94-11). 서울: 교육부, 1994.
- _____,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987. 9.
- 국정교과서주식회사 35년사 편찬위원회 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35년사. 서울: 국정 교과서, 1987.
- 문교부 편수국, 「교과용 도서개발 PERT(‘81-82’)」, 프린트물, 1981.
- _____, 「유치원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1982.
- _____, 「국민학교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1982.
- _____,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1982.
- _____, 「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1982.
- _____, 「고등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연수자료, 1982.
- _____, 편수관리관실, 「편수업무추진 PERT (1982-1983.3)」, 프린트물, 1982.
- _____, 1종도서 편찬기본계획(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프린트물, 1983.
- _____,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1946-1981) 총론, 서울: 문교부, 1986.
- _____, 문교 30년 편찬위원회 편. 「국교육 30년사」, 서울: 문교부, 1987.
- _____,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총론)」, 1988, 9.
- _____, 「국민학교 교육과정(고시 제87-9 : 1987. 6. 30) 해설(총론)」, 1988 9.
- _____, 문교 40년사 편찬위원회 편. 문교 40년사. 서울: 문교부, 1988.
- _____, 「편수자료 I : 교육과정 변천 및 편수 일반」, 서울: 대한교과서(주), 1990.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편, 「서울 교육사(상)」,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회, 1981.
-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 유봉호, 「한국 교육과정사 연구」, 서울: 교학연구사, 1992.
- 윤병희 외 5,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서울: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 1996 8.
- 이경섭, 「한국 현대 교육과정사 연구(상)」,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이용숙 외, 「교과서 정책과 내용구성 방식 국제비교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5.
- 이종국, 「정부 수립 이후의 교과서와 그 변천」, 교과서연구(제23호), 서울: 한국 2종 교

- 과서협회, 1995.
- 이현목, 「검인정 교과서 관련법령의 변천」, 교과서연구 제25호, 서울: 한국 2종 교과서 협회, 1997.
- 이홍우 외,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문교부 정책연구 보고서, 1979.
- 정태범, 「교육정책분석론」, 서울: 원미사, 1999.
- 정태범, 「교과용 도서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편수사 연구(I), 서울: 한국 교과서연구소, 2000.
- 함수곤,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교과서 왜곡 사건과 관련되는 참고 문헌〉

1946. 8. 15 동아일보.
1982. 7 우리 나라 초·중·고 교과서에 실린 일본 관계 내용 분석.
1982. 7. 2, 7. 3 한국일보.
1982. 7. 8, 7. 28 조선일보.
1982. 7. 8, 7. 28, 8. 6, 8. 9, 8. 11, .8.29. 동아일보.
1982. 7. 2-8. 2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국내 언론에 반영된 자료.
1982. 8 문교부, 일본 교과서 한국 관계 왜곡과 그 대책, 문교부 자료.
1982. 8 문교부, 광복 기념관 건립 계획, 결재 서류.
1982. 8. 5 국회문교공보위원회. 역사를 왜곡한 일본 교과서 내용에 관한 검토 보고서.
문교부 자료.
1982. 8. 31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계 왜곡 내용 시정을 위한 정부 관계 부처 대책회의
회의록.
1982. 교육부. 일본 신·구 교과서 왜곡 내용 비교(일본사·세계사·현대사회), 교육부
관계 자료.
1982. 교육부 사회과학 편수관실. 일본 교과서 왜곡 대책 업무 추진 계획.
1982. 9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계 내용 검토 및 의견(1945년 이전 부분), 교육부 자료.
1982. 9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계 내용 검토 및 의견(1945년 이후 부분), 교육부 자료.

1982. 9 한국교육개발원.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계 내용 개선 의견-즉각 시정이 필요한 사항-.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2. 9. 23 외무부. 일본 교과서의 왜곡 시정 자료 전달 방안에 대한 검토. 서울: 외무부.
1982. 11. 20 문교부, 교과서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최근 동향과 대책(요약)-관계장관 회의 자료.
1988. 독립기념관건립사 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건립사.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독립기념관건립 취지문.
1995. 정태범, 교육행정학: 기초와 발전. 서울: 정민사.

Ⅵ. 제 5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윤종영*

1. 서론

(1) 교육과정 개발

제5차 교육과정은 그 이전의 다섯 차례의 교육과정(군정기 및 교수요목기를 포함) 개정과는 달리 급격한 국가적, 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른 특별한 개정 요구 없이 문교부가 능동적으로 주도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교수요목은 8.15 광복에 따른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필요와 요구, 제1차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건국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필요와 요구, 제2차 교육과정은 4.19와 5.16이라는 국가, 사회의 대 변혁에 따른 새로운 국가, 사회 건설을 위한 교육의 필요와 요구,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 교육 현장 선포와 유신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제시한 국적있는 교육이라는 명분에 맞춘 개혁의 필요와 요구, 제4차 교육과정은 제5공화국 출범에 따른 새로운 사회 변화에 따른 변화와 개혁의 요구 수용과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5차 교육과정의 개정은 교과서의 사용기간 문제와 학문 내용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문제 등을 감안한 주기적인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교부 편수진 자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은 1985년 3월에 문교부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 업무를 추진하면서 1986년 2월 19일에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위촉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은 제4차 교육과정 때와 같이 한국교육개발원에 개정을 위탁하여 개발 연구하도록 하고, 이 시안을 받아 문교부가 검토, 심의, 정리, 확정, 고시하는 체제를 밟았다.

*전 금천고등학교 교장

한국교육개발원은 그 해 6월에 총론 답신 보고서를, 그리고 그 해 12월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론의 시안 답신 보고서를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고등학교는 1987년 6월에 총론 답신 보고서를, 그리고 그 해 12월에 각론 시안 답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문교부에서는 총론과 각론의 시안을 심의, 검토, 수정, 보완과정을 거쳐 이를 확정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은 1987년 3월 31일자 문교부 고시 제 87-7호로,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그 해 6월30일자 문교부 고시 제87-8호와 제87-9호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88년 3월 31일자 문교부 고시 제 88-7호로 고시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제 5차 교육과정의 개정 경위 등을 살펴 보면서,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및 특징과 개정 주요 내용, 그리고 개정 과정에 숨은 화제 등을 알아 보기로 한다.

(2) 교과용 도서 편찬

1987년 3월 31일 중학교 교육과정을 필두로 1988년 3월 31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되면서 이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가 1989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 공급되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1·2·3학년용이 1989년에, 4·5·6학년용이 1990년에(사회과 탐구 1991년), 중학교 교과서는 1학년용이 1989년에, 2학년용이 1990년에, 3학년용이 1991년에, 고등학교 교과서는 1학년용이 1990년에, 2학년용이 1991년에, 3학년용이 1992년에 학교 현장에 공급, 사용되었다.

이때 발행 공급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초등학교가 교과서 89종 155책, 지도서가 50종 86책, 중학교가 교과서 21종 144책, 지도서 22종 136책(1·2종 포함), 일반계 고등학교가 58종 376책, 지도서 56종 313책(1·2종 포함)으로 공업계 고등학교 등을 포함하면 모든 학교의 교과서가 602종 1,121책에 달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편찬에는 몇 가지 새로운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다.

첫째로 초등학교에서 1교과 1교과서의 틀을 탈피하였고,

둘째로 초등학교에서 사회과 4학년 1학기 교과서를 시·도별로 개발, 편찬하였으며,

셋째로 중·고등학교에서 2종 교과서 종류가 확대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제5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편찬 상황 및 개관을 1종, 2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교과서 발행 제도 및 개발 과정, 편수관 제도 및 편수관의 역할, 교과서 개발 당시에 주요 쟁점 등을 알아 보기로 한다.

(3) 교육과정 · 교과서 행정 조직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을 주관한 문교부의 직제는 1983년 대통령령으로 개편된 직제가 그대로 존속되어 장학편수실에 편수관리관이 속해 있었다. 즉, 편수관리관(2급 상당 장학관)은 3급 상당의 장학관인 교육과정 담당관, 인문과학 편수관, 사회과학 편수관, 자연과학 편수관과 각 교과 담당 연구관, 연구사와 편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1), 사무관(1), 주사 등을 휘하에 두고 편수 업무를 총괄하였다.

교육과정 개정 업무의 기획, 추진 등은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 주도하였고, 각론은 각 교과 담당 편수관(연구관, 연구사)이 담당하였다.

교과용 도서는 1종인 경우, 각 교과 담당 편수관이 편수 관리관실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종 교과서는 각 교과 담당 편수관의 지원을 받아 편수 관리관실에서 검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본 고에서는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 추진 시기와 교과서 개발 편찬 시기의 교육부 편수 담당 부서의 직제와 업무 담당자, 또 여러 가지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편수관 제도 등과 행정 조직과 연관된 숨겨진 이야기 등을 알아 보기로 한다.

2.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1)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배경, 경위 및 특징

1)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제 1차 교육과정이 제정 된 이후 비교적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즉, 제 1차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건국에 따른 제정이었고, 제 2차 교육과정은 경험중심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사조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5.16 군사 정변에 의한 제 3공화국 출범에 따른 영향이 있었으며, 제 3차 교육과정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의 필요라는 교육사조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10월 유신에 따른 영향이 있었고, 제 4차 교육과정은 제 5 공화국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교육개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¹⁾

이에 비해 제 5차 교육과정은 교육 외적인 정세 변화에 의한 영향, 요구를 비교적 받지 않고 이루어진 최초의 교육과정이고, 주기적 교육과정 개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정과 제도적 정착의 필요에 대해 제 5차 교육과정을 개발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에서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을 성립시키는 핵심적인 투입 요소로서, 인간의 교육, 사회 학문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자라나는 새 시대의 포부와 그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바탕으로 하여 결정된 산출물이다. 여기에서 교육과정 결정의 자원이 되는 우리의 인식, 성장하는 세대의 포부, 그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기대는 어느 것 하나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새롭게 변모를 거듭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꾸준히 변모하는 이들 자원의 성질에 비추어 정형화(定型化)할 수 있는 산출물로 구성하기 보다, 꾸준히 재형성을 거듭하는 과정으로 성립하는 것이 보다 이상적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은 본질적으로 쇄신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어서 “교육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절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정은 교육과정 정책의 하나로써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주기적 개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쓰고 있다.²⁾

그 이전에도(1978년, 1985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문교부에 이러한 건의를 하였고, 문교부 편수진영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문교부에서는 제 4차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고, 학문의 발전 속도, 사회의 변화 속도 등을 고려하여 7년 간격으로 주기적인 교육과정 개정을 제도화할 것을 구상하고 있었으며³⁾ 이러한 7년의 개정 주기는 2종 교과서 검정 합격의 유효 기간을 5~7년으로 하고 있는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과도 중요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것이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이 진행되었던 1980년대 중반은 제 5공화국이 비교적 정치적·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학문적으로도 교육과정 개정의 특별한 요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1) 김용만 외, ‘한국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p.253, 서울 :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1998.

2) 한국교육개발원, ‘제5차 유치원, 초·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의 개발·연구’ p.30.

3) 교육과정 교과서 연구회, ‘한국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p.31.

또,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시에 문교부가 개발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기본 개발 지침으로 “부분개정”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아⁴⁾ 제 4차 교육과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나 개정의 논쟁점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1985년에 교육과정 개정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당시 교육과정 담당관이던 김철련 장학관으로 그는 제 4차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 사용하고 있는 현행 교과서의 유효 기간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5년~7년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⁵⁾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을 교과서 사용 유효 기간과 연관하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주장하였지만, 이는 표면에 내세운 하나의 명분이었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정을 제도화하려는 데 있었다고 하겠다. 이는 현재와 같은 중앙 집중식 교육과정 결정 구조하에서는 교육과정은 주기를 두고 계속적으로 점검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시점에서 한 번 결정된 교육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적절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교육과정의 배경을 이루는 여러 자원들이 변모하여 기존 교육과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과정 결정을 지역 단위 학교 교육 당국이나 학교에서 늘 새롭게 제기되는 요구에 따라 수시로 탄력적으로 내릴 수 있다면, 중앙에서의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교육과정 결정 권한이 중앙 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정이 제도화되어야 된다는 것이다.⁶⁾

물론, 이러한 주된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이 외에도 교육의 내외적인 요구와 환경의 변화도 개정을 촉발한 것이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학교 교육내용에 대해 제4차 교육과정에서 등장한 국민학교 저학년 통합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교과 편제 개선의 필요, 정보화 사회에 따른 컴퓨터 교육과 같은 교육내용의 첨가의 필요, 사회 및 경제 발전에 부응한 경제 교육 욕구, 인간 교육을 위한 특별활동 교육내용의 재검토 필요 등 제 4차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이러한 것도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고 보겠다.

4) 한국교육개발원, ‘제5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의 개발·연구’ p.38.

5) 한국 교육과정 교과서 연구회, ‘인물로 본 편수사’ pp.81-82. 서울 : 대한교과서(주), 1999.

6) 한국교육개발원, ‘유치원, 초·중학교 제5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시안의 연구·개발’ p.30.

2) 교육과정 개정 경위

① 문교부의 교육과정 개정 계획과 개발 위탁

1985년, 교육과정 담당관인 김철련 장학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시작될 당시에 편수관실 전체 분위기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아무도 관심이나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제 4차 교육과정이 1980년 7. 30 교육개혁 조치에 따라 짧은 개발기간에 급속하게 진행되어 각 교과 편수관이 그 후유증과 뒤처리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었고, 또 이에 따른 교과서 개편 업무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긴 하였지만 일부는 미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을 제기할 형편이 아니었다. 그리고 중·고교 국사 등 일부 국책과목 교과서는 교육과정 고시(1981년 12월31일) 이전에 이미 개발되어 1982학년도부터 현장에 공급, 사용되어 80년대 중반에는 이러한 교과서에 대해 교육과정 개정과 관계없이 교과서 수정, 개편 논의가 제기되고 있어 교육과정 개정 관심을 갖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러한 속에서 교육과정의 주기적인 개정의 제도화에 강한 집념을 가진 김철련 교육과정 담당관이 1985년 초에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앞에서 쓴바와 같이 김철련 장학관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2조(유효기간)에 ‘2종도서의 검정합격의 유효기간은 최초 사용 학년도로부터 5년 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과목별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들어 교과서 사용 유효 기간인 5년~7년이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새 교육과정이 1987년에 고시되어야만 2년의 교과서 개발기간을 예상하여 교과서 사용기간을 지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5년~7년의 교과서 유효기간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편 사유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기간이기에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1986년 초에 교육과정 개정 업무가 착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985년 상반기에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뜻을 전체 편수관 회의에 회부하였으며, 많은 논란 끝에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합의를 얻어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는 제 5차 교육과정 개정과 이에 따른 교과서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 안을 교육과정 개정 업무를 위해 각 담당관실 대표 편수관으로 조직한 위원회에서 수 차례 논의하고, 다시 편수관 전체 회의에 상정 논의, 확정하여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정업무가 시작되었다.

이 계획안은 “제 5차 교육과정 개발 추진 업무 계획안”으로 이 안에는 개정의 방향, 기

〈표 VI-1〉 제5차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정 계획

차별 연도 학교	제5차 교육과정					
	'86	'87	'88	'89	'90	'91
유치원	시안개발, 심의고시		교원연수			
			지도서 개발			
			실험, 심의			
				적용		
초등학교	시안개발, 심의고시		교원연수			
		교과서 개발				
			현장실험, 심의			
				교과서 적용		
중학교	시안개발, 심의고시		교원연수			
			교과서 개발			
				실험, 심의		
					교과서 적용	
고등학교		시안개발, 심의고시		교원연수		
			교과서 개발			
				실험, 심의		
					적용	
특수학교			시안개발, 심의고시		교원연수	
				교과서 개발		
					실험, 심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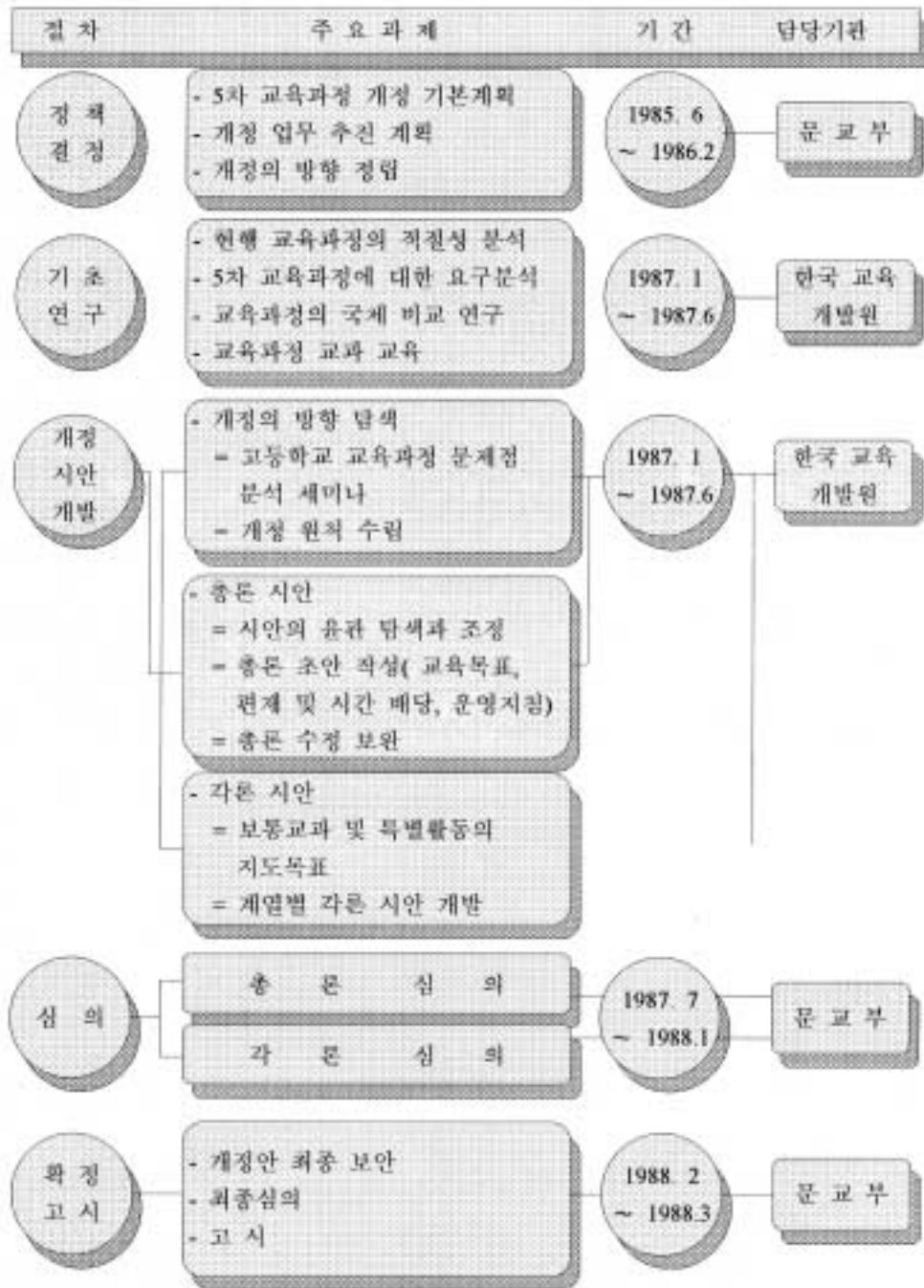
자료 : 김용만 외, '한국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p.253.

르려는 인간상, 개정의 중점 등 개정의 기본 방향과 '제 5차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정 계획'〈표 VI-1〉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 추진 계획'〈그림 VI-1〉을 담고 있었다. 이 계획안은 장관의 결재를 얻어 '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개정 업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정 업무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에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예산이 1985년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아 본격적인 추진은 1986년, 새로운 예산이 세워진 후에야 가능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발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선정하고 1985년 6월 17일자로 교육과정 개발계획을 통보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체예산으로 기초연구를 착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86년 2월 19일자로 유치원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을 위촉하였고, 1987년에 들어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연구 개발을 위촉하였다. 이를 위촉받은

7) 김용만 외, 전계서 p.267.

〈그림 VI-1〉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 추진 계획 (고등학교)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제5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의 개발·연구', p.41.

한국교육개발원은 그동안 추진하였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용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시안 개발에 착수하였다. 문교부에서는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제 4차 교육과정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한다는 “부분 개정”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개정의 기본 방침으로 다음의 세항목을 내세웠다.⁷⁾

가. 교육과정의 적정화

- 1) 이수과목의 축소
- 2) 학습량과 수준의 적정화
- 3) 교과목의 조정
- 4) 개발과정의 효율화

나. 교육과정의 내실화

- 1) 교육목표의 상세화
- 2) 교육내용의 정선
- 3) 지도서의 실용화
- 4) 평가방법의 다양화

다. 교육과정의 지역화

- 1) 교육용 도서의 2중화
- 2) 교과 단원의 지역화
- 3) 교재활용의 다양화
- 4)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화

한국 교육개발원에서는 문교부의 개정 지침을 받아 “개정의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성, 점진성, 효율성을 개정의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 원칙 아래 ① 총 이수 단위 수 (총 시간 수)를 현행대로 한다. ② 학교 현장에 무리한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교과별 시간 배당 및 단위 조절에서 변동의 폭을 최소화한다. 라고 하여 현행 교육과정이 지향해 온 방향을 지속적·점진적으로 추구하여 최대한 실효성을 얻는다는 원칙을 정하였다.⁸⁾

한편, 문교부는 개정의 필요성으로, ① 교육 철학, 학문 내용, 교육방법의 변화, ② 경제적 발전과 사회의 변화, ③ 현행 교육과정 고시 이후 7년 경과, ④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8)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 전개서 p.38.

⑤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으로 ① 교육이론 및 각 교과교육이론의 발전, ② 사회의 변화, ③ 교육의 질 관리로 정리하였다.

문교부와 교육과정 개발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업무관계는 〈그림 VI-2〉와 같이 정책 결정(문교부)-기초 연구(개발기관)-개정시안 개발(개발기관)-심의(문교부)-확정 고시(문교부)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개발원은 총론 시안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 절차를 수립, 추진하였다.⁹⁾

① 연구진 조직

② 추진계획 작성

③ 협의진 위촉

④ 개정에 대한 요구 분석

* 문교부의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의 취지 분석

* 관계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 분석

* 학교 급별 교원들의 개정 요구 수렴

* 교육개혁심의회와 관계기관 및 일반인의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⑤ 시안의 윤곽 탐색과 조정

* 개정의 쟁점 확인

* 쟁점에 대한 의견 청취

⑥ 시안의 초안 작성

⑦ 시안 수정·보완

⑧ 시안의 조정 및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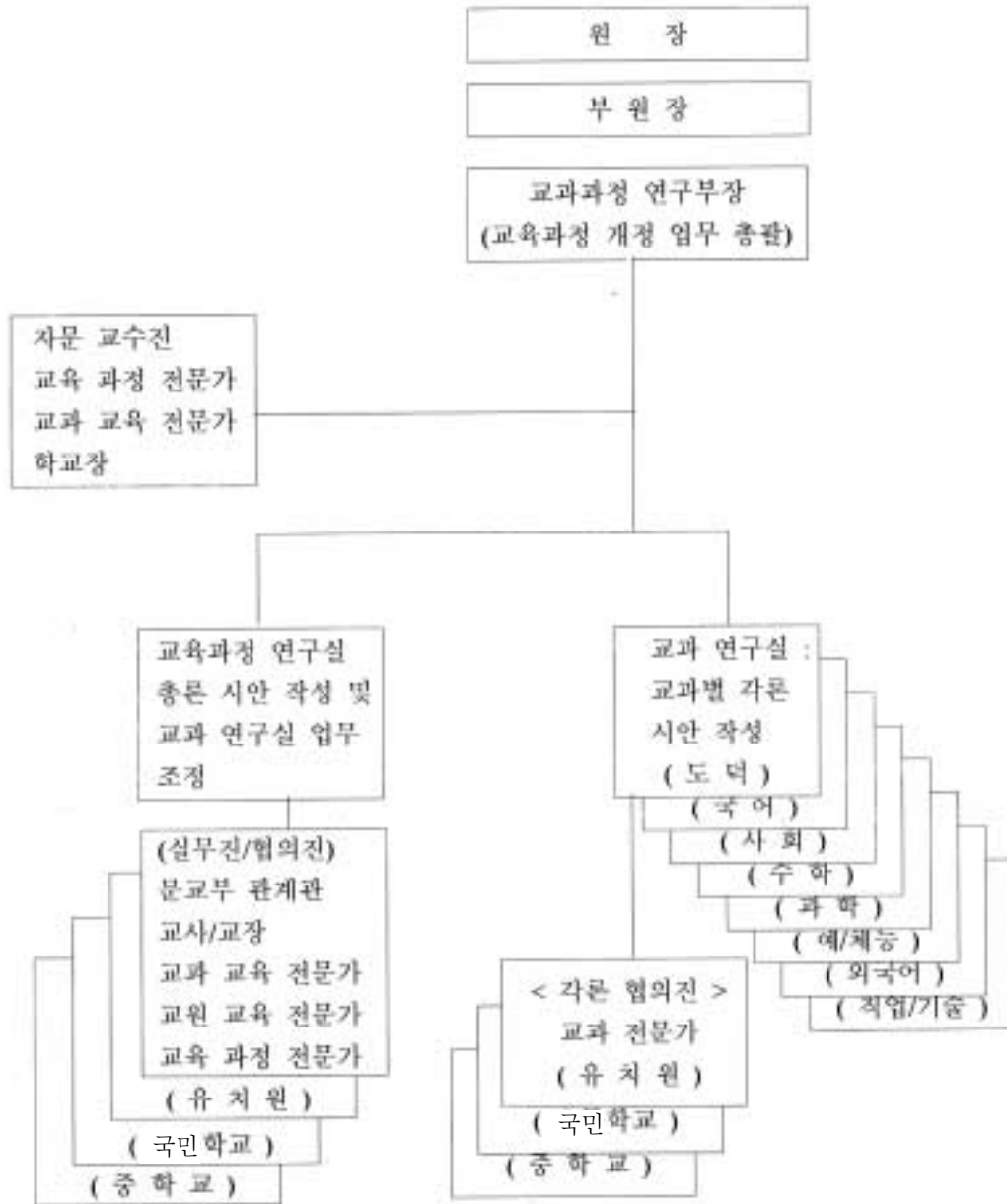
가.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팀 구성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과정 개발 일정에 따라 먼저 총론 시안 개발 팀을 조직하였다. 이 개발 팀은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업무 총괄을 광병선(교육과정 연구부장)으로 하고, 연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그림 VI-2〉와 같이 대학 교수, 초·중등학교 교원 등 관계 전문가들을 자문 교수진 등으로 폭 넓게 참여시켜 구성하였다. 또한, 각급 학교별로 총론 시안 개발을 위해 연구진과 자문위원, 협의진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¹⁰⁾

9)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 전제서' p.42.

10) 김용만, '전제서' pp.273.-280.

〈그림 VI-2〉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팀 의 조직 (유치원, 초·중학교)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유치원, 초·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의 개발·연구', P.37.

유치원, 초·중학교는 업무 주관을 허경철, 각급학교 연구 담당자로 유치원은 박혜정, 국민학교는 김재복(인천교대 교수), 중학교는 허경철로 정하고, 연구자는 김두정, 박혜정, 구자억, 김양분, 조영태, 홍영란, 박순경, 조덕주, 양미경으로, 그리고 자문위원으로는 이

영덕(서울대), 홍웅선(덕성여대), 강우철(이화여대)로 하였다.

고등학교는 연구 책임자를 광병선, 연구 조정자를 허경철, 계열별 연구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일반계(전계열 포함) : 허경철(책임자), 광병선, 김재복, 구자익, 조영태, 김홍원, 양미경, 최인숙, 자문위원 - 홍웅선(덕성여대), 김중서(서울대)
2. 농업 계열 : ^곽상만, 김영주
3. 공업 계열 : ^장석민, 이재원, 이용순, 김선태, 류길원
4. 상업 계열 : ^곽상만, 박법호, 이남호, 진현중
5. 수산·해운 계열 : ^곽상만, 여균희, 조덕주, 장경임
6. 가사·실업 계열 : ^김영주, 강대구
7. 체육 계열 : ^류삼태, 강신복, 김용환
8. 예술 계열 : ^윤양희, 정우현, 류삼태, 김용환, 임항아, 노이경, 이은숙
9. 과학 계열 : ^한종하, 권치순, 이범홍, 최돈형, 채광표, 김주훈, 이양락
10. 외국어학교 : ^최진향, 이근범, 김영준, 박기화, 이완기, 이영숙, 손정환
11. 고등기술학교 : ^김영주, 강대구 <^표시는 연구 책임자>

* 총론 시안 개발 협의진은 외부의 교육 전문가로 하였고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신웅(홍익대), 강팔중(교육개혁심의회), 구연무(석관국), 권옥자(길음국병설유치원), 권현직(영남국), 김기인(여의도국), 김동권(교원대), 김동규(대구성화여중), 김득수(거여국병설유치원), 김문자(청주중앙유치원), 김민국(천동국), 김복순(홍제국병설유치원), 김수천(강원대), 김신재(염과유치원), 김용석(서울사대부중), 김인규(여의도국), 김재광(연기국), 김재구(안동풍산중), 김종선(이화여대), 김진형(삼릉국), 김춘일(대구대), 김판희(계명대), 김화수(계명실전 부속유치원), 김홍규(천안동여중), 나미자(영서국), 노성열(상도국), 단현국(교원대), 류지후(명지대 부속유치원), 류지희(이화대 부속유치원), 문상열(동작중), 민병승(봉명국), 민형기(옥정국병설유치원), 박도순(고려대), 박승재(서울대), 박용인(연희국), 박용진(혜화여고), 박의하(포항중), 박재규(교육개혁심의회), 박한식(교원대), 방대남(신강국), 서성옥(둔촌국), 서영석(교대부국), 서영조(봉두국), 성병덕(안동중), 소봉암(장안중), 송진숙(덕성여대 부속유치원), 심경석(서울교대부국), 심광한(광희중), 심재규(대흥국), 여균희(인천수산고), 연홍숙(새세대육영회), 오화심(광주학강국 병설유치원), 우정호(서울대), 유광순(안동일직남부국 병설유치원), 유덕인(연천국), 유미자(부산아름유치원), 유정숙(전주유치원), 윤팔중(서울대), 윤현중(대조국), 은용기(덕성여중), 이기숙

(이화여대), 이기우(행동과학연구소), 이덕호(인제기린중), 이만우(남춘천국), 이미자(고은국), 이상룡(인천산곡중), 이석병(원주학성중), 이선희(배재대), 이성호(연세대), 이순상(대덕국병설유치원), 이연섭(중앙대), 이영석(성균관대), 이영자(덕성여대), 이영재(공주사대), 이옥자(엔젤유치원), 이우경(중앙대), 이은혜(연세대), 이장춘(독립문국), 이재원(충남대), 이정근(교육개혁심의회), 이종하(신석국), 이찬(서울대), 이태식(영서중), 임재택(부산대), 장병찬(광주문화여중), 전용주(답십리국병설유치원), 정덕수(남부국), 정세구(서울대), 조광준(서울교대), 조규탁(청주남중), 조명현(전농중), 지명숙(신경유치원), 지영하(창영국), 진계옥(중앙교육연수원), 최돈중(공주교대), 최시원(연세대), 최옥순(거여새마을유치원), 최종대(미호중), 한면희(인천교대), 한명희(동국대), 한복수(교육개혁심의회), 허영희(우촌국), 홍성근(금관국), 홍현일(경포국), 황의명(의명유치원)

* 한국교육개발원 소속 연구원으로는 다음과 같다.

강두호, 김애송, 김영민, 김영주, 김용환, 김재형, 김주훈, 김채남, 김홍원, 김희목, 남미영, 노명완, 류삼태, 문용린, 박교식, 박기화, 박약우, 서혜경, 성경희, 성효석, 손영애, 신성균, 신세호, 유균상, 윤양희, 이범홍, 이양락, 이용순, 이인제, 이찬희, 이화진, 임재석, 장석민, 장재현, 정구향, 정명숙, 정은실, 정재걸, 정종대, 조난심, 조영희, 채광표, 최돈형, 최병모, 최용규, 최진황, 허천행, 황병훈

* 문교부 소속으로는 다음과 같다.

강기주, 고석달, 곽한철, 국승길, 김갑재, 김동식, 김석진, 김성기, 김영소, 김용만, 김정자, 김진, 김진락, 김철연, 노원부, 명노걸, 문찬호, 민홍기, 박덕만, 박동규, 백승탁, 신현구, 신휘창, 양원, 양주석, 류석인, 유완수, 윤종영, 이경환, 이규석, 이상혁, 이영주, 인영희, 전동기, 정귀생, 정성봉, 정수영, 정완호, 정준섭, 조용찬, 최복식, 최종진

나. 학교급별 교과별 각론 시안 개발을 위한 연구진 구성

• 국민학교는 연구 책임자를 박병선, 연구 조정자를 허경철, 김두정, 김재복으로 하고, 문교부에서는 이경환이 담당하였다. 각 교과별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우리들은 1학년 : ^김두정, 김재복(이경환)
2. 바른생활 : ^박순경, 김두정, 김재복(김용만, 전재수)
3. 슬기로운 생활 : ^조덕주, 김두정, 김재복(김동식, 문찬호, 이규석, 정완호)

4. 즐거운 생활 : ^조영태, 김두정, 김재복(김석진, 노원부, 최종진)
5. 도덕 : ^문용린, 조난심, 유균상, 이조원(조용찬, 한명희)
6. 국어 : ^노명완, 이인제, 남미영, 허천행, 손영애(정준섭)
7. 사회 : ^김희목, 최병모, 장재현, 정세구, 최용규(김용만, 전재수)
8. 산수 : ^성효석, 신성균, 정은실, 정명숙, 정민영(김진락)
9. 자연 : ^이범홍, 한종화, 채광표, 김주훈, 권차순, 최돈혁, 강호갑(인천교대), 박종규(예일국교), 이용복(인천교대), 최후식(양재국교), 하명권(인천교대) (김동식, 문찬호, 이규석, 정완호)
10. 체육 : ^류삼태, 김용환(김석진)
11. 음악 : ^성경희, 황병훈(최종진)
12. 미술 : ^윤양희(노원부)
13. 실과 : ^김영주(정성봉)
14. 특별활동 : ^홍영란, 허경철, 김두정(이경환)

〈^표시는 연구책임자. () 안 이름은 문교부 담당자〉

• 중학교는 연구 책임자를 한국교육개발원의 광병선, 연구 조정자를 허경철, 김두정, 김재복으로 하고, 문교부 에서는 김진, 김용만이 담당하였다. 각 교과별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도덕 : ^문용린, 조난심, 유균상, 이조원(조용찬, 한명희)
2. 국어 : ^노명완, 이인제, 남미영, 허천행, 손영애(김갑재, 정귀생, 정준섭)
3. 국사 : ^김희목, 최병모, 장재현, 정세구, 최용규(윤종영)
4. 사회 : ^김희목, 최병모, 장재현, 정세구(민흥기, 윤종영, 이영주)
5. 수학 : ^성효석, 신성균, 정은실, 정민영(국승길)
6. 과학 : ^이범홍, 한종화, 채광표, 김주훈, 권차순, 이양락, 최돈형, 권재술(교원대), 신희명(서울대), 오종균(문창중), 이원식(서울대), 이태균(장충중), 장남기(서울대), 정창희(서울대), 한천옥(연서중), 홍창표(성동고)(김동식, 문찬호, 이규석, 정완호)
7. 체육 : ^류삼태, 김용환(김석진)
8. 음악 : ^성경희, 황병훈(최종진)

9. 미술 : ^윤양희(노원부)
10. 한문 : ^허천행, 노명완, 이인제, 남미영, 손영애, 정우상(서울교대)(김갑재, 정귀생, 정준섭)
11. 외국어(영어) : ^최진황, 박약우, 박기화, 김채남(한정근)
12. 실업·가정과
- 기술 : ^이용순, 장석민(이상혁, 고석달)
 - 가정 : ^조윤희, 장석민(인영희, 김정자)
 - 기술·가정 : ^장석민, 윤인경, 이용순, 조윤희(이상혁, 고석달, 인영희, 김정자)
 - 농업 : ^곽상만(정성봉)
 - 공업 : ^이용순, 장석민(고석달, 이상혁, 최복식)
 - 상업 : ^이남호, 장석민(신휘창)
 - 수산업 : ^여균희, 장석민(곽한철)
 - 가사 : ^조윤희, 장석민(인영희, 김정자)
13. 특별활동 : ^홍영란, 허경철, 김두정(김용만)

<^표시는 연구책임자. () 안 이름은 문교부 담당자>

• 고등학교는 연구 책임자로 광병선, 연구 조정자를 허경철로 하고, 문교부에서는 김성기가 담당하였다. 각 교과별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 일반계 : ^허경철, 광병선, 김재복, 구자역, 조영태, 김홍원, 양미경, 최인숙,
자문위원: 홍웅선(덕성여대), 김종서(서울대)(김성기)
1. 국민윤리과 : ^문용린, 유균상, 조난심, 양희인, 정민자(조용찬, 한명희)
2. 국어과 : ^노명완, 권경안, 손영애, 이인제, 허천행, 남미영(박영목, 정귀생, 정준섭, 허만길)
3. 국사과 : ^최용규, 최석진, 임미성, 정세구(서울대)(윤종영)
4. 사회과 : ^최석진, 김희목, 최용규, 정세구, 장재현, 임미성, 허인숙(민홍기, 이영주, 윤종영)
5. 수학과 : ^전평국, 성효석, 신성균, 정은실, 김현주(국승길)
6. 과학과 : ^권치순, 김주훈, 이범홍, 이양락(김동식, 문찬호)
7. 체육과 : ^류삼태, 김용환(김석진)
8. 교련과 : ^류삼태, 홍승후(김석진)

9. 음악과 : ^황병훈, 김혜경(최종진)
10. 미술과 : ^윤양희(노원부)
11. 한문과 : ^허천행, 노명완, 권경안, 손영애, 남미영, 이인제, 정우상(서울교대)
(박영목, 정귀생, 정준섭, 허만길)
12. 외국어과
- 영어 : ^최진황, 이완기, 손정환, 박기화(박원영, 명노걸)
 - 독일어 : ^최진황, 김영준(류석인)
 - 프랑스어 : ^최진황, 이근님(양원)
 - 에스파니아어 : ^최진황, 이근님(양원)
 - 중국어 : ^최진황, 김영준(류석인) · 일본어 : ^최진황, 이영숙(양원)
13. 실업·가정과
- 기술 : ^장석민, 이재원, 이용순, 류길형, 김선태(고석달)
 - 가정 : ^윤인경, 조영희(이기훈, 김정자)
 - 농업 : ^곽상만(정성봉)
 - 공업계 : ^장석민, 이재원, 이용순, 김선태, 류길현(고석달, 류완수, 신현구,
제선억, 최복식)
 - 상업계 : ^곽상만, 박범호, 이남호, 전현중(박덕만, 서근우)
 - 수산·해운계 : ^곽상만, 여균희, 조덕주, 정경임(곽한철)
 - 가사·실업계 : ^김영주, 강대구(김정자, 이기훈)
14. 과학계 : ^한종하, 권치순, 이범홍, 최돈형, 채광표, 김주훈, 이양락, 김영식
(서울대), 김영택(서울대), 박승안(서강대), 신희명(서울대)(김동
식, 문찬호, 이규석, 정완호)
15. 체육계 : ^류삼태, 김용환(김석진)
16. 예술계 : ^윤양희, 김혜경, 임항아, 이은숙, 황병훈, 정우현(최종진, 이순영,
노원부)

〈^표시는 연구책임자. () 안 이름은 문교부 담당자〉

다.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업무 추진 경과

한국교육개발원은 제4차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위탁받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을 1981년 12월, 제4차 교육과정을 고시한 이후에 지

속적으로 점검하여 왔다. 이는 앞으로 주기적인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와 이에 대한 선행 연구 업적을 이루어,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사업을 계속 확보하려는 의도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82년~1987년 동안 교육과정 개선에 시사를 줄 수 있는 기초연구를 광범위하게 추진하였다. 이 기간에 추진하였던 주요한 연구 사업을 보면, 제 4차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그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교육과정 평가 연구, 세계 주요 나라의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새로운 교육과정 안을 탐색한 개발 연구, 교육과정 자료 개발의 개선을 시사하고자 한 교과서 체제 개선 연구, 수업 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 연구, 수업 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시도한 교과 연구, 제 5차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교육과정 평가 연구는 현행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저해 요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초·중등학교 200여학교의 학생, 교사, 교장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것으로서 새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었다. 이외에도 각 교과별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기초연구 자료와 더불어 초·중·고등학교 각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목록은 <표Ⅶ-2>와 같다.¹¹⁾

이러한 기초연구와 개정 작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광범위하게 듣고 시안 검토를 위해 크고 작은 많은 협의회가 열었다. 구체적인 협의회 목록은 <표Ⅶ-3>, <표Ⅶ-4>와 같다.¹²⁾

이상의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작성을 위한 협의회에서 많은 것이 논의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이 국민학교에서는 저학년 교과 통합문제, 중등학교에서는 교과목 축소를 위한 국사과의 교과 폐지문제, 또 남녀 평등화 사회의 실현을 위한 기술(남)과 가정(여)의 통합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순수한 학문적인 당위성을 넘어 각 교과의 교과 이기주의와 얽혀 영역 분쟁식 싸움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각 교과 담당 편수관과 이들을 지원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각 교과 관련 학술단체와 각 교과별 전공 교수들이 뒤엉켜 감정 싸움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었다.

국민학교 저학년 교과 통합문제는 오래 전부터 교육전문가들에 의해 학습자의 발달 심리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었고, 제2·3차 교육과정에서는 운영지침에 통합지도

11) 한국교육개발원, '유치원, 초·중학교 전게서' p.115.

12) 한국교육개발원, '유치원, 초·중학교 전게서' pp.122.-124.

〈표 VI-2〉 제 5차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기초 연구 목록

기초 연구 제목	연구 연도
<u>1. 교육과정 개발 방향의 탐색 연구</u>	
1) 우리 나라 미래 사회의 모습과 인간상 분석	1986년
2) 우리 나라 각급학교의 목표와 기능 분석	1986년
3) 각급 학교 학생의 발달 특징과 교육	1986년
<u>2. 외국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u>	
1) 최신 외국 국민학교 교육과정	1982년
2) 국민학교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1983년
3) 중학교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1984년
4)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1985년
5) 서독과 프랑스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1985년
6) 프랑스의 새 중학교 교육과정 구조·내용	1984년
7)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국제동향 연구	1984년
8)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국제동향 연구	1984년
9)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국제동향 연구	1984년
10)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국제동향 연구	1984년
11)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국제동향 연구	1984년
12)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국제동향 연구	1984년
13)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국제동향 연구	1984년
<u>3. 새 교육과정의 평가 연구</u>	
1) 국민학교 교육과정 평가 연구(1)	1983년
2) 국민학교 교육과정 평가 연구(2, 4)	1984-1985년
3) 국민학교 교육과정 평가 연구(3)	1984년
4) 중학교 교육과정 평가 연구	1985년
5) 유치원 초·중학교 교육과정 체제 및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1986년
6) 고등학교 교육과정 적절성 평가 연구	1986년
<u>4. 통합 교육과정의 평가 연구</u>	
1) 국민학교 1, 2학년 통합 지도의 질 관리를 위한 후속 조사 연구	1982년
2) 효율적인 통합 지도 방안 연구	1983년
3) 교과 통합 내실을 위한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선안의 탐색	1984년
<u>5. 유치원 교육 현황 분석</u>	
1) 한국 유아교육의 현황 분석	1982년
2) 유치원 아동을 위한 언어 발달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저	1982년
3) 유아교육 정책의 진단과 발전 방향 세미나 보고	1983년
<u>6. 교과서 개선과 관련된 연구</u>	
1) 중학교 교과서 개선을 위한 연구	1982년

기초 연구 제목	연구 연도
2) 중학교 영어 교과서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1982년
3) 도덕 교과서에 대한 추수 연구	1983년
4) 국민학교 체육 교과용 도서 개선 연구	1985년
5) 반공 관계 교과서 편찬 방향에 관한 연구	1985년
6) 교과서 체제 개선 연구	1985년
7. 각 교과별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연구	
1) 도덕과	
• 한국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1982년
• 초·중학교 도덕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초 연구	1984년
• 초·중학교 도덕과 평가 및 예시 문항 개발	1985년
2) 국어과	
• 국민학교 국어과 평가의 원리와 실제	1984년
• 국민학교 저학년의 국어과 수업 방법 개선 연구	1985년
3) 음악과	
• 국민학교 전통 음악 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	1982년
• 국민학교 음악과 평가의 원리와 실제	1984년
• 국민학교 음악과 수업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1985년
4) 미술과	
• 미술과 회화 평가 방법 개선 연구	1983년
• 국민학교 미술과 평가의 원리와 실제	1984년
• 초·중학교 서예지도 개선 방안 연구	1985년
5) 체육과	
• 국민학교 체육의 효율적인 평가 방법 연구	1982년
• 체육교육 효율화 방안 연구	1983년
• 실기 지도 평가 자료	1984년
6) 영어과	
• 중등 학생의 영어에 대한 태도 분석	1982년
7) 실업과	
• 초·중학교 컴퓨터 교육을 위한 연구	1983년
• 초·중학생의 직업 성숙도 발달 특성 조사 연구	1983년
• 초·중·고등학교 컴퓨터 교육과정안의 연구 개발	1984년
• 국민학교 아동, 교사, 학부모의 진로의식에 관한 기초 조사 연구	1982년
• 국민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된 진로교육 내용 분석 연구	1984년
• 국민학교 실과 평가의 원리와 실제	1984년
• 기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1985년

〈표 VI-3〉 제 5차 교육과정 총론 작성 관련 협의회〈유치원, 초·중학교〉

순서	협 의 회 명	개 최 일	참 석 자
1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관계관 회의	'86.1.29	문교부(5명) 한국교육개발원(32명)
2	제5차 육과정 개정을 위한 간담회	'86.3.2.	문교부(35명), 한국교육개발원 교과별 연구원(전원)
3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개정 절차를 조정을 위한 협의회	'86.4.7	문교부(8명) 한국교육개발원(6명)
4	국민학교 통합교육과정 시안 작성을 위한 요구 분석 협의회	'86.4.7	문교부(3명), 현장교사(13) 한국교육개발원(7명)
5	교육과정 구성방향 설정 및 체제구안 협의회	'86.4.12	문교부(3명) 한국교육개발원(8명)
6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시안 작성을 위한 협의회	'86.4.18	문교부(2인), 현장교사 및 전문 가(11명) 한국교육개발원(3명)
7	초·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문제점 검토를 위한 교장 협의회	'86.4.25	문교부(13명) 초·중학교 교장(39명) 한국교육개발원(11명)
8	유치원·초·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초안 검토 협의회	'86.5.12 ~ 5.23	문교부(12명) 한국교육개발원(8명)
9	유치원·초·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초안 검토 협의회	'86.5.22 ~ 23	문교부(31명), 학계(44명) 연구기관(5명), 연구기관(5명) 현장 교사(34명) 한국교육개발원(49명)
10	유치원 교육과정 총론 초안 수정 보완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86.6.4	문교부(2명), 현장 교사(3명) 유아교육 전문가(8명) 한국교육개발원(5명)
11	유치원·초·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3차 협의회	'86.6.12	문교부(5명) 한국교육개발원(7명)
12	유치원·초·교육과정 최종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86.6.13	문교부(9명) 현장 교사 및 전문가(19) 한국교육개발원(11명)
13	유치원· 초·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를 위한 문교부 관계관과의 협의회	'86.6.20	문교부(5명) 한국교육개발원(13명)

〈표 VI-4〉 전 계열 및 일반계 고등학교 총론 및 교과별 협의회

순서	협 의 회 명	개 최 일	참 석 자
1	교육과정 계획서 검토를 위한 1차 협의회 현장교사 및 전문가(7)	‘87.2.17	문교부(12명) 한국교육개발원(45명)
2	교육과정 개정 계획서 검토를 위한 2차 협의회	‘87.2.20	문교부(2명) 현장교사 및 전문 가(10) 한국교육개발원(25명)
3	교육과정 개정 방향 탐색을 위한 협의회	‘87.2.27	문교부(2명) 한국교육개발원(25명)
4	제 5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협의회	‘87.3.6	문교부 및 교육위원회(34) 현장교사 및 학계(171명)
5	과학과 교과목 설정 및 이수 단위에 관한 협의회	‘87.3.9	한국교육개발원(12명)
6	사회과 교과목 설정 및 이수 단위에 관한 협의회	‘87.3.10	한국교육개발원(11명)
7	국어과, 수학과 교과목 설정 및 이수 단위에 관한 협의회	‘87.3.11	한국교육개발원(12명)
8	예·교과목 설정 및 이수 단위에 관한 협의회	‘87.3.12	한국교육개발원(12명)
9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일정 소개를 위한 자문교수와 의 협의회	‘87.3.19	자문교수(10명) 한국교육개발원(16명)
10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원내 의견 조정 협의회	‘87.3.25	한국교육개발원(26명)
11	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위 배당 기준 검토 협의회	‘87.4.1	한국교육개발원(58명)
12	일반계 고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및 계열별 고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성 지침을 위한 협의회	‘87.4.9	문교부(2명) 한국교육개발원(7명)
13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 원내 연구진 검토 협의회	‘87.4.17	현장 교사(16명) 한국교육개발원(13명)
14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 수정 보완을 위한 원내 연구진 협의회	‘87.4.14	한국교육개발원(44명)
15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 축조 심의를 위한 문교부 관계관과의 협의회	‘87.4.21	문교부 관계관(7명) 한국교육개발원(2명)
16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 수정 보완을 위한 협의회	‘87.4.28	문교부(17명) 한국교육개발원(17명)

순서	협 의 회 명	개 최 일	참 석 자
17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를 위한 각계 대표와의 협의회	'87.4.30	교과 전문가(18명) 교육학 전문가(6명) 현장 교사(15명) 문교부 관계관(20명) 학생 및 학부모(4명) 기업체 대표(2명) 한국교육개발원(60명)
18	사회과 교육과정 편제 시안에 관한 협의회	'87.5.7	학계 대표(25명) 한국교육개발원(16명)
19	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위 배정안 교육과정 조정을 위한 협의회	'87.5.14	한국교육개발원 과제 책임자(18명)
20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 최종 검토를 위한 원내 연구진 협의회	'87.5.18	한국교육개발원(30명)
21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 최종 확정을 위한 문교부 관계관과의 협의회	'87.5.29	문교부 관계관(6명) 한국교육개발원(4명)

를 제시하였었다. 이를 제 4차 교육과정에서 진일보하여 1·2학년의 경우 각 교과목의 수업 시간을 몇 개의 교과군으로 묶어 배당하여 교과목의 통합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교과용 도서도 통합된 자료로 편찬되었다. 이때 등장한 통합 교과서는 '우리들은 1학년' (8개 교과), '바른 생활' (도덕, 국어, 사회), '슬기로운 생활' (산수, 자연), '즐거운 생활' (체육, 음악, 미술)로 이는 각 교과목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합지도의 교육적 효과를 얻도록 하였다. 이는 급격한 변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 조치로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내용 구성의 어려움, 평가의 어려움 등 새로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제 5차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통합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의 통합 교과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통합 교육의 당위성에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정하나 통합 교육과정 구성에 기존의 무슨 교과와 무슨 교과를 통합할 것인가에는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 이른바 교과 영토주의라 할 수 있는 교과목의 기득권 유지와 교과목의 영역 확대 등으로 인해 쉽게 각 교과목간의 합의를 보기 어려웠다. 물론, 새로운 교과목이 교육과정에 위치할 때의 근거는 인식 대상별, 또는 인식 방법별로 규정지어지는 것이 보통이다.¹³⁾

인식 대상별로 보면 자연을 인식 대상으로 삼는 자연. 과학과와 사회를 인식 대상으로

13) 교육과정 교과서 연구회, '한국교육과정의 변천, 초등학교' p.40.

하는 사회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인식 방법으로 보면 문자, 수, 기호를 매개로 인식하는 교과는 수학과 국어과, 색, 형, 음 등을 통해서 예술적 인식을 주로 하는 음악과 미술과, 일정한 기능의 획득과 그 활용을 통해서 하는 인식의 교과는 가정과, 기술과, 체육과 등을 들어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과설정의 원칙적인 주장에 대하여서도 각 교과간에 적지 않은 이견이 제시되었다. 이때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것을 보면, 제 4차 교육과정에서 통합과정에 포함된 국어, 산수를 기초, 기본기능의 함양을 위해 분리, 독립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주장 그리고 새로운 교과로 ‘슬기로운 생활’을 만들되 여기에 기존 교과의 도덕, 사회, 자연 영역을 통합하자는 주장과 자연 영역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등이 팽팽하게 맞섰다.

또 하나의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중·고등학교의 국사과 폐지 문제로 원래 국사과는 광복 이후 새로 탄생한 사회과의 하나의 교과목으로 존속되어 오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독립 교과로 되었다. 국사과가 독립 교과가 된 것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한 국사 교육 강화 정책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지시에서 ‘모든 학교 교육에서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할 것’이라 하여, 이에 따라 당시 문교부에서는 ‘국사교육강화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에서는 국사교육강화를 위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이 건의문 중 ‘교육과정의 구조’라는 항목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국사 교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¹⁴⁾

- 고등학교 : 국사 교과를 설정한다 (이수단위는 6단위)
- 중 학 교 : 국사 교과를 설정하고 2~3학년에 걸쳐 주당 2시간씩 부과한다.
- 국민학교 : 6학년에는 체계있는 국사를, 5학년에는 산업사·내용을 부과하고, 4학년은 사회과의 1/3를 국사 내용으로 한다. 1·2·3학년은 사회과 1/4을 국사 내용으로 한다.라고 국사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신을 받아 만든 교육과정이 제 3차 교육과정이었기에 이 교육과정은 가장 한국화한 교육과정의 특색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변화도 가장 많았던 교과가 국사과였다. 이 변화의 가장 큰 것이 중등학교에서 국사과를 사회과에서 독립시켜 독립 교과화 한 것이다. 이러한 국사교육강화는 학교의 국사 교육에 획기적인 발전의 토양을 만들어 주었으나 반면에 그 이전에 국사와 함께 사회과를 이

14) 윤종영, ‘국사교육강화정책’ 문명연지(제2권 1호) p.273.

루고 있던 지리, 일반사회 과목으로부터 질시와 공격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국사가 독립 교과화 됨으로써 기존의 사회과에 배당된 시수의 일정분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학교의 경우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사회과에 주당으로 1학년에 3~4시간, 2학년에 3~4시간, 3학년에 2~4시간이 배당되었다. 그런데 제 3차 교육과정에서는 2·3학년 국사에 주당 2시간씩이 배당되고, 사회과(일반사회, 지리, 세계사)에는 주당 1학년에 3시간, 2학년에 2~3시간, 3학년에 2~3시간이 배당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사 교육의 강화로 역사과가 다른 두 과목의 시수를 빼앗아 특혜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이 논의되면서 국사과를 제 1·2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사회과의 우산 아래 들어가야 한다는 사회과에 흡수, 통합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통합론자의 주된 주장은 첫째, 복잡 다난한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시각과 사회과학적 시각을 통합하여 구조적인 방법을 통하여 가능하고 이를 위해 역사, 지리, 일반 사회를 하나의 교과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과목 수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기도 하였으나 국사학계와 관련 단체의 거센 반발이 있었으며, 특히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아 통합론은 여론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 기세가 수그러들었다.

또,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실업·가정과의 남학생의 기술 과목과 여학생의 가정과목의 통합문제이었다.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남녀 평등화 사회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으로 중학교에 남녀 혼성학급의 출현으로 인한 학급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라 볼 수 있다.

통합론자들은 기술 과목과 가정 과목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기술·가정 과목으로 신설하고 이를 남·녀 공히 모든 학생에게 부과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안에 대하여 기술, 가정 편수관은 물론 관련 학회, 단체, 전공 교수들의 맹렬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특히 대한가정학회는 정치권까지 동원하여 압력을 가하였고, 시안 개발 팀에서는 결국 이러한 주변의 압력에 굴복하여 기존의 과목을 그대로 두되,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협, 기술과 가정을 통합한 ‘생활 기술’이 등장하였다.

이상의 중요 쟁점문제 이외도 교육과정과 관련된 많은 부면에 여러 단체나 기관이 여러 가지 의견의 제시와 압력을 가하였다. 이들은 특히 편제에 대하여 특정 교과와 관련하여

15)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 전제서’ p.150.

문교부 장관, 한국교육개발원에 강력한 건의서를 보내었다. 이 중에서 예시로 ‘대한 지리 학회’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한국지리 교과목의 필수화와 이수 단위를 증가시켜줄 것을 문교부 장관에게 요구한 건의문을 보면¹⁵⁾ 다음과 같다.

한국지리(국토지리) 교과목의 필수 지정을 요망함

1. 국토지리 교육의 의의

국토는 그 위에 거주하는 인간들이 과거로부터 현재·미래에 이르기까지 삶을 영위하면서 그 시대의 전반적인 문화·역사를 창조하는 생활공간으로서 우리 인간 생활에 가장 근본적인 터전일 뿐 아니라 한 국가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는 지리적 공간을 근거로 하여서 이루어졌었고,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나름대로의 문화·역사를 형성하여 지금까지 계승 발전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국토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은 자유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국민 윤리, 국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 국토에 대한 교육은 소홀히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나 문화는 일정한 공간 내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형성된 것이므로, 어느 국가의 역사·문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바탕이 되는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간적 개념인 역사와 문화는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국토와 연계시킬 때 훨씬 더 충실히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2. 한국지리(국토지리) 필수 지정의 당위성

(1) 우리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는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 안에서 형성되고 계승·발전되어 왔으므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환경과 생활공간으로서의 우리 국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있어야 자유민주시민 정신을 함양하고 향토애에 바탕을 둔 애국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3)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보전하여 보다 나은 생활공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에 한국지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역사적 소명의식을 함양하여야만 합니다.

(4) 분단 국가로서의 우리 국토가 처한 지리적 환경을 올바로 이해시키고 통일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국토지리를 필수 과목으로 하여야 합니다.

(5) 아울러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해외진출, 교역권 확대 및 국제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진출 가능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세계지리 교육과의 연계도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과정에서 지리과 단위 배당 확대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는 국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데에서 민족 생존의 영역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효과적인 학습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교과목은 ‘지리’ 과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넓은 국토에 풍부한 자원,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미국보다 우리 나라처럼 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게 ‘지리’ 과목 학습 비중이 높은데서도 알 수 있다.

제 5차 교육과정에 의해 공부한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21세기에는 우리 나라 인구가 남한만도 5천만을 넘어 6천만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은 어쩔 수 없이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과거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경영에 열을 올릴 때 지리교육에 힘을 기울였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인문·사회과정 뿐만 아니라 자연과정에서도 지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에 있어서 대체로 여성보다 남성들의 활약이 지배적인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남자 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연과정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4~5 단위만의 지리 학습 기회를 주는 것은 마치 막대기만 들려주고 총을 든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지리과의 단위 배당은 인문·사회과정과 마찬가지로 자연과정에게도 8-10 단위로 해야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문서화된 건의문이 초·중등 교과와 관련된 단체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당위성을 갖은 건의문이지만 일반적으로 자기 교과 이기주의 발상이거나 자기 교과에 표방하는 가치 이념을 교육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시키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문교부 교육과정 확정 고시

가. 한국교육개발원 문교부에 교육과정 개정 시안 답신 보고

한국교육개발원은 문교부에서 위탁받아 연구 개발한 ‘제 5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의 연구·개발’ 답신 보고서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1986년 6월 말에, 고등학교는 1987년 6월 말에 제출하였다. 이 답신 보고서는 각급 학교별로 제1부는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으로 교육과정 구성 방향과 교육목표 그리고 편제, 시간(단위) 배당과 운영 지침을 제시하였고, 제2부는 총론 시안의 개발 전략과 경과, 시안 작성의 근거, 교육과정 개정 후 뒤따라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답신 보고서 중 각 교과 담당 편수관이나 관련 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총론 중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이였다. 그러나 그 동안 총론 시안 작성 과정 중 문교부 편수관들과 관련학자들이 개발기관 협의진에 참가, 충분한 의견 개진과 협의를 거쳤기에 시안 내용이 문교부 의도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으며, 관련학계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다. 이 보고서의 특징을 보면, 유치원, 초·중학교는 다음과 같다.¹⁶⁾

첫째, 교육과정 구성방향 및 학교급 별 교육목표 설정에서 교육개혁 심의회가 제안한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 즉 자주성, 도덕성, 창의성 계발을 중요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편제와 시간배당에 있어서 유치원은 5개 발달 영역으로 그 지도 영역을 편성하고,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편성하였다.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교과편성은 현행과 같다.

다만, 국민학교 1~2학년의 통합활동에서 ‘슬기로운 생활’ 영역을 2학년까지 연장한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는 실업·가정에서 ‘가정’과 ‘기술’을 통합한 ‘생활 기술’ 과목을 ‘기술’, ‘가정’ 과목과 병립시켜 필수 선택으로 설치한 것과 3학년에 실업·가정 시간을 현행 주당 5~6시간에서 4~6시간으로 줄여 수학과 과학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교의 자율 재량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한 점이다. 즉, 교육과정 운영 지침 중, 수업시간 편성, 학생, 교사 조직에서 학교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계획 수립을 고려하였다. 또, 고등학교의 중요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⁷⁾

첫째, 교과목수를 축소 조정하였다. 교과의 통합의 방법과 필수를 선택으로 전환하여 현행 편제표상에 제시된 30개 교과목을 23개 과목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16) 한국교육개발원, ‘유치원, 초·중학교 전개서’ p.77.

17) 교육부, ‘교육제도변천사’ p.73.

둘째, 이수 단위 수를 조정하였다. 각 교과목의 이수단위를 축소하여 내용의 양을 줄이고 난이도를 낮추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국어과와 수학과와 경우 최대 단위 수를 2 단위씩 하향 조절하였다.

셋째,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범위를 확대하였다.

넷째, 편제표에서 공통 필수난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열별 특성을 보다 적절히 교과에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복잡한 편제표를 단순 명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도 종래의 안에 대한 많은 지지 의견이 있어 두 개의 안 (필수난을 제거한 안과 필수난을 존치한 안)을 제시하였다.

나. 문교부 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심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한 답신 보고서를 받은 문교부는 교육과정 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이의 확정고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과정 담당관실은 총론 시안에 대한 자체 검토를 통해 자체 검토 안을 만들었고, 각 편수실은 각 편수관들의 협의를 통해 자기 영역과 관련된 교과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만들어 교육과정 담당관실에 제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는 각실 대표 편수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여러 차례의 격론을 거쳐 자체 안을 작성하였다.

자체 안 작성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교과 편제, 시수 문제와 고등학교에서의 필수 선택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발기관 협의회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문제로 이것이 문교부에 그대로 옮겨와 관련교과 담당 편수관들의 힘 겨루기 싸움 같이 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통합 교과 문제이었다. 이 문제는 개발기관에서 논란이 되어 오던 것이 그대로 문교부에서 재연되었다. 이는 저학년의 통합 교과문제에 대하여 개발기관에서 쟁점이 되었던 ‘바른 생활’과 ‘슬기로운 생활’에서 국어, 산수를 분리하는 문제, 통합 교과의 영역 구성 문제 등이 정리, 해결되지 못하고 총론 시안이 제 4차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문교부에 보고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치열하였던 것은 제 4차 교육과정 하에서 자연과 산수 영역으로 구성된 ‘슬기로운 생활’ 영역 구성 문제이었다. 김철연 장학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담당관실은 ‘슬기로운 생활’ 교과를 독일의 예를 들어 사회영역과 자연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독일 바이에른주의 1~4학년 기초교육과정으로 통합교과인 ‘지역 사회와 사물’은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을 통합적으로 편성한 교과로서 공동 사회, 시간, 지역 사회의 역사, 생산 활동, 건강, 자연 환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지속성이 부족하고 흥미의 중심이 계속 이동하기 때문

에 다양한 학습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학습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변의 소재로부터 학습 과제가 도출되어야 하고 이러한 소재이어야만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소재들은 자연·사회 현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두 영역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1989년 고시한 일본의 소학교 교육과정에서 1~2학년에 통합 교과로서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을 통합한 ‘생활’이라는 교과가 등장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교과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 시설, 학교 생활, 놀이, 통학로, 가정 생활, 가족 구성원, 공공 시설, 자연 관찰, 계절의 변화, 흙, 모래 놀이, 풀과 꽃, 열매, 동물 사육, 식물 사육, 탈 것, 계절 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¹⁸⁾ 주제가 학습자 주변의 자연, 사회 현상을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해 강기주 장학관을 중심으로 자연과학 편수관실에서는 ‘슬기로운 생활’은 제 4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학습자 주변에서 전개되는 자연 현상과 관찰 활동을 중심으로 자연 영역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학문적인 성격상 통합 될 수 없고 사회 영역은 학습자의 생활 장면에서의 현상 이해와 규범 습득을 중심으로 ‘바른 생활’ 교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사회과학 편수관실에서도 찬성하는 편이었으나 자연·사회 영역 통합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 주장을 펴지는 않았다.

두 편수관실의 주장은 편수관 회의에서도 격론이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김철연 장학관과 강기주 장학관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주변의 편수관들을 곤혹스럽게 하였다. 어떻든 이 논쟁은 자연과학 주장대로 ‘슬기로운 생활’ 내용 구성이 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 남았다. 그 여진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어떻든 그 뒤 1987년 3월 인사 이동 때 김철연 장학관은 국립교육평가원으로, 강기주 장학관은 청운중학교 교장으로 전출되어 이 두 분은 그렇게 집념을 가지고 매달렸던 제 5차 교육과정에 대해 끝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고 말았다. 어떻든 국민학교 저학년의 통합교과는 국어, 산수가 독립교과가 되고, ‘바른 생활’은 도덕, 사회영역 중심으로, ‘슬기로운 생활’은 자연 영역 중심으로, ‘즐거운 생활’ 예체능 영역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또, 하나의 쟁점은 국사과를 사회과에 흡수, 통합하자는 문제이었다. 이 문제는 개발기관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시안에도 제 4차 교육과정과 같이 독립 교과로 편제되었으나 이 문제가 다시 편수관실에서 재연되었다. 이 문제는 사회과 통합에 상당한 소신과

18) 한국교육과정 교과서 연구회, ‘전계서 국민학교’ p.41.

집념을 가지고 있던 몇몇 편수관과 국사과 인접 교과인 지리 사회 전공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들은 우선 국사가 교과가 아닌 과목화하여 사회교과의 우산아래 지리, 사회와 같이 하나의 과목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들은 국사과의 독립은 유신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종전의 제 1·2차 교육과정 모습으로 환원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이 와중에 가장 곤욕을 치른 것이 국사 교과를 담당한 필자였다.

필자는 국사과의 독립이 유신과 전혀 관계없이 유신 이전인 1972년에 시대적인 요구로 국사교육 강화정책이 제기되었고, 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지금도 역사 교육전문가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국사 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독립교과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곤 하였다. 또한, 제 5차 교육과정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1986년에 문교부가 실시한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¹⁹⁾에 의하면 국사과의 독립 교과 체제 유지를 현장의 역사 교사들은 99.9% 찬성하고 있었고 이러한 것이 국사과의 독립교과 존속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긴급 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 “국사를 사회과에 통합 과목으로 넣으려는 것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거스르는 일”이라 하며 “현행 교육과정대로 공통 필수 독립 교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많은 역사 관련 학회가 결의문을 채택, 이를 문교부장관에 전달하였다.

더욱이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모든 주요 일간 신문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설이나 기사로 민족 교육 강화를 위하여 국사과가 독립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이러한 것이 영향을 미쳐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증폭되지 않고 제 4차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고시 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되었고, 이러한 사회과 통합론자들의 끈질긴 집념으로 결국 제 6차 교육과정에서 국사과는 독립 교과의 지위를 잃고 사회과의 우산 밑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기술과 가정의 통합 문제이다. 이 문제도 개발기관에서 많은 논란을 거쳐 기존의 기술, 가정과 두 과목을 통합한 생활 기술로 낙착되었으나 문교부에서 이 문제가 다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면서 기술과 가정 통합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통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통합안은 개발기관에서 처음에 제기되었던 것처럼 제 4차 교육과정에

19) 문교부,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서’ pp.54-56.

서 가정은 여학생만, 기술은 남학생만 배우던 것을 이를 통합, 단일 과목화하여 남녀 모두 배우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통합안은 기술을 담당한 고석달 연구관, 가정을 담당한 인영희 연구관을 중심으로 관련학회 전공 교수 및 교사들이 맹렬한 반대 운동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타협안으로 개발기관의 시안과 같이 기존의 가정(여), 기술(남)은 존속을 하고, 남녀 공히 배우는 새 과목으로 ‘기술·가정’이 탄생되었다.

다. 문교부 확정 고시

문교부는 개발기관에서 제출한 제 5차 교육과정의 총론 개정 시안을 바탕으로 전체 편수관의 논의를 거쳐 자체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문교부 안을 검토 심의할 심의회를 조직, 수십 회에 걸친 심의회를 개최하여 검토·심의하였고, 각 분야, 각 교과와 전문가를 동원하여 수차례 걸친 수정 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총론과는 별도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문교부의 위탁을 받아 교육과정 각론 개발·연구를 진행하여 1986년 답신 보고서를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각론도 각 과별로 여러 차례의 검토·심의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 확정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87년 초에 최종 심의와 정리 작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이 1987년 3월 31일자로 문교부 고시 제 87-7호로 고시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1987년 6월 30일자로 문교부 고시 제87-8호와 제 87-9호로 고시되었다.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를 3개월 먼저 고시한 것은 교육과정 개정 명분으로 제시하였던 검정 교과서 사용기간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이는 중학교 교육과정 시행 연도인 1987년에 맞추어 검정 교과서가 생상·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988년 3월 31일자로 문교부 고시 제 88-7호로 고시되었다.

제 5차 교육과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설치되었던 각종 심의회(운영위원회, 학교별위원회 등) 명단은 부록에 게재하였다.

라. 교육과정 확정 고시의 법적 배경

제 5차 교육과정을 문교부에서 확정하여 문교부 고시로 정한 가장 중요한 법적 배경은 교육법으로 교육법 155조에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교육과정은 문교부 장관이 정한다’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의 제정은 물론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이나 학교 현장에 적용 등까지도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 5차 교육과정의 법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개정 당시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법과 교육법 시행령, 기타 관련 규정 중 중요한 것만 제시하기로 한다.

1. 각급학교 교육 목적 : 교육법 93조(초등학교), 100조(중학교), 104조(고등학교)
2. 각급학교 교육 목표 : 교육법 94조(초등학교), 101조(중학교), 105조(고등학교)
3. 각급학교의 교과 및 학과 : 교육법 95, 102, 106조.
4. 각급 학교의 교과 : 교육법 시행령 88조 ‘국민 학교의 교과는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로 한다’.
 - 교육법 시행령 109조 ‘중학교의 교과는 도덕, 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외국어 및 실업·가정에 관한 교과로 한다.
 - 교육법 시행령 112조 ‘고등학교의 교과는 국민윤리, 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외국어 및 실업·가정에 관한 교과와 문교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한다’.
5. 학 과 : 교육법 시행령 111조
6. 학 년 : 교육법 151조 ‘각 학교의 학년은 3월1일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에 끝난다’;.
7. 학 기 : 교육법 시행령 61조
8. 수업과 교육과정 : 교육법 150조 ‘각 학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업하여야 한다’.
9. 교육과정 심의회 규정 : 대통령령 제4388호 (1969.12.4)
10. 교과용도서예관규정 : 대통령령 제8660호(1977.8.20), 대통령령 제10032호 (1980.9.26), 대통령령 제10757호(1982.3.11), 대통령령 제11267호(1983.12.7), 대통령령 제11958호(1986.8.19)

3) 제 5차 교육과정의 특징

① 이념상의 특징

제 5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 주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제 4차 교육과정 기간 중에 나타난 학문과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내용을 보완한다는 원칙 밑에 이루어진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제 5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적정화, 내실화, 지역화를 개정의 방침으로 내세우고 개정의 기본 원칙으로 부분 개정의 원칙(제 4차 교육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한다), 지속성의 원칙(제 4차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파괴하지 않고 지

속한다), 점진적인 개정(전면적, 혁명적 개정이 아닌 온건하고 현실적인 여건에 맞는 부분적인 점진적인 개정), 효율성의 원칙(교육과정이 의도한대로 학교교육이 교육력을 발휘하여 학생에게 교육적 성취를 가져오게 한다)으로 개정되었기에 제 4차 교육과정과 차이점이 많지 않다.

이러한 연유 등으로 제 5차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과 같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 생활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등과 같은 단일한 교육사조나 이론의 지배를 받거나 색깔을 띄지 않고 제 4차 교육과정과 같이 개인적, 학문적, 사회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교육과정이 되었다.

또, 제 5 차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문서화된 개괄적인 기준이라는 종래의 교육과정과 같은 국가 수준의 기준으로 고시된 것으로 교육과정의 모습이나 의미상의 특이한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 5차 교육과정과 제 4차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을 구태여 찾아 본다면 효율성과 지역화를 들 수 있다.

첫째, 효율성은 쓸모 있는 교육과정이 되게 한다는 의미로서 국가 기준으로서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것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 내용이나 방법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학교에서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자주성과 융통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지역화는 지금까지의 중앙 집권적인 교육과정을 서서히 지방화 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하나의 열개가 되는 준거만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더 나아가서는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역화는 앞으로 교육과정의 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출발을 예고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것이 밑바탕이 되어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역화가 이루어졌다.

② 기본 방향 및 목표상의 특징

제 5차 교육과정의 총론에는 교육과정의 전문으로 “교육과정 구성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내용 구성을 보면 ‘우리 나라 교육 이념과 목적’,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주력해 온 점’,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경위와 필요성’,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 특성, 인간상’, 기대하는 인간상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역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분석, 전망하고 이러한 미래 사회에 적합

한 인간상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 국제 관계의 다양한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며, 자유 민주주의의 굳건한 바탕 위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현명하게 주도하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 이번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교육 목적과 필요에 부응하여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지닌 건강한 사람,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인 사람,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도덕인 사람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어 구성한다’ 라고 하여 1990년대의 미래 사회를 자유 민주주의 사회, 정의 사회, 복지 사회, 문화 사회로 분석하고, 이러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건강인, 자주인, 창조인, 도덕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건강인 : 건강한 육체와 강인한 의지를 소유하면서도 건전한 취미와 풍부한 정서를 지닌 조화로운 인간.
- 자주인 : 성숙한 자아의식을 지님과 동시에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개척할 뿐만 아니라 투철한 공동체를 지닌 사람.
- 창조인 : 기본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
- 도덕인 : 사물의 가치를 바르게 판단하고 관용적 태도와 개방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철저한 공공의식과 인류공영 의식을 구비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기르기 위해 제 5차 교육과정은 개정의 중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초 교육의 강화이다.

학교 교육에서 꼭 정착시켜야 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내용을 정선하여 기초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교과 편제, 시간 배당, 목표 내용 선정 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운영면에 있어도 이러한 기초적, 기본적인 내용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중점에 의거,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체제에서도 국어, 수학만을 독립 분과시켰고 특히 국어는 교과용 도서에서도 언어 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별로 분리해서 편찬하도록 하였다. 중학교에서는 수학, 과학 교과의 이수 시간을 증대시켰고, 기본적인 실험·실습을 중시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수학, 과학 교육의 시간 배당 기준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고, 국어 교육을 강조하여 언어 기능별 지도를 조화 있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둘째, 정보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이다.

현재의 학교 교육의 대상자는 모두 21세기의 주인공들이다. 빠른 속도로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이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 방법의 전환은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정보, 통신 수단의 급격한 발전과 일상화에 따라 주체성, 창조성, 사고력, 판단력, 정보처리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등의 육성이 절실하게 되고 이를 길러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요구와 필요에 의해 초등학교는 4·5·6학년 실과에 컴퓨터의 기초 교육과 사회과의 전학년에 경제 교육 내용이 체계적으로 편성되었고 각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에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내용이 조정되었다. 중학교는 기술·가정에 컴퓨터의 원리와 이용 내용을 새로 편성하였다. 고등학교는 정보 산업과목이 신설되었고 사회과에 경제 교육내용을 크게 강화하였다.

셋째,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고이다.

교육과정이 의도한 것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쓸모 있는 교육과정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종래의 교육과정은 법적인 문서로만 존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 교육 실천에서 이 교육과정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 이는 법적 문서로 고시된 교육과정이 매우 개괄적이고 추상적인데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해설서 같은 자료가 미흡하고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 시간 배당, 운영 등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었던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맞추어 초등학교는 저학년에 통합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1 교과 1 교과서 체제’를 ‘1 교과 다교과용 체제’로 전환하였다. 또, 초·중·고등학교에 걸쳐 교육 내용의 지역화 운영을 시도토록하였다. 고등학교는 단위 배당에 있어 기준단위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교과서 편찬시에 학습량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 기준과 생활기록부 양식, 평가 체제 등이 불일치되었던 것을 통일하여 이를 일원화하였고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을 대폭 강화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에서 학교 급별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교육법의 교육 목적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법의 교육 목적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데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 21세기, 미래사회의 교육 목표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상위법인 교육법의 규정을 충실히 따르면서 지금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준거를 따라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

다.

- 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자주적, 창조적, 도덕적이고 건강한 인간상에 기초한 역점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 ②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간에 교육 목표의 일관성과 계열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③ 각급학교 학생의 심신 발달과 교육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한다.
- ④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 목표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되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급 학교로서의 교육 목표를 보다 명료화 시킨다.
- ⑤ 각급학교 교과 내용 선정에 대한 지침과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설정된 각급학교 교육과정 목표를 살펴보면, 제 4차 교육과정과 달리 초·중·고등학교 모두가 주문 형식으로 종합 목표에 ‘교육법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육 목적과 교육과정 구성 방향을 토대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여 교육 목적과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토대로 교육목표가 설정되었음을 밝혀 교육법의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제 5차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는 교육법에 제시한 각급학교의 교육 목적과 제 5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인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종합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하위 목표로 6개 영역의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각급 학교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학교는 6개 영역 목표로 ① 건강한 심신, 바른 습관, ②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 ③ 언어 능력과 수리적 사고력, ④ 자연과 사회현상 이해, 탐구력과 해결력, ⑤ 심미감과 미적 감상력 및 표현력, ⑥ 생활 기능과 근검 절약 등을 기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중학교는 6개 영역의 목표로 ① 인격 형성과 신체적 건강, ② 도덕적 인격과 공동체 의식, ③ 언어, 수리 등 기초 기능과 사고력과 표현력, ④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이해, 정보 처리 및 탐구능력, 문제 해결 능력 ⑤ 심미감과 미적 표현력, 풍부한 정서와 개성 신장, ⑥ 생활 기술과 진로 탐색, 평생 교육의 기초 등을 기르는 것으로 제시 되었다.

고등학교는 6개 영역 목표로 ① 조화로운 인격 형성과 강인한 체력과 의지, ② 민주주의 이념 실현과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 ③ 언어 수리 등 기본 능력과 논리적, 창의적인 사고

력 및 표현력, ④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 정보처리력과 탐구 능력,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생활 ⑤ 심미감과 창조성, 여가 선용 ⑥ 진로 탐색, 선택과 학문적 직업적 기반, 등을 기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각급학교 6 개 영역의 목표를 보면, 각급학교의 교육 목표가 항목별로 같은 영역의 내용으로 계열성과 일관성을 고려, 체계있게 구성되고, 종합 목표에서 제시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사람을 기르는 방향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2) 편제와 운영

1) 체제상의 특징

제 5차 교육과정은 체제면에서 제 4차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좀더 짜임새 있고 체계 있게 구성되었다.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는 제일 앞장에 교육을 통해 기르려는 인간상을 담은 교육과정 구성 방향이 제시되고 총론에 해당하는 교육 목표와 편제에 교육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운영 지침이 제시되었다. 교육 목표는 종합 목표와 6개항의 영역 목표를, 편제에는 교육과정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두 개의 활동으로 편성되었고, 시간배당에는 시간 배당 기준이, 운영지침은 계획과 지도로 나누어 제시 되었다. 각론은 각 교과별로 종합 목표와 학년 목표, 그리고 내용과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이 제시되었다. 특히 학교 목표와 교과 목표, 학년 목표의 위계와 체계가 선명하고 구체화 되었고 교과 내용에 있어 단위 안내문과 학습요소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의 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 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각급학교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있다.

제 1장 교육과정 구성 방향

제 2장 (국민학교, 중학교) 교육과정

1. 교육 목표와 편제

가. 교육 목표

나. 편제와 시간 배당

다. 운영 지침

2. 교과 활동의 목표와 내용

(우리들은 1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도덕과

국어과

국사과

사회과

.

.

.

.

3. 특별 활동의 목표와 내용

2) 편제와 운영상의 특징

① 국민학교

제 5차 교육과정의 편제는 제 4차 교육과정과 같이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두 개의 활동 영역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편제와 시간 배당에 있어 제 4차 교육과정과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가 있다.

첫째, 1·2학년의 교육과정 분과, 교과서 통합의 체제에서 교육과정 통합체제로 개선하였다. 1·2 학년은 제 4차 교육과정에서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의 8개 교과로 분과 독립되어 있으면서 이를 3개 교과군으로 묶어 1학년에 374시간, 204시간, 204시간, 2학년에 374시간, 204시간(136.68), 238시간의 시간 배당하였던 교과의 통합적 운영 체제에서 다음과 같은 통합 교육과정 운영체제로 변화하였다.

1학년의 경우, 우리들은 1학년(70시간), 국어(210시간), 바른 생활(120시간), 산수(120시간), 슬기로운 생활(60시간), 즐거운 생활(180시간)의 6개 교과가 신설, 편성되었고 2학년의 경우, 국어(238시간), 바른 생활(136시간), 산수(136시간), 슬기로운 생활(68시

간), 즐거운 생활의 5개 교과가 신설, 편성되었다. 또, 제 4차 교육과정에 비해 연간 배당 시간 수가 1학년 8시간, 2학년 34시간, 3학년 34시간이 증가 하였다.

둘째, 특별활동을 강화하였다. 4차 교육과정에서는 1·2학년에는 별도의 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3학년에 34시간 배당하였던 것을 1학년 30시간, 2학년 34시간, 3학년 68시간으로 늘어났다.

시간 운영도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였고, 지도 내용에 있어서도 어린이 활동 영역에 생활 적응활동을 신설하여 학급활동 내용을 강화하였다.

운영 지침에서 특기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결과 기록을 개선토록 한 것이다. 1·2학년의 교과 평가 결과를 종래의 5단계 평가제를 변경하여 학생의 활동 상황과 진보의 정도, 특징 등을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는 문교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생활 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상황란에 기술 방법에 대한 개선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변화라 볼 수 있다.

평가 결과 기록을 5단계라는 수량적 기술에 따른 점수화, 서열화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진보의 정도에 따라 특성과 장점을 찾아 문장으로 기술토록한 것은 앞으로 학교 교육의 평가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표 Ⅶ-5〉 국민학교 시간 배당 기준

학년		구분	1		2	
교 과 활 동	국 어		우 리 들 은 일 학 년	210(7)	238(7)	
	산 수			120(4)	136(4)	
	바 른 생 활			120(4)	136(4)	
	슬기로운 생활			60	68(4)	
	즐거운 생활			180(6)	238(7)	
	특별 활동		30(1)		34(1)	
계			790(24)		850(25)	

구분 \ 학년		2	3	4	5
교과과정	도 덕	68(2)	68(2)	68(2)	68(2)
	국 어	238(7)	204(6)	204(6)	204(6)
	사 회	102(3)	102(3)	136(4)	136(4)
	산 수	136(4)	136(4)	170(5)	170(5)
	자 연	102(3)	102(3)	136(4)	136(4)
	체 육	102(3)	102(3)	102(3)	102(3)
	음 악	68(2)	68(2)	68(2)	68(2)
	미 술	68(2)	68(2)	68(2)	68(2)
	실 과		68(2)	68(2)	68(2)
특 별 활 동		68(2)	68(2)	68(2)	68(2)
계		952(28)	1,020(30)	1,088(32)	1,088(32)

둘째, 심신 장애자를 위한 특수 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제시하였다. 특수 교육 진흥의 관점에서 일반 학교 교육과정에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하여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할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4개항에 걸쳐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한 것도 교육과정의 커다란 발전적인 변화라 하겠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계에서 특기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학년에 걸쳐 기초 기능을 강화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종래의 교육과정 ‘1교과 1교과서 체제’에서 탈피하여 ‘1교과 다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여 교과서의 종류와 책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국어교과는 언어 기능별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산수교과는 산수, 산수 익힘책, 바른 생활 교과는 바른 생활, 바른 생활 이야기, 즐거운 생활 교과는 즐거운 생활, 관찰, 즐거운 생활 교과는 즐거운 생활, 도덕 교과는 도덕, 생활의 길잡이, 사회 교과는 사회, 사회 탐구, 자연 교과는 자연, 실험 관찰, 실과 교과는 실과, 실습의 길잡이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교과서가 등장하게 되었다.

둘째, 교과서의 지역별 개발을 하였다. 종래의 중앙집중식 1종 교과서 개발 체제에서 탈피하여 처음으로 시·도 단위별로 교과서를 개발토록 하였다. 사회과의 4학년 사회 교과서를 시·도 지역 단위로 개발 사용토록 하여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고, 이것이 제 6차 교육과정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국민학교의 시간 배당 기준은 1,2학년과 3,4,5,6학년으로 2원적인 구조로 제시되었다.

② 중학교

제 5차 교육과정은 제 4차 교육과정과 같이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2개의 활동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교과 활동도 12개 교과로 종래와 같이 편성되었다. 제 5차 교육과정의 총시간 및 교과의 시간 배당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몇 개 교과만을 증감한다는 지속성의 원칙 밑에 편제와 시간 배당을 하였기에 제 4차 교육과정과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그 중 특기할만한 것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가정 교과에 기술·가정 과목이 신설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앞장에서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였지만, 이 과목이 신설 된 것은 남녀 평등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남자만 이수하는 과목인 기술과 여자만 이수하는 과목인 가정을 분리하고 있는 것은, 남녀 간의 능력차를 인정하여 남녀 평등 사상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물론 교육과정 연구 개발과정이나 문교부의 심의 과정에서 기술(남)과 가정(여) 과목을 없애고 기술·가정 과목을 신설하려던 의도가 강하게 제기되었었지만 가정 과목을 고수하려는 가정과 전공자들의 강한 반대로 종래의 기술(남), 가정(여)을 그대로 두고 남녀 공동 과목으로 기술·가정 과목을 신설, 3과목 중 택일하도록 타협하는 것으로 낙착되었다.²⁰⁾

둘째, 수학 교과와 과학 교과 시간이 증가되고 실업·가정 교과 시간이 감소되었다. 기초 과학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3학년의 수학 및 과학 시간을 제 4차 교육과정의 102~136 시간(3~4)을 136~170 시간(4~5)으로 주당 1시간씩 증가시켰다. 반면, 실업·가정 교과 는 제 4차 교육과정에서 3학년에 170~238시간 (5~7) 배당하였던 것을 136~204 시간 (4~6)으로 주당 1시간씩을 줄였다. 실업 교육은 1960, 1970년대, 국가 건설과 경제 부흥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던 시대적 분위기에 맞추어 학교 교육에서 실업 교육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교육법(제155조 4항)에 중학교 전 교과의 15% 이상을 실업 과목으로 과하도록 규정하여 학교 교육에서 실업 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학교에서의 실업 교육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능공 양성으로서 그리고 당시에는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가 최종학교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학생들에게 직업 교육으로서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보겠다. 그러나 그 동안 지속적인 국가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경제 생활 여건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교육 기회가 늘어나 중학교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중간 단계 교육이 되어 과거와 같은 실업 중시 교육에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곤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교육법의 규정은 있지만 제 4차 교육과정 이후 실업·가

20) 교유과정 교과서 연구회, '한국 교과교육과정의 변천 중학교' p.34.

정 교과와의 이수 시간수는 차츰 줄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제 3차 교육과정에서 2학년에 주당 6~7 시간, 3학년에 주당 6~10 시간 배당하였던 것이 제 4차교육과정에서는 2학년에 주당 4~6 시간, 3학년에 주당 5~7 시간으로 줄었고 제 5차 교육과정에서도 다시 시수가 감소되었다고 하겠다.

셋째, 자유선택 시간이 확대되었다. 학교의 설립 목적이나 학교장의 기본 철학에 의하여 특별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활동이나 특정교과(편제외의)를 위해 사용할 자유선택 시간의 폭이 확대되었다. 제 4차교육과정에서 모든 학년 공히 0~34 시간(0~1)이던 것을 0~68 시간(0~2)으로 증대시켜 학교장의 재량의 폭을 늘였다. 물론, 자유선택 시간은 학교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역 사회와 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특수한 교육 내용이 요구될 때 자유선택 시간을 이용하여 그 학교에서 교육 내용에 의거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서 지역 사회의 특성이나 학교의 전통, 특성에 직결된 교육을 비교적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발전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넷째, 특별 활동이 강화되었다. 학교 교육에서 교과 활동과 비슷한 비중을 갖는 활동 영역으로 학생들의 특기 적성 교육이나 민주적 생활 태도 함양을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 영역 이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유명 무실하다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많이 논의되었다.

그래서 제 4차 교육과정에서 특별 활동을 학생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로 편성하였던 것을 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포함되어 있던 학급 활동을 분리하여 4개 영역으로 하였다. 이러한 학급 활동의 분리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민주주의 생활 교육에 기초가 되는 합리적 의사 결정, 합의 존중에 대한 체험적인 가치 교육을 강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특별 활동에 배당된 학년별 68~시간(2~)을 제 4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회 활동과 클럽 활동에 배정하고, 학교 행사의 시간은 별도로 갖도록 하였던 것을 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급 활동과 클럽 활동에 배정하고, 학생회 활동과 학교 행사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함으로써 학급 활동을 강화하였다.

운영 지침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수업 일수와 학기당 수업 시수를 명시하고 시간 운영의 재량을 확대하였다. 종래에는 수업 일수를 교육과정에는 명시하지 않고 교육법 시행령 제 62조, 61조를 근거로 학교에서 운영하던 것을 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연간 수업 일수를 학교 행사를 포함하

〈표 VI-6〉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

활동 \ 학년		1	2	3
교과	도 덕	68(2)	68(2)	68(2)
	국 어	136(4)	170(5)	170(5)
	국 사		68(2)	68(2)
	사 회	102(3)	68~102(2~3)	68~102(2~3)
	수 학	136(4)	102~136(3~4)	136~170(4~5)
	과 학	136(4)	102~136(3~4)	136~170(4~5)
	체 육	102(3)	102(3)	102(3)
	음 악	68(2)	68(2)	34~68(1~2)
	미 술	68(2)	68(2)	34~68(1~2)
	한 문	34(1)	34~68(1~2)	34~68(1~2)
활동	외국어(영어)	136(4)	102~170(3~5)	102~170(3~5)
	기 술	택1 102(3)	택1 136~204 (4~6)	택1 136~204 (4~6)
	가 정			
	기술·가정			
	농 업			택1 136~204 (4~6)
	공 업			
	상 업			
	수산업			
	가 사			
	자유선택	0~68(0~2)	0~68(0~2)	0~68(0~2)
	계	1,088~1,156 (32~34)	1,088~1,156 (32~34)	1,088~1,156 (32~34)
특 별 활 동		68~(2~)	68~(2~)	68~(2~)
계		1,156~1,124 (34~36)	1,156~1,124 (34~36)	1,156~1,124 (34~36)

여 220일 이상으로 하고 1년을 34주로하여 1학기를 18주, 2학기를 16주로 하도록 기준을 명시하여 교육과정을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교육과정에 제시된 시간 배당 기준의 주당 평균 시간수를 학교의 실정에 따라 조절, 운영 할 수 있도록하여 시간 운영 재량의폭을 넓혀 주었다. 따라서 각 학교는 연간 고정된 획일적인 단일의 일과표가 아니고 계절, 기후, 교무 형편, 학교와 지역 행사 등 지역과 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시간 배당, 운영에 필요한 몇 개의 일과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변화이다.

둘째, 국가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관련된 내용 교육을 범 교과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국가적 사회적 관심사인 국민 정신 교육, 통일 안보 교육, 경제 교육, 안전 교육, 환경 교육, 진로 교육, 인구 교육, 성 교육 등은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하되, 특히 관련 교과에서 강조하도록 규정하여 시대적 요구에 의한 교육을 관련 교과에 한정시키지 말고 모든 교과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질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심신 장애 학생과 학습 부진학생 등에 대한 적절한 지도 규정을 두었다. 종래의 교육과정에 없던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각, 청각, 정신, 지체, 정서 등의 심신 장애 학생을 특수학급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 학급을 운영할 경우 중학교 교육과정과 특수학교의 해당 중학부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를 활용하여 그들의 장애 정도와 능력, 발달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알맞는 지도를 하도록 명시 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에 특수학급 설치 규정을 둔 것은 일반 중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는 점에서 심신 장애 학생 교육에 하나의 발전적인 변화라 할 수 있겠다.(1987.9월 현재 전국의 특수 학급은 474학교에 527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6003명의 학생이 교육 대상으로 되어 있었다.)²¹⁾

넷째, 교육과정 지역화에 관심이 높아졌다. 교육과정 지역화에 대한 제 4차 교육과정과 제 5차 교육과정에 ‘교육과정의 내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수준 및 지역사회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명문상의 변화는 별로 없다. 그렇지만 이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대한 규정은 중앙정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경직된 교육과정으로 매우 일반적이고 공통적이며 대강적인 기준이므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수준에 알맞게 재구성, 편성 작업을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취지에 알맞는 교육과정의 지역화 작업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에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이를 계속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교육현장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나 수준으로 보아 쉽게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제 5차 교육과정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취지를 제 5차 교육과정 해설서, 교원 연수 등에서 특별히 강조하였고,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결국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이에 대한 결실을 얻게 되었다고 보겠다. 운영 지침에서 유의할 점은 제 4차 교육과정과 같이 평가가

21) 문교부, ‘전개서’ p.78.

학습성과의 점수화, 서열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평가 방법도 지필 검사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²²⁾

이는 이러한 평가상의 유의점을 받아들여 평가에 관심과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겠다.

③ 고등학교

제 5차 교육과정은 제 4차 교육과정과 같이 보통 교과는 13개 교과와 교양 선택으로 편성되었고, 보통 교과에는 공통 필수 과목을 두고, 총 이수 단위도 204~216 단위로 동일하다. 그래서 제 5차 교육과정의 편제, 단위 배당 기준, 운영상의 유의점은 제 4차 교육과정과 큰 차이는 없지만 특기할만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 단위제의 실시와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을 확대 하였다. 제 4차 교육과정에서는 단위 시간 배당 기준을 최저 이수 단위와 최고 이수 단위를 두어 폭이 있는 단위 배당을 하였다(예를 들면, 국어과목인 경우 14~16 단위로 2 단위의 폭이 있었다.). 그런데 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목의 단위수를 단위 배당의 폭을 없애고 기준 단위수를 기초로 하여 학교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각 교과목의 기준 단위는 제 4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각 교과목의 단위 중 최소 단위에 근거하여 기준 단위를 책정하였다.

이렇게 각 교과목별로 표준적인 기준 단위를 제시한 것은 국가 기준으로서 명확성을 기하고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여주면서 한편으로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4차 교육과정의 경우 과목별로 최소 단위와 최대 단위의 폭을 두고 단위가 배정되어 있어 교과용 도서는 최대 단위에 맞추어 집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몇 개 주지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과목이 최소 단위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어 교과목에 배당된 시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분량이 많아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원 수급 문제도 매년 문제로 등장하곤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 5차 교육과정에서 기준단위를 제시함으로써 많이 개선될 수 있었다. 즉, 모든 교과목의 교과서가 교과목별 기준 단위에 맞추어 편찬됨으로서 학습 내용이 정선되고 학습량의 적정화를 기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었다. 또, 학교장이 총 204~216 단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증감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서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고등학교의 계열을 좀더 다양화 하였다. 제 4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의 학교계

22) 문교부, '전제서' p.76.

〈표 VI-7〉 고등학교 시간 배당 기준

교 과	과 목	보 통 교 과					전문교과 실업계·기타계 고등학교의 필수 및 선택,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 과정 선택
		공통필수	과정별 선택				
			인문·사회 과 정	자 연 과 정	실업계,기타계 및 일반계 직업과정		
국민윤리	국민윤리	6	(6)				- 농업에 관한 교과 - 공업에 관한 교과 - 상업에 관한 교과 -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 과학에 관한 교과 - 체육에 관한 교과 - 예술에 관한 교과
국 어	국 어 문 학 작 문 문 법	(10)	(10) (4)	8 6 4	8 4	<div><div></div>4</div>	
국 사	국 사	6	(4)				
사 회	정치·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세계 지리	6 4	(4) (4)	4 4 4	4	<div><div></div>4</div>	
수 학	일반 수학 수 학Ⅰ 수 학Ⅱ	8	(8)	10	18	<div><div></div>6</div>	
과 학	과 학Ⅰ 과 학Ⅱ 물 리 화 학 생 물 지구 과학	10	(8) 택 (8) 1		8 8 6 택 6 1	<div><div></div>4</div>	
체 육	체 육	6	(6)	8	8	4	
교 련	교 련	12	(12)				
음 악	음 악	4	(4) 택			<div><div></div>2</div>	
미 술	미 술	4	(4) 1				
한 문	한 문			8	4	4	
외국어	영 어Ⅰ 영 어Ⅱ	8	(8)	12	12	8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아어 중국어 일본어			<div><div></div>택 1 10</div>	<div><div></div>택 1 10</div>	<div><div></div>6</div>	
	기 술 가 정			<div><div></div>택 1 8</div>	<div><div></div>택 1 8</div>	<div><div></div>4</div>	
	농 업 공 업 상 업 수산업 가 사 정보산업			<div><div></div>택 1 8</div>	<div><div></div>택 1 8</div>		
교 양 선택				2	2	2	
이 수 단 위							실업계 82~122 기타계 직업과정 : 50~100
특 별 활 동		12	(12)				
이수단위 총계		204~216					

열이 일반계,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 체육계로 되어 있었던 것을 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에 과학계, 예술계를 추가하여 학교 계열을 다양화하였다. 이 과학계와 예술계는 제 4차 교육과정에서 실업계에 준하도록 하였던 것을 계열 특성에 맞춘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계열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교과별로 교육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시켰다.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시에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일환으로 기준단위제와 교과 수 축소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기준단위제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었지만 교과 수 축소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얹혀 있어 쉽게 해결 할 수 없었고, 그 차선택으로 교과는 그대로 두고 교육 내용을 통합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5차 교육과정은 교과 수는 제 4차 교육과정과 같이 13교과를 그대로 존속 시키면서 교육 내용을 통합하여 교과서 수를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사회과정이 32책이었던 것을 27책으로, 자연과정이 32책이었던 것을 26책으로 줄였다.

이렇게 교과서 수가 축소될 수 있었던 것은, 예를 들면 국어과의 경우, 국어Ⅰ, 국어Ⅱ 과목의 7개 교과서를 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기능별로 통합 조정하여 국어, 문학, 작문, 문법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교과서를 4개로 줄였고, 과학과도 중복된 내용 등을 통합 조정하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4개 과목에 8책이었던 교과서 수를 과학Ⅰ, 과학Ⅱ,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6개 과목에 교과서를 6책으로 줄였다.

넷째, 자유 선택 과목이 교양 선택 필수화되었다. 자유 선택 과목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편제 이외에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교양을 쌓게 할려는 전인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제 4차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을 논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종교 등을 제시하고 이수 단위가 0~8 단위로 되어 있어 학교장이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유 선택 과목 설정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유선택 과목이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부 종교계통의 사립고등학교 이외는 이를 설정 운영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사실상 유명 무실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이를 반드시 설정 운영하도록 선택 과목도 생활 경제를 추가하여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수단위를 2 단위를 배정하여 모든 학생이 6개의 선택과목 중 반드시 1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토록 필수화하였다. 단, 종교 과목을 설정할 경우에는 복수 과목으로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유 선택 과목의 교과서는 인정도서로 학교장이나 지역 교육장이 신청하여 이를 인정권자인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면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양 선택 과목의 평가는

해당 과목의 특성에 알맞게 평가하되 결과에 대한 평점은 부과하지 않고 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란에 어느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였는지 그 이수 여부만 기록하도록 하였다.

운영 지침에서 유의 해 볼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교육과정과 같이 교육과정 내용 재구성을 근거를 명시하였다. 고시된 교육과정은 전국적, 공통적, 일반적 기준만 제시한 교육 내용의 요강적 기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지역의 모든 학생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이를 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 지도에 명시하였다. 또, 학습 부진 학생 및 심신 장애 학생에 대하여 이들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도를 하도록 명시하였다.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이 시행된 이후 학습집단의 이질화로 발생한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의 특성에 따라 교과별·능력별 반편성 등 다양한 지도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각론(내용)상의 특징

제 5차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각론의 내용 구성은 제 4차 교육과정과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초등학교에 새로운 통합 교과의 등장, 중학교에서 기술과 가정을 통합한 기술·가정 과목의 신설, 고등학교에서 과학과의 과목 변화 등의 변화가 있어 이와 연관된 교과목의 내용상 변화가 있었지만 기존의 교과목은 내용의 주제나 학습 요소 등에 큰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제 4차 교육과정에 없던 새로운 교과목은 새로운 주제와 학습 요소를 선정 내용을 구성하여야 되겠지만 기존 교과에 집착한 교과 이기주의 등으로 참신한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였다. 중학교의 기술·가정은 기존의 기술과 가정을 유기적으로 단순 통합하였고, 고등학교의 과학Ⅰ, 과학Ⅱ 등은 기존의 교과목의 주제나 학습 요소를 그대로 이어 받고 있어 내용 구성의 새로운 점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1,2학년의 통합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과의 독립, 분과주의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교과의 영역의 벽을 헐고 새로운 교과로 등장하여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교과의 내용 구성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내용 구성을 하였기에 여기서 초등학교의 “우리들은 1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의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우리들은 1학년

이 교과는 초등학교 입학 초기 3월 한 달 동안의 기초적인 학습 내용을 담은 통합 교과로서 교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학교 생활에의 적응’,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교과학습에 필요한 공통적 기초 기능의 습득’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학습 내용은 학교 생활 적응 활동에서 주로 학교의 조직, 구성원, 시설, 기구 사용법, 학용품 학교 생활의 규칙과 예절, 자기관리 등을 다루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 여러 가지 놀이, 바른 자세, 규칙 생활, 안전 생활, 단체 생활, 규칙, 질서, 신체 표현, 운동 기능 등을 다루었다. 학습 기초 기능 신장 활동에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 노래하기, 그리기 등의 기초 능력, 언어 사용 능력, 후속 학습의 방법 안내 및 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들은 1학년’은 개인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다만 수업 목표에 달성 확인은 과정별 성취도를 조사하는 정도에 그치기로 하였다.

② 바른 생활

이 교과는 기본적 생활 습관의 형성과 사회적 현상 탐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교과로서 교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사회 생활의 기초적 원리’, ‘예절 및 규범 이해’, ‘개인 생활 능력 향상’, ‘공동 생활에서의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및 애국·애족심 함양’, ‘사회 탐구 능력 및 태도 함양’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학습 내용은 ‘즐거운 우리 학교’ 주제에서 학교 생활 적응을 통한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학교라는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 인식력을 양성토록 하였다.

‘행복한 우리집’ 주제에서 가정 생활을 통한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및 사회 구조의 초보적 이해 및 사회 인식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함께 사는 이웃’ 주제에서 이웃 사회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통해 사회 인식력을 높이고 공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게 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나라’ 주제에서는 학교와 마을 주변 사례를 통해서 초보적 단계의 국토애, 향토애, 애국심을 기르도록 하였다.

평가는 전인 교육을 위한 평가, 목표 지향적인 평가라는 입장에서 평점식이 아닌 서술식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③ 슬기로운 생활

이 교과는 어린이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내용에서 제재를 선정하여 활동 중심으로 탐

구과정을 익히도록 구성된 교과이다. 이 교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주위 환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적응 및 조작해 나아가는 초보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과학적인 태도’와 ‘탐구 능력’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좀더 구체화하면 ‘주위 현상에 대한 관심 갖기’, ‘주위 현상을 탐구하는데 필요한 탐구 능력 갖기’, ‘주위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탐구하려는 태도 갖기’라고 되어 있다.

이 교과의 내용을 보면, 이 교과는 개념의 습득보다는 주변 환경이나 자연을 탐구하는 능력, 태도를 기르려는 것이기에 교과 내용을 주로 아동들이 주위 환경 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1학년의 경우, ‘우리 몸’, ‘여러 가지 물체’, ‘우리 학교’, ‘봄 소풍’을 주제로 하여 학습 대상이 아동 자신의 몸으로부터 대자연으로 점차 확대되도록 되어 있다. 또 교과에 주된 내용은 탐구 능력 학습 함양을 위한 다양한 탐구 학습 요소를 담고 있고 이러한 탐구 학습에서 ‘관찰’과 ‘분류’가 가장 주된 활동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활동은 1학년에서는 대부분이 관찰과 분류 활동에 치중되어 있고 2학년에서는 단순한 관찰과 분류가 아닌 측정과 예상, 추리활동이 강조 되었다.

평가는 다른 통합 교과와 같이 진보의 정도, 특징 등을 문장으로 기술하되, 학습 결과만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 평가를 중시 하도록 하였다.

④ 즐거운 생활

이 교과는 체육, 음악, 미술적인 학습 요소를 놀이 중심의 학습 활동으로 통합하여 구성된 교과이다. 이 교과의 목표는 즐거운 놀이 중심의 학습 활동을 통하여 운동 능력을 기르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개발하여 조화로운 인격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있다. 즉, 조화로운 인격의 터전을 체육과 요소인 운동 능력 배양, 그리고 음악, 미술과 요소인 정서와 창조성 개발을 통하여 이룬다는 것이다. 교과 내용은 ‘신체 활동 영역’, ‘표현 활동 영역’, ‘감상 활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체 활동 영역’에서는 운동의 기초가 되는 몸의 움직임의 익히는 활동, 건강과 안전,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어울리는 활동 등의 내용 요소로, ‘표현 활동 영역’에서는 청각 또는 시각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활동, 목소리나 악기 등을 사용한 음악적인 표현 활동 등의 내용요소로, ‘감상 활동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 활동에 반응하면서 그 특징을 느끼게 하는 활동, 자기 주변의 자연 환경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활동 등의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²³⁾

23) 한국교육과정 교과서연구회, 전 계서 초등학교, pp.42-77.

4) 제 5차 교육과정의 평가

교육과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재 편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정을 위해서는 내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평가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학교의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고 개선의 방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평가는 주로 ‘학교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편성의 방침, 조직, 실태’, ‘수업 시간 배당과 이수실적’, ‘지도계획과 그 전개’, ‘평가’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 평가는 제 5차 교육과정기에는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 6차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이 개발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제 5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 모형에 의한 평가는 아니었지만, 제 6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위한 제 5차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작업이 있었다. 제 5차 교육과정이 각급 학교별로 1987부터 1988년에 걸쳐 고시되어 1989년부터 1990년에 걸쳐 각급 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제 6차 교육과정이 1992년 고시되고 1995년부터 적용될 때까지 5년간 우리 나라의 초·중등학교의 학교교육의 바탕이 되었다. 이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 운영되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들 즉,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제기되곤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문교부가 제 6차 교육과정 개정을 착수하면서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윤병희(숙명대 교수)를 팀장으로한 ‘제 5차 교육과정 분석 평가 연구’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정리, 평가되었다. 또, 문교부의 편수진이 1990년 11월과 1991년 4월에 걸쳐 전국의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12교를 표집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 제 5차 교육과정 운영 실태,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취합한 조사 보고서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제 5차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즉 문제점과 개선하여야 할 점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결정의 중앙 집중성이다.

제 5차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구체적, 세부적 사항 일체를 중앙에서 일괄 결정하여 제시하므로써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관해 선택,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극히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중앙 집중식 교육과정 결정 방식은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 의지를 관철하거나, 통일된 기준으로 전국의 학사 관리를 하는데나, 또 학교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이질적인 요구의 압력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 사회는 점차 다원화, 전문화, 고도화, 민주화, 개방화되어 가고 있으며, 각 개인 및 집단의 요구와 필요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능률 및 결과 위

주의 획일적인 대량 집단 교육을 과감하게 인간 및 과정 중시의 다양한 개별 적성 교육으로 개혁하여 21세기에 대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 제 5차 교육과정과 같은 중앙집중식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중앙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만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 단위의 지방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및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상의 처방까지 제시 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구조의 획일성이다.

교육과정의 구조는 교과목의 구성 및 조직 체계를 다룬 편제를 의미한다. 제 5차 교육과정의 편제가 너무나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중앙에서 결정된 교과 체계는 지방이나 단위 학교 그리고 개개인의 학생들에게 부적합하더라도 수정이나 변화 할수 없는 것이다. 제 5차 교육과정의 경우 중앙에서 교과 체계가 결정된 이후, 도시나 시골이나,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나 열등한 사람이나 차이없이 똑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국민학교 신입생의 경우, 도시와 농촌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한글 해득 여부에 큰 차이가 있으나, 학교에서는 일률적으로 똑 같은 교육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 경우, 극히 제한된 선택과목도 학생들이 자기 능력이나 적성에 따른 선택이 아닌 교사의 수급 문제 등으로 학교 선택으로 되어 있는 실정으로 학생들에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 5차 교육과정과 같은 구조의 획일성, 운영의 경직성 등에서 과감히 벗어나 학교 단위로 지역이나 학생들의 수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의 다양성을 갖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목표 달성의 비효율성이다.

제 5차 교육과정은 전체 교과 목표, 학년 목표가 교과 내용과 연계성이 약하여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과별로 성취하여야 할 목표가 결과적으로 내용의 주제명 수준으로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떤 사고 과정과 탐구 기능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주제명 수준 내용만 가지고는 실제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알 수 없고 성취되는 목표가 불분명하다.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이란 주제 수준의 목차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교과다운 사고 과정과 결합된 것을 의미하는데 제 5차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은 엄밀한 의미의 내용이라 하기

에는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목표, 내용, 평가의 연계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교육 내용 구성 구성에 있어 교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²⁴⁾

(3) 편수 행정 직제와 편수 활동

1) 편수 행정 직제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가 시작될 때인 1985년 상반기의 문교부 직제는 1983년 대통령령 제11057호로 개편된 직제였으나 개정업무가 진행되는 와중인 1986년 8월 25일 대통령령 제11959호로 직제가 개편되어 교육과정이 고시될 때는 개편된 직제 때였다. 그러나 1986년 직제 개편은 편수 업무와 관련된 분야는 아니었고, 교육정책실을 대학정책실로 개편한 것으로 편수업무에 관련된 직제 변화는 없었다. 이 당시에 편수관련 직제를 중심으로 문교부 직제를 살펴 보면 3실 5국 21 담당관(2·3급:16, 4급: 5) 23과로 구성되어 있었고, 편수 업무는 장학편수실에 귀속되어 있었다.

장학편수실은 장학실과 편수국이 1981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10535호로 개편된 직제에 의해 통합, 신설된 것으로, 장학 업무와 편수업무의 성격상 외형적인 통합이었지만 업무나 기능상의 변화는 별로 없었다. 장학편수실에는 장학편수실장(1급당 장학관) 밑에 편수 업무를 총괄하는 편수관리관(2급 상당 장학관)을 두고, 직렬상으로는 동렬에 있지만 결재과정상 그의 밑에 있는 3급 상당 장학관으로 교육과정 담당관, 인문과학 편수관, 사회과학 편수관, 자연과학 편수관을 두었다.

편수관리관은 직제 개편 이전의 편수국장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문교부 부내에서도 실국장회의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장 예우를 받았다. 그래서 장학편수실장이 형식상 결재선상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교육과정 개발 업무나 교과서 편찬업무는 편수관리관이 실질적인 총수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편수관리관 밑에는 편수국 직제시에 있었던 편수과와 발행과의 업무인 편수 및 교과서 검정업무 등의 행정 지원을 위해 서기관(1), 행정사무관(2), 주사, 주사보로 구성된 행정 팀을 두었고, 교육과정 담당관실(4), 인문과학 편수관실(9), 사회과학 편수관실(6), 자연과학 편수관실(17)에 각 교과를 담당한 교육 연구관, 교육 연구사를 두고 있었다. 이들은 법제상의 직명은 아니었으나 통칭으로 편수관이라 불

24) 한국2종교과서협회,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 교과서연구 9호, pp.9-15.

렸고, 과거의 편수관과 동일한 업무와 직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담당한 업무는 각 교과별로 자기가 담당한 교과에 대하여 ① 교육과정의 제정, 관리 ② 1종(국정) 교과서의 편찬 ③ 2종 교과서의 검인정 사무 ④ 1·2종 교과서의 수정·보완 등으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도 많았지만 교육과정·교과서의 검토, 수정, 보완 등의 작업은 여관 등에서 철야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1986.3.1)에 문교부 정원은 509명이었고 이중 편수분야 업무를 담당한 인원은 48명(전문직 41명, 일반직 7명)이었다.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문교부 직제’ 중 편수 업무와 관련된 규정 장학 편수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 9조(장학 편수실)

① 장학 편수실장 밑에 편수관리관, 교육과정 담당관, 인문과학 편수관, 사회과학 편수관, 자연과학 편수관, 교육연구 장학관, 정신교육 장학관, 교과지도 장학관 및 생활지도 장학관 각 1인을 둔다.

② 장학 편수실장, 편수관리관, 교육과정 담당관, 인문과학 편수관, 사회과학 편수관, 자연과학 편수관, 교육연구 장학관, 정신교육 장학관, 교과지도 장학관 및 생활지도 장학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편수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하며, 편수관리관 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1.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업무의 종합, 조정
2.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및 검인정
3. 교과용 도서의 가격 사정
4. 교과용 도서의 발행, 공급 및 활용관리
5. 국사편찬위원회, 국어 및 한글에 관한 연구기관,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과용 도서 및 학습참고서에 관련된 단체의 지도, 감독
6. 기타 편수업무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담당관 및 각 편수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과정 담당관은 편수 업무 중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교육과정의 개선
2. 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⑤ 인문과학 편수관은 편수 업무 중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어 및 한문 교과
2. 외국어 교과
3. 예능 및 체육 교과

⑥ 사회과학 편수관은 편수 업무 중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사회 역사 및 지리 교과
2. 반공, 도덕 및 국민윤리 교과

⑦ 자연과학 편수관은 편수 업무 중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수학, 물리, 화학 및 생물 교과
2. 지구과학 교과
3.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및 가정 교과

이 직제는 1994년 5월 17일 오랜 숙원이었던 편수국의 독립으로 편수관리관이 편수국장으로 직명이 바뀌는 외형상의 변화는 있었으나 큰 변화없이 제 6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까지 존속하다가 1996년 7월 5일 편수국의 해체로 끝나고 말았다.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는 손제석 장관(1985.2.19~'87.7.13) 때 시작하여 서명원 장관(1987.7.14~'88.2.24)을 거쳐 김영식 장관(1988.2.25~'88.12.4) 때 완료되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 개정 기간 동안 3명의 장관이 경질 되었으나 손제석 장관이 계획단계에서 마무리 단계까지 거의 업무를 주관하면서 국민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여 실질적으로 제 5차 교육과정의 개정 업무는 손제석 장관 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서명원 장관과 김영식 장관은 근무 기간도 짧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업무 진행과정 때에만 재임하여 제 5차 교육과정 개발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고, 뒤에 교과서 개발 업무에 결재자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차관은 김찬재(1985.4.10~'87.8.5), 김상준(1987.8.6~'88.3.4), 장병규(1988.3.5~'88.12.12) 차관 등 3명이 교체되었으나 손제석 장관과 거의 임기를 같이한 김찬재 차관이 오래 재임하였다.

1985년 당시에 장학편수실장은 이영교 장학관이었고, 그 뒤에 최종근 장학관, 박용진 장학관으로 이어졌다. 이영교 장학관은 초기에 잠시 편수업무와 인연을 맺은 적이 있으며 편수관리관으로 근무하였고, 박용진 장학관은 원래 편수관 출신으로 편수국장 직무대리로도 근무하였기에 두 분 밑에서는 편수업무 추진에 이해와 협조를 받을 수 있어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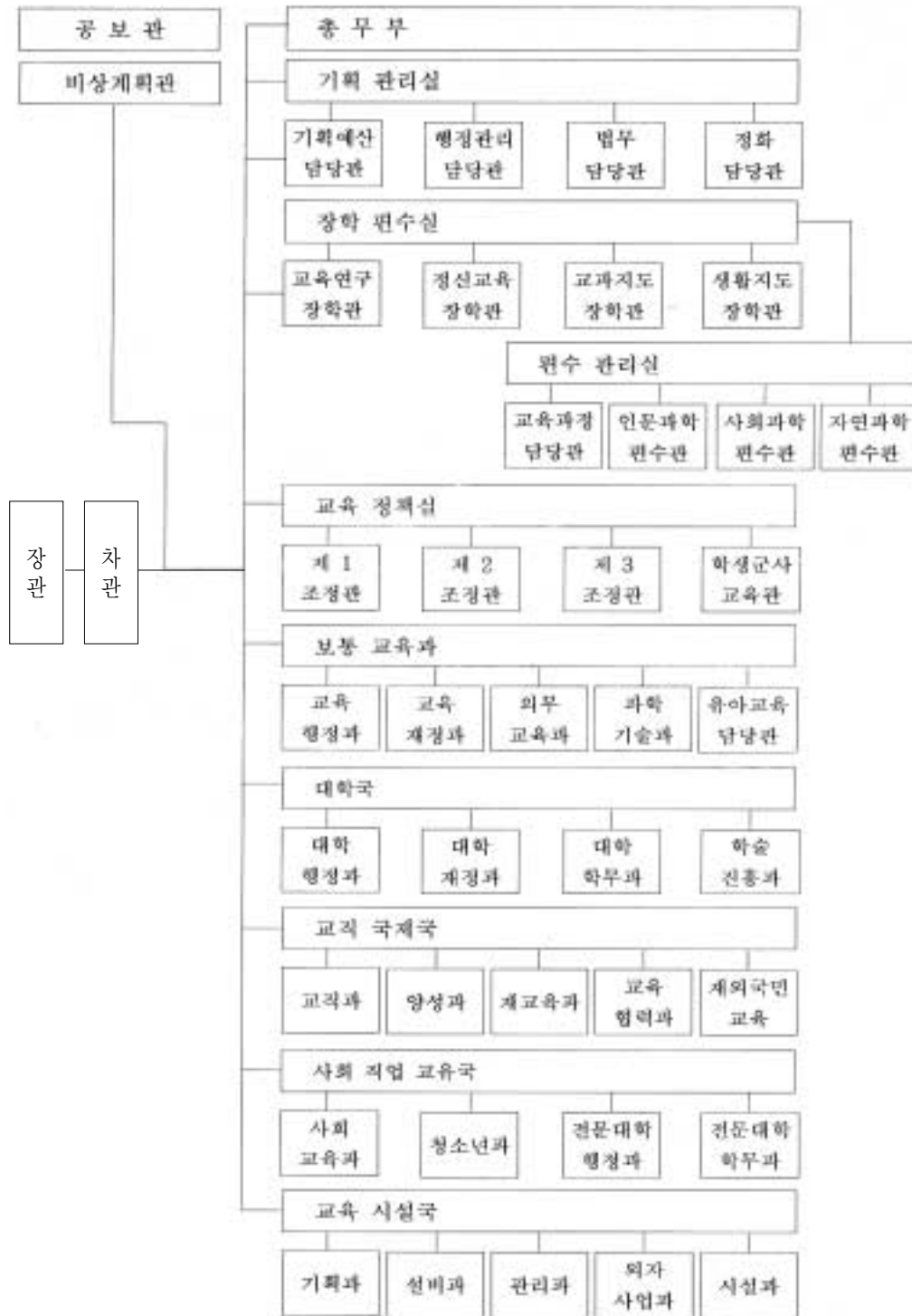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가동되기 시작한 1985년 중반에, 편수업무의 총수인 편수 관리관은 김해인 장학관이었으나, 그 해 11월에 공주전문대학 학장으로 있던 백승탁 장학관이 부임하여 이 업무를 주관하여 마무리 하고, 1988년 7월 충남 교육감으로 영전되어 떠났다. 그 뒤를 양주석, 박병호 장학관으로 이어 가며 제 5차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교과서 편수 업무 등 후속 업무를 마무리 지었다. 백승탁 편수관리관은 뒤에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를 회고하는 글에서²⁵⁾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내가 편수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처리한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첫째가 제 5차 교육과정 개편을 마무리한 것이요, 둘째는 일본 역사 교과서의 잘못된 한국관을 시정하는 일이었으며, 셋째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개정하는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 당시에는 교육개혁심의회가 활발히 기능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거기에서 자주인, 창조인, 도덕인이라는 세 가지의 미래지향적 인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건의가 들어왔다. 편수실에서는 건강인이라는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후에 한국교육개발원의 기초 연구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여 제시된 인간상 중 이를 첫째 항목으로 명시하게 된 것이다. 당시 김영식 원장이 이끌던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광병선 부장의 주재하에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초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연구를 토대로 1800여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었다. …… 교과간의 영토 전쟁도 지금 이상으로 치열했지만 ……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중요한 결정들이 속속 이루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교 1,2학년의 통합교과의 신설이다. 제 4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서만 통합하고 내용은 분과하여 구성되었던 것을, 내용까지 통합하여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 등의 완전한 통합 교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는 저학년 아동들에게 지나친 분과보다는 통합적인 학습활동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취한 조치였으며, 평가까지 통합하여 실시토록 하였다. 그러나 국어와 산수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시켰는데, 이는 언어기능과 수리능력이 다른 학습의 기본이 되므로, 보다 체계적이며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어 교육에서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기능을 신장 시키기 위하여 교과서를 영역별로 분책 편찬한 것도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산수와 셈하기 교육을 위하여 강화하기 위하여 ‘산수 익힘책’을 따로 만들기도 하였다. ……” 라고 기술하였다.

편수관리관을 보좌하면서 편수업무의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였던 일반 행정 조직을 직제상의 명칭은 없었으나 편의상 편수관리관실 또는 편수과라 불렀다.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편수과의 책임자(편의상 과장이라 호칭)는 한상우, 김진동, 성정표

25) 한국교육과정 교과서연구회. 편수의 뒤안길 1, p.136-139.

〈그림 VI-3〉 문교부 기구표, 대통령령 제 11057호(1983.2.23)



서기관으로 이어졌다. 당시 문교부에 근무하는 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출발 배경이나 활동 영역의 차이 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어 잘 융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편수업무 부서에서는 타 실국에 비해 이러한 문제가 적었고, 비교적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 특히 김진동 서기관은 편수국에 오랜 근무 경험이 있어 편수관들의 업무에 많은 이해가 있어 편수관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2) 편수 활동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업무를 담당하였던 편수관들의 면면을 담당 부서별로 살펴보면 이들을 중심으로 편수 활동을 알아보기로 한다.

① 교육과정 담당관실

교육과정 담당관실은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였던 주무 부서이다. 이 개정 작업이 출발할 때 담당관은 김철연 장학관으로 교육과정 개정에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비교적 강한 추진력으로 업무를 이끌었다. 특히 총론 편제를 둘러 쓴 교과간의 영토 전쟁과 같은 교과 이기주의 속에서 나름대로 이를 조정하려고 많은 애를 썼다. 김 장학관은 초등학교 통합 교과인 ‘슬기로운 생활’ 내용 구성 문제 등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편수 부서를 떠났지만 제 5차 교육과정은 그가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 장학관의 뒤를 이어 1987년 3월 1일자로 김상대 장학관이 부임하여 제 5차 교육과정의 뒷마무리 작업인 교육과정 고시와 그 후속 업무인 교육과정 해설서 편찬, 교원 연수회, 교과서 개발 계획 등을 끝마쳤다. 담당 편수 전문가로는 김진 연구관(중학교, 특수학교 주무), 김성기 연구관(고등학교 주무), 이경환 연구사(초등학교 주무), 소정자 연구사(유치원 주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정 업무가 진행되다가 1986년 8월에 김진 연구관이 떠나고, 그 후임으로 김용만 연구관이 전직하여 그의 업무를 승계하여 교육과정 업무를 마무리하고 1987년 9월 사회과학 편수관실로 복귀하였으며, 그 후임으로 이범주 연구관이 부임, 그 업무를 이어 받았다.

또, 1989년 김성기 연구관이 전출되고, 그 후임으로 조용찬 연구관이 부임, 그 업무를 승계하고 2년여를 근무하였다. 그리고 본래 이 부서에 오래 동안 근무하다 학업을 위해 일본으로 떠났던 함수곤 연구관이 1987년 3월에 복귀하여 교육과정 담당관실이 크게 보강되었다.

특히,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와 병행하여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1987년부터 추

진할 계획이었는데, 함 연구관이 특수학교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여 3년여의 작업을 거쳐 1989년 12월 29일자로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육과정과 달리 교육과정의 내용의 영역, 수준, 학습 분량 등에 대폭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은 이전의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대동소이하던 것과 달리 특수학교 특성에 근접한 교육과정이 되었다. 이로 인해 특수학교는 지금까지 일반학교 교과서를 사용하던 것을 따를 수 없게 되어 새로운 특수 학교용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나라 최초의 특수학교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져 1993년부터 적용되었다. 이 교과서 개발에 대하여 함수곤 연구관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당시 특수학교 교과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교과서 208책, 지도서 146책 등 모두 354책에 총 34억을 투입하는 규모로 결재를 받으려 하자, 0실장은 것처럼 방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걱정하기에, 이제 우리 나라도 그늘진 곳에 초점을 맞춰 교육정책을 교육 복지 지향으로 수립, 추진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으므로, 예산 당국에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자 같이 노력하자 공감하였고, 장관도 계획을 살펴본 후에 ‘지금까지 장애인에게 죄를 많이 졌다. 매우 의욕적이고 잘된 계획이니 적극 추진하도록 하라’고 격려하여 주어 힘을 얻었다.”라고 쓰고 있다.²⁶⁾

제 5차 교육과정 고시 이후 그 후속사업으로 추진한 교육과정 해설서 출판, 교원 연수 등도 종전보다 발전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 4차 교육과정 개정시에는 각 학교 급별로 「새 교육과정 개요」라는 제목의 책자를 모든 교과를 묶어 한 권으로 발행하였던 것을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시에는 학교 급별, 교과별로 「○○ 학교 ○○과 교육과정 해설」 제목의 책자를 발행하여 새 교육과정에 대하여 교과별로 심도 있는 전문적인 해설을 수록, 일선 교사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또, 새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연수도 각 교과별로 담당 편수관들이 연수 자료를 직접 집필하고 직접 연수를 담당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② 인문과학 편수관실

인문과학 편수관실은 어문계열과 예·체능계의 교과를 담당한 부서로 제 5차 교육과정 개발 기간 동안 전동기 장학관이 담당 편수관으로 개정 업무를 주도하였고, 이를 마무리하고 고등학교 교장으로 1988년에 전출하였으며, 그 후임으로 오종호 장학관이, 다음으로

26) 한국교육과정 교과서 연구회, ‘편수의 뒤편 II’, p.173.

한상진 장학관으로 이어졌다. 국어과는 정준섭 연구사(‘87년 연구관으로 승진), 김갑재 연구사, 정귀생 연구사가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주도하였다. 김갑재 연구사는 1987년에 전출하고 그 후임으로 허만길 연구사, 다음으로 박영목 연구사, 그 뒤를 허천행 연구사로 이어졌다.

외국어과는 영어는 명노걸 연구관과 한정근 연구사가 담당하다가 1986년 한정근 연구사가 전출하여 명노걸 연구관이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를 끝마치었다. 1987년 명노걸 연구관이 서울시로 전출하자 그 후임으로 다시 한정근 연구관이 부임, 교육과정 후속 업무를 처리하였다. 제 2외국어는 양원 연구사(불어)와 류석인 연구사(독일어)가 모든 외국어를 담당 처리하였다. 체육과는 김석진 연구관이 체육과 업무와 교련과 업무를 겸임하였고, 음악과는 최종진 연구관이 제 5차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1988년 서울시로 전출, 그 후임으로 이순영 연구사가 부임, 교육과정 후속 업무를 담당 처리하였다. 미술과는 노원부 연구관이 담당하여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와 이와 연관된 교과서 편수 업무까지 마무리하였다.

인문과학 편수관실은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개정하는 큰 일을 하였다. 이 업무는 정준섭 연구관을 중심으로 국어 담당 편수관들이 오랜 각고 끝에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제정, 사용하여오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50여 년 만에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 작업은 언어는 역사와 더불어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 우리말도 그 동안 많이 변하였고, 이러한 변천하는 언어 현실에 맞추어 표기법과 표준어는 변하여야 하는데, 현행 표기법과 표준어는 50여 년을 사용하면서도 그 많은 문제점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문교부는 1970년에 이 개정 사업을 어문정책의 당면 과제로 삼아 추진하여 왔으나 여러 주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별다른 진전이 없던 것을 난제를 풀고 1988년 1월에 문교부 고시 제88-1, 제88-2로 확정하였다.

당시에 문교부 발표한 보도 자료(개정 경위)에 주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글학회 등 7개 어문단체가 참여한 국어 조사 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어심의회의에서는 …… 1979년에 ‘맞춤법안’과 ‘표준말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개정은 국민의 언어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학술원으로 하여금 4년 동안(‘81~’84)에 걸쳐 검토 및 보완 연구를 수행케 하였을 뿐 아니라, 보다 광범한 국민적 합의를 구한다는 뜻에서 1985년에는 국어연구소에 동 개정안에 재검토 및 보완 연구를 위탁하였다. …… 학계, 언론계, 출판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최종안을

마련, 그 결과를 '87년 9월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문교부는 어문정책의 최고 자문기관인 국어심의회의 최종심의회를 거쳐, 개정 착수 17년만에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확정하였다”.

이 개정안의 주요한 것을 보면 한자어는 사이시옷 표기를 빼고, 띄어쓰기를 고쳐 성과 이름을 붙여 쓰고 십진법을 만 단위로 띄어 쓰도록 하는 등의 사례를 볼 수 있다.

③ 사회과학 편수관실

제5차 교육과정 개정 기간에는 양주석 장학관이 담당 편수관으로 업무를 주관하다가 1988년에 편수관리관으로 영전하면서 한명희 연구관이 담당하여 개정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도덕·윤리과는 한명희 연구관과 조용찬 연구관이 교육과정 업무는 거의 마무리 지었고, 1987년 후반에 조용찬 연구관이 장학실로 진출하고 후임으로 이창조 연구사가 부임, 업무를 승계하였다. 1988년 한명희 연구관이 담당 편수관으로 승진하면서 박문기 연구관이 부임, 교육과정 후속 업무를 승계하였다. 국사과와 세계사는 필자가 맡아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과 후속 작업을 끝마치었는데, 1987년에 역사과에 전재수 연구사가 부임하여 초등학교 사회과를 담당하다가 1년만에 서울시 교육청으로 진출되었다.

초등사회과는 김용만 연구관이 담당하다가 1986년 8월에 교육과정실로 진출되었다가 1987년 8월에 다시 복귀하여 그 업무를 계속 맡았다. 일반사회는 나청운 연구사가 담당하였다가 장학실로 진출, 그 뒤를 1986년부터 이영주 연구사가 맡았다가 서울시로 진출, 1988년부터 최병모 연구사가 맡아 끝마무리를 지었다. 지리는 민흥기 연구사가 담당하여 교육과정 개정 업무를 마무리하고 1989년 서울시로 진출하였으며, 그 뒤를 채희두 연구사가 계승하여 그 후속 업무를 처리하였다.

사회과학 편수관실이 담당하였던 업무 가운데 국내의 편수업무와 직접적인 관계는 적었지만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한국관 시정 사업이었다. 이 업무는 사무적인 것은 지리과의 민흥기, 정수영('86년 1년여 근무), 채희두 연구사가 이어서 맡았으나 업무의 성격상 역사를 담당한 김용만 연구관과 필자가 내용에 관한 일은 담당, 처리하였다. 한국관 시정 사업은 1982년 일본 역사 교과서에 한국관련 내용 왜곡 사건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 때는 문교부의 가장 큰 현안 문제로 사회과학 편수관실은 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른 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였다.

당시에는 1983년에 사용될 일본 역사 교과서 20 여종을 문교부에서 구입하여 이를 국사편찬위원회로 하여금 분석, 검토토록 하여 이 자료를 바탕으로 '즉각 시정이 필요한 사

항' 19항, '조기 시정이 필요한 사항' 19항, '기타 시정이 필요한 사항' 7항을 선정, 이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아 내었고, 부산물로 독립기념관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이 업무는 계속 사업으로 일본 뿐 아니라 각국의 역사 교과서와 사회 교과서를 수집 분석하여 이 자료를 해당 국가에 보내어 한국관을 시정토록 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진행될 때도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는 다시 제기되어 필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곤욕을 치르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백승탁 편수관리관의 회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²⁷⁾

“…… 우리 편수실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많은 학자의 도움을 얻어 일본 역사 교과서의 시정 사업에 착수했던 것이다. 사회과학 편수관실의 양주석 장학관, 윤종영 연구관을 비롯하여 여러분들과 많은 노력 끝에 시정 자료를 만들었고, 각국의 우리 대사관을 통하여 그 나라의 역사 및 사회과 교과서에 바르게 실리도록 시정 자료를 보내 주었다. 또, 일본 문부성과 검인정 교과서협회를 방문하여 우리가 만든 시정 자료를 제시하고, 왜곡 진술된 부분을 바로 잡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필자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80년대 중반에 일본 문부성과 검인정협회를 방문하여 시정을 요구한 바 있었고, 1990년에는 멕시코에서 그 곳 역사학자와 우리 나라의 유명익 교수(당시 한림대)와 필자가 참여하여 한국관 시정을 위한 양국의 역사학 발표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진행될 때 사회과학 편수관실에서 추진하였던 사업 중 중요한 것은 교과서 편수에 가장 긴요한 편수자료 중 역사와 지리와 관련 분야의 자료 출간이었다. 지금 까지 사용하던 것은 1963년에 발간한 편수자료 제4집이었다. 그래서 이 4집은 교과서 편수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또, 1986년 외래어 표기법의 개정 등으로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이 불가피하였다. 이 작업은 필자와 민흥기 연구사가 담당하였고, 이 사업을 위해 구성된 편수자료 외국어 인명, 지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승구(대한교과서 상무), 주요 신문사 교열부장, 그리고 문교부에서는 민흥기 지리 편수 담당자, 필자가 참여하였다. 용어 심의위원회는 세계사 분과와 지리 분과로 나누어 각각 교과 전공 교수 4명, 그리고 필자와 민흥기 연구사가 참여, 구성하였다.

*외국 인명·지명 표기 원칙

- 외국 인명, 지명의 추출은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를 중심으로 한다.

27) 한국교육과정 교과서 연구회, '전제서 I', pp.141-142.

- 외국 인명, 지명의 표기를 위하여 편수자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 외국 인명, 지명의 표기는 현지 음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중국의 인명은 신해혁명 이전은 한자음으로 표기한다.
- 관용화되어 사용되어 오던 인명, 지명은 현지 음의 표기와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중국 동북 3성 지명의 경우 국사 교과서에는 한자음 표기와 현지음 표기를 병기하여도 된다.

* 용어 통일의 기본 원칙

- 용어의 추출은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를 중심으로 한다.
- 통일된 용어의 제정을 위하여 편수자료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 용어는 우리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어를 한글로 표기한다.
- 다른 교과와 관련되는 용어는 주된 교과의 표기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수십 차례 심의회를 거쳐 “외국 인명 지명 용례집”과 편수자료 Ⅱ-3(인문·사회과학)를 완성하여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과 이에 따른 교과용 도서 편찬에 크게 기여하였다.

④ 자연과학 편수관실

자연과학 편수관실은 수학, 과학 계열과 실업·가정 계열 교과목을 담당한 부서로 담당 편수관은 강기주 장학관이 제 5차 교육과정 개발 업무를 거의 끝내고 1987년에 전출되고, 그 후임으로 김지태 장학관이 부임하여 교육과정 개정 작업 마무리와 그 후속 업무를 주관하였다. 1990년에 김지태 장학관이 전직되고 뒤를 이어 장종택 장학관이 부임하여 후속 업무를 마무리하였다.

수학과는 김진락 연구사와 국승길 연구사가 담당하였다가 1989년에 국승길 연구사가 전출되고, 그 후임으로 이종락 연구사가 부임, 교육과정 개정과 후속 업무를 마무리하였다.

과학과의 물리는 문찬호 연구관, 화학은 김동식 연구관, 생물은 정완호 연구관, 지구과학은 이규석 연구사가 담당하여 교육과정 개정 업무를 거의 마무리하였다. 1988년에 문찬호, 정완호 연구관이 전출하고, 그 뒤를 이어 이동길 연구관(물리)과 이재혁 연구사(생물)가 부임, 그 업무를 승계하여 교육과정 후속 업무를 마무리하였다.

실업과는 농업은 정성봉 연구관이 담당하였고, 1987년에 김진석 연구사가 부임, 그 업무를 보좌하여 교육과정 개정과 그 후속업무를 끝내었다. 기술은 고석달 연구사가 담당,

마무리하였고, 공업은 이상혁 연구관이 담당하였다가 전출되고, 제선억 연구사, 서동휘 연구사, 김의장 연구사로 이어져 업무를 승계, 마무리하였다.

전기는 류완수 연구사가 담당하였고, 토목은 이해정 연구관이 담당하였으며, 1987년에 전출되면서 신현구 연구관이 부임, 그 업무를 승계하고, 화공은 최복식 연구관이 담당하였다가 전출되고, 그 뒤를 장명진 연구사가 승계, 그 업무를 끝내었다. 상업은 신휘창 연구관과 박덕만 연구사가 담당, 업무를 추진하다 신휘창 연구관이 1987년 전출되고, 그 후임으로 서근우 연구관이 부임, 그 업무를 마무리하였다.

수산·해운은 김동규 연구관이 담당하다가 1986년에 전출되고, 그 후임으로 곽한철 연구관이 부임, 그 업무를 승계하여 마무리하였다.

가정 과목은 인영희 연구관과 김정자 연구사가 담당하였고 1988년, 인영희 연구관이 전출하고, 그 후임으로 이기훈 연구관이 부임, 그 업무를 승계하였으며, 김정자 연구사는 1987년에 전출, 그 뒤를 인공희 연구사가 승계하여 업무를 마무리하였다.

3.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

(1)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편찬

1)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서 단편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한 교육 내용을 학생 수준에 맞게 선정, 조직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자료이다. 그리고 이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많은 교육 자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학습 자료에 속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 자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거의 교과서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과서가 학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를 어떠한 방법으로 편찬할 것인가 하는 교과서 제도는 학교 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교과서 제도에 대하여 많은 개선안 등이 제기되고 논란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는 제 4차 교육과정기 때에 비해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으며, 정부 수립 이후 계속되어온 국정(1종)과 검인정(2종) 체제를 양대 축으로 하는 제도권에 있었다.

즉,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는 법적 뒷받침으로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660호 '77.8.22)”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과거에 있었던 교과서 관련법인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대통령령 제336호, '50.4.29)” 및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대통령령 제337호, '50.4.29)”과 “교과용 도서 저작 검인정령(대통령령 제5252호 '70.8.3) 및 “동 시행 규칙(문교부령 제270호 '70.11.25)”을 폐지하고 이를 아울러 만든 규정인 것이다.

제 5차 교육과정은 1987년 3월 31일 중학교, 동년 6월 30일 유치원, 초등학교, 1988년 3월 31일 고등학교를 고시되었고 이에, 따른 교과서는 1987년에 개발되어 1989년 1학기부터 공급, 적용되기 시작하여 1992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급, 사용되었다. 즉, 초등학교 교과서는 1·2·3학년은 1989년에 4·5·6학년은 1990년에 공급, 사용되었다., 중학교는 1989년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공급, 사용되었으며, 고등학교는 1990년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공급, 적용되었다.

〈표 VI-8〉 제 5차 교육과정기에 적용된 교과서의 발행 실태.²⁸⁾

구 분 학교급·계열	1 종				2 종				계(1종 + 2종)				비고
	교과서		지도서		교과서		지도서		교과서		지도서		
	종수	책수	종수	책수	종수	책수	종수	책수	종수	책수	종수	책수	
초등학교 교과서	24	89	15	50					24	89	15	50	
중학교 교과서	12	25	14	26	9	115	8	110	21	140	22	136	
고등학교 일반계 교과서	16	26	22	28	36	350	32	289	52	376	54	417	
체육계 교과서	20	21	4	4					20	21	4	4	
농업계 교과서	84	92	14	4					84	92	14	4	
공업계 교과서	221	222	11	11					221	222	11	11	
상업계 교과서	32	32	7	7					32	32	7	7	
수산·해운계 교과서	42	48	5	5					42	48	5	5	
가사·실업계 교과서	36	36							36	36			
합 계	487	591	92	135	45	465	40	399	532	1056	132	634	

2) 국정 제도

국정 교과서 제도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4조와 제 5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교과용 도서(교과서 및 지도서)를 국가(문교부)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 편찬하고 국가(문교부)가 저작권을 갖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문교부가 개발하고 문교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를 1종 교과서라고 부른다. 1종 도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4조에 의거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모든 교과서와 지도서, 중학교는 국어, 도덕, 국사의 교과서와 지도서, 고등학교는 국어(독본), 국민윤리, 국사의 교과서와 지도서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이나 검정 신청 또는 검정 합격 본이 없는 교과서 및 지도서도 1종 도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종 교과서는 과거의 국정 교과서와 같은 교과서로 볼 수 있으나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는 개발 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다. 즉, 과거의 국정 교과서는 문교부 편수관이 직접 개발하는 형이었다. 이것은 편수관이 교과서 편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필자를 직접 선정하여 집필을 의뢰하며 원고가 수합되면 이를 검토, 심의회에 회부하여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인쇄,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 5차 교육과정기의 1종 교과서의 개발은

28)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p.232. 서울 : 대한교과서(주), 1991.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5조 ‘1종 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종 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하여 개발해온 이른바 ‘위탁 개발’ 형이다.

위탁 개발형은 문교부의 편수관이 편찬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기관을 선정 위탁한다. 수탁받은 연구 기관에서는 문교부가 제시한 편찬 기준에 의거하여 개발본을 문교부에 제출하면, 편수관이 이를 검토 수정하고, 문교부 심의회에 회부, 심의한 후 수정 지시를 하면 이에 의거, 연구기관에서 실험본을 작성 제출한다. 문교부에서는 현장 실험과 심의회를 거쳐 연구 기관에서 이를 수정, 확정된 결재본을 제출하면 문교부에서는 최종 확정, 인쇄,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편찬 발행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종 도서 편찬 발행 과정

()은 문교부 담당자 역할, < >은 연구 개발 기관의 역할

(문교부)-(편찬계획)-(연구기관선정)-<연구개발계획, 집필세부계획>-(검토, 심의)-(<집필위촉>)-<원고 수집, 원고본 작성>-<심의본 제출>-(1차 심의)-(수정 지시)-<수정 보완, 실험본 작성>-<실험본 제출>-(현장 실험)-(수정 지시)-<수정 보완, 심의본 작성>-<심의본 제출>-(2차 심의)-(수정 지시)-<수정 보완, 결재본 작성>-<결재본 제출>-(결재본 최종 검토)-(장관 결재)-(인쇄본)-생산-공급

이러한 교과서 개발형은 종전의 국정교과서 개발형에 비해 교과서 개발 참여 인원이 많고 개발 과정에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으나 교육부의 일부 인사들이 무책임하게 제기하곤 하던 편수국 무용론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국정제도에 대하여는 제 1차 교육과정기 이래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성이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과서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편수사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 5차 교육과정기는 아니지만 검정 교과서였다가 1973년에 국정 교과서가 된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과정을 살펴보면서 당시에 논란의 쟁점을 보기로 하겠다.²⁹⁾

• 국사 교과서 국정화

29) 윤종영, ‘국사 교과서의 새로운 모형모색’ 정명호 박사 정년기념논총, pp.896-900.

정부 수립 이후 학교의 국사교육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1972년 제3공화국 정부가 ‘국적 있는 교육’을 내세워 국사교육강화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 이 정책의 추진을 위해 문교부에 국사강화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등학교에서의 국사과의 독립, 모든 대학에서 국사의 교양필수화, 모든 국가 채용고시에 국사과목 부과 의무화 등 획기적인 정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국사교육강화정책이 진행되는 와중에 10월 유신이 단행되면서 이러한 모든 정책은 가속이 붙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10월 유신 체제하에서 주체성 있는 국민정신교육이 강조되면서 국사교육은 더욱 중시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중학교 국사 교과서 단일화 문제가 1973년 2월에 돌출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이 안은 당시 11종의 검인정 중학교 국사 교과서를 단일종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이었다. 이 안은 발행사인 11개사 대표와 저자들이 연서로 정부가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록하기 위한 개편작업이 너무 방대하여 개별적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단일화 국사 교과서발행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제기되었으나, 정부의 강한 입김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추리된다.

문교부는 이 건의를 수리하고 발행자 전원에게 ‘11종의 개별 발행 중지, 원고에 대한 문교부 심사, 정가에 대한 문교부 사정, 발행에 관한 문교부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다짐장을 제출, 서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1개사가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4월부터 공동으로 집필에 착수하여 1974학년도부터 단일종의 새 국사 교과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집필지침으로 ‘유신정신 반영,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내용 보강, 국사교육이 강화될 수 있는 내용 보강’ 등을 주어 단일화 교과서의 추진 의도의 일부를 엿보게 하였다. 11개 출판사는 단일 국사 교과서의 저자로 김철준(서울대 교수), 강우철(이대 교수), 이원순(서울대 교수)을 선임하고 편찬에 착수하였다. 결국, 이 단일화안은 국정화나 거의 다름없었으나, 문교부가 교과서 발행의 주체가 아니고 검인정 교과서를 갖고 있는 11개사가 공동으로 교과서를 편찬한다는 차이만을 갖고 있다 하겠다. 또, 이 안은 당시에 검정 교과서의 유효기간이 1974년까지여서 이를 무효화하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피해 가면서 정부가 의도하는 교과서 개정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어떻든 이 단일안은 우리 나라의 정상적인 교과서 발행 제도라고는 볼 수 없고, 당시의 시대 상황에 의해 편법적인 제도로 만들어졌던 것이라 하겠다. 중학교의 국사 교과서 단일화 편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문교부는 1973년 5월 말,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전

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6월말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국사교육강화위원회가 국사교육강화정책의 일환으로 건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 위원회의 건의문에는 이 문제를 취급하지 않았고, 여기에 참여한 학자들도 거의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그 이전부터 일부 역사교육학자들 간에 검인정 교과서가 개인의 저술이라는 한계성이 있다고 하여 간혹 개인적으로 국사 교과서 발행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긴 하였으나, 이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이유도 일부 참고되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10월 유신이라는 시대 상황과 그 때 추진하고 있던 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유신체제하에서 국민정신을 강조하던 교육방향에 따라 국민의 가치관 교육에 중핵 교과인 국어, 도덕, 국사 과목 가운데 국사 교과서만 검인정으로 되어 있어, 국사 교과서도 국정으로 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국민정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본 것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것만이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은 유신이 끝나고 세 차례나 정권이 교체되었는 데도 아직까지 국사 교과서가 국정을 유지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제도가 국사 교육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이 발표가 있자 국사학계에서는 대부분의 학자가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더욱이 당시 국사학계를 대표할 수 있는 중견 원로학자들이 기존의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저자였기에 반대의 분위기가 높았지만, 당시에 시대 분위기 등으로 격렬한 반대 행동은 별로 없었다. 또, 문교부가 국사 교과서의 저자를 비롯한 국사학계를 대상으로 상당한 설득 노력을 하였던 것 등도 반대가 표면화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당시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단행한 문교부 등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 교과서는 많은 연구 인력이 참여할 수 있고 개인이 아닌 다수의 학자가 공동 집필함으로써 개인의 저서라 할 수 있는 검인정 교과서와 달리 개인학자의 편견을 극복하고 풍부한 내용을 수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계의 연구 성과를 종합, 수용할 수 있어 수준 높은 교과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통일된 국사의 내용을 통하여 국사에 대한 이해 체계가 하나로 이루어져 국민들의 국사인식에 혼란이 오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당면한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국론 통일에도 유리할 수 있다.

또, 국사학자 이외도 인접 학문인 지리, 정치, 문화, 사회, 교육학자들의 폭 넓은 참여가 가능하여, 예를 들면, 교육학자의 참여로 교육이론에 부합된 교과서를 편찬할 수 있게 되

어, 교과서 내용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초·중·고교의 국사 교육을 일관성, 단계성 있게 할 수 있어 각급 학교 국사 교육의 계열성을 확립하여 효과적인 국사교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새 발굴 자료나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등 최신 정보와 학계의 연구 업적을 즉시 활용, 보완이 가능하여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으며,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어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에 비해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고 검인정 제도의 존속을 주장한 국사학계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검인정 교과서는 통제와 간섭이 축소되고 자율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부합되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단일종이 아닌 여러 종류의 다양한 국사 교과서가 출판되고 교육현장에서 이들 교과서 중 좀더 배우기 좋고 재미있게 만들어진 교과서가 선정될 것이며, 이러한 교과서의 선정으로 국사 수업은 재미있고 다양한 수업이 될 것이다. 또, 국사 교과서로 선정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교과서의 질이 향상되고 국사학계의 활발한 연구열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고정화시켜 자유롭고 다양한 학습활동이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경직된 역사 사고에 머물게 되어 역사 교육의 본래 목표인 역사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기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이용될 소지가 있어 오히려 국민 정신 교육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

이상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국정 제도의 장단점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국사 교과서가 국정화된 1974년 이후 학계와 교육계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계속하였고, 제 5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사 교과서 개편 때도 국사편찬위원회가 공동 결의로 국사 교과서 검인정화를 건의한바 있어 앞으로 국사 교과서를 비롯한 국정 교과서에 대한 변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초등학교 교과서를 제외한 현행 중·고교 국정 교과서가 국정화될 때는 당시의 시대적인 필요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당시에 비해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학계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교과서 발행제도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과서 발행 제도의 국제적 추세를 보아도 북한 등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검정 또는 자유발행 제도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창조성, 개성, 다양성의 존중 강조되는 우리 사회에 맞추기 위해서도 국정제도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하겠다.

3) 검인정 제도

검인정 교과서 제도는 국가가 직접 편찬하는 국정제도에 비해 국가가 교과서 편찬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저작한 교과서를 정부(교육부)가 적합 여부를 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개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2종 도서라 칭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12조에 “1종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과용 도서는 2종 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종 도서 검정에 관하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13조에 “문교부 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그 2종 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5차 교육과정기의 모든 2종 교과서의 개발이 법정 기간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이 때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초등학교보다 앞서 1987년 3월 31일자로 고시한 것도 중학교 1학년의 새 교과서 사용 학년도인 1989년에 맞추어 개발기간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 2종 도서의 검정신청에 관하여 동 규정 제 14조에 “2종 도서의 검정은 그 원고를 집필한 ‘저작자’가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개인이 출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출판사가 주체이고 저작자는 출판사와 계약하에 원고료와 그 밖의 경비를 받고 모든 것은 출판사에 일임한 객체라 볼 수 있다. 출원할 때는 출원하는 교과서의 신청가격의 40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국고에 납부하고,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1차 심사는 문교부 장관이 위촉한 5명의 심사 위원이 검정기준에 의거 평점제로 심사하고, 2차 심사는 가설편에 의해 1차 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 지시 이행여부와 체제 등의 적합성 여부를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적격 판정을 받은 교과서는 그의 지도서를 별도로 심사하여 교과서와 지도서가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도서만 최종 합격이 될 수 있다. 제 5차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2종으로 결정된 교과서의 검정은 제 4차 교육과정 때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2종 도서 검정 공고(문교부)-집필상의 유의점 발표(문교부)-검정기준 발표(문교부)-검정 신청 예정자 등록(문교부)-심사본 접수(문교부)-1차본 심사(심사위원 : 적격·부적격 잠정 발표 및 적격본에 수정 보완 지시)-2차본 심사(심사위원 : 수정 보완 지시 이행 확인)-교과서 확정 판정-지도서 심사(1차·2차 심사)-교과서 지도서 종합 판정-최종 합격본 발표(문교부 장관)

이상의 절차는 문교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출원자의 절차는 검정신청 예정자 등록(저자)-집필-심사본 제출-(합격 공고)-인쇄 발행-공급이라고 하겠다.

제 5차 교육과정기에 2종 교과서의 합격본 종수가 제 4차 교육과정기에 5종에 비해 8종으로 확대되었고 과목 수도 확대되었다. 현행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해서는 2종 교과서의 저자나 출판사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주된 주장을 보면, 지금의 1종 교과서의 종수를 축소하고 2종 교과서를 확대하는 것과 2종 교과서 합격본의 종수 제한을 철폐하고 2종 교과서의 검정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일본의 교과서 제도와 유사한 것 들이며, 앞으로 우리 나라 교과서 제도 개선에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2종 교과서의 체제나 내용면에서 저자의 독창적인 생각에 의해 새로운 틀을 만들어 참신한 교과서를 구성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문교부에서 제시한 ‘집필상의 유의점’ 등에 규제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1종 교과서와 크게 다른 교과서가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

제 5차 교육과정기의 2종 교과서를 교과별로 8종을 보아도 일부는 차이가 보이지만 크게 다른 경우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일부 출판사는 교과서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보다 합격된 후 이에 따른 참고서 판매에 관심만을 갖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으며, 또 출판사간에 과다 경쟁으로 국가의 경제적 낭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검인정 제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책이 계속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제 5차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15조와 제 16조 2항에 의해 문교부가 제시한 2 종 교과용 도서 심사 기준(검정 기준)의 일부를 예시하여 본다.

① 고등학교 2종 도서 심사 기준

가. 필수 기준

필수 기준은 주로 절대 성격을 띠고 있는 기준과 각 교과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기준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헌법, 교육법, 교육과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교육 내용의 제시, 표현 여부가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① 대한민국 체제 부정 여부 ② 특정 종교, 특정 국가, 지역, 단체, 인물에 대한 옹호 또는 비방 ③ 교육 목적과의 일치 여부 ④ 기타 개인적 신념에 의한 우상 또는 소속 집단의 편파성 반영 여부가 해당된다.

나. 교과 기준

교과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교육과정에 근거한 내용의 선정, 조직, 수준과 범위 설정 여부

둘째, 2종 교과용 도서 교과별 ‘집필상의 유의점’에 근거한 기준

셋째, 각 교과에 포함되어야 할 공통기준(표현, 표기, 내용의 공정성, 구성의 참신성, 출처의 정확성 등)을 교과의 특성에 적합하게 조정한 내용

넷째, 현행 해당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시급히 해결할 발전 과제 등 교과의 특성에 적합한 기준

② 교과별 심사 기준

가. 필수 기준

1. 헌법 정신과의 일치 여부

- 1)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 2) 특정 종교, 국가, 지역, 단체 등에 대한 선전, 비방, 옹호, 왜곡, 우대 등 내용이 있는가

2. 교육 목적과의 일치

- 3) 교육법,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적 및 목표에 위배되는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가

3. 교과서 편찬 체제와의 일치

- 4) 판형, 색도 쪽수는 교과별로 제시한 교과용 도서 체제 기준을 위반한 것이 있는가

4. 저작권 보호 정신과의 일치

- 5) 교과서 내용 구성이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된 것이 있는가

나. 교과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공통 기준

1. 표현, 표기의 적합성

- 1)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에 따르고, 표준말은 표준어 규정에 따르며, 외래어 표기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고 있는가
- 2) 삽화, 사진, 인명, 지명, 각종 용어, 도표, 통계 자료 등은 정확하고 적절하며, 특히 도표, 통계 자료는 최신의 자료로 되어 있는가

2. 내용의 공정성

- 3) 특정 인물, 성 및 상품에 대한 선전, 비방, 옹호, 왜곡, 우대 등의 내용은 없는가

3. 내용 구성 및 전개의 참신성

- 4) 단원은 학습자의 개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지도와 자를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가
- 5) 전체적인 내용의 구성은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가 필요하도록 편찬되었으며, 교사가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자극하게 되어 있는가
- 6) 도덕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안전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등 내용이 관련 단원 단원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4. 내용 출처의 정확성

- 7) 학문상 오류나 정설화 되지 아니한 저작자의 개인적 편견은 없는가

③ 교과목별 검정 기준(교과서명 : 수학 I)

1. 내용의 선정

- 1) 내용은 수학 I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및 평가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선정하였는가
- 2) 내용은 대수, 해석, 확률과 통계의 영역별 내용을 균형있게 선정하였는가
- 3) 학습 흥미를 높이기 위하여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적절한 학습소재를 선정하였는가

2. 내용의 조직

- 4) 내용은 일반 수학, 수학Ⅱ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직하였는가
- 5) 내용의 전개는 학습 위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직하였는가
- 6) 내용은 자율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하기 쉽게 적히 조직하였는가
- 7) 보기, 예제, 문제 등은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기에 적절하고, 응용력이 신장될수 있으며, 오류가 없는가

3. 내용의 수준과 범위

- 8) 수학 I 교육과정(방법, 평가)에 제시된 유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가
- 9) 행렬, 수열에 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10) 수열과 함수의 극한 및 미적분의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교수 학습에 적절하도록 제시하였는가
- 11) 확률과 통계의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교수 학습에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4. 단원의 구성

- 12) 단원의 크기, 배열은 적절하고 전체적으로 계열성과 균형성이 유지되어 있는가
- 13) 단원의 안내, 단원의 전개, 내용 진술 등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구성하였는가
- 14) 준비, 확인, 보충, 심화 학습자료 등이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라 활용하기에 적절한가
- 15)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의 이해를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창의력, 응용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5. 표현, 표기

- 16) 문장은 간결 명확하고 평이하며, 용어와 기호는 교육과정에 따라 정확하고 일관성있게 사용하였는가
- 17) 삽화, 사진, 도표, 통계 자료 등은 정확하고 적절하며 최신의 공인된 자료인가
- 18) 표현, 표기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따르고 있는가

6. 편집 체제

- 19) 2색도를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였는가
- 20) 차례, 부록, 찾아보기, 연습 문제와 종합문제의 풀이의 핵심과 답 등은 학습에 편리하도록 편성하였는가

④ 교과목별 검정 기준(교과서명 : 세계사)

1. 내용의 선정

- 1) 내용은 교육과정의 성격에 맞고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되었는가
- 2) 내용은 학문적 오류나 개인적 편견없이 학계에서 정설화된 것으로 선정되

어 있는가

- 3) 교과서에 수록된 여러 가지 자료는 참신하고 역사적 사고력 신장에 적절한 것으로 선정되었는가
- 4) 단원별로 중요한 기본 개념과 핵심적인 내용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 5) 세계사 속에서 한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민족사적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2. 내용의 조직

- 6)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의 기술을 지양하고 세계사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는가
- 7) 중학교 사회과(세계사 영역)와의 계열성, 고등학교 국사과와의 횡적인 관련 등을 고려하여 조직되어 있는가
- 8) 특정지역 역사에 편중되지 않고 문화권과 지역사의 양적 배분에 유의하여 각 지역의 역사를 균형있게 다루었는가
- 9) 각 시대별 내용 배분은 근대이후에 비중을 두면서 시대별로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 10) 자료 활용과 문제의 제시가 탐구력,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으로 조직되었는가

3. 내용의 수준과 범위

- 11) 내용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절한 수준으로 기술되었는가.
- 12) 인류의 문명 발생에서 고대 세계 문화의 발달을 문화권에 유의하여 그 특성을 비교 이해할 수 있게 기술하였는가
- 13) 아시아 세계의 형성과 유럽 세계의 형성, 변천과정을 문화권별로 개념 및 특성을 적절하게 기술하였는가
- 14) 근대 사회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그 특성 및 차이점에 유의하여 기술하고, 아시아의 자생적 측면을 강조하였는가
- 15) 현대 세계의 전개상을 오늘날 국제 정세에 연계하여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미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기술하였는가

4. 구성 체계

- 16) 단원의 구성 체제는 기본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구성되었는가

17)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 지도, 사진, 삽화, 도표, 통계 자료 등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8) 대 단원에서 시대적 특성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한국사의 세계사적 조명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5. 표현, 표기

19) 내용의 표현이 간결하되, 이해가 쉽고 평이하게 진술되어 있는가

20) 역사 용어, 인명, 지명 등 각종 표기는 편수 자료에 따라 바르게 표기되어 있는가

⑤ 교과목별 검정 기준(교과서명 : 역사부도)

1. 내용의 선정

1) 내용은 교육과정 ‘국사’와 ‘세계사’ 과목의 성격에 맞고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2) 내용은 학문적 오류나 개인적 편견 없이 학계에서 정설화된 것으로 선정되어 있는가

3) 내용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절한 수준의 것으로 선정되었는가

2. 내용의 조직

4) 국사와 세계사, 세계사에서의 동 서양사 및 각 시대별 배분은 적절하며, 근대 이후에 비중을 두고 있는가

5) 특정 지역의 역사에 편중되지 않고, 문화권과 지역사의 양적 배분에 유의하여 각 지역의 역사를 균형 있게 다루었는가

6) 민족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7) 세계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세계사 속에서 한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는가

3. 내용의 수준과 범위

8) 교육과정의 ‘국사’와 ‘세계사’ 과목의 내용 요소에 근거하여 주제도, 일반도 및 각종 자료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9) 내용은 역사 학습에 활용할 가치가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는가

- 10) 중학교 사회과와의 계열성 및 고등학교 인접 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였는가

4. 구성 체계

- 11) 역사 지도와 각종 자료는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창의성과 시각적 효과를 발휘하여 구성되어 있는가.
- 12) 국사는 앞부분에, 세계사는 뒷부분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시기의 국사와 세계사를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13) 역사 지도, 백지도, 삽화, 도표 등의 선정과 배치는 학생들의 탐구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 14) 부록에는 국사와 세계사를 비교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역사 연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15) 각종 자료, 부록, 찾아보기 등은 학생들의 자율 학습과 탐구 학습에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16) 역사 지도는 역사적 사실을 지리적으로 파악하고, 시간적 변화의 계통적 파악과 해석에 유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5. 표현, 표기

- 17) 주제도, 일반도, 도표의 내용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가
- 18) 역사 용어, 인명, 지명 등 각종 표기는 편수 자료에 의거하여 바르게 표기되어 있는가
- 19) 지도의 제도와 색도는 학습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선명하게 편집되어 있는가
- 20) 글자의 크기와 자체는 변별성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선명하고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4) 교과서 행정 조직과 기구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부서는 문교부의 직제상으로 장학편수실이라 할 수 있으나 실질적 업무는 편수관리관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과 기구라 하겠다. 앞에서 상술했 바와 같이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가 시작되던 1985년 상반기로부터 교과서 편찬 등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 업무가 마무리된 1991년 학기말까지 편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부서의 변동은 없었다.

1981년 11월, 대통령령 제 10535호로 문교부 직제가 3실 6국 19관으로 개편되면서 편수국과 장학실이 통합되어 장학편수실이 된 이래 1982년 3월에 문교부에 일부 기구개편을 하면서 종래의 편수 총괄관을 편수관리관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정도의 작은 변화가 있었고, 제 6차 교육과정기까지는 그 조직이나 기구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편수국 독립 시절 편수과와 발행과의 업무인 교육과정 및 국정 교과서의 저작 및 편찬,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교과서 가격 사정, 교과용 도서의 발행 및 공급 등의 행정 업무는 편수관리관을 보좌하는 편수관리관실에서 담당하였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편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실에 담당 편수관(장학관)과 교과 담당 연구관 및 연구사(과거의 편수관, 당시에 편수관이라 칭함)를 두었다.

편수 담당 직제(편수관)는 1977년 3월에 편수국에 밀어 닦친 소위 ‘검인정 교과서 사건’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1978년에 편수국이 폐지되는 수난을 당하였고, 또 편수관도 그 이전까지는 일반 행정직과 교육 전문직이 공존하였는데, 교육전문직으로 통일되었으며, 교과서 개발 형태도 문교부 편수관이 직접 주도하던 방식에서 연구 개발 기관을 선정 위탁하는 간접 개발형태로 변화되어 편수관의 권위도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1977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모든 편수관이 물러난 후에 편수관의 임용은 전국적으로 공채에 의해 선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대학의 교수나 교육청의 전문직 및 현직 교사 가운데서 선발, 채용하였다. 신규 채용시에는 추천에 의해 면접시험을 거쳤고, 제 5차 교육과정기부터는 면접과 필기고사를 병행하여 선발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업무가 거의 마무리되던 1990년 4월1일, 당시에 교과서 편찬 업무를 담당하였던 주역들의 면면을 살펴보기로 하겠다.〈표 VI-9〉 참조.

이들 편수 담당자(편수관)들에 대하여 당시에 편수국장과 편수관리관을 역임한 정태범 교수는 편수관의 자질과 편수직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³⁰⁾

“그 때 문교부의 편수 담당자들은 이미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교육부의 선발과정을 거쳐 임용되신 분도 있었고, 현장 교사로 근무하다가 교육부의 선발과정을 거쳐 임용된 분도 있었다. 이들은 거의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현장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 교육부의 편수직

30) 교육과정 교과서 연구회, ‘편수의 뒤편길 3’, pp.96-98.

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교과와 미래를 내다보고 교과와 지식 구조를 이해할 뿐 아니라, 교과와 현장 적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

〈표 VI-9〉 제 5차 교육과정기 편수관리관실 재직자 명단

장학편수실	성 명 및 직 위 등
장학편수실장	이준해
편수관리관	박병호
교육과정 담당관실	김상대(장학관), 함수곤(연구관), 조용찬(연구관), 이범주(연구관), 소정자(연구사),
인문과학 편수관실	한상진(장학관), 김석진(연구관,체육), 한정근(연구관,영어), 정준섭(연구관,국어), 오병옥(연구관,미술), 양원(연구사,불어), 이순영(연구사,음악), 박경조(연구사,국어), 허천행(연구사,국어), 심광원(연구사,독어)
사회과학 편수관실	한명희(장학관), 김용만(연구관,사회), 윤종영(연구관,역사), 박문기(연구관,도덕), 이창조(연구사,도덕), 채희두(연구사,지리), 최병모(연구사,사회), 김태홍(교감,초등 사회)
자연과학 편수관실	장종택(장학관), 김동식(연구관,과학), 정성봉(연구관,농업), 곽한철 (연구관,수산업), 신현구(연구관,공업), 서근우(연구관,상업), 이기훈(연구관,가정), 고석달(연구관,공업), 이동길(연구관,과학), 구자락(연구관,공업), 김진락(연구사,수학), 이규석(연구사,과학), 김진석(연구사,농업), 장명진(연구사,공업), 이재혁(연구사,과학), 이종락(연구사,수학), 민은기(연구사,컴퓨터), 김의장(연구사,공업), 임공희(연구사,가정),
편수관리관실	이기우(서기관), 김의동(사무관), 송성주(사무관) 외 7명

교육부에서 편수직은 교육행정의 핵이다. 교육부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편수직이다. 편수 담당자의 능력과 자질은 그 자체가 이 나라의 교육을 방향 지어 주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한 나라의 교육과정은 교육발전의 이정표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또, 편수직에 대하여 제 5차 교육과정에 과학 담당 편수관을 역임한 정완호 교원대학교 총장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던 새가 저녁이 되면 등지로 돌아오고, 돈 벌러 떠난 비단 장수도 때가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누구나 자기가 틀고 있던 등지는 마음의 고향이면서 몸의 안식처이다. 우리 편수인들은 문교부를 거쳐 교육부에 이르기까지 편수국, 장학 편수실, 장학실, 편수실 등 많은 이름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고향의 명칭이 안정을 찾지 못하였다.

1977년도 우리가 편수관으로 있을 그때만 하더라도, 책을 보는 사람은 가장 밝은 곳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책을 보아야 한다고 정부종합청사 10층과 11층을 문교부가 사용하고 있을 때에도 11층 1호를 제공받았다. 황산덕 장관이나 박찬현 장관이 모두 그러한 배려를 해 주었다.

1980년대 정태수 차관은 편수국이 문교부의 태양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교육 내용을 다루는 편수국이 중심에 있고, 그 외에 많은 실국들은 모두 교육 내용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한 보조 역할을 할 따름이라고 하였다.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덕담이라고 해도 좋다. 요사이의 그러한 사고마저 하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 이제는 교육과정이라는 업무는 교육부의 어느 한 구석에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왜소해졌다. 편수 출신 수 백명의 마음의 고향이 송두리째 없어진 셈이다.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판단하는 것은 가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의 잣대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에서는 없다고 본다. 우리의 고향이 잘 대접받는 세월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평생의 천직으로 삼고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최대의 자랑으로 삼는 날을 보았으면 좋겠다.”

5) 교과용 도서 심의회

교과용 도서와 관련된 심의회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6조에 의해 설치된 1종 도서 편찬심의회가 있다. 이 심의회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도서 개발을 위하여 구성한 것으로 각급 학교의 교과목별로 조직되어 있다. 이 심의회에서는 1종도서 편찬을 위한 집필지침, 편찬 방향 등을 심의하고 교과서 심의본에 대한 내용 수준, 내용 분량, 내용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심의회는 교과서 작업 과정에 따라 집필 세목, 원고본, 개고본, 현장 검토 후의 수정본 등에 심의를 하는데, 대개 하나의 교과서를 완결하기 위해 3~4차례의 회의를 개최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7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각 심의회는 9인 이상 21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되 문교부 소속 공무원과 당해 교과목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에 의해 심의위원은 편수 담당자(편수관)의 추천으로 장관의 결재를 얻어 위촉하였는데, 위원들은 해당 교과목에 전공자인 대학 교수와 현장 교사들이었고 담당 편수관이 참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간사가 있었는데, 간사는 대개 문교부의 편수 담당자가 맡아 위원회가 원만히 움직이도록 역할을 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기에 문교부에 설치된 각 교과목의 1종도서 편찬심의회는 초등학교는 13개 교과에 각 학년별로 설치되었고, 중학교는 국어(독본), 도덕, 국사, 사회, 기술, 가

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교과에 학년별로 설치되었다. 고등학교는 일반계에는 국어, 국민윤리, 국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목과 각 계열별 교과목별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심의위원회의 인원은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거의 20명 내외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에게는 회의 참가할 때마다 1만원~2만원 정도의 회의 수당이 지급되었다.

6) 교과서 가격 사정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가격 사정은 1982년 3월 11일(대통령령 제 10757호)과 1983년 12월 7일(대통령령 제 11267호) 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1991년 5월 8일(교육 예규) 제정된 “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 지침”이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그 뒤에도 1986년 8월 19일(대통령령 제11958호), 1988년 8월 22일(대통령령 제 12508호), 1989년 10월 16일(대통령령 제12818호) 개정되어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가격 사정에 일부 변화를 주었다.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가격사정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 35조~제 45조)’을 근거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총 원 가 : 제조원가 + 영업비
2. 제조 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직접경비 + 제조간접비
3. 책당 정가 : 판매 가격/발행 부수
4. 단가 유효 기간 : 6 월
5. 정가 구성 요소 : 재료비,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발행자이윤, 인세, 공급수수료
6. 재 료 비 : 각 발행사의 구입가격의 평균가격과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중 최저 가격으로 한다.
7. 인쇄 제조비 : 조달청장이 정한 인쇄기준요금으로 한다. 단,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 요금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거나 설립이 인가된 2 이상의 물가 조사기관 또는 원가 계산기관이 조사한 날부터 1 년 경과하지 아니한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인쇄제조비 중 조판비는 교과용 도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 요금의 3배를 할증

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일반 관리비 : 재료비, 인쇄제조비의 합한 금액이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9. 발행자 이윤 :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의 합한금액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외주 가공비에 대해서는 이윤을 주지 않는다.
10. 저작자 인세 : 재료비,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발행자이윤의 합한금액의 9분의 1로 한다.
11. 공급 수수료 : 재료비,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발행자이윤, 저작자 인세의 합한 금액의 19분의 1로 한다(단, 1종교과서의 경우 저작자의 인세를 제외 한다)
12. 심의본 제조원가 : 1종 교과서의 경우 심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수정작업한 횟수의 3회에 한해서 인정해 준다. 발행부수는 25부로 통일하며 인쇄판료, 옵셋 인쇄료, 재본료는 동일하게 계산해 준다.
13. 고정비 : 인쇄 제조비의 단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생산공정에 한 번 투입되어 2 개년도 이상 걸쳐 계속적으로 인쇄 제조비에 사용될 수 있는 조판비, 제판비 등 고정비용에 대하여는 3년간 균분하여 인쇄 제조비를 계산하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해 준다.

이상의 교과서 가격 사정의 원가 구성 항목을 중심으로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정가사정 방법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³¹⁾

〈표 VI-10〉 교과서 정가 사정 방법

구 성 요 소	사 정 방 법	비 고
(가) 재 료 비	발행자 구입 단가와 조달청 단가 중 낮은 단가	종이값
(나) 인쇄·제조비	초등학교 교과서 : 원가계산 평균가격 중고등학교 교과서 : 조달청 요율	
(다) 일반 관리비	(가+나)의 20% 이내	18% 적용
(라) 이 윤	(나+다)의 25% 이내	
(마) 인 세	(가+나+다+라)의 1/9	2종 교과서
(바) 공급 수수료	(가+나+다+라+마)의 1/19	
(사) 기타 경비	심의본 제조원가(3회에 각 25부) 폐기도서 제조원가(발행 부수의 1%) 부가 가치세(재료비, 인쇄비, 제조비의 10%)	1종 교과서

31) 김태웅 외, '교과용도서 정가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화 방안', 한국교과서연구소 연구보고서 98-2, p.28.

이것으로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가격사정 즉, 정가결정 제도를 살펴보았다.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가격 사정 제도는 정부 수립 이후 지속되어온 정책의 기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즉, 열악한 교육재정과 학생들의 부담 경감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되어온 교과서의 저가격 정책은 울타리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교과서 저가격 정책을 위해 제 5차 교육과정기에도 정부는 교과서 가격형성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지 않고 가격사정 방법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 모두의 이해와 직결되는 교과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해될 수 있고, 또 2종 교과서의 경우 발행사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 가격 결정 제도가 교과서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과서 가격결정은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하면서도 교과서의 질 향상과 이를 통한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에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경쟁 원리의 도입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2) 국민학교 교과서 편찬 · 발행

1) 교과서 편찬 제도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국민학교 교과서는 1987년 6월 30일자로 고시된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어 1989년에 1·2·3학년, 1990년에 4·5·6학년에 공급 사용되었다. 이 국민학교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 모두 1종 교과서로 편찬되었다. 당시에 교과는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1·2학년의 통합 교과로 ‘우리들은 1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되어 있었다. 이들 교과에 따라 출판된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³²⁾ <표 VI-11> 참조.

① 편찬 절차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국민학교 교과서는 모두 1종교과서로 문교부에서 개발기관을 선정, 위탁 개발하였다. 당시에 국민학교 교과서의 개발기관으로는 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선정되어 대부분의 교과서를 개발하였으나, 교과의 특성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1종도서

32) 김용만, ‘전개서’ p.310.

〈표 VI-11〉 제 5차 교육과정기(1991학년도 발행 국민학교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 우리들은 1학년, 말하기. 듣기(1-1, 1-2), 읽기(1-1, 1-2), 쓰기(1-1, 1-2), 산수(1-1, 1-2), 산수 익힘책(1-1, 1-2), 바른 생활(1-1, 1-2), 바른 생활 이야기(1-1, 1-2), 슬기로운 생활(1-1, 1-2), 관찰(1-1, 1-2), 즐거운 생활(1-1, 1-2), 탐구생활(1-1, 1-2) 〈12종 23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학년 : 말하기.듣기(2-1, 2-2), 읽기(2-1, 2-2), 쓰기(2-1, 2-2), 산수(2-1, 2-2), 산수 익힘책(2-1, 2-2), 바른 생활(2-1, 2-2), 바른 생활 이야기(2-1, 2-2), 슬기로운 생활(2-1, 2-2), 관찰(2-1, 2-2), 즐거운 생활(2-1, 2-2), 탐구생활(2-1, 2-2) 〈11종 22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 : 도덕(3-1, 3-2), 생활의 길잡이(3-1, 3-2), 말하기 듣기(3-1, 3-2), 일기(3-1, 3-2), 쓰기(3-1, 3-2), 사회(3-1, 3-2), 탐구생활(3-1, 3-2) 산수(3-1, 3-2), 산수 익힘책(3-1, 3-2), 자연(3-1, 3-2), 실험 관찰(3-1, 3-2), 체육, 음악, 미술 〈14종 28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학년 : 도덕(4-1, 4-2), 생활의 길잡이(4-1, 4-2), 말하기 듣기(4-1, 4-2), 읽기(4-1, 4-2), 쓰기(4-1, 4-2), 사회(4-1, 4-2), 사회과 탐구(4-1, 4-2), 탐구생활(4-1, 4-2), 산수(4-1, 4-2), 산수 익힘책(4-1, 4-2), 자연(4-1, 4-2), 실험 관찰(4-1, 4-2),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실습 길잡이(4-1, 4-2), 사회과 부도 〈18종 31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학년 : 도덕(5-1, 5-2), 생활의 길잡이(5-1, 5-2), 말하기 듣기(5-1, 5-2), 읽기(5-1, 5-2), 쓰기(5-1, 5-2), 사회(5-1, 5-2), 사회과 탐구(5-1, 5-2), 탐구생활(5-1, 5-2), 산수(5-1, 5-2), 산수 익힘책(5-1, 5-2), 자연(5-1, 5-2), 실험 관찰(5-1, 5-2),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실습 길잡이(5-1, 5-2) 〈17종 30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학년 : 도덕(6-1, 6-2), 생활의 길잡이(6-1, 6-2), 말하기 듣기(6-1, 6-2), 읽기(6-1, 6-2), 쓰기(6-1, 6-2), 사회(6-1, 6-2), 사회과 탐구(6-1, 6-2), 탐구생활(6-1, 6-2), 산수(6-1, 6-2), 산수 익힘책(6-1, 6-2), 자연(6-1, 6-2), 실험 관찰(6-1, 6-2),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실습 길잡이(6-1, 6-2) 〈17종 30책〉
[교사용 지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 우리들은 1학년, 국어(1-1,1-2), 산수(1-1,1-2), 바른 생활(1-1,1-2), 슬기로운 생활(1-1,2-1), 즐거운 생활(1-1,2-1), 〈6종 11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학년 : 국어(2-1,2-2), 산수(2-1,2-2), 바른 생활(2-1,2-2), 슬기로운 생활(2-1,2-2), 즐거운 생활(2-1,2-2) 〈5종 10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 : 도덕(3-1,3-2), 국어(3-1,3-2), 사회(3-1,3-2), 산수(3-1,3-2), 자연(3-1,3-2), 체육, 음악, 미술 〈8종 13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학년 : 도덕(4-1,4-2), 국어(4-1,4-2), 사회(4-1,4-2), 산수(4-1,4-2), 자연(4-1,4-2), 체육, 음악, 미술, 실과 〈9종 14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학년 : 도덕(5-1,5-2), 국어(5-1,5-2), 사회(5-1,5-2), 산수(5-1,5-2), 자연(5-1,5-2), 체육, 음악, 미술, 실과 〈9종 14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학년 : 도덕(6-1,6-2), 국어(6-1,6-2), 사회(6-1,6-2), 산수(6-1,6-2), 자연(6-1,6-2), 체육, 음악, 미술, 실과 〈9종 14책〉

개발위원회) 등 대학이 선정되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국민학교 교과서 편찬은 문교부의 교과 편수 담당자가 편찬계획을 수립, 장관의 결재를 얻어 진행하였는데, 개발기간은 1년~2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2년인 경우에도 교과서 개발은 1년에 끝내고, 1년은 현장 실험에 할애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이 조급하게 진행되었다. 당시(1988년)의 편찬 절차와 추진 일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상의 절차를 중심으로 이를 좀더 상세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VII-12〉 편찬 절차 및 추진 일정 등

번호	절 차	개발 기관	기 간
1	편찬계획 수립 및 위탁	문교부	‘88. 3
2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제출	개발기관	‘88. 3
3	집필계획 승인 및 예산 교부	문교부	‘88. 3
4	원고집필, 삽화, 사진 제작	개발기관	‘88. 3~8
5	원고본 제출	개발기관	‘88. 9
6	원고본 심의	문교부	‘88. 9
7	수정 보완	개발기관	‘88. 10
8	개고본 심의	문교부	‘88. 11
9	수정 보완	개발기관	‘88. 12
10	종합 검토	문교부, 개발기관	‘88. 12
11	결재본 제출	개발기관	‘88. 12말
12	현장 실험	문교부, 개발기관)	‘89~

가 편찬계획 수립 및 위탁

편찬계획은 교과 담당 편수관이 교과서 편찬의 기본적인 상세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제 5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한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 교과서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정신과 내용을 반영한 집필지침을 작성하고, 교과서를 개발할 위탁기관을 선정, 장관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문교부는 개발기관에게 교과서 편찬의 상세화된 계획서인 ‘1종도서 편찬 세부계획서’를 주어 이에 의거 교과서 개발업무를 진행토록 한다.

나 연구계획서 작성 및 연구 개발 등

문교부로부터 교과서 개발을 위탁받은 개발기관은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를 조직하고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담은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진, 집필진을 구성, 이를 문교부에 제출, 승인을 받는다. 연구진은 해당 교과의 교육 및 교육과정, 학계의 전문가와 현장 교사 등으로 5명 내외로 구성하고 편찬기본방향 설정, 집필계획 검토, 원고검

토, 수정협의 등을 협의한다. 집필진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이나 현장 교사로 교육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구성하고, 집필계획서 작성, 원고 집필을 맡는다.

다. 현장 실험

현장 실험은 교과서 개발기간 2년 중 1년은 교과서를 개발하고 다음 1년은 일선학교에서 교과서의 현장실험, 적용을 하게 된다. 현장실험은 각 시·도 단위로 2~4개의 교과용 도서 실험연구학교를 지정하고, 이들 학교와 국립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부속 국민학교에서 행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실험용 교과서를 직접 사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과서의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절성, 사실 자료의 적합성과 정확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한다.

라. 문교부 제시 ‘집필 지침’

문교부가 제시한 ‘집필 지침’의 중요한 사항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³⁾

* 일반 지침

1.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일치 :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편찬하여야 한다.
2. 교육목적과 목표와의 일치 : 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우리나라 교육목적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와 일치하여야 한다.
3. 교육과정 내용의 반영 :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목의 목표 및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4. 내용의 정선 : 내용은 각 교과목의 주요개념을 중심으로 정설화된 최신의 것으로 정선하여야 한다.
5. 내용의 수준 : 내용의 수준은 학생의 발달단계와 부합되어야 하며, 참고서 없이도 대부분의 학생이 자율학습으로 이해가 가능한 수준으로 진술한다.
6. 내용의 진술 : 내용진술은 각 문단마다 중심 생각을 뚜렷하게 하며, 정의, 비교, 대조, 열거, 예시, 인과관계, 추리, 분석, 종합, 결론 등 제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7. 내용의 양 : 내용의 양은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에 따른 최소 시간량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32주 동안 이수할 수 있는 양을 선정한다.
8. 인물 기사의 제한 :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생존 인물에 대한 기사는 수록하지 않는다.

33) 문교부, ‘1종 도서 편찬세부계획서’, pp.44-53.

* 교과목별 지침(예)

[사회 4-1, 교과서 지역단원 : 대전]

1. 3개의 주제와 1주제당 3~4개 제재로 구성하도록 한다.
2. 교과서 전개체제는 단원명, 단원개관, 주제명, 주제개관, 제재명, 공부할 문제, 학습 내용(자료 : 문장, 삽화), 연구, 학습정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원명, 주제명, 제재명은 교육과정에서의 명칭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을 뚜렷이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도록 한다.
4. 단원의 전개 단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ㄱ) 단원명, 주제명

- 대체로 교육과정의 단원, 주제명의 명칭을 따른 경우도 있으나 단원의 성격에 비추어 학생들의 흥미, 요구에 맞는 제목으로 바꾸어 제시함.

ㄴ) 단원 또는 주제의 개관

- 단원 도입글 - 사례, 동기유발, 학습방향, 공부할 대강의 내용(개관), 문제 파악
- 관련내용과 관계 깊은 삽화제시

ㄷ) 제재

- 1개 주제를 3~4개 제재로 나눔. 대개 1-2차시 수업량이 되게 함. 명칭이나 소재는 가능한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함.

ㄹ) 공부할 문제

- 제재명 다음에 네모(□) 속에 제시한다. 제재의 학습목표를 분명히 하고 학습방법도 제시되도록 고려함.
- 개념, 일반화를 정리할 수 있는 문제도 제시

ㅁ) 내용 및 자료

- 교과서의 본 내용에 해당-기본 요소, 사실, 개념, 일반화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례, 삽화, 도표, 지도 등과 관련시킴.
- 내용 : 수준을 쉽게, 학습량은 축소하고 참고 자료를 많이 제시함.
 - : 내용 서술은 문제 제기로 학생들이 탐구 해결토록 유도.
 - : 내용 진술은 연역적이거나 귀납적으로 함.
- 삽화(교과서의 그림, 사진, 도표 등)
 - : 본문과 연관시켜 지도토록 구성
 - : 삽화에 가능한 제목과 내용소개

: 의미있고 참신한 것으로 선정

: 삽화를 통한 탐구가 가능하도록 삽화 설명에 유의함.

: 교과서의 상·하단 여백도 활용하여 가능한 크게함.

: 삽화만 제시하고 “연구문제”를 제시하여 탐구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도 함.

ㄴ) 연구

- 본문 전개의 한 형식으로 제시되는 것과 심화, 보충을 위하여 제시되는 것이 있고 조사, 관찰, 토의, 발표, 분석, 정리 활동을 기대하고 있음.
- 매 제재별로 본문내용 사이에 1개 내외 제시
- 삽화자료를 주고 이들로부터 추론하여 탐구토록 한 것도 있음.

ㄷ) 학습정리

- 한 주제의 학습이 끝난 후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된 내용을 정리토록 함.
- 개념, 원리나 체계, 사실의 추상화 등으로 표현하게 함.
- 큰 개념 - 작은 개념의 순으로 전개하여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함.

5. 지식내용을 정선하고 탐구능력의 신장을 위한 구성을 하여 학생 스스로 사회적 사실과 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한다. 특히, 내용진술은 학생들의 탐구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하고, 학습문제(공부할 문제), 연구과제는 탐구의 형식과 내용에 맞도록 제시하고, 그 수준도 학생 수준에서 흥미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과용 도서 편찬 예산

제 5차 교육과정기의 초등학교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는 모두 1종으로 개발비용이 정부에서 지급되었다. 교과서 편찬을 위탁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교과서 개발 비용(연구편찬 보조금)을 문교부에서 제시한 연구편찬 보조금 산출 단가, 예산 항목별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신청하면 문교부에서 이를 심의, 조정, 확정하여 교부하는데, 사업추진 실적을 감안하여 2차로 분할 교부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기의 초등학교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비(연구편찬 보조금) 산출 기준 단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고료

- 교과서 : 판형 구분없이 1쪽당 14,500원,

- 중·고등학교(200자 원고지 매당) 5,000원
 - 지도서 : 1쪽당 21,600원 (200자 원고지 1매당 2,400원을 기준하여 9매)
2. 개고료
- 교과서 : 판형 구분없이 1쪽당 6,000원으로 계상하되 전체 쪽수의 25%만 계상
 - 중·고등학교는 1쪽당 국판 7,000원 계상하되 쪽수의 25%만 계상
 - 지도서 : 1쪽당 9,000원으로 하되, 전체 쪽수의 25%만 계상
3. 연구비
- 새로 개발하는 교과서, 지도서 모두 책당 300,000원
4. 삽화, 사진작품, 설계제도
- 삽화 : 매당 단색 국판 9,000, 단색 국판 1/2 6,000원, 단색 국판 1/4 5,000원, 2색 국판 12,000원, 2색 국판 1/2 9,000원, 2색 국판 1/4 6,000원, 원색 국판 18,000원, 원색 국판 1/2 12,000원, 원색 국판 1/4 9,000원
 - 사진작품 : 매당 단색 실사판 9,000원, 단색 복사판 2,000원, 원색 실사판 14,000원, 원색 복사판 3,000원
 - 설계제도 : 매당 국판 20,000원, 국판 1/2 14,000원, 국판 1/4 10,000원
5. 개화료
- 삽화 규격별 물량의 25%만 계상
6. 표지 도안료
- 1책 1매를 기준으로 하되, 국판은 1매 20,000원
7. 회의수당
- 1인 1회(1일) 10,000원으로 하고 1책당 10인 6회를 기준으로 계상
8. 수정 검토료
- 1책당 2인, 1인당 120,000원
9. 편찬 연구 보조원 수당
- 1책당 550,000원
10. 편찬 추진비(여비, 수정보완 작업비, 편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 1책당 600,000원, 지방소재 개발기관은 1책당 240,000원을 증액 계상
11. 심의본 복사비
- 교과서 및 지도서 예정 쪽당 250원씩 6회를 기준으로 계상
12. 일반 사무비(자료구입비, 기타 사무비)

- 1책당 150,000원

이상의 내용으로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 도서 편찬 예산 규모와 내역을 보면, 제 4차 교육과정기에 비해 교과서 원고료, 삽화료 등이 인상되어 개발비가 그 이전보다는 나아졌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과서 개발 예산은 부족한 편이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일반 시중에 잡지 원고료가 원고지(200자) 1매당 3,000원~5,000원 이상이었는데 비해, 교과서 원고료가 5,000원, 교사용 지도서 원고료가 2,400원이었던 것은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유능하고 저명한 학자들 중 일부는 저렴한 원고료를 이유로 교과서 집필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 교과서 출판 제도

① 교과서 출판 조직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출판에 관한 행정적인 업무는 편수관리관실(행정직제상의 명칭은 아니나 통상적인 명칭)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국민 학교의 교과서는 모두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이었다.

문교부는 이들 교과서의 발행 및 출판에 관한 업무는 제 4차 교육과정기까지는 국정교과서 주식회사에 위촉, 대행시켰다. 그런데 제 5차 교육과정기에는 국민학교 교과서 발행권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

제 5차 교육과정기에 국민학교 교과서에 보조교과서의 출현 등으로 발행 책 수가 크게 증가하자 국정교과서(주) 단독으로 교과서를 적기에 생산 공급하기가 어려워져서 일부의 발행권을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 부여하였다(1987.12.3. 편관2514-771). 그래서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국민학교 교과서 발행 업무는 국정교과서(주)와 대한교과서(주) 등 양 출판사가 담당하였다.

당시에 문교부의 편수관리관실에서는 교과서 발행 및 출판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 이를 국정교과서(주)와 대한교과서(주)에 지시하고, 교과서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행정적인 지휘·감독 업무를 맡았다.

국정교과서(주)와 대한교과서(주))는 문교부로부터 국민학교 교과서 발행권을 부여받아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전량을 발행, 공급하였다. 양 출판사 중 대한교과서(주)는

1990년부터 공급하는 교과용 도서 총 130종 219책 중에서 25종 52책(23,7%)과 1991년부터 공급되는 사회과 탐구(4·5·6년) 3종 6책을 맡아 발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종전과 같이 국정교과서(주)에서 생산 공급하였다.

② 출판(생산)과정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국민학교 교과서는 시장 생산이 아닌 주문 생산이었다. 1종 교과서인 국민학교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8조, 제 29조에 의거, 모두 국정교과서(주)와 대한교과서(주)가 문교부로부터 생산과 공급을 위탁받아 대행하였다.

당시에 국정교과서(주)와 대한교과서(주)의 교과서 생산과정을 보면 문교부에서 교과서의 결재본을 받으면 국민학교의 재적수와 전년의 교과서 공급률을 바탕으로 당해 학기의 예상부수와 각 지방의 공급인으로부터 보고된 주문 부수를 산정하여 총 예상부수를 산정하고 예비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문교부에 보고한다. 문교부는 각 시·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에서 보고된 주문 부수를 기초로 하여 예비 생산 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생산 부수를 확정, 통보하면 이에 따라 생산에 착수한다.

교과서 생산은 1학기용은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2학기용은 3월부터 6월까지를 생산 기간으로 하였다. 당시(1990년)의 초등학교 학생수가 4,868,713명으로 이들에게 교과서가 초과 생산되거나 부족함이 없이 적기에 차질 없이 배부되기 위해 생산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였다.

3) 교과서 발행 공급 제도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국민학교 교과서 공급에 관한 업무는 편수관리관실에서 관장하였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국정교과서주식회사에서 대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교과용 도서의 공급제도는 1977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면서 종래에 민간이 담당하던 공급인 제도가 폐지되고, 교과서 공급 대행 기관 지정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제 5차 교육과정기에도 대행 기관인 국정교과서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이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당시에 교과서 공급 대행 기관인 국정교과서(주)는 시·도에 지부 9개소, 시·군 교육청에 공급소 181개소를 두었고, 이들 공급 담당 직원은 지부의 공급인은 국정교과서(주) 사원이었고, 각 공급소의 공급인은 국정교과서(주)의 촉탁 사원으로 모두 급여를 국정교과서(주)에서 받았다. 공급사무소의 사무실은 지부는 시·도 교육위원회에 두었고 공급소는

시·군(구) 교육청에 두었다.

공급인들의 주된 임무는 교과서의 주문, 공급, 반품 처리, 교과서 대금 정산 등을 맡아 처리하였다.

실험적인 조치였지만 1989년 10월 1일부터 1990년 3월 31일까지 온양, 상주, 진해 등의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서점상을 공급인으로 하는 공급방식을 실험·운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 결과가 예상대로 정가 인상 요인으로 등장하여 전면적인 실시는 곤란한 것으로 판명되어 종전의 제도를 그대로 지속하였다.³⁴⁾

4) 국민학교 교과서의 특징 및 비망

① 국민학교 교과서 편찬상의 특징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개발된 국민학교 교과서는 1989년부터 연차적으로 현장에 보급 적용되어 1991년 사회과 탐구(4·5·6학년)를 끝으로 개발·공급이 완료되었다. 이 5차 교육과정기의 국민학교 교과서 편찬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가 종래의 ‘1교과 1교과서’의 틀에서 탈피하여 복수 교과서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국어 교과는 종래의 1개의 국어 교과서에서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3개 교과서로, 산수 교과도 산수와 산수 익힘책의 2개 교과서로, 통합 교과인 바른 생활 교과도 바른 생활과 바른 생활 이야기의 2개 교과서로, 슬기로운 생활 교과도 슬기로운 생활과 관찰의 2개 교과서로, 도덕 교과는 도덕과 생활의 길잡이의 2개 교과서로, 사회 교과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사회와 사회과 탐구의 2개의 교과서로, 자연 교과는 자연과 실험·관찰의 2개 교과서로, 실과 교과는 실과와 실습의 길잡이의 2개 교과서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종래의 독본 기능 중심의 교과서에서 보다 다양한 기능을 지닌 학습용 교재 또는 보조교과서의 기능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의 단일본 중심의 1종 교과서가 가지고 있었던 경직성을 탈피하여 교육과정 정신 구현을 위한 자료를 보다 다양화시키고 현장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인 수업 방법으로 지속되어온 암기 중심, 지식 전달 위주의 교수·학습 과정을 변화시키려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 교과서 복수제도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김용만 동경 한국학교 교장(당시 초등학교 사회과 편수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³⁵⁾

34) 김태웅 외, ‘교과용도서 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연구보고서, p.1., p.21.

35) 한국 교육과정 교과서 연구회, ‘인물로 본 편수사’, p.92.

“…… 이 교과서 복수 제도는 김철연 교육과정 담당관의 추진계획과 편수관리관실의 김진동 과장, 김왕복 사무관 등의 예산확보로 어렵게 성취된 것이다. 처음의 안에는 사회과 교과서는 복수화 안에서 제외되었으나, 사회과도 탐구학습 중심으로의 전환과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대한 다양한 자료제공이라는 명분하에 필자가 한명희 사회과학 편수관, 김진동 편수관리관실 과장의 협조를 얻어 본 교과서가 개발된 1년 후에 편찬되도록 성사시켰던 것이다.”

둘째가 사회과 4학년 1학기용 교과서를 시·도 단위로 편찬한 것이다.

모든 교과서가 중앙에서 편찬되어 동일한 내용을 가진 교과서를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토록 한 종래의 교과서 편찬제도에서 하나의 혁신적인 큰 변화로 이는 교과서 편찬사에 기록될 일이라 하겠다. 좋은 교과서란,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 및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편찬된 교과서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지역 교과서가 편찬되지 못하고 현장 교사로 하여금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가르치도록 주문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사회과에서 자기 고장의 지리와 역사를 다루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교과서 편찬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역사 분야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향토사 교육문제가 제기되곤 하였다. 향토사 교육은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해 쉽게 흥미를 갖고 접근하게 하고 역사교육에 의 기본적인 방법을 훈련하는 기회를 가지게 하며, 자기 고장에 깊은 애정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역사 교육학계에서 향토사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의 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하여 왔다. 이를 위해 국가사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결정하고 향토사 내용은 지방 시·도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곤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과서에 향토단원 설정 문제나 이에 따른 향토 단원의 개발은 더욱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³⁶⁾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학교 사회 교과서(4-1)를 각 시·도 교육위원회 단위로 개발, 적용토록 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라 하겠다. 지역 교과서 편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동경 한국학교 김용만 교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 이것은 각 시·도의 사회적 사실과 현상을 학습 대상으로 하는 4-1 사회 내용을 전국 통용의 단일 교과서로 다름으로써, 교사들에게 재구성의 부담을 주어 많은 원성을 받고 있던 것을 해결한 것이었는데, 교육과정의 내용에 충실하고 본질적 사회과 학습을 위한 것으로 사회과 교육사상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것도 필자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제 4차 교육과정 때의 교과서부터 시·도별 편찬을 주장하였으나, 편찬의 번거로움, 예산 증가 등의 이유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 때, 이를 위한 김진동 과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은 잊을 수 없다. ……”

36) 윤종영, ‘국사과 제6차 교육과정 구성 방향’, 교육과정교과서연구, 제1권 1호, 1991.

② 교과서 소송 문제

교과서에 대한 소송은 주로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중등학교 국사 교과서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제 5차 교육과정기에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어 뒤에 교과서 개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소송사건은 두건으로 한 건은 1987년 2월 12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국민학교 3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린 ‘찾아야 할 고향’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1989년 11월 16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국민학교 5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린 ‘밭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모두 교과서 편찬자가 원작자를 밝히지 않고 작자의 글을 임의로 교과서에 발췌, 수록한 것에 대한 소송 사건이었다. 이 사건 모두 원저자가 저작권 침해를 들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건으로 재판 결과 국가가 각각 500만원의 배상금을 물었다. 이 두 사건은 교과서 개발을 하면서 별로 의식하지 않았던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교훈을 남기었다고 보겠다. 이 두 사건에 직접 관여하였던 전 문성중학교 정준섭 교장(당시 국어담당 편수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저술한 바 있다.³⁷⁾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과서 편찬에 관한 업무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았었다. 교과서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어서, 일상의 생활에서도 ‘교과서대로 하였다’고 하든지, ‘교과서대로 하라’는 말은, 사회가 이상으로 생각하고 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을 실천하였다는 의미로 통하였다. 그러한 교과서였기 때문에, 교과서에 어떤 사람의 글이 실리면 그 사람은 일약 국민적 스타가 되었다. 따라서, 교과서를 편찬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저명 인사이건, 그렇지 아니하건 교과서에 실릴 글을 구한다거나, 일부를 인용할 필요가 생겨 저자의 양해를 구하면 당사자들은 무척이나 고맙게 생각하였다.

법률 해석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 대단하여,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리는 글을 그 교육적 이유를 들어 저자를 밝히지 않고, 그 글의 내용을 교육적 필요에 따라 편찬자의 뜻에 따라 임의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치적 민주화와 개인의 권리 신장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관용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정부 조직은 거대한 공룡처럼 되었고, 관행은 고치기 힘든 타성이 되어,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른 정책 개발을 발빠르게 맞추지 못하고 있었다. 교과서에 실리는 글의 원고료나 보상은 현실에 맞지 않는 수준이었다. 전혀 대가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저자들은 자신들의 명성 때문에 오히려 여러 모로 로비를 하면서 자기 글이 교과서

37) 교육과정 교과서연구회, ‘편수의 뒷안길 3’, pp.143-145.

에 실리기를 바랐다. 이러한 형편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예산 증액의 문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으며, 국가의 계획적인 예산의 운영에서 교과서 편찬은 완전한 후순위였다. 경제 개발과 국방 강화가 그 시대의 모토였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편수업무를 맡은 업무 담당자들의 개인적 자질과 열성이 예산과 관련 없이 양질의 교과서를 산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였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부터도 어떻게 질 좋은 교과서를 생산하느냐에 대한 것만이 최고의 목표였지, 법률 해석에 관한 사회적 한도가 시대 변화에 따라 점차로 줄어들고 있음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고, 교과서 개발기관이나 실제 업무를 맡은 교수나 교사들도 이러한 문제에 소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3) 중등학교 교과서 편찬 · 발행

1) 교과서 편찬 제도

제 5차 교육과정기의 중등학교 교과서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생산 · 공급되었다. 중학교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고시된 1987년부터 개발되어 1989년에는 1학년, 1990년에 2학년, 1991년에 3학년 순으로 연차적으로 공급 · 적용되었다. 고등학교 교과서도 교육과정이 고시된 1988년부터 개발되어 1학년은 1990년에, 2학년은 1991년에, 3학년은 1992년에 연차적으로 공급 · 적용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교과용 도서 중 도덕, 국어, 국사, 사회과의 교과서 및 지도서와 실업 · 가정 교과와 기술, 가정, 실업 · 가정 교과서 및 지도서는 1종 도서였고,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외국어(영어) 교과와 교과서 및 지도서와 사회과부도 및 미술과의 서예는 2종 도서로서 제 4차 교육과정기에 비해 2종 도서가 확대되었다.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중 국민윤리, 국어(문학제외), 국사, 정치 · 경제, 사회 · 문화, 교련 등의 교과서와 지도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서가 2종 도서였다. 이와는 별도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양 선택 과목인 철학, 논리학, 교육학, 심리학, 생활경제, 종교 등과 방송통신 고등학교의 전 교과서, 국악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서 등은 인정도서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었다.

이상의 제5차 교육과정기의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중 1종, 2종 도서 및 인정도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³⁸⁾

38) 문교부, ‘집필상의 유의점’

〈표 VI-13〉 중학교 1·2종 교과용 도서 목록

[1종 도서]
도덕(1.2.3학년), 국어(1-1,1-2,2-1,2-2,3-1,3-2), 국사(상, 하), 사회(1.2.3학년), 가정(1.2학년), 기술(1.2학년), 기술·가정(1.2학년), 농업, 공업, 수산업, 가사
[2종 도서]
수학(1.2.3학년), 과학(1.2.3학년), 체육(1.2.3학년), 음악(1.2.3학년), 미술(1.2.3학년), 서예, 한문(1.2.3학년), 영어(1.2.3학년), 사회과 부도

〈표 VI-14〉 고등학교 1·2종 교과용 도서 목록

[1종 도서]
국민윤리, 국어(상, 하), 문법, 국사(상, 하),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련(남), 교련(여), 수산업, 정보산업,
[2종 도서]
문학, 작문, 한문, 영어Ⅰ, 영어Ⅱ,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본어, 체육, 음악, 미술, 서예,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역사부도, 지리부도, 일반수학, 수학Ⅰ, 수학Ⅱ, 과학Ⅰ, 과학Ⅱ,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상업대요, 상업부기, 전자계산일반, 상업계산, 타자(한글) (40종)
[인정 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 논리학 1책, 철학 1책 • 1988년 : 철학 1책 • 1989년 : 종교(기독교. 상. 중. 하) 3책, 심리학 1책, 논리학 2책, 생활경제 2책 • 1990년 : 종교(불교. 상. 하) 2책, 철학 1책, 방통고 교과서 13책, 국민학교 사회과 25책, 깨끗한 생활 12책 • 1991년 : 생활 경제 3책, 방통고 교과서 14책 • 1992년 : 방통고 교과서 10책, 국민학교 사회과 25책, 교육 자료 2책 • 1993년 : 종교(천주교) 1책, 비서 실무 1책, 비서 일반 1책, 국민학교 사회과 19책, 환경 탐구 2책

① 1종 도서 편찬 절차

제 5차 교육과정기의 중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1종과 2종 도서로 편찬·발행되었다. 1종도서 편찬 절차는 국민학교 1종도서 편찬 절차와 대동소이한 ‘연구 위탁 개발형’이었다. 이러한 1종 교과서의 개발은 문교부 교과담당 편수관이 교과서 편찬계획을 수립, 장관

의 결재를 얻어 교과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위탁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였다. 편찬 절차는 국민학교 편에서 상세히 기술하였기에 개략적으로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편찬 기본 계획 수립 - 연구 개발기관 선정 위탁 -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 - 집필계획 승인 및 예산교부 - 원고 집필 - 원고본 심의 - 수정보완- 개고본 심의 수정 보완 - 종합검토 - 현장 검토 - 결재본 제출 - 발행 - 공급

이상의 절차 중 국민학교 교과서 개발 과정과 다른 점은 현장실험이 중등학교에서는 현장검토라는 약식 현장 실험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상급학교 진학 시험과 관련하여 교과목의 이수문제, 1종 도서와 2종 도서의 혼용 적용문제, 학기용이 아닌 학년용 교과서의 실험 적용의 곤란한 문제,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완전한 현장 실험을 하지 못하고 일종의 약식 실험으로 교과 담당 교사들에게 2주 정도 검토한 후 검토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제 5차 교육과정기의 중·고등학교 1종 도서 개발기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⁹⁾

문교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어 교과서 및 지도서의 편찬 위탁을

〈표 VI-15〉 중학교 1종도서 연구 개발 기관

교과서 및 지도서	연구 개발 기관
도 덕(1·2·3학년)	한국교육개발원
국 어(1-1,1-2,2-1,2-2,3-1,3-2)	한국교육개발원
국 사(상·하)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사 회(1·2·3학년)	한국교육개발원
농 업	서울대학 농대(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공 업	한국교원대학교(자연과학 연구소)
상 업	홍익대학교(경영 연구소)
수산업	부산수산대(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가 사	한국교육개발원
가 정(1·2학년)	서울대학 가정대(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기 술(1·2학년)	충남대학교(공업교육 연구소)
기술·가정(1·2학년)	한국교육개발원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를 조직하고 연구진, 집필진을 구성,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 집필지침에 의거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개발을 추진한다. 이러한 추진과정

39) 문교부, '1종도서 편찬 세부계획서' 1989년, 1990년, 1991년.

〈표 VI-16〉 고등학교 1종도서 연구 개발 기관

교과서 및 지도서	연구 개발 기관
국민윤리	서울대학 사대(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국 어(상·하)	서울대학 사대(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문 법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원)
국 사(상·하)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정치·경제	한국교육개발원
사회·문화	한국교육개발원
교 련(남)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교 련(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수산업	부산수산대(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정보산업	광운대학교(정보과학 연구소)

은 국민학교 편에서 기술하였기에 중복을 피해 집필지침 중 교과목별 지침 일부를 예시하여 보겠다.⁴⁰⁾

[중학교 3학년 도덕 교과서]

1.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맞게 교과내용을 선정·조직 구성하되 중학교 3학년 학생 수준에 맞도록 평이하게 기술한다.
2. 기초적인 윤리학, 사회윤리의 문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과 통일교육 등을 강조, 인지적 접근을 심화 발전시키도록 유의한다.
3. 도덕적인 원리 이해와 이데올로기 비판 능력 및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능력 배양을 강조한다.
4. 제재는 가능한 “생각한 거리”와 “도덕적인 문제”중심으로 기술하고, 가능한 탐구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집필한다.
5. 단원별 쪽수 배열은 균형을 유지하고, 사진 및 삽화 자료는 내용과 연관되게 의미 있는 것으로 선명하게 제시한다.
6. 종교, 성별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예화는 가능한 우리의 것으로 제시한다.
7. 전통적인 가정윤리 문제를 생활윤리 차원에서 새롭게 정리·체계화하여 발전적으로 제시한다.
8. 공산사회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공산주의 이념의 허구성을 분명하게 제시토록 한다.

40) 문교부, ‘1종도서 편찬 세부계획서’ 1989년, 1990년, 1991년.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1.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과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설화된 내용으로 집필한다.
2. 인문계 학생의 과정별 선택과목이기는 하지만 실업계 등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특히 법단원은 평이하게 서술한다.
3. 중 사회 교과서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집필한다.
4. 특수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등 보편화된 내용으로 집필한다.
5. 통계자료는 최신의 것으로 정부 확정 통계를 인용하되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6. 삽화나 사진은 최신의 것으로 정확하며 내용 이해에 밀접한 것이어야 한다.
7. 단원별로 쪽수의 균형을 유지하되, 어려운 용어는 각 주 처리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지도서]

1. 학습 지도 안내서와 학습 자료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하되 체제 및 내용은 현행 교사용지도서를 발전적으로 준용한다.
총론에는 국사과의 성격, 국사교육론, 연간지도계획 등과 각론에는 단원의 개관, 단원 목표, 단원전개계획 등을 포함하되 교과지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신하게 구성한다.
3. 교사들이 지도내용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가능한 풍부하게 제시하도록 한다.
4. 학습내용에 따라 다양한 학습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② 1종도서 편찬 예산

제 5차 교육과정기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출판 예산은 교과서 원고료를 국민학교는 판형에 관계없이 쪽 당 14,500원, 개고료는 판형에 관계없이 교과서 쪽 당 6,000원(쪽수의 25%만 계상)으로 다였다.

국민학교 예산에 비해 중·고등학교는 원고지(200자) 매당 5,000원에 근거하여 국판은 쪽 당 17,500원, 4·6배판은 쪽 당 27,500, 개고료는 원고지(200자) 매 당 2,000원 근거하여 국판은 쪽 당 7,000원, 4·6배판은 쪽 당 11,000원(쪽수의 25%만 계상)으로 한 것 이외는 국민학교와 대동소이하여 생략하였다.

③ 2종도서 편찬 절차

제 5차 교육과정기의 중·고등학교의 2종 도서는 제4차 교육과정기에 비해 교과목수가 확대되고 교과목당 합격 종수가 5종류에서 8종류로 증가한 것(고등학교만 적용) 이외는 편찬절차(검정절차)상의 변화는 거의 없다. 2종도서 편찬절차(검정절차)에 대하여는 검인정(2종)편에서 상세히 기술하였기에 여기서는 1988년 4월 20일, 문교부가 199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용할 고등학교 2종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를 위해 공고한 것을 중심으로 편찬 절차(검정절차)를 살펴보겠다. 검정실시 공고는 적어도 2종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전에 하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13조에 규정되어 있다.

1. 신청 자격 : 현재 최근 3년간 매년 10종류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와 검정 신청한 2종도서의 출판에 관한 약정을 한 저작자(원고를 집필한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2. 검정할 교과목

- 어문 및 예체능 계열(14종)
- 사회 및 자연 계열(14종)
- 실업 계열(12종)

3. 검정 신청 예정자 등록 : 1988년 6월 1일

4. 심사본의 제출 부수

책별로 5부(공판인쇄, 프린트, 제록스, 또는 인쇄등으로 가쇄한 것)

5. 수수료 : 신청가격의 400배(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

6. 검정 신청 기간

가. 교과서

- 어문 및 예체능 계열 : 1989년 1월20일 - 1월30일
- 사회 및 자연 계열 : 1989년 1월20일 - 1월31일
- 실업 계열 : 1989년 1월20일 - 2월 1일

나. 지도서 : 교과서 1차심사 결과 합격된 도서에 한함

7. 과목당 합격 예정 종수 : 과목별 5종류 이내(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8종류가 됨)

검정 실시 공고 이후 2종 교과서를 출원하고자 하는 저자들은 2종도서 신청자격이 있는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문교부에서 제시한 ‘집필상의 유의점’에 의거, 집필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저자보다는 출판사가 주체가 되어 저자들을 선정, 약정을 맺고 교과서

를 집필케하여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정신청을 받은 문교부는 교과목별로 1차 심사를 위해 5인의 심사위원을 위촉, 문교부가 정한 검정 기준(검인정편에 예시함)에 의거, 심사를하여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1차에 합격된 도서에 한하여 지도서를 제출토록 하여 교과서와 함께 2차 심사를 한다. 2차 심사에 있어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문교부에서 교과서에 지시한 수정, 보완 이행여부와 함께 지도서를 심사하여 최종합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공고한다.

합격된 2종 도서의 유효 기간은 최초 사용 학년도로부터 5년 간으로 하고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차 교육과정기의 2종 교과서 검정 상황을 보면, 1988년 중학교는 검정신청 종수 312종에 합격본은 45종이었고, 1989년 고등학교는 검정 신청 종수 513종에 합격본 351종이었다. 이를 교과목별로 보면 <표 VI-17><표 VI-18>과 같다.⁴¹⁾

제5차 교육과정기 중·고등학교 2종교과용 도서개발에 기준이 된 집필지침 중 일반지침은 국민학교편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였기에 이를 피하고 중·고등학교 교과목의 집필지침 일부를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과학과 교과서]

1.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영역별 내용 설명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고, 자연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개하여야 한다.
2. 내용은 과학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조직하되, 학생 수준에 맞게 무리없이 전개되어야 한다.
3. 내용은 타 개념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습 위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리없이 심화되어야 한다.
4. 과학의 과정과 결과를 조화시켜 제시함으로써 과학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개하여야 한다.
5. 과학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된 내용에서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6. 탐구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탐구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7. 실험은 탐구 활동이나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선정하되, 그 결과가 분명하고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41) 이대의, '현행 교과서제도와 교과서 업계의 동향', 교과서 연구 2호, pp.46~47, 서울 : 한국 2종 교과서 협회, 1989.

〈표 VI-17〉 중학교 2종 교과서 검정 신청 종수 및 합격 종수(1988년)

교 과 목	신청 종수	합격 종수	비 고
수 학	48종	5종	
과 학	26종	5종	
영 어	64종	5종	
한 문	76종	5종	
체 육	22종	5종	
음 악	26종	5종	
미 술	21종	5종	
서 예	18종	5종	
사회과부도	11종	5종	
합계	312종	45종	

〈표 VI-18〉 고등학교 2종 교과서 검정 신청 종수 및 합격 종수(1989년)

교 과 목	신청 종 수	합 격 종 수	교 과 목	신청 종 수	합 격 종 수
문 학	20종	8종	작 문	17종	8종
체 육	16종	8종	음 악	16종	8종
미 술	11종	8종	서 예	7종	7종
한 문	35종	8종	영 어	40종	8종
독 어	23종	8종	불 어	14종	8종
에스파냐어	2종	2종	중국어	4종	4종
일본어	22종	8종	한국지리	11종	8종
세계지리	11종	8종	지리부도	8종	8종
세계사	6종	6종	역사부도	7종	7종
일반수학	34종	8종	수학 I	30종	8종
수학 II	28종	8종	과학 I	12종	8종
과학 II	8종	8종	물 리	8종	7종
화 학	8종	7종	생 물	10종	8종
지구과학	8종	7종	기 술	7종	7종
가 정	8종	8종	공 업	6종	6종
농 업	3종	3종	상 업	7종	-
수산업	-	-	가 사	3종	3종
상업대요	10종	8종	상업부기	13종	8종
전자계산일반	16종	8종	상업계산	11종	8종
타자(한글)	13종	8종			
합 계				513종	351종

8. 학년당 실험의 총 수는 배당 시간 수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각각의 실험 활동은 원칙적으로 45분 이내에 끝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9. 자율 학습이 가능하고 개념, 원리, 법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와 설명을 충분히 하고, 예제를 풍부하게 제시하도록 한다.
10. 중단원 끝에는 학습한 결과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충분히 제공한다.
11. 단원의 끝에는 주요 개념을 요약 정리하고, 종합 문제를 제공하되, 종합 문제는 단편적인 문제보다는 몇 개의 개념이나 법칙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탐구 활동과 관련된 것을 제공하도록 한다.
12. 과학자의 업적 존중, 공해 문제의 극복, 인구 문제, 성 교육, 자연 및 자원의 보존과 그 이용 등은 관련 단원에서 충분히 다루도록 한다.
13.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각 단원마다 좋은 소재를 선정하여 읽을 거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14. 단위와 표시는 원칙적으로 국제 단위계에 따르되, 관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따르도록 한다.
15. 물리량을 나타내는 문자는 이탤릭체로, 단위를 나타내는 문자는 명조체로 표시하여 서로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16.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 단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집필한다.

1학년(예시)

(가) 대기와 물의 순환

- 초등학교 6학년과 연계를 고려하여 내용의 설명을 쉽게 진술하도록 한다.
- 열과 온도, 열의 이동은 대기와 물의 순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쉽게 다루도록 한다.
- 바람에 관련되는 힘, 기후 등은 다루지 않는다.

(나) 주변의 생물

- 교육과정에 제시된 동식물 문(門)에서 대표적인 것을 학습 소재로 선정하되, 채집하기 쉽고 관찰하기 좋은 것을 선택한다. 또, 분류학적인 체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생활 양식, 환경과의 관계, 구조 등을 다루어 흥미를 가지게 한다.

(다) 물질의 성질

생활 주변의 물질을 소재로 선정하여 물질의 성질을 다루되, 화학적인 특성은 다루

지 않아야 한다.

- 특히 용해도, 농도 등에서 복잡한 수치의 계산으로 인하여 학생의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물질의 분리에서는 실험 기능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기구를 취급하여 보도록 하며, 복잡한 실험은 피하여야 한다.

(라) 힘과 운동

- 여러 가지 힘은 힘이 작용할 때의 물체의 변형이나 운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하되, 마찰력, 자기력, 전기력, 중력의 수식은 취급하지 않는다.
- 힘과 운동에서는 직선상에서의 위치 변화와 속력은 정량적으로 취급하며, 힘과 물체의 속력 변화 및 힘과 물체의 운동 방향 변화는 정상적으로 취급한다.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1.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의 기술을 지양하고 역사의 기본 개념 위주로 내용을 간략하고 평이하게 기술하되 역사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 문화권 별로 양적인 배분에 유념하여 각 지역의 역사가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한다.
3. 각 시대별 기술내용은 근대 이후에 비중을 늘이고 특히 아시아 각국 근대화의 자생적인 점을 강조한다.
4. 국사와의 횡적인 관계를 지으면서 세계사 속에서 우리 역사를 객관화하여 볼 수 있도록 유념하여 기술한다.
5. 중학교와의 계열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수준에 알맞도록 내용을 구성, 기술한다.
6. 다음 각 단원의 구성 및 내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단원1 ‘세계사와 우리의 생활’ 내용은 세계사를 배우는 목적, 세계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 등 세계사 입문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 기술한다.
 - 2) 단원2 나) ‘중국의 고대 사회’에서는 한(漢)대까지를 다룬다.
 - 3) 단원3 가) ‘동아시아 문화권의 성립’에서의 중국사는 당(唐)대까지를 다룬다.
나) ‘동아시아 사회의 변혁과 동서문화의 교류’에서의 중국사는 원(元)대까지를 다룬다.
7. 교과서 앞 부분의 화보는 가능한 한 색채 화보로 한다.

2종 교과용 도서의 집필을 위해 문교부가 제시한 ‘집필상의 유의점’에는 이상의 집필 지침 이외에도 판형, 쪽수, 지질, 색도, 체제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2종 교과서 편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2종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자유 경쟁 체제를 통한 교과서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었다는 견해들이 제기되곤 하였다. 또, 집필기간이 짧은 것도 계속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앞에 예시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1988년 4월에 검정 공고를 하고 교과서 심사본 제출이 1989년 1월로 되어 있어 공식적인 집필기간이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교과서 집필자나 출판사가 그 이전부터 준비하여왔다 하여도 이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교과서는 졸속 집필에 졸속 제작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교과서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검정심사에 대하여서도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곤 하였다. 검정심사 기간이 보통 1개월 정도인데, 교과별로 차이가 있지만 심사본이 많은 경우에는 60여종에 책권수로 3개 학년을 합해 180여권이 되는 것을 6인의 심사의원이 이 기간 동안에 정확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정시기 문제, 검정심사 방법 문제, 합격종수의 제한 문제 등 검정심사제도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질 높은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당시 지학사의 2종 영어 교과서 편찬을 담당하였던 김영철은 집필 기간과 심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⁴²⁾

“…… 교과서의 필자는 대학 교수이거나 중·고등학교의 교사이다. 이들은 학문적으로나 경험에 있어서 교과서를 쓰는데 별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이들은 교과서 집필이 주업이 아니라 자신의 본업에 병행하는 것이다. 틈틈이 자신의 시간에서 연구하고 집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과서 제작의 짧은 일정은 필자들의 쫓기는 시간 속에서 옛것을 재탕하거나 약간의 수정을 거쳐 다시 심사본으로 둔갑하게 된다. 영어 교과서의 경우 어떤 본문은 약 20여년간 중·고등학교에 오르내리면서 계속 게재되는 기이한 현상도 벌어지게 된다. 또한 중학교의 교과서가 집필된 후에 곧바로 이들이 다시 고등학교의 교과서를 집필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중학교 교과서보다 질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영어 교과서의 경우 중학교의 심사본은 종수로는 60여종, 권수로는 120여권, 고등학교의 경우 종수로는 40여종, 권수로는 약 120여권이 된다.

이러한 심사본이 몇몇의 심사위원에 약 1개월에 걸쳐 심사하는데 무리한 일정과 주관적 판단에 의해 졸속심사가 되지 않는가 우려된다.”

42) 김영철, ‘졸속 집필과 졸속 심사를 벗어나자’, ‘교과서 연구’ 2호, p.85. 1989.

2) 교과서 출판 제도

① 출판 조직

제 5차 교육과정기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출판은 1종(국정) 교과서와 2종(검정) 교과서로 2원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었다.

1종 교과서의 출판은 초등학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문교부 편수관리관실의 행정적인 지휘 통제 하에 국정교과서주식회사와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 발행권을 부여, 출판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는 국민학교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주),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주로 대한교과서(주)에서 출판하던 것을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일부 조정하여 양 출판사가 초·중등 1종 교과서 출판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대한교과서(주)에서 도덕, 국사, 사회 교과서 및 지도서를, 국정교과서(주)가 기술, 가정,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의 교과서와 지도서를 출판하였다(수산업의 지도서는 대한교과서(주)에서 출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련 교과서(재향군인회 출판)를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국민윤리, 국어, 국사, 정치·경제, 수산업, 정보산업, 사회·문화 등의 교과서 및 지도서와 실업계 및 기타계의 교과서와 지도서 전부를 대한교과서(주)에서 출판하였다.

2종 교과서의 출판은 2종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출판사(현재 68개)가 참여하여 구성된 ‘한국2종교과서협회’가 2종 교과서 모두를 출판하고 있다. 한국2종교과서협회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9조에 의거 1982년 8월 1일에 발족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기에 ‘한국2종교과서협회’에 참여한 중등학교 2종 교과서 합격 출판사와 합격 종수를 보면 <표 VI-19>와 같다.

<표 VI-19> 중학교 2종 교과서 합격 출판사 및 합격 종수.

[()은 계열 출판사]⁴³⁾

출판사	합격 종수	비고
동아출판사	45종 (학연사 : 7종)	52종
(주)교학사	42종(교학연구사 : 8종)	50종
(주)금성교과서	35종	35종
(주)지학사	29종(지학사 : 6종)	35종
문호사	12종	12종
(주)민문고	9종	9종
6개사	합계	193종(59%)

43) 이대의, ‘전계서’

7종 합격사	형설출판사, 웅진출판사(주), 보진재(주)
6종 합격사	성안당, 성문사, 능력개발(주)
5종 합격사	동아서적(주), 삼화서적(주), 예지각, 정법문화사, 천재교육(주), 평화출판사
4종 합격사	고려서적(주), 양영각, 태림출판사, 하나출판사, 도서출판한샘
3종 합격사	교문사, 노벨문화사(주), 동보출판사, 박영사, 세광음악출판사, 진명출판사, 청문각
2종 합격사	송산출판사, 연구사, 영재교육, 현대음악출판사
1종 합격사	계몽사, 동명사, 법문사, 보진재출판사, 부민문화사, 삼화출판사, 세진출판사, 시사영어사(주), 우일출판사, 을유문화사(주), 장왕교재연구원(주), 장원사, 탐 출판사(주), 학습개발사, 한서출판사
합 계	43개사 133종(41%)

이상과 같이 중·고등학교 2종 교과서는 52개 출판사가 합격본을 내었고, 이 중 193종인 59%를 6개 출판사(계열사 포함)가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133종인 41%를 43개 출판사가 차지하였다.

② 출판(생산) 과정

제 5차 교육과정기에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출판 과정은 1종과 2종에 차이가 있다. 1종 교과서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국민학교 교과서 출판과정과 같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 출판을 한다.

즉, 문교부로부터 1종 교과서 출판을 위탁받은 출판 대행기관인 국정교과서(주)와 대한교과서(주) 등 양 회사는 문교부 편수관리관실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전국에서 수집된 주문 부수에 의거 총 예상 생산부수를 책정하고, 이에 따른 생산계획을 수립,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 생산을 하였다.

2종 교과서는 1종 교과서와 달리 한 교과목에 여러 종의 교과서가 있어 주문형태가 복잡하다. 각 학교는 주문을 위해 학교와 전시장에 보내어 준 교과서 목록과 견본을 보고 이를 검토, 학교별로 교과서를 채택(선정)하였다.

이렇게 채택된 교과서를 주문하면 2종교과서 협회는 이를 전국적으로 수합, 각 출판사(저자)별로 총 예상 부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생산 계획을 수립한 후 공동 생산을 하게 된다.

③ 교과서 채택

2종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출판사들은 자사의 교과서가 많이 채택되기를 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출판사와 저자들은 자기의 교과서를 채택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과서 채택에 영향력을 가진 학교장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 접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문제를 야기하곤 하였다. 이러한 출판사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교과서 채택 부조리가 사회의 지탄을 받아 왔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자주 논의되어 왔다.

그 동안은 개선책의 일환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52조에 ‘저작자와 발행자는 학교의 교직원에게 그가 저작 또는 발행한 교과용 도서 및 교과용 도서를 이용한 부교재 채택을 권유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어 이를 법으로 금지시켰다. 이 뿐 아니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9조에 의거 검정에 합격한 2종도서의 발행권자로 하여금 ‘2종 교과서협회’를 만들어 공동으로 인쇄, 발행토록 하였고, 또 교과서 판매 이익도 출판사간에 1:1로 하고, 저자의 인세도 과목당 1:1로 분배토록 하여 교과서 채택에 따른 부조리를 원천 봉쇄토록 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기에는 이상의 제도가 정착되어 교과서 채택에 따른 잡음이 별로 없었으나 1989년에 중학교 ‘사회과 부도’의 일부 저자들이 판매 부수대로 인세 지급을 한국2종교과서협회에 요구해 오는 등 교과서 채택에 따른 출판사간, 저자간에 시비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교과서 제도가 시대의 진전에 따라 국정(1종)에서 점차 검인정(2종)이나 자유 발행제도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앞으로 교과서 채택문제는 더욱 중요하여질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어떠한 교과서를 선정, 사용하느냐에 따라 학교 교육의 내용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학교 교육을 좌우하는 것은 교육내용 이외에 가르치는 교사의 질,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수용 자세 및 교육 환경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쉽게 개선하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교육내용은 좋은 교과서의 선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조건이라 하겠다.

그러나 좋은 교과서를 선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교과서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교과서 선호도의 차이, 학생들의 지역에 따른 교육환경의 차이, 또 교과서 저자, 출판사 등의 인과 관계나 로비력 등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 바른 교과서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과서 선정에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교과서 선정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겠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교과서 선정을 한두 사람의 교사가 결정하기보다는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 교과별로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을 모아 선정하는 것이 교과서 선정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과서 선정위원회는 교육환경이나 학생수준이 비슷한 대도시는 지역 교육청, 지방은 시·군 교육청 단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성요원은 각급 학교 교과별 대표 교사, 교과별 교과전문가, 학부모 대표, 교육청 교과별 담당 장학사 등으로 구성하여 보면 좋겠다.

현행 교과서 선정(채택) 제도를 보면,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고 여기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비전문가에게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3) 교과서 발행·공급 제도

제 5차 교육과정기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공급은 국민학교와 같이 문교부에 지정한 공급 대행 기관인 국정교과서주식회사가 1종, 2종 교과서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제도는 1977년 소위 ‘검인정 교과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종전까지 민간에서 담당하여오던 교과서 공급제도를 개정하여 교과서 공급 대행 기관 지정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한 것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2조로 ‘문교부장관은 교과서 및 지도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과서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을 공급 대행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이다. 이러한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공급조직의 구조는 문교부, 시·도 교육청, 학교, 공급소, 발행소 등을 연결하는 복잡한 모습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은 공급소장으로 이들은 교과서 주문에서 학교에 인도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맡았다. 교과서가 발행사에서 발행되어 학생에 공급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면, 발행사는 교과서를 출판한 후에 교과서에 대한 지역별 발송계획(발송일자, 물량)을 수립하고 교과서를 시·군 공급소에 직접 전달한다. 시·군 공급소는 교과서를 학교별로 분류하여 학교에 인도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배부하였다.

이러한 공급제도는 교과서의 적시공급, 채택비리 방지, 공급비용의 최소화 등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나, 공급 대행 기관의 창고수용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한 적기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으며, 교과용 도서의 수량은 계속 증가하여 현재 2억부에 달하는데, 공급소의 주재원이 부족하여(1977년 이전에 414명 현재는 153명) 교과서 인수·인계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등 문제점이 제기되곤 하였다. 그래서 교과서의 원활한 적시 공급을 위하여 현행 공급 제도에 대한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

4) 제5차 교육과정 교과서 편찬 비망

① 국사 교과서 파동

제 5차 교육과정기에 교과서 문제로 문교부 편수진영이 가장 곤욕을 치렀던 것이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파동이었다. 당시에 국사 교과서 내용문제는 세인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우리 건국 이래로 최초로 교과서 내용 문제를 가지고 국회 공청회가 열렸고, 또 교과서 내용에 관한 기사가 중앙 일간지에 1면 톱 기사로 다루어지기까지 하였다.

국사 교과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안호상씨를 비롯한 세칭 재야 학자들이 기존학계에 속한 학자들을 식민주의 사관론자들이라고 공격하면서부터였으며, 이러한 양측의 논쟁의 와중에 국사 교과서가 중요한 쟁점의 표적이 되었다. 이는 재야 학자들이 기존학자 개개인을 선정, 상대하여 공격하기보다 국사 교과서를 기존학계의 연구 산물로 보고 이를 공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제 5차 교육과정기 이전에도 재야 학자들은 국사 교과서 내용을 문제삼아 법정제소, 국회 청원, 국회 공청회 등 파상적인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로 인해 국사 교과서 개정시에는 정상적인 교과서 편수가 어려울 정도의 사태를 몰고 오곤 하였다. 여기서는 제 5차 교육과정기에 일어났던 국사 교과서 파동을 중심으로 전후의 전말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5차 교육과정 이전의 국사 교과서 문제

안호상씨는 1978년 국사 교과서의 내용 시정에 관한 건의서를 대통령, 국무총리, 문교부장관에 제출하였다. 이 건의서의 주요 내용은 주로 고대사에 관한 것으로서 고조선의 강역 문제, 단군신화 문제, 한사군의 위치 문제, 백제의 중국 지배 문제 등으로 기존 학계의 통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문교부는 이 건의서를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보내고 관계학자들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국편에서는 국편위원 및 관계학자 20여명이 모여서 건의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 회신하였다. 국편은 회신문에서 건의문의 내용은 역사의 발전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료에 대한 충분한 비판과 해석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인접과학인 고고학적 뒷받침이 전혀 없으며, 근본 자료가 될 수 없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자료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교과서는 국민교육에 가장 기본적인 교재이므로 새로운 학설이 제시된다 하여도 학계의 정로로 정립되기까지 교과서에 수록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안호상씨 등은 기존학계의 학자들은 자기들이 제시한 중국원전 사료들을 해

석할 능력이 없어 일본인들의 식민주의 사관에 의해 왜곡한 고대사 인식 체계의 틀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안호상씨측은 자기들의 주장이 문교부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법원에 제소하였다. 이 소송은 문교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었는데, 2년여 재판 끝에 이러한 학문적인 내용은 사법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80년에는 기존 학계와 재야 학자들 간에 국사 교과서 내용 문제에 대한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 4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국사 교과서 개정 작업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재야 학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공세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공세는 문교부 역사 편수관에 대한 방문 항의, 다수인을 동원한 민원 제기, 정계 인사를 동원한 압력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와 아울러 안호상씨측은 이 문제를 1981년에는 국회 청원으로 제기, 국사 교과서 시비는 입법부로 옮겨가게 되었고 이 문제는 다시 국민들에게 큰 관심거리로 부각되었다.

이 청원은 청원자를 안호상씨로 하고 소개 의원을 권정달(민정당)의원 외 18인으로 하여 “국사 교과서 내용 시정 요구에 관한 청원”이란 이름으로 국회 문공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 청원서의 요지를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중·고 국사 교과서에 일제시대 식 민사관에 의해 왜곡된 내용이 많아 올바른 국사교육을 해치고 있으므로, 국사 교과서에 남아 있는 허구적인 내용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국사의 고칠점으로는 과거로부터 주장한 설과 같은 내용, 즉 고대사에 관한 것을 들었다. 이 청원서를 받은 국회 문공위원회는 수차에 걸쳐 국사 담당 편수관인 필자와 청원자를 소환,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청원자는 국회의 청원 심사와 의결을 거쳐 청원 내용의 즉각적인 교과서 반영을 주장하였고, 필자는 청원자의 주장이 학계에서 통설로 확정될 때까지는 교과서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문공위원회는 이러한 학문적인 내용을 국회 의결을 통해 교과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하에 먼저 양측의 주장을 듣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문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측은 발표자를 기존 학계측 8명 재야 학자측 3명으로, 발표일자를 ‘81년 11월 26, 27일 양일 간에 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존 학계측은 국편위원을 중심으로 중진 학자로 최영희(국편위원장), 김철준(서울대), 이용범(동국대), 김원룡(서울대), 전해중(서강대), 이기백(서강대), 이원순(서울대), 안승주(공주대) 교수로 결정하고, 청원자측은 안호상(국사찾기협의 회장), 박시인(서울

대), 임승국(한국정사학회)으로 결정하였다. 이 국회 공청회는 문공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방청은 극히 제한되었지만 언론기관 및 국민의 관심은 대단하여 도하 각 신문에 대서 특필하였다.

공청회는 양측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질의가 있어 상당히 열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런데 고대사 분야에 대한 현 학계의 실정이 사료의 부족, 얇은 연구 인력 등으로 별다른 연구 업적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어 재야 학자들의 주장을 압도할 수 있는 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재야 학자들의 주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또 국민 정서상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었다. 그래서 공청회 과정 중에서도 재야 학자들은 극히 공격적이었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로부터 호응과 지지를 받았던 것에 비해, 기존 학계의 발표자는 극히 수세적인 입장에 서서 기존학설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미흡하여 국회의원들로부터 공격성 질의를 많이 받았다. 어떻든 이 국회 공청회로 인하여 국사학계가 고대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국사 교과서에 재야 학자들의 주장이 일부 수록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사 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나.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국사 교과서 파동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국사 교과서 파동은 1986년에 조선일보가 광복 특집 기획으로 ‘국사 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는 연재물로 촉발되었다. 조선일보는 연재 기획 첫 기사를 8월15일자에 1면 톱 기사로 ‘국사 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는 표제 밑에 부제로 ‘일본의 역사 왜곡 이길 고대사 교육 회복 시급’, ‘삼국 건국 연대, 시조 등 증발’ 등의 표제를 달았다. 이 기획 기사 시리즈는 11회까지 연재하고 총정리로 ‘한국사의 새 지평을 열자’라는 제목으로 고고학, 역사학, 인류학, 언어학, 사회학 등 관련학계의 견해를 시리즈로 묶어 몇 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이 기획물의 주요 내용은 우리 나라의 기존 역사학계가 식민주의 사관에 물들어 일본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우리 역사를 그대로 국사 교과서에 쓰고 있으며, 이것이 국민 교육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니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조속히 국사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연재물이 나오자 문교부 장·차관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하였고, 재야 학자들을 비롯한 관심있는 정관계 인사들로부터 이에 대한 진위 여부와 앞으로의 문교부의 대책에 대해 질책성 질의를 계속해오곤 하였다.

필자는 우선 학계의 연구업적을 총정리하여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국사 교과서 개편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구상으로 하였다. 그 때까지 국사

교과서 편찬의 준거가 되었던 것은 1963년에 만든 ‘국사교육 내용 통일안’이었다. 이것은 당시 문교부가 주관하여 구성한 국내 중견 학자들의 회의체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학계의 중지를 모아 만들고 「편수자료」에 수록된 것으로, 준법제적인 성격을 갖고 교과서 편찬에 근거가 되었다.

다. 국사 교육심의회 구성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을 만들기 위해 국내 역사 학계의 중진 학자 30명을 국사 교육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변태섭(서울대)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김정배(고려대) 교수를 선임하였다. 그리고 이 위원 중에서 연구안을 만들어낼 연구 실무팀으로 변태섭(서울대 고려사) 교수를 대표로, 고대사에 이기동(동국대), 신형식(이화대) 교수, 중세사에 박용운(고려대) 교수, 근세사에 한영우(서울대) 교수, 근현대사에 조동걸(국민대) 교수, 역사교육에 김홍수(춘천교대) 교수로 정하였다. 이 연구팀에서는 연구팀 전원이 3일 동안 합숙 작업을 통해 도합 19개 항목에 달하는 준거안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 초안을 가지고 각 전공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수 차례의 회합과 토론을 거쳐 분야별 안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전체회의에 회부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국사 교과서 준거안 개편’ 시안 총 24 개항을 확정하고 이를 1987년 3월 25일 발표하였다. 다음 날 중앙지의 모든 조간신문 1면에 톱 기사로 보도되었다. 기사 제목으로 조선일보는 ‘고조선 중심지를 만주로’, ‘국사 교과서 개편시안 단군 삼국 건국 사실(史實)로 반영’, ‘해방 후, 정치위주 탈피 문화사 중점’, 경향신문은 ‘단군 사실로, 고조선은 만주까지’, 중앙일보는 ‘단군 신화를 사실로 반영’ 등으로 붙이고 모든 신문이 해설 기사로 한 지면을 할애하고 사설도 이를 다루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재야 학자들이 국회의원 및 각종 단체를 동원하여 각종 방법으로 필자에 압력을 가하여 왔다. 이들 압력의 주된 내용은 국사교육 심의위원들의 선정과 관련된 문제로 재야학자를 배제하고, 일부 위원들이 식민주의사관에 물든 학자들이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정치인을 앞세워 직접 문교부를 찾아와 장관을 만나고 장관실로 필자를 호출하여 항의도 하고, 집회도 열고 언론기관을 동원하여 필자의 퇴진까지 요구하였다.

더욱이 1986년 10월에 ‘민족사 바로잡기 국민회의’가 조직되면서 옛날과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안호상 박사, 박창암 장군이 주도하는 ‘자유’지, 서울대학교의 박시인 교수 등 거의 개인적인 활동에 의존한 것이라 정치적 압력 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민족사 바로잡기 국민회의는 윤보선 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에 이종찬 국회의원(민정당 민족사관 청립 추진위원장), 정성태, 윤태림, 구상, 김은호, 이종남, 이재근으로 하고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최규하, 허웅, 이강훈, 윤길중, 김동리,

윤치영, 이희승 등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지도급 인사를 고문으로 삼고, 위원으로는 저명한 국회의원, 교수 등을 참여시켜 조직하였다. 이들은 윤보선씨 덕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정부종합청사 부근에 사무실을 열고 상근 직원까지 고용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 단체는 여러 곳으로부터 재정적 지원도 충분히 받고 있는 것 같았고, 현실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참가하고 있어 그 영향력은 막강하였다. 이들은 장관을 수시로 찾아왔고 장관을 만난 뒤에는 필자의 방으로 몰려와 요구 사항을 내놓곤 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대통령 앞으로 진정서를 만들어 윤보선 의장 명의로 제출하였다. 이 진정서는 변태섭 교수를 비롯하여 반수 이상의 국사교육심의위원을 거명하며, 이들은 식민사관에 물든 매국노이니 교체하라 하였고, 여기에 이 회의 고문, 의장, 부의장 모두가 서명한 것을 첨부하였다. 이 진정서는 다른 진정서와 달리 전직 대통령 모두와 여야 정당 대표 모두가 서명하였기에 청와대나 집권당인 민정당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처리 상황을 주시하였다. 어쨌든 이와 같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사 교과서 개편시안이 나왔고, 모든 언론기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예정대로 작업은 진행되었다. 국사 교육심의회 위원을 보면 <표 VI-20>과 같다.

라.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

국사 교과서 준거안 시안이 발표되자 민족사 바로잡기 국민회의는 이에 대한 공세의 일환으로 ‘국사 교과서 개편시안 설명회’를 마련하여 심의위원들을 청중 앞에 세울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필자나 변태섭 위원장과 전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모임을 계획하고 심의위원에게는 천도교 수운회관에 참석하라는 통보만을 보내었다. 설명회 당일 회의장은 청중으로 대만원을 이루었고, 각 언론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기자들이 참여하였으나, 심의위원은 손보기, 윤내현, 박영석, 이현희, 박성수 교수만이 참석하였다. 다음날 대부분의 신문에 위원석이 텅빈 사진과 함께 설명회에 관한 기사가 났다. 조선일보는 ‘국사교과서 설명회 용두사미(龍頭蛇尾) 심의위원 22명 중 5명만 참석’이라는 제목 하에 ‘주최측의 미숙한 준비와 심의위원의 외면으로 용두사미가 되고 말아 역사에 높은 관심을 갖고 참석한 수많은 청중들을 실망시켰다’고 하였다.

이러한 국민회의측 이외도 시안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주로 재야 학자들과 현장에 있는 역사 교사들이 중심이었는데, 대부분 고대사 분야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 의견들은 종합 정리하여 준거안 시안에 반영되어 전체회의에 부의되었다. 전체 심의회의에서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

로 내용을 확정, 1987년 6월 5일 최종안 35개항을 발표하였다.

다음날 모든 일간지들이 1면 톱 기사로 싣고 해설기사와 사설로 다루었다. 이 중 중앙일보 사설의 일부를 보면 ‘한국사의 주체성 회복’이라는 제목 밑에 ‘이 같은 국사 교과서 편

〈표 VI-20〉 국사 교육심의회 위원 명단

성 명	소 속	전 공 분 야
강우철	이화여대 대학원장	역사교육
이원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
윤세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
김홍수	춘천교육대학	역사교육
김정배	고려대학교	고대사
문경현	경북대학교	고대사
이기동	동국대학교	고대사
신형식	이화대학교	고대사
윤내현	단국대학교	고대사
윤무병	충남대학교	고고학
박성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독립운동사 · 고대사
김원룡	서울대학교	고고학
손보기	연세대학교	고고학
정영호	한국교원대학교	미술사
안휘준	서울대학교	회화사
변태섭	서울대학교	고려사
하현강	연세대학교	고려사
박용운	고려대학교	고려사
한영우	서울대학교	근세사
원유한	동국대학교	근세사
송준호	전북대학교	근세사
이광린	서강대학교	근대사
유영익	한림대학교	근 · 현대사
이현희	성신여자대학교	근 · 현대사
박영석	국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조동걸	국민대학교	독립운동사
김광남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육
김정의	한양여자대학	역사교육
박용진	혜화여자고등학교	역사교육
최병도	서울기계공업고등학교	역사교육

찬 준거안의 내용은 한국사의 주체성 회복과 국사학계의 학문적 심화의 양면을 수렴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라고 쓰는 등 모든 신문에서 긍정적으로 다루었다. 이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은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개편된 국사 교과서에 반영되었으며, 중학교는 1989학년도에, 고등학교는 1990학년도에 보급, 적용되었다. 이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 안의 주요 내용의 일부를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

[고대사 부분]

3] 우리 나라의 청동기 문화가 요령지방과 동일 문화권임을 주지시킨다(청동기 시대의 상한과 국가 기원과 중요한 관계가 있음).

4] 고조선 초기에는 정치적·문화적으로 요령지역이 중심이었음을 설명하고, 이곳에서 주변 지역으로 발전하였음을 설명한다.

5] 단군 신화를 역사적 사실의 반영으로 파악하고, 고조선의 성립이 청동기 문화 위에 전개된 우리 나라 최초의 국가 형성이었다는 사실을 중시하며, 그 정치적·문화적 수준이 발전된 단계에 이르렀음을 명기한다(고조선의 출발이 청동기 시대였음을 명확히 함).

6] 기자의 동래와 기자조선의 실재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학설을 주에서 처리한다.

7] 위만 이전의 고조선의 정치사를 보강하여 칭왕의 사실과 부왕, 준왕 등 실존인물 및 정치 상황을 수록한다.

8] 한군현에 관해서는 근대의 학문적 성과를 유의하여 서술하되 그것이 한국사의 주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한다(위치 문제는 주에서 처리함).

9] 한국 고대의 국가 발달 단계는 1. 군장 국가 2. 연맹 왕국 3. 중앙 집권 국가의 순서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삼국의 건국 전설 내용을 기술하고, 그에 반영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한다.

11] 백제의 중국 요서지방 진출의 사실을 명시하여 삼국인의 해외 활동의 모습을 부각시킨다.

17] 발해사의 비중을 높이고, 신라와의 관계도 대립보다는 상호 교류하고 있었음을 기술한다.

[중·근세사]

1] 나말여초에 새로운 사회 세력으로 호족들이 대두하여, 종래의 고대적인 골품체제가 해체되고 중세적인 사회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설명한다.

5] 조선 왕조는 국호제정과 한양 정도에서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역사 의식을 반영하였음을 밝힌다.

6] 조선 중기 이후의 정치사는 ‘당쟁’이란 용어를 피하고, 당시 보편적으로 쓰이던 ‘붕당’ 정치로 서술하되, 그것이 사회발전에 미친 긍정적 측면과 저해적인 측면을 균형있게 서술한다.

7] 조선 후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 걸쳐 근대 사회로 지향하는 새로운 성격이 형성됨으로써 한국 근대화의 내재적인 요인이 마련되었음을 서술한다.

[근·현대사 부분]

1] 한국의 근·현대사를 3기로 구분하여 한말까지를 제 1기, 일제강점기를 2기, 광복 이후를 3기로 서술하되, 제 2기를 ‘독립 운동의 전개와 발전’으로 파악한다.

2] 한말까지의 단원은 ‘개화’, ‘개혁’, ‘구국’ 운동을 중심 개념으로 하여 구조화한다. ‘개혁’ 운동은 동학운동, 갑오경장, 광무개혁 등을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구국’ 운동은 러·일 전쟁 후의 주권수호 노력과 의병전쟁 및 계몽 운동을 포괄하여 구성한다.

6] 광복 이후사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력 신장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서술한다.

[역사 교육]

1] 국사교육은 학교급별의 계열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는 생활사, 인물사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중학교는 정치사, 시대사 중심의 통사, 고등학교는 문화사, 사회경제사 중심의 주제사적 접근으로 구조화한다.

2] 단원 구성에 있어 고등학교는 선사,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의 시대 구분을 단원으로 하고, 중학교는 정치적인 변화를 중심으로하여 단원을 구성한다.

3] 교과서의 판형을 크게 하여(크라운판) 내용을 충실히 함으로써 참고 자료와 도표, 사진, 삽화 등의 시각 자료를 다양하게 수록하여 학습자료집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읽고 보는 교과서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교과서의 명칭도 가능한 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예 : 교과서명 ‘우리 민족의 생활의 모습’, ‘민족의 전통’

4] 중·고등학교의 국사교과서를 상·하권으로 구분하되, 하권은 근대의 용인이 태동하는 18세기 실학의 발달부터 시작한다.

② 윤리 교과서 교리 파동

중학교 도덕 교과서와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의 내용 일부가 특정 종교에 편향되었

다는 시비가 일어난 것은 제 4차 교육과정기인 1984년이나, 이 문제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져 제 5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편찬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당시 이 문제를 담당하였던 한명희 교장(전 영등포고등학교)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⁴⁴⁾

“1984년 9월 7일자 한국일보에는 ‘중·고·대학 윤리 교재 특정 종교 강조, 불교계에서 크게 반발’, 9월 9일자 조선일보에는 ‘기독교가 전통사상인가, 국민윤리 등 교과서 특정 종교 옹호했다’ 9월 13일자 중앙일보에는 ‘교과서 일부 내용 불교를 왜곡, 불교계 즉각 시정 촉구’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이 보도가 있는 직후, 필자는 청와대 어느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비서관은 교과서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보았느냐고 하면서, 당신 종교는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었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고 대답을 하니, 그러니까 그 따위로 책을 만들었지 하면서 당장 관련 교과서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 비서관에게 신문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일부 바른 지적은 수정을 하겠다고 책을 펴놓고 설명을 하니, 그는 전화 걸 때와는 달리 ‘별거 아니군요, 문교부 계획대로 하세요.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 후 불교계는 10월 8일, 도덕, 국민윤리 교과서의 사용 중지 소원을 제출하고, 10월 15일에는 ‘국정 교과서 인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현행 교과서의 배포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 고법에 제출했었다. 소원과 인가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11월 5일과 11월 30일에 각각 기각되자, ’85년 1월 7일과 3월 15일에 다시 ‘국정교과서 인가 처분의 취소’와 ‘국정교과서 인가 처분의 취소 재제기’를 다시 서울 고법에 제출하기에 이른다. 당시 불교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의 요지를 살펴보면, 도덕, 윤리 교과서는 오랜 민족 종교인 불교를 외래 종교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래된지 얼마 안 되는 기독교를 불교 앞에 기술하고 있으며, 인간의 자각(自覺)은 무시하고 신의 존재만을 부각시킴으로써 기독교 교리를 찬미하는 등 국가의 특정 종교화를 꾀하는 망국적인 교과서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계의 비판은 ‘불교 사상’(’84년 9월 호)에 기고한 동대부고 김형중 교사의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를 고발한다. 기독교인을 위한 교육인가, 한국인을 위한 교육인가?’를 시발점으로 하여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불교계의 비판이 있자, 문교부는 1종도서 편찬 심의회에, 기존에 참여하였던 불교계 인사 외에 동대부고 김봉식 교감을 참여시켜 심의회를 재구성하고, 도덕, 윤리 교과서 검토 작업을 실시하였다. 검토 결과, 대부분의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일부 내용은 불교계의 요구를 받아 들여 수정하기로 하였다.

44) 한국교육과정 교과서연구회, ‘편수의 뒤안길 3’, pp.33-37.

그 때 필자는, 불교계의 지적 사항을 지나친 문제 제기로 보고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불교계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세게 항의를 해 오자, 나중에는 종교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의구심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도 했다.

…… 도덕, 윤리 교과서 외에도 음악, 국어 등 여러 교과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다. 음악의 경우는 교과서가 대부분 기독교를 찬양하는 노래로 편찬되어 있고, 찬불가는 ‘성불사의 밤’ 하나뿐이라고 하면서, 찬불가를 많이 수록해 달라는 요구였다.

…… 국어 교과서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가 처분 취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85년 3월 15일, 국정교과서인가 처분 재제기시에 포함되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5학년 2학기 안중근 의사 내용 중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 천주교에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기독교 편향이 라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종교 이전에 안중근 의사의 개인생활을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된다.

…… 지금은 담담하게 그때 일을 옮기고 있으나, 그때 겪은 마음의 고통은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교과서가 기독교 편향으로 서술되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이곳 저곳에서 비슷한 내용의 항의 전화가 걸려 왔다. 전화 중에는 ‘이 ○○야! 교과서 똑똑히 써!’ 하면서 욕부터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이 과정을 겪으면서 …… 앞으로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는 종교 간 갈등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내용 기술은 물론 수록하는 분량 등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당시에 어려웠던 일을 회고하였다.

④ 과학 교과서의 창조론 시비

인류 기원 문제는 단순히 학문적인 내용으로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교리 문제와도 중요한 관계가 있어 서구 선진 국가에서도 오랫동안 시비가 계속되어 왔던 문제이다. 이러한 인류 기원 문제를 우리 나라 교과서에서는 진화론 중심으로만 다루어 왔었는데, 제 5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이 소개되어 이 문제가 법정 시비로까지 발전되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우리 나라 과학 교과서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던 문제였기에 여기에 이 문제의 전말을 알아보기로 한다. 당시에 이 문제에 처음부터 깊이 관여하였던 정완호(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은 이에 대해⁴⁵⁾ 다음과 같이 쓴바 있다.

“……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유전과 진화’란 단원이 있었다. 물론, 어지간히 내용이 조정되고 협의과정을 거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였다. 어느날 갑자기 이규호 장관께서 중학교 교과서에 진화론만이 아니고 창조론도 삽입하란 말씀을 하셨다. 그 얼마 전에 창조학회 회원 몇 명이 나를

45) 한국교육과정 교과서연구회, ‘편수의 뒤편길 3’, p.153.

찾아와 그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 물론, 창조론을 교과서에 삽입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히 넣거나 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요지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런데 장관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른체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첫째,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집필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교과서를 사진에 비유한다면, 사진을 뽑는 원판은 교육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에 의해서 교과서는 편찬된다. 다만, 그 목표와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습 소재만을 융통성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명시되지도 않은 창조론이란 내용을 교과서에만 불쑥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나는 진화론과 창조론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은 과학의 한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창조론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니까 함께 취급하기가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그래서 결국 제 4차 교육과정 때에는 교과서에 창조론이 삽입되지 않았다. 지금도 민방위, 불조심, 소비자 보호, 국산품 애용, 산아제한 등의 요구가 어떤 외압에 의하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일이라 여긴다. 1990학년도 입학생부터 사용하게된 제 5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 심사 결과 창조론에 의한 법정 시비가 있었던 것은 우리 교육 역사에 중요한 변화에 하나였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던가,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졌다는 차원을 떠나서 창조론의 법정 시비는 이미 구미 각국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4. 결 론

(1) 교육과정 개발

제 5차 교육과정은 교육 외적인 정세 변화의 영향, 요구를 비교적 받지 않고 이루어진 최초의 교육과정이고, 주기적 교육과정 개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당시와 같은 중앙 집중식 교육과정 구조하에서는 교육과정은 주기를 두고 계속 점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한 번 결정된 교육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적절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교육과정의 배경을 이루는 여러 자원들이 변모하여 기존 교육과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교육과정 주기적 개정의 제도적인 정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주된 목적 이외에도 제 4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의 내외적인 요구와 환경 변화로 학교 교육 내용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였던 것도 개정 배경이었다.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는 1985년에 계획이 수립되어, 1986년부터 본격적인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고, 1987, 1988년에 걸쳐 확정, 고시되었다. 문교부는 개정의 기본 방향을 제 4차 교육과정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한다는 원칙 밑에 교육과정의 적정화, 교육과정의 내실화,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두었다. 개정 작업 중에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초등학교는 저학년 교과 통합문제, 중등학교는 교과목 축소를 위한 국사과의 교과 폐지 문제, 기술과 가정의 통합 문제 등이었으며, 이 쟁점들은 학문적인 당위성을 넘어 교과 이기주의와 얽혀 복잡한 양상을 띠기도 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과 같이 단일한 교육 사조나 이론의 지배를 비교적 받지 않고 개인적, 학문적, 사회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교육과정에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을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지닌 건강한 사람,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인 사람,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제시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을 제 4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에서 꼭 정착시켜야 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내용을 정선하여 기초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을 강화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쓸모 있는 교육과정이 되게 효율성을 높이었다.

셋째,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추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였다.

넷째, 앞으로 교육과정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으로 지역화를 제시, 강조하였다.

이상의 일반적인 특징 이외에도 내용면에서 국민학교 1·2학년이 8개 교과로 독립되어 있던 것을 1학년은 6개 교과, 2학년은 5개 교과로 통합, 편성한 것, 중학교의 기술과 가정 과목을 통합한 기술·가정 과목을 신설한 것, 고등학교에서 기존 단위제의 실시와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을 확대한 것 등도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 5차 교육과정도 제 4차 교육과정에 비해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기존의 교육과정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인 교육과정의 중앙 집중성, 교육과정 구조의 획일성, 교육 목표 달성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어 다음의 제 6차 교육과정 개정 때 이것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2) 교과용 도서 편찬

제 5차 교육과정은 1987년에 중학교, 1988년에는 국민학교와 고등학교가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은 1987년부터 시작하여 1989학년도부터 적용하여 1992학년도까지 공급, 사용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교과서 제도는 제 4차 교육과정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국정(1종)과 검인정(2종) 제도를 양대축으로 하는 제도권에 있다.

국정(1종) 제도는 국가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 편찬하고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제도로 제 5차 교육과정기에는 국민학교의 모든 교과서와 지도서, 중학교의 도덕, 국어, 국사, 사회, 기술, 가정, 실업·가정 교과서와 지도서, 고등학교의 국민윤리, 국어, 국사,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련 등의 교과서와 지도서가 1종이었다.

당시에 모든 1종 교과서 편찬은 문교부에서 개발기관을 선정, 위탁하는 위탁 개발형으로 이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교과서 개발 형태는 문교부의 편수관이 편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개발기관을 선정·위탁하고 편수관과 연구기관이 상호 연결하여 개발하는 체제이다. 이러한 개발 유형은 종전의 체제에 비해 교과서 개발 참여 인원

이 많고 개발과정에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편수관과 개발 기관 간에 업무상, 역할 상에 중복 문제 등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성이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1종제도는 제 1차 교육과정기 이래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1종제도가 그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은 나름대로 시대적인 필요에 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비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에 시대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과서 발행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검인정(2종) 제도는 국가가 교과서 편찬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저작한 교과서를 국가가 적합 여부를 검정하되 개인이 교과서의 저작권을 갖는 제도이다. 제 5차 교육과정기의 2종 교과서는 중·고등학교의 1종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해당되는데, 제 4차 교육과정기보다 과목이 확대되고 합격본 종수가 5종에서 8종으로 확대되었다. 검정절차는 제 4차교육과정기와 별차이가 없는데, 문교부에 검정 공고에 의해 저자와 출판사가 교과서를 집필, 출원하고 문교부는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 5차 교육과정기에 2종 교과서를 보면 중학교는 검정신청 종수 312종에 합격본은 45종, 고등학교는 검정신청 종수 513종에 합격본은 351종이었다. 2종 교과서는 개인이 편찬하기 때문에 체제나 내용면에서 저자의 독창적인 생각에 의해 새로운 틀을 만들어 참신한 교과서를 구성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문교부가 제시한 ‘집필상의 유의점’에 등의 규제 때문에 1종 교과서와 크게 다른 교과서가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

문교부가 제시한 ‘집필상의 유의점’에는 교과서 집필에 대한 구체적인 집필지침과 판형, 쪽수, 지질, 색도, 체제 등 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 발행사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일부에서는 2종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자유 경쟁 체제를 통한 교과서의 질 향상에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또, 집필 기간이 짧아 졸속 집필에 졸속 편찬이 될 수밖에 없어 교과서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견해 등이 제기되곤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검인정 제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책이 계속 발굴되어야 하겠다.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편찬상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1교과 1교과서’의 틀에서 탈피하여 국민학교에 복수 교과서를 도입하였다.

둘째, 종래의 교과서 중앙 편찬에서 탈피하여 국민학교에 교과서 지방 단위 편찬제를 도입하였다.

셋째, 2종 교과서의 교과목 수를 확대하고 교과목당 합격 종수를 확대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출판, 공급에 관한 행정적인 업무는 편수관실에서 관장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과서 출판, 공급업무는 1종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주식회사와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서 대행하였고, 2종 교과서는 출판은 한국2종교과서협회가, 공급은 국정교과서(주)가 대행하였다. 이러한 공급제도는 교과서의 적기공급, 채택 비리 방지, 공급비용의 최소화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나 교과용 도서의 수량 증가에 비해 교과서 주재원이나 보관 창고의 부족 등으로 교과서 적기 공급에 어려움이 많아 현행 공급제도에 대한 보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제 5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교육과정이었요, 종래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육과정 개정이 교육 외적인 영향보다는 문교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개정 작업이 문교부에 의해 주도된 교육과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 5차 교육과정은 뒤에 제 6차, 제 7차 교육과정의 주기적인 개정을 가능하게 하였고, 또 종래의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중앙 집권형에서 벗어나 제 6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 분권화라는 교육과정 사상 가장 큰 변화와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보겠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편수 업무 편람, 서울 : 교육부, 1995.
- _____, 교육제도 변천사, 서울 : 교육부, 1994.
- 김용만 외, 한국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1998.
- 김태웅 외, 교과용도서 정가 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화 방안, 서울 : 한국교과서연구소, 1998.
- _____, 교과용도서 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화 방안, 서울 : 한국교과서 연구소, 1999.
- 문교부, 1종도서 편찬 세부계획, 서울 : 문교부, 1987-1990.
- _____, 집필상의 유의점, 서울 : 문교부, 1987.
- _____,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 문교부, 1987.
- _____,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 문교부, 1987.
- _____, 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 문교부, 1988.
- _____,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문교부, 1988.
- _____,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 문교부, 1988.
- _____,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 문교부, 1989.
- _____, 초등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연수자료, 서울 : 문교부, 1982.
- _____, 중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연수자료, 서울 : 문교부, 1982.
- _____, 고등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연수자료, 서울 : 문교부, 1982.
- _____, 편수자료 I - 교육과정 변천 및 편수 일반, 서울 : 문교부, 1990.
- _____, 편수자료 II - 3 인문. 사회과학, 서울 : 문교부, 1987.
- 윤종영, 국사 교과서 파동, 서울 : 혜안, 1999.
- _____, 교과서 선정의 바른길 '교과서 연구' (제19호), 서울 :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4.
- _____, 새 국사과 교육과정 구성 방향(중·고) 실학사상연구 13호, 서울 : 무악실학회, 1999.
- _____, 국사 교과서의 새 모형 연구 정명호박사 정년퇴임 기념논총, 서울 : 혜안, 2000.
- _____, 국정 국사교과서 비판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서울 : 역사비평, 2000.
- 이정섭, 한국 현대 교육과정사 연구(상), 서울 : 교육과학사, 1997.
-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서울 : 대한교과서(주), 1991.

- 조성일, 김영출, 한국 교육행정사, 서울 : 집문당, 1996.
- 최호성, 교육과정 평가론, 마산 :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
- 한국교과서연구소,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집, 서울 : 1992.
- 한국교육개발원, 제5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의 연구, 개발 답신보고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6.
- _____, 제5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의 답신 보고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7.
- _____,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제비교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5.
- 한국교육과정 · 교과서연구회편, 편수의 뒤안길 1집, 2집, 3집, 서울 : 대한교과서(주), 1991-2000.
- _____, 인물로 본 편수사, 서울 : 대한교과서(주), 1999.
- _____, 한국교과교육과정의 변천(초등학교), 서울 : 대한교과서(주), 1990.
- _____, 한국교과교육과정의 변천(중학교), 서울 : 대한교과서(주), 1990.
- _____, 한국교과교육과정의 변천(고등학교), 서울 : 대한교과서(주), 1990.
- 함수곤, 교육과정의 편성, 서울 : 대한교과서(주), 1994.
- _____,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울 : 대한교과서(주), 2000.
- 허 강, 우리 나라 교과서 연표, 교과서 연구(18-20), 서울 :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4.4.-1994.12.
- 허 강 외, 한국편수사연구(I), 서울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
- 홍용선, 한국교육이 추구하는 인간특성,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VII. 제6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함수곤 *

1. 서 론

제 6차 교육과정은 1992년도(유치원 '92. 9. 30, 국민학교 '92. 9. 30, 중학교 '92. 6. 30, 고등학교 '92. 10. 30)에 고시되었다. 제 6차 교육과정은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의 경우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였고, 고등학교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까지는 교육과정 고시 후 대개 1년~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두고 현장에 적용했으나, 제 6차 교육과정은 고시 일자를 기준으로 고등학교는 3년 4개월, 중학교 2년 8개월, 초등학교 2년 5개월 후에 적용함으로써 새 교육과정의 현장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여유 있게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표Ⅶ-1 참조).

제 6차 교육과정은 우리 나라 교육과정 발전과정에서 처음으로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을 분권 지향적인 교육과정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 6차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에 많은 변화와 혁신을 몰고 온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으로 일관되어 온 '국가수준 교육과정 유일 체제'를 국가와 지역 및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다같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로 바꾼 교육과정이 바로 제 6차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제 6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학교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국가수준 교육과정만 유일하게 존재하고 각 학교의 실행 교육과정이 없이 국가에서 편찬 공급한 교과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실천해온 우리의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고 시도한 교육과정이 바로 제6차 교육과정이다. 즉, 십인일색(十人一色)형 교육을 십인십색(十人十色)형 교육으로 바꾸고자한 교육과정이었다. 이것은 경직되고 폐쇄적이며 획일적인 학교 교육을 보다 개성적이고 개방적이며 다양한 교육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과정을 그러한 교육이 가능하게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와 같은 근본적이고 대폭적인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정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개정 사상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 6차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면에서 하나의 지각 변동이며 일대 혁명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표 VII -1〉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공포·고시 및 적용(한국·일본)

구분	한 국				일 본			
	학교급별	공포·고시	적 용	준 비	학교급별	고 시	적 용	준 비
1차	국민학교	1954. 4. 20	1954		소학교	1947. 3. 20	1947	
	중학교	1954. 4. 20	1954		중학교	1947. 3. 20	1947	
	고등학교	1954. 4. 20	1954		고등학교	1947. 3. 20	1948	1년
2차	국민학교	1963. 2. 15	1964	1년	소학교	1951. 7. 1	1951	
	중학교	1963. 2. 15	1965	2년	중학교	1951. 7. 1	1951	
	고등학교	1963. 2. 15	1965	2년	고등학교	1951. 7. 1	1951	
3차	국민학교	1973. 2. 14	1974	1년 1월	소학교	1958. 10. 1	1961	2년 6월
	중학교	1973. 8. 31	1975	1년 6월	중학교	1958. 10. 1	1962	3년 6월
	고등학교	1974. 12. 31	1976	1년 2월	고등학교	1960. 10. 15	1963	2년 5월
4차	국민학교	1981. 12. 31	1983	1년 2월	소학교	1968. 7. 11	1971	2년 9월
	중학교	1981. 12. 31	1984	2년 2월	중학교	1968. 4. 14	1972	3년 6월
	고등학교	1981. 12. 31	1984	2년 2월	고등학교	1970. 10. 15	1973	2년 5월
5차	국민학교	1987. 6. 30	1989	1년 8월	소학교	1977. 7. 23	1980	2년 8월
	중학교	1987. 3. 31	1989	1년 9월	중학교	1977. 7. 23	1981	3년 8월
	고등학교	1988. 3. 31	1990	1년 9월	고등학교	1978. 3. 15	1982	3년 7월
6차	국민학교	1992. 9. 30	1995	2년 5월	소학교	1989. 3. 15	1992	3년
	중학교	1992. 6. 30	1995	2년 8월	중학교	1989. 3. 15	1993	4년
	고등학교	1992. 10. 30	1996	3년 4월	고등학교	1989. 3. 15	1994	5년

〈표 Ⅶ-2〉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및 적용 계획

연 도	제 4 차 교육과정기				제 5 차 교육과정기						제 6 차 교육과정기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유 치 원	5차 교육과정개발 18個月	합示 6.30	교과용도서개발 21個月	89.3 適用		6차 교육과정개발 23個月	합示 9.30	교과용도서개발 30個月		95.3 適用		
	'82년부터											
국 민 학 교	5차 교육과정개발 18個月	합示 6.30	교과용도서개발 21個月	89.3 適用		6차 교육과정개발 23個月	합示 9.30	교과용도서개발 30個月		95.3 適用		
	'82년부터											
중 학 교	5차 교육과정개발 15個月	합示 3.31	교과용도서개발 24個月	89.3 適用		6차 교육과정개발 20個月	합示 6.30	교과용도서개발 33個月		95.3 適用		
	'84년부터											
고 등 학 교	5차 교육과정개발 15個月	합示 3.31	교과용도서개발 24個月	90.3 適用		6차 교육과정개발 24個月	합示 10.30	교과용도서개발 41個月		96.3 適用		
	'84년부터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1) 제 6차 교육과정 개정 배경

제5차 교육과정이 고시된지 3년 후인 1990년 후반기에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은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은 당시 문교부 정 원식 장관의 제의와 지시에 의하여 출발되었던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12월 5일, 제30대 문교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원식 교수는 교육학자 출신으로서 교육의 문제 인식과 개혁의 접근 방식이 남다른 점이 있었다.

그는 문교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문교 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초·중등 학교의 교육 여건과 내용 개선에 특히 주력하였다.

정 장관은 초·중등 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우선 교육 여건의 개선과 고등학교의 구조 조정에 특히 노력하였다. 그는 1989년에 교육환경 개선 특별 회계법 (법률 제4140호)을 제정하여 매년 3,700억원씩 3개년간 1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노후된 교육시설의 개축, 학생의 체격에 맞지 않은 책걸상의 개량, 재래식 화장실의 현대화 등 대대적인 교육환경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당시 약 68:32의 비율을 보이고 있던 고등학교의 인문계와 실업계의 구조를 1995년까지 50:50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정 장관의 교육개선 전략은 교육환경 개선→교육 구조 체제 개선→교육 내용 개선의 순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외형적, 가시적인 교육 여건(하드웨어)의 개선에 주력하였던 정 장관은 다음 단계로 교육의 내용적인 면에 눈을 돌려 우선 교육의 기본 설계인 교육과정(소프트웨어) 개선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 장관의 주요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제 6차 교육과정의 개정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정 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하여 우선 교육과정 개정의 실무 책임자인 교육과정 담당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1990. 9. 1자로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김 상대 담당관은 서울 인수중학교 교장으로 전직하였고, 그 후임에는 1979년부터 11년간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 계속 교육과정 업무를 다루어 온 함 수곤 교육 연구관이 교육과정 담당관으로 승진되었다. 정 원식 장관은 1990년 8월 31일에 담당관 임명장 전달식장에서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정 계획 수립 추진’을 당부하는 첫 업무 지시를 직접 신임 교육과정 담당관에게 하였던 것이다. 정 장관의 이 업무 지시가 바로 제 6차 교육과정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 4차와 제 5차 교육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에 개정 연구를 위탁하여 새 교육과정 안을 연구 개발하도록 하였고, 심의와 최종 정리, 확정, 고시는 문교부가 담당하는 방식의 개정 추진 체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은 제4차, 제 5차와는 전혀 상이한 교육과정 개정 추진 체제로 수립된 개정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된 점이 특색이다. 개정 기본 계획 수립과정에서 정 장관은 함수곤 담당관에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주문하였다.

첫째, 제6차 교육과정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개정과 같이 부분적, 소극적인 개정이 아니라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전향적, 적극적인 교육개혁 차원의 근본적인 개정이 되도록 하여 달라라는 것이다(정 장관의 표현을 그대로 나타낸다면 “지금까지의 개정과 같이 분칠만 하는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둘째, 교육과정 개정안 연구 개발에 참신한 신진 학자와 연구자를 특정 지역과 대학, 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게 광범위하게 참여시키고 현장 교원의 경험과 의견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이러한 문교부 주도의 교육과정 개정 체제에 대하여 이미 제4차와 5차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던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불만을 갖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제6차의 개정 연구도 계속 위탁받기 위하여 이면에서 문교부 고위층 등과 활발한 접촉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제6차 교육과정은 특정 연구기관에 개정 연구를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문교부 주도의 방식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 확고하였기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섭은 벽에 부딪혔던 것이다. 즉, 관계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물색하여 개정연구 위원회를 구성하고 문교부의 편수진이 개정의 주체가 되어 개정 연구위원회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작업을 추진하는 체제로 기본 계획이 확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교부의 확고한 제 6차 교육과정 개정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은 제4차, 5차의 경우와 같이 교육과정의 개정 연구를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은 장학 편수실의 교육과정 담당관실의 주도아래 그 개정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편수 부서는 장학 편수실의 소속이었으며 실장은 이준해(후에 교육방송원장을 거쳐 서울시 교육감을 역임하였음) 장학관이었다. 실장 아래 편수 관리관(2급 상당 국장)과 교육과정 담당관, 인문과학 편수관, 사회과학 편수관, 자연과학 편수관 등 4명의 3급 상당 장학관을 두고 있었다. 당시의 편수관리관은 박병호 장학관(중앙교육행정연수원장을 거쳐 잠신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이었고, 교육과정은 함수곤 장학관(현재 한국교원

대학교 교수) 인문과학은 한 상진 장학관(서울 가원 중학교 교장을 거쳐 현재 동작교육청 교육장으로 정년 퇴임) 사회과학은 한명희 장학관(편수국장을 거쳐 서울 교육연구원장, 영등포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 자연과학은 장종택 장학관(중앙 교육행정연수원장을 거쳐 서울 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이었다.

제6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임명된 함수곤 교육과정 담당관은 이들 3명의 편수관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모든 계획의 수립과 실행, 평가를 공동 협의, 공동 추진의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제 6차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이들 중 3인의 편수관은 모두 편수 업무 10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기본적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장기간 편수 공동체로 같이 일해온 직업적 동료의식이 강했던 팀으로서 교육과정의 개정에 관해서도 암묵적으로 동일한 문제의식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있던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었다.

(2) 개정의 경과

정원식 문교부 장관의 발의로 출발한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은 1990년 9월,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10월부터 개정 연구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 연구와 총론 개정안 연구 개발에 착수하였다.

우선 교육과정 총론 개정 연구위원회는 위원장에 한명희 교수(동국대학교 사범대학)를 위촉하였고, 위원으로는 박 병선 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 연구부), 김신복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재복 교수(인천 교육대학), 허정철 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초연구부), 함수곤 담당관(문교부 교육과정 담당관실) 등이 위촉되었다.

다음에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팀은 ① 제5차 교육과정 분석 평가 연구팀 ②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팀 ③ 국가·사회요구 및 발전 전망 조사 연구팀 ④ 학생, 교원, 학부모의 요구 및 의견 조사 연구팀 등 4개의 팀으로 구성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 분석 평가 연구’는 연구 책임자 윤병희(숙명여대 교수)와 공동 연구자 조영태(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 연구부장), 박상만(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원), 임선하(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조덕주(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가 담당하였다.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는 신세호(한국교육개발원 원장)가 연구 책임자가 되어 한국 교육개발원의 김성훈, 김홍원, 박병선, 박상만, 허정철, 박덕규, 조용환, 최 영표 등과 한상진(문교부 인문과학 편수관)이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국가·사회 요구 및 발전 전망 조사 연구’는 차경수(서울대 교수)가 연구 책임자였고

공동 연구자는 최충옥(경기대 교수), 이미나(강원대 교수), 이승중(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수석 연구원), 한명희(사회과학 담당관) 등이었다.

‘학생, 교원, 학부모의 요구 및 의견 조사 연구’는 강신웅(홍익대 교수)이 연구 책임자였고 공동 연구자는 서정화(홍익대 교수), 이은진(외국어대 교수), 노종희(한양대 교수) 등이었다.

문교부는 위와 같은 개정 연구위 구성과 기초연구를 착수한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현장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상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실태, 개선 의견 등을 파악하는 데 힘썼다.

이를 위해 문교부는 1990. 12. 15 에 전국 각급 학교의 현장 교원 230명을 중앙교원 연수원에 초청하여 교육과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 원식 장관과 문교부의 편수 담당자 및 개정 연구팀 전원이 참석하였다. 정 장관은 발제 강연을 하였고,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의 한명희 위원장의 주제 발표가 있는 다음 학교 급별로 현행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 건의 등을 위한 분과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날의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현장 교원 세미나’는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출발을 전국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최초의 대규모 연구 집회가 되었다.

문교부 편수진은 1990. 11월과 1991. 4월, 2회에 걸쳐 전국의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112교를 표집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 협력학교를 유치원 1원(배화전문대 부속 유치원), 국민학교 1교(충무국민학교), 중학교 1교(청운중학교), 고등학교 4교(서울사대 부속고, 충북 음성고, 명일여고, 전남사대 부속고)를 각각 지정하고 문교부 편수진이 교육과정 개정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수시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연구 과정에서 총론 개정안 연구와 기초 연구를 시차 없이 동시에 추진하였던 점은 문제가 있었다. 물론, 개정 기간의 제약으로 동시 추진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기초 연구 결과를 총론 개정안 개발에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되는 연구의 절차와 효용성 면에서는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총론 개정안 연구팀은 4개 부분의 기초 연구팀과 긴밀한 연계 체제 아래 수시로 개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나 근거, 이론적 배경 제공 등에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다행한 일이었다.

제6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담은 연구 보고서는 1991년 9월에 교육부에 제출되었다.

〈표 VII-3〉제 6차 교육과정 개선 연구과제 및 연구자 명단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1. 현행교육과정 분석·평가 연구	은 병 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연구실 장)	임선하(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조덕주(") 허정철(" 수석연구원) 박상민(" ")
2.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곽 성 선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조정실장)	조용환(개발원) 장석민(개발원) 김성준(") 최진환(") 박영목(") 김주훈(") 최석진(") 김홍원(") 강육기(")
3.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학생, 교원, 학부모의 필요 요구, 의견조사 연구	장 신 용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서정화(홍익대학교 교수) 이은진(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 노종희(한양대학교 교수)
4.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국가사회 의 요구 조사 연구	차 경 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최종욱(경기대학교 교수) 이미나(강원대학교 교수) 이승종(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체제 및 구조 개선 연구	한 명 희 (동국대학교 사범대 교수)	곽병선(한국교육개발원 기획조정실장) 김신복(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병욱(동국대학교 교수) 허정철(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원) 김재복(인천교육대학 교수)

연구 결과를 접수한 교육과정 담당관실은 ‘제6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에 관한 공청회’를 1991년 9월 27일에 중앙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교과 교육 전공 교수, 연구 기관 연구자, 현장 교원, 장학·연구직 등 5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장시간에 열띤 토론과 비판, 협의, 건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정 연구위의 한명희 위원장의 주제 발표가 있는 다음, 국민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김재복(인천 교대 교수)이, 고등학교 총론 개정안을 허정철(한국교육개

발원)이 각각 발표하였다. 토론은 이돈희(서울대 교수), 이종재(서울대 교수), 전 풍자(인간 연대) 등이 맡았다.

이날의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것은 역시 연구팀이 예상하였던 대로 교련과, 한문과, 지리과, 국사과, 가정과 등의 축소 조정 대상 교과와의 이해 관계에 따른 기득권 유지 주장이었으며, 이들 교과 담당 교수, 교사 등의 격렬한 반발과 저항이 있었다.

교육부는 공청회 이외에도 TV 공개 토론 3회, 신문지상 토론 126회를 실시하였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총론 개정 시안을 보내 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였다. 또, 교원 양성 대학과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연구기관 등 41개 기관에 총론 개정 시안을 송부하여 시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다양한 경로와 광범위한 전문가, 현장 교원, 행정기관 등을 통하여 수집된 총론 시안에 대한 검토 의견과 건의 자료는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 이를 종합 정리하여 참고하는 한편 개정연구위원회에도 제공되었다.

개정 연구위원회는 수차의 연구 협의회를 갖고 검토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여 1991년 11월에 총론 연구 개발 최종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교육부에는 최종 보고서를 접수하여 교육과정 담당관실 주도아래 각 교과담당자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총론을 최종 정리하고 교육과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91년 12월 30일에 1차적으로 총론을 확정하였다.

교육과정 담당관실은 총론 수정안을 접수하여 법적 기구인 ‘교육과정 심의회’에 회부하였다. 교육과정 심의회는 학교 급별 소위원회와 고등학교 계열별 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6차 교육과정의 총론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심의에 참가한 위원은 16개 위원회에 361명이었다.

심의를 마친 후 교육부의 편수진 43명은 제6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의 최종 수정과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여 1991년 12월에 총론 개정안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즉, 제6차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이 결정된 것이다.

교육부는 확정된 총론에 의거하여 각론 개정안의 연구 개발에 들어갔다. 각론 개정안의 연구 개발은 2차에 걸쳐 위탁하였는데 1차 위탁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주요 5교과에 대하여 1991년 5월에 한국교원대, 서울대, 한국교육개발원 등에 각론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미리 위탁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 각론의 2차 위탁은 1991년 10월에 있었다. 제6차 교육과정 각론의 개정 연구에 참여한 교과별 연구 기관과 교육부의 편수 담당자는 <표 VII-4>와 같다.

〈표 VII-4〉제 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안 연구개발 기관

교과 및 계열	연구위탁기관	연구책임자	교육부 담당자	비고
도덕·윤리	서울대 도덕·윤리연구회	정세구	박봉기, 이창조	
국어	한국교육개발원	박영복	경준섭, 신난수, 허원행	
생활·예절	"	유관상	이창조	
수학	"	강육기	김전락, 장형고	
과학	"	한중하	이동진, 이재희, 이규현, 문수환	
체육	"	김용환	김석진	
음악	"	성경희	이순영	
미술	"	윤영희	오병옥	
실과 (기술·가정)	"	최상만	정성봉, 이기훈, 고석달, 장명진, 서근우, 좌한철	
역사	"	최석진	윤종영	
한문	"	박영복	허원행	
교원	"	김용환	김석진	
농업 계열	"	최상만	정성봉, 김진식	
과학 계열	"	김주훈	이동진, 이재희, 이규석, 문수환, 김전락, 장형고	
체육 계열	"	김용환	김석진	
예술 계열	"	윤영희	김석진, 오병옥, 이순영	
고등기술학교	"	장석민	김희장	
사회	한국고원대학교	권오정	김용만, 최병모, 채희두	
영어	"	배두본	한길근	
제2 외국어	"	신우규	심광원, 이광정	
외국어 계열	"	배두본	한정근, 심광원, 이광정	
가사·실업 계열	"	윤인경	이기훈, 임종희	
탐구생활 즐거움 생활 우리들은 1학년	전국교육대학총합교과 연구회	김재복	소정자, 김용만, 이순영, 이재희	
공업 계열	충남대 공과대학	이재원	고석달, 구자택, 장명진, 김희장, 이정규	
상업 계열	인하대 경영대학	신철호	서근우, 김학영	
수산·해양 계열	부산수산대	이병기	좌한철	
유치원	유아교육연구회	이원영	소정자	
특별 활동	서울대 특별활동연구회	윤관중	소정자, 박정자, 이범주	
관련 연구	동국대 사법대학	한영희	장영권, 김영달	

각론 연구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은 교수 193명, 연구원 155명, 현장 교원 83명, 전문직 119명 등 총 550명이었고, 협의진은 교수 555명, 연구원 113명, 현장 교원 388명, 전문직 162명 등 총 1,218명이었다. 이 외에 자문진은 교수 95명, 학회 35명, 현장 교원 34명, 기타 인사 14명 등 총 178명으로서 각론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전문 인력은 모두 1,946명이었다.

각론 개정 시안은 1992년 4월에 교육부에 접수되었다. 각론 개발 과정에서 교육부의 편수진은 각 교과별로 위탁한 연구팀과 긴밀한 협조 연구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를 추진

하였다. 각론 개정 시안은 1992년 5월에 각 교과별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과 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원의 논의를 거쳤다. 공청회는 23개 분과로 나누어 2,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당시 교과별 공청회 실시 상황은 <표 VII-5>와 같다.

<표 VII-5>제 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안 세미나(공청) 실시 상황*

교과	교육 부 담당 자	일시	장 소	발 표 자	토 론 자	사 회 자	참 가 인 원	연구개발 기 관
1.바른생활 도덕	김길	5. 19 13:30	연북국교 강 당	조난심(KEDI)	최홍순(오정군)	문용린 (서울대)	100	KEDI
2.도덕· 윤리	이창조	5. 14 13:00	서울사대 중강당 (중)	중) 방영준 (성신여대)	안귀덕(한국정신 문화연구원) 이우용(서울사대 부여중)	박병기 (서울사대)	100	서울대· 도덕윤리 교육연구 회
		5. 14 13:00	" (고)	고) 조남국(강원대)	이태건(인하대) 유병화 (경희여고)	윤건영 (서울사대)		
3.국어	정준섭 신난수 허천행	5. 18 14:00	서울교대 교수회의실	박영목(홍익대)	국) 신현재(한국교원 대) 김창완(부안도청 국교) 중) 심재기(서울대) 오학준(서울사대 부여중) 고) 최창열(전북대) 박종희(용산고)	손영애 (KEDI)	100	KEDI
4.수학	김진락 강행고	5. 18 14:00	서울교대 교수회관	신성균(KEDI)	고) 나병소(춘천교대) 신중식(연은국교) 중) 장건수(연세대) 이성란(광주학운 여중고) 고) 박순안(서강대) 김본석(영등포고)	강문봉 (KEDI) 박교식 (KEDI) 황혜정 (KEDI)	100	KEDI

교과	교육 부 담당 자	일시	장 소	발 표 자	토 론 자	사 회 자	참 가 인 원	연구개발 기 관
5. 사회	김용만 윤중영 채희두 최병모	국 5. 10 9:00 중 5. 15 9:00 교 일사 5. 15 13:00 지리 5. 16 14:00 세계사 5. 18 9:00	서울교대 소강당 한국교원대 소강당 한국교원대 소강당 서울대 교수회관 이화여대 소강당	한명희 (인천교대) 권오정 (한국교원대) 권오정 (한국교원대) 김일기(한국교원대) 전인영(이화여대)	김여철(서울교대) 권오훈(망원국) 한명희(인천교대) 이서희(광진중) 이태근 (서울교대) 김종욱(서울사대) 최병도(경동고)	안희천(서울 교대) 정선영(충북 사대) 조도근(인하 대 사범대) 황만익(서울 사대) 정현백(이화 여대)	100	한국 교원대
6. 국사	윤중영	5. 19 10:00	KEDI	유재택(KEDI)	중) 구자혁(인천교대) 김홍섭(서울사대 부여중) 고) 이범직(건국대) 최상훈(성동기계 공고)	이찬희 (KEDI)	100	KEDI
7. 과학	이동길 이규석 이재혁 문수한	국 · 중 5. 19 14:30 고 5. 18 14:30	서울과학고 육원	국)김영민(KEDI) 중)김주훈(KEDI) 고)한종하(KEDI)	박우철(수원연무 국) 한안진(인천교대) 이영만(성내중) 조희형(강원대) 이학동(단국대) 김대식(충북대) 홍창표(서울시 교 육청) 박인호(동아대) 김상달(부산대)	박범익 (KEDI) 채광표 (KEDI) 이범홍 (KEDI)	100	KEDI
8. 체육	김석진	5. 14 13:00	서울대 경영 관 회의식	김용환(KEDI)	국) 김재욱(위례국) 김문규(부산교육 대) 중) 김정연(개웅중) 김동환(한양대) 고) 서정택(반포고교) 김성목(전북대)	강신복(서울 대)	100	KEDI

교과	교육 부 담당 자	일시	장 소	발 표 자	토 론 자	사 회 자	참 가 인 원	연구개발 기 관
9.음악	이순영	5. 21 14:00	국악고강당	성경희 (KEDI) 권덕현 (KEDI)	국) 조순자 (서울사대부국) 이창규 (서울은혜국) 중) 고춘선(금호여중) 정찬홍(오금중) 고) 김준수(여의도고) 신귀복(국악고)	허화병 (서울사대부 속고)	100	KEDI
10.미술	오병욱	5. 19 14:00	서울윤중국 강당 (4층)	윤양희 (KEDI) 박소영 (KEDI)	국) 김정(송의전문대) 현광덕 (대전신평국) 중) 김수현(경상대) 민병각 (서울구일중) 고) 박주영(교원대) 신범승 (서울광양고)	김삼량 (서울 면목중)	100	KEDI
11.실과	정성봉	5. 19 14:00	서울교대	곽상만 (KEDI)	실과(천경복(광주교대) 김진식 (서울응암국)	최용식 (서울홍연 국)	60	
12.기술 산업 실업	정성봉 고석달 장명진 황장규 주수동 김진석 김의장 구자락	5. 19 14:00	덕수상고 시청각실	곽상만 (KEDI) 이용순 (KEDI)	-기술·산업(중) 이재원(충남대) -기술(고) 김지숙(공주고교) -농업(고) 변재면(상산고) -공업(고) 김현수(달서공고) -상업(고) 조기중(공주대) 수산업(고) 박석필(주문진수 산고 진로·직업) 정철영(서울대)			KEDI

교과	교육 부 담당 자	일시	장 소	발 표 자	토 론 자	사 회 자	참 가 인 원	연구개발 기 관
13.가정· 가사	이기훈 임공희	5. 19 14:00	한국교원대 연수원강당	윤인경 (한국교원대)	가정·가사) 이일하(중대사대) 곽노선(청주여고) 김유미(세화여고)	이전숙 (전북대)	100	한국 교원대
14. 영어	한정근	5. 18 14:00	한국교총대 회의실(4층)	배두본 (한국교원대)	중) 문용(서울대) 신상수(서울사대 부중) 고) 나건석(연세대) 곽영을(서울여고)	김임득 (한양대)	100	한국 교원대
15. 제2외 국어	심광원 이광정	5. 18 14:00	한국교총세 미나실(2층)	신우균 (한국교원대)	고) 안삼환(서울대) 김진원(고려대) 강춘권(아주대) 최준식(고척고) 이종만(경복고) 한준구(구로고)	김성대(단국 대)	100	한국 교원대
16. 한문	허천행 정준섭 신난수	5. 19 14:00	서울교대 교수회의실	박영목(홍익대)	중) 조준하(동덕여대) 임경란(용강중) 고) 김명호(성균관대) 이종복(성동고)	이심형 (KEDI)	100	KEDI
17. 교련	김석진		대원여고 강당	김용환(KEDI)	고) 이성재(잠실고) 박외현 (영등포여고)	조순묵 (KEDI)	100	KEDI
18. 컴퓨터	김학영	5. 19 14:00	덕수상고 시청각실	정택희(KEDI) 손병길(KEDI)	중) 백영균(교원대) 김은태(창일중) 고) 류한영(한양대) 김세환(동일천고)	심용기 (KEDI) 조정우 (KEDI)	100	KEDI

교과	교육 부 담당 자	일시	장 소	발 표 자	토 론 자	사 회 자	참 가 인 원	연구개발 기 관
19.환경	김용만 이재혁	5. 10 14:00 5. 18 14:00	서울교대 부 국 소강당 서울과학고 육원	중) 최석진(KEDI) 최돈형(KEDI)	조광준(서울교대) 최적형(한강여중) 정완호(교원대) 송무영(충남대)	한복수 (석관고) 임경배(서울 시교육청)	100	KEDI
20.교양 선택	김영일 정영권	5. 19 11:00	서강대 K관 (1층)	철학) 황경식(서울대) 논리) 정해창(정신문화 연구원) 심리) 윤진(연세대) 교육) 성일제(KEDI) 생활경제) 정정도(충북대) 종교) 김종서 (정신문화연구원)	이상순(춘천교대) 김영정(서울대) 김정오(서울대) 이일용(중앙대) 조도근(인하대) 김남식(잠신고)	김안중 (서울대)	100	서강대 교양선택 연구개발 위원회
21.교양 선택 슬기로운 생활 · 즐거운 생활	김용암 이순영 오병욱	5. 18 13:00 5. 18 15:30	서울사대부 국 시청각실	한면희(인천교대) 강재성(인천교대)	권재술(교원대) 김태홍 (서울사대부국) 이동한(천호국) 박철준(서울교대)	김만곤 (한국교총) 송석만(서울 강동국)	100	인천교대
17.특별 활동	정영권 소정자 김영일 박정자	5. 25 14:30	서울교대	윤팔중(서울사대)	국) 송광용(서울교대) 정종구 (서울교육원) 중) 김충기(9건대사대) 이해도(송인여중) 고) 김동연(창덕여고) 안동하(광남고)	김억환 (건국대)	100	서울대 사범특별 활동 연구 회

교과	교육 부 담당 자	일시	장 소	발 표 자	토 론 자	사 회 자	참 가 인 원	연구개발 기 관
23.유치원	소정자	5. 26 14:00	중대교육 대학원 5층 회의실	이원영(한국교육 학회 유아교육연 구회)	1)건강과 안전 신은숙(덕성여대) 신상인(서울반포 병설유치원) 2)사회생활 정미라(경원대) 허미애(중대부속 유치원) 3)언어생활 김영실(원광대) 김혜실 (북악유치원) 4)정서와 표현 이윤경(서원대) 호은경 (개나리유치원) 5)인지와 사고 조영순(이화여대) 류진희(어린이육 영회 부속유치원)	김태원 (한국사립유 치원연합회)	100	한국교육 학회유아 교육연구 회
	50			42	118	36	2,260	

또한,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전국의 초·중등학교 179 개교에 각론 개정 시안을 송부해서 교육 현장의 각 교과 담당 교사 8,134명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았다. 제 6차 교육과정의 각론 개정안 검토에 참여한 전국의 일선 학교는 <표Ⅶ-6>과 같다.

*자료 : 함수곤 「한국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pp.322~328, 서울 : 한국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1998.

〈표 VII-6〉제6차 교육과정 개정안 현장 검토학교*

시·도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기락계)
서울	개나리유(7) 경동유(10) 색동유(11)	공릉국(81) 영신국(56) 홍연국(56)	개포중(75) 잠진중(70) 청운중(52)	명일여고(102) 중경고(72) 배명고(92)	용산공고(127) 서울기공(175) 경기기공(136)
부산	부산진국병설 유 (5) 바오르유(7) 소실유(7)	팔남국(56) 사동국(42) 내성국(69)	부산진여중(64) 부산서여중(60) 남천여중(65)	경남여고(79) 금정여고(78) 부산동여고(78)	한독여실고(91) 부산예고(38)
대구	산세계유(5) 색동유(5) 한별유(6)	대구동인국(46) 대구대명국(70) 대구용지국(58)	대구북중(66) 동원중(55) 동촌중(68)	경상여고(82) 달성고(96) 대륜고(70)	대구상고(73) 대구제일여상(61) 상서여상(91)
인천	송림병설유(10) 만석병설유(2) 동암병설유(10)	인천산곡남국(48) 인천신촌국(440) 인천무평남국(63)	만수여중(56) 만수북중(66) 도화여중(60)	인천고(75) 제물포고(78) 인천여고(72)	
광주	정덕유(6) 광주대부속유 (5) 송원전문대부 속 유(4)	유안국(43) 광주우산국(71) 광주양동국(53)	상무중(57) 광주북성(66) 학운여중(55)	전남여고(77) 광주여고(76) 광주고(74)	
대전	살림유(6) 동대전유(3) 회덕국병설유 (4)	대전중앙국(55) 대전중리국(66) 대전가장국(62)	대전문화여중(58) 대전가양중(67) 대전도마중(72)	충남고(80) 대전여고(81) 한밭고(66)	대덕공고(27) 충남기공(103) 대전동아공고(77)
경기	수원대산병설 유 (4) 안양중앙병설 유 (4) 화성봉담병설 유 (3)	수원효원국(30) 수원세류국(70) 수원수원국(39)	송원여중(69) 수성중(76) 동성여중(59)	수성고(83) 성남서고 (62) 이천고(49)	수원농고(60) 송전농고(25) 발안농고(30) 파천외국어(41) 경인외국어(55)

*자료 : 함수곤 , 전계서, p.329.

교육부는 각론 개정 시안을 교육과정 심의회 각 교과별 소위원회(159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았다. 각론 개정안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모두 2,512명이었다.

공청회, 현장검토, 심의회 등을 거쳐 검토 심의한 결과는 각론 개정 시안 수정보완 작업에 투입되었다.

각론 시안의 수정 보완 작업은 교육부의 편수진 43명이 중심이 되어 각 교과별로 외부 전문가 769명의 협조를 얻어 1992년 5월에 실시되었다. 각론 수정안은 1992년 6월, 교육과정 심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였고, 시·도 교육청의 초·중등 관계관 135명이 최종 검토를 하였다. 그 심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교육부 편수진 21명으로 최종 정리팀을 구성하여 마지막 손질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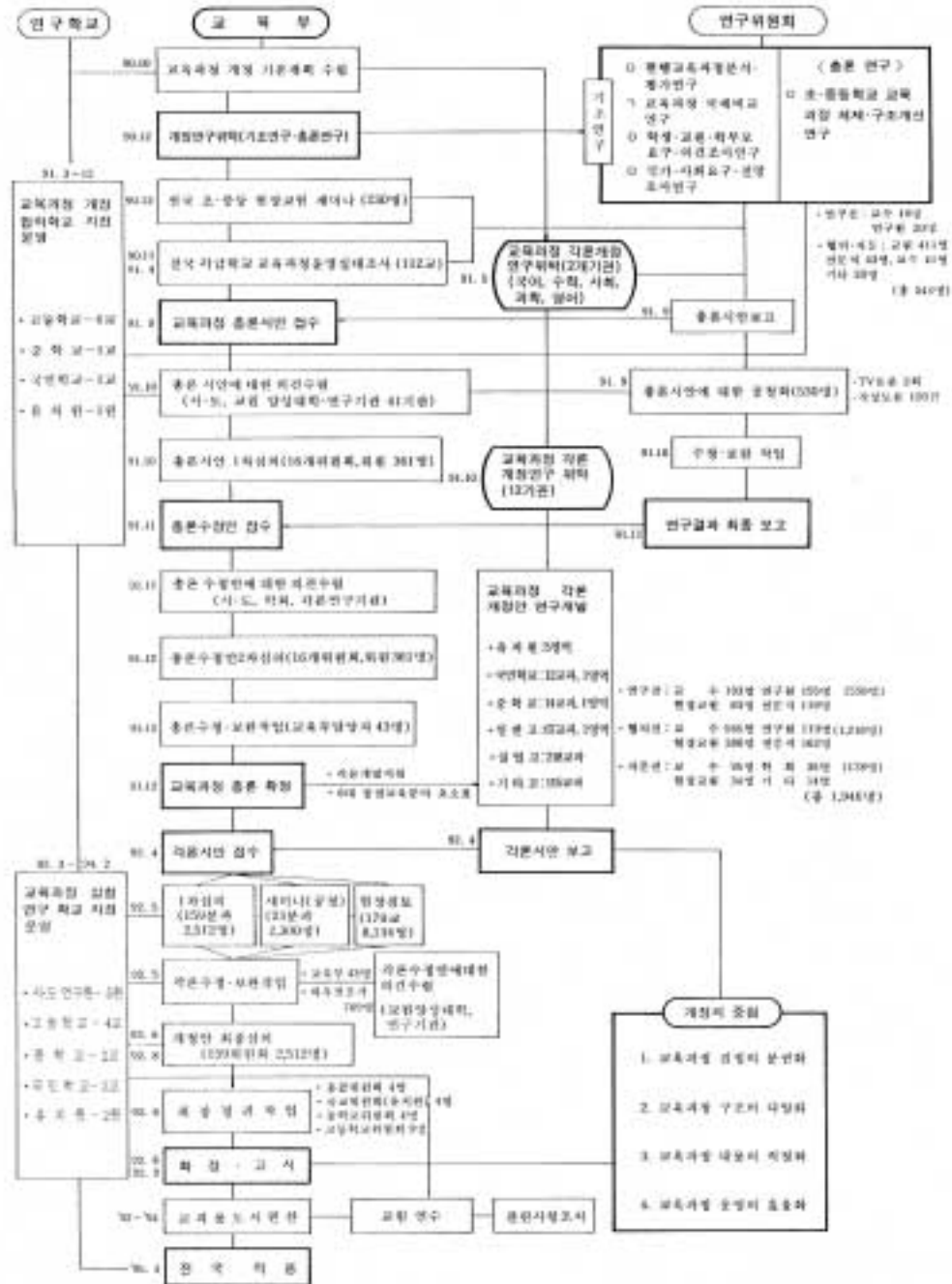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6차 교육과정은 과거 어느 교육과정 보다 개정 작업에 있어서 그 절차와 방법면의 전문화, 민주화, 공개화에 노력한 흔적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거의 소외되었던 시·도 교육청과 현장 교원의 개정 참여가 크게 확대되어 교육과정이 실제로 적용될 학교의 실정과 현장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은 중학교 교육과정이 제 1차로 1992년 6월 30일, 먼저 고시되었다. 이는 제5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용 2종 교과서 사용 유효 기간이 촉박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다음에 교과서 사용 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유치원과 국민학교 교육과정이 1992년 9월 30일에 고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1992년 10월 30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당초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6월 30일에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교과서 사용 유효 기간에 관련된 중학교만 계획대로 고시하고, 유치원, 초등, 고등학교는 보다 세밀한 검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당초 계획된 고시 일자를 약간 연기하였던 것이다.

〈그림 VII-1〉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절차·과정('90~'95)



*자료 : 교육부 「편수 업무 편람」, 1995.

● 제 6차 교육과정 책자 보급

제 6차 교육과정을 고시한 후 그 책자를 전국의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교원연수기관, 교원 양성 대학에 보급했는데, 과거에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수를 공급하였다. 특히 국민학교에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중학교에는 국민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고등학교에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배부하여 교육의 일관성과 계열성,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부 장관 고시 교육과정 책자뿐만 아니라 제 6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과정, 결과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 6차 교육과정의 개요’ 책자와 제 6차 교육과정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홍보자료 ‘21세기의 꿈을 실현하는 교육’이라는 소책자, 그리고 제 6차 교육과정을 학교 급별로 영역한 영문판 ‘한국의 교육과정’이란 책자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교원 양성대학, 정부 각 부처, 재외 한국공관, 주한 외국 공관에 배포하여 우리의 교육과정 개혁을 널리 알리고, 우리의 초·중등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노력한 점이 특징이다.

〈표 VII - 7〉제6차 교육과정 책자 보급 실적

교육과정 책명	판 형	고 시 시 기	부 수	배 부 처
• 유치원 교육과정	신국판 41면	1992. 9	34,000	전국 유치원 (원당 3부)
• 국민학교 교육과정	신국판 182면	1992. 9	81,000	전국 국민학교 (교당 10부)
• 중학교 교육과정	신국판 209면	1992. 6	63,000	전국 중학교 (교당 30부)
• 고등학교 교육과정 I, II	신국판 I, II 1137면	1992. 10	58,000	전국 고등학교 (교당 30부)
• 제6차 교육과정의 개요	크라운판 179면	1992. 12	1,000	시·도교육청 교원양성기관
• 21세기의 꿈을 실현 하는 교육	국판 52면	1992. 12	50,000	전국각급학교 (교당 2부) 교원양성기관 정부 각부처 시·도청
• 한국의 교육과정 (영문)	신국판 120면	1992. 12	2,000	시·도교육청 교원양성기관 재외 한국공관 주한 외국공관

(3) 제 6차 교육과정의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 6차 교육과정이 당시의 문교부 정 원식 장관의 발의로 출발되었다고 하지만, 제 5차 교육과정의 부적절성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음도 엄연한 사실인 것이다. 당시 제 6차 교육과정 개정연구 위원회가 분석하여 연구 보고서에 제시한 제 5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대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의 중앙 집권화와 획일성의 문제였다. 여기에는 교육과정 결정에 있어서 국가·사회 요구의 지나친 중시 문제, 교육과정의 획일화와 대다수 학생의 소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교육 경험의 질적 부 적절성과 학생의 과중한 학습 부담 문제였다. 여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한 필수 교과목 수와 한 학기 당 이수과목 수, 학생의 교육 경험 세계의 왜곡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교육과정의 시대적, 사회적 유용성과 적절성 문제였다. 부적합한 교육내용의 구조와 방법, 교육내용의 시대적 적합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넷째, 현행 교육과정 결정의 과정과 구조의 적절성 문제였다. 여기에는 교육과정 총론의 방향과 괴리된 각론의 내용 구성문제, 교과 교육과정과 교육 현장과의 괴리 문제, 교과 사이의 이해와 갈등과 교육과정 결정 과정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1) 개정의 기본 방향

제 6차 교육과정은 위에서 제시한 문제 의식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개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민주 시민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민주 시민적 자질과 공동체 의식, 교과 교육의 도덕 교육화와 도덕 교육의 학교 급별 특성화,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등이 강조되었다.

둘째, 변화에 대한 창조적 대응력을 배양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정보처리 능력과 창조적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육, 과학 기술 교육과 진로교육의 강화, 국제 이해 교육의 강화, 전인 교육, 정서 교육의 강화를 통한 인간 교육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셋째,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학생의 필요, 적성, 능력에 따르는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융통성, 지역의 특수성에 따르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평가, 교육과정 결정의 학교 선택 범위 확대를 강조하였다.

넷째, 학습자의 경험의 질을 중시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의 부담 요인의 경감, 교과 구조의 시대적 타당성 강화와 교과목 분류 체제의 합리적 조정, 교육과정 지침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구성 요소의 구체화 및 체계화를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기본 방향 아래 제 6차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 5차 교육과정과 일관성 있게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정하고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의 육성’이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을 육성한다(교육 목표면).

둘째,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기른다(교육 내용면).

셋째, 학생의 개성, 능력,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교육 운영면).

넷째, 교육과정 편성·운영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한다(교육 체제면).

그리고 제 6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면에 특히 개정의 중점을 두었다.

-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 교육 내용의 획일성, 경직성, 폐쇄성의 해소, 자율 재량의 확대
-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 다양한 이수과정, 필수정선, 선택확대, 시대적 요구 반영
-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 학습 부담의 경감, 학습량·수준 조정, 이수 내용의 성차별 철폐
-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 학생의 적성·능력·진로 중시, 교육방법 및 평가의 개선

2) 개정의 특징

제 6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 5차 교육과정기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체제’가 새로이 정립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있어서 교육부,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의 역할 분담 체제가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었던 것이다.

제 6차 교육과정기부터 교육부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시·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제시하고, 단위 학교는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당해 학교의 실정과 교육조건

에 가장 적합한 그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획기적인 개혁은 초·중등 학교에 있어서 교육내용과 방법의 일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상의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제 6차 교육과정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과거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교육부의 편수진이 주체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광범위한 전문 인력과 교육 현장, 그리고 유관기관, 학부모 등 범국가·사회적인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검토·심의하고,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는 등 개정의 기초 작업 단계에서부터 최종 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민주적, 공개적, 전문적인 의사 결정 방법으로 개정 작업을 주도해 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국민학교의 학교 재량시간의 신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구성과 교과용 도서 편찬권 시·도 교육청 이관, 중학교의 선택과목 도입, 실업 가정 교과의 대 조정, 고등학교의 공통 필수과목 축소, 선택과목 확대, 전문교과의 대폭 조정, 그리고 불합리한 교과 편제의 합리적 개선, 도덕 교육의 학교 급별 특성화, 각급 학교의 학습부담 시간의 경감 등 많은 전향적인 특징을 열거할 수 있으며, 각급 학교 별로 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특징은 아래와 같다.

3) 개정의 중점

①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전인적 발달을 돕는 교육

가. 기본 생활 교육을 강조한다(기본 생활 교육).

나. 유아의 요구와 흥미, 개별성을 존중한다(개별화 교육).

다. 놀이중심의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놀이중심 교육).

라. 유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돕는다(전인 교육).

교육과정은 건강 생활, 사회 생활, 표현 생활, 언어 생활, 탐구 생활로 구성하고, 교육일수는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하되, 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하루의 교육 시간은 180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지 중점〉

가. 발달 영역과 생활 영역의 통합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체 발달 영역 ② 언어 발달 영역 ③ 인지 발달 영역 ④ 정서 발달 영역 ⑤ 사회성 발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강 생활 ② 사회 생활 ③ 표현 생활 ④ 언어 생활 ⑤ 탐구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 영역별로 교육목표만 제시함 ○ 내용 선정 및 활동 계획 수립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영역을 바탕으로 한 생활 영역의 설정 ○ 내용, 활동의 구체적 기준 제시

나. 교육 내용의 수준별 기준 제시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대상자 : 4 ~ 5세 ○ 획일적인 목표 제시 ○ 5개영역 : 76개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대상자 : 3~5세 ○ 수준별 내용 기준 제시 ○ 5개영역 : 공통 - 38개기준 Ⅰ 수준 - 102개기준 Ⅱ 수준 - 146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직된 단일 목표 제시 ○ 발달 수준을 고려한 교육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Ⅰ, Ⅱ(3개유형)수준의 구체적 기준 제시 ○ 발달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 가능함

다. 기본 생활 습관 형성 교육의 강화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영역의 비체계적인 구성 ○ 사회생활 영역에 기본생활 습관 목표 (예절, 규칙생활, 정리정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영역에 걸쳐 강조 반영 ○ 사회생활 영역에 기본생활습관 목표 및 하위영역 설정 (예절, 질서, 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 자체의 체계, 논리 중시 ○ 추상적 진술의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영역에 의도적 반영 ○ 구체적 기준성 강조

라. 환경 보전 및 근검 절약 교육의 강조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성 발달 영역에 반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 1개 목표 • 절약 : 1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영역에 걸쳐 강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보전 : 7개 기준 • 근검 절약 : 6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영역에 반영하는데 그침 ○ 절약교육에 대한 내용 제시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결, 환경보전 실천 중시 ○ 근검절약 생활화(물자절약)

마. 글자 교육에 대한 기준 개선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의 기초 모양 변별하기 ○ 글자의 기초 모양 만들어 보기 ○ 글자의 기초 모양 그려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에 관심 갖기 ○ 말과 글의 관계 알기 ○ 글자 놀이 하기 ○ 책에 관심 갖기 ○ 쓰기 도구 사용하기 ○ 이름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적인 글자 교육 금지 ○ 내용 수준의 부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의 범위 제시 ○ 국민학교와의 연계성 유지

바.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지침의 구체화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방법지침 : 5개항 ○ 평가지침 : 5개항 ○ 각영역별 성격:없음 ○ 각영역별 내용체계: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방법지침 : 9개항 ○ 평가지침 : 7개항 ○ 각영역별 성격 제시 ○ 각영역별 내용체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지침제시 ○ 각영역의 성격 이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기준성, 지침성 강화 ○ 각영역의 특성, 내용, 방법의 명확화

〈표 VII-8〉제6차 교육과정 총론의 구체적 개선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추 구 하 는 인 간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사람 ○ 자주적인 사람 ○ 창의적인 사람 ○ 도덕적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사람 ○ 자주적인 사람 ○ 창조적인 사람 ○ 도덕적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교육과정, 교육개혁 심의회 심의결과 지속적 추구
교육 과정 성 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수준 교육과정 (법적근거) • 공통적, 일반적 기준 • 시·도 편성·운영지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수준 교육 과정의 성격 명료화 ○ 시·도 교육청 역할·기능 부여
교육 과정 구성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방향 문장 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성, 공동체 의식 • 창의적 능력 개발 • 교육내용, 방법의 다양화 • 편성·운영체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을 목표, 내용, 방법, 운영면에 걸쳐 명확하게 제시함
교육 과정 구성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생활 교육 ○ 개별화 교육 ○ 놀이중심 교육 ○ 전인적 성장·발달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의 철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기초를 명확하게 제시
편성·운영 기본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4개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일수: 180일이상 • 5개발달 영역의 통합 운영 • 교재 교구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9개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4개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작성제시 - 편성·운영 자문기구 - 3세아, 종일제 운영 • 유치원(5개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 수준별 내용 제시 - 유치원 단위 연구체제 - 융통성 있는 운영 - 부모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구성·제정·편성·운영의 역할분담 명확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제정 - 지도조언 •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운영지침, - 지도조언, 평가 •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운영, 평가

②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정 주요 내용〉

가. 주요 개정 사항

개정 중점

학습 · 생활의 기초적 능력 · 태도 육성

(가) 기본생활 습관 · 예절 교육 강화

○ 「바른생활」신설:1, 2학년9주 2시간)

- 기본 생활습관, 기본 예절
 - 공중도덕, 준법 · 질서생활
- } 저학년 정착

○ 전과목 및 특별활동을 통한 도덕교육의 강화

- 도덕과:기본적 지식, 인지적 접근(3~6학년, 주 1시간)

(나) 저학년 통합교과의 합리적 조정

(현행)

바른 생활	
도 덕	사 회

⇒

(개정)

바른 생활
(기본습관 · 예절중심)

(현행)

슬기로운 생활
자 연

⇒

슬기로운 생활
사회 자연

(현행)

우리들은 1학년
교육부 구성 · 운영

⇒

입학초기 학교 적응 활동
시 · 도별 구성 · 운영

(다) 고학년의 교수 · 학습부담 감축 조정

- 4, 5, 6학년 수업시간수 감축(주당 1시간씩)
- 저학년(통합교과), 고학년(독립분과)

(라) 생활의 기초기능·태도 교육 강화

- 실과 교육내용의 실용성 제고 및 전학년 관련지도 강화
 - 3학년부터 독립교과 설정 운영(주 1시간)
 - 1·2학년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에서 관련지도
 - 자연, 미술, 특별활동, 학교재량 시간 등을 통한 보완강화
 - 생활의 기초기능, 일에 세계, 노작활동 중심 내용 구성

(마) 학교 재량시간의 신설(주 1시간)기본생활 습관·예절 교육 강화

-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재량부여 - 창의성·자율성 발휘
- 지역, 학교, 학생의 특수성, 필요에 따른 교육활동 보충 운영
(예:영어·컴퓨터·한자·노작활동 등)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체제 확립

- 교육부 -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 고시
- 시·도 -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작성 제시(신설)
- 학교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보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 자율화 촉진○ 교육과정 연구, 교육내용·방법개선 활성화○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지도 관리 체제 확립 |
|--|

제6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 육성’에 두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정 중점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다. 교과 및 특별활동의 수업 시간 수 비교

〈표 VII-9〉현행 교육과정

학 년		1		2
구 분				
교 과 활 동	국 어	우리 들은 1학년 18 (3월)	7	7
	산 수		4	4
	바 른 생 활		4	4
	슬기로운 생활		2	2
	즐 거 운 생 활		6	7
	특 별 생 활		1	1
계			24	25

학 년		3	4	5	6
구 분					
교 과 활 동	도 덕	2	2	2	2
	국 어	7	6	6	6
	사 회	3	3	4	4
	산 수	4	4	5	5
	자 연	3	4	4	4
	체 육	3	3	3	3
	음 악	2	2	2	2
	미 술	2	2	2	2
	실 과	-	2	2	2
특 별 생 활		2	2	2	2
계		28	30	32	32



〈표 VII-10〉개정 교육과정

학 년		1	2	3	4	5	6
구 분							
교 과 활 동	도 덕	바른 생활 60	68	34	34	34	34
	국 어	210	238	238	204	204	204
	수 학	210	136	136	136	170	170
	사 회	슬기로운 생활 120	136	102	102	136	136
	자 연			102	136	136	136
	체 육	즐거운 생활 102		102	102	102	102
	음 악			68	68	68	68
	미 술	180	238	34	34	34	34
	실 과	.	.	34	34	34	34
특 별 생 활		30	34	34	68	68	68
학교재량시간		.	.	34	34	34	34
연간수업시간수		790 (24)	850 (25)	952 (28)	986 (29)	1,054 (31)	1,054 (31)

- ① 이 표의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시간수임 91학년은 30주로 함)
- ② 1학년은 연간 수업 시간 수의 790시간 중에서 70시간을 입학초기 학교적응 활동에 배정하여야 함.
- ③ 1단위 시간은 40분을 원칙으로 함.

라. 총론의 구체적 개선 사항

〈표 VII - 11〉제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사항

구 분	현 형	개 정	비 고
추구하는 인간상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제5차 교육과정, 교육개혁 심의회 심의결과 지속적 추구
교육과정 성격	○미제시	○제시 ①국가수준 교육과정 (법적근거) ②공통적, 일반적 기준 ③시·도 편성, 운영 지침 필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성격 명료화 ○시·도교육청 역할·기능 부여
교육과정 구성 방침	○구성방향 문장서술	○구성방침 ①도덕성, 공동체 의식 ②창의적 능력 개발 ③내용, 방법의 다양화 ④편성·운영 체제 개선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을 목표, 내용, 방법, 운영면에 걸쳐 명확하게 제시
편성·운영 기본 지침	○계획(7개 항목) ·수업일수, 학기 구분 ·국민정신 교육 강조 ·교재, 교구, 시설 정비 등 ○지도(8개 항목) ·교수·학습지도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별 지도 등 ·기초학습 능력 신장 ·학습자료 활용 ·탐구활동 중시 ○평가(4개 항목) ·평가목적, 방법 ○기타(4개 항목) ·특수학급 운영 ·공민학교 운영 방법	○편성(11개 항목) ·시·도교육청 (4개 항목) -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작성 제시 - 편성·운영 자문 기구 구성 ·학교(7개 항목) -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수업시간 확보, 배정, 운영 등 ○운영(18개 항목) ·시·도교육청 (5개 항목) - 교육과정편성·운영지도 - 교육의 질 관리 - 교육자료 개발, 교육과정 연수 등 ·학교(13개 항목) - 기초·기본사항 지도 - 필수목표성취 - 입학초기 학교 적응활동, 학교 재량시간 운영 ○평가(5개 항목) ·평가목적, 방법, 활용 ○기타(2개 항목) - 복식학급 운영 - 공민학교 운영	○교육과정 구성·제정, 편성, 운영의 역할 분담 명확화 ·교육부 - 구성·제정 - 지도조언 ·시·도교육청 - 편성·운영지침 - 지도조언, 평가 ·학교 - 편성·운영, 평가

③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주요 내용〉

가. 주요 개정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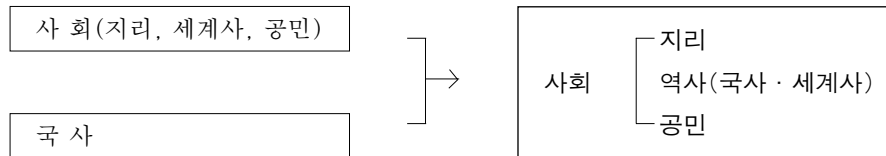
(가) 수업 시간수의 조정

- 주당 34~36시간 → 3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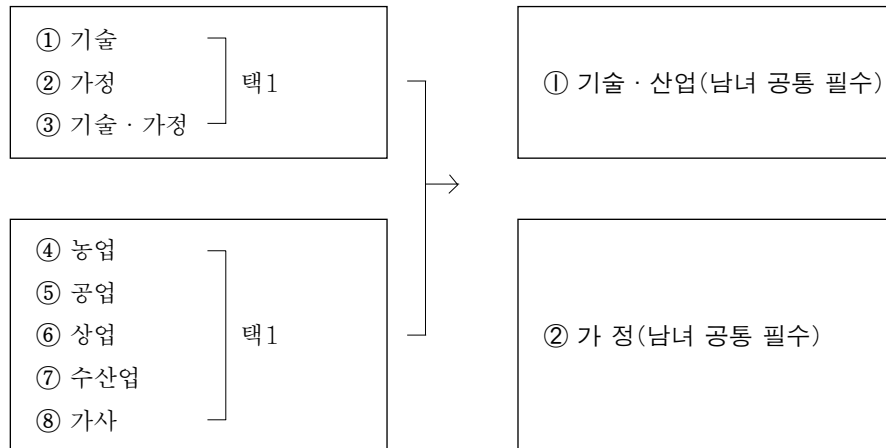
- | | |
|----------------|-----------------|
| • 북한 : 27~31시간 | • 일본 : 30시간 |
| • 중국 : 30~31시간 | • 프랑스 : 27~31시간 |

(나) 교육과정 구조의 합리적 조성

- 사회과:중학교 통합 ↔ 고교 분과



- 실업 가정과 : 교과목 이수율의 성차별 철폐



(다) 선택 교과제의 도입

시대적·사회적·개인적 요구 반영 - 교육의 다양성·적합성



- ① 한 문 _____
- ② 컴퓨터 (신설)
- ③ 환 경 (신설)
- ④ 기타 필요한 교과 (신설) _____

주당 1~2시간
(전학년)

〈선택교과〉

- ※ 일본(1학년:0~1시간, 2학년:0~3시간, 3학년:1~4시간)
- 프랑스(1학년 : 3시간, 2학년:3시간, 3학년:3시간)

(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체제 확립

- 교육부-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 고시
- 시·도-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작성 제시(신설)
- 학교-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보완)



-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 자율화 촉진
- 교육과정 연구, 교육내용·방법개선 활성화
-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지도 관리 체제 확립

제6차 교육과정은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점에서 특별한 시대적 의무를 지니게 되고, 기초, 보통 교육의 교육 내용 면에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와 교육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 결저의 분권화
-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나. 교과 및 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수 비교

〈표 VII-12〉 현행과 개정(안)의 시간 수 비교

현					개 정 안										
구분		학년			1	2	3	구분		1	2	3			
		1	2	3											
교과	도	덕	2	2	2	필수	도	덕	2	2	2				
	국	어	4	5	5		국	어	4	5	5				
	국	사	•	2	2		수	수	학	4	4*	4*			
	사	회	3	2~3	2~3			사	회*	3	4*	4*			
	수	학	4	3~4	4~5			과	학	4	4*	4*			
	과	학	4	3~4	4~5			체	육	3	3	3			
	체	육	3	3	3			교과	음	악	2	1~2*	1~2		
	음	악	2	2	1~2				미	술	2	1~2*	1~2		
	미	술	2	2	1~2				과	가	정*	2*	1*	1*	
	한	문	1	1~2	1~2					기	술·산	업*	1*	2*	2*
	외국어(영어)	4	3~5	3~5	활 동 · 가 정 · 정					영	어	4	4*	4*	
	실 업 · 가 정 · 정	기	술	택 1 3						택 1 4~6	•	선택 교과 · 기 타*	한	문	1~2*
가		정													
기술·가정															
농		업	•	•		택 1 4~6									
공		업													
상		업													
수	산	업													
가	사	업													
자	유	선	택	0~2		0~2	0~2	특 별 · 정		특	별	활	동*	1~2*	1~2*
목	별	활	동	2		2	2		표 준 수 업 시 간	34*	34*	34*			
계		34~36	34~36	34~36											

* 표는 개정된 것임

다. 총론의 구체적 개선 사항

〈표Ⅶ-13〉 제6차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점	비 고
추구하는 인 간 살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 건강한 사람 ○ 자주적인 사람 ○ 창조적인 사람 ○ 도덕적인 사람	○ 제5차 교육과정, 교육개혁 심의회 심의회결과 지속적 추구
교육과정 성 격	○미제시	○ 제시 ㉠가수준 교육과정 (법적근거) ㉡통적, 일반적 기준 ㉢시·도 편성·운영 지침 필요	○국가수준 교육과 정의 성격 명확화 ○시·도 교육청 역 할·기능 부여
교육과정 구성 방침	○구성방향 (문장서술)	○ 구성 방침 ㉠도덕성, 공동체의식 - 민주시민 ㉡창의적 능력 개발 ㉢교육내용, 방법의 다양화 ㉣편성·운영체계 개선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을 목표, 내 용, 방법, 운영면 에 걸쳐 명확하게 제시
편성·운영 기본지침	○계획(8개 항목) ·수업일수, 학기 구분 ·국민정신 교육 강조 ·교재, 교구, 시설 정비 등 ○지도(7개항목) ·학습자료활용 ·교과 및 특별활 동 관련	○ 편성(9개 항목) ·시·도교육청 (4개항목)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작성제시 - 편성·운영 자문 기구 구성 등 ·학교(7개 항목) - 학교교육과정편성 - 수업시간확보, 배정, 운영 등 ○ 운영(20개 항목) ·시·도 교육청 : 8개 항목 -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도	○교육과정 구성·제 정, 편성, 운영의 역할 분담 명확화 ·교육부 -구성·제정 지도조언 ·시·도교육청 -편성·운영지침 -지도조언, 평가 ·학교 -편성·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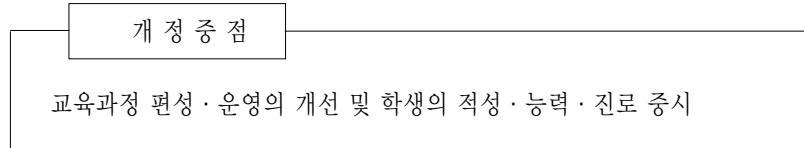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생활 중시등 <p>○평가(4개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목적, 방법, 중점 <p>○기타(5개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급 • 야간수업의 단위 시간 • 중학교에 준하는 기타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료개발, 교육과정 연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 12개 항목 - 기초·기본사항지도 - 필수목표성취 - 선택교과운영 - 도덕, 환경, 진로 지도 등 <p>○ 평가(4개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목적, 방법, 활용 등 <p>○ 기타(2개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에 준하는 학교 - 야간수업의 단위 시간 	
교육과정 체 계	<p>〈총론〉</p> <p>제 1 장 교육과정 구성방향</p> <p>제2장 중학교교육과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목표 편제 2. 교과활동의 목표, 내용 3. 특별활동의 목표, 내용 <p>〈각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과목표 2. 학년목표 및 내용 가. 목표 나. 내용 3.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가. 지도 나. 평가 	<p>〈총론〉</p> <p>제 1장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격 2. 구성방침 3. 편제 4. 시간배당 기준 5.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 <p>제2장 교과의 특별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과 2. 특별활동 <p>〈각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과의 성격 2. 교과의 목표 3. 교과의 내용 가. 내용체계 나. 학년별 내용 4. 교수·학습방법 5. 평가 	<p>○ 국가수준의 교육 내용 기준으로서 체제 정비</p> <p>○ 교육과정의 성격 제시</p> <p>○ 편성·운영 기본지침 제시</p> <p>○ 교과의 성격을 명시</p> <p>○ 목표-내용-방법-평가의 일관성 있는 기준 제시</p> <p>○ 내용체계 제시 (교과의 내용기준 명확히 파악 가능)</p> <p>○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에 관한 상세한 지침</p>

자료 :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pp.134~141), 서울 : 교육부, 1994.

④ 고등학교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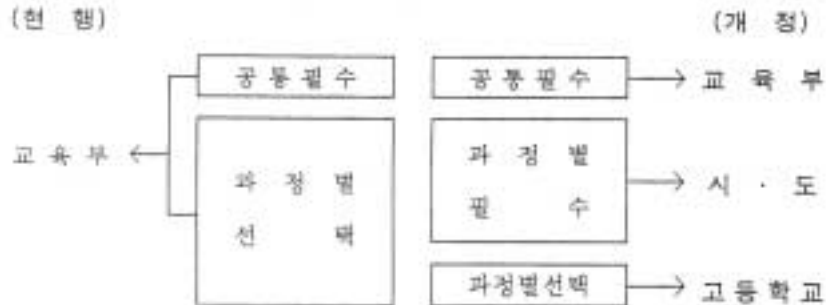
〈개정의 주요 내용〉

가. 주요 개정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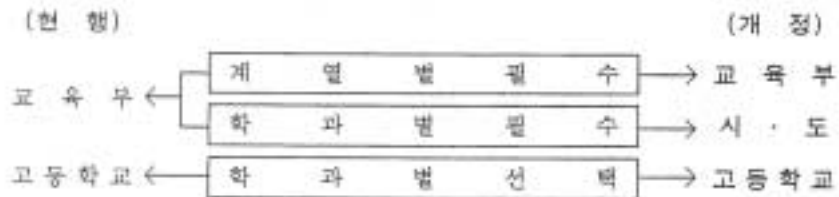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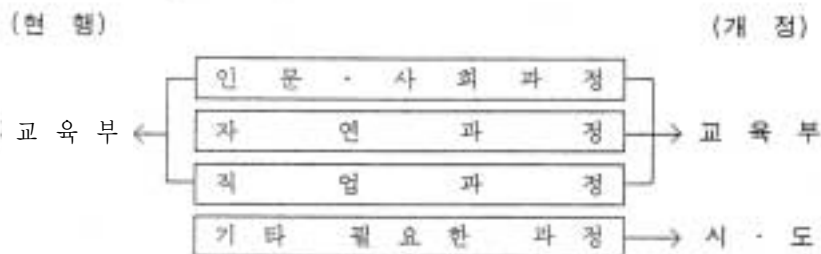
● 보통 교과



● 전문 교과



● 이수 과정(course)



(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교과 편제 · 운영 개선*

〈표 VII-14〉 전문 교과 편제 개정 사항

(현 행)		(개 정)	
① 농 업 계 고 교	45과목	• 고도산업사회 요 구 부응 ↓ • 다양한 학과 특 색있는 고교 설 립 운영 가능 ↓ • 후기 중등교육의 니람화	① 농업에 관한 교과 (43)
② 공 업 계 고 교	129과목		② 공업에 관한 교과 (101)
③ 상 업 계 고 교	22과목		③ 상업에 관한 교과 (30)
④ 수산·해운계고교	37과목		④ 수산·해운에관한교과 (28)
⑤가사·실업계고교	37과목		⑤ 가사·실업에관한교과 (22)
⑥과 학 계 고 교	18과목		⑥ 과학에 관한 교과 (18)
⑦체 육 계 고 교	21과목		⑦ 체육에 관한 교과 (25)
⑧예 술 계 고 교	29과목		⑧ 예술에 관한 교과 (27)
계 338과목			⑨ 외국어에 관한 교과 (84)
			계 378과목

(다) 학생의 적성 · 능력 ·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과목 설정

● 보통 교과

〈표 VII-15〉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목 개정 사항

교 과	현	행	개	정
국 어	①	국 어 00	①	국 어 00 *
	②	문 학 (8)	②	화 법 (4)
	③	작 문 (6)	③	독 서 (4)
	④	문 법 (4)	④	작 문 (6)
			⑤	문 법 (4)
			⑥	문 학 (8)
수 학	①	일 반수 학 (8)	①	공 통수 학 (8) *
	②	수 학 I 00	②	수 학 I 00
	③	수 학 II 08	③	수 학 II 00
			④	실 용수 학 (8)

교 과	현 행	개 정
사 회	① 정 치 · 경 제 (6) ② 사 회 · 문 화 (4) ③ 국 사 (6) ④ 세 계 사 (4) ⑤ 한 국 지 리 (4) ⑥ 세 계 지 리 (4)	① 공 통 사 회 (8) * ② 국 사 (6) * ③ 정 치 (4) ④ 경 제 (4) ⑤ 사 회 · 문 화 (4) ⑥ 세 계 사 (6) ⑦ 세 계 지 리 (6)
과 학	① 과 학 I 00 ② 과 학 II (8) ③ 물 리 (8) ④ 화 학 (8) ⑤ 생 물 (6) ⑥ 지 구 과 학 (6)	① 공 통 사 회 (8) * ② 물 리 I (4) ③ 물 리 II (8) ④ 화 학 I (4) ⑤ 화 학 II (8) ⑥ 생 물 I (4) ⑦ 생 물 II (8) ⑧ 지 구 과 학 I (4) ⑨ 지 구 과 학 II (8)
예 · 체 능	① 체 육 04 ② 음 악 (4) ③ 미 술 (4) ④ 교 련 02	① 체 육 I (8) * ② 체 육 II (6) ③ 음 악 I (4) * ④ 음 악 II (4) ⑤ 미 술 I (4) * ⑥ 미 술 II (4) ⑦ 교 련 (6)
한 문	① 한 문 (4 ~ 8)	① 한 문 I (6) ② 한 문 II (4)

교 과	현	행	계	점
실업·가정	① 기	술 (8)	① 기	술 (8)
	② 가	정 (8)	② 가	정 (8)
	③ 농	업 (8)	③ 농	업 (6)
	④ 공	업 (8)	④ 공	업 (6)
	⑤ 상	업 (8)	⑤ 상	업 (6)
	⑥ 수 산	업 (8)	⑥ 수 산	업 (6)
	⑦ 가	사 (8)	⑦ 가	사 (6)
	⑧ 정 보 산	업 (8)	⑧ 정 보 산	업 (6)
			⑨ 진 로 · 직 업	(6)
외 국 어	① 영 어	I (8)	① 공 통 영 어	(8) *
	② 영 어	II 02	② 영 어	I (8)
	③ 독 일 어	00	③ 영 어	II (8)
	④ 프 랑 스 어	00	④ 영 어 독 해	(6)
	⑤ 에스 파냐 어	00	⑤ 영 어 회 화	(6)
	⑥ 중 국 어	00	⑥ 실 무 영 어	(6)
	⑦ 일 본 어	00	⑦ 독 일 어 I	(6)
			⑧ 독 일 어 II	(6)
			⑨ 프 랑 스 어 I	(6)
			⑩ 프 랑 스 어 II	(6)
			⑪ 에스 파냐 어 I	(6)
			⑫ 에스 파냐 어 II	(6)
			⑬ 중 국 어 I	(6)
			⑭ 중 국 어 II	(6)
			⑮ 일 본 어 I	(6)
			⑯ 일 본 어 II	(6)
			⑰ 러 시 아 어 I	(6)
			⑱ 러 시 아 어 II	(6)

* 함수곤 외, 「한국 교육 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pp.355~357.

● 전문교과*

① 전문과목 통합 (계열간)

현			행		개 정
농 업	공 업	상 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통 합
식품가공	식품가공	·	통 조 립	식품저장가공	식품가공
식품학	식품화학	·	식품화학	·	식품과학
식품위생	식품위생	·	수산식품위생	식품위생	식품위생
식품가공기기	식품제조기계	·	식품가공기계	·	식품가공기계
	통신관계법규	·	전 과 법 규	·	통신관계법규
농림축량	축 량	·		·	축 량
아동발달				아동복지·유아교육원리	유아교육원리
전자계산일반	전자계산일반	전자계산일반	전자계산일반	전자계산일반	전자계산일반

② 전문과목 통합 (계열내)

과 목	현	행	개 정
	과 목		통 합 과 목
농 업	기초실습, 전공실습		실습
	농업토목설계, 응용역학		농업토목설계
	가축영양·사료, 초지		영양·사료
	유기화학, 식품미생물		식품미생물
	원예, 조원		원예조경
	농촌지도, 농업발전		농업발전
	조원계획, 조원재료시공, 조원관리		조경계획, 조경·시공관리

과 목	현 행 과 목	개 정 통 합 과 목
공 업	기초제도, 전문제도 금속화학, 금속제련, 비철금속제련 제선, 제강 유선공학, 무선공학 지질학, 탐사 건축구조역학, 응용역학	제 도 금속제련 제선·제강 통신이론 자원탐사 역학외 25과목 통합
과 목	현 행 과 목	개 정 통 합 과 목
상 업	상업서예, 타자, 문서·사무	문서실무
과 목	현 행 과 목	개 정 통 합 과 목
수산·해운	기관일반, 통신일반, 통신설기, 선 박일반 해사법규, 수산법규	선박일반 해사법규
과 목	현 행 과 목	개 정 통 합 과 목
가사·실업	관광법규, 관광사업 아동생활지도, 아동건강과 영양 의상제도, 의복구성기초 특수영양, 식생활관리 관광지리, 관광서비스 자수일반, 디자인과 색채 종합실습 외 10과목	관광일반 유아생활교육 의복구성 영양과 식품 여행관리 자 수 가사·실업실습

③ 전문과목 신설

과 목	신 설 과 목
농 업	생물공학, 생활원예, 농산물 유통, 농산물 판매관리, 환경보전
공 업	금형설계, 전자기계, 전자기계회로, 석재가공, 광고·사진, 세라믹화학, 세라믹기술, 환경기술
상 업	국제경제, 유통관리일반, 컴퓨터그래픽, 상업디자인일반, 속기, 비서일반, 비서실무, 사무자동화일반, 그래픽디자인, 상업실습
수 산 · 해 문	냉동설비설계, 자동화 선박
가 사 · 실 업	자영사업일반, 노인복지, 노인생활지원, 관광일본어, 주거
체 육	펜싱, 테드민턴, 카누
외 국 어	각외국어, 독해Ⅰ, 독해Ⅱ, 회화Ⅰ, 회화Ⅱ, 작문Ⅰ, 작문Ⅱ, 문법Ⅰ, 문법Ⅱ, 문화Ⅰ, 문화Ⅱ, 청해, 실무외국어
계	117과목

④ 전문과목 분과

교 과	현 형	개 정
농 업	원예	채소, 과수, 화훼
체 육	체육과학	체육개론, 스포츠과학

(라) 교육내용의 시대적·사회적·개인적 적합성 제고

- 기초 공통교육 강화
 - 공통과목 신설 - 공통수학, 공통사회, 공통과학, 공통영어
- 도덕 교육의 강화 및 전통 문화의 강조
 - 국민윤리→윤리(인간과 윤리, 사회와 윤리, 국가와 윤리)
 - 정치 과목의 신설(민주시민 자질, 민주적 생활태도 육성)
 - 특별활동-단체활동 신설(심신수련, 인내, 절제, 호연지기 함양)
 - 체육, 음악, 미술(전통문화-민속운동, 전통음악·미술 강화 반영)

* 함수근 외, 전계서, pp.358~359.

● 과학·환경교육 강화

- 과학 : 공통과학(탐구활동 강화) 수준별 과목 세분화(학습자 능력)
- 환경 : 환경과학, 환경보전, 환경기술 과목 신설

● 정보화 사회·고도산업 사회 대비 교육

- 산업계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교과 개설 및 운영의 융통성
(생물공학, 전자기계, 전자기계회로, 컴퓨터그래픽, 자동화선박 등)
- 실험·실습교육 강화(이론 50 : 실습 : 50)
- 경제 과목, 진로·직업 과목 신설

●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교육 강화

- 영어-의사소통기능 중심 개편, 다양한 수준별 과목 개설(6 과목)
- 제2외국어-러시아어 신설, 지도시간 증배(10 단위→12 단위)
- 외국어 전문교과 신설(84 과목)
- 세계사, 세계지리 이수단위 증배 : 4 단위→6 단위

● 예술, 정서 교육의 강화

- 음악 I 미술 I -전계열, 전과정 공통필수 과목화
- 실업계열 전학과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div>	전자계산일반 필수과목화,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div>	보통교과 이수 융통성 강화
- 음악Ⅱ 미술Ⅱ-예술에 관한 전문과목 활용

(마)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

- 이수 단위의 감축 : 204~216 단위→204 단위(기준)
- 학기당 이수 과목수의 제한 : 18 과목~20→12 과목 내외

※

 →

(다량 소시간 소활동 피상주의) (소량 다시간 다활동 심도주의)

- 학생의 적성·능력·진로를 고려한 과정, 과목 개설 및 선택 기회 확대
 - 일반계 고교의 필요한 과정 신설 가능
 - 교육과정 편제에 제시된 이외의 과목 개설 가능
 - 과목 선택의 폭과 기회확대, 학교 재량권 부여

〈표 VII-16〉 현행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단위 수 비교

교과	현행				개정		과정별선택
	공통필수	인문·사회·자연	자연과정	직업과정 실업계·기타계	공통필수	과정별 필수	
윤리	국민윤리(6)				윤리(6)		과정별 필수 과목에서 재 외된 교과목 중에서 선택 (8)
국어	국어(8)	문학(8)·과학(6) 문법(4)	문학(8) 과학(4)	문학, 과학, 문법 (4)	국어(8)	화법(4)·독서(4)·작문(6) 문법(4)·문학(8)	
한문		한문(8)	한문(4)	한문 (4)		한문Ⅰ(6)·한문Ⅱ(4)	
수학	일반수학(8)	수학Ⅰ(8)	수학Ⅱ(8)	수학Ⅰ 수학Ⅱ (6)	공통수학(8)	수학Ⅰ(8)·수학Ⅱ(8) 실용수학(8)	
사회	국사(6) 정치·경제(6) 한국지리(4)	세계사(4) 사회·문화(4) 세계지리(4)	세계사(4)	세계사 사회·문화 세계지리 (4)	공통사회(8) 국사(6)	정치(4)·경제(4) 사회·문화(4)·세계사(6) 세계지리(6)	
과학	과학Ⅰ(8)	과학Ⅱ(8)	물리(8)·화학(8) 생물 또는 지구과학(6)	물리·화학· 생물·지구 과학 (4)	공통과학(8)	물리Ⅰ(4)·물리Ⅱ(8)·화학 Ⅰ(4)·화학Ⅱ(8)·생물Ⅰ(4) 생물Ⅱ(8)·지구과학Ⅰ(4) 지구과학Ⅱ(8)	
체육	체육(6)	체육(8)		체육 (4)	체육Ⅰ(8)	체육Ⅱ(6)	
교련	교련(8)					교련(6)	
음악	음악(4)			음악·미술(2)	음악Ⅰ(4)	음악Ⅱ(4)	
미술	미술(4)				미술Ⅰ(4)	미술Ⅱ(4)	
실업·가정		기술, 가정 농업, 공업, 실업, 수산업, 가사 정보산업	택Ⅰ(8) 택Ⅱ(8)	기술, 가정(4)		기술(8)·가정(8)·농업(6) 공업(6)·상업(6)·수산업(6) 가사(6)·정보산업(6) 진로·직업(6)	철학, 논리 학, 심리학, 교육학, 생 활경제, 종 교, 환경과 학, 기타 중 에서 택일(4)
외국어	영어Ⅰ(8)	영어Ⅱ(8)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본어	택Ⅰ(8) 택Ⅱ(8)	영어Ⅱ (8)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본어 (6)	공통영어(8)	영어Ⅰ(8)·영어Ⅱ(8)·영어 독해(6)·영어회화(6) 실용영어(6) 독일어Ⅰ(6)Ⅱ(6) 프랑스어Ⅰ(6)Ⅱ(6) 에스파냐어Ⅰ(6)Ⅱ(6) 중국어Ⅰ(6)Ⅱ(6) 일본어Ⅰ(6)Ⅱ(6) 러시아어Ⅰ(6)Ⅱ(6)	
교양선택		교육학, 논리학, 심리학, 철학 생활경제, 종교	택Ⅰ(2) 택Ⅱ(2)	교육학, 논 리학, 심리 학, 철학, 생활경제, 종교 (2)			
특별활동	특별활동(8)				학급활동(8) 동아리활동 단체활동(4)		

나. 교과 및 특별활동의 이수 단위 비교

〈표 VII-17〉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추 구 하 는 인 간 상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 건강한 사람 ○ 자주적인 사람 ○ 창조적인 사람 ○ 도덕적인 사람	○제5차 교육과정, 교육개혁 심의회 심의결과 지속적 추구
성 격	○없음	○ 국가수준 교육과정 (법적근거) ○ 공통적, 일반적기준 ○ 시·도 편성·운영지침	○국가수준 교육과 정과 성격 명료화 ○시·도교육청 역할 ·기능 부여
구 성 방 침	○구성방향 문장서술	○ 구성방침 ①도 덕 성, 공동체의식 - 민주시민 ②창 의 적 능력 개발 ③교육 내용, 방법의 다양화 ④편 성·운영체계 개선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을 목표, 내 용, 방법, 운영면 에 걸쳐 명확하게 제시
편 제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 고교별 고 정제시	○ 보통교과와 전문교 과로 구분 제시 ○보통교과는 공통필수 및 과정별 필수 과목 군으로 구분 제시 ○ 전문교과는 계열에 관계없이 선택 이수 가능하게 제시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 고교별 제 시에서 보통교과 전문교과 구분 제 시로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편성·운영 기본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14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일수, 학기 구분 • 국민정신 교육 강조 • 교재, 교구, 시설 정비 등 ○ 지도(10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지도 • 학습자료 활용 • 탐구활동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17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 (4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작성제시 - 편성·운영 자문 기구 구성 • 학교(13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과정편성 -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연구 - 새로운 과목의 설정 ○ 운영(26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교육청 (7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편성·운영지도 - 교육의 질 관리 - 교육자료 개발, 보급 - 교육과정 연수 • 학교(19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기본 사항 지도 - 필수목표 성취 - 교과용도서 활용 - 교수·학습 방법 - 특수학생 지도 - 전문교과의 운영 - 특별활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구성·제정, 편성, 운영의 역할 분담 명확화 •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제정 - 지도조언 • 시·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운영지침 - 지도조언, 평가 •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운영, 평가

구 분	현 생	개 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6개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목적, 방법 ○기타(3개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수업학교 운영 - 방송통신 고등학교 운영 -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17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목적, 방법, 활용 ○ 기타(4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수업학교의 운영 - 방송통신 고등학교 운영 -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 운영 	
교육과정 체 제	<p>〈총론〉</p> <p>제 1 장 교육과정 구성방향</p> <p>제 2 장 고등학교 교육과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목표, 편제 2. 교과활동의 목표, 내용 3. 특별활동의 목표, 내용 <p>〈각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과목표 2. 학년목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목표 나. 내용 3. 지도 및 평가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도 나. 평가 	<p>〈총론〉</p> <p>제 1장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과정의 성격 2.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3. 편제 4. 단위배당 기준 5.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 <p>제2장 교과의 특별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과 • 전문교과 2. 특별활동 <p>〈각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격 2. 목표 3.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내용체계 나. 내용 4. 방법 5.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수준의 교육 내용 기준으로서 체제 정비 ○ 교육과정의 성격 제시 ○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지침 제시 ○ 교과성격 명시 ○ 목표-내용-방법-평가의 일관성 있는 기준 제시 ○ 내용 체계 제시-교과의 내용 기준 명확히 파악 가능 ○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관한 상세한 지침

자료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총론)」, 서울 : 교육부, 1995.

(4) 제6차 교육과정 개발 시 편수 행정 조직 및 편수 활동

1) 편수 행정 조직

제6차 교육과정이 개정될 당시 교육부의 편수 행정 조직은 장학 편수실장(1급 상당 장학관)을 편수관리관(2급 상당 국장급 장학관)과 3급 상당의 국장급 장학관인 교육과정 담당관, 인문사회 편수관, 사회과학 편수관, 자연과학 편수관이 보좌하는 체제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편수 관리관이 편수 업무 전반을 책임 전결 처리하였고, 장학 편수 실장은 주로 장학 업무에 전념하고 편수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형식적인 결재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장학과 편수의 이원 운영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문교부 직제 (대통령령 제12627호 1989. 2. 27)

제9조(장학 편수실)

① 장학편수실장 밑에 편수관리관,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자연과학편수관, 교육연구장학관, 정신교육장학관, 교과지도장학관 및 생활지도장학관 각 1인을 둔다.

② 장학편수실장, 편수관리관,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자연과학편수관, 교육연구장학관, 정신교육장학관, 교과지도장학관 및 생활지도장학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편수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하며 편수관리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1.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2.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및 검인정
3. 교과용 도서의 가격사정
4. 교과용 도서의 발행·공급 및 활용관리
5. 국사편찬위원회, 국어 및 한글에 관한 연구기관,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과용 도서 및 학습 참고서에 관련된 단체의 지도·감독
6. 기타 편수업무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담당관 및 각 편수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④ 교육과정담당관은 편수업무 중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교육과정의 개선
2. 교과서 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⑤ 인문과학편수관은 편수업무 중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어 및 한문 교과
2. 외국어 교과
3. 예능 및 체육 교과

⑥ 사회과학편수관은 편수 업무 중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사회·역사 및 지리 교과
2. 반공·도덕 및 국민윤리 교과

⑦ 자연과학편수관은 편수업무 중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수학·물리·화학 및 생물 교과
2. 지구과학 교과
3. 농업·공업·상업·수산·해운 및 가정 교과

① 교육부 장관

제6차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약 2년여의 기간 중에 편수 행정 조직의 변동은 없었다. 그러나 매우 특이하게도 장관과 장학편수실장, 편수관리관 등 교육과정 개정의 위계별 고위 책임자들이 동일하게 각각 세 번씩이나 빈번하게 교체됨에 따라 조직과 업무 추진의 안정성과 일관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즉,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을 발의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개정 작업을 출발시킨 정원식 장관이 계획 단계에 4개월간 재임하였다.

정 장관의 후임은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의 윤 형섭 회장이 1990년 12월 27일, 제 31대 장관으로 취임하였다. 윤 장관은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약 1년여 동안 재임하면서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적절히 지휘하였다.

윤 장관은 편수진이 합리적이고 개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신있게 지원하여준 장관이었다. 제6차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획기적인 개혁을 하였고, 특히 교과

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에 대폭적인 변동이 따랐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깊은 관련 교과 교육 전공자나 관련 학과, 학회, 단체 등의 조직적인 반발과 비판, 저항이 거세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이러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편수진을 보호하였고 개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외풍을 막아 준 소신과 장관이었다.

제6차 교육과정이 상당히 전향적인 교육과정으로 개선된 이면에는 윤형섭 장관이 편수진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남모르게 적극 지원하여준 공적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윤 장관이 대학 입학 학력고사 문제지 도난 사고의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퇴임하자 서울대학교의 조완규 총장이 1992년 1월 23일, 제32대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였다. 조 장관은 제6차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과 핵심 내용이 거의 결정된 후에 부임하였기 때문에, 태풍 후의 고요 속에 역사적인 제6차 교육과정을 조용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고시하는 장관이 되었다.

② 장학편수실장

장학 편수실장은 계획 단계에는 이준해 실장이 재임하고 있었다. 이 실장이 1991년 12월 2일에 공직을 퇴직하고 교육방송 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자(이 교육감은 후에 서울시 초대 민선 교육감으로 선출되어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다), 충청북도 교육감을 두 번이나 역임한 지방 교육 행정 전문가인 유성종 교육감이 1991년 12월 5일, 장학편수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유 성종 실장은 제6차 중학교 교육과정의 작업을 마치고 나머지 유치원, 국민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고시가 얼마 남지 않은 1992년 6월 29일에 국립교육평가원장(차관급)으로 영전하였다.

유 실장의 후임은 이미 지난 1987년부터 2년간 장학 편수 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경북 고등학교 박용진 교장이 1992년 7월 13일에 다시 실장으로 발령되었다. 박 실장은 원래 편수관 출신으로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었고, 편수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깊어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최종 정리 단계에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준 실장이 되었다.

③ 편수관리관

편수진의 직접 책임자에 해당하는 편수관리관 또한 제6차 교육과정 개정 기간 중에 세 번의 교체가 있었다. 사회과 편수관 출신인 박병호 편수관리관은 개정 기본 계획의 수립을

끝내고 기초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91년 8월 16일, 서울 동작 교육장으로 진출되었다. 그 후임에는 당시 편수 부서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던 장종택 자연과학 편수관이 편수관리관으로 승진 임명되었다. 장 편수관리관은 제6차 중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한 후 1992년 7월 12일에 경북고등학교 교장으로 전직하였다.

장 편수관리관의 후임으로는 장학편수실 소속의 심광한 교육연구 장학관이 승진 발령되었다. 심 편수관리관은 그동안 주로 장학 업무만 담당했던 장학관으로서 편수 업무는 처음이었다. 그는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이 거의 종료될 무렵인 1992년 7월 23일에 부임하였기 때문에 유치원, 국민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종 정리하여 고시 절차를 관리하는 일을 주로 맡았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제6차 교육과정 개정 기간에 공교롭게도 장관, 장학편수실장, 편수관리관 등 개정 업무에 직결된 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체 인사가 각각 세 번씩이나 있었다. 그러나 차관과 교육과정 담당관, 인문, 사회, 자연 과학 편수관은 계획 단계부터 고시에 이르기까지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당시 조규향 차관은 편수 업무와 편수 담당자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제6차 교육과정이 개혁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면에서 적극 지원한 차관으로서 개정 작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제6차 교육과정을 교육부의 주도 아래 주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었던 저력은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인문, 사회, 자연과학 편수 분야의 책임자인 편수관(3급 상당 장학관)들이 모두 장기간의 편수 경력 보유자로서 실질적인 편수 경험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었던 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네 명의 주역 편수관은 다음과 같다.

④ 주역 편수관

가. 교육과정 담당관- 함수곤 장학관 : 1979년, 교육과정 심의관실 창설 때부터 편수업무를 시작하였음. 교육과정 담당관을 거쳐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이 끝난 후인 '93. 5. 편수관리관으로 승진하여 편수 행정의 책임을 맡았으나 '94. 2.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2종 교과서 검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당시 김 숙희 장관과 의견 차이를 보여 일본 교과서 연구 센터의 객원 연구원으로 1년간 해외 연구생활을 하고 1995년에 귀국, 중앙교육연구원 교수를 거쳐 1996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임.

나. 인문과학 편수관- 한상진 장학관 : 1981년,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 편수업무를 시작하였음. 인문과학 편수관을 역임하고, 제6차 교육과정 개정 후 교육과정 담당관으로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 '94. 9 서울 가원중 교장을 거쳐 '97. 9부터 서울 동작 교육장으로 재직 후 정년 퇴임.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

다. 사회과학 편수관- 한명희 장학관 : 1980년, 사회과 교육 담당관실에서 편수 업무를 시작하였음. 사회과학 편수관을 거쳐 '94.3, 편수관리관으로 승진하여 편수 행정의 책임을 맡았고 '94. 5. 17 장학편수실에서 편수국이 다시 독립 부활된 후 첫 번째 국장이 됨.

'96. 3 서울시 교육연구원장, 서울 학생 수련원장을 거쳐 영등포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년도에 정년 퇴임함.

라. 자연과학 편수관- 김동식 장학관 : '77년 소위 편수국 사건 직후 전국을 대상으로 한 편수관 공개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77년에 편수관으로 임용된 후 계속 과학과 편수 업무(화학 과목)를 담당해오다가 '91. 8, 자연과학 편수관을 거쳐 '94. 9, 서울 오금중 교장으로 전직한 후 '98. 9부터 세륜중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1999년도에 정년 퇴임함.

2) 편수관실의 활동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주역으로 참여하였던 각 담당관실의 편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과정 담당관실

제6차 교육과정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담당관실은 개정 작업 초기에는 함수곤 담당관을 비롯하여 3명의 교육연구관과 1명의 교육연구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범주 연구관(전 윤중중학교 교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조용찬 연구관(전 신사중학교 교장)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영권 연구관(서울교육청 중등 교직과장을 거쳐 서초고 교장으로 정년 퇴임. 현재 대진고 교장)은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소정자 연구사(서울 동작교육청 학무국장을 거쳐 현재 신구초등학교 교장)는 유치원과 국민학교 교육과정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정 작업이 시작된 지 약 3개월 후인 1990년 12월에 조용찬 연구관이 교육 연구 장학관실의 장학관으로 승진하여 전출되자 그 후임에는 소정자 연구사가 연구관으로 자체 승진하게 되었다.

또, 같은 시기에 국립 교육 평가원의 김영일 연구사와 서울시에서 박정자 연구사가 전입되었다. 그 후 이범주 연구관이 1991년 3월에 서울 성수 중학교 교장으로 전직하게 되어 연구관 2명, 연구사 2명의 구성으로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마치게 되었다.

실내 업무 분장도 조정되어 기획과 종합 그리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정영권 연구관, 유치원 및 국민학교 교육과정을 소정자 연구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예산 편성 운영 등을 김영일 연구사, 중학교 교육과정과 일반 사무관리는 박정자 연구사가 각각 담당하여 처리하였다.

교육과정 담당관실의 인력 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규석 연구사가 1991년 3월에 전입되었으나 그는 사회과 교육 전공을 살려서 얼마 후 사회과학 편수관실로 자리를 옮겨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와 지역 교과서의 편찬을 맡게되었다.

조규석 연구관 후임으로 한국교총연합회에 파견 근무를 하던 김만곤 연구사가 교육과정 담당관실에 전입하였으나 그도 조규석 연구사가 인천으로 전출되자 사회과학 편수관실로 자리를 옮겼다.

② 인문과학 편수관실

인문과학 편수관실에는 국어과를 담당했던 정준섭 연구관(전 문성중 교장. 박사 학위소지), 신난수 연구사(현재 방원중 교장), 허천행 연구사(한문과 담당자로서 제6차 개정시에 특히 고통이 많았음. 현재 세일중 교장), 영어과를 담당했던 한정근 연구관(미국 LA 주재 장학관을 거쳐 현재 서울 여중 교장), 독일어 과목담당 심광원 연구사(사망), 프랑스어 과목담당 이광정 연구사(현재 경기도 백마고 교감), 체육과 담당 김석진 연구관(전 당산중 교장), 오영석 연구관(교련과 담당자로서 제6차 개정시 특히 고통이 심했음. 현재 삼정중 교장), 음악과 담당 이순영 연구관(전 신수중 교장), 미술과 담당 오병옥 연구관(전 석촌중 교장) 등이 제6차 교육과정의 국어, 외국어, 예체능 교과와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편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③ 사회과학 편수관실

사회과학 편수관실에서는 바른 생활, 도덕, 윤리과를 이창조 연구관(현재 청량교 교장), 박문기 연구관(전 영신고 교장), 김걸 연구관(현재 혜화여고 교장), 국사, 세계사 과목을 윤종영 연구관(제6차 때 중·고 편제에서 교과, 과목명에 변동이 생겨 특히 고통이 많았음. 전 금천고 교장), 신영범 연구관(전 서울 은곡중 교장), 사회과, 환경과목은 김용만 연구관

(현재 일본 동경 한국학교 교장), 슬기로운 생활, 지리 과목은 채희두 연구사(고교의 지리 과목 변동으로 특히 고통이 많았음. 현재 은평중 교장) 사회과, 일반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과목을 최병모 연구사(현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박사학위 소지), 초등 사회과와 지역 교과서를 조규석 연구사(현재 인동 초등학교 교장)와 김만곤 연구사(현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정책과 장학관)가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④ 자연과학 편수관실

자연과학 편수관실에서는 수학과를 김진락 연구관(현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 교육연구관. 박사학위 소지), 강행고 연구사(현재 강신중 교감), 과학과는 물리 과목을 이동길 연구관(전 성내중 교장), 화학 과목을 문수한 연구사(현재 방이중 교장), 생물 과목을 이재혁 연구사(현재 개포중 교장, 박사학위 소지), 지구과학 과목을 이규석 연구관(현재 상경중 교장. 박사학위 소지)이 담당하였는데,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고등학교의 공통과학 과목을 신설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가정과는 이기훈 연구관 (제6차 개정에서 과목 및 시간 배당기준에 큰 변동이 있어 특히 고통이 많았음. 전 북서울중 교장), 임공희 연구사(현재 수서중 교장), 농업에 관한 전문 교과와 국민학교 실과는 정성봉 연구관(현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박사학위 소지), 김진석 연구관(일본 삿포로 교육관을 거쳐 인천 계산고 교장. 박사학위 소지), 전진용 연구사(현재 경기도 이천 학무과장)가 있었다.

공업에 관한 전문 교과에는 장명진 연구관(현재 성동기계공고 교장), 구자락 연구관(현재 법원중 교장), 고석달 연구관(현재 서울 학생교육원 교육 기획부장, 박사학위 소지), 김의장 연구사(현재 성동교육청 학무국장), 이정규 연구사 (현재 오류중 교장)가 공업계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편찬에 헌신하였다.

상업에 관한 전문 교과에는 황장규 연구관 (전 상원중 교장. 박사학위 소지), 컴퓨터 과목의 김학영 연구관 (현재 덕수정보산업고 교장)이, 수산·해운에 관한 전문 교과는 주수동 연구사(현재 강원도 경포중 교장, 박사학위 소지)가 제6차 교육과정에서 담당 교과서의 개정을 주관하였다.

⑤ 편수관리관실

편수행정에 있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은 전문직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편수관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의 문교부 직제 제9조에 의하면 편수관리관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았다.

- 교과용 도서 편찬 및 검인정 (1종, 2종)
- 교과용 도서의 가격 사정
- 교과용 도서 발행, 공급 및 활용 관리
- 국사편찬위원회, 국어 및 한글에 관한 연구기관,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교과용 도서 및 학습 참고 도서에 관련된 단체의 지도·감독
- 기타 편수 업무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담당관 및 각 편수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차 교육과정 개정 기간 중의 편수관리관실 구성 조직은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6급 2명, 7급 2명, 임시직 2명으로 되어 있었다.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시작 당시 편수관리관실 서기관(통상 ‘편수과장’이라고 모두 불렀음)은 이기우 과장(현재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장)이었다. 2명의 사무관은 편수팀 1명, 발행팀 1명으로 나누어 일을 했는데, 편수팀은 이광수 사무관(현재 충북대학교 병원 감사)이었고, 발행팀은 송성주 사무관(현재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이었다.

이기우 서기관은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출발 당시부터 교육과정 개정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와 행정적 지원 등에 적극 노력하여 개정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기우 과장은 제6차 교육과정의 고시 전에 행정관리 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후 임에는 박경재 과장(현재 홍익대학교 파견 교수)이 부임하여 제6차 교육과정 마무리 업무에 협조하였다.

(5) 제6차 교육과정 개정기의 증언

제6차 교육과정은 과거의 교육과정 개정에 비하여 개정과정의 공개화, 민주화, 전문화에 각별히 노력하였다. 그래서 제6차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수시로 언론 매체, 공청회, 검토회, TV 토론 등을 열어 개정 상황을 공개하고 전 교원과 학부모, 전문가, 행정가, 국민 등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하여 반영하는데 노력하였다.

다음에 당시 각급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하여 고시하고 배포한 보도 자료와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제6차 교육과정에 대한 논평 등을 간추려서 제시하고자 한다.

〈보도 자료〉

1) 유치원 · 국민학교 교육과정 확정 고시

교육부는 9월 30일, 유치원과 국민학교 교육과정을 확정하여 고시하였다. 지난 '90년도부터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지난 6월 30일에 1차로 중학교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고시한 교육부는 이 날 2차로 유치원과 국민학교의 개정된 교육과정을 발표했으며, 오는 10월 30일에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유치원

○ 국민학교 취학 이전의 유치원 단계(3~5세)의 초기경험이 인간 성격형성과 사회적 행동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유치원 교육과정은 개정의 기본 방향을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의 형성과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돕는 교육」에 두고, ① 기본 생활 교육 ② 개별화 교육 ③ 놀이 중심 교육 ④ 전인 교육의 실현에 중점을 두어 개정하였다.

○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영역을 현행의 「신체발달영역」, 「언어발달영역」, 「인지발달영역」, 「정서발달영역」, 「사회성발달영역」 등 5개 영역에서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등 5개 영역으로 개편하였다.

○ 특히 입학연령의 하향화('92.3시행 : 4세→3세)로 유치원의 학습집단이 상이한 연령층으로 구성됨에 따라, 현행 교육과정의 획일적 단일 내용 기준(5개 영역 : 76개 교육 목표)을 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 요구, 필요 등을 고려한 수준별 내용기준(5개 영역 : 공동수준 38개, I 수준 102개, II 수준 146개 교육 내용 기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유아의 발달과 수준에 적합한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 점이 특색이다.

○ 또한, 기본 생활 습관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의 전영역에 걸쳐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절, 준법, 질서, 청결, 절제 등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였고, 특히 물자 절약, 환경 보전, 식생활 습관 등은 유아 시절부터 그 기초가 바르게 형성되도록 하였다.

○ 글자 교육은 유아의 생활 경험과 성장 환경, 발달 속도 등을 고려하여 글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 쓰기도구의 사용, 쓰기의 범위와 수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유아의 수준에 적합하게 조성하였다.

○ 교육시간은 현행 하루 3시간의 고정적, 획일적 운영형태에서 지역 특성과 유치원 실

정, 교육적 필요 등에 따라 반일제와 종일제 등의 형태로 교육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편성·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 다양한 조기 교육 경험 요구,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요구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유치원 교육을 위한 것이다.

○ 이 밖에도 교통안전을 비롯한 각종 위험과 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안전 교육, 타인존중과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 공중 도덕, 주변환경과 자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성 등의 함양에 중점을 두는 교육내용으로 개정된 것이 큰 변화이다.

국 민 학 교

국민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과 태도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으며, 학습활동에서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활동(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 학습과제를 많이 제시하여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어린시절부터 많이 가지도록 한 점 등이 특색이다.

이 번에 개정된 각 교과와 주요 개정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학년〉

○ 현행 바른 생활과의 내용이 주변의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와 공동생활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구성된 것을 개정된 바른 생활과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천위주의 기본 생활 습관과 기본 생활 예절 중심으로 개편하였고, 사회 현상에 관한 내용은 슬기로운 생활과로 옮겼다. 이는 저학년 단계에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규범의 기초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바른 생활과의 내용은 개인생활, 가정·이웃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민족생활에 걸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예절·규범과 습관화시켜야 할 구체적 덕목이 생활과의 관련속에서 제시되었다.

〈바른 생활과의 주요내용〉

1학년 : 인사, 말씨, 정리정돈, 식사예절, 질서, 쓰레기 처리, 교통안전 등 21개 기준

2학년 : 바른자세, 절약, 효도, 방문예절, 책임완수, 공중도덕, 환경보전 등 24개 기준

○ 슬기로운 생활과는 현행의 자연현상 중심의 내용에서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을 하나의 주변환경으로 인식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통합 교과로 구성하였다.

이같은 구성 방침 아래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과 사회의 관계, 자신과 자연의 관계, 편리한 생활과 공리 등의 4개 영역을 설정하고 주변현상을 자신과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하여 주변환경을 인식하는 통합적 안목과 문제해결의 초보적 능력을 위한 내용을 개정하였다.

○ 즐거운 생활과는 민속놀이, 전통음악 등에 대한 내용을 강화했고, 음악회, 전람회, 문화제, 유적지 관람·답사 등의 현장 학습 활동을 강조하였다.

○ 1학년 신입생이 3월 한 달간 학습하는 현행 「우리들은 1학년」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그 목표와 내용을 획일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역별로 국민학교 신입생의 생활경험, 성장배경, 능력 수준, 지역특성, 학교실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적합하게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에 이관하였다.

이는 유치원 교육경험, 지역특성, 학교별 실정 등이 제각기 상이한 현실 교육여건과 개인차가 많은 학습 준비도를 지닌 신입생에게 획일적인 교육내용을 제시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교육현장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창의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조치로서 중앙집중형 교육과정을 분권형으로 전환하는 제6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인 것이다.

〈3~6학년〉

○ 도덕과는 학생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현행의 「국가생활」과 「통일·안보생활」 영역을 「국가·민족생활」로 통합 조정하여 민족공동체 교육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였다.

○ 국어과는 국어 사용 능력신장에 중점을 두고,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의 언어사용 기능을 학생 중심의 활동을 통해 신장하도록 강조하였다.

○ 현행 산수과는 수학과로 교과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는 종래의 수와 계산 중심의 지도내용에서 논리·수학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 중심으로 변화하는 수학교육의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며, 수학 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Arithmetic→Mathematics)

○ 사회과는 내용수준을 하향 조정하였고 학습분량을 축소하면서 쉽고, 재미있는 생활속

의 사회교과로 개정하였다.

단원수를 현행 19개에서 16개로 축소했고, 사회문제, 사회과학의 학문 체계 등을 학생을 생활경험과 관련시켜 내용을 구성하였다.

○ 자연과는 지식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내용을 지식과 탐구활동을 함께 제시하는 형태로 바꿔 생활 속의 과학으로 개정하였고, 지나치게 학문적인 내용을 축소 조정하면서 실생활 관련문제를 증가시켰으며, 과학적인 태도의 형성에도 중점을 두었다.

○ 체육과는 기본운동을 1~4학년까지만 배정하고, 5, 6학년에 체력운동을 신설하여 건강한 체력과 강인한 의지·인내심을 기르도록 하였으며, 제기차기, 팽이치기, 널뛰기, 씨름, 태권도 등과 같은 민속운동을 체육과의 교육내용으로 도입하여 각 학년에 알맞게 제시한 점이 특색이다.

○ 음악과는 음악적 감각계발과 개성적 표현활동을 체계화하는 한편, 전통음악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학습내용을 강조하여 전래동요 및 민요와 장구, 소고, 단소 등 전통 악기의 기초 기능을 기르도록 하였다.

○ 미술과는 생활 속에서 미술의 감성적 체험을 강조하고 감성, 창조, 개성교육을 더 중시하며, 우리 고유의 전통미술 교육을 표현, 감상면에 걸쳐 강조하고 박물관, 미술관, 전시회 등의 관람을 통한 현장 학습을 강화하였다.

○ 실과는 현행 4학년부터 배우던 것을 3학년부터 이수하도록 확대하면서 노작 활동과 실생활 중심의 내용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현행 실과의 영역인 「생활계획과 관리」, 「생활기능」, 「소비와 절약」, 「일과 직업의 이해」 등의 4개 영역을 「다루기」, 「만들기」, 「가꾸기 및 기르기」, 「건사하기」 등 실생활 및 노작활동을 강조하는 실천 중심으로 개정하고, 특히 기르기 영역은 지역의 특성과 학교 실정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교육현장에 부여하였다.

○ 특별 활동은 학급어린이회와 적응활동을 포함하는 「학급활동」과 전교어린이회와 학교행사를 포함하는 「학교활동」, 그리고 흥미·취미·소질이 비슷한 학생들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클럽활동」 등 3개 영역으로 하고, 특히 적응활동에 중점을 두어 「기본 생활습관 형성활동」을 신설하고, 학급 담임 교사 지도 아래 교과와 더불어 생활 적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즐겁고 바른 학교 생활이 되도록 했다.

○ 특히 제6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학교 재량시간」(3학년 이상 주당 1시간)에는 교육과정 편제에 제시된 교과의 보충이나 특별 활동의 보충, 또는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및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창의적인 교육활동(예 : 한자, 영어, 컴퓨터 노작 등

의 활동)을 골라서 지역특성과 학생실정에 알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평가는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를 지양하고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표현, 태도, 관찰 평가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하고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등의 교과는 태도, 표현, 기능 등의 평가에 타당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게 하였다.

또한, 1, 2학년 교과학습 평가는 점수화하지 않고, 학생의 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시험점수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전인적 인간교육을 실천하였다.

2) 중학교 교육과정 확정 고시

교육부는 '90년부터 추진해 온 제6차 교육 과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제1차로 중학교 교육 과정을 6월 30일 확정고시한다. 이어 오는 9월 30일에는 유치원과 국민 학교 교육 과정을 고시하고, 10월 30일, 고등 학교 교육 과정의 고시를 끝으로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이번 제6차 교육 과정 개정은 21세기를 대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민주화, 정보 사회화, 고도 산업화, 국제화, 통일 대비 등 급격한 시대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고,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초·중등 학교의 기초·보통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룩한다는 목표 아래 미래 사회에 필요한 도덕성의 함양과 창의성의 개발에 특히 역점을 두고 개정되었다.

또한, 학생의 개성, 능력, 진로 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습 부담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한편, 중앙 집중형 교육과정을 지방 분산형으로 전환하여 교육의 획일화와 경직화를 방지하고,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창의성과 자율적인 재량을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 자치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교육 과정의 구조와 체제를 갖추게 된 점이 종전과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고시된 중학교 교육 과정은 오는 '95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94년 말까지 이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개발과 교원에 대한 새 교육 과정 연수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특히 결정과정의 민주화와 전문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 특색이다. 개정의 기초 연구단계에서부터 최종 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현장, 교원, 교육 전문가, 교육 행정가 등 관계자의 연구, 협의와 공청회, 세미나, TV토론 등이 실시되었다(3,350명 참가). 특히, 전국 179교의 8,134명의 현장교원이 담당 교과의 개정 시안을 검

토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와는 별도로 2,512명의 교육 과정 심의 위원들이 각 교과별로 전문적인 심의를 하는 등,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적으로 거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6월 30일 고시한 제6차 중학교 교육 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수업 시간수를 현행 주당 34~36 시간에서 34 시간으로 조정하였다.

2. 중학교의 사회는 현행 「사회」(지리, 세계사, 공민)와 「국가」의 2개 교과로 설정된 것을 사회(지리, 국사, 세계사, 공민) 교과로 통합하여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사회, 과학 등의 교과를 세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동일하게 하고, 고등학교 단계부터 각 교과를 하위과목으로 분리하여 설정하기로 하였다.

3. 실업·가정과는 현행 ① 기술 ②가정 ③ 기술·가정 ④ 농업 ⑤ 공업 ⑥ 상업 ⑦ 수산업 ⑧ 가사 등 8개 과목 가운데 기술, 가정 중 1과목, 농·공·상·수산·가사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남자는 기술, 여자는 가정을 거의 선택하는 경향이다. 이에 따라 교육 내용이수에 있어서 성차별의 논란과 실제 생활과의 관련 등의 문제가 있어 ① 가정 ② 기술·산업 2개 교과로 통합 개편하여 남녀 공동 필수로 지정하였다.

4. 이번 중학교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서 선택 교과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시대적, 사회적, 개인적 교육 요구에 의해 교육의 다양성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 마련된 선택 교과는 ① 한문 ②컴퓨터 ③환경의 3과목과 그 외 필요한 교과를 지역과 학교의 독특한 특성과 필요에 맞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선택 교과 중 한문은 종전의 필수 과목이던 것을 변경한 것이고, 컴퓨터와 환경은 이번에 처음 신설된 과목이다.

5.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를 확립한 점이 새롭다. 종전에는 교육부가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만이 각 학교에 직접 전달되었으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는 교육 내용의 국가 수준의 기준을 고시하고, 시·도 교육청은 국가 기준을 근거로 당해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편성·운영을 지도하며, 각 학교는 국가 기준과 시·도의 지침을 근거로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교육 현장-시·도-교육부’의 역할 기능을 명확히 하였다.

6. 이번에 고시된 중학교 교육과정의 각 교과별 내용 기준은 과거에 비해 교과의 성격을 분명히 밝혔고, 내용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새로 제시하였으며, 지도 방법과 평가

의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한 점이 특징으로서 현장 교원이나 교과 집필자, 교육 행정가, 학부모 등 교육 관련 당사자의 활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특히, 도덕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근검 절약 교육, 보건·안전 교육, 성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등은 전 교과에 걸쳐서 강조 구현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3) 고등학교 교육과정 확정 고시

교육부는 10월 30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였다. 이로써 교육부는 지난 '90년부터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제6차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정을 모두 마치고, '95년까지 교과서 개발과 교원 연수에 계속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고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96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일반 교양교육과 직업준비를 위한 전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국제화, 정보화, 고도산업화, 경제구조의 변혁 등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교육과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후기 중등교육의 충실과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1. 고등학교의 교과편제는 현행 일반계, 실업계(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계, 체육계, 예술계 고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제시된 폐쇄형 체제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일반교양교육)와 전문교과(직업, 전문 교육)로 구분하여 모든 고등학교가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선택·운영할 수 있는 개방형 체제로 개선하여, 고등학교의 성격과 교육목적에 따라 필요한 교과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개정은 앞으로 급속한 사회의 변동, 지역의 특성, 학교의 실정, 산업계의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특성있는 고교와 다양한 학과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교과목의 선택 폭을 확대하여 후기 중등교육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고등학교의 일반 교양교육을 위한 보통교과(70 과목)는 계열과 과정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공통필수과목」(10 과목)만 교육부가 지정하여 공통 핵심을 유지하고 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정필수과목」은 시·도 교육청에서, 또 「과정선택과목」은 각 고등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교육부가 고등학교의 이수과목 전체를 획일적으로 결정했던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을 다양한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시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지방

과 학교의 창의적 자율재량을 대폭 확대하였다.

3. 직업, 전문교과(378 과목)는 동일한 계열(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의 모든 학생이 이수할 「계열별 필수 전문교과」만 교육부가 2~4과목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각 「학과별 필수 전문 교과」는 시·도가, 「학과별 선택 전문교과」는 각 학교가 선택하도록 개선하여 전문 교육을 주로하는 고등학교가 산업구조, 지역의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알맞은 전문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했던 「외국어에 관한 전문교과」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외국어에 걸쳐 독해, 회화, 작문, 문법, 청해, 실무, 문화 영역별로 84개 과목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국제화에 대비하는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하였다.

4. 또한, 현행 실업계의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에 관한 전문교과(270 과목)를 산업구조의 현실과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준비 기초 기능의 강화 및 중복·유사과목의 해소 등을 위하여 대폭 통폐합하고, 미래사회의 산업구조와 정보화, 첨단기술 등의 발전에 대비한 새로운 전문 교과를 추가하여 개정안에서는 224개 과목으로 조정하였다.

5. 고등학교 학생의 학습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현행 3년간 총 이수단위 204~216 단위를 204 단위 기준으로 조정하였고,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현행 18~20 과목에서 12 과목 내외로 감축했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금까지는 인문·사회과정(문과)과 자연 과정(이과), 직업 과정의 3개 과정만 설치 운영하던 것을 3개 과정 이외에 지역 특성, 학교 실정, 학생 요구 등을 고려하여 기타 필요한 과정을 시·도별로 설치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6. 학생의 다양한 적성, 능력, 진로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특성별 과목을 대폭 신설하였다.

(보통교과 : 현행 46 과목→70 과목, 전문교과 : 현행 338 과목→378 과목)

교육내용의 위계성이 강하여 선수 학습능력이 과목 이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학, 과학, 외국어, 한문 등의 교과는 여러 수준의 과목을 설정하여 우수자, 부진자, 진학희망자, 비진학자 등이 제각기 능력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주요 일간지 보도 내용〉

1) 유치원·국민학교 교육과정 보도내용 요약

신문명	일 자	면 수	제 목	요 약	비 고
동아 일보	'92. 9.30	20	○ 지식보다 인생교육 에 치중 ○ 국교: 예절 도덕교 육 강화 ○ 유치원: 은종일 봐 주기 신설	○ 국교·유치원 교육과정 개편 의미 - 버릇없이 안되게 바른생활 지도 - 국민학교·유치원 교육과정 개 정내용 주요골자 표로 제시 ○ 국교: 3학년이상 컴퓨터 등 권장 ○ 유치원: 3세부터 입학, 능력별 수업 ’95-’97년 단계적 실시	해설 기사
중앙 일보	'92. 9.30	(사회1) (사회3)	○ 국교 교과서 쉽고 재미있게 바뀐다. ○ 국교실과, 직접 일 하기 중심으로	○ 제기차기, 널뛰기, 국악포함 - 산수는 수학으로 바뀌, 논리 적 사고에 중점 - 유치원은 3단계로 차등화, 중 일제 운영 가능토록 ○ '95년부터 달라지는 국교·유치 원교육 - 국어: 실제 언어사용 능력습 득 중시 - 자연: 환경분야 확대, 관찰· 실습 강조 - 유치원교육 자기이론 쓸수있게	기사 해설
문화 일보	'92. 9.30	1 18	○ 유치원 종일수업 실시 ○ 현장학습 늘리고 창조력 기르기 치중	○ 교육부 '95년부터 초등학교과정 개편 고시 - 국교예절-실용교육 강화 - 산수를 수학으로 개칭, 논리 적사고 길러 ○ 유치원 국교 새교육과정 내용 - 유치원, 물자절약, 환경보전 중요성 강조 - 국민학교, 5-6학년 민속체력 운동을 신설	기사 해설

신문명	일 자	면 수	제 목	요 약	비 고
국민 일보	'92. 9.30	18	○국교교육, 실용·전 통·예절 강화 ○어린이교육 어떻게 달라지나	○석류·민속 등 민속교과 도입 ○유치원 운영 전일제로 확대 ○실현·조사·토론 등 공동학습 중시 - 산수→수학개칭, 난이도 하향 조정 ○유치원 교육수준 3차원, 글자학 습 허용	기사 해설
한국 일보	'92. 9.30		○산수-수학으로 변 경 이뤄진다.	○'95년부터 단계적용 유치원·국 교 교육 과정 - 국어는 언어능력에 중점 - 유치원 전일제 수업 가능	기사
한국 교육 신문	'92. 9.30	1 3	○국교 산수 수학으 로 이름 바뀐다. ○수업시간 줄이고 통합교과	○6차 유치원-국교 교육과정 고시 - 우리들은 1학년 시·도보 이관 - 유치원은 통일·반일제 등 다 양하게 운영 ○국교: 도덕교육 강화하고 실과 교육을 독립 ○유치원: 건강·사회·표현·언어· 탐구생활 강조 - 국교 수업시간수 5차와 비교 제시	기사 해설
중앙 경제 신문	'92. 10.1	17	○국교 전통음악·예 절 교육 강화	○유치원 맞벌이 감안 전일제로 확대	기사
세계 일보	'92. 10.1	23 21 18	○국교예절 도덕교육 강화 ○유치원-국교 교육 과정 어떻게 달라 지나	○교육부 교육과정 확정, '95년부 터 단계적 실시 - 3학년이상 컴퓨터 권장 - 유치원 능력별 수업-은총일 교육 ○예절을 아는 어린이를 키운다. - 유치원: 기본생활 습관형성, 놀이중심 교육 주력 - 국교: 실현-전학 등 직접 체험 통한 학습 강화	기사 해설
한국 경제 신문	'92. 10.1	23	○국교교육 실용·전 통 중시	○'95년부터 유치원 3세 취원가능 전일제 운영	기사

신문명	일 자	면 수	세 목	요 약	비 고
조선 일보	'92. 10.1	30	○국교교과서 생활관련 예절교육 강화	○국악-민속놀이도 보장 ○유치원 교육시간 다양화 중일제 운영허용 -'95년부터 단계적용	기사
경향 신문	'92. 10.1	23 21	○국교예절·전통교육 강화 ○'95년부터 달라질 국교·유치원교육	○교육과정 개편 '95학년도부터 단계시행 -도덕·사회분리, 산수는 수학으로 -유치원은 중일교육 권장 ○성장과정부부터 전인교육에 역점 -국민학교: 실험·관찰·토론 등 공동학습 지중 -유치원: 글 관심갖도록 이름 쓰기 등 가르쳐	기사 해설
한겨레 신문	'92. 10.1	14	○국교과목 쉽고 다양해진다.	○'95년부터 산수는 수학으로 자연·사회현상 한데 묶어 ○유치원: 반나절·중일제 실시	기사
서울 신문	'92. 10.1	18	○국교예절·전통문화 교육 강화	○교육부 '95학년도부터 단계시행 -산수는 수학으로 명칭 바뀌 -유치원은 중일제 운영도 허용 ○달라지는 국교·유치원교육 -국교: 재기착기, 연날리기, 국악포함 -유치원: 절약·환경보호 등 새 과목 추가	기사 해설
한국 일보	'92. 10.1	22	○국교교과서 쉽게 전통교육 늘 강화	○산수명칭 수학으로 변경 사고력 중점 ○국어는 실생활 언어능력 신장에 주안	기사
교육 신보	'92. 9.28	22	○국교교과 뿌리찾기로 개혁	○음악·미술·체육 교과서 비중 높여 -바른생활: 예절·공중도덕 중실개편 -수학 난이도 낮혀 실생활 다뤄	기사
교원 복지 신문	'92. 9.28		○유치원 교육과정 ○국민학교 교육과정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생활 영역으로 자세히 기술 ○제6차 교육과정 개정내용 -각 교과별로 주요개정 내용기술 -수업시간수 비교 제시	기사

2) 중학교 교육과정 보도 내용 요약

신문명	일자	면수	제 목	요 약	비 고
조선 일보	6.28	2 18	○ 중학수학-과학과 '95년부터 세워 진다. ○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방향	○ 국어·영어는 말하기, 듣기, 쓰 기 위주로 강화된다. ○ 학습부담 경감, 실용성에 초점 - 컴퓨터 사용권장, 정보 사회 대비, 특별활동 강화, 전일제 실시도 허용	기사 해설
경향 신문	6.28	3 17 19	○ 교과개편, 운영에 달려있다. ○ 확정된 중학교과 개편 특징 ○ 중학교 수학·과학 세워진다.	○ 전인교육의 장래는 교육현장의 회기적 개혁에 달려있다. ○ 학습부담 덜고 전인교육에 초점 ○ 어문과목 실용성 비중 ○ 공부부담 덜고 실용성위주로 개편 - 도덕·창의성 살리고 이수과 목 다양화 - 각 교과 설명 ○ 어려운 단원 고교로 넘겨 ○ 국·영도 말하기 듣기 위주 ○ 도덕서는 북한미관 삭제	사설 해설 기사
한겨레 신문	6.28	1 14	○ 중학 수학·과학 세 워진다. ○ 중학 교육과정 개 편 방향	○ 국어, 영어 말하기 듣기에 역점 을 두고 수업참여로 교사중심 에서 학생중심으로 된다. ○ 수업부담 덜고 다양성 살려 운영 ○ 1주 34시간 편성하게 선택교과 제 도입 ○ 컴퓨터·환경 신설 ○ 각교과 주요내용 해설	기사 해설
세계 일보	6.28	1	○ 중학 수학, 과학 세워진다. ○ 컴퓨터, 환경 선택 과목으로 신설되고 주당 수업시간 34 시간으로 출역	○ 국·영어 말하기, 듣기위주로 개 편	기사

신문명	일 자	면 수	제 목	요 약	비 고
		3	○새 중학교교육과정의 후속조치	○도덕: ○북한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교육할 필요 ○국어, 영어 등 어문교육에서의 실용성 위주는 긍정적	사설
		21	○중학교 교과과정 어떻게 달라지나	○학습부담 줄이고 실용성으로 개편된 교과목의 내용을 설명	해설
중앙 일보	6.27	1	○중학교와 수학·과 학내용 쉬워진다.	○국어·영어는 말하기, 듣기 위주 로 바뀌고, 환경, 윤리, 통일교 육은 전교과서 강조	기사
		22	○새중학 교육과정 무엇이 달라졌나	○이론보다 산지식에 비중 높이고 - 국사: 왕조사 벗고 - 도덕: 청소년 문화 다뤄 - 기술·가정: 실용·소비자 교육 - 기타 교과목 주요내용 설명	해설
중앙 일보	6.27	1	○중학교 수학·과학 쉬워진다.	○국·영어 말하기, 듣기에 역점 ○도덕과목 북한비판 삭제 ○특별활동 강화 학생마다 한가 지 이상 역할달게	기사
		5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특징	○공부부담 덜고 실용성위주로 개편된 교육과정의 주요내용 설명	해설
국민 일보	6.27	1	○수학·과학 쉬워진 다.	○어학과목은 말하기 배양에 중 심이고 선택교과제도 처음으로 도입	기사
		3	○새중학교교육과정 내 용	○시대변화에 따라 환경·컴퓨터 등 신설 일부 교육과정 편성권 이관하여 자율화 전기 마련	해설

3) 고등학교 교육과정 보도 내용 요약

신문명	일 자	면 수	제 목	요 약	비 고
조선 일보	10.30	1 30	○고교 교과편제 전 면 개편 ○'교육 실용화'보강 확기적 수술	○'96학년도부터 인문·실업 공통 10개 필수과목 지정 -외국어 의사소통, 유창성 위 주로 -수학, 한문 등 난이도별 과목 설치 ○교육부 확정 새 고교 교육과정 -과목 대폭 늘려 학생선택권 강화 ·국어: 다양한 학습경험 위 해 화법 독서 추가 ·수학: 실생활 적용 강조한 '실용수학'을 신설 ·외국어: 영어과목 늘리고 러 시아어 추가 설치 ○각 교과 해설	기사 해설
한국 일보	10.30	23	○고교 교과편제 대 폭 개편	○보통(일반교양) 전문(직업교 육) 구분 자율선택 -실업계 유사·중복과목 통제함 -특수고, 외국어 과목수 늘려	기사
경향 신문	10.30	23 21	○같은 과목 교과서 복수로 ○고교 교육과정 개 편 내용	○'96학년도 고교 교과개편 수학 능력 맞춰 선택 -계열단위 지정교과 폐지 -전문·보통교과로 2원화 -러시아어 제2외국어에 포함 ○능력별 반편성 전제로 -국어: 화법·독서 추가 -수학: 실용수학 신설 -영어: 회화능력 역점 -교련: 군사훈련 삭제 ○대입제도 개선되야 정학가능 지적도	기사 해설

신문명	일 자	면 수	제 목	요 약	비 고
한겨레 신문	10.30	14	○고교 교과제열 구 분 없앤다.	○'96년부터 보통·전문 나눈뒤 과 목 자율선택 ○학기당 이수과목수도 12개 안 밖으로 줄여 -총론부분 요약화 ○중앙집권·획일화 탈피 자율확대 -일선학교 제량권 확보여부 과제로 -각교과 해설	기사 해설
세계 일보	10.30	23	○고교교육 '개방형 체제'로 전환	○교육부 '96학년부터 학교 필요 에 따라 과목선택 운영 -이수과목 주당 수업시간도 축소	기사
한국 경제 신문	10.30	23	○고교교육 자율권 확대	○당국 고시 교과목 자체 선정· 수업시간 줄여	기사
중앙 경제 신문	10.30	19	○고교 교육과정 전 면 개편	○'96학년도부터 계열별 『개방형 체제』로	기사
서울 신문	10.30	19	○고교 교과 개정안 확정	○교육부 고시 -폐쇄형 체제를 개방형으로 변경 -'95년부터 '98년까지 새교과 서 배포 계획	기사
서울 경제 신문	10.30	19	○고교 교육과정 개 편	○이수과목 20개서 12개로 축소 -교육부 '96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기사
한겨 레 신문	10.31	12	○새식대-새습, 고교교육과정 실시	○개방주제 전문성 확보 초점 ○적성·능력 맞게 선택목 넓혀 ○대입제도 개선 실마리 기대	해설

〈석 간〉

신문명	일 자	면 수	제 목	요 약	비 고
동아 일보	10.30	3 21	○교육현장 제향권 확대 ○고교 교과서 실력 따라 차등화	○인문고에도 고급과정 설치 가능 ○대학입시 내신평가도 변화예상 -고교 교육과정 개정내용 도 표 제시 ○문·이 직업과정과 예능-외국 어 설치 -보도자료 요약 기사화	해설 기사
중앙 일보	10.30	1 21	○교과 개편만으로 부족하다. ○영·수 등 실용위주 개편	○교육과정의 개편의 학교의 자 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한 내용 들이어서 매우 낱원일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교사양성, 교육정책, 교육부자 가 이루어져야 ○실력·진로따라 과목 세분 -인문·실업 등 계열구분 없애	사설 기사
문화 일보	10.30	1 23	○이젠 「발에 신발 맞추는 교육」할때 ○영어교육 최화 위 주로	○'96년개편 고교교육과정 새교육 과정의 과제 -다원화 사회 걸맞는 교사- 시설 확충없인 공염불 ○고교 교과개편안 '96년 시행 -세계사 등 국제관련 강화	해설 기사
국민 일보	10.30	17 18	○교과서 선택, 자율 성 확대 "획기적" ○같은 과목 교과서 능력별 차등화	○교육부 확정 새 고교 교육과정 -실용교육 대폭강화; 국어에 화법, 독서 추가 -러시아어 제2외국어 추가·영 어과목 늘려 -과목별 중요내용 소개 ○고교 교과편제 대폭 개편 -계열 폐지, 학기당 이수과목 12개로	해설 기사

3.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

(1) 제6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편찬

1) 1종 도서 편찬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는 19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종 도서는 대학 또는 연구 기관에 위탁하여 편찬하였고, 2종 도서는 교육부가 검정 신청 공고를 하고 저자의 신청을 받아 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최종 합격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 편찬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 제시되었다.

-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구성방침의 구현 및 국제 경쟁력의 강화 기여
- 교과용 도서의 내용 선정과 방법의 제시에 있어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도덕성, 바른 역사관, 민주시민 의식과 창의성 강조
- 교육의 질 관리에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자료로서의 기능 강화
- 학생의 개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지도와 생활 교육 및 자율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용 도서 편찬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1종 도서 편찬 현황을 각급 학교별로 총괄해서 살펴보면 <표Ⅶ-18>과 같다.

<표Ⅶ-18>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1종 도서 편찬 총괄표

연도별 학교급별		'93			'94			'95			'96			'97			합 계		
		교과서	지도서	계	교과서	지도서	계	교과서	지도서	계	교과서	지도서	계	교과서	지도서	계	교과서	지도서	계
유치원			10	10													10	10	
국민학교		36	21	57	79	43	122	52	28	80							167	92	259
중학교		6	4	10	6	6	12	4	4	8		2	2				16	16	32
고등학교	보통교과	1	1	2	8	7	15	3	3	6		2	2				12	13	25
	전문교과	42		42	141	26	167	139	46	185	84	69	153	32	47	79	438	188	626
	계	43	1	44	149	33	182	142	49	191	84	71	155	32	47	79	450	201	651
소 계		85	36	121	234	82	316	198	81	279	84	73	157	32	47	79	633	319	952
특수학교		55	4	59	13	20	33		16	16							68	40	108
합 계		140	40	180	247	102	349	198	97	295	84	73	157	32	47	79	701	359	1,060

제6차 교육과정기에 정착된 1종 도서의 편찬 과정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달라진 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1종 도서 연구 개발 기관을 선정 위탁할 때 교육부의 각 교과별 편수 담당자가 편찬 능력과 연구실적, 전문가 확보 여부, 편찬의 효율성 및 편의성 등 제반 편찬 조건을 면밀히 조사 파악하여 담당자 책임아래 선정하도록 하는 편수 담당자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충분히 보장하였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또, 1종 도서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되면 1종 도서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과거에는 매년 중반기에나 교부되던 것을 연구 개발 위탁 전년도부터 편수관리관실에서 사전 작업을 치밀하게 하여 매년도 1월~2월 초반기에 보조금을 개발함으로써 항상 부족한 교과서 연구 개발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주려고 편수 행정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돋보였다.

제6차 교육과정기의 1종 교과서의 편찬 절차 및 과정과 기간 등은 대개 <그림 VII-1>과 같았다.

2) 2종 도서 편찬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2종 도서의 검정은 학교급별로 시차를 두고 적용 연도에 맞춰 시행되었다. 중학교의 2종교과서는 제5차 교육과정기의 38책에서 59책으로 그 종수가 확대되었고, 합격 종수도 과거 5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여 채택시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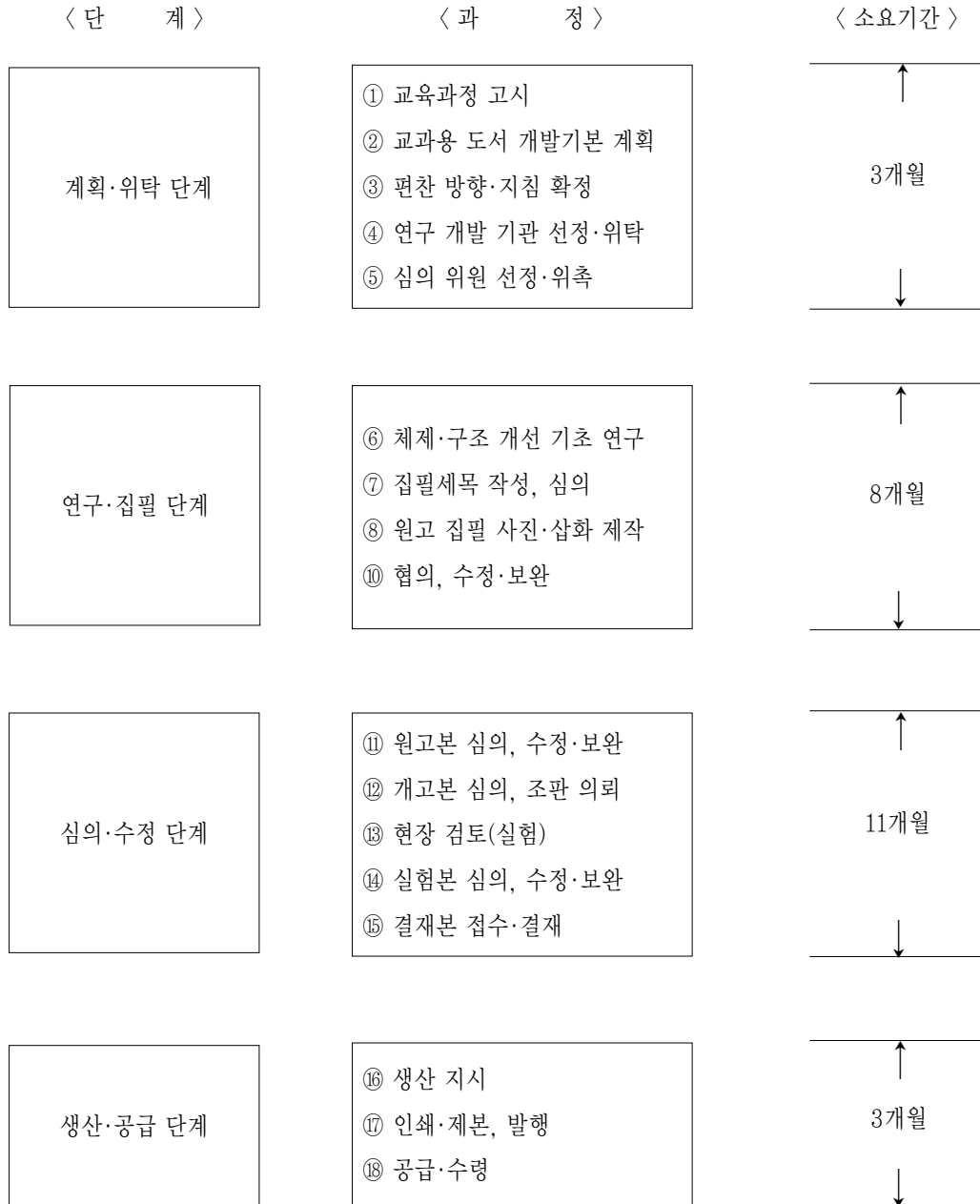
고등학교는 심사본 제출 직전에 당시 김 숙희 장관의 갑작스런 지시로 그 심사 일정을 연기하는 조치를 단행, 당초 검정 계획을 변경하여 교과서 출판사와 교육현장을 당혹스럽게 하였다.

이 같은 교육부 장관의 갑작스런 결정에 교과서 출판업계의 반발과 성명 발표 같은 소동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일방적인 교육부의 급작스런 심사 연기 조치의 이유는 참고서가 필요 없는 자율 학습형 교과서를 편찬해야겠다는 의지 때문이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2종 도서는 일정한 질에 도달한 교과서는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 평가제로 전환하여 합격 종수 제한은 철폐되었다.

그 결과 최초 검정에서 불합격된 도서는 수정·보완을 전제로 재검정을 허락하여 최종 합격 종수가 18 종에 이르는 과목이 탄생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 검정에서는 1977년 1종 도서 제도가 신설된 후 처음으로 초등학교의 영어과목이 2종 도서로 검정을 받게되어 초등학교에도 검정교과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림 VII-2〉교과서 편찬·발행 과정 *



자료 :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의 개요」, p. 225, 서울 : 교육부, 2001. 1.

* 1종 도서의 경우 ① 계획·위탁, ② 연구 집필, ③ 심의·수정 ④ 생산·공급의 4단계를 거치며, 평균 2년의 기간이 소요됨.

〈표 VII-19〉 교육과정기별 중·고등학교 2종도서 교과목명

교육과정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제 1 차	수학, 사회 생활, 공민, 역사, 국토지리, 세계지리, 체육, 생물, 물상, 음악, 미술, 서예, 영어, 가정(14)	영어, 중국어, 독일어, 불란서어,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 원리, 교육 방법, 철학, 논리, 국어Ⅱ(한문), 일반사회, 국사, 지리, 세계사, 일반수학, 해석, 기하,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체육, 음악, 도화, 공작, 서예,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32).
제 2 차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가정, 영어(8)	일반사회, 정치·경제, 세계사, 지리Ⅰ,Ⅱ, 공통수학, 수학Ⅰ,Ⅱ, 화학Ⅰ,Ⅱ, 물리Ⅰ,Ⅱ, 생물Ⅰ,Ⅱ, 지학, 체육, 음악Ⅰ,Ⅱ, 미술Ⅰ,Ⅱ, 농업일반, 공업일반, 상업일반, 가정일반, 영어Ⅰ,Ⅱ,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28).
제 3 차	【국 정】	작문, 고전문법, 사회과부도, 수학Ⅰ,Ⅱ,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서예, 한문Ⅰ,Ⅱ, 영어Ⅰ,Ⅱ, 독일어(상·하), 프랑스어(상·하), 가정, 중국어(상·하)(19).
제 4 차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서예, 사회과부도(6)	현대문학, 고전문학, 작문, 지리Ⅰ,Ⅱ, 세계사, 사회과부도, 수학Ⅰ,Ⅱ-1,Ⅱ-2,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물Ⅰ,Ⅱ, 지구과학Ⅰ,Ⅱ, 체육, 음악, 미술, 서예, 한문Ⅰ,Ⅱ, 영어Ⅰ,Ⅱ,Ⅱ-1, 독어Ⅰ,Ⅱ, 불어Ⅰ,Ⅱ, 일본어(상·하), 산업기술, 가정(28).
제 5 차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서예, 한문, 영어, 사회과부도(9종)	문학, 한국지리, 지리부도, 작문, 세계지리, 세계사, 역사부도, 일반수학, 수학Ⅰ,Ⅱ, 과학Ⅰ,Ⅱ,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서예, 한문, 영어, 독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본어, 기술, 가정, 농·공·상업, 가사, 상업부기, 상업개요, 전자계산일반, 상업계산, 타자(38).
제 6 차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서예, 가정, 기술·산업, 영어, 한문, 사회과부도(11종) 초등 영어	문학(상·하), 작문, 화법, 독서, 한문Ⅰ,Ⅱ, 공통수학, 수학Ⅰ,Ⅱ, 공통사회(한국지리),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역사 부도, 지리부도, 공통 과학,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물Ⅰ,Ⅱ, 지구과학Ⅰ,Ⅱ, 체육Ⅰ, 음악Ⅰ, 미술Ⅰ, 일본어, 기술·가정, 농·공·상업, 가사, 상업부기, 상업 대요, 전자계산 일반, 상업계산, 타자(38), 서예, 기술, 가정, 농업, 공업, 상업, 가사, 정보산업, 공통영어, 영어Ⅰ,Ⅱ, 영어독해, 영어회화, 실무영어, 독일어Ⅰ,Ⅱ, 러시아어Ⅰ,Ⅱ, 상업경제, 상업부기, 전자계산일반, 상업계산, 문서실무(59).

〈표 VII-20〉 제6차 교육과정기 검정과 과거 검정의 차이점 비교

연도 구분	1983(제 4 차)	1988(제 5 차)	1994(제 6 차)	비 고
대상 과목	(6과목) 체육, 음악, 미술, 사회과부도, 서예, 한문	(9과목)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서예, 한문, 사회과 부도	(11과목)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음 악, 미술, 서예, 한문, 가정, 기술·산업, 사회과부도	대상 교과목을 점차 확 대하여 2종도서의 범위 를 넓혀 나감.
집필 기간	· 1982. 4. 1. · 1983. 1. 31. 집수(10 개월)	· 1987. 4. 6. 공고 · 1988. 1. 20. 집수(10 개월)	· 1992. 8. 31. 공고 · 1994. 1. 20. 집수(약 17 개월)	제 6 차 교육과정에서는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 하기 위하여 집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였음.
합격 종수	과목별 3종 이내	과목별 5종 이내	과목별 8종 이내	합격 종수를 확대하여 교과서의 다양화를 실현
합격 유효 기간	최초 사용 학년 도로부터 3년으로 하고, 2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과 동	최초 사용 학년도로부터 6 년간으로 하고, 동일한 교육 과정이 계속 적용되는 경우 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됨.	검정에 따른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사용 중인 교과서의 장 점을 계속 유지
심사 위원 구성	(1차 심사) 교과별 5인 · 교수 2인 · 교사 3인	(1차 심사) 교과별 5인 · 교수 2인 · 교사 3인	(1차 심사) 교과별 5~9인 (예산, 신청책 수, 교과 특성 에 따라 결정 가능)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 정을 개정하여 심사위원 의 수를 3인 이상 9인 이하로 조정하여 심사위 원의 수를 확대할 수 있 도록 법령 개정
심사 기준 공개	심사기준비공개	심사기준비공개	심사기준공개 · 심사기준(안) 공청회 · 심사기준(안) 전문가협의 · 심사기준배포 및 응답가능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 심 사의 객관도, 타당도 및 신뢰도를 높임.
심사 기간	· 1. 23 ~ 3. 13. (23일간)	· 2. 6. ~ 2. 28. (23일간)	심사 진도에 맞추어 신속리 으로 정함.	심사 진도에 따라 신속 적으로 기간을 조정하도 록하여 심사의 충실을 기함.
기타	※ 집필상의 유의점도 대폭 개선함.			

2종 도서의 검정은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정 심사 원칙과 검정 실시상의 유의점을 엄밀하게 작성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심사기준을 사전에 교과서 출판회사의 편집진, 저자, 교육부 교과담당 편수진 등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공청회 형식의 세미나를 열어 공개하고 공동 협의 및 검토의 기회를 가진 점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2)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2종 도서 검정

제6차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실시한 초·중·고 2종 교과서 검정(초등은 영어 교과에 한정) 업무에 대해 검정 실시 대상 교과서 검정 방법, 합격종수 등을 알아보고, 또 심사기구의 구성과 심사 원칙 및 검정 결과 등에 대해 그때의 상황을 정리하기로 한다.

1) 교과용 도서의 검정 실시

① 법적근거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028호)

② 검정대상 교과용 도서(중학교)

수학(1,2,3학년), 과학(1,2,3학년), 체육(1,2,3학년), 음악(1,2,3학년), 미술(1,2,3학년), 한문(1,2,3학년), 가정(1,2,3학년), 기술·산업(1,2,3학년), 영어(1,2,3학년), 서예, 사회과부도

③ 검정 방법

가. 교과서

- 1차심사 : 평점제 심사
- 2차심사 : 수정사항 이행, 체제 등 적합성

나. 지도서

- 1차심사 : 평점제 심사
- 2차심사 : 수정사항 이행, 체제 등 적합성

다. 심사 방법

- 교과서 1차심사에 합격한 교과목(도서)에 한하여 지도서 1차심사를 하며, 교과서 2차

심사와 지도서 1차심사는 같은 기간에 실시 한다.

· 교과서 1차심사에 합격한 교과목(도서)에 대하여는 교과서 2차심사전에 수정 내용검토를 실시한다.

④ 합격 종수 : 교과목별 8종 이내

⑤ 합격 결정

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합격을 결정한다.

나. 검정대상 교과서 중 어느 한 책이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때에는 그 저작자의 신청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 합격판정을 받은 교과서라도 해당 지도서가 불합격 판정을 받을 때에는 그 저작자가 신청한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2) 심사기구 구성

① 심사위원장단

가. 구성

추후 별도 구성함.

나. 임무

- 심사실시에 따른 심사위원 지도·감독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교과용도서의 『적』, 『부』, 판정

② 심사위원

가. 구성 : 대학교수와 중등교사로 선발 구성

나. 유의 사항

(가)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단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심사에 관련된 사항은 심사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심사에 임하여서는 심사의 신뢰도와 객관도를 최대한으로 높인다. 또한, 교과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타당성을 유지한다.

- (라) 심사위원이 교과목별로 의견을 나누고자 할 때는 심사위원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협의할 수 있다.
- (마)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일체의 외부출입 및 면회와 전화 통화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요원의 입회하에 전화통화를 하거나 승인된 내용의 서신을 교환할 수 있다.
- (바) 교과서 1차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교과서 수정내용 검토, 교과서 2차 심사, 지도서 1, 2차심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 (사) 교과목별로 심사가 종료된 심사위원은 위원장의 최종점검을 받은 후 퇴실한다.
- (아) 각종 물품, 약품 등 필요한 사항은 관리요원에게 청구한다.
- (자) 일과계획 및 진행일정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차) 심사수당은 심사종료 후 퇴실시에 지급한다.

③ 관리 요원

- (가) 관리요원은 심사일 하루 전에 입실하여 심사장소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확인한다.
- (나) 심사위원의 보안 유지에 힘쓴다.
- (다) 기타 심사에 따른 행정 사항과 위원장의 지시 사항을 수행한다.

3) 심사 원칙

① 심사 원칙

- 가. 심사는 중학교 교육과정, 『집필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을 숙독한 다음에 착수하여야 한다.
- 나. 심사는 심사위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며, 심사위원 상호간 협의할 수 없다.
다만, 문의사항은 위원장(부위원장)에게 한다.
- 다. 심사기준은 공통기준, 교과기준으로 한다.
- 라. 평정은 공통기준에 의한 심사는 평어로 하고, 교과기준에 의한 심사는 평점으로 하되, 2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평정단계

- 가. 심사는 공통기준, 교과기준 순으로 평정한다.

(가) 각 심사 항목의 배점은 심사관점에 따라 5단계로 평정한다.

(나) 평정척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표 VII-21〉 교과용 도서 심사(평점) 배점

배점 \ 평점점수	매우좋다	좋다	보통이다	좋지않다	매우좋지않다
5	5	4	3	2	1
7	7	5.6	4.2	2.8	1.4
10	10	8	6	4	2
15	15	12	9	6	3
20	20	16	12	8	4

(다) 다만, 한문교과 심사기준 중에서 다음 사항은 5단계 평정에서 제외한다.

- 심사관점 8항 ① 기초한자 900자에서 누락된 한자 1자마다 0.5점씩 감점
- ② 허용범위 100자를 초과한 자(1-3학년 전체로 볼 때) 1자마다 0.5점씩 감점
- 심사관점 9항 ① 매시간당 학습할 신습한자의 수가 15자를 초과한 단위마다 0.5점씩 감점
- 심사관점 22항 ① 1-3학년 『한문』 영역 관련 학습제재(또는 본문) 전체의 비율이 외국의 것이 50%에서 10%씩 초과할 때마다 1점씩 감점

③ 심사 기준 심사표의 작성

(가) 심사표 및 검정기준표를 받는 즉시 교과서명, 심사번호와 심사위원명을 기입하고 해당심사본과 심사기준 심사표 사이에 계인을 날인한다. (교과 기준표 중 1, 2, 3학년 공통부문(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가정, 기술·산업, 영어, 한문)에는 심사한 해당학년에 ○표한다)

(나) 심사표 중 공통기준의 “있음·없음”란에는 심사기준 항목에 표시된 항목수를 기입하되, “없음”일 때에는 ○표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심사표 및 검정기준표는 수정할 수 없으며, 기록착오는 새로운 심사표에 재작성하여야 한다.

(라) 평정은 검정기준의 해당항목을 읽고 항목별로 공통기준은 “있음·없음”에 ○표를, 교과기준은 배점범위 이내의 점수를 기입하고 합계점수를 기입한다.

(마) 공통기준의 “있음”란에 ○표를 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반드시 비교란에 기록한다.

(바) 심사한 교과용도서는 심사위원명과 심사일자를 기입하고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사) 한 과목의 교과용도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책별로 각각 심사한다. 다만, 과학 및 사회과부도는 분야별, 책별로 심사한다.

(아) 심사가 끝나면 평정누락 여부와 날인·계인 등을 확인한 후 심사한 교과용도서(심사본 표지에 확인)와 함께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자) 배부받은 심사본에 파본, 낙장, 오식 등이 있는 것은 같은 과목의 다른 심사위원에 배부된 것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배부받은 심사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사정 원칙

① 공통 기준에 의한 적격 여부 판정

교과서는 교과목별로 사정하되 책별, 분야별로 공통기준에서 1개 항목이라도 ‘있다’로 판정된 것은 교과기준의 편점에 관계없이 ‘부(否)’로 판정한다.

② 교과 기준에 의한 책별 적격 여부 판정

(가) 책별 심사집계표의 평균점수가 40점 이상인 책을 ‘적’으로 ‘40’점 미만인 책을 ‘부’로 한다.

(나) 한 과목이 2개 이상의 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어느 한 책이라도 ‘부’로 판정된 과목은 과목별 득점 합계에 관계없이 당해과목 전체를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미술과 서예는 다른 과목으로 본다.

③ 1차 합격 교과서 결정

(가) 과학의 분야별 배점 비율은 물리 25, 화학 25, 생물 25, 지구과학 25로 하고 사회과부도의 분야별 배점 비율은 지리 50, 역사 50으로 한다.

(나) 과목별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것은 ‘불합격’으로 한다.

(다) 과목별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검정기준 중 교과기준 『심사항목 I 항』이 높은 것을 우선으로 하고, 『심사항목 I 항』의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심사항목 II 항』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한다.

(라) 1차합격 교과서는 과목별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것 중 고득점 순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5) 제6차 교육과정기 검정의 결과

① 중학교 2종 도서 검정 결과

중학교의 검정은 1992년 8월 31일 검정 공고를 하였고 1994년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심사본을 접수했다(11개 과목, 244종, 720책). 검정 심사는 1차 심사가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심사위원 82명이 외부와 연락이 통제된 장소에서 합숙하며 실시했다. 2차 심사는 6월 27일부터 7월 19일 사이에 실시하였고 (지도서는 1차 심사) 지도서 2차 심사는 7월 26일에서 8월 1일 사이에 실시했다. 제6차 교육과정기 검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과목당 합격 종수가 종전의 5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Ⅶ-22〉 제6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2종도서 검정 결과

과목(학년)	신청 종 수	합격 종 수	과목(학년)	신청 종 수	합격 종 수
수학(1, 2, 3)	43	8	서 예	13	8
과학(1, 2, 3)	16	8	한문(1, 2, 3)	37	8
체육(1, 2, 3)	19	8	영어(1, 2, 3)	40	8
음악(1, 2, 3)	23	8	가정(1, 2, 3)	12	8
미술(1, 2, 3)	16	8	기술·산업(1, 2, 3)	14	8
			사회과부도	11	8

② 고등학교 2종 도서 검정 결과

고등학교 2종 도서의 검정은 1992년 12월 21일 검정 실시 공고를 하였고, 1995년 1월 20일부터 심사본을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1월 12일 김숙희 장관의 긴급지시로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본 제출 기한을 6 개월 간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 후 검정 심사 위원 240명은 7월 10일부터 25일 사이에 채택 개별 심사를 처음으로 실시했고 개별 심사 후 합숙 합동 심사를 실시하고 다시 한 차례 개별 심사와 공동 심사를 거쳐 1995년 10월 2일, 최종 합격본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검정 심사는 처음으로 절대 평가제를 채택하고 재 검정 제도까지 도입하여 합격 종수가 과거에 비하여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표 VII-23〉 제6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2종 도서 검정 결과

번호	과목명	‘95 검정			‘96 재검정			재검정포기	합격 총수계
		접수	합격	불합격	접수	합격	불합격		
1	화법	11	7	4	2	2	－	2	9
2	독서	13	8	5	2	1	1	3	9
3	작문	20	12	8	4	3	1	4	15
4	문학(상·하)	20	12	8	7	6	1	1	18
		20	12	8	7	6	1	1	18
5	한문 I	20	8	12	8	3	5	4	11
6	한 문Ⅱ	20	8	12	8	3	5	4	11
7	공통수학	27	17	10	1	1	－	9	18
8	수학 I	25	14	11	4	4	－	7	18
9	수학Ⅱ	24	13	11	4	4	－	7	17
10	공통사회	14	11	3	1	1	－	2	12
11	세계사	11	10	1	－	－	－	1	10
12	세계지리	13	9	4	2	2	－	2	11
13	역사부도	12	10	5	2	－	2	0	10
14	지리부도	11	10	1	1	－	1	0	10
15	공통과학	16	7	9	6	5	1	3	12
16	물리Ⅱ	14	12	2	2	1	1	0	13
17	화학 I	15	6	9	6	6	－	3	12
18	화학Ⅱ	14	12	2	－	－	－	2	12
19	생물 I	13	4	9	8	8	－	1	12
20	생물Ⅱ	13	7	6	4	4	－	2	11
21	지구과학 I	12	10	2	1	1	－	1	11
22	지구과학Ⅱ	12	11	1	1	1	－	0	12
23	체육 I	16	9	7	5	4	1	2	13
24	음악 I	18	9	9	3	－	3	6	9
25	미술 I	12	6	6	3	3	－	3	9
26	서예	11	6	5	3	3	－	2	9
27	기술	9	7	2	2	2	－	0	9
28	가정	9	6	3	2	2	－	1	8
29	가사	6	4	2	1	1	－	1	5

30	정보산업	11	9	2	-	-	-	2	9
31	공통영어	25	16	9	3	2	1	6	18
32	영어 I	25	16	9	3	2	1	6	18
33	영어 II	25	16	9	3	2	1	6	18
34	영어독해	14	8	6	-	-	-	6	8
35	영어회화	12	5	7	2	2	-	5	7
36	실무영어	12	5	7	-	-	-	7	5
37	독일어 I	14	5	9	6	4	2	3	9
38	독일어 II	14	5	9	6	4	2	3	9
39	프랑스어 I	13	6	7	3	2	1	4	8
40	프랑스어 II	13	6	7	3	2	1	4	8
41	에스파냐어 I	4	2	2	1	1	-	1	3
42	에스파냐어 II	4	2	2	1	1	-	1	3
43	중국어 I	7	2	5	3	3	-	2	5
44	중국어 II	7	2	5	3	3	-	2	5
45	일본어 I	15	10	5	2	2	-	3	12
46	일본어 II	15	5	2	2	2	-	3	12
47	상업경제	8	7	1	1	1	-	0	8
48	상업부기	14	10	4	3	3	-	1	13
49	전자계산일반	15	6	9	4	1	3	5	7
50	상업계산	11	5	6	5	5	-	1	10
51	문서실무	13	9	4	3	3	-	1	12
52	사회·문화	10	10	-	-	-	-	-	10
53	물리 I	14	14	-	-	-	-	-	14
54	농업	3	3	-	-	-	-	-	3
55	공업	7	7	-	-	-	-	-	7
56	상업	6	6	-	-	-	-	-	6
57	러시아어 I	2	2	-	-	-	-	-	2
58	러시아어 II	2	2	-	-	-	-	-	2
합 계		786	483	303	157	122	35	146	605

③ 초등학교 2종 도서 검정

지금까지 모든 교과서가 1종 도서로 발행되어 온 초등학교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기에 처음으로 2종 도서가 탄생되었다. 초등학교 영어과 교과서를 2종으로 지정했던 것이다.

초등학교의 2종 도서검정 시부터는 1988년 2월 24일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교과용 도서 검인정에 관한 업무가 교육부에서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으로 위탁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은 초등학교 영어과 교과서 (제 5, 6학년용)와 교사용 지도서,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CD-Rom 등에 대한 검정을 담당하여 추진하였다.

〈표 VII-24〉 초등학교 영어과 2종 도서 검정 추진

구 분	추진일정 및 장소	일수	추진사항
1. 검정 신청 접수	‘98. 8. 3.(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ICE 행정실)	1	· 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 심사본,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또는 CD-ROM), 어휘 분석 자료 접수 ※교과서 288책, 지도서 288책, 녹음테이프 384개 및 기록 자료 384부, 비디오테이프 768개 및 기록 자료 768부, 어휘 분석 자료 64부(디스켓 64매 포함.)
2. 심사본 분류, 포장	‘98. 8. 4.(화) (KICE 행정실)	1	· 종별 분류(교과서, 지도서, 녹음 테이프 및 기록자료, 비디오테이프 및 기록 자료 또는 CD-ROM, 어휘 분석 자료 등) -위원별, 심의조별 분류
3. 1차 심사 실시	‘98.8.5.(수)~8.14. (금)(장소 : 원외)	10	· 검정기준에 의한 심사 · 수정 · 보완 요구서 작성 · 부적격 판정 이유서 작성
4. 수정 · 보완 요구 및 1차심사 결과 통보	‘98. 8. 19.(수)	1	· 수정 · 보완 요구 통지 · 1차심사 결과 통보 · 이의 제기 안내
5. 수정 · 보완 기간	‘98. 8.20.(목)~9.13.(일)	25	· 저작자 수정 · 보완 실시
6. 2차 심사 자료 접수	‘98. 9. 14.(월) (KICE 행정실)	1	· 심사본(수정 · 보완본)접수 · 수정 · 보완결과 서류 접수 · 시청각 자료(수정 · 보완본) 접수 · 수정보완에 대한 이의 제기서 접수
7. 2차 심사 실시	‘98.9.16.(수) ~9.20.(일) (장소 : 원외).	5	· 피검자측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 심사 · 시청각자료 수정분 심사 · 2차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 이유서 작성
8. 합격 · 불합격 결정 및 발표, 공고	‘98. 9. 23.(수)	1	· 합격 · 불합격 결정 · 합격도서 관보 공고 및 개별 통보 · 불합격 도서 관보 공고 및 개별 통보

(3) 제6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정가

1) 교과용 도서의 가격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가격은 1994학년도 1학기의 경우 가격 인상률은 전년 대비 4.8%, (국민학교 6.9%, 중·고등학교 3.7%)로 정해졌다.

이에 의거 국민학교 학생은 학년 평균 14책의 교과서 값이 '93년 5,930원이었으나 94년에는 6,340원이 되었다. 중학교는 14책의 교과서 값이 '93년 10,990원에서 11,440원으로 인상되었고,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17책의 교과서 가격이 18,170원에서 18,820원으로 인상되었다.

각급 학교의 교과서 권당 평균 가격을 보면 국민학교가 430원, 중학교 820원, 고등학교는 1,110원으로 되었다.

2) 부교재 가격 사정

편수관리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사단법인 학습자료 협회는 부교재를 출판하는 267개 출판사가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 협회는 부교재의 적절한 가격을 사정하기 위하여 부교재 가격사정 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구체적인 위원 명단과 1993년도 4/4분기 가격 사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VII-25〉 부교재 가격 사정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명	성 명	비 고
학습자료협회	회 장	임홍조	위원장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김낙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전해철	
한국소비자연맹	회 장	정광모	
한국교과서연구소	이사장	주순호	
서울신문사	사사편찬위원	이중한	
(주)교학사	대 표	양철우	
한서출판사	대 표	유정목	
교육부	편수관리관	함수곤	
문화부	어문출판국장	신현웅	
한국산업연구소	소 장	정현식	원가계산기관

1993.12.17 현재

부교재 가격 사정 신청 건수를 보면, 학교급별(초·중·고)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부교재의 종류는 문제집(7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참고서(22%)였으며, 자습서(5%)가 가장 적었다. 또, 사정 후 반려된 것은 144종으로 전체 신청수의 10% 밖에 되지 않았다.

- 351 -

〈표 VII-27〉 부교재 가격 사정 월별 처리 현황*

1993. 12. 17 현재

처리별 월별	신 청	반 려	처 리 중	사 정	가 격 현 황		
					인상	동결	인하
'92년 합계	272	98	·	172	35	127	10
'93년 1월	56	2	·	47	·	45	2
2월	12	7	·	9	·	9	·
3월	12	7	·	4	·	4	·
4월	6	6	·	·	·	·	·
5월	·	·	·	6	·	6	·
6월	10	7	·	3	·	3	
7월	62	·	·	62	·	30	32
8월	33	·	·	12	·	6	6
9월	9	9	·	15	·	·	15
10월	214	·	·	159	·	150	9
11월	591	·	·	565	·	545	20
12월	210	8	27	262	·	252	10
총계	1487	144	27	1316	35	1177	104

부교재 가격 사정 월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신청건수가 많은 달은 7, 8월과 10, 11, 12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연말에 대거 집계된 게 눈에 띈다. 즉, 전체 1,487건 중 연말에 (10~12월)에 집계된 것이 1,015건으로 약 68%에 해당된다. 그리고 7, 8월은 약 100건이며 전체의 약 6%에 지나지 않는다.

부교재 가격 현황에서 인상된 것은 35건으로 전체에 약 3% 밖에 되지 않으며 동결 건수가 약 89%로 절대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인하 건수는 약 8%였다.

* 자료 : 한국학습자료협회, 1993.

〈표 Ⅷ-28〉 사정 신청 회원사별 처리 현황

1993.12.17 현재

번 호	출판사명	신 청	반 려	처리중	사 정
1	영재교육사	12	6	·	6
2	관동출판사	17	4	·	13
3	동 화 사	57	·	·	57
4	(주)능력개발	24	7	·	17
5	학림출판사	13	1	·	12
6	(주)동아출판사	353	22	4	327
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4	6	·	18
8	(주)교학사	255	17	·	238
9	한서출판사	11	2	·	9
10	중앙교육진흥연구소	61	·	·	61
11	(주)지학사	147	·	·	147
12	(주)천재교육	29	6	·	23
13	한샘출판(주)	33	9	·	24
14	금성교과서(주)	76	1	·	75
15	(주)한성문화	1	·	·	1
16	박 영 사	3	·	·	3
17	현대교재연구사	60	26	·	34
18	(주)한국과학교육	13	·	·	13
19	삼아출판사	67	19	·	48
20	웅진출판(주)	40	12	·	28
21	태림출판(주)	2	1	·	1
22	배 움 사	1	·	·	1
23	세기문화사	3	·	·	3
24	집 현 전	22	2	·	20
25	하나문화사	5	·	·	5

번호	출판사명	신 청	반려	처리중	사정
26	맥출판사	13	·	10	3
27	서원교육연구원	2	1	·	1
28	도서출판 큰샘	1	1	·	·
29	학습개발사	27	·	·	27
30	대한교육사	21	·	·	21
31	광문출판사	6	·	·	6
32	학 생 사	3	·	·	3
33	중앙예림사	8	·	·	8
34	정법문화사	12	·	·	12
35	도서출판차세대	2	·	·	2
36	대성출판문화사	16	·	·	16
37	임시교재사	1	·	·	1
38	대일도서	6	·	·	6
39	도서출판디딤돌	1	1	·	·
40	영 탑	5	·	·	5
41	문제은행.아이템폴	6	·	·	6
42	도서출판세그루	1	·	·	1
43	영제출판사	11	·	·	11
44	고려출판공사	13	·	13	·
45	한보출판사	3	·	·	3
총 계		1487	144	27	1316

(4) 인정 교과서 승인권의 위임

제 6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 도서 편찬에서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교육부 장관의 인정 도서 승인권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 일이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하면 제 23조 ①항에 각 학교가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 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제24조 2의 규정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 신청을 받은 도서에 대하여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인정도서를 교육부 장관이 일일이 승인하게 되어 있어 지방 교육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국가수준 교육과정도 중앙집권형에서 분권형의 방향으로 개정한 제6차 교육과정의 정신과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1993년 12월에 개정하여 1994년도 1월부터 교육부 장관의 인정 도서 승인권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였다. 또한, 어느 한 시·도에서 승인을 받은 인정도서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서도 인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렇게 개선함으로써 교육부에 직접 인정신청을 하는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고, 교육부의 편수행정에서도 각 교과 담당자의 업무 감축과 인정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경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각 시·도가 지역 특성과 학생 실태에 알맞은 인정도서를 효과적으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 VII-29〉 제6차 교육과정기(1994~1997) 인정 교과서 발행 현황

구분 \ 연도		1994	1995	1996	1997	합계
시 도 교 육 청	초 등 학 교	40	110	150	10	310
	중 학 교	5	9	3	1	18
	고 등 학 교	2	18	25	5	50
	계	47	137	178	16	378
방송통신고				8		8
합 계		47	137	186	16	386

자료 : 한국2종교과서협회, ‘교과서 연구’ 제28호, 「우리 나라의 인정 교과서 개요」, p.133.

* 인정 도서의 사용(‘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4.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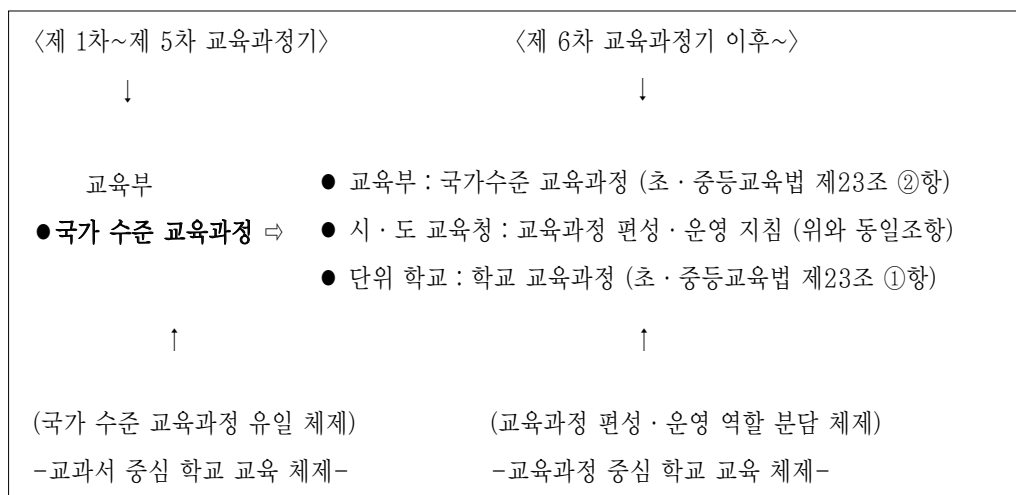
제 6차 교육과정의 개정은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초·중등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 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 6차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국가수준 교육과정 유일 체제를 유지하여 각 학교가 학교 교육과정 없이 교과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교육해 온 대량 획일 교육을 보다 개성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해 분권형 교육과정으로 방향을 전환시킨 첫 번째 시도로서 교육과정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6차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교과서의 지배아래 폐쇄화, 경직화, 획일화의 병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굳어진 학교교육을 보다 탄력적이고,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인 유연한 학교 교육과정의 영향권 속으로 옮겨 놓기 위하여 탄생한 새로운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목적과 의도에서 제6차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각 학교가 직접 편성하는 구체적인 실행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역사상 처음으로 제도화시켰던 것이다.

이제까지 교육부가 선언적, 형식적인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학교에서는 교사 중심으로 교과서 전달 교육을 해왔던 이른바 ‘교육부(국가수준 교육과정)→학교(교과서)’

〈그림 VII-3〉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변천



의 ‘본사→대리점’과 같은 체제를 ‘교육부(국가수준 교육과정)→시·도 교육청(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학교(학교 교육과정)’의 위상별 역할 분담 체제로 개혁한 것이 제 6차 교육과정의 개혁인 것이다 <그림Ⅷ-3 참조>.

이러한 교육과정 존립 방식의 근본적 개혁은 우리 교육과정사상 처음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의 체제적 개혁이며 하나의 소리 없는 교육 혁명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국가, 지역, 학교의 각 수준에서 새롭게 조정, 선택, 결정할 수 있게 된 대표적인 분권 지향적 변동 사항은 대개 다음과 같다.

- ① 과거에 국가수준에서 제시하였던 각 교과와 학년별 목표는 폐지되었다. 교과별 학년 목표는 각 학교가 당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에 결정하도록 했다.
- ② 국가수준의 편제에서는 고등학교의 공통필수 과목(10개 과목-70 단위)만 지정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에서 선택,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과목은 계열간의 벽을 넘어서 선택 이수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 단위에서 필요한 과목의 신설도 가능하게 되어 상당히 열린 교육과정 체제가 확립되었다.
- ④ 수업 시간 배당기준은 과거의 ‘주당 시간 배당형’을 연간 총 시간 제시형’으로 바꿨다. 그래서 주별, 월별, 학기별 수업 시간은 각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에 당해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배정할 수 있게 되었다.
- ⑤ 지금까지 국가 수준의 일방적, 획일적인 결정으로 성역화된 편제의 조정 및 결정에 시·도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제도적인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이는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 ⑥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사상 최초로 당해 학교 교육의 기본 설계도인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⑦ 도,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에서도 지역과 학교, 학생 등의 교육적 필요나 요구를 고려하여 그 학교만의 독특한 교육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초등학교에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학교 재량 시간’을 창설하여 국가 공통의 편제에 제시되지 않은 교육활동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자율 재량권을 학교에 부여하였다.
- ⑧ 초등학교 신입생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서 부과되었던 ‘우리들은 1학년’도 그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를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당해 지역과 학교에 적합하게 개발

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⑨ 인정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승인권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함으로써 지역 특성과 학교 실정에 알맞은 교과용 도서를 융통성 있고 자유롭게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제6차 교육과정기에서 터 놓았다.

제6차 교육과정 시대부터 각 학교와 교원은 비로소 교과서를 전달하는 단순 기능공의 위치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즉, 교사가 학습자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육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를 스스로 연구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자 고유의 전문적인 직무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학교→교사의 관계가 ‘대리점→점원’ 체제에서 ‘전문점→전문가’의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나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 같은 창의적인 교실 수업과 학교경영이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형태의 학습과 경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탄생한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그리고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정 해설서, 각종 교과용 전문도서, 당해 학교의 실태조사 자료, 시설설비, 지역의 교육자원과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자기 학교의 실정과 자기학교 학습자의 실태 및 능력에 가장 적합하게 선택·결정한 구체적이고, 독창적이며, 실천적인 교육과정을 말한다.

즉,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에 알맞게 편성한 「당해 학교의 구체적인 실행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의 상세한 교육 설계도로서 그 학교가 수용하고 있는 학생에게 책임지고 실현하여야 할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교육 프로그램이고, 특색 있는 교육 전략이며, 상세한 교육 운영 세부 시행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학교 교육과정에는 해당 학교의 교육목표와 경영철학, 전통, 특성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 학교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내용 및 방법과 특색 있는 운영방안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전국의 각 학교는 제각기 다양한 교육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똑같은 교육의 모습을 보였던 전국의

각 학교를 제각기 특색을 지닌 다양한 얼굴의 개성 있는 학교로 바꾸기 위하여 탄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은 곧 그 학교의 교장과 교사가 선택·결정한 그 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기본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똑같은 교과서가 어느 학교에서나 똑같이 그 학교 교육과정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각 학교마다 개성 있고 다양성 있는 교육을 특색 있게 실천할 수 있게 설계된 ‘학교 교육과정’이 존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획일적인 십인 일색(十人一色) 교육을 개성있는 십인 십색(十人十色) 교육으로 바뀌나갈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학교 교육과정’ 체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교과서 대신에 학교 교육과정이 그 학교의 교육을 지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학교의 교장과 교감, 교사가 그 학교 교육의 주도자가 되고 전문가가 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학교 교육과정은 그 학교의 전 교원이 자율적으로 조사, 연구, 합의하여 그 학교에 가장 알맞게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그 학교의 독창적인 산출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은 그 학교에서 학습하게 될 학생의 능력, 개성, 흥미, 경험, 진로, 요구 등을 보다 존중하고 고려하는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교육을 촉진할 수 있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학교 교육과정은 그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학교의 학습자 실태와 학습 조건에 가장 알맞게 선택·결정한 그 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 설계도이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은 그 학교의 전통과 특색, 경영자의 철학과 신념, 교사의 창의성과 경험,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중심 교육체제 아래서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고, 일사불란하게 교과서에 학습자를 맞추는 교과서 지식주입, 전달 학습이 일관되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자기 학교에서 실천할 교육에 대한 설계와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본 경험이 거의 없이 교과서 지식의 전달자 역할 수행에 전념해온 현장 교사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이해하기 힘든 개념일지도 모른다. 그 동안 모든 학교에서 오로지 교과서에 의지하여 마치 봉어빵을 구워 내듯 획일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전달 주입하는데 익숙했던 현장 교사들이 타율적으로 부여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제대로 수용하여 전문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간의 세월과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각 학교 교육 실천자의 주도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각 학교가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운영은 그 학생들을 직접 가르칠 교육 실천자가 주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답안지(학교 교육과정)를 교사가 주도적으로 작성하게 될 때 비로소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교육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교육실천 현장에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제6차 교육과정」(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92.
- 교육부, 「제6차 교육과정 연수자료」, 1992.
- 교육부, 「제6차 교육과정의 개요」, 1992.
- 김용만, 허강, 함수곤 외, 「한국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1999.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연구·개발의 발전방향」, 1998.
- 함수곤,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 함수곤·최병모, 「교육과정·교과서 관련 용어사전」, 한국교원대학교, 2000.
- 함수곤, 「교육과정의 편성」,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4.
- 함수곤 외 공저, 「선진국의 교육관리 및 교육과정 편제·운영체제」, 성원사, 1991.
- 함수곤 외 공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동아출판사, 1994.
- 함수곤, 「교육월보」, (1997.7월호), 교육부.
- 허 강, 김용만, 박상만, 함수곤 외, 「한국 편수사 연구(1)」, 2000.
- 허 강, 김용만, 함수곤, 「인물로 본 편수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 永岡 順外, 「教育課程と學習指導要領」, 東京きょうせい, 1990.
- 柴田義松, 「教育課程の創意と工夫」, 東京: 學習研究社, 1980.
- 日本教育行政學會, 「教育課程行政」, 東京: 教育開發研究所, 1978.
- 熱海側夫, 「教育課程の編成」, 東京きょうせい, 1994.
- 日本教育方法學會編, 「新しい學校像と 教育改革」, 東京明治圖書, 1997.
- 學校教育研究所, 「21世紀の學校教育の役割と課題」, 東京: 學校圖書, 1998.
- 中野重人, 「總合的な學習の時間 全課題徹底理解」, 東京: 教育開發研究所, 1999.

VIII. 제7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김 영 일*

1. 서 론

(1) 교육과정 개발

제7차 교육과정기는 1997년 12월 30일 개정 고시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1998년 6월 30일 개정 고시한 유치원, 특수학교, 고등 기술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 교육과정은 2000년 3월 1일에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부터, 2001년 3월 1일에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2002년 3월 1일에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연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연원은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제2차 대통령 보고서, 1995.5.31)에 두고 있다.

이 보고서¹⁾에 의하면 교육과정 개선원칙으로 ①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②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③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정하고, 위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원칙 아래 「교육과정특별 위원회」를 교육개혁 위원회 내에 구성·운영하고, 1995년 말까지 교육과정 기본 골격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특별 위원회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방안²⁾을 마련하여 1996년 2월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이것을 근간으로 하여 1996년 3월부터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는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입장³⁾을 설정함에 있어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철학을 승계하되, 2000년대에 보다 근접해 있는 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과정담당 장학관

1)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위원회,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교육 개혁 위원회, 1995), pp. 49-50참조.

2) 교육 개혁 위원회, 1996, pp. 38-53참조.

3) 이돈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한국 교육개발원, 1996). pp. 1-2참조.

점에서의 시대사회적, 문명사적 변화의 의미를 학교 교육과정 구상에 살리고자 하였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대원칙을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구현’으로 정하였으며, 이것은 교육 주체를 위한 교육과제의 본격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원칙 하에서 교육과정 총론 체제를 연구하여 교육부에 보고하였으며, 교육부는 교육과정 총론 결정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곧 이어 교육과정 각론 개발 연구 위탁업무를 추진하여 제7차 교육과정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 개발은 종래의 교육부 편수국의 주도하에 비교적 독립적으로 학계와 공동 연구로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하던 교육과정 개정이, 교육개혁위원회라는 대통령 자문 기구에서 큰 줄기를 확정된 가운데 시작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원칙이 종래의 학교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후속지원 대책이 적기에 수립 추진되지 않아 제7차 교육과정의 원래의 개정 의도대로 시행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교과용 도서 편찬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 도서 행정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 도서 구분은 종래의 1종도서, 2종도서, 인정도서의 구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제 6차 교육과정 기의 초등영어가 2종에서 1종으로, 중·고등학교 사회(국사 제외)가 1종에서 2종으로 전환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1998년 2월 24일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교과용 도서 검·인정 관리 업무가 국가에서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 위탁됨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 도서 검정 관리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검정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중의 하나로 교과용 도서 질 개선을 위한 연차별 검정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중학교 검정 교과용 도서 개발시에 1, 2, 3학년용을 한 해에 동시에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연차별로 검정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방침은 출판사나 집필자들도 바람직한 변화로 보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 8월 16

일 교과용 도서 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32조 의거 대한 교과서(주)가 맡아오던 교과서 공급 대행권을 2001학년도 교과서 공급시부터 재단법인 한국교과서 연구 재단이 대한교과서(주) 지방 공급 조직을 흡수하여 교과용 도서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99년 국정교과서 주식회사가 민영화시에 교육부 편찬 1종도서에 대한 발행권을 인수 기업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가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협약한 것이 만료됨과 동시에 2002년부터 교과서 발행이 다양한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것은 제 7차 교육과정의 개정 못지 않게 교과용 도서 편찬에서도 종래의 관행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과정 · 교과서 행정 기구

초 · 중등 보통 교육에서 국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함양과 학교급별 학년에 따른 동등한 학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 · 중등교육법 23조와 그에 따른 시행령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업무는 편수국이 교육과정 업무와 교과용 도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편수국은 조직 개편이 있을 때마다 전문성이 약화되는 과정을 걸어왔다. 특히 편수국장, 편수관리담당서기관,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자연과학편수관으로 되어 있던 조직이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 추진과 거의 동시에 초 · 중등교육실로 통합되어 교육과정심의관, 교육과정담당관, 교육평가담당관, 편수관리담당관으로 축소되었다.

종래의 편수국은 매년 직제 조정 과정을 거쳐 2001년 교육법전에는 학교정책실에 교육과정 정책과장과 평가관리과장을 두어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기에 발행된 교육법전의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와 관련된 교육행정 기구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1) 제7차 교육과정 개정 배경·경위 및 특징

1)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위원회에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 도래라는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따라 새로운 교육의 틀로 신교육체제가 구상되었다고 하면서 그 특징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교육공급자인 학교 및 교원과 교육행정기관의 편의 중심 교육으로부터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한다. 교육공급자 간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경쟁을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한다 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9가지 중 4번째로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 교육과정의 개선: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음 원칙에 따라 개선한다.

- 교육과정 개선 원칙

- ①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의 필수과목 수를 줄이고 그 수준을 낮추어 조정하는 한편, 선택과목 수를 늘리고 이에 대한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한다.
- ②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초·중등학교에서 컴퓨터·영어·한자·세계문화사 교육 등을 강화한다.
- ③ 수준별 교육과정: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교육과정 특별위원회」 설치

위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원칙 아래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교육개혁위원회 내에 구

성·운영하고, 1995년 말까지 교육과정 기본 골격을 마련한다.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고등학교의 공통필수 교과목의 수를 줄이고 그 수준을 현행 고교1학년 수준으로 낮춘다. 1학년 과정은 공통필수과목 위주로 편성·운영하고, 2학년부 터는 학생의 진로선택과 학습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과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과정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진로 및 교과 상담교사, 순회교사, 시간제 교사, 산학 겸임교사, 복수전공교사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동식 수업을 도입한다.

위와 같은 교육과정 개선 원칙을 반영한 교육과정 기본 골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육과정 특별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표 VIII-1〉 교육과정 특별 위원회 위원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김호권	영남대학교 사범대학장
위 원	김우창	고려대학교 영문학교수
	박웅서	삼성석유화학사장 전경련 산업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방	서울 영훈초등학교 교장
	엄규백	양정고등학교 교장
	유재건	교육민회 공동대표
	이돈희	한국교육개발원장,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이범주	성수중학교 교장
	이용태	정보산업협회장
	장희익	서울대학교 물리학교수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연구위원	강충열	서울인현초등학교 교사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김남두	서울대학교 철학교수
	김영식	서울대학교 화학교수
	박희송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사
	허경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연구본부장
	정영권	교육부 교육과정담당관실 교육연구관
	황규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개혁위원회 내에 설치된 교육과정 특별위원회 연구위원들의 연구 결과는 1996년 2월 9일 제3차 대통령 보고서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으로 제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⁴⁾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신 교육과정은 학생의 건전한 인성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며,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능동적·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정착시킨다.

또한, 학생 개인의 능력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대비하여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처리 능력, 외국어 구사 능력,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인다. 그리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결정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① 신 교육과정 편제 도입

○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체제 설정: 지식·정보의 양이 급증하는 지식·정보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학교급별 개념이 아닌 학년제 개념에 기초한 일관성있는 교육과정 체제를 갖춘다(〈초·중등학교 신 교육과정 편제표〉 참조).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체제는 교과, 특별활동, 재량 시간의 3개 영역으로 나눈다.

○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체제 설정: 일반계 고등학교 2~3학년은 학생의 능력, 흥미 및 장래 진로를 반영하는 선택과목 위주의 교육과정 체제를 갖춘다. 이에 따라 종래 일반계 고등학교 2~3학년부터 적용하던 과정의 구분(인문과정, 자연과정, 예·체능과정, 직업과정)을 폐지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구체적인 선택 영역, 과목의 종류 및 수준은 각 교과 영역 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 교육부에서 정하되, 학습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고, 교과별 학습내용의 제 영역을 독립 과목으로 세분

4)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위원회, 1996. 2. 9. 위의 자료, pp. 38-53.

하여 개설할 수도 있다. 이중 높은 수준의 과목은 대학에서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특성을 살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신설할 수도 있다.

②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한 수업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 수준별 교육과정 유형에는 비교적 학습 내용의 위계가 분명한 교과를 단계별로 세분화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기본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심화학습 또는 보충학습이 가능하도록 한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과목 내용의 다양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과목들을 종류와 수준별로 설치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있다.

○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우선 영어와 수학교과에 한하여 도입하되 장기적으로는 국어와 과학교과도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전환시킨다. 수학교과인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의 교육내용을 15단계 정도로 등급화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영어의 경우, 8년간 교육내용을 12단계 정도로 구성),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에서는 학년별 교과서 대신 단계별 교과서를 사용하며, 각 단계별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 중 영어, 수학 이외의 교과에 대해서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예컨대, 사회과의 경우 각 학년별로 중간 수준의 학생에게 맞는 기본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되, 상위 수준 학생을 위한 심화 학습 내용과 하위 수준 학생을 위한 보충 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국어와 과학교과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전환되기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학생들이 능력 수준과 관심의 차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교과목들을 개설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와 능력수준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2~3학년에서는 과목선택형 수준별교육과정을 도입한다.

③ 교육과정 각론 개발 주요 지침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각론 구성: 각 교과목의 각론 개발시 학교급별 개념에 기초한 각론 구성에서 탈피하여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하나의 체제로 보고 학년제 또는 단계 개념에 기초한 각론을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과목 과정이 국민공통기본교육 기간의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각론을 구성한다.

④ 지원 체제 확립

○ 시범학교 운영: 2000년부터 시작되는 신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신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조치하고, 그 효과를 널리 홍보하여 현장 적용을 확대하도록 한다.

3) 교육과정 개정의 경위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과정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방안은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에서 살펴보면 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체제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교육과정 편제 제시, ②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③ 학년제 또는 단계 개념에 기초한 교육과정 각론 개발 주요 지침, ④ 교육과정 지원 체제의 확립 등을 기본 골격으로 세부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개혁위원과 교육과정 특별위원회에서 연구 보고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방안은 상당히 미세한 부분까지 방향을 정하여 놓았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총론 시간 개발 연구를 위탁할 때에는 통상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따라 위탁하였다.⁵⁾

일반적으로, 현행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국가·사회적인 요구와 시대적인 변화 요청을 수용하여 교육 과정 개선 정책을 교육부 담당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왔으나, 당시의 교육 개혁 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침은 그대로 당장 시행하여야 할 일반적인 개혁 과제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⁶⁾

우선, 21세기의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이미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서는 아직 시행도 되기 전(‘96년 신입생부터 시행 예정)에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는 점이였다.

5)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 -총론, 재량활동-, 1998. pp. 80-84.

6) 이경환, 제7차 교육과정기, 인물로 본 편수사,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1999. pp. 131-143

〈표 VIII-2〉 초·중등학교 신 교육과정 편제표

학년		K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구분		유치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교 과	도덕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바 른 생 활										선 택 과 목	
	국어		8	8	7	7	6	6	5	5	5	5		
	수학													
	사회		즐거로운 생활											
	과학													
	체육		즐거로운 생활											
	음악													
	미술													
	실과		·	·					기술·가정					
	영어		·	·										
특별활동			1	1	1	2	2	2	2	2	2	2	3	3
재량시간			3		4			6						
연간 수업시수		810 (27)	880 (27)	918 (27)	1,020 (30)	1,054 (31)	1,122 (33)	1,122 (33)	1,156 (34)	1,156 (34)	1,156 (34)	1,224 (36)	(144단위)	

※ 괄호 안의 숫자는 주당 평균 수업시수를 의미한다 (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 1단위는 1학기 동안 주 50분씩 수업하는 분량을 의미한다).

※ 빈칸의 교과별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교육부에서 조정한다. 각 학년별 주당 교과, 특별활동, 재량시간의 합계는 해당 학년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보다 2~3시간 부족하도록 조정하여 그 시간을 단위학교가 특정 교과지도에 할당하여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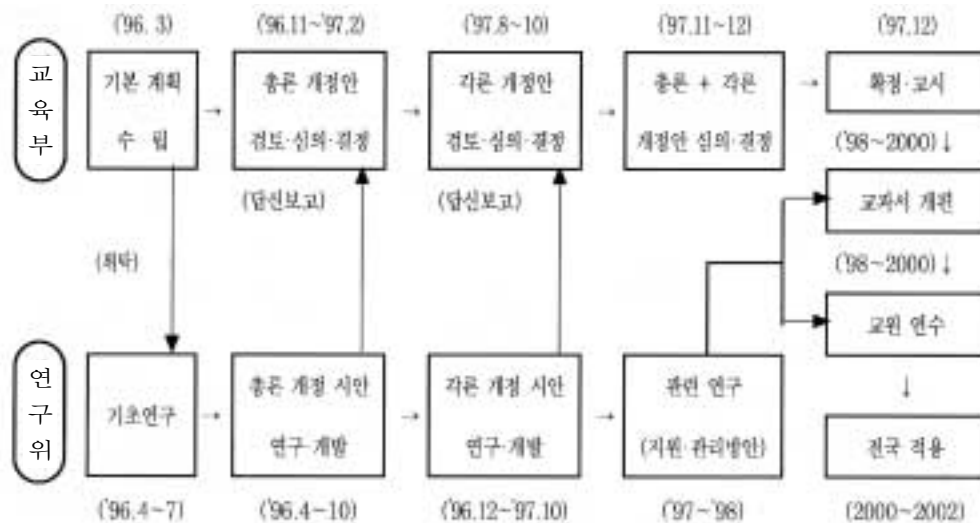
※ 초등학교 1학년 880시간 중 70시간은 입학초기 학교 적응 활동(3월)으로 활용한다.

〈표 VIII-3〉 교육 과정 개정의 경과

추진내용	시 기	담당	비 고
○신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 교육과정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방안	'95. 5.31 '95. 8~'96. 2 '96. 2. 9	교육개혁 위원회	• 신교육과정 골격 마련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 수립 - 개정안 연구 개발 위탁	'96. 3. 19	교육부	• 위탁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위탁과제: 8과제
○기초연구 및 총론 연구 개발 -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 총론 개정 시안의 연구 개발	'96. 3~'96.12	연구기관	• 연구진 및 연구위원: 146명 • 의견조사: 2,460명 • 운영협의: 7회, 408명 • 검토 및 수정보완: 12회, 444명
○합동협의회, 세미나 및 공청회 - 현장교원, 관련학회 등과의 합동협의회 -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세미나 -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	'96. 6~'96. 8 '96. 6 '96. 7 '96. 8	교육부, 연구기관	• 참여인원: 106명 • 참여인원: 300명 • 참여인원: 600명
○총론 시안 검토·수정 - 총론 개정안의 심의 - 시·도교육청, 학교의 현장 검토 - 교원양성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학회의 검토 - 수정·보완 집중 작업	'96.11~'97.2	교육부	• 교육과정심의회: 12위원회 • 심의회 개최: 24회 • 심의위원: 260명 • 15개 시·도 • 연구학교: 22개교 • 대학, 연구기관: 41개 기관 • 관련학회: 11개 학회 • 2회
○총론 개정안 확정	'97. 2.28	교육부	• 협의, 검토: 총80회 • 총론개정 참여인원: 연4,598명
○교육과정 각론 연구개발 계획 수립 - 각론 연구개발 위탁 - 각론 개발 지원 작성	'96.12 '96.12 '97. 1	교육부	• 위탁기관: 14개 기관 • 위탁과제: 39과제
○각론 연구개발 - 교과별 기초연구 및 각론 연구 개발 - 교과별 협의회 운영 - 각론 조정 워크숍 - 교과별 세미나(공청회)	'97. 1~'97.10 '97. 5 '97. 7~8	연구기관	• 연구진: 총530명 • 총124회(교과 평균 3회) • 참여인원: 150명 • 30교과, 약 5,000명 참여

◦각론 시안 검토·수정 - 각론개정 시안의 심의 - 시·도교육청, 학교의 현장 검토 - 시·도교육과정 담당 장학관 협의	'97.8.~'97.12 교 육 부 '97.8~9 '97.10~11 '97.11	•교과별심의회: 115소위원회 •심 의 위 원: 1,526명 •심의회 개최: 각 교과 2회 •현장검토 위원: 160명 •참 여 인 원: 32명
◦종합심의 및 정리 작업 - 개정안 작성 집중 작업 - 교육과정심의회 - 전문가 검토·협의	'97.11~12 교 육 부 '97.11~12 '97.12 '97.10~12	•2회, 260명 참여 •4회, 심의위원 205명 •4회, 자문교수 5명
◦ 개정안 보고	'97.12 교 육 부	
◦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97.12.30 교 육 부	

〈그림 VIII-1〉 교육 과정 추진 과정



제 6차 교육과정을 적용한 결과, 교육 현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교육 개혁 위원회에서 제시한 ‘신교육 과정’의 교과 편제, 영역, 시간 배당 등에 있어서 교과 교육 관련 당사자나 교원·학생·학부모 및 교육 과정 전문가 등을 망라한 국민적인 합의를 광범위하게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수준별 교육 과정 도입에 따른 교원 대책, 교육 시설·설비, 교과서 개편, 교육 재정, 입시 제도 등 후속적인 지원 대책에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유·초·중·

〈표 VIII-4〉 교육 과정 개정 업무 처리 흐름도

단 계	업 무 추 진 내 용	소요 기간
(1) 교육 과정 개정 기본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기본 방향 설정 ○ 관계 전문가와의 협의 및 종합 검토 ○ 실무 작업반 구성·운영 ○ 기본 계획 수립, 결재 	1 개월
↓	↓	
(2) 기초 연구 및 체제·구조 개선 연구의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개발 위탁 협의 및 기관 선정 ○ 연구 개발 세부 계획서 및 국고 보조금 신청서 제출 ○ 연구 개발 책임자 협의회 ○ 연구진, 협의진 등 실무 추진팀 구성 ○ 연구 개발비 국고 보조 	2 개월
↓	↓	
(3) 교육 과정 개정 기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과제별 기초 연구 ○ 현행 교육 과정의 분석, 평가 ○ 교육 과정 국제 비교, 연구 ○ 학생·교원·학부모의 요구 및 의견 조사 ○ 국가·사회적인 요구 및 학교 교육의 전망 조사 연구 ○ 교육 과정 운영 실태 조사 ○ 추진 상황 검토 협의회 ○ 위탁 과제별 협의회 ○ 위탁 과제별 기초 연구 결과 달신 보고서 제출 ○ 국고 보조금 집행 정산서 제출 	6 개월
↓	↓	
(4) 교육 과정 총론 개정 시안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과정 체제·구조 개선 연구 ○ 추진 상황 검토 협의회 ○ 종합 세미나, 공청회 ○ 시안 작성 및 검토 협의회 ○ 수정·보완 1차 집중 작업 ○ 수정안 작성 및 검토 협의회 ○ 수정·보완 2차 집중 작업 ○ 심의 자료 제출 ○ 제 1차 심의 ○ 총론 개정 시안 작성 ○ 총론 개정 시안 개발 달신 보고서 제출 ○ 국고 보조금 집행 정산서 제출 	6 개월
↓	↓	
(5) 교육 과정 심의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과정 심의회 구성 ○ 교육 과정 심의 위원 위촉 ○ 총론 개정 시안에 대한 1차 심의 자료 작성 ○ 총론 개정 시안 1차 심의 -운영 위원회 -학교급별 소위원회 ○ 심의 결과 수정·보완 ○ 총론 수정안 2차 심의 	3 개월
↓	↓	

(6) 총론 개정 시안 현장 검토, 공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론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 학교 현장 검토 - 시·도 교육청, 관련 학회, 각론 연구 기관, 타 부처 ○ 총론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 ○ 총론 수정·보완 집중 작업 ○ 총론 개정안 작성 	3 개월
(7) 교육 과정 총론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과정 개정 기본 방향, 개정 중점, 주요 개정 사항 보고 ○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확정 ○ 교육 과정 총론 개정 자료 및 홍보 자료 발간 	1 개월
(8) 교과별 각론 개정 시안 연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론 연구 개발 위탁 기관 및 책임자 추천 ○ 위탁 예정 기관과의 사전 협의 조정 ○ 각론 연구 개발 지침 작성 ○ 각론 개정안 개발 기본 계획 수립, 결재 ○ 각론 개정 시안 연구 개발 위탁 ○ 연구 개발 책임자 협의회 개최 ○ 교과별 연구 개발 세부 계획서 제출 ○ 교과별 국고 보조금 신청서 제출 ○ 교과별 연구진, 협의진 구성 ○ 연구 계획서, 보조금 신청서 검토, 조정 및 확정 ○ 연구 개발 과제별 국고 보조금 교부 	2 개월
(9) 교과별 각론 개정 시안 연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 협의진 공동 협의 ○ 교과별 연구 개발 계획의 상세화 ○ 교과별 각론 개발 기본 방향 설정 ○ 현행 교과별 교육 과정 분석, 평가 ○ 교과별 교육 과정 국제 비교 분석 ○ 학생, 교원, 학부모 및 관계 전문가의 요구, 의견 조사 ○ 교과별 교육 과정 운영 현장 실태 조사 	8 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별 세미나, 협의회 ○ 추진 상황 검토 협의회 ○ 총론 및 각론 개발 조정 협의회 ○ 교과별 각론 개정 시안 작성 ○ 교과별 수정·보완 집중 작업 ○ 교과별 각론 개정 시안 답신 보고서 제출 ○ 국고 보조금 집행 정산서 제출 	

114 교육 과정 각론 현장 검토, 공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론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초·중·고등 학교 현장 검토 - 시·도 교육청 관련 학회, 타부처 등 ○ 각론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 ○ 각론 수정·보완 집중 작업 ○ 교과별 각론 개정안 작성 	3개월
↓	↓	
115 교육 과정 개정 시안(총론, 각론)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과정 운영 위원회 최종 심의 ○ 학교급별 소위원회 최종 심의 ○ 종합 세미나 개최 ○ 교육 과정 개정 시안 종합 수정·보완 ○ 개정안 작성 최종 정리 작업 	2개월
↓	↓	
116 교육 과정 개정안 확정,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과정 개정 시안 보고, 확정 ○ 새 교육 과정 고시 ○ 교육 과정 고시 책자 발간, 보급 	2개월
↓	↓	
117 교육 과정 개정 후속 지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용 도서 개발 ○ 교육 과정 시행 대비 교원 연수 ○ 교육 과정 해설서 발간·보급 ○ 연수 자료, 홍보 자료 발간·보급 ○ 교과별 이행 조치 ○ 시·도별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 ○ 학교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 ○ 교과용 도서 실험 연구 학교 운영 ○ 교육 과정 연구 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 3년 · 1년 · 1년 · 1년 · 1년 · 3년 · 3년
↓	↓	
118 새 교육 과정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별 전국 적용 - 연차별, 단계적으로 시행 	새 교육 과정 고시 후 2~4 년 소요

고등 학교 및 특수 학교, 고등 기술 학교 등 각급 학교 교육 과정을 일시에 개정하게 되어 업무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 인력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1996년도 교육부 세출 예산에는 교육 과정 개정에 필요한 소요 예산(약 8억 6천)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과정에서 초·중등학교의 교육 과정 개정은 그 어떤 과제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도 우선적인 교육 개혁 사업이 되었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교육법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은 의도적인 제도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지원 관리 기능인 교육 투자, 예산, 행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육 자료, 입시 제도, 교육 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 체제 및 환경,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는 아직 현장 시행도 해 보지 않은 제6차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짐작 건데, 이러한 요구는 아마도 제6차 교육 과정이 문제가 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제5차 교육 과정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었다.

제6차 교육 과정은 교육 과정 결정의 분권화, 구조의 다양화, 내용의 적정화, 운영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 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개선하여 교육 과정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획기적인 정책 변화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교육 현장에 뿌리 내리기도 전에 제7차 교육 과정 개정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교육 과정 관련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아쉬움과 당혹감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 추진에 따라 거세게 밀어닥친 제6차 교육 과정의 개선 압력은, 1995년도에는 초등 학교 교육 과정을 부분 개선하여(’95.11.1) 초등 학교에 영어 교과를 신설하게 되었고, 시작부터 외압에 시달려 온 제7차 교육 과정 개정은 마무리까지도 계속하여 밀어닥치는 거센 파도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의 시대적, 교육적 요청에 부응하여 1996년 3월 19일 ‘초·중등 학교 교육 과정 개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안병영 장관의 결재를 받게 되었다. 제7차 교육 과정 개정 업무를 시작하게 될 당시의 편수국장은 심광한 장학관이었고, 유천근 장학관이 교육과정담당관, 류학영 장학관이 인문과학편수관, 김성환 장학관이 사회과학편수관, 황홍순 장학관이 자연과학편수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교육 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996년 4월 2일, 기초 연구와 총론 시안 개발 연구 과제 10가지를 연구 기관 및 대학에 위탁하여 개정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초·중등 학교 교육 과정 개정 기초 연구 및 총론 시안 개발은 한국 교육 개발원 이돈희 원장을 총괄 연구 책임자로 하여 ‘한국 교육 개발원 교육 과정 개진 연구 위원회’에 위탁

하였고, 특수 학교 교육 과정 개정은 대구대학교 김정권 교수를 총괄 연구 책임자로 하여 ‘대구대학교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에 연구·개발을 위탁하였다.

교육부에서 연구·개발을 위탁한 연구 과제는 ① 현행 교육 과정 분석·평가 연구(연구 책임자: 한국 교육 과정 연구회 김재복 회장), ② 교육 과정 국제 비교 연구(연구 책임자: 숙명 여대 윤병희 교수), ③ 초·중등 학교 교육 과정 개정 요구 조사(연구 책임자: 서울대 김기석 교수), ④ 통합 교과의 교육 과정·교과서 구조 개선 연구(연구 책임자: 한국 교원대 김종건 교수), ⑤ 초·중등 학교 교육 과정 체제·구조 개선 연구(연구 책임자: 한국 교육 개발원 박병선 교육 과정 연구 본부장), ⑥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 체제·구조 개선 연구(연구 책임자: 한국 교육 개발원 장석민 직업 기술 교육 연구 본부장), ⑦ 기타계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 체제·구조 개선 연구(연구 책임자: 한국 교육 개발원 성일제 학교 교육 발전 연구 본부장), ⑧ 수준별 교육 과정 개발(연구 책임자: 한국 교육 개발원 허경철 연구 위원), ⑨ 특수 학교 교육 과정 개정 기초 연구(연구 책임자 대구 대학교 김병하 교수), ⑩ 특수 학교 교육 과정 총론 시안 개발(연구 책임자 : 대구 대학교 김정권 교수) 등으로 1996년 4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간의 연구 기간을 거쳐서 각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 답신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다.

한국 교육 개발원에 의뢰한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 개정 기초 연구 및 총론 시안 개발 연구 답신 보고서 초안이 완성되자 교육부에서는 학교급별, 계열별 교육과정 심의회와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 위원회를 2차에 걸쳐 개최한 결과 검토 의견을 분석하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97년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2박 3일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편제 시안 집중 작업을 실시하였다.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⁷⁾은 『부록Ⅱ』에 게재하였으며, 당시에 총론 편제 시안 집중 작업 참가자⁸⁾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Ⅷ-5>와 같다.

이 기초 연구와 총론 시안 개발에는 교육 과정 담당관실의 이경환 교육 연구관, 박정자, 김영일, 양순열 교육 연구사가 교육 과정 개정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중간지 전입, 전출 등의 인사이동으로 권태일, 남기수 교육 연구관이 부분적으로 참여하였다.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 개정 기초 연구와 총론 시안 개발에는 146명의 연구진과 연구 위원이 참여하였고, 현장 교원 등 연인원 408 명이 참여하여 7회에 걸쳐 운영 협의가 이루어졌고, 연구·개발 과제별로 12회에 걸쳐 444명이 참여한 가운데 검토 및 수정·보완

7) 교육부(교육과정담당관실), 제7차 교육과정 심의회 심의위원 명단, 1997. 「부록Ⅱ」에 게재하였음.

8) 교육부(교육과정담당관실), 교육과정총론편제 확정을 위한 집중작업 참가자 명단, 1997.

〈표 Ⅷ-5〉 교육과정 총론 편제 확정을 위한 집중작업 참가자 (교육부)

일련번호	소 속	직위(직책)	성 명	비 고
1	교육과정담당관실	교육과정담당관	이 범 주	
2	“	교육연구관	이 경 환	초등학교
3	“	교육연구사	양 순 열	“
4	“	“	박 정 자	중학교
5	“	교육연구관	남 기 수	일반계고등학교
6	“	교육연구사	김 영 일	“
7	“	교육연구관	두 창 목	농업계열
8	“	“	구 자 락	공업계열
9	교육평가담당관실	“	한 근 우	“
10	교육과정담당관실	교육연구사	이 정 규	“
11	“	“	윤 경 식	“
12	“	교육연구관	황 장 규	상업계열
13	“	교육연구사	주 수 동	수산·해운계열
14	“	교육연구관	김 정 자	가정계열
15	“	“	이 동 길	과학계열
16	“	“	박 수 용	“
17	“	교육연구사	이 형 기	“
18	“	교육연구관	오 영 석	체육계열
19	“	“	서 석 례	예술계열
20	“	“	이 순 영	“
21	“	“	정 국 진	외국어계열
22	“	교육연구사	심 관 원	“
23	“	“	박 수 정	“
24	“	“	최 병 모	국제계열

〈표 VIII-6〉 교육 과정 총론 편제 작업을 위한 외부 인사

일련번호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충남대학교	교수	김 판 옥	공업계열
2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김 정 호	국제계열
3	“	부원장	곽 병 선	종합검토
4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김 재 복	“
5	서울교육청	장학관	정 영 권	“
6	국립교육평가원	장학관	김 용 만	“

작업을 추진하였다.

또, 교육 과정 개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교육부 관계자, 연구 기관의 연구진, 현장 교원, 관련 학회의 전문가 등 106명이 참여한 합동 협의회, 300여 명이 참여한 수준별 교육 과정 개발 방향 탐색 세미나, 600여 명이 참여한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1996년 6월부터 8월까지 연이어 개최되어 제7차 교육 과정에 대한 일선 교육 현장의 높은 관심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 과정 개정 업무가 추진되던 중에 1996년 7월 5일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5113호)가 개정되어 편수국이 해체되고, 편수 전문 인력이 교육 과정 담당관실과 교육 평가 담당관실로 분산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직제 개정령 부칙 제 3 조에는 “중전의 교과 편수 업무에 관해서는 1997년 2월 28일까지 교육 과정 심의관이 초·중등 교육실장을 보좌하여 수행한다.”는 한시적인 특례 규정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편수 기능 자체가 소멸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였다.

1996년 6월, 편수국이 해체되기 이전에 당시의 심광한 편수국장은 교육부 16층 상황실에서 편수국의 교육 전문직을 모아 놓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여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자.”는 말로 편수관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도 하였다.

직제 개정에 따라 유천근 교육 과정 담당관이 교육 과정 심의관으로, 국립 교육 평가원에 근무하던 이범주 장학관이 교육 과정 담당관으로 부임하였으며, 교육 과정 담당관실과 교육 평가 담당관로 분리되면서 교육 과정 개선평 교과용 도서 편수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 전문직이 47명에서 28명으로 감소되었다. 개정된 직제에서는 교육 과정 담당관이 ① 초·중·고 교육 과정의 개선, ② 교과서 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③ 초·중·고 교육 과

정 연구 학교 운영 지원, ④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하도록 규정되어, 종전의 인문, 사회, 자연 과학 편수관의 소관 업무인 초·중·고등학교의 각 교과 편수 업무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다.

1997년 3월20일, 교육 과정 담당관실 업무에 “교과용 도서 내용에 대한 조사·검토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그래도 편수 기능의 일부나마 그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교육 과정이나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책 결정이나 최종 책임은 여전히 국가에 있다는 이율배반 적인 모순이 드러나게 되었다.

직제 개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제7차 교육 과정 개정 업무는 계속 추진되었다. 연구 위탁 기관에서 답신 보고된 총론 개정 시안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 심의회(운영 위원회 및 학교별 소위원회 등 13개 위원회, 심의 위원 286명)를 구성하여 각 위원회별로 2회씩 총 26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총론 개정 시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하였다.

그리고 15개 시·도 교육청과 22개 교육 과정 연구 학교, 41개의 대학과 연구 기관, 11개의 관련 학회에 총론 시안에 대한 검토 의뢰를 하여, 심의 결과와 교육 현장의 검토 의견을 반영, 교육부에서 2회의 수정·보완 집중 작업을 수행한 결과, 1997년 2월 28일에 우선적으로 ‘교육 과정 총론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교육 과정 총론 개정에는 연인원 4598명이 폭넓게 참여하였으며, 총 80회의 협의, 검토, 심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교육부에서는 교육 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설정하여, ①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② 세계화,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③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④ 지역 및 학교의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을 구성하도록 각론 개발 지침을 제시하게 되었다.

교과 교육 과정(각론) 연구·개발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16일에는 교육 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편제를 바탕으로 서울 대학교 등 14개 연구 기관, 대학, 학회에 교과별 각론 개정 시안의 연구·개발을 위탁하였다. 교육 과정 개정 시안 연구·개발 위탁 과제와 연구개발 책임자, 그리고 당시의 교육부 업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1997년 4월 3일에는 교과 영역을 통솔할 팀장으로 교육 연구관 4명을 장학관으로 부임하였는데, 교육과정기획은 이경환 장학관, 인문·사회 영역은 신영범 장학관, 과학·실업

은 이동길 장학관, 교육평가는 양우섭 장학관이 업무를 맡았다.

1997년 9월 1일 신영범 장학관의 전출로 김영권 장학관이 인문·사회 영역을 맡게 되었으며, 실업 계열은 두창목 교육 연구관이 장학관으로 부임되어 업무를 맡아보았다.

교과별 기초 연구 및 각론 연구·개발에는 총 530명이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으며,

〈표 VIII-7〉 연구개발 위탁 과제와 연구개발 책임자

순	연구개발 교과목(영역)	과제별 연구·개발 책임자		교 육 부 업무 담당자
1	도덕과	서울대학교	정세구	김결, 이창조
2	국어과	한국교육개발원	이인제	남기수, 박삼서, 허천행
3	수학과	성균관대학교	강옥기	강행고
4	사회과	한국교원대학교	김일기	신영범, 최병모, 노희방, 김만곤 조상제
5	과학과	한국교원대학교	김범기	이동길, 박수용, 이형기, 문수한
6	체육과	한국교육개발원	조미혜	오영석
7	음악과	인천교육대학교	신계휴	이순영
8	미술과	한국교육개발원	박소영	서석례 김정자, 임공희,
9	실과	한국교원대학교	윤인경	두창목, 윤경식, 황장규, 주수동
10	영어과	한국교육개발원	최진황	정국진, 노시백
11	초등통합교과	한국교육개발원	구자억	이경환, 김만곤 양순열
12	특별활동	한국교원대학교	함수곤	이경환, 박정자 김영일
13	제2외국어	한국교육개발원	이근님	박수정, 심광원
14	교양선택	고려대학교	전성연	김영일, 최병모, 윤경식, 이정규
15	농업계열	서울대학교	이용환	두창목
16	공업계열	충남대학교	성세진	구자락, 이정규, 윤경식

17	상업계열	인하대학교	신왕호	황장규, 양우섭
18	수산·해운계열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홍봉기	주수동
19	가정계열	한국가정교육학회	김경애	김정자, 임공희
20	체육계열	한국교육개발원	조미혜	오영석
21	예술계열	한국교육개발원	박소영	서석래, 이순영 오영석
22	과학계열	한국교원대학교	권재술	이동길, 박수용, 이형기, 문수한
23	외국어계열	한국외국어교육학회	배두본	정국진, 심광원 박수정
24	국제계열	한국교육개발원	김정호	최병모, 김영일
25 ~ 29	특수학교	대구대학교	김정권	이경환, 남기수, 양순영, 박정자, 김영일
30	유치원	한국유아교육학회	이기숙	노희방, 김정자,, 김만공, 임공희
31	고등기술학교	한국교육개발원	장석민	이정규, 윤경식 두창묵, 황장규
32	재량활동 편성·운영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순경	이경환, 김영일, 박정자
33	교육적 인간성 목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곽병선	이경환, 김영일
34	교과교육과정 개발체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돈일	이경환, 김영일
35	교원대책연구	한국교원대학	정태범	이경환, 김영일,
36	교과서 체제 개선연구	한국교육과정연구회	김재복	이경환, 김영일,
37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조난심	이경환, 김영일
38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조난심	이경환, 김영일
39	교과용 도서 개발 지침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석진	이경환, 김영일

교과 평균 3 회씩 총 124회의 교과별 협의회가 운영되었다. 교과별 협의회 또는 세미나가 연인원 5000명이 참여하여 1997년 7월과 8월 중에 교과별로 개최되었으며, 특히 교과별 각론 조정 워크숍이 개최되어(1997. 5.) 각론 개발 체제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교과별 심의회는 총 114 소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었으며, 총 1508명의 심의 위원이 참여하여 각 교과별 2 회씩 총 228 회의 심의를 통하여 교과별 교육 과정의 각론을 검토 및

수정, 보완하였다.

또, 시·도 교육청을 통하여 현장 검토 위원 160 명에게 교과별 각론을 검토 의뢰하였으며, 시·도의 교육 과정 담당 장학관 32명이 참여하여 교과별 개정 시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협의하였다.

1997년 8월 27일에는 새로 취임한 이명현 장관에게 제7차 교육 과정 개정 업무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다. 정용술 학교 정책실장, 유전근 교육 과정 심의관, 이범주 교육 과정 담당관 및 이경환 장학관이 참석하여 제7차 교육 과정 개정 업무 보고를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장관은 제7차 교육 과정 개정안이 당초 교육 개혁 위원회에서 제시한 ‘신 교육 과정’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그 후 교육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교육 개혁 위원회의 교육 과정 특별 위원회에서 신교육 과정 연구에 참여하였던 5명의 연구 위원(강충렬, 황규호, 김남두, 김영식, 허경철)이 교육 과정 개정 작업에 깊이 있게 참여하여, 최종 수정·보완 집중 작업에 이르기까지 일곱 차례 교육부 실무진과 협의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협의를 통하여 1997년 2월 28일에 확정, 발표한 총론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수정, 보완하여 독서 교육 강화, 학생 선택의 폭 50%까지 확대, 학습자 중심의 목표와 내용 진술, 학습 분량의 감소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재구성, 제시하게 되었다.

1997년 11월과 12월의 2개월 동안 2회에 걸쳐 260명이 참여하여 개정(안) 작성 집중 작업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4회의 교육 과정 심의회(심의 위원회 286명 참여)와 4회의 전문가 검토 협의회를 거쳐 1997년 12월 30일 제7차 초·중등 학교 교육 과정을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로 확정, 고시하였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1997년 12월 30일(화) 오전 10시 보도 자료를 배부하고자 할때, 국민회의 엄기형 전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일이 발생하였다. 중요한 교육 과정 고시 사항이 정권 교체기에 국민회의와 사전 협의나 심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교육부에서는 당시의 정권 인수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 마무리는 되었으나, 그 후의 교과용 도서 개발 등의 업무가 유보되고, 1998년 3월 새로 취임한 이해찬 장관에게 그 동안의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교육 과정 해설서 발간 등 후속적인 업무가 이루어졌다.

1998년 6월 30일, 유치원 교육 과정은 노희방 교육 연구사가, 특수 학교 교육 과정은 양순열 교육 연구사의 전출로 김만곤 교육연구사가, 그리고 고등 기술 학교 교육 과정은 이정규 교육 연구사가 주관하여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였다.

유치원과 특수 학교 및 고등 기술 학교의 교육 과정을 확정, 고시함으로써 1996년 3월부터 교육 개혁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교육 과정 개정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다.

제7차 교육 과정 개정에서는 학교 현장 및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년 동안 교육 과정 전문가, 대학 교수, 현장 교원, 학부모 등 연인원 14,332 명이 교육 과정 개정에 참여하였고, 총론·각론 개발 협의회, 세미나, 공청회 등 연 228회의 각종 협의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또한 교육 과정 심의 운영위원회, 학교급별 및 교과별 소위원회 등 127 개의 교육 과정 심의회에 1794명의 심의 위원이 참여하여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자 수많은 시간과 열과 성의를 다하였다.

개정된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21세기의 학교 교육 모습을 전망하면서 교육 여건과 환경이 조성된 인간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이나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 과정이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제 6차 교육 과정과 맥락을 함께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의 교육 과정에 대한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가 교육 과정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의 경영 책임자인 교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가의 위치를 확보하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교육 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어지는 교육 과정’의 틀에 안주해 있기보다는 교육 실천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 과정’의 흐름으로 교육 과정을 이해하여 나가는 인식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육 과정 기준 자체의 타당성이나 적합성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 주어진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융통성,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교육 목표 실현의 보다 더 중요한 변인이 될 것으로 본다.

4) 제7차 교육과정의 이념상의 특징

제7차 교육과정은 우리가 곧 진입하게 될 2000년대에 일어날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예견하고 그러한 미래 사회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의 시작은 21세기로 넘어가는 ‘세기적 변화’ 일 뿐만 아니라 2000년대로 진입하는 밀레니엄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여 이미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전환 추세가 감지된다. 탈산업사회, 정보화사회, 다원주의 사회, 세계화 등은 이러한 대전환의 성격이 인류 문명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문명 패러다임의 전환’ 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문명사적 전환기에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세계 속의 주도적 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국가 교육체제, 특히 국가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제 제7차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의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① 한국 교육의 현실과 반성

한국 교육의 문제는 교육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성장의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사회나 국가의 차원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을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교육은 개인의 성장을 통한 자아실현을 추구하면서도 그 속한 국가나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적 이상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교육과정이 우리 교육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 공급자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인한 학교 현장성과 학생의 다양한 소질 및 적성 개발을 위한 학습 선택이 기회 미흡
- 과목 수의 과다와 일부 교과서의 내용 난해로 인한 학습 경험의 피상성
- 학교급간, 학년간 연계성과 교과간 내용 중복
-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의 고질화로 인한 일부 학생의 학습 소외 현상, 지식의 창의적 활용 부족, 비인간적 경쟁 풍토, 입시준비로 인한 학습 경험의 질적 저하

9) 이돈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한국교육개발원, 1996, pp. 22-35,

- 교과외의 성취 기준 부재와 교육의 질 관리체제 미흡으로 인한 교육적 성취에 관한 객관적, 체계적 자료 부재
- 인성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창의성 교육, 환경 교육, 성 교육, 안전 교육 등 범교과 교육의 소홀
- 교육과정의 지역화 미흡
- 교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심화 확대의 필요성
-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설비, 지원 체제의 부적절
- 교과 교육과정 체제의 쇄신과 통일성, 다양성 결여
- 단위 학교의 특성화 교육과정으로서의 한계
- 다양한 교육과정적 요구 충족의 한계

교육은 미래 사회의 주역을 길러 내는 일인만큼 미래 사회를 전망하고 그것을 교육학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로 진입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점에서 요청되는 신교육체제 구상의 일환으로서 제안된 것이다.

이러한 20세기로부터 21세기로의 ‘문명사적 변화관’에 의거하여 금세기를 산업문명의 시대라고 할 때,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이며, 이러한 역사의 대전환기에 중심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강한 호소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 변화가 교육에 주는 시사나 무엇이든 하는 것은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그 변화를 교육과정 개정의 구체적 지침으로 삼기 이전에 그것과 교육의 관련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사회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이 말은 새로운 정보, 지식, 문화가 미래사회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회와 국가의 힘과 부, 그리고 개인의 삶의 수준은 기술, 정보, 지식, 문화 등 지적 자산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지적 자산들이 바로 교육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보면 분명히 미래 사회에서는 교육의 역할이 지금 이상으로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정보와 지식의 폭발적 증가는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 생업교육의 연한 연장, 그리고 평생교육 체제의 확립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가 책에서 컴퓨터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보와 지식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학교 교육 또한 많은 변모 과정을 겪게 되었다.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정

보와 지식은 대중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이제 더 이상 학교 교육의 전유물일 수 없게 되었다. 한편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보와 지식, 다른 한편으로 그 밖의 경로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와 지식간의 차이는 더 이상 의미없게 되었으며, 학교에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일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어 스스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는 능력을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보화와 더불어 미래 사회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세계화’이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붕괴됨에 따라 전 세계는 이제 ‘지구촌’이라는 말이 현실감을 가질 정도로 좁아지고 있다. 국경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형성된 기존의 발상, 제도적 틀과 관행 등에 안주하다가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의 도래가 교육에 주는 시사를 교육개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우리 교육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여러 나라와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 문화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지도력을 갖추어 주는 교육, 즉 평화교육·외국어교육·국제 이해 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권한 위임을 통하여 교육에서 자율과 분권의 원리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이상에서와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한국 교육과정의 발전 과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중심,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구현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배적인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의 필요와 관심, 로 및 여건에 부응하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열린 교육의 기회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계발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에 관한 현장교사의 체험과 전문적 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줌으로써 학교의 특성화와 교원의 전문화를 촉진하는 교육과정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

10)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으로 인한 교육개혁 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 1995. 5. 31, pp. 8-10.

미한다.

둘째, 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구현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일인당 이수 과목 수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내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학습자의 경험의 질을 중시하는 교육내용을 선정, 조직하고, 학습 결손의 누적을 방지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시도와 함께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다원적 문해력을 증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율과 책무성에 기초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다. 교육과정 개혁의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학교교육의 민주화를 이끄는 교육과정의 지방 분권화가 요청되며,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전문성과 자율성 함양이 요구된다.

넷째,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현장 중심,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수 교원 확보와 교육의 창의적 실행을 위한 학교의 제반 물리적 시설, 교육재정, 환경 등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아닌 사전 조치로서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질 관리형 교육과정 체제 도입이다. 현행 교육과정에 관한 분석과 평가는 새 교육과정 연구 개발의 기초 자료로 기능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의 확립과 학력 평가 체제를 도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것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체 평가 체제에 대한 지원과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교과 내용 성취 기준 설정, 학생의 학업 성취 평가를 위한 문제 은행과 객관적 기준 설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②교육과정 기본 철학의 변화

제7차 교육과정 연구·개발의 또 다른 필요성은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 즉 산업 사회의 논리에 기초한 현행의 공급자 중심, 교수 중심, 정보·지식 중심의 ‘일제식’ 교육과정이 수요자 중심, 학습중심, 다원적 문해력을 강조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기본 철학 변화의 필요성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관의 변화

교육과정 연구·개발 방향을 정하고 각 교과와 내용 구조를 연구·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인 관건은 교육과정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 개

정과 마찬가지로 제7차 교육과정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해 놓고 연구·개발을 시도하는가 하는 문제와, 왜 그러한 교육과정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본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전제된 교육과정의 개념은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과정지향적’ 교육과정관의 연장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이란 학습자의 교육 경험, 즉 ‘학습 경험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고도 포괄적인 교육 계획안으로서, 교육 목표, 교육 내용의 성격, 교육방법, 평가, 운영 방안 등을 비롯한 핵심적인 부분과 이들 요인에 영향을 주는 교육 구조적 요인(frame factors)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한다. 이것은 기존 교육과정 구성 요소와 더불어, 학습 경험에 대한 질적 관리도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과정은 달성해야 할 목표가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결합되어 진술되는 형태를 띠며, 이를 위한 학습 교재와 보조 자료, 참고 서적, 평가 도구 등을 포함한다. 교육과정을 현장에 전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일차적인 해석자들이며, 이들의 사고 구조와 가치관, 교과에 대한 이해, 언어 구조, 그리고 교육관 및 교과에 대한 이해와 교수 능력 등은 학습자의 경험 세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과정지향적인 교육과정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목표에 따르는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의 구조와 그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이 어떤 경험적 의미를 중시하는가 하는, 총체적인 시각에서 교육과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나. 해석학적 시각의 수용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개정에 동원된 다양한 이론은 상호 보완과 갈등이 관계 속에서 존립해 왔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과정의 시각과 이론들은 각기 그것이 근착하고 있는 맥락이 우리의 교육적, 사회적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기에 어느 이론이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에 적합성을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론은 실천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지만 실천이 갖는 복잡하고도 특수한 측면을 어느 정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성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제7차 교육과정 연구·개발은 특정한 어느 하나의 이론적 모형에 의존하여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제7차 교육과정 연구·개발의 입장은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서와 같이 현실적, 상황적(practical) 탐구 패러다임을 취하면서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나 시각을 통합적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과정의 연구의 방법적 패러다임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과정 연구·개발에는 경험과학적 방법과 함께 가능한 모든 접근방법이 동원된다. 앞에서와 같이 교육과정을 학습자의 교육 경험 세계의 구축과 질 관리로 개념화할 때, 과연 그러한 경험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방법론적 문제로 대두된다.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방법론적 다원주의 입장을 취함에 있어서 주로 현상학적 접근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학습자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 실존적인 존재임이 강조하였으며, 특히 학습자의 교육 경험의 차원은 교육 이론이나 교육학자의 전문 능력보다는 일선 교사의 경험 세계의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모든 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적 생활 세계라는 무대에 선 교사와 학생들의 경험 세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체의 중요성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의 연장선에서 제7차 교육과정 연구·개발은 최근 교육 활동의 성격을 해석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육과정 현상 자체를 개념화하고 이해하기 위한 틀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 해석학적 시각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보며, 구체적인 교육 장면은 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적 배경을 토대로 그들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를 서로 소통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다. 교육 주체를 위한 교육과정 :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앞에서 논의된 과정 중심의 교육과정관과 해석학적 학습자관에 비추어 볼 때, 21세기 교육의 청사진으로서 제7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학습의 주체가 주관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제시할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은 교육 활동의 계획 운영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 즉 교육 수요자의 사고틀에 비추어 이루어지도록 의도한다. 지금까지 지배적인 교육과정의 주축을 이렇게 공급자측에서부터 수요자측으로 바꾸는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제7차 교육과정을 계기로 하여 우리 나라 교육과정에 구체화되어 나타날 필요가 있다.

교육에 있어서는 ‘수요자 중심’이라는 아이디어가 갖는 유의미성을 감안할 때, 그것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와 배경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란 단순히 ‘수요자의 주문에 응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당사자의 ‘필요에 응하는 교육’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여기서 “필요”는 당사자의 주관적 욕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객관적으로 요청되고 충족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객관적 필요라는 것은 교육 전문가의 교육학적 판단에만 의존하여 분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교육자간에 이루어지는 인격적 교섭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의 교육이 지배해 온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은 정치나 경제에 비해 수요자의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어 왔으며, 각급 학교 교육에서 교육 내용을 선택하는 일은 교육 수요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가, 교육청, 학교 혹은 교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공교육 제도의 발달 과정에서 형성된 전통이며, 공교육 자체의 이념적 특징, 즉 평등주의, 민족주의, 계몽주의는 교육 수요자보다는 공급자를 중심으로 발전·해석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적 공교육제도는 평등주의에 의하여 학교교육의 대중화를 이루고, 민족주의에 의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주도력이 정당화되는 한편, 그 제도 속에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 즉 지식과 기술은 주로 ‘계몽주의적 이성관’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다. 모든 판단의 권위를 인간의 이성에 부여하는 계몽주의는 가장 확실한 지식은 이성에 의해 밝혀지며, 교육은 가장 우수한 지식, 사상, 문화, 예술, 기술, 신앙 등을 상징하는 세대에게 가르치는 일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근대적 공교육제도에서 채택된 교과와 그 내용은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급자의 탁월한 판단에 의해서 선택되고 조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묵시적으로 준수되어 왔다.

이와 다르게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적합성의 원리에 의한 평등 교육”이다. 학습자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각자의 잠재적 수월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 갖는 일차적인 의미는 학습 동기유발이라든가 교육 서비스 경쟁 체제 형성이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갖는다.

결국 교육은 한 사회의 표준적 지식, 규범, 기술을 전달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석학적 설명에서와 같이 교육 내용에 대한 가치 판단은 내용 그 자체의 가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학습자와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가에 의해서 판단될 성질의 것이다. 교육적 가치는 교육받을 대상과의 관례, 즉 성장의 내용으로서 지니는 가치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다.

교육은 다른 제도적 부문들과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구적, 수단적 기능을 어느 정도 담당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의 본질적 가치와 기능, 즉 복지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투자로서의 교육은 공급자의 계획에 의해 실천되는 것이지만, 복지로서의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 수혜자에게 유

의미해야 하는 것이지만, 복지로서의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 수혜자에게 유의미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의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던 시기의 교육관을 현재의 시점에서 그대로 견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복지적 기능에 대한 인식은 필연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발상의 전환을 종용한다.

교육과정관의 변화와 해석학적 관점에 의거한 학교 교육 및 학습자관의 변화, 그리고 이에 귀결되는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은 이번 교육과정 연구·개발에서 큰 흐름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요컨대,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의 발상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념적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육을 통하여 평등의 원리와 개체의 수월성을 실현하고, 자유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할 때 귀결되는 당위적 요청, 즉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한 가지이다. 본 교육과정 개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디까지나 교육 현장에 무게 중심을 두고자 하였다.

(2) 제7차 교육과정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1)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학교급별 교육목표

제7차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정시마다 관행적으로 제시하던 학교급별 편제 제시에서 벗어나 학년제 개념에 기초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한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인간상도 종래의 간결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제시에서 탈피하여 ①전인적인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②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④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⑤민주 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의미가 명료하도록 하였다.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종래 교육법에 제시되었으나 1997.12.13 제정 공포된 초·중등 교육법에 학교급별 교육 목표가 삭제되어 그것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여기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급별 교육 목표¹¹⁾

이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둔다.

가. 초등 학교 교육 목표

초등 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가)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
- (나) 일상 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 (다)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을 가진다.
-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 (마)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진다.

나.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 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가진다.
- (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 (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가진다.
-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 (마)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힌다.

다. 고등 학교 교육 목표

고등 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가)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 의식을 가진다.
- (나)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 (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11) 특별활동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18), 교육부 pp. 3-4.

기른다.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마)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2)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

제7차 교육과정은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편성 ② 수준별 교육 과정의 도입 ③ 재량 활동의 신설 및 확대 ④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⑤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⑥ 질 관리 중심의 교육 과정 평가 체제 확립 ⑦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컴퓨터 교육의 강화 등을 개정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도입

우리 나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교육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으로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모든 국가가 사회 복지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는 의무 교육인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21세기는 교육이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무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다 확대된 기간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제로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 사회로부터 후기 산업 사회로 넘어가면서 단순 노동·기능직이 고등 정신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의해 대체됨에 따라 모든 국민의 기본 교육이 보다 충실해져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셋째, 학교급간 학년간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로 각 교과의 교육과정 내용이 학교급간에는 물론 학년간에도 중복이 심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심지어 일부 교과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학교급을 달리하여 반복 제시하는 경우마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의 모든 교과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방식을 바꾸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 10년을 하나의 체제로 보고, 이 기간 중에 교과별 학습 내용을 학교급별 개념이

아닌 학년제 또는 단계 개념에 기초해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과별로 학교급간, 학년간의 내용 중복과 비약을 해소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체제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하며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10 : 초·중·고 1)		
교과	10개 기본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재량 활동	교과	기본교과 심화·보충
	재량활동	선택과목 학습
	창의적 재량활동	별교과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특별 활동	자치활동, 적용활동, 개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②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우리의 현행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은 보통 수준의 다수 학생을 겨냥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인별 능력 차이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잘하는 학생은 쉬운 내용이어서 수업 시간이 지루하게 되고, 못하는 학생도 어려운 내용이라서 마찬가지로 지루한 것은 물론 학습 부진의 누적을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교육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함으로써 학생·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던 일제식 수업의 반성에서 출발하였으며, 비교적 소외되었던 집단, 즉 학습 능력이 뒤떨어지는 학생들에게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상적으로 다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한 교육적 의의가 내포되어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유형에는 단계형과 심화·보충형이 있다.

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 난이도를 기준으로 학습 내용의 위계가 비교적 분명하

고 교실 수업에서 학습 집단 구성원의 능력차가 심하게 작용하는 교과에 도입하였으며,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는 하위 단계의 학습 결손이 상위 단계의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로 「학습 결손 예방」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는 데에 있다.

○ 도입 교과

- 수학 :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0단계,
 각 단계별로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 설정
 (예) 초등1학년 1학기 : 1-가, 1학년 2학기 : 1-나,
 고교1학년 1학기 : 10-가, 1학년 2학기 : 10-나
- 영어 :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4단계,
 각 단계별로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 설정
 (예) 중1학년 1학기 : 7-a, 1학년 2학기 : 7-b,
 고교1학년 1학기 : 10-a, 1학년 2학기 : 10-b

나.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과의 내용이 다양한 영역이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 집단 구성원의 개인차가 심각하게 작용하지 않는 교과에 도입하였으며, 기본 과정 성취도에 따라 심화·보충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차를 존중하고 기초·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데에 있다.

○ 도입 교과

- 국어 : 1~10학년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의 학습 내용 구성
- 사회 : 3~10학년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의 학습 내용 구성
- 과학 : 3~10학년 3학년~5학년까지는 기본 과정으로 구성,
 6학년~10학년까지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성
- 영어 : 3~6학년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의 학습 내용 구성

③ 재량 활동의 도입

재량활동이란, 국민공통기본 교육기간 중이라도,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해결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뒷받침해 주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제시한 것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초등학교

○ 재량활동은 학교의 설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편성할 수 있으나, 교과 심화, 보충 학습보다는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라 창의적 재량 활동과 정보 통신 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다.

○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교과에서는 주당 평균 1시간 이내의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활동 시간의 증배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나. 중학교

○ 교과재량활동의 연간 수업 시간 수는 102시간 이상이며,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의 선택 과목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국민공통기본 교과의 심화, 보충 학습시간으로 활용한다.

○ 창의적 재량 활동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에 연간 34시간 이상 배정하되 적절히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다. 고등학교

○ 고등학교 1학년 교과 재량 활동 연간 이수 단위 수는 10 단위이며,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 보충 학습에 4~6 단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에 4~6 단위 배정한다.

○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의 교과 재량 활동은 전문 교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 창의적 재량 활동에 2단위 배정하되,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에 적절히 분

〈표 VIII-8〉 재량 활동의 학교급별 연간 수업 시간 수(단위)

영역	학교급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하위영역			
교과 재량활동	선택과목 학습	68시간	102시간	68~102시간 (4~6단위)
	국민공통기본교과 보충·심화학습			68~102시간 (4~6단위)
창의적 재량활동	범 교과 학습		34시간	34시간(2단위)
	자기 주도적 학습			
계		68시간	136시간	204시간(12단위)

할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등학교 2~3학년은 일부 학생에게는 종결 교육의 의미를 지니며, 또 다른 일부분의 학생에게는 대학의 진학을 위한 예비 진로 탐색을 위한 계속 교육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 기간의 교육은 국민 기본 교육의 종결을 위한 교육임과 동시에 학생의 장래 진로나 적성에 따른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준비 과정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둘째, 고등학교가 종결 교육의 의미를 지니는 학생들에게는 일반 교양과 관련된 과목의 이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며, 전문화된 교육의 준비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보다 심화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도입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다양한 교과목을 수준별로 개설한다.

둘째,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셋째, 원칙적으로 과정이나 계열 구분없이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의 필요나 여건을 고려하여 과정이나 계열에 따라 운영할 수도 있다.

⑤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서는 이수 교과 수의 과다로 인한 학생의 수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간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동안에는 10개 기본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또, 이수 시간의 적정화 차원에서 모든 교과의 이수 시간을 최소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를 교육 내용 구성의 최소 기준으로 삼도록 함으로써 학습 분량의 과다로 인해 초래될 수도 있는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⑥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 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였다. 학생의 교과별 내용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력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평가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질 관리 중심의 교육 과정’은 교육 과정 개정에서 추구하는 변화가 문서 수준의 수학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의도된 교육 과정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 학교 평가, 교육 과정 평가 체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육 과정 평가 체제의 확립은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실현된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앞으로의 교육 과정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 과정의 질은 교과서 내용의 질과 그것을 지도하는 수업의 질, 교사의 질, 운영의 질,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교육 환경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⑦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컴퓨터 교육의 강화

컴퓨터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대체되면서 인류의 생활이 컴퓨터망을 통한 네트워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둘째, 직장에서 여가 활동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고는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도입될 컴퓨터 교육의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실과에서의 컴퓨터 교육 시간을 확보한다.

둘째, 중학교 교과 재량활동 시간에 컴퓨터 과목을 개설하고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 과목에 ‘정보 사회와 컴퓨터’ 과목을 개설하였다.

2) 시간(단위) 배당 기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상에 제시되어 있는 시간 수(단위)와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상에 제시되어 있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와 단위 수는 <표 VIII-9>와 <표 VIII-10>과 같다.

〈표 VIII-9〉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구분		학교 학년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1	2	3	4	5	6	7	8	9	10
교	국 어	국 어 210 238	238	204	204	204	170	136	136	136	선 배 과 목	
	34		34	34	34	68	68	34	34			
	사 회	수 학 120 136	102	102	102	102	102	102	136	170 (국가)		
수 학	바른 생활 60 68	136	136	136	136	136	136	102	136			
과 학		102	102	102	102	102	136	136	102			
과	실 과	습득로운 생활 90 102	·	·	68	68	기술·가정					
	68		102	102	102							
	체 육	102	102	102	102	102	102	68	68			
	음 악	즐거운 생활 180 204	68	68	68	68	68	34	34	34		
	미 술	68	68	68	68	34	34	68	34			
	외 국 어 (영어)	우리들은 1학년 80 ·	34	34	68	68	102	102	136	136		
재 량 활 동		60	68	68	68	68	68	136	136	136	204	8 단위
특 별 활 동		30	34	34	68	68	68	68	68	68	68	
연간 수업 시간수		830	850	986	986	1,088	1,088	1,156	1,156	1,156	1,224	144 단위

- ① 이 표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② 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들은 1학년’에 배당된 시간 수는 3월 한 달 동안의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한 것이다.
 ③ 1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④ 11, 12학년의 특별 활동과 연간 수업 시간 수에 제시된 숫자는 2년 동안 이수하여야 할 단위 수이다.

3) 학교 급별 주요 개정 내용

제7차 교육과정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교육 목표를 교육과정에 제시한 것이 특색이며, 학교 급별이 아닌 초·중·고등학교 공통적인 특징을 앞에서 기술하고 편제도 제시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학교 급별 주요 특징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자료 :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초등학교 교육과정」, 9. 6, 서울:교육부, 1997.

〈표 VIII-10〉 ②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가. 보통교과

구 분		국민공통 기본교과	선 택 과 목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
교 과	국 어 도 덕 사 회	국어(8) 도덕(2) 사회(8) (국사(4))	국어생활(4) 시민 윤리(4) 인간 사회와 환경(4)	화법(4), 독서(8), 작문(8), 문법(4), 문학(8) 윤리와 사상(4), 전통 윤리(4) 한국 지리(8), 세계 지리(8), 경제 지리(6), 한국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 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수 학	수학(8)	실용 수학(4)	수학Ⅰ(8), 수학Ⅱ(8), 미분과 적분(4), 확률과 통계(4), 이산수학(4)
	과 학	과학(6)	생활과 과학(4)	물리Ⅰ(4), 화학Ⅰ(4), 생물Ⅰ(4), 지구과학Ⅰ(4), 물리Ⅱ(6), 화학Ⅱ(6), 생물Ⅱ(6), 지구과학Ⅱ(6)
	기술· 가 정	기술· 가정(6)	정보사회와 컴퓨터(4)	농업 과학(6), 공업 기술(6), 기업 경영(6), 해양 과학(6), 가정 과학(6)
	체 육 음 악 미 술	체 육(4) 음 악(2) 미 술(2)	체육과 건강(4) 음악과 생활(4) 미술과 생활(4)	체육 이론(4), 체육 실기(4이상)* 음악 이론(4), 음악 실기(4이상)* 미술 이론(4), 미술 실기(4이상)*
	외국어	영 어(8)		영어Ⅰ(8), 영어Ⅱ(8), 영어 회화(8), 영어 독해(8), 영작문(8)
			독일어Ⅰ(6), 프랑스어Ⅰ(6), 스페인어Ⅰ(6), 중국어Ⅰ(6), 일본어Ⅰ(6), 러시아어Ⅰ(6), 아랍어Ⅰ(6)	독일어Ⅱ(6), 프랑스어Ⅱ(6), 스페인어Ⅱ(6), 중국어Ⅱ(6), 일본어Ⅱ(6), 러시아어Ⅱ(6), 아랍어Ⅱ(6)
	한 문 교 련 교 양		한문(6) 교련(6) 철학(4), 논리학(4), 심리학(4), 교육학(4), 생활 경제(4), 종교(4), 생태와 환경(4), 진로와 직업(4), 기타(4)	한문고전(6)
	이수단위	(56)	(24)이상	(112)이하
	재량활동	(12)		
	특별활동	(4)		(8)
	총이수단위			(216)

- ① () 안의 숫자는 단위수이며,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
량이다.
- ②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재량 활동에 배당된 단위 수 및 특별 활동 4 단위는 10학년에서 이수하도록 한
것이다.
- ③ * 표시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심화 선택 과목은 (표 3)의 체육, 예술에 관한 전문 교과의 과목 중에
서 선택한다.

나. 전문교과*

일련번호	교과	과목	기준학과
1	농업에 관한 교과	40	9
2	공업에 관한 교과	110	20
3	상업에 관한 교과	32	9
4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33	12
5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31	8
6	과학에 관한 교과	20	
7	체육에 관한 교과	25	
8	예술에 관한 교과	53	
9	외국어에 관한 교과	80	6
10	국제에 관한 교과	21	8
계		445	

※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 ① 농업 계열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 ② 공업 계열 :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 ③ 상업 계열 :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컴퓨터 일반
- ④ 수산·해운 계열 : 해양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수산 일반(수산 계열), 해사 일반(해운 계열)
- ⑤ 가사·실업 계열 : 인간 발달, 컴퓨터 일반
- ⑥ 외국어 계열 : 각 학과 해당 외국어 과목 I 및 청해
- ⑦ 국제 계열 : 영어 강독, 지역 이해, 한국의 전통 문화

*자료 :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각 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서울 : 교육부, 1997.

①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에 중점을 두어 개정하였으며,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적인 언어 능력, 수리적 사고 능력, 기초 체력, 탐구력 및 창의성 신장 등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의 충실을 강조하였다.
- 모든 학습 활동에서 실험, 관찰, 조사, 수집, 토론, 견학, 노작 등 학습자 중심의 직접 체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였다.

나. 전문 교과

- 기본 예절, 질서, 청결, 절제, 준법, 공중도덕 등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어린시절부터 몸에 배도록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였다.
-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량활동 시간을 매 학년마다 주당 2시간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 노작활동과 실습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과 시간을 5, 6학년에 주당 2시간이상 집중 배정하였다.
- 1, 2학년의 통합교과 운영은 교과와 교과간의 통합 개념에서 탈피하여 활동 주제 중심의 통합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② 중학교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개정하였으며,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재량 활동」영역을 신설하여 주당 4시간 이상의 수업시간 수를 배정하였다.
- 영어교과 이외에 중학교에서도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의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재량활동의 선택과목으로 설정하였다.
-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성과 정보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가정」, 「기술·산업」교과를 「기술·가정」교과로 통합하여 남녀공통 이수하도록 하였다.
- 특별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수업 시간 수를 강화하고, 영역별 이수 시간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자율재량권을 부여하였다.

③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개정하였으며,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민공통기본교과(10교과)를 이수하도록 하였다.
- 고등학교 2, 3학년에서는 일반선택(26과목), 심화선택(53과목)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능력, 흥미, 진로에 따른 학생선택,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다양한 유형의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의 인문사회, 자연, 직업과정 등과 같은 엄격한 과정 구분을 폐지하였다.
- 선택과목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및 학생의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특히 학생의 선택 비율은 최대 50%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재량활동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여(12단위) 학교장의 경영관, 학교의 특성 반영, 학생의 선택권 보장 등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 세계화에 부응하여 『아랍어』 과목을 신설하였으며, 학생의 희망, 진로에 따라 영어 이외의 외국어 과목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식 수업, 순회교사제 운영 등 수업방법 및 교실 여건 개선에 힘쓰도록 하였다.

4) 제7차 교육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점과 대책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는 1, 2, 3, 4학년에서 시행이 되고, 중학교는 1학년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렇게 시행의 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제7차 교육과정을 시행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의 본격적 시행에 대하여 교육계의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시행을 유보하거나 교육과정의 내용을 수정, 재고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시행을 유보하거나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 재고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제7차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의 노력의 산물로서 이루어진 결과인 것이며, 따라서 다시 전면적으로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종류의 문제는 여전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7차 교육과정은 이미 적용되기 시작한 교육

과정으로서 이러한 교육과정의 중단은 학교 교육을 중단하는 것 그 자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¹²⁾

제7차 교육과정은 유보될 수 없으며, 전면적으로 수정, 재고시 될 수 없다고 해서 제7차 교육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육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사실상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제7차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제7차 교육과정을 시행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지 제7차 교육과정 전체를 폐기하여야 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제시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검토 결과 확인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모색된 해결 방안을 실천하되, 이 3가지 요소로서 이루어진 순환적 과정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교육과정의 지속적, 부분적 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나라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실천의 바람직한 모형인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당시 이돈희 교육부장관이 제 215회 정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2000. 11. 7)에서 보고 한 내용을 요약 제시한다.¹³⁾

-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적인 합의로 도출된 교육과정임.
 -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되어 금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개혁의 핵심사업으로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인 합의로 도출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임.
- 제7차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및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하였음.
 -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실정, 교과목의 특성, 학생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단위 학교의 자율, 재량권을 확대해 나가고자 함.
- 교원 수급 및 교육시설, 환경 개선의 종합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나가겠음.
 - 수준별 교육, 재량활동 및 학생 선택과목의 확대에 필요한 교원, 시설 분야의 종합적

12) 허경철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2001. pp. 3-33.

13) 교육부 교육과정지원센터,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업무담당 전문직 연수자료, pp. 240-241, 2000.

인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해 나가겠음.

-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단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과정 연수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음.
 -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교육현장의 수업개선에 있으며, 학습 분량을 감축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교사들이 학생 활동 중심 수업방식으로의 변화와 학생의 실정에 알맞게 재구성하거나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7차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을 구성하였으며, 단계적이고 집중적인 연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음.
- 「기술·가정」교과의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음.
 - 「기술·가정」교과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통합된 생활 중심의 교과로, 남녀의 구분 없이 가르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임.
 - 교원수가 적은 농어촌, 도서, 벽지소재 소규모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기술·가정」교과의 부전공 연수는 계속 추진되어야 함.
 - 대규모 학교 등 교원 수급이 원활한 학교에서는 담당 교사간의 협의에 의해 팀티칭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고, 지역별 인력풀제 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 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교원, 시설 수요의 증가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여 나가겠음.
 - 제7차 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점 해결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7차교육과정 시행준비단』의 활동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인적 물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선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교육주체들의 지혜를 모으고 이를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3)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제7차 교육 과정에서의 편성·운영 지침은 ① 기본 지침, ②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③ 교육 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④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기본 지침’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에서의 편성·운영하여야 할 지침을 편성과 운영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교육 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는 국가수준에서의 평가 시행과 절대 평가 기준의 개발·급 및 학교에서의 평가상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제7차 교육 과정은 학교 급별로 편성·운영 지침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초·중·고 교육과정 편제와 단위(시간) 배당을 통합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편성·운영 지침도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 6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던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은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제시하도록 교육과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중점에 관한 사항
- ③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교육 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교과목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⑦ 고등학교의 계열, 학과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⑧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정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⑨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이수 단위에 관한 사항
- ⑩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
- ⑪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에 관한 사항
- ⑫ 고등학교 총 이수 단위 수의 증배 운영에 관한 사항
- ⑬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 ⑭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 ⑮ 조기 입학, 조기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⑯ 특수아 및 귀국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사항
- ⑰ 학교 교육 과정의 작성 절차 및 체제에 관한 사항
- ⑱ 독서 목록 작성·활용에 관한 사항
- ⑲ 교육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⑳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㉑ 특성화 고등학교, '2·1' 체제 운영 공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㉒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에 새로 도입된 것은 지역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지역 교육청은 시·도의 각급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초로 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초·중학교에 제시한다.'로 되어 있다.

- ① 지역의 특수성에 바탕한 중점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 ② 학교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교육 자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학교 간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협조에 관한 사항
- ④ 학교 간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협조에 관한 사항
- ⑤ 학교 간 교육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 ⑥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교육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⑦ 학교 교육 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필요한 사항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 1항에는 '학교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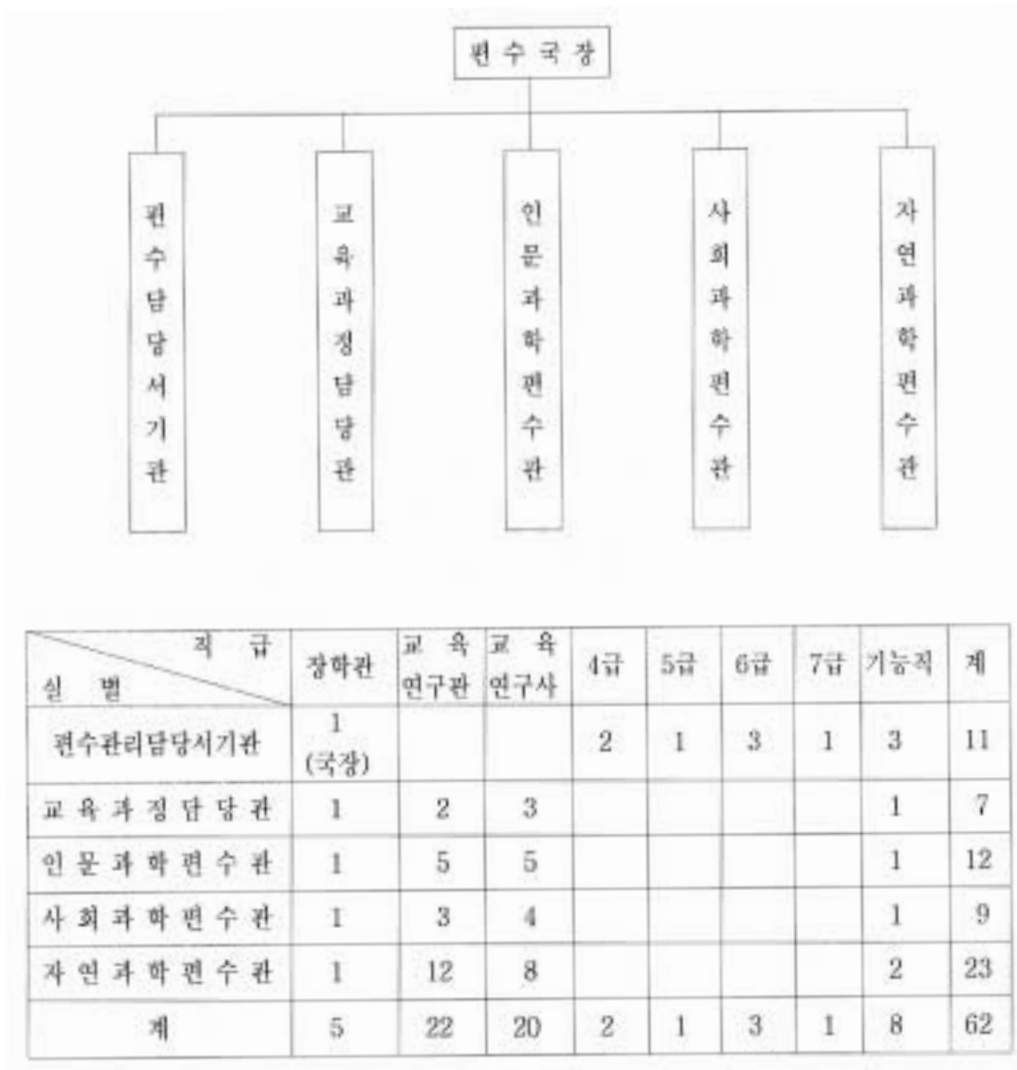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도 학교는 이 교육과정과 시·도의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고 지침에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재량활동 편성·운영 등으로 초·중학교에서도 학교 교육과

정 편성과 운영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중심 교육 과정 편성과 운영으로 그 중요성은 배가된다 하겠다.

(4) 제7차 교육과정 개발시 편수국의 직제 및 편수 활동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계획을 수립(96.3)할 무렵 편수국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¹⁴⁾

〈그림 VIII-2〉 편수국의 조직



14) 교육부, 편수업무편람, 1995. p.3.

제7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96. 7. 5일 대통령 제 15113호로 교육부 조직확대, 개편이 이루어졌다. 교육부 조직 확대, 개편이라는 명칭으로 보아서 나타나지 않지만 그 주요 개정에 들어가서는 교육정책실이 폐지되고 초·중등 교육실이 신설되면서 교육과정심의관계가 도입되었다.

교육과정심의관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교육평가 및 편수관리 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과정심의관계가 도입되면서 종래의 편수국에서 전통적으로 교과를 관장하던 인문과학편수관실, 사회과학편수관실, 자연과학편수관실이 폐지되고 교육평가담당관이 신설되고 편수관리담당서기관실이 편수관리담당관실로 되면서 편수 연구직 정원은 다음과 같

〈표 VIII-11〉 편수 연구직 정원 변경

개 정 전					개 정 후				
부 서 별	장학관	연구관	연구사	계	부 서 별	장학관	연구관	연구사	계
편수국장	1			1	심 의 관	1			1
교육과정 담당관	1	2	3	6	교육과정 담당관	1	14	13	28
인문과학 편수관	1	5	5	11					
사회과학 편수관	1	3	4	8	교육평가 담당관	1	6	6	13
자연과학 편수관	1	12	8	21					
계	5	22	20	47	계	3	20	19	42

이 변경되었다.

1996.7.5일 직제 개정령 부칙 제3조(편수업무에 관련 특례)에는 종전의 교과 편수 업무에 관하여는 1997년 2월 28일까지 항시적으로 교육과정심의관이 초·중등 교육실장을 보좌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별 교육과정은 교과 편수업무 담당자가 주관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교과 전공 전문 인력의 결원과 분산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98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 15717호로 다시 교육부 조직 개편이 있었다. 이 조직 개편에서는 초, 중등 교육실이 학교정책실로 개편되면서 편수관련 직제는 교육과정 정책 심의관으로 실장을 보좌하도록 하였다.

보좌 내용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교육 평가 및 교과서 정책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편수와 관련된 과는 교과서정책과장과 교육과정평가정책과장을 두고 있다.

교육부의 교과서 정책과와 교육과정 평가정책과의 직제 시행 규칙에 제시된 분장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⑧ 교과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용 도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1종 교과용 도서의 편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교과용 도서의 검 · 인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구성 · 운영
5. 교과용 도서의 발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교과용 도서의 가격 관리
7. 교과용 도서 저작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 교과서 대여제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9. 전자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운영지원
11. 국사편찬위원회의 운영지원
12. 교과용 도서 발행 및 학습참고도서에 관련된 단체의 지원
13. 기타 교과서정책에 관한 사항

⑨ 교육과정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의 개선 · 관리
2. 통일대비 교육과정의 개발
3. 교과용 도서 개발계획의 수립
4. 교육과정심의회의 구성 · 운영
5. 교과용 도서의 편수 · 수정 · 보완 등 편찬에 관한 사항

6. 교과용 도서의 집필 지침 및 검·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7.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에 관한 사항
8. 교육과정 연구학교의 운영지원
9. 학업성취도평가 발전계획의 수립
10. 학교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11. 교육과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12. 시·도 교육연구원의 운영지원
13. 교육용 도서의 실험 및 현장 검토
14. 기타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2001년 1월 29일 대통령령 제 17115호로 개편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에서는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하던 교육과정 정책심의관 직제가 없어지고, 교육과정평가정책과장은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교과서정책과장은 평가관리과장으로 보직 명칭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④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과정 및 초중등교육과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2. 교과용 도서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3. 교육과정심의회 및 교과용 도서심의회 구성·운영
4. 교과용 도서의 편수·수정·보완 등 편찬에 관한 사항
5. 교과용 도서의 집필지침 및 검·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6. 한국바로알리기사업에 관한 사항
7. 교육용 도서의 실험연구 및 현장검토

⑤ 평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학업성취도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3. 학교평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교육과정 기본계획의 수립
5. 교과용 도서발행심의회의 구성·운영

6.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7. 1종 교과용 도서의 편찬계획수립
8. 2종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9. 교과용 도서의 발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0. 교과용 도서의 가격관리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2. 국사편찬위원회의 운영지원
13. 교과용 도서 발행·공급 및 학습참고도서에 관련된 단체의 지원·지도

참고로 제7차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당시 재임한 장·차관·국장·과장 등을 직급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Ⅷ-12〉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전후 장·차관·국장·과장**

장 관	차 관	국 장 (심의관, 담당관)	교육과정 업무 담당과장	교과서 업무 담당과장
김숙희(1993.12.22~)	이천수(1993.3.3~)	함수곤	유천근	송성주
박영식(1995.5.16~)	이영탁(1995.12.26~)	한명희	이범주	정영선
안병영(1995.12.21~)	이용원(1997.8.7~)	심광한	이경환	류선규
이명현(1997.8.5~)	조선제	유천근		이현목
	(1998.3.8~199.5.26)	이수일	김수형	나교환
이해찬	김상권			
(1998.3.3~1999.5.24)	최희선		김원찬	
김덕중				
문용린				
송 자				
이돈희				
한완상				

*1996년 직제 개편시 인문과학편수관 류학영 장학관, 사회과학편수관 김성환 장학관, 자연과학편수관 황홍순 장학관이 재직하고 있었음.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전후 장·차관, 국·과장의 명단은 「부록Ⅱ」에 게재함.

(5) 제7차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제7차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종래의 어떤 교육과정에 개정 때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하겠다.

1996년과 1997년에 이루어진 연구를 연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1996년 실시 과제

- ①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김재복),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평가 연구 - 제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1996.
- ②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윤병희),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 1996.
- ③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김기석),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요구 조사, 1996.
- ④ 교육과정 연구위원회(김종권), 통합교과의 교육과정·교과서 구조 개선 연구, 1996.
- ⑤ 한국교육개발원(곽병선), 교육과정 2000 연구 개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1996.
- ⑥ 한국교육개발원(허정철), 교육과정 2000 연구 개발 수준별 교육과정안, 1996.
- ⑦ 한국교육개발원(장석민), 교육과정 2000 연구 개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1996.
- ⑧ 한국교육개발원(성일제), 교육과정 2000 연구개발 특수목적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1996.
- ⑨ 대구대학교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김병하),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1996.
- ⑩ 대구대학교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김정권), 특수학교 교육과정 총론시안 개발, 1996.

2) 1997년 실시 과제

- 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이인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연구』, 1997.
- ②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조미혜),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연구』, 1997.
- ③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박소영),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연구』, 1997.

- 구』, 1997.
- ④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최진황),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연구』, 1997.
 - 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이근님), 『제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 개발연구』, 1997.
 - ⑥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이인제), 『제7차 중·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1997.
 - ⑦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조미혜), 『제7차 고등학교 교련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1997.
 - ⑧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구자억), 『제7차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1997.
 - 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조미혜), 『제7차 체육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1997.
 - 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박소영), 『제7차 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1997.
 - ⑪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장석민), 『제7차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1997.
 - ⑫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곽병선), 『교육적 인간상 및 교육 목표 연구』, 1997.
 - 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김정호), 『제7차 국제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1997.
 - ⑭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박순경), 『초·중등학교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연구』, 1997.
 - ⑮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조난심),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1997.
 - ⑯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조난심), 『제7차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 연구』, 1997.
 - 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이돈희),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관한 연구』, 1997.
 - 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최석진),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

- 용 도서 개발 지침 연구』, (연구보고 CR 97-69), 1997.
- ⑲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김일기),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연구』, 1997.
 - ⑳ 한국교원대학교 과학과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김범기),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연구』, 1997.
 - ㉑ 한국교원대학교 실과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윤인경), 『제7차 실과 교육과정 각론 개정 연구』, 1997.
 - ㉒ 한국교원대학교 특별활동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함수곤), 『제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 각론 개정 연구』, 1997.
 - ㉓ 한국교원대학교 과학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권제술), 『제7차 과학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연구』, 1997.
 - 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정태범), 교육과정 관련 교원대책 - 『제7차 교육과정 개정 관련 교원양성, 교원연수, 교원수급 방안 연구』, 1997.
 - ㉕ 대구대학교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김정권), 특수학교 교육과정 각론 시안 개발(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997.
 - ㉖ 대구대학교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김정권), 특수학교 교육과정 각론 시안 개발(기본교육과정), 1997.
 - ㉗ 대구대학교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김정권), 특수학교 교육과정 각론 시안 개발(직업 교과 교육과정), 1997.
 - ㉘ 대구대학교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김정권), 특수학교 교육과정 각론 시안 개발(시각장애 이료과), 1997.
 - ㉙ 대구대학교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김정권), 특수학교 교육과정 각론 시안 개발(치료교육활동 교육과정), 1997.
 - ㉚ 서울대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회(정세구), 『제7차 초·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연구』, 1997.
 - ㉛ 서울대학교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이용환), 『제7차 농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각론 개정연구 시안』, 1997.
 - ㉜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강옥기), 『제7차 초·중·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1997.
 - ㉝ 인천교육대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신계휴),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 1997.

- ③④ 고려대학교 고등학교 일반교양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전성연), 『제7차 고등학교 일반교양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1997.
- ③⑤ 충남대학교 공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성세진), 『제7차 공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개정 시안 연구 개발』, 1997.
- ③⑥ 인하대학교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신황호), 『제7차 상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1997.
- ③⑦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교육과정개정연구회(홍봉기), 『제7차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1997.
- ③⑧ 전남대학교 가정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김경애), 『제7차 가정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각록 개정 연구 시안』, 1997.
- ③⑨ 한국외국어교육학회 교육과정개발연구위원회(배두본), 『제7차 외국어계 교육과정 (각론)시안 개발 연구·개발』, 1997.
- ④⑩ 한국유아교육학회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이기술),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개발』, 1997.
- ④⑪ 한국교육과정연구회 교육과정개정연구회(김재복), 『교과서 체제 개선 연구』, 1997.

(6) 제7차 교육과정 개정과 연구학교 운영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대비 교육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Ⅷ-13〉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대비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① 1996년 실시

학교급별	학교명	연구 과제	연구기간
고등학교	양재고 (서울)	○ 일반계 고등학교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험 연구('97년 보고서) ○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모형 연구('98년 보고서)	1996~98
	공주고 (충남)	○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연구('97년 보고서)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연구 편성에 관한 연구('98년 보고서)	1996~98

② 1997년 실시

학교급별	학교명	연구 과제	연구기간
초등학교	서울장위초 (서울)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 · 운영	1997~98
	인척석남서초 (인천)	범교과 학습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 · 운영	1997~98
	천안남산초 (충남)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1997~98
	진주정춘초 (경남)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 · 운영	1997~98
중학교	녹천중 (서울)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을 대비한 중학교 창의적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방안	1997~98
	선화여중 (인천)	제7차 교육과정 적용 대비를 위한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1997~98
	이리동중 (전북)	범교과 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방안	1997~98
고등학교	남일고 (부산)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한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1997~98
	수원농생고 (경기)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실습’ 교과목의 수준별 교육과정 구안 · 적용에 관한 연구	1997~98
	영동고 (충북)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한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997~98
	김제여고 (전북)	소도시(농촌) 지역 고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997~98
	안동농림고 (경북)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고려한 전문 교과 교육과정 편성 · 운영에 관한 연구	1997~98

③ 1998년 실시

학교급별	학교명	연구 과제	연구기간
초등학교	용인능원초 (경기)	학생 중심의 계발 활동 프로그램 편성 · 운영	1998~99
	덕벌초 (충북)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 운영	1998~99
	경산진량초 (경북)	심화 · 보충형 수준별 수준학교 편성 · 운영	1998~99
중학교	신도중 (부산)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1998~99
고등학교	대전여고 (대전)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 운영에 관한 연구	1998~99
특수학교	대전맹학교 (대전)	시각 장애 특수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모형 개발	1998~99

④ 1999년 실시

학교급별	학교명	연구 과제	연구기간
초등학교	서울당서초 (서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창의적 교육 활동 프로그램의 편성 운영	1999~2000
중학교	소양중 (강원)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특별 보충과정 편성 · 운영	1999~2000
	목포여중 (전남)	재량활동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재량활동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1999~2000
고등학교	세종고 (서울)	고등학교 윤리 및 음악 교과의 평가 방법 개선 연구	1999~2000
	서부고 (대구)	고등학교 체육 및 음악 교과의 평가 방법 개선 연구	1999~2000
	동대전고 (대전)	고등학교 윤리 및 미술 교과의 평가 방법 개선 연구	1999~2000
	학성고 (울산)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특별 보충과정 편성 · 운영	1999~2000
	부천여자고 (경기)	고등학교 실업 · 가정 교과의 평가 방법 개선 연구	1999~2000
	부여고 (충남)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 · 운영	1999~2000
	강화여중고 (인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모형	1999~2000
	강화여중고 (인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모형 개발	999~2000
	주문진고 (강원)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모형 개발	1999~2000

⑤ 2000년 실시

학교급별	학교명	연구 과제	연구기간
	대전갈마초	자기주도적 능력 신장을 위한 재량활동 교육	2001~01
초등학교	(대전) 양천초	과정 편성 · 운영 초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모형	2001~01
	(부산) 수산초	개발, 적용 학생 중심의 특별활동 교육과정 편성 · 운영	2001~01
	(경남) 연성중	중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모형 개발,	2001~01
중학교	(인천) 수일중	학생 중심의 특별활동 교육과정 편성 · 운영	2001~01
	(경기) 장산중	중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모형 개발,	2001~01
고등학교	(경북) 오성고	적용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 운영	2001~01
	(대구) 광주실업고	모형 개발, 적용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2001~01
	(광주) 충북예술고	모형 개발, 적용 예술계 고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2001~01
	(충북) 고창고	모형 개발, 적용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2001~01
	(전북) 함덕정보 산업고 (제주)	모형 개발, 적용 학생 중심의 특별활동 교육과정 편성 · 운영	2001~01

⑥ 2001년 실시

구분	학교급별	학교명	연구과제	연구기간
교육부 지정	초등 학교	서울목동초	초등 학교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	2001~02
		서울원명초	주5일제 수업 대비 교육 과정 편성·운영	2001~02
		경기 왕곡초	주5일제 수업 대비 교육 과정 편성·운영	2001~02
	중학교	울산 동평중	중학교의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	2001~02
		강원 원주중	중학교의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	2001~02
	일반계 고등 학교	부산 양운고	일반계 고등 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 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2001~02
	실업계 고등 학교	경기 여주시영농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	2001~02
	기타계 고등 학교	경남과학고	과학계 고등 학교의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	2001~02
교육부과제 수행 시·도 지정	초등 학교	경기 안양법계초	수준별 교육 과정 적용 교과목의 목표 지향 평가 연구	2000~01
		전북 군산금광초	수준별 교육 과정 적용 교과목의 목표 지향 평가 연구	
	중학교	울산 무룡중	수준별 교육 과정 적용 교과목의 목표 지향 평가 연구	
		강원 함태중	수준별 교육 과정 적용 교과목의 목표 지향 평가 연구	
		충남 삼교중	수준별 교육 과정 적용 교과목의 목표 지향 평가 연구	
	고등 학교	서울 성심여고	수준별 교육 과정 적용 교과목의 목표 지향 평가 연구	
		전남 고흥고	수준별 교육 과정 적용 교과목의 목표 지향 평가 연구	

2)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장학 자료 연구 개발 기관 명단

〈표Ⅷ-14〉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기관 및 협력 연구학교

① 연구기관

기관명	연구 과제	연구기간
경남교육과학연구원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장학 자료 개발 연구	1998~2000
전북교육정보과학원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장학 자료 개발 연구	1998~2000
강원교육과학연구원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장학 자료 개발 연구	1998~2000
충남교육과학연구원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장학 자료 개발 연구	1998~2000
부산교육과학연구원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기타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장학 자료 개발 연구	1998~2000

② 협력 연구학교

학교급별	학교명	연구 과제	연구기간
초등학교	성호초 (경남)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1999~2000
중 학교	호성중 (전북)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1999~2000
고등학교	도계고 (강원)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1999~2000
	서산농공고 (충남)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1999~2000
	국제고 (부산)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기타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1999~2000

3)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실험·연구 학교 운영 계획

① 목 적

- 가.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학교 새 교과용 도서의 적합성, 타당성 검증
- 나. 실험용 교과서와 지도서의 수정·보완을 위한 자료와 의견 수집
- 다. 제7차 교육과정에 효율적인 적용에 대비한 시범적인 역할 수행
- 라.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증

② 운영 방침

- 가. 명칭 : ‘교육부 지정 교과용 도서 실험·연구 학교’
- 나. 실험·연구 과제
 - (가)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실험용 교과용 도서의 적절성, 타당성 검토
 - (나)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
 - (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다. 지정 구분
 - (가) 제7차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16개교)
 - (나) 국립 사범대학, 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17개교)
- 라. 대상 및 기간
 - (가) 1차 연도 : 1999. 3. 1 ~ 2000. 2. 28, 1·2학년, 5교과 및 특별활동, 59책
(우리들은 1학년 : 시·도별 적용)
 - (나) 2차 연도 : 2000. 3. 1 ~ 2001. 2. 29, 3·4학년, 9교과 및 특별활동, 78책
(사회과 탐구 4-1 : 시·도별 적용)
 - (다) 3차 연도 : 2001. 3. 1 ~ 2002. 2. 28, 5·6학년, 10교과 및 특별활동, 74책
- 마. 실험·연구 방법
 - (가) 지정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대상 학교를 교체 또는 변경 지정할 수 있다.
 - (나) 1차 연도에는 교과간의 통합 운영과 교과 및 학년간의 관련, 계열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교과를 운영하고, 2차, 3차 연도에는 연구 교과를 집중하여 운영한다.
 - (다) 제7차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면서 모든 교직원의 공동 참여와 현장 수업을 통하여 교육 계획, 내용, 방법, 평가 등 교수·학습 개선에 중점을 둔다.

(라) 교육부에서 연차적으로 개발, 보급하는 교과별 평가 기준 시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적합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여 일반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마) 실험·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교육부의 교과 편수 업무 담당자 및 교과용 도서 연구 개발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연계 연구를 추진한다.

③ 연도별 초등학교 1종 교과용 도서 실험 학교 운용 주요 내역

〈표Ⅷ-15〉 연도별 초등학교 1종 도서 실험학교 운영

연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운영기간	'99. 3. 1.~ 2000. 2. 28.	2000. 3. 1.~ 2001. 2. 28.	2001. 3. 1.~2002. 2. 28.
실험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대상도서	교과서 36책 지도서 23책 계 59책 ※해당교과의 보완교재 검토	교과서 47책 지도서 29책 계 76책 ※해당교과의 보완교재 검토	교과서 45책 지도서 27책 계 72책 ※해당교과의 보완교재 검토
대상교과	1학년 : 5 교과 및 특별활동 2학년 : 5 교과 및 특별활동 ※ 시·도별 개발 : 우리들은 1학년 ※학교별 : 제량활동운영	3학년 : 9 교과 및 특별활동 4학년 : 9 교과 및 특별활동 ※ 시·도별 개발 : 사회과 탐구 4-1 ※학교별 : 제량활동운영	5학년 : 교과 및 특별활동 6학년 : 교과 및 특별활동 ※학교별 : 제량활동운영
학교구분	실험연구 16개교 협력연구 13개교 계 29개교	실험연구 16개교 협력연구 17개교 계 33개교	실험연구 16개교 협력연구 17개교 계 33개교
교과운영	· 전 교과 운영	· 집중 연구교과 태징 운영 · 전 교과 운영	· 집중 연구교과 태징 운영 · 전 교과 운영
예산지원	국교보조금(공립 16개교) 부속학교 - 대학에서 지원	국교보조금(공립 16개교) 부속학교 - 대학에서 지원	국교보조금(공립 16개교) 부속학교 - 대학에서 지원
지정, 운영	실험 연구 지정 (부속학교 참여)	계속 지정 또는 교재 지정	계속 지정 또는 교재 지정
적 용	1, 2학년 전체 학급, 학생, 교과(제 7차 교육과정 적용)	3, 4학년 전체 학급, 학생, 교과(제 7차 교육과정 적용)	5, 6학년 전체 학급, 학생, 교과(제 7차 교육과정 적용)
교과용 도서 공 급	현행 교과서와 실험용 교과서 동시 공급	동시 공급	동시 공급
협력회 및 사건교원연수	'99. 1월중 '99. 8월중	'2000. 1월중 '2000. 8월중	'2001. 1월중 '2001. 8월중

④ 교육부 지정 교과용 도서 실험 연구 학교(2001년)¹⁵⁾

〈표Ⅷ-16〉 교육부 지정 교과용 도서 실험 연구학교

시·도	실험·연구 학교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집중 연구 교과	시·도	실험·연구 학교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집중 연구 교과
서울	① 서울안평초	· 국어, 도덕, 영어	강원	⑮ 춘천동부초	· 사회, 과학, 체육
	② 서울교대부초	· 수학, 체육, 미술		⑯ 춘천교대부초	· 국어, 도덕, 영어
	③ 서울사대부초	· 사회, 과학, 음악	충북	⑩ 보은삼산초	· 국어, 도덕, 영어
부산	④ 부산송학초	· 수학, 과학, 미술		⑬ 경주교대부초	· 수학, 음악, 미술
	⑤ 부산교대부초	· 국어, 도덕, 영어		⑭ 교원대원곡부초	· 사회, 과학, 체육
대구	⑥ 대구상원초	· 과학, 체육, 음악	충남	⑪ 중남성환초	· 수학, 체육, 미술
	⑦ 대구교대부초	· 국어, 도덕, 영어		⑫ 봉주교대부초	· 사회, 과학, 음악
	⑧ 경북사대부초	· 수학, 사회, 미술	전북	⑬ 군산지곡초	· 국어, 도덕, 영어
인천	⑨ 인천능허대초	· 수학, 사회, 미술		⑭ 전주교대부속초	· 사회, 과학, 음악
	⑩ 인천교대부초	· 국어, 도덕, 영어		⑮ 전주교대군산부초	· 수학, 체육, 미술
광주	⑪ 광주경양초	· 수학, 음악, 미술	전남	⑯ 순천성동초	· 국어, 도덕, 영어
	⑫ 광주교대부초	· 사회, 과학, 체육		⑰ 광주교대목포부초	· 수학, 음악, 미술
대전	⑬ 대전용정초	· 국어, 도덕, 영어	경북	⑱ 경북청도초	· 국어, 도덕, 영어
				⑳ 대구교대안동부초	· 수학, 음악, 미술
울산	⑭ 울산양정초	· 사회, 과학, 체육	경남	㉑ 경남하동초	· 사회, 체육, 음악
				㉒ 진주교대부초	· 수학, 음악, 미술
경기	⑮ 부천부일초	· 과학, 체육, 음악	제주	㉓ 제주도남초	· 국어, 도덕, 영어
				㉔ 제주교대부초	· 사회, 과학, 미술

15) 교육부,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실험·연구학교 운영자료(V), 2001, pp. 3-20.

3.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

(1)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편찬

1) 교과용 도서 의미의 변화

우리 나라에서 교과서는 관련 법령의 변천에 따라 의미가 변해왔다. 현재 법적 정의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의 의미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⁶⁾

현재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영상·전자 저작물 등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표 VIII-17>에서와 같이 과거 교과용 도서에는 학생용 도서와 궤도, 지구의 등 교수용 교재가 포함되어 있었다.

1963년에 와서는 교과용 도서에 순전히 ‘학생용 도서’만 포함하여 정의하였으나, 1977년부터는 지도서 및 인정도서를, 다시 1998년에 와서는 주교재와 보완교재 개념으로 구분하여 교과서, 지도서, 인정도서를 모두 교과용 도서에 포함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과용 도서 개념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교과용 도서’라는 용어의 부적절성에서 기인한다. 교과용 도서(敎科用 圖書)의 ‘교과용’에서 ‘用’자 앞은 일반적으로 사용 주체(예: 신사용 구두, 학생용 교과서, 숙녀용 가방 등)를 나타내거나, 사용처(예: 교정용 자료, 군사용 물자 등)를 나타낸다. 그러나 교과용 도서란 ‘교과 교육을 위한 도서’라는 의미로 사용의 주체가 불분명한 용어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라는 현재의 용어는 조어 자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정을 잘 나타내지 못하므로 점차 적절한 용어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교과용 도서에서 ‘도서’는 지물류인 서책(written text), 인쇄 자료(printed material)가 수업에서 중심을 차지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정보화,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학교 수업용 자료로서 학생용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참고서, 오디오, 비디오, CD-ROM 타이틀, 인터넷 자료 등 교과서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전달해 주는 매체이면서, 교육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나 수업에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

16) 교육부, 교과서 백서, 2000, pp.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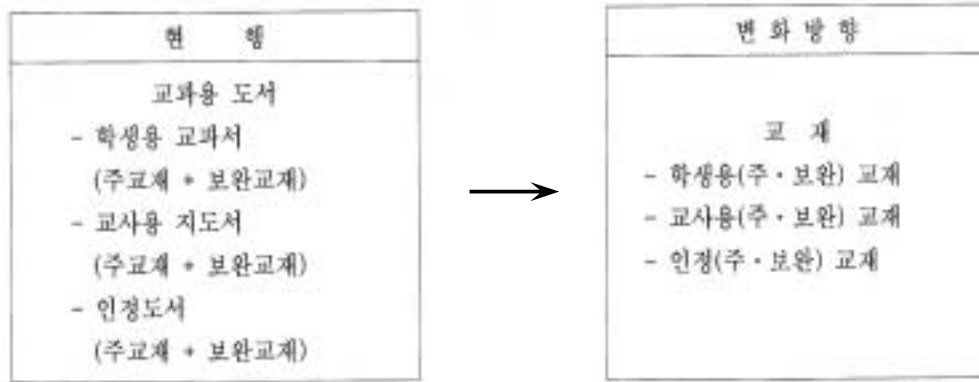
〈표Ⅷ-17〉 교과서 명칭 및 의미의 변화

시 기	법 규	명 칭	정 의	비 고
1950. 4. 29	대통령령 제336호	교과용 도서	각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 학교의 학생용 도서와 고등학교, 사범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 학교의 교수용의 책도, 지구의류 등	학생용도서와 교 수용 교재
1959. 2. 23	대통령령 제1453호	교과용 도서	각 학교의 학생용 도서와 교수용의 책도, 지 구의류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간명하게 함.
1963. 7. 3	각 령 제1371호	교과용 도서	각 학교의 학생용 도서	교수용의 책도와 지구의류를 제외
1977. 8. 22	대통령령 제8660호	교과용 도서	교과서, 지도서 및 인정도서	지도서를 포함.
2000. 6. 19	대통령령 제16841호	교과용 도서	교과서, 지도서 및 인정도서	도서 개념에서 교재 개념으로의 변화
		교과서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영상 저작물 등('보완교재')	
		지도서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주된 교재와 그 보완교재	
		인정도서	교과서, 지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 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재와 그 보완교재	

이러한 ‘교과용’, ‘도서’ 등 용어 정의의 문제에 따라 ‘교과용 도서’는 ‘교재(教材)’로 의미가 변화해 가는 추세에 있다. 교재는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며, 서책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자료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 교재라는 개념적 우산 아래에서도 학생용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는 여전히 사용 가능하고, 특히 이들을 지칭할 때에는 핵심(또는 主) 교재라고 하며, 그 밖에 교과 성격에 따라 오디오/비디오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컴퓨터 및

인터넷 자료 등은 보완(또는 副) 교재라고 지칭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림 VIII-3〉 교과용 도서 의미의 변화 방향



2) 교과서 제도

우리 나라의 교과서 분류 제도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나 지도서를 1종 도서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나 지도서를 2종 도서라 하며, 인정도서는 교과서나 지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시·도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재와 그 보완 교재를 말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1종도서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목 중 국어(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독본에 한한다)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와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의 교과목 중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로 되어 있다.

2종도서는 위의 규정에 의한 1종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실제 교과용 도서 편찬에서 1종도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시·도교육감이 인정도서로 발간하는 우리들은 1학년과 4학년 사회과탐구의 교과서와 지도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는 1종도서로 편찬하도록 지침을 정하였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국어 이외에 도덕, 국사 등 보통교과와 대부분의 고등학교 전문교과는 1종도서로 편찬하고 있다.

2000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6841호로 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인정 도서 심의회 없는 인정 도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급속히 변화하는 컴퓨터 관련 교과와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예·체능 교과 및 국제 전문 교과 등의 77책은 당해 학교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선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

학교의 선정 및 신청 절차는 학교장이 당해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월 전까지 시·도 교육감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시·도 교육감은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 도서로서의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인정도서 및 인정도서 또는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⁷⁾

17) 교육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 사항 통보. 2000.6.28.

〈표Ⅷ-18〉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인정도서 및 교과서 없는 교과목 현황

구분	인 정 도 서 교 과 목 명	
	인정도서	인정도서 또는 인정도서심의회 심의없는 인정도서
교과목	【보통교과】 ○ 철학 ○ 논리학 ○ 심리학 ○ 교육학 ○ 생활경제 ○ 종교 ○ 생태와 환경 ○ 진로와 직업	【전문교과】 ○ 컴퓨터구조, 시스템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4과목) ○ 자료처리, 전자계산실무, 프로그래밍실무, 사무자동화일반, 문서실무 (5과목) ○ 축구, 농구, 배구, 무용, 육상경기, 체조경기, 수영경기, 태권도·복싱, 유도·태슬링, 사격, 양궁 역도, 병상, 사이클, 골프, 요트, 조정, 볼링, 스키, 편성, 배드민턴, 카누 (22과목) ○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미술이론, 미술사 디자인, 영상미술, 무용이론, 무용사, 문학개론, 문학사, 문장론, 고전문학, 현대문학, 시창작, 소설창작, 희곡창작, 연극개론, 영화개론, 연극사, 영화사, 화술, 사진개론, 사진사, 사진편집 (25과목) ○ 영어강독, 독일어강독, 프랑스어강독, 스페인어강독, 중국어강독, 일본어강독, 러시아어강독, 아랍어강독,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문제, 비교문화, 정보과학, 국제법, 지역이해, 인류의 미래사회,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현대사회, 한국어, 과제연구, 예능실습 (21과목)
	계	8 77

동 개정령에는 인정도서 심의회 없는 인정도서 제도 도입과 함께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 채택 권유 금지규정을 삭제하였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52조에는 “저작자와 발행자는 학교의 교직원에게 그가 저작 또는 발행한 교과용 도서 및 교과용 도서를 이용한 부교재의 채택을 권유할 수 없다.”로 되어 있다.

이 규정 삭제의 취지는 국무총리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동 규정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뜻에서 폐지 결정 의결이 있어 삭제되었다.

○ 제51조 규정이 폐지되어도 발행자 및 저작자의 불공정한 채택권유는 허용되지 아니

하므로 발행자가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의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993-13호에 의해 고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동 시행령에 따라 기준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 또한, 현장교원이 불공정한 행위 유형에 참여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당하게 되어 있으므로 불공정한 채택 권유는 엄단할 수 있다.

3) 교과서의 발행

교과용 도서의 발행권은 저작권자가 그 도서를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발행권은 교과용 도서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종도서의 경우 국가(교육부)가 특별한 금전적 대가 없이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함에 따른 반대 급부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2종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와 출판사 간의 약정에 의거 일정한 발행, 판매한 매출액에 따라 인세를 부과하게 된다.

교육부장관과 1종도서 발행사 사이에 체결된 발행권 설정 약정서 상에 나타난 발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¹⁸⁾

첫째, 발행권을 부여받은 발행자는 부여받은 교과용 도서의 발행, 공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둘째, 발행자는 교육부로부터 교과용 도서의 원고를 교부받아, 교육부가 정한 도서의 체제, 용지, 발행부수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셋째, 발행자는 교육부가 정한 정가(定價)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

넷째,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발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섯째,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는 발행도서의 발행에 사용된 원고와 원화(原畵)를 보관하였다가 교육부가 요구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8) 교육부, 교과서 백서, 2000, pp. 18-21.

① 1종도서의 발행권 부여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1종도서는 1998년 이전까지는 정부 투자기관인 국정교과서(주)와 민간회사인 대한교과서(주) 및 향우산업(주)에서 주로 발행해 왔다.

1998년 12월 26일 국정교과서주식회사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 매각됨으로써 국정교과서주식회사에 부여하였던 발행권이 3년간(1999~2001)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 승계되었으며, 1999년 5월 3일 법적으로 대한교과서주식회사가 국정교과서주식회사를 합병함으로써 1999학년도부터 1종도서의 발행은 사실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와 향우산업주식회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육부의 1종도서 발행권 부여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득권을 인정하는 독점 발행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다음과 같은 1종도서 발행사의 설립 역사와 발행사를 바꿀 경우 이미 보유한 생산 시설과 인력 처리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정부 수립과 6·25 전쟁 후 우리 나라의 산업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초·중등학교용 교과서 생산을 위하여 국정교과서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의 발행, 공급을 목적으로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국무회의 의결(1952년 3월 7일)에 따라 동년 7월 창립하였다. 5·16 혁명 후 정부의 출자에 따라 1961년 8월 1일 국정교과서주식회사로 사명(社名)을 변경하였다. 국정교과서주식회사는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 합병되기 전까지 주로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발행·공급해 왔다.

대한교과서주식회사는 당시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1948년 4월 28일)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의 번각(飜刻)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48년 9월 창립한 이래 주로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발행해 오다가, 국정교과서주식회사를 합병한 후부터는 기존의 경기도 성남에 있는 1,2 공장 외에 충남 조치원 공장(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등 생산 공장만도 3개를 가진 교과서 전문 발행사가 되었다.

한편, 향우산업주식회사가 1종도서를 발행하게 된 계기는 1968년 1·21 사태(김신조사건)로 고등학교에 교련 교육이 시작되면서 군사 훈련용 교안을 전문으로 발행하는 동사에 관련 교과서 발행권을 부여한 데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는 1999년 국정교과서(주) 민영화 시에 교육부 편찬 1종도서에 대한 발행권을 인수기업인 대한교과서(주)에서 2001년까지 발행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협약하였다

이 기간의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영화 이후 교과서 발행의 경쟁 체제 도입 필요 및 현행 발행체제의 다원화 체제로의 변화에 대한 규제 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저작 1종도서발행사 다원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자료¹⁹⁾에 의하면 제7차 교육과정 1종교과용 도서 편찬 책수 및 발행권 부여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표Ⅷ-19〉 제7차 교육과정 1종 교과용 도서 편찬 책수 및 발행권 부여 범위

구 분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1종 도서 책수		12	79	212	46	372	721(100%)
발행 회사	현행유지 (대한)	12	79	212	28	2	333(46.2%)
	다원화 대상	-	-	-	18	370	388(53.8%)

그리고 2002학년도 이후부터 사용되는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전 과목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도 다원화를 추진하며, 이에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사용 중인 1종도서(초등학교 1,2,3,4학년, 중학교 1학년)와 실험본이 적용된 초등 5-6학년은 현행 발행사(대한교과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표Ⅷ-20〉 제7차 1종 교과용 도서 발행권 부여 대상 책수

학교급별		교과별 책수
중학교(18책)		국어 12책, 도덕 4책, 사회(국사) 2책 【18책】
고등 학교 (379책)	보통 교과	국어 6책, 도덕 8책, 사회(국사) 2책, 수학 4책, 과학 2책, 기술가정 1책, 외국어(아랍어) 4책, 특별활동 5책, 정보통신기술교육1책 【22책】
	전문 교과	농업계 39책, 공업계 112책, 상업계 19책, 수산해운계 36책, 가사실업계 31책, 과학계 15책, 외국어계 80책, 체육계 5책 【337책】
계		388책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발행권 부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2001. 5. 3)하여 시행 계획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특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발행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지확인심사 및 종합

19)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저작 1종도서 발행사 다원화 관련 설명 자료(유인물), 2001.

심사를 거쳐 발행사를 최종 결정하였다.

발행권 부여 범위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교과서 발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쇄·제본 및 편집능력 확보를 우선 고려하고, 발행권 다원화 취지를 감안하여 상위 그룹 적정발행사 6개사를 선정하였다.

둘째,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과는 상위 3개 발행사에 발행권 다원화를 부여하고, 중학교 사회(국사) 2책 및 고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1책은 현재의 편찬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대한교과서에 발행권을 부여하였다.

셋째, 상기 이외의 다른 보통교과는 발행사에 발행권을 균형있게 부여하였으며, 기타 다종 소량부수인 고등학교 전문교과 등은 계열별로 구분하여 발행권을 부여하되, 발행부수가 많은 보통교과의 발행권을 부여받은 발행사에 발행부수 및 매출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발행권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설정 기준에 근거하여 발행사별 발행권 부여 내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Ⅷ-21〉 발행사별 발행권 부여 내역

발행사	보통교과		전문교과	합 계 (책 수)
	기본교과	기타교과		
대한교과서	中2국어 6책 中사회 2책	高 정보통신기술 교육1책	高공업계 112책 高수산해운계36책	157책
두산	高국어 6책 高사회 2책	高외국어 4책	高외국어계 80책	92책
교학사	中3국어 6책		高 상업계 19책 高 농업계 39책	64책
중앙교육	中도덕 4책	高기술가정1책 高특별활동5책	高 가사실업계 31책	41책
지학사	高도덕 8책	高과학 2책	高 과학계 15책	25책
천재교육	高수학 4책		高 체육계 5책	9책
계 (6개사)	38책	13책	337책	388책

② 2종 도서의 검정 실시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 2001학년도부터 사용할 중·고등학교 2종 교과용 도서의 검정 실시 공고는 1988년 12월 31일 하였다.

이 검정 실시 공고에 의하면 중학교는 1학년 25종, 2학년 20종, 3학년 20종, 총 65종

이며,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 116종, 전문교과 9종으로 총 125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2종 도서 검정 신청 예정자 등록 결과 아랍어Ⅰ, Ⅱ는 검정 신청 예정자가 없었고, 최종 122종으로 확정되었다.

검정 실시 공고에 의하면 신청 자격과 검정 신청 기간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²⁰⁾

◆ 신청 자격

○ 2종 교과용 도서의 원고를 집필한 저작자로 한다. 다만, 원고를 집필한 저작자가 2종도서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검정 신청일 현재 최근 2년간 20종류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와 약정이 되어 있을 것.

나. 하나의 교과목의 2종 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자는 동일인일 것.

다. 2종 교과서와 그 교과서에 대한 2종 지도서의 저작자는 동일인일 것.

라. 2인 이상의 공동 저작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

◆ 검정 신청 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00. 1. 24(월) ~ 1.31(월) : 중학교 1학년(25종)

○ 2000. 12. 4(월) ~ 12. 11(월) : 중학교 2학년(20종), 고등학교 기본 및 일반선택과목(48종), 전문교과(9종)

○ 2001. 12. 3(월) ~ 12. 10(월) : 중학교 3학년(20종), 고등학교 선택과목(68종)

※ 지도서의 검정 신청기간은 교과서 1차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추후 통지

나. 신청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다. 제출서류

① 검정신청서 : 1부

② 심사본 : 책별로 6부(한문과 외국어는 10부) <공판 인쇄 등으로 가쇄>

③ 2종 교과용 도서 집필계획서(단원별 구성계획 및 개략적 내용) 각 6부

20) 대한매일,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 1998.12.31.

위와 같은 실시 공고에 의한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 결과를 제시하면 <표Ⅷ-22>~<표Ⅷ-25>와 같다.²¹⁾

<표Ⅷ-22> 2종 도서 중학교 1학년 검정 완료

과목	교과서	지도서	계	과목	교과서	지도서	계
사회	10	10	20	음악	9	9	18
사회과부도	8		8	미술	7	7	14
수학7 - 가	16	16	32	중학영어	15	15	30
수학7 - 나	16	16	32	한문	11	11	22
과학	9	9	18	컴퓨터	8	8	16
기술·가정	12	12	24	환경	3	3	6
체육	11	11	22	계	135	127	262

과목	본검정		재검정		계		과목	본검정		재검정		계	
	교	지	교	지	교	지		교	지	교	지	교	지
사회	6	6	4	4	10	10	미술	6	6	1	1	7	7
사회과부도	6		2		8		중학영어	13	13	2	2	15	15
수학7 - 가	13	13	3	3	16	16	한문	7	7	4	4	11	11
수학7 - 나	13	13	3	3	16	16	컴퓨터	3	3	5	5	8	8
과학	7	7	2	2	9	9	환경	3	3	0	0	3	3
기술·가정	10	10	2	2	12	12							
체육	6	6	5	5	11	11	계	98	92	37	35	135	127
음악	5	5	4	4	9	9		190	72	262			

21)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2종 교과용 도서 검정(유인물). 2001.9.

〈표Ⅷ-23〉 중학교 2학년 본검정 교과서, 지도서 심사 완료

*174책 (교과서 87책 지도서 87책) (2000. 12. 4 ~ 2001. 7. 26)

과목	교과서	지도서	계	과목	교과서	지도서	계
사회2	7	7	14	음악2	4	7	8
수학8-가	14	14	28	미술2	6	6	12
수학8-나	14	14	28	중학영어2	13	13	26
과학 2	6	6	12	한문2	8	8	16
기술·가정2	9	9	18	계	87	87	174
체육2	6	6	12				

과목	검정신청	적격	부적격	과목	검정신청	적격	부적격
사회 2	10	7	3	음악2	9	4	5
수학8-가	16	14	2	미술2	7	6	1
수학8-나	16	14	2	중학영어2	15	13	2
과학 2	9	6	3	한문2	11	8	3
기술·가정2	11	9	2	계	115	87	28
체육2	11	6	5				

*중학교 2학년 재검정 교과서 심사 완료(심사기간 ; 2001. 8. 1 ~ 9. 20)

과목	검정신청	적격	부적격	과목	검정신청	적격	부적격
사회2	3	2	1	음악2	4(1)	4(1)	0
수학8-가	2	2	0	미술2	·(1)	·(1)	0
수학8-나	2	2	0	중학영어2	2	1	1
과학2	3	3	0	한문2	3	2	1
기술·가정2	1	1	0	계	25(2)	22(2)	3
체육2	5	5	0				

※ ()는 본 검정시 지도서 부적격 책 수임

〈표Ⅷ-24〉 고등학교 교과서, 지도서 본검정 심사완료(심사기간 :2000. 12. 4 ~ 2001. 7. 26)

※ 308책(교과서 185책 지도서 123책)

과목	교과서	지도서	계	과목	교과서	지도서	계
사회	6	6	12	독일어 1	6	6	12
수학10-가	11	11	22	프랑스어 1	3	3	6
수학10-나	11	11	22	스페인어 1	1	1	2
과학	7	7	14	중국어 1	5	5	10
기술·가정	6	6	12	일본어 1	4	4	8
고등영어	12	12	24	러시아어 1	2	2	4
체육	6	6	12	한문	6	6	12
음악	5	5	10	소계	57	54	111
미술	5	5	10	공업입문	3		3
지리부도	7		7	경영대요	3		3
역사부도	5		5	원가회계	4		4
소계	81	69	150	세무회계	3		3
국어생활	8	8	13	무역영어	3		3
인간사회와환경	4	4	8	컴퓨터일반	8		8
실용수학	4	4	8	상업경제	8		8
정보사회와컴퓨터	3		3	상업계산실무	4		4
체육과건강	4	4	8	회계원리	11		11
음악과생활	2	2	4	소계	47		47
미술과생활	5	5	10	총계	185	123	308

〈표Ⅷ-25〉 고등학교 교과서 재검정 심사 완료 (심사기간 : 2001. 8. 1 ~ 9. 20)

과목	검정신청	적격	부적격	과목	검정신청	적격	부적격
사회	6	2	4	독일어 I	2	2	0
수학10-가	8	5	3	프랑스어 I	1(1)	1(2)	0
수학10-나	8	5	3	스페인어 I	0	0	0
과학	5	4	1	중국어 I	1	1	0
기술·가정	5(1)	5(1)	0	일본어 I	8	8	0
고등영어	3	3	0	러시아어 I	0	0	0
체육	2	2	0	한문	5	4	1
음악	9	3	6	소개	33(2)	27(2)	6
미술	7	3	4	공업입문	1	1	0
지리부도	5	2	3	경영대요	1	0	1
역사부도	3	3	0	원가회계	1	1	0
소개	61(1)	37(1)	24	세무회계	0	0	0
국어생활	5	3	2	무역영어	0	0	0
인간사회와환경	1	1	0	컴퓨터일반	0	0	0
실용수학	0	0	0	상업경제	0	0	0
정보사회와컴퓨터	8	7	1	상업계산실무	0	0	0
체육과건강	0	0	0	회계원리	2	2	0
음악과생활	2	0	2	소개	5	4	1
미술과생활	0	0	0	총계	99(3)	68(3)	31

*()는 본 검정시 지도서 부적격 책수임

③ 2종도서의 발행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14조 제 1항의 규정과 검정 공고내용에 의하여 ‘원고를 집필한 자’가 2년 간 20종 이상의 도서를 출판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와 그 도서의 출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검정을 출원하도록 하고 있다. 출판사는 발행 시설(인쇄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인쇄 시설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2종 도서의 원활한 발행, 공급을 위하여

검정에 합격한 출판사로 하여금 협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2종 도서를 인쇄, 발행하게 하고 있다.

4) 교과서의 공급 제도

① 공급 제도의 변화

교육부는 2000년 8월 16일 교과용 도서 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32조에 의거 대한교과서(주)가 맡아오던 교과서 공급대행권을 2001학년도 교과서 공급 시부터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원(현 연구재단)이 대한교과서(주) 지방 공급 조직을 흡수하여 교과용 도서를 공급하도록 하였다.²²⁾

우리 나라 교과용 도서의 공급은 해방 직후부터 1977년 2월까지 발행사별 지정 공급인 제도로 민간이 담당하여 오다가 ‘검인정 교과서 사건’ 이후 국정교과서(주)를 공급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공급하게 하였다. 이러한 공급제도는 발행사별 주문과 공급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배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최종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께 번거로움을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교과서 주문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채택비리, 금품수수 및 부교재 끼워 팔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체제였다.

그러나 1998년 국정교과서가 민영화되어 교과용 도서 공급제도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그 동안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정책결정 막바지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가 엇갈려 공급제도 개선안 마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교과용 도서 공급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 교과서의 공급을 시장기능에 의한 교과서 공급체계로 전환, • 교과서의 적기 안정적 공급 최우선, • 학교현장인 학생 교원의 불편 최소화, • 교과서 가격 인상 요인의 최소화, • 개별구입 불편 및 낙후되고 비효율적인 교과서 보관, 창고, 분류, 운송체계 등 현 제도 운영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 • 교과서 발행사, 전국서적상연합회, 공급소장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 조정에 주안점을 두었다.

교과서 공급 제도 주요 개선 내용 중 먼저 교과용 도서 공급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사들이 공동으로 「중앙공급총괄기관」을 만들어 공급 업무 위탁, 즉 발행사는

22) 이현일, 교과서 공급제도 개선의 의의, 「교과서 연구 제35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발행사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한국교과서연구원(현, 연구재단)을 「중앙공급총괄기관」으로 하여 발행사 책임의 교과서 공급 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둘째, 지역 공급 단위는 발행사별 독자조직을 지양하고, 현재의 공급단위를 활용하되 학생수,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국교과서연구원 책임하에 적정규모로 통합·분리 재편토록 함.

셋째, 정년 등으로 결원되는 지역과 대도시의 일부 분리 지역 등 신규 공급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2001학년도부터 서적상들에게 교과서 공급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종전의 공급 소장과 서적상의 경쟁체제를 유도함.

넷째, 지역 공급 조직은 일정 규모의 개별 창고나 공동 창고 확보 또는 물류회사 창고 이용계약 체결 등의 창고 확보를 의무화함.

다섯째, 한국교과서연구원을 개편하여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 변경하고, 이사장이 책임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사장 선출 방식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에서 “교과서 출판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발행사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함.

② 공급 제도의 운영 체계

교과서 공급제도의 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사와 중앙공급 총괄기관 사이에 교과서 공급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공급 소장과 해당 지역교육청 간에 무상 교과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둘째, 각급 학교는 지역 공급소장에게 교과서를 주문하고 해당 지역 교육청에 보고하며, 지역 공급소장은 이를 집계하여 각 발행사에 주문함.

셋째, 발행사는 자기 비용으로 중앙공급 총괄기관 지정 창고까지 교과서를 운송하고 공급소는 이를 보관·분류하여 학교에 공급한다. 무상 교과서는 지역 교육청에 공급 상황을 보고토록 함.

넷째, 개별 학생에 대한 교과서 배부는 학교 사정에 따라 교사가 하거나 행정실에서 배부를 담당하되, 배부 경비를 현실화하여 학교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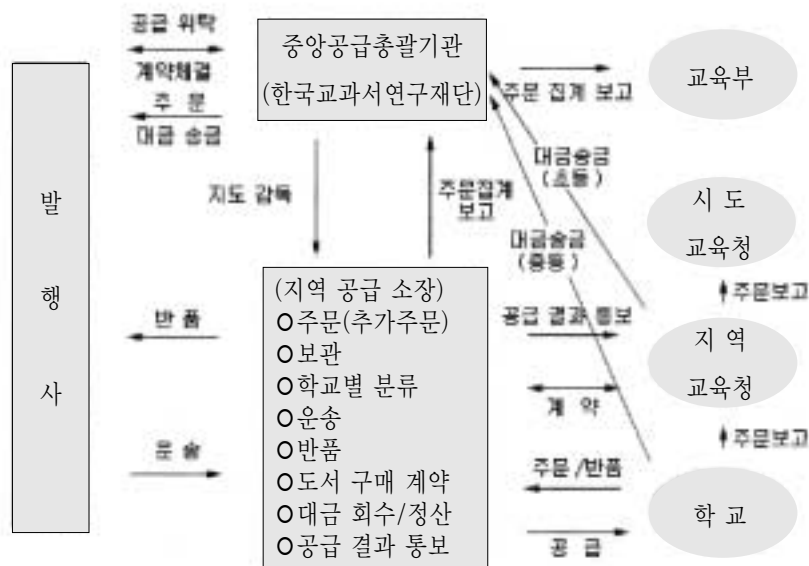
다섯째, 교과서 공급 비용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1년차 운영 후 검토하기로 함. 이번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을 통하여 현재의 교육부 장관이 공급 대행사를 지정하는 관 주도 공급체제를 발행사가 공급총괄기관을 지정하는 자율 공급체제로 전환한 데에 그 특색이 있다. 교과서 공급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등에 발행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

으나 발행사의 협의체 또는 교과서연구재단의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교과서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까지는 특정 발행사가 공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금정산 등에 오해소지가 있었으나, 발행사 공동 출자로 설립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공급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객관적 위치에서 대금 정산 업무를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상 살펴본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공급제도 개선은 교과용 도서 공급의 완전무결한 제도로서의 의미보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비영리 단체인 교과서연구재단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과서의 안정적 적기 공급과 공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이 제도 정착의 성공 여부는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자사 위주의 이기적 자세에서 벗어나 한발씩 양보하고 대승적 차원에서의 이해와 협조에 달려 있으며, 특히 발행사와 교과서연구재단의 긴밀한 협조와 일선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이번 교과용 도서 공급제도 개선안이 다소의 미흡한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서로 협의하여 개선 보완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림 VIII-4〉 제도 개선 후의 교과서 주문·공급 체계도



(2) 1종 교과용 도서 편찬

1종 교과용 도서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한다. 1종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교과용 도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기관을 정하며, 교과용 도서 심의의 절차를 거쳐 생산 공급을 한다. 우리 나라의 1종도서 개발은 수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 편찬의 기본 방향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새로 편찬하는 교과용 도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의성 신장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 체제는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 편리한 교과서로 개발되었다.

새 교과서는 종래의 금과옥조형 교과서, 단편적인 지식 중심의 교과서에서 탈피하여 교육과정 중심 학교교육에 맞는 교과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과서, 현장교원이 직접 참여하여 개발하는 교과서를 지향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1999년도 초·중·고등학교 1종도서편찬추진 계획에 의하면 편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① 편찬 방향

가. 목 적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새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서 개발

나. 기본 방향

(가) 제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는 교과용 도서 편찬

가) 추구하는 인간상의 반영

-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 나) 해당 교과목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 반영
- 교과목의 성격과 목표에 충실한 내용 선정 및 교수·학습 방법 제시
 - 「내용」, 「방법」,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재 선정과 전개
 -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내용 수준과 학습량의 적정화(30% 감축)
 - 최소필수학습요소를 중심으로 넓고, 깊게 이해하는 학습자료 구성
(다량 소시간 피상주의 소량 다시간 심도주의)

(나)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에 적합한 교과용 도서의 편찬

가)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학교수준 교육과정을 연계시키는 주된 교육자료로서의 교과서 편찬

-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상세화, 구체화 자료로서의 적합성 제고
(교과서 중심의 학교교육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

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가 될 수 있는 교과용 도서 편찬

- 주요 개념과 학생 생활 경험의 연계
-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재 개발

다) 교수·학습 과정 중심의 교과서 편찬

- 구체적인 학습지도 계획 작성이 용이한 자료 성격
- 단위 전개 과정에서의 학습 방법의 충분한 시사
- 성공적인 교수·학습 과정 단계의 안내 및 유도

라)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한 교과용 도서 편찬

-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반영(수학, 영어)
-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반영(국어, 사회, 과학)

(다)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 편찬

가)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 구성

-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 내용의 구성
- 단위 전개 체제의 창의적 구안
- 학습 과정 중심의 단위 전개와 실용성, 유용성의 중시

나) 교수·학습 과정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구성

- 학습과정, 탐구과정의 중시

- 실생활 사례, 경험 등을 중시하는 내용 구성
(그 내용을 학습한 결과로 개념 습득이 가능하게 유도)
- 다)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 편찬
 - 자율학습,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구성
 -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흥미와 동기 유발
 - 다양한 편집, 디자인 기법의 도입, 가독성의 제고
 -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교수·학습이 가능한 내용
 - 개별학습, 소집단 학습, 직접 체험의 중시와 지원 체제 구성

(라) 연구 개발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과용 도서의 편찬

가) 기초연구의 충실

- 현행 교과용 도서의 문제점 진단
- 교육과정의 상세화 연구
- 현장교사,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 청취
- 학생 중심의 집필 세목 작성

나) 교수·학습 자료의 다양화

- ‘1교과 다교과서’ 체제의 도입
- 다양한 보완 교재의 개발

다) 교원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친화적인 교과서 편찬

- 연구·집필·협의진에 다수의 현장 교사가 직접 참여하여 개발
- 책임 있는 집필을 위하여 『집필자 실명제』 도입

라)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수준별 교과서 개발

-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적, 체계적인 내용 구성
- 학생의 능력, 적성,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과서 편찬

마)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교과서 구성

-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융통성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
- 교육과정의 목표 구현을 위한 예시적인 자료의 성격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풍부한 자료 제시

다. 초등학교 새 교과서의 특징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초등학교 새 교과서의 특징을 교육과정 정신, 내용 조직,

학습량, 편찬자, 지질 등 체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구현하는 자료형 교과서로 개발되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 자료이므로,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취지에 부합되게 편찬하였다.

둘째, 내용 구성에 있어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실이나 사례를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 절차와 방법을 중시하고 직접 체험이나 활동을 강조하였다.

셋째, 학습량을 줄이고 사고를 유도하는 탐구형, 다양한 개성에 따라 배울 수 있는 선택형 교과서로 개발되었다. 내용 전개는 학생들의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중시하고 다양한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선택 활동이나 심화학습 자료를 제시하였다.

넷째, 연구진, 집필진 및 심의진 등의 명단을 게재하는 등 집필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집필에 대한 책임을 유도하고, 교수학습 지도 시 각종 자문 및 자료 문의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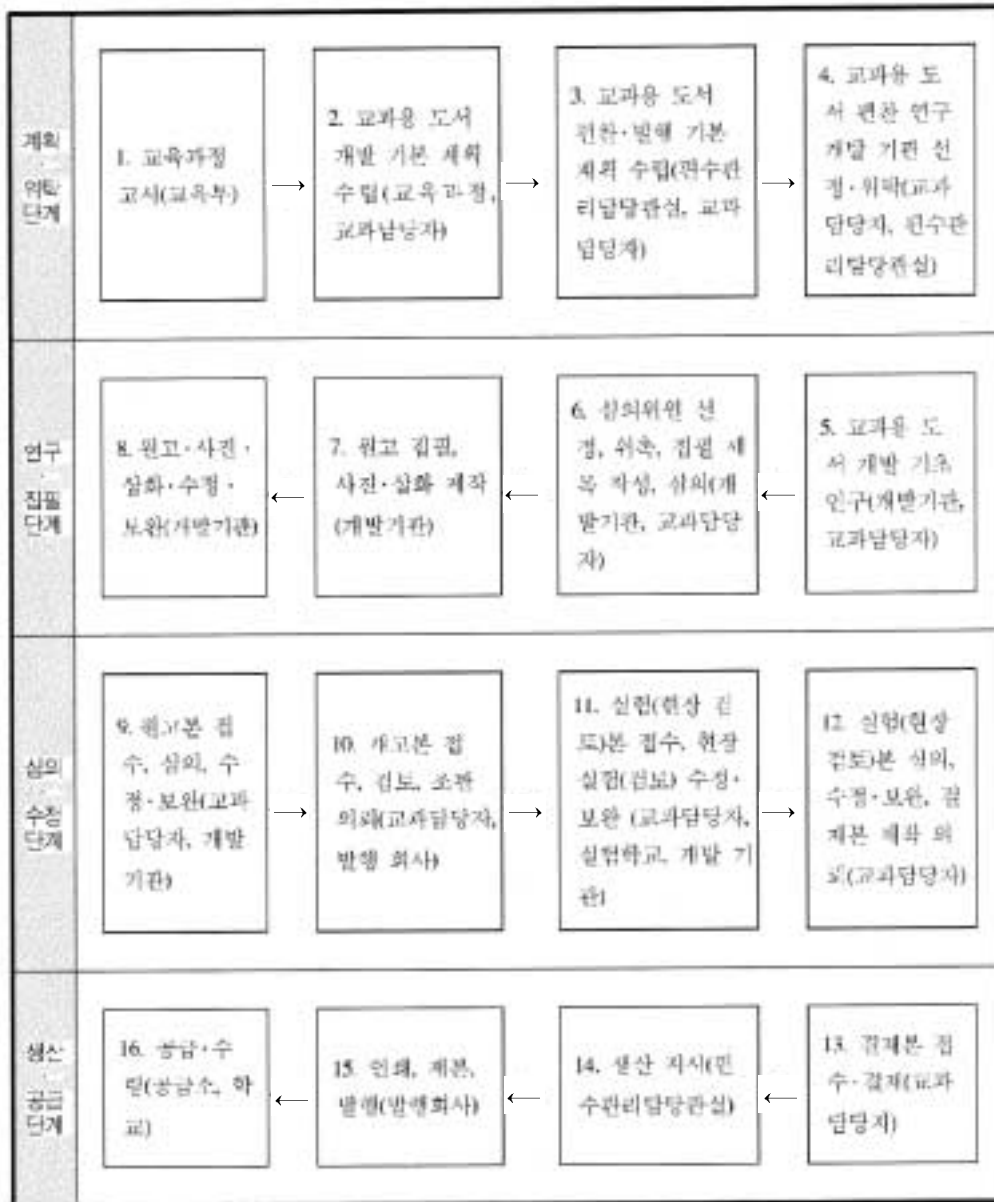
다섯째, 교과서의 지질을 개선하고, 편집 등 전문 분야에 아웃소싱(outsourcing) 체제를 도입하여 편집 및 디자인의 수준을 높였으며, 다양한 편집 기법으로 가독성을 높이고 학습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학생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편집체제를 다양화하고, 사람의 일생이나 민들레의 성장과정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접고 펼 수 있는 날개형 편집을 시도하였다.

여섯째, 초등 통합교과의 성격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교과와 교과간의 통합적 성격에서 독자적인 통합교과적 성격의 교과서로 편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생활주제 중심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재미있게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교과서 개발에 교수, 연구원, 교육전문직뿐만 아니라 현장 교원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각 단원별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교원이 동시에 참여하여 적실성을 높이고 직접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부응하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과서 개발에 현장 교원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에 맞는 교과서 개발에 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과서 편찬 기본 방향에 적절한 학습 활동을 도입함으로써 학생의 능력과 적성 및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Ⅷ-5〉 1종교과용 도서 편찬 업무 흐름도



2) 편찬 절차

1종 교과용 도서의 개발 절차는 교육부와 연구·개발 기관의 업무 추진 과정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편찬 업무 흐름도는 〈그림Ⅷ-5〉와 같다.

3) 편찬 추진 계획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1종 교과용 도서 편찬의 연도별 추진 계획을 보면 <표 VIII-26>과 같다.²³⁾

<표 VIII-26>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1종 교과용 도서 개발 계획

● 유치원, 초등학교

구 분	개발 책수			1998			2000
	교과서	지도서	계	책수	교과서	지도서	지도서
유치원	-	12	12	12	출문,나와유치원,가족과여웃, 계절,건강한 몸과 마음, 동물, 지구와 환경, 교통기관, 도구와 기계, 우리나라의 다른나라, 특별한 날들, 흥미로운 활동지도자료 【12】		
계		12	12	12	12		
초등학교	1-2	36	20	56	56	말하기·듣기1-1,읽기1-1, 쓰기1-1, 말하기·듣기2-1, 읽기2-1,쓰기2-1, 수학1-가, 수학익힘책1-가, 수학2-가, 수학익힘책2-가,바른생활1-1, 생활의길잡이1-1, 바른생활2-1, 생활의길잡이2-1,즐거로운생활1-1, 즐거운생활2-1, 즐거운생활1-1, 즐거운생활2-1 【18】	국어1-1,국어2-1, 수학1-가,수학2-가, 바른생활1-1, 바른생활2-1, 즐거운생활1-1, 즐거운생활2-1 【10】
					말하기·듣기1-2, 읽기1-2, 쓰기1-2, 말하기·듣기2-2, 읽기2-2, 쓰기2-2, 수학1-나, 수학익힘책1-나, 수학2-나, 수학익힘책2-나, 바른생활1-2, 생활의길잡이1-2, 바른생활2-2, 생활의길잡이2-2, 즐거운생활1-2, 즐거운생활2-2, 즐거운생활1-2, 즐거운생활2-2 【18】	국어1-2, 국어2-2,수학1-나, 수학2-나, 바른생활1-2, 바른생활2-2, 즐거운생활1-2, 즐거운생활2-2, 즐거운생활1-2, 즐거운생활2-2 【10】	
	3-4	47	26	75	75	말하기·듣기3-1, 읽기3-1, 쓰기3-1, 말하기·듣기4-1, 읽기4-1, 도덕3-1, 생활의 길잡이3-1, 도덕4-1, 생활의 길잡이4-1, 사회3-1, 사회4-1, 수학3-가, 수학익힘책3-가, 수학4-가, 수학익힘책4-가, 과학3-1, 실험관찰3-1, 과학4-1, 실험관찰4-1, 체육3, 체육4, 음악3, 음악4, 미술3, 미술4, 영어3, 영어4 【27】	국어3-1, 국어4-1, 도덕3-1, 도덕4-1, 사회3-1, 사회4-1, 수학3-가, 수학4-가, 과학3-1, 과학4-1, 체육3, 체육4, 음악3, 음악4, 미술3, 미술4, 영어3, 영어4 【27】
					말하기·듣기3-2, 읽기3-2, 쓰기3-2, 말하기·듣기4-2, 읽기4-2, 도덕3-2, 생활의 길잡이3-2, 도덕4-2, 생활의길잡이4-2, 사회3-2, 사회4-2, 사회과학탐구4-2, 수학3-나, 수학익힘책3-나, 수학4-나, 수학익힘책4-나, 과학3-2, 실험관찰3-2, 과학4-2, 실험관찰4-2 【20】	국어3-2, 국어4-2, 도덕3-2, 도덕4-2, 사회3-2, 사회4-2,수학3-나, 수학4-나, 과학3-2, 과학4-2 【10】	
학년 공통	1	6	7	7	사회과부도(4~6학년) 【1】 (1999년 개발)	지리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5】	정보통신기술활동지도자료 【1】
소계	84	54	138	138	84	53	1

23)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교육과정에 따른 1종 교과서용 도서 계획(유인물), 2001.

● 중학교

구 분	개발 책수			'98	'99			2000			2001			
	교과서	지도서	계		책수	교과서	지도서	책수	교과서	지도서	책수	교과서	지도서	
중학교	국어	12	6	18	-	6	국어 1-1, 국어 1-2, 생활국어 1-1, 생활국어 1-2 [4]	국어 1-1, 국어 1-2 [2]	6	국어 2-1, 국어 2-2, 생활국어 2-1, 생활국어 2-2 [4]	국어 2-1, 국어 2-2 [2]	6	국어 3-1, 국어 3-2, 생활국어 3-1, 생활국어 3-2 [4]	국어 3-1, 국어 3-2 [2]
	도덕	3	3	6	-	2	도덕 1 [1]	도덕 1 [1]	2	도덕 2 [1]	도덕 2 [1]	2	도덕 3 [1]	도덕 3 [1]
	사회	1	1	2	-	2	국사 1 [1]	국사 1 [1]						
	생활외국어	7	7	14	-	14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7]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7]						
	특별활동 정보통신	-	5	5	-	5	자활적응, 환경교육, 동아리, 봉사활동, 정보통신 [5]	자활적응, 환경교육, 동아리, 봉사활동, 정보통신 [5]	1	정보통신, 동아리, 봉사활동 [1]				
계	23	23	46	-	29	13	16	9	5	4	8	5	3	

● 특수 학교

구 분	개발 책수			'98			'99-'00	2001		
	교과서	지도서	계	책수	교과서	지도서		책수	교과서	지도서
국민공통기본	4	3	7	7	전자악기, 언어, 체육 I, 체육 II [4]	전자악기, 언어지도, 체육 [3]				
기본교육	21	7	28	28	국어 I, 국어 II, 국어 III, 사회 I, 사회 II, 사회 III, 수학 I, 수학 II, 수학 III, 과학 I, 과학 II, 과학 III, 건강 I, 건강 II, 건강 III, 예능 I, 예능 II, 예능 III, 직업 I, 직업 II, 직업 III [21]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건강, 예능, 직업 [7]				
치료교육	-	8	8	8	-	언어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모형훈련, 일상생활훈련 [8]				
특수교육	공예	1	1	2				2	공예 [1]	공예 [1]
	포장·조립·운반	1	1	2				2	포장·조립·운반 [1]	포장·조립·운반 [1]
	농업	1	1	2				2	농업 [1]	농업 [1]
	전자조립	1	1	2				2	전자조립 [1]	전자조립 [1]
	계과·계량	1	1	2				2	계과·계량 [1]	계과·계량 [1]
	정보처리	1	1	2				2	정보처리 [1]	정보처리 [1]
	상업디자인	1	1	2				2	상업디자인 [1]	상업디자인 [1]
	이 료	10	10	20				20	해부·생리, 병리, 보건, 안과·미시지·지압, 전기치료, 한방, 물리, 의료영상, 전단, 실기실습 [10]	해부·생리, 병리, 보건, 안과·미시지·지압, 전기치료, 한방, 물리, 한방, 물리, 의료영상, 전단, 실기실습 [10]
소 계	17	17	34					34	17	17
장애인의 생활과 복지	1	1	2	-				2	생활과 복지 [1]	생활과 복지 [1]
합 계	43	36	79	43	25	18		36	18	18

● 고등 학교(보통 교과)

구 분		책 수			98	99	2000			2001		
		교과서	지도서	계			책수	교과서	지도서	책수	교과서	지도서
고등학교 보통교과	국 어	3	3	6			6	국어(상), 국어(하), 문법 【3】	국어(상), 국어(하), 문법 【3】			
	도 덕	4	4	8			2	도덕 【1】	도덕 【1】	6	시민윤리 윤리와사상 전통윤리 【3】	시민윤리 윤리와사상 전통윤리 【3】
	사 회	1	1	2			2	국사 【1】	국사 【1】			
	수 학	2	2	4			2	미 산 수학 【1】	미 산 수학 【1】	2	확률과통계 【1】	확률과통계 【1】
	과 학	1	1	2			2	생활과 과학 【1】	생활과 과학 【1】			
	기술 가정	1		1			1	해양과학 【1】				
	외국어	2	2	4			2	아랍어 I 【1】	아랍어 I 【1】	2	아랍어II 【1】	아랍어II 【1】
	교 련	1	1	2						2	교련 【1】	교련 【1】
	특별 활동 · 정보 통신		6	6			6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 활동 【5】			
계		15	20	35			23	9	14	12	6	6

● **고등 학교(전문 교과)**

구분	기말 학수			학수	1999		2000		2001	
	교과서	지도서	계		교과서	학수	교과서	학수	교과서	학수
농업계	39	30		14	농업미생, 농업기초기술, 농업홍보관리, 재배, 술과 인간, 원예, 축산, 농업과학, 농촌과 농지개발, 식물과학, 식품위생, 환경보전, 조경, 농산물유통	7	생선자재, 원예기술 I, 작목기술 I, 농업기계, 농업기계공학, 식품가공기술 I, 식품가공기술 II	18	원예기술 II, 작목기술 II, 유통관리 I, 유통관리 II, 농촌과 인간, 생물공학기초, 식품생성기술, 신원자원기술, 생활민생 농업기계기술 I, 농업기계기술 II, 농업도목기술 I, 농업도목기술 II, 조경기술 I, 조경기술 II, 원경관리 I, 원경관리 II, 농업경영	
공업계	112	112		42	기계기초공학, 금속재료, 디젤엔지니어링, 측량, 기계제도, 기계일반, 전기일반, 공업영어, 기계제도, 기계공학, 공작기계, 전자기계이론, 금속재료, 주조, 자원개발, 석재가공, 시추·지하수, 전기회로, 권선기기, 전력설비, 전차회로, 통신일반, 역학, 토목재료·시공, 건축제철일반, 디자인일반, 폐물관리, 공업화학, 뉴세라믹, 소결세라믹, 발효공학, 섬유재료, 합성·합성·민체일반, 민체재료, 광탄민체, 자동차기공, 자동차체제, 선박이론, 항공기일반, 항공공업일반, 대가·소음방지	18	유체기계, 공기조화설비, 전자기계회로, 소성가공, 금속처리(성), 자원개발조정, 전력설비, 전기·전자측정, 정보통신, 토목일반, 조형, 단위조각, 식품공업 I, 선박구조, 항공기기술, 정보기술기초, 전자기계공학, 건축시공 I	52	도목제도, 디자인제도, 기계설계, 산업설비(성), 형형제(성), 자원개발기계, 통신시공, 수리·도설, 제조화학, 금속재료, 공조·경화세라믹, 식품제조기계, 특수민체, 자동차·건설기계, 자동차전기, 항공기이론, 전자기체제어, 건축시공 II, 사진·전자제어, 수송관리, 특기물처리, 건축설계제도, 선박제도, 운송기, 공작기계 II, 산업설비(하), 형형제(하), 금속처리(하), 화학·합성, 자동차일반, 전자기기, 건축제도, 토목설계, 건축구조공학, 항공기계제도, 응용세라믹, 식품공업 II, 재료·소재·합성·가공, 건설기계구조·설비, 선박제도, 선박구조, 항공기이론, 항공기전장제, 지체·전선, 지적설계, 건축시공 II, 재료디자인, 시공기술, 전기공학, 전자통신공학	
상업계	19	19		1	사진	6	시각디자인일반, 그래픽디자인, 비서일반, 사무자동화일반, 유통관리일반, 광고일반	12	상업법규, 기업회계, 경영실무 마케팅, 회계실무, 국제경영, 국제상무, 시각디자인실무, 컴퓨터그래픽, 관광경영실무, 비서실무, 유통정보실무	
수산·해운계	36	36		11	해양환경, 해양도목, 수산생물, 수산경영일반, 수산양식(성), 수산양식, 수산생물관리, 해양오염, 물가공, 해양구조물설계·시공, 침수구조	9	수산일반, 선박전기·전자, 기계설계·공학, 배차일반, 냉동일반, 원예, 전자통신공학, 수산가공기계, 수산·해양정보처리	15	어업(성), 수산양식(하), 수산가공(성), 수산가공(하), 선박보조기계, 선박안전, 배차법규, 선박안전, 전지통신실무, 배차일반, 냉동기계, 어업(하), 양식생물, 냉동·냉동설비·설계, 배차일반, 전자통신기기	
가사·실업계	31	31		9	친환경일반, 폐비미용, 한국무늬, 공예보전, 디스플레이, 재래제품, 유아놀이·표현지도, 관공조리, 관공영어	6	식품과영양, 의복재료·관리, 실내디자인, 한국조리, 노인생활지원, 피부관리	16	친환경일반, 주거, 유아교육원리, 관공일반, 호텔업무, 공식관리, 음식디자인, 지수, 유아생활교육, 한국조리, 한국미용기초, 유아의욕구성, 호텔선, 관공기구디자인, 호텔업무	
소계	237	237		77		46		114		

구분	기발 책수			98	99		2000		2001	
	교과서	지도서	계		책수	교과서	책수	교과서	책수	교과서
과학계	15		15				5	물리실험, 화학실험, 생물실험, 지구과학실험, 컴퓨터과학 I	10	과학사, 전자기학, 컴퓨터과학 II, 고금수학, 고금물리, 고금화학, 고금생물, 고금지구과학, 환경과학, 현대과학과 기술
외국어계	80		80		40	영어독해 I, 영어회화 I, 영어작문 I, 영어청해, 영어문법, 독일어독해 I, 독일어회화 I, 독일어작문 I, 독일어청해, 독일어문법, 프랑스어독해 I, 프랑스어회화 I, 프랑스어작문 I, 프랑스어청해, 프랑스어문법, 스페인어독해 I, 스페인어회화 I, 스페인어작문 I, 스페인어청해, 스페인어문법, 중국어독해 I, 중국어회화 I, 중국어작문 I, 중국어청해, 중국어문법, 일본어독해 I, 일본어회화 I, 일본어작문 I, 일본어청해, 일본어문법, 러시아어독해 I, 러시아어회화 I, 러시아어작문 I, 러시아어청해, 러시아어문법, 아랍어독해 I, 아랍어회화 I, 아랍어작문 I, 아랍어청해, 아랍어문법	16	영어작문 II, 영어권문화, 독일어작문 II, 독일문화, 프랑스어작문 II, 프랑스문화, 스페인어작문 II, 스페인어문화, 중국어작문 II, 중국문화, 일본어작문 II, 일본문화, 러시아어작문 II, 러시아문화, 아랍어작문 II, 아랍문화	24	영어독해 II, 영어회화 II, 실무영어, 독일어독해 II, 독일어회화 II, 실무독일어, 프랑스어독해 II, 프랑스어회화 II, 실무프랑스어, 스페인어독해 II, 스페인어회화 II, 실무스페인어, 중국어독해 II, 중국어회화 II, 실무중국어, 일본어독해 II, 일본어회화 II, 실무일본어, 러시아어독해 II, 러시아어회화 II, 실무러시아어, 아랍어독해 II, 아랍어회화 II, 실무아랍어
체육계	5		5				3	새벽계몽, 스포츠과학, 체조	1	수업, 육상
소계	100		100		40		24		36	
계 (전문교과)	337		337		117		70		150	
계 (고등학교)	332	20	372		117	교과서 117 지도서 0	93	교과서 79 지도서 14	162	교과서 156 지도서 6

4) 교과별 1종도서 편찬위원회 구성·운영

1종도서 개발을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편찬 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을 제시하였다.

○ 1종도서 편찬 위탁을 받은 기관은 집필·연구, 검토·협의, 편찬·삽화 등을 담당할 위원으로 1종도서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편찬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부설연구소, 특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은 이를 위원회로 본다.

○ 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집필·연구진을 구성,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성기준 : 해당 교과에 대한 학계의 전문가와 현장 교사 등으로 구성함.
 -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육 경력자
 -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현장 교사
 - 연구 경력 5년 이상의 연구원
 -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경험과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해당 교과의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 경험과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교육과정 및 교과 교육의 연구실적과 추진 능력자
 - 교과서 개발 의지 및 신념, 관리·조정 능력자
 - 교육부 해당 교과 지도 담당관(연구진 중 당연직)
- 집필·연구진 구성 : 각 10명 이내
- 기능 : 편찬 기본 방향 설정, 집필 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수정, 원고 집필, 검토·수정·보완 등

※ 집필·연구진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또는 추가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집필·연구 책임자는 집필·연구진과 긴밀한 협조하에 교육부 해당 교과 담당관과 편찬 과정별로 사전 및 사후 검토를 받아 교과용 도서가 편찬되도록 한다.

○ 집필·연구 과정에 현장 교사의 새로운 사고와 현장경험을 반영하도록 현장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표Ⅷ-27〉 교육부와 편찬 기관의 업무 분담

단계	세 부 추 진 업 무	업무부 담당 구분		비 고
		교육부	편찬기관	
계획 · 위탁 단계	1. 교육과정 고시 2.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3. 연도별 교과용도서 편찬 세부계획 수립 4. 1종도서 집필기준 및 집필상의 유의점 작성 5. 편찬 연구개발기관 선정·위탁 6.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회의 7.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제출 8. 연구개발 보조금 신청 9. 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 접수·검토·승인 10. 연구개발 보조금 교부	○ ○ ○ ○ ○ ○ ○ ○	 ○ ○	
연구 · 집필 단계	11. 도서별 연구진·협의진 협의회 12. 연구개발 기초 연구 13. 편찬방향, 집필세목 작성·제출 14. 편찬방향, 집필세목 접수·검토·심의 결정 15. 집필세목 수정·보완 16. 원 집필자 회의 17. 원고 집필 18. 원고본 검토·수정·보완 19. 사진·삽화 제작 20. 원고 작성 중간 협의 21. 원고·사진·삽화의 수정 보완 22. 원고본 작성, 제출	 ○ 	○ ○ ○ ○ ○ ○ ○ ○ ○ ○ ○	
심의 · 수정 단계	23. 1종도서 편찬 심의회 구성, 심의위원 위촉 24. 원고본심의 25. 개고, 개화 수정 26. 개고본 작성, 제출 27. 개고본 접수, 조판 의뢰 28. 현장 실험 및 검토 29. 현장검토 결과 반영 수정 보완 30. 수정본 작성 제출 31. 수정본 심의 32. 최종 정리, 결재본 제출	○ ○ ○ ○ ○ 	 ○ ○ ○ ○ ○	
생산 · 공급 단계	33. 편찬 결과 및 보조금 집행 결과 정산서 제출 34. 편찬 결과 및 보조금 집행 결과 정산서 제출 35. 결재본 접수·결재·생산 지시 36. 공급, 수령	 ○ ○ ○	○	
기간본 수정· 개편	37. 기간본 직권수정 요구 및 수정 38. 기간본 직권 개편 요구 및 개편	○ ○		

자료 : 교육부, 「2000년도 1종도서 편찬 추진 계획」p.322, 2000. 5.

5) 1종도서 집필 지침

교육부에서는 1종도서 개발자들에게 교과용 도서 집필을 위한 지침(기본 지침과 교과별 지침)을 제시하여 1종 교과용 도서가 교육과정과 교육부의 기본 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기본 지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집필·연구진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 및 교육부에서 제시한 집필상의 유의점 등에 의거 원고 집필 등 편찬 업무를 추진한다.

- 위원회는 원고본, 개고본 등을 교육부 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수정·보완을 실시한 후 현장 교사의 검토를 거친다. 이 경우 현장 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현장 교사의 검토를 통해 수정 요구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결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6) 1종도서 연구·개발 예산

교육부는 교육부가 위촉한 각 교과별 1종도서 연구·개발 위원회로 하여금 1종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 보조금을 다음에 제시된 산출 기준에 의해 교육부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1종도서 개발비용 산출 기준을 각 책별로 쪽수를 감안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기존에 비해 일부분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교과용 도서 내용 구성에 가장 중요한 원고(제재 선정과 체계화 등), 즉 집필 단가가 적으며, 또한 삽화료가 비현실적인 단가 라는 지적이 많다. 가령, 1종 도서의 삽화료가 원색(4·6배판) 3,700원이면 2종도서를 편찬하는 출판사에서는 100,000원 내외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사진 작품료이다.

특히, 교과용 도서를 연구 개발형으로 편찬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의 현실화가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어 있어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질 높은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향후 1종 교과용 도서 개발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Ⅷ-28〉 2000년도 교과용 도서 편찬 보조금 산출 기준 단가 (단위 : 원)

항 목	규 격	단위	단 가	산 출 기 준
원고료	200자 원고지	매	11,000	○ 중등 도서: 쪽당 원고지 매수 5.5배
게고료	200자 원고지	*	11,000	○ 쪽수의 20% 계상 (원고료 산출액×0.20)
삼화료	단색 4·6배판	*	27,000	○ 최소 필요수량 계상 (단가 × 매수)
	" 1/2	*	23,000	
	" 1/4	*	21,000	
	원색 4·6배판	*	37,000	
	" 1/2	*	30,000	
	" 1/4	*	26,000	
개화료	(삼화규격별)	*	(삼화규격별 단가동액)	○ 삼화물량의 25%만 계상 (삼화료 산출액 × 0.25)
판화료	단색 4·6배판	*	36,000	○ 최소 필요수량 계상 (단가 × 매수)
	원색 4·6배판	*	56,000	
사진작품료	단색 실사판	*	21,000	○ 최소 필요수량 계상 (단가 × 매수)
	단색 복사판	*	10,000	
	원색 실사판	*	27,000	
	원색 복사판	*	11,000	
설계제도료	4·6배판	*	32,000	○ 최소 필요수량 계상 (단가 × 매수)
	" 1/2	*	26,000	
	" 1/4	*	21,000	
경필료	4·6배판	*	11,000	○ 최소 필요수량 계상 (단가 × 매수)
표지도안료	4·6배판	책	500,000	○ 1책 1매 기준
약보정사료	4·6배판	매	30,000	○ 최소 필요수량 계상 (단가 × 약보 편수)
	" 1/2	*	25,000	
	" 1/4	*	20,000	
작곡료		편	50,000	○ 최소 필요수량 계상 (단가 × 편수)
작사료		편	50,000	○ 최소 필요수량 계상 (단가 × 편수)
편곡료		편	50,000	○ 최소 필요수량 계상 (단가 × 편수)
수정검토료		책	480,000	○ 1책 2인 기준, 1인당 240,000원
현장검토비		책	800,000	○ 1책 3인 기준
레이아웃구성비		책	200,000	
연구비		책	750,000	○ 연구수행하는데 필요경비
편찬추진비		책	1,800,000	○ 연구활동비
편집 및 연구	기관당 2책이상 편찬	책	800,000	○ 2책당 1명
보조원 인건비	기관당 1책 편찬	책	1,600,000	○ 1책당 1명
회의수당		책	2,100,000	○ 1회 1인 70,000원, 10인 3회 기준
심사본복사비		쪽	1,800	
일반사무비		책	400,000	
개사료		책	300,000	
편찬자료수집비		책	150,000	
국내여비		책	200,000	

자료 : 교육부, 전게서, p.324.

(3) 2종 교과용 도서 편찬

1) 2종도서의 편찬

2종도서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한다. 즉, 발행사와 일정한 약정을 한 개별 저작자가 교육과정과 2종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에 의거 교과별 도서를 저작한 후, 교육부장관이 실시 공고한 2종도서 검정에 출원하여 합격한 도서를 말한다. 2종도서는 ‘1종도서 외의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종도서는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2종도서의 검정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저작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출판사와 ‘2종도서 출판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원고를 집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정 심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검정합격 결정을 받는다. 2종도서의 검정기준은 교과목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2종도서는 제1차 교육과정 이후로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 대상에는 사회과 도서도 포함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은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업무 진행 주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기와 달리 검정 심사과정의 전문화, 교과용 도서의 질 개선을 위한 연차별 검정, 외형체제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 교과서 출판의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2) 편찬 추진 계획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2종 교과용 도서 편찬의 연도별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표Ⅷ-29>와 같다.²⁴⁾

<표Ⅷ-29>에 의하면, 2000년도에 중학교는 교과서와 지도서 25종을, 2001년에는 중·고등학교의 교과서 44종과 지도서 32종을, 2002년에는 중·고등학교의 교과서 51종과 지도서 35종을 편찬(검정)계획한 바 있다. 즉,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2종 교과서 편찬은 중등학교 교과서 수 187종을 발간하는 셈이다.

24)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개발 계획(유인물), 2001.

〈표Ⅷ-29〉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개발 계획

[illegible]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업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폭 위임되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며 신뢰로운 검정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지원으로 검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선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기초로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관리 체제의 틀을 설정하게 되었다.²⁵⁾

25) 교육부, 교과서 백서, 2000, pp. 122-154.

제6차 교육과정의 일괄 검정과 달리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2,3학년 교과서를 연차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즉, 제6차 교육과정 현재까지 검정 교과용 도서 개발시 중학교 1,2,3학년은 한 해에, 고등학교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은 다음 해에 동시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중학교1,2,3학년 교과용 도서와 고등학교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교과용 도서를 동시에 개발하려다 보니 집필 기간과 제작 기간 등이 부족하여 교과서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에 큰 장애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제7차 검정 교과용 도서 개발시에는 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필수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을 연차별로 검정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방침은 출판사나 집필자들도 바람직한 변화로 보고 있다.

연차별로 실시하는 교과서의 검정 제도는 교과서 원고 집필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 더욱이 철저한 검정 심사를 통해 교과서의 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연차별 검정은 집필자에게 보다 많은 집필 기간을 주어 교과용 도서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1학년 교과서는 합격되고 2학년 교과서가 불합격되거나, 1,2학년 교과서가 합격되고 3학년 교과서가 불합격될 경우 학습자의 학습에 연속성이 없어 학습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저작자들에게도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1학년에 합격한 교과용 도서는 2,3학년에 자동적으로 합격시켜 주거나, 1,2학년에 합격하여 사용되고 있는 교과용 도서라고 하더라도 3학년 교과서가 불합격 될 경우 1,2학년 교과서를 불합격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1학년에 합격한 이후에는 2,3학년 도서 개발을 소홀히 하거나, 이미 사용 중인 도서의 합격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제20조 ②항. 하나의 과목의 2종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2종교과서로서 부적합하거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저작자의 신청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 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뒤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도서의 합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2000.6.19 개정).

3)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

중학교 2종 교과용 도서의 검정 기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안을 작성하고 이를 교육부가 공청회와 심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고 1999년 8월에 최종 고시하였다. 고등학교의 2종도서의 검정기준은 교육부가 작성하고 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전문가 등이 검토하고 공청회와 심의회를 거쳐 2000년 6월에 고시하였다.²⁶⁾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의 검정 기준은 공통 기준과 교과 공통 기준 및 교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 기준은 법규범의 준수, 내용의 보편성 등, 교과용 도서가 갖추어야 할 필수 기본 조건이므로 심사 판정도 ‘있다 또는 없다’로 한다. 이 기준은 질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준수 여부만 판단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공통 기준의 어느 한 항목이라도 위반한 부적격 도서는 교과 기준에 따른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는 학계의 통설 및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표Ⅷ-30〉 교과서 심사 공통 기준

심사영역	심사관점	판정		비고
		있음	없음	
I. 헌법 정신과의 일치	1.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2. 특정 국가, 종교, 단체, 계층 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한 내용이 있는가?			
II. 교육기본법, 교육과정과의 일치	3.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가?			
III. 저작권 위배 여부	4. 타인의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표절 또는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			
IV. 내용의 보편 타당성	5. 학문상 오류나 정설화되지 아니한 저작자의 개인적인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가?			

〈표 Ⅷ-30〉에 제시된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공통 기준은 모든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평가해야 할 요소를 제시한 것이다. 각 교과서는 이 공통 기준을 토대로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서와 지도서의 검정 기준을 구성하였다.

26)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도서 검정 기준」, pp.2~6, (유인물), 2000. 6.

〈표Ⅷ-31〉 교과서 공통 기준

심사영역	심사관점	평점		
		A	B	C
I. 교육과정의 준수	1.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II. 내용선정 및 조직	2. 내용의 수준과 범위는 해당 학년 특성에 적절하고, 전후 학년과의 계열성을 고려하였는가?			
	3.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인 이론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			
	4. 특정 인물, 성, 지역, 상품 등을 부당하게 비방, 왜곡, 옹호, 우대하는 내용은 없는가?			
	5. 범교과 학습(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에너지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소비자교육, 통일교육, 한국문화정체성교육, 국제이해교육, 해양교육, 정보화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은 관련 단원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6. 학습량은 적절하며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III. 교수·학습 방법	7. 교과 교육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8. 교과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활용 방법이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9. 교과 교육의 목표-내용-방법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과 과제를 제시하였는가?			
IV. 표현·표기	10. 한글은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르고 있는가?			
V. 편집 및 의형체제	11. 판형, 쪽수, 색도 등 의형체제는 집필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12. 편집디자인이 참신하고, 지면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가?			
	13. 사진과 삽화 등은 서명하고, 내용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VI. 독창성	14. 참신한 내용을 선정하여 창의적으로 구성하였는가?			
	15. 교수·학습 과정과 활동이 독창적인가?			

〈표Ⅷ-32〉 교사용 지도서 공통 기준

심사영역	심사관점	평점		
		A	B	C
I. 교육과정·교과서 안내	1. 교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설명하고, 교육과정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있는가?			
	2. 교과에 적합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3. 교과서의 편찬 방향과 체제, 지도서의 내용 구성 및 활용, 연간 지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4.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활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II. 구성 체제	5. 총론, 각론, 부록 등을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는가?			
	6. 학습 내용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각 단원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7. 심화·보충 학습(또는 수준별 교수·학습) 등 학습 지도에 필요한 자료와 적절한 지도계획을 제시하였는가?			
III. 교수·학습 방법	8. 학습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9. 학습목표, 체제, 내용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는가?			
	10. 학습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과 일치하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였는가?			
IV. 자료의 활용과 안내	11. 교수·학습 과정과 교과교육연구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의 최신 참고 자료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가?			
	12. 단원내용과 관련된 멀티미디어 등 각종 참고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그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는가?			
V. 표현·표기	13. 한글을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는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르고 있는가?			
VI. 편집 체제	14. 편집디자인이 참신하고, 지면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가?			
VII. 독창성	15. 참신한 내용을 선정하여 독창적으로 구성하였는가?			

4)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①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기본 방향

교과용 도서 검정 업무는 양질의 도서를 선별해 내기 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검정과리위원회는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양질의 교과용 도서를 선별하여 기존 교과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는 합목적성, 검정 참여자의 이해관계나 편견 및 우연성 등을 초월하여 최선의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심의하는 공정성, 최소비용·최대효용 원칙을 설정하였다.

② 검정 업무 조직과 구성

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은 검정관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나누어 구성된다. 검정 관리위원회는 검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직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는 교사, 교수, 교육부 편수담당자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이 참여하는 연구위원과 검정위원으로 구성한다.

검정관리위원은 검정관리위원장이 임명하고, 연구위원과 검정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심의위원 위촉은 비공개로 하며, 그 인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이 검정 조직 구성원의 활동 기간은 심사 대상의 교과용 도서, 검정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가. 검정관리위원회

검정관리위원회는 검정 과정 전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검정 담당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나. 검정 심의 위원회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4 조의 2항에 근거를 둔다. 동 조항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 도서 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의회의 운영은 연구위원과 검정위원 및 간사가 담당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7항에 의해서 검정 심사를 위해 연구위원을 둔다.

“검정 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검정 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은 거정 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와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표Ⅷ-33〉 검정 관리위원회 구성

직 책		역 할
위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검정 업무 추진에 관한 제방 사항 총괄
부위원장	교과서연구본부장	· 총괄 업무 추진
위원	검정조정위원 ·	위원장의 업무 보조 · 운영 본부 개설 기획 및 사전 준비
	연구위원	· 검정 관련 사항 연구, 개발 · 검정위원, 연구위원의 추천, 활동 지원 · 교과서의 제반 문제점 검토
지원팀	팀장	· 행정 지원 총괄
	팀원	· 운영 본부 기본 계획 및 시행 · 검정 관련 사무용품 관리 및 구입 의뢰 · 행정 실무 담당 · 검정 업무 진행 지원 · 각종 공문서 및 서식 등 전산 업무 처리 · 합숙 심사시 출입자 통제 관리

(4) 교과서에 관한 연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한국2종교과서협회 등 3사가 공동 출연하여 1992년에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소는 그 동안 연구 사업을 위한 기반 구축에 힘쓰다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것은 1998년 1월 1일이었다.

한국교과서연구소의 설립은 우리 나라 교과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교과서의 질적 향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되어 참으로 의미있는 출범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설립한 관주도의 연구기관이 아니고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공동연구소라는 점에서 창립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²⁷⁾

어려운 산고를 거쳐 뒤늦게 출범한 한국교과서연구소가 앞으로 우리 나라 교과서의 질적 향상과 교과서 출판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교과서 연구소는 ‘한국 교과서 연구원’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가 다시 목적 사

27) 함수곤, 교과서연구소의 역할과 발전 전망, 교과서 연구 31호,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8.

업의 변경 등으로 정관이 바뀌면서 2000년 9월 14일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그 동안 연구 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Ⅷ-34〉 연도별 연구과제 및 책임 연구자

연도	연구과제	책임연구자
'93	• 교과서 어휘분석 프로그램 개발 (중학교 영어·한문)	박대수 (레이시스템 대표)
'94	• 교과서 어휘분석 프로그램 개발 (고등학교 공통영어, 영어 I·II, 영어독해, 영어회화, 실무영어, 한문 I)	*
'96	• 교과서 어휘분석 프로그램 개발 (초등학교 영어) •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함수곤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97	• 교과서 대역제 실시 대비를 위한 기초 연구	함수곤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교과서 외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허 강 (한국교육과정· 교과서연구회 사무국장)
	• 전자교과서 개발 방안 연구(I)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98	• 교과서 외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백명진 (서울대학교 교수)
	• 교과용도서 가격 결정제도 구체화 방안 연구	김태웅 (성균관대학교 교수)
	• 한국교과서목록 작성 및 그 수집 방안에 관한 연구	최영복 (한국교육과정· 교과서연구회 회장)
	•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수준별 교과서와 교과용도서 개발방안 연구	이용숙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특수학교 교과용도서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김병학 (대구대학교 교수)
	• 교과용도서의 저작권 보상금 기준(안) 마련 및 효율적 관리 체제 구축 방안 연구	이상정 (경희대학교 교수)
	• 전자교과서 개발 방안 연구(II)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용도서의 체제 모형 개발 연 구	이용환 (서울대학교 교수)
	• 교과용도서 공급제도 구체화 방안 연구	김태웅 (성균관대학교 교수)
	• 교과서 본문용지 개선에 관한 연구	이학래 (서울대학교 교수)

연도	연구과제	책임연구자
'99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교과용도서 검정 제제 개선 연구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장)
	• 교과서 띄어쓰기 용례조사 (5·6차 1종교과서)	이승구 (대한교과서(주) 고문)
	• 2종교과용도서 과목별 적정 합격 종수에 대한 연구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장)
	• 교과서책서 개발	박도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 교과서의 의적 제제 및 편집디자인 현상 국제 비교 연구	허 강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사무국장)
2000	• 교과서 주문방법 개선 방안 연구	손병길 (한국교육학술정보원부장)
	• 전자교과서 설계 지침 및 모형 개발 연구	여운방 (사이버시스템개발원장)
	• 교육부 저작 교과용도서 발행권 부여 방안 연구	박도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 한국편수사 연구(1)	허 강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사무국장)
	• 교과서 개발 관련 라이브러리 설립 운영 연구	김광동 (승실대학교 교수)
	• 초등교과서 검정화(2종화) 방안 연구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장)

4. 결 론

지금까지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문에서 다루었듯이 제7차 교육과정기는 21세기로 진입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점에서 단행한 개정으로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연원은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교육개혁방안에 두고 있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교육과정 개선 원칙은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정보화 세계화 교육 강화,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이었다.

이 교육과정 개선의 원칙아래 교육개혁위원회 내에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은 통상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따라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 연구, 국가 사회의 요구 조사, 교육과정의 국제 비교연구, 학생 학부모의 요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대의 변화 수용과 교육과정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 기본 골격이 정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개혁위원회내의 교육과정 특별위원회에서 짜놓은 기본 골격에 따라 개정 작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교육과정 고시와 함께 불어닥친 IMF 사태는 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 후속 지원 대책 추진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면서 교원 및 교육 시설 대책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은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과정으로 그에 적합한 교육을 학교 교육에 요구하기 때문에 후속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고 해서 결코 적용을 연기하거나 유보할 교육과정은 아니다.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정신에 맞게 점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갖추어 나가는 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을 종래의 교육과정과 대비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중심의 교육 과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배적인 교육과정의 주축을 공급자 측에서부터 수요자 측으로 바꾸는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각급 학교 교육에서 교육 내용을 선택하는 일은 교육 수요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

가, 교육청, 학교 혹은 교사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되었지만, 학습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복지적 기능에 대한 인식은 필연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위와 같이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내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체제설정,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재량활동의 신설,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도입,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된 수준의 조정,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컴퓨터 교육 강화 등 초·중등 교육과정 대책 방안을 내놓았다.

이 교육과정 개혁 기본 골격은 교육부로부터 교육과정 개선 기초 연구를 위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여 통상적인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따라 정당화 과정을 거쳐 제7차 교육과정으로 개정 고시되게 되었다.

따라서 개정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의 총론은 세부적으로는 연구의 진행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있었지만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내에 설치된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기초한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하겠다.

제7차 교육과정은 고시될 무렵에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들이 없었으나 적용이 가까워질수록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이와 비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과거 교육과정 개정 때와는 다르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홍보자료 발간 장학자료 발간,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실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2001. 7. 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7.20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부터 학급정원을 35명으로 조정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2003학년도부터 학급정원을 35명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교원 수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정보화 사회 도래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과정사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따를 것 같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 시행에 교육여건이 미비하다고 해서 시행을 유보하거나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 재고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제7차 교육과정은 이미 초·중학교에서는 적용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교과용 도서도 연도별 편찬 계획에 따라 개발되었으므로 이러한 교육과정 적용의 중단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 지금은 교육여건이 미흡하지만 제7차 교육

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교육과 관련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다.

(2)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 도서 편찬과 관련된 제도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획기적으로 변화한 것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5차, 제6차 교육과정기의 1종 교과서이던 중·고등학교 사회가 2종 교과용 도서로 전환하게 되었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 도서의 발행권 부여가 2002년부터 적용되는 교과서부터 6개 출판사로 확대되었다.

셋째, 교육인적자원부는 제6차 교육과정기의 2종 교과용 도서검정 실시 방법인 중·고등학교별로 학년 구분없이 동시 실시하던 검정 방법을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는 중학교는 1, 2, 3학년 학년별로, 고등학교는 필수과목과 일반선택과목, 그리고 심화선택과목별로 검정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교과용 도서검정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폭 위임하였다.

넷째, 교과서 공급 제도를 개선하여 재단법인 한국교과서 연구재단이 2001학년도 교과서 공급시부터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지방 공급 조직을 흡수하여 교과용 도서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고등학교에 인정도서 심의회 없는 인정도서 목록을 단위 학교에 제시하여 학교에서 정해진 심의 절차를 거친 자유발행도서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의 승인으로 단위 학교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3) 편수행정의 조직 등

편수 행정의 핵심 요원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는 편수관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하겠으며, 또 본래의 편수 업무가 기능할 수 있도록 편수 행정 조직이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개선책은 우리 나라 교육 내용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 개혁 위원회,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Ⅱ)」, 1996.
 —————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1995.
- 교육과정 · 교과서연구회 편, 「인물로 본 편수사」,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 교육부, 「고등 학교 2종 도서 검정 기준(2000년도 검정 대상)」, 2000.
 —————, 「고등 학교 2종 도서 검정 기준(2001년도 검정 대상)」, 2001.
 —————, 「고등 학교 교육 과정 해설(I)」, 2000.
 —————, 「교과서 백서」, 2000.
 —————, 「교육 과정 연구 학교 운영 자료」, 2000.
 —————,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고등 학교)」, 1999.
 —————,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중학교)」, 1999.
 —————, 「2000년도 1종도서 편찬 추진 계획」, 2000.
 —————, 「2001년도 1종도서 편찬 추진 계획」, 2001.
 —————, 「1998년도 초등 학교 1종도서 편찬 추진 계획」, 1998.
 —————, 「1999년도 초 · 중 · 고등학교 1종도서 편찬 추진 계획」, 1999.
 —————, 「제7차 교육 과정의 개요」, 2000.
 —————,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I)」, 1999.
 —————, 「초등 학교 교과용 도서 실험 연구 학교 운영 자료(Ⅲ)」, 2000.
 —————, 「초등 학교 교과용 도서 실험 연구 학교 운영 자료(V)」, 2001.
 —————, 「초등 학교 교육 과정 해설(I)」, 1998.
 —————, 「편수 업무 편람」, 1995.
- 김재춘, 「수준별 교육 과정의 이해」, 교육 과학사, 2000.
- 이현일, 「교과용도서 공급제도 개선의 의의」, 교과서연구 35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교육적 인간상 및 교육 목표 연구」, 1997.
 —————, 「수준별 교육 과정안」, 1996.
 —————, 「수준별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1997.
 —————, 「초 · 중등 학교 교육 과정 체제 구조 안」, 1996.
 —————, 「초 · 중등 학교 재량 활동 교육 과정 편성 · 운영」, 1997
- 함수곤, 교과서연구소의 역할과 발전, 교과서연구 31호,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8.

•

7

,

.

,

.

, 1

, 2

, 3

, 4

, 5

, 6 21

.

,

7

.

(

)

,

(

,

,

)가

가

.

.

1

7

가

,

가

.

.

1.

(1)

가

,

가

.

가

가

,

,

.

.

.

,

“ ” 가 .

“ ” ,
가 .
()

.
 .
 , 가 .

,
5 , 10
 . , 1958 .

.
가
가 6 · 25
가 ,

,
 ,
 , “ ” ,
 , 가 .

. 가 ‘ 가 ’가
 , 가 · 가 , 가
 . “ ” .

.
 .

6 · 25
 .
 , “ ” ,
 .
 , 가
 ,

가
 「 , 「
 , , 「
 1 ,
 , ,
 , 가
 1 ,

(3) 2

2
 가 2
 .
 ,
 .
 ,
 2
 ‘ , ‘ ,
 , ,
 , ,
 , ,
 , ,

2 1 4 · 6
5 · 7 () , .
() , () .
1 32 , 2 28 , 3 16 (24) , 4
14 (20) 1
. , 1
‘ , ’ 4
, ‘ ’ 3 , 2
2 1963 2 15
. ‘
’(1950. 4. 29 1967. 4 16) ‘ ’(1967. 4. 17 1977. 8.
21) .
2 가
, 가
, , ,
. ,
‘ , ’
, 가
.

(4) 3

3 1970
, 1960
, 3 1 , 2 가 ‘
, .

3 2 .
2 ,
.
가 .
3 ,
,
.
,
,
가 ,
.
3 가
2 3 가 .
가 ‘ ,
, ‘ ,
, 가
.
, 가 1977 ‘ , 1978
,
(), ,
(‘ , 4 , 1978. 2. 9) 1
.
,
(32).
1979
(27)
3 1 2
1 ‘ , 2 ‘

15 88- 102
 3 140- 160 .
 3 23- 24 3
 가 . 가
 .

1 2
 . , . 1
 , , , ,
 2 .
 ‘ 3 5
 , ‘ 10 ,
 .
 (1, 2) 가 ,
 .
 가
 , , , . , , , , ,
 가 1 2 .
 .

(6) 5

5 ,
 ,
 .
 .
 .
 .

.
 ‘ , ,
 1, 2 8 1 6 , 2
 5 ,
 가 ‘ . 가 ’ .

5 4
 (1) (2)
 , 가 .
 5 .
 1 1 .
 2 ,
 , , 1 ,
 , 2 2 가,
 ()가 .
 , 가 ,
 .

(7) 6

6 , ,
 ,
 , 6 ‘
 , 가

6

가,

,

‘ , ‘

가

가

가

(10 - 70)

,

가

가

가

' , ' , '

• , ,

가

,

· 가

가

‘ 1 ’

6

, 가

가

가가

가

(, , ,)

7

7 . 가

5 , 6 1 . 가 2

가 가 1 가 2002

6

6

2

7

1, 2, 3

가

2001

2.

(史實) ,

7

,
 .
 ,
 , , , , ,
 ,
 ,
 (,)
 . 7 ‘21 .
 ,
 .
 , . 5 가
 가?’ ‘ 가 가?’ . , . 가
 가 .
 , ,
 6 . 6 가
 , 1 5 ‘ 가
 , .
 , , , , , 가
 , 5 ‘ , 1
 .
 가 , ,
 . 가
 , ,
 ,
 , ‘ ,
 (1950- 1967) ‘ (1967- 1977) ‘
 , (1977-) ,
 , ‘ ,
 , 3 가 2

*

1

2

.
 .
 . , , ,
 .
 . .
 .
 . .
 . ,
 .
 .

* Γ	Ј	
о	()
о	()
о	()
о	()

*

가 . 가 () (冊化) (e-book) (main teaching materials) 가? () ‘編(compiling)’ (editorial arrangement) (text) 가 . 가 1) (讀本) 가 ‘ , - ()

* 1) ‘ , ’ . (‘ , 2 1). () (2 2).

, , , () .
 ,
 가 -
 4
 , 4 .
 4
 1.
 2. (.)
 3.
 4. .
 4
 .
 가 .
 , 4 1 , 2
 (.
) , 3 , 4
 .
 ,
 .
 ,
 .
 ,
 49 ()5) . ,
 ()
 , 48
 .
 ,
 가 .
 , .

5)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tatistics Relating to Book Production and Periodicals, 1964.

가
가
가

()

가

2.

가

가

가

(視線)

.6)

(' , ' ,)

가

가

1956 1

(國務院)

가

가

(歐文)

(an em)

(字尾)

(端部)

가 (,

script type)

가

(back)

()

가

(Oxford rule)

가 .7)

가

6) 가 ()

(文字列)

(歐文)

7) , 「 . 」(: , 1990), p.290.

「」 () , ,
「」 , 「
(Hart's rule)」 .8) 「」 (究案)
(Horace Hart, 1840 1916)
「」 1893 (first edition)
 , 「」
 10 1904 15 ,
 .9)
 , 「」 , 1983
 39 (rules for setting
English), (spellings) , (rules for setting foreign
languages), (bibliography), (appendix), (index)
 , 「」 「」
 . 「
」 「」
가
「」 , 「」 ,
 ,
 「」 37 (1967) 16 「
 , .
 10)
 (.) (,
 .)
 ⑩
가 . ,
「」 , 「」 ,
 . , 「」 , 「」 ,

10) 韓國出版學會 編,「出版實務便覽」(: 景仁文化社, 1976), p.251.
徐洙玉,「編輯・印刷用語 解說」(: 汎友社, 1983), p.144.

(blank page)

(dedication) (epigraph) (editorial method) (abstract)

(introduction) 1 ⑩ 1 () ⑪ (section) (subsection)

⑫ ⑬ () ⑭

‘ , ‘ ,
 , 가 , ‘ ,
 (house style) , 9
 . ‘ , (⑮)

‘
 (究案)

‘APA (APA Style)’¹⁵⁾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PA ,

(publication manual) .¹⁶⁾

,
 ,¹⁷⁾

,
 , ‘ , ‘ ,
 , ‘ , ‘ , ‘ , 가

,
 ,
 , 가
 가

(2)

15)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83.

16) , 「APA 」(: , 1997), p.11.

17) , 「 」(: 中央適性出版社, 1993), p.1 .

— (韓紙)

(韓裝本)

가 , 가 (古本) . (‘ ,) 1959 . 가 ,¹⁸⁾ 가 . (鉛活字) (1883 1910) ‘ , () (,) . (線裝本) () , (, 가) ‘ , (1883) , () . (one generation ; 30) () 1 ‘ , 가 가 가 , ‘ , (背面) ‘ (五針線裝本)’ (四針)’ .¹⁹⁾ (張) (卷子本) (簇子) (帖裝) (旋風裝) (胡蝶裝) (包背裝) (線裝) : (折帖), (帖本), (經榻裝) . (卷子本) : (旋風葉) .

18) 安春根, 「韓國古書評釋」(: 同和出版公社, 1986), p.31.

19) 尹炳泰, 「朝鮮古典籍 形態」, 「韓國書誌學論集」(: 民昌文化社, 1999), pp.4 6 .

가 ()

가 17 ()

가 ()

(, 1976)²⁴⁾

()

(, 1983)²⁵⁾

(, ,)

가 ()

() (15)

()

() , ()

, 1980 (‘前扉’ :) 가

()

(click)’ 가

(閱讀) 가

가 e-book

가 , e-book

(contents) 가

, 2 (竹簡)

24) 韓國出版學會 編, , pp.37-49 .

25) 徐洙玉 , 「編輯・印刷用語 解説」, p.144.

26) , ‘ , 「 , 2001.5.), pp.204-205 .」: 2001

1.

가
가 , 「 」 「 」 ()
「 」 「 」 「 」
(字源) (字解)
(字本)
(glossary)

27)

(1) (generality)

(general concept)
(independent concept) 가
(定說)

(2) (correctness)

()
,

(3) (originality)

27) 洪雄善, '教科書 役割 機能', 「教科書構造 改善 研究」附錄(: 韓國教育開發院, 1979), p.3.

(4) (interest)

(inside title page)

(5) (orderliness)

2.

(1)

가 . 1895 8
「 」 15 (1895 1910)
가 (私學) 가 (洋紙)
(新式鉛活字) , 가 (縱組)

, (算式組版)가 가
 , 가 1900
 「算術教科書」(上·下) .²⁸⁾ 가
 . 가
 「 (, 1902) 「 (1908), 「
 (1908), 「 (1908), 「 (1909), 「 (1909), 「 (1909),
 「 (1908), 「 (1910) .²⁹⁾
 , 가
 (歐文字) 가 ,
 , 가
 , 가 (着
 視)
 ,
 ‘ ,
 (終) ... (始): (背) ()
 ‘가
 (始)... (終): ()
 ,
 , 가 (N
), 가 (Z) .
 가 1895 1910
 가 가 , 8·15
 , (1910) ()
 가
 , ‘ , ‘ ,
 (造紙局)

(2)

28) 李相高 譯, 4 (1900) 7 19 李圭桓 序, ()· , 上·142 , 下·
 278 . (上野清)가 「近世算術」 .

29) 李鍾國, 「大韓教科書史: 1948 1998」(: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98), p.744.

(1895 1910), (1910 1945), (1945 1948),
(1948) 5

1)

(1895 1910) ()
가
(16 , 1908.8.28.)

, ,
, 2
, , ,
()
() 4

· 「國民小學讀本」(, 1895) ()
()
· 「新訂尋常小學」(, 1896) ()
()
() 가

· 「倫理學教科書·上編」(, 1906) ()
() 1 2
1 2
· 「中等修身教科書」(, 1909) ()
1 2 (1 2 3)

가

· 「實利農方新編」(, , 1909) (),

, 가
, () 가
, 가
, 가
, 가
, 가
, ‘ 가 ’ 가
, ‘ ’ ,

2)

(1910 1945) ,
, (版式) 200
, (背面)
()
(發布) (勅語), (詔書) 가
가 , 가

· 「實業新修身書」(大瀨甚太郎 , 株式會社 東京開成館 , 1993)* ()· ,
*
(1890.10.13.) (1908.10.13.) (1924.11.10.)

· 「中等教育 公民教科書(全)」(, 1942) ()· ,

(天壤無窮ノ神勅) (御誓文)
 (3)
 . 「初等修身(第五學年)」(, 1943) () . ,
 (, 1911.12.24.)
 (宣戰) (1941.12.8.)
 , . ‘ ,
 , ‘ ,
 . ,
 ‘ ,
 . 「 ’ ‘ . ,
 , 가
 .

. 「普通學校 朝鮮語讀本(卷六)」(, 1924) () . ,
 (3)
 . 「農業教科書」(, 1943) () . ,

가
 .
 , - .
 , .
 , ‘ , ,
 .
 , ,
 .

3)

(1945.8. 1948.8.)
 . 가 , 가 .
 가 . ,
 가 ,

가

「 (, 1945) (), 가
 (,)
 「 ()」(, ,
 , 1945) , , 가
 () (3)
 「 ()」(, ,
 , 1946) , , 가
 ()

가

‘ 30) 가 ,
 가 가
 가
 , ,
 , 가
 , ‘ , ‘ ,
 .

4)

(1948.8.15.) 7
 , () 가
 .
 , 5 6 , .

30) ‘ , . 1946
 7 10 , ‘ ,
 , (), , 4
 (1947.1.10.) 가
 ; 李鍾國, ‘ ,
 」, pp.195 196 .

) .
 , 1 (1954.4.
 1963.2.) () ,
 , 1950 가?
 10
 10 4 .

(a) 1950

·「 1」(, , 1950)³³⁾ .
 , (,) ()

·「 6- 1」(, , 1951) .
 () () (4)
 ·「 2- 1」(, , 1955) . ,
 () (‘ , ,) ()
) (3 . ,)
 ·「 4- 1」(, , 1959) . ,
 () () (4
) () (4 ‘ ’)

·「 3」(3 , , 1952)
 ()

·「 1- 1」(, , 1953) . ,
 (2) () ()

·「 」(, , 1954) . ,

33) 「 」 , 1950
 . , 150g/m² () , 80g/m² () ,
 5 · 10 (1948.5.10.)
 (轉用) . , ‘ ,
 20 () ,
 ; 李鍾國, ‘ 1’ ‘編纂發行
 考察’, 韓國出版學會 編, 「’85出版學研究」(: 汎友社, 1985), p.74 .

() ()

()

. 「 (, , 1957) . ,
(2) () ()
(.)

. 「 . 1 (, , 1953) .
,
(2) (‘ 1’ ,)

. 「 가 (. , , 1954) . ,
() ()
(.) (3
,)

. 「 (, , 1955) . ,
(2) () () ()
)

. 「 () (, , 1959) .
(2) () (, 1) ()
() () ()

, 1950 .

4 8 , (「 6-1」) ,
,
6·25 가
‘ ’() ‘ , . ,
.

1950 가 .
,
, . 2 , ()
가 .
, 가 .
, . 가 .

34)

1954

, ‘ , 가 .

(b) 1960

. 「 6-1」(. , , 1961) . ,
() (,) ()
) (3)

. 「 6-2」(. , , 1963) . ,
() () ()
(3)

. 「 5-2」(. , , 1963) . ,
() () (3)

. 「 5-1」(. , , 1969), . ,
() () (,
) (3)

. 「 . 1」(, , 1960) . ,
(3) () ()

. 「 1」(5 , , 1965) .
() (, 2 :) (, 1) (, 2) (, 2 :
) (1, 2, 3) (, 2 :
.)

. 「 1」(, , 1965) . ,
(3) ()
()

. 「 1」(4 , , 1969) .
(3) () (,) (, 1) (, 1
)
(1 4) ()

. 「 1」(1 , , 1960) . ,
(3) () ()

. 「 1(, , 1965) .
(3) () () ()
) () () ()
)

. 「 1(, , 1967) .
(2) (, 1) (, 1) (, 2) ()
) () (,) (folding
)

. 「 1(, , 1969) .
(3) (, 1) (, 2) ()
(1) () (, 1)
) () (, 1)

, 1960 . 1950 가 4
8 , 1960 6 ()
6-2, 5-2) 14 () .
1960 1 (1954.4. 1963.2.) 2 (1963.2. 1973.2.)가
가
. 1960 .
가 .
, ‘ ’(1955.10.6.) ‘ ’(1960.11.1.)
가
, ‘ , ‘ , 가 가 .
, 가 가 , .
. .
, ‘ , 3 .
, .
가 .

(C) 1970

. 「 6- 11(. , , 1970) . ,
() () ()
() (,) (3
)

. 「 5- 11(. , , 1970), .
() ()

(3)
. 「 6-2 」(. , , 1975) .
() (,) () 6 2
(4)
. 「 6 」(. , , 1979) .
() (,) (1 ,)
() () ()
(4)

. 「 - 」(. , , 1970) .
(3) (, 1) () (, 1)
() (, 1)
. 「 3-2 」(. , , 1975) .
(3) (, 1) () (,)
(, 2) () ()
(1. , 2.) (, 1)

. 「 」(2 , , 1975) . ,
() (1) (,) (,)
() (, ,) (1
) ()
(folding)
. 「 2 」(. , , 1979) .
() (, :) () ()
,) (, 2) () ()
.)
(, :)

. 「 」(, , 1970) .
(3) (, 1 : 가) ()
(, 2) (, 1) ()
[(1) (1 10)]
() ()
. 「 」(3 , , 1975) .

(2) (, 1) (, 1) ()
(1) (, 1))
) . 「 1 (, 1976) .
() (, 1 :) ()
(, 1) (, 1) ()
(,) (, 1 :)
. 「 . 1(. , , ,
1979), .
(2) (, 1) () (,)
(, 2) () (1
) (1. 8)
(.) (, 1)
, 1970 . 1960
6 , 1970 8 가 .
12 , 1960 2 가
. 가 1960 .
1970 2 (1963.2. 1973.2.) 3 (1973.2. 1981.12.)
‘
, 가 ‘ ’(1968.12.5.) (1970)
. ,
. 가
1970 . 가 .
, 1970 4 . ‘
, .
, , 1970 4 가 .
, . 1 () .
, 1979 . 1 . ()
) .
, 1970 . . (paper back
) () .
, 가 .

(D) 1980

. 「 5-2」(. , , 1980) .
() (,) (,) ()
() () ()
(,) (4)

. 「 6-2」(. , , 1985) .
() (,) ()
() () (,)
() (4)

. 「 4-1」(. , , 1987) .
() (,) ()
() () (,)
() (4)

. 「 5-2」(. , , 1989) .
() (,) ()
() () (,)
() (4)

. 「 1()」(. , , 1981)
.
() (, 1) () (, 1
) (, 1) () (1
)
(.) (, 1)

. 「 1」(. , , 1985)
.
() (, 1) () (,)
(, 2) () (1
)
(.) (, 1)

. 「 2」(. , , 1985)
.
() (, 1) () (, 2)
() (1, 2, 1, 2, 3, 4)
(.) (, 1)

. 「 ()」(. , 1 , , 1989) .
(3) (, 2 :) () (, 2) (, 2) () {1

() } (1.
, 2) (.) (.)

.「 3」(. , , 1981) .

(2) (, 1) (,) ()
(,) (, 2) () ()
) (, 1)

.「 」(. , , , 1985) .

(2) (, 1) (,) ()
(,) (, 2) ()
() ()
.) (, 1)

.「 」(3 , () , 1985) .

() (, 1) (,) ()
(()
(가 3) ()
) (, 1 :)

.「 」(. , , , 1989)

.
() (, 1) () (,)
(, 2) () ()
) ()
(.) (, 1)

, 1980 .

1970 .

1980 4 (1981.12. 1987.6.) 5 (1987.6. 1992.6.)

. , 1977 8 22 . ‘
’(8660) ‘ ,

. ,
.35) ,
, 6

35) 「 , . . 1 「 1
」 .

.「 ()」(, , , 1990)

.
 () (, 1) () (,)
 (, 2) () [(1, 2,
 ()]
 , () ()
 .)

.「 1」(, , , 1995) .

() (,) (,) (,)
 () [()
)]
 ()
 .) ()

.「 2」(7 , () , 1997) .
 (,) (, :) (, ,)
 (, 2) (, 2 1) ()
 ()
 () ()

.「 1」(11 , , 2001) .
 () (, ,) (,) ()
) (1
) ()

()
 .「 」(3 , () , 2001) .
 () (, :) (,)
 (가)
 ()
 (, :)

.「 . 」(, , , 1990)
 .
 (3) (, 1) () (,)
 (, 2) () ()
) ()
 (.) (, 1)

.「 () (, : 가) () (,) () (1 (1 12) () ()」
 .「 () (, :) (, ,) (,) : () () { (,) (,) } (1 6) () (, :) 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ntents() (가) (,)
 , 1990 2000 . ,
 5 (1987.6. 1992.6.) 6 (1992.6. 1997.12.)
 , 7 (1998.1.)
 1992- 13 , 1992.8.29.) 가 . ,
 ,
 가 (1992- 13) (1995.1.19.) . ,
 '90 ,
 ,
 7 ,
 , 가 ,
 , ,

가 . , . 가 , 가 , 가 . , 가 . 1895 4 . , 가 . , () ; () ‘ , , , . (.) 가 1 , 가 . () 가 , ‘ , . () , 1 . () . () (2000) , . () (扉,) (edition) . . () , (, . . , .) (2) . () , 가 . () . ()

, 「APA 」, : , 1997.
 大韓出版文化協會·韓國2種教科書協會, 「教科書改善研究」(教科書改善 綜合報告),
 : 大韓出版文化協會·韓國2種教科書協會, 1981.
 ·丁奇洙 譯, 「朝鮮書誌學序論—西洋人 韓國文化」, : 探究堂, 1989.
 , 「1 」(1984, .), : , 1984.

- , 「1」(1990, .), : , 1990.
- , 「」(1), : , 1950.2.
- , 「. 」, : , 1990.
- . . , 「教科書體裁 研究」(教科書改善 研究報告書), : 社團法人 韓國2種教科書協會, 1991.
- 徐洙玉, 「編輯·印刷用語 解說」, : 汎友社, 1983.
- 安春根, 「韓國古書評釋」, : 同和出版公社, 1986.
- 安春根, 「韓國書誌學論考」, : 廣文書館, 1979.
- , 「韓國 序跋」, : , 1993.
- 尹炳泰, 「朝鮮 古典籍 形態」, 「韓國書誌學論集」, : 民昌文化社, 1999.
- 李鍾國, 「大韓教科書史: 1948 - 1998」, :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98.
- , 「」, 「」(2001
-), : , 2001.5.
- 李鍾國, 「」, :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91.
- 李鍾國, 「」, : , 2001.
- 李鍾國, 「韓國 教科書編纂政策 適用過程 研究—」, 社團法人 韓國出版學會 編, 「'98出版學研究」, : 汎友社, 1998.
- 李鍾國, 「韓國 近代 印刷出版文化 研究—新書籍 印刷出版認識」, 社團法人 韓國出版學會 編, 「印刷出版文化 起源 發達 研究論文集」, 清州: 清州古印刷博物館, 1996.
- 李鍾雲, 「—版面編輯 校正」, : 汎友社, 1991.
- , 「教科用圖書關聯法規集」, : , 1992.
- , 「文章 理論 論文作成」, : , 1995.
- , 「教科書開發 原理」, : , 1982.
- , 「」, : 中央適性出版社, 1993.
- 韓國出版學會 編, 「出版實務便覽」, : 景仁文化社, 1976.
- 許江, 「教科書 外的 體制改善 研究」(研究報告書 97-2), : 財團法人 韓國教科書研究所, 1997.
- 洪雄善, 「教科書 役割 機能」, 「教科書構造 改善 研究」(附錄), : 韓國教育開發院, 1979.
- Berghahn Books, *House Style Sheet—A Guide for Authors and Editors*, Oxford: Berghahn Books, 2000. (Berghahn@aol.com)
- Kate L.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fifth edi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Oxford University Press(ed.), *Hart's Rules for Compositors and Readers at the University Press, Oxford* (Thirty-ninth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Oxford University Press(ed.), *The Oxford Dictionary for Writers and Edito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83.
-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tatistics Relating to Book Production and Periodicals, 1964.

•

1.

1) 1958 9 30 “ ” , 10 20

•

(1)

()

24

•

1

1

(異音, allophone)

(主音, principal member)

•

“ㅏ, ㅓ, ㅗ”, (鼻音)

“ㅛ, ㅜ, ㅝ”, (流音)

“근”

•

, (美語)가

•

•

(2)

()

a, ㅏ · ə, ㅓ · ʌ(ə) ㅗ · o, ㅛ · u ㅜ · i(l) ㅝ · æ ㅞ · e() ㅟ · w ㅠ · ㅡ(ㅢ ㅣ ㅤ ㅥ) · j(ㅦ ㅧ ㅨ ㅩ ㅪ ㅫ)

p, ㅦ · b, ㅧ · t ㅨ · d ㅩ · k ㅪ · g ㅫ · s ㅬ · h ㅭ · m ㅰ · n ㅱ · ㄹ · l, ㅲ · ㅳ · ㅴ · ㅵ · ㅶ · ㅷ · ㅸ · ㅹ · ㅺ · ㅻ · ㅼ · ㅽ · ㅾ · ㅿ · ㅿ · ㅿ

1) 1 (pp. 2 3, , 1959. 9. 15 ,)

-

1

-

가

가

가

•

“ ”

•

1

(全)

1 · 2

,

1

•

(3)

(4)

(p, t, k, b, d, g) “ ” ,
 , (流音) “ ” , “ ”
 f, v, , ð, s, z r가 “ ”
 m, n, “ ”
 I “ ” , 르르
 ʃ()가 “ , , , ”
 tʃ(), dʒ()가 ʃ, ʒ

(5)

ʒ가 “ ”
 tʃ() dʒ()가 ʃ, ʒ
 (o) ɔ
 (p, t, k, b, d, g) (短母音)
 b, d, g, t “ ” [k p] , [buk]
 , [bæt] , [eg] , (,) “ ’
 : [ki:p] , [meik]
 wɔ wo ‘ ’ , wa ‘ ’
 e 가 ə ‘ ’
 z 가 ts ‘ㅈ’

2.

,
 ,²⁾
 1956 1
 “ ” 1958 9 30
 1958 10 20
 가
 700 1959
 2,700 ()

[]

1 ()
 []
 []
 []
 ()
 ()
 ()
 ()
 ()
 ()

2) 2 (pp. 1 6,)
 - 2 -

‘ 1 ’
 3,000

2
 , , 가

()
()

2 ()

()
()
()
()
()
()

1. 24 .
2. 1 (音韻) 1 .
3. “ㅂ, ㅅ, ㅈ”, “ㅁ, ㄴ, ㅇ”, “ㄱ” .
4. , 가 .
5. 가 , , .
6. Webster's Geographical Dictionary (1955) .
7. Webster's (7) .
8. , , .
9. , , , (.) , , , “ ” .

10. 8 . 9 , 9 7
2 () 가

ā = ()가 ()
ǎ = ()가 ()
ä = ()가 () ()
à = () ()가 ()

è = () 가 ()
 ě+r = ()가 ()
 ô = ()가 ()
 ō = ()가 ()
 ōō = ()가 ()
 ū = ()가 ()
 ů = ()가 () ()
 Haw aii

11. ,
12. Webster 가 ,
13. Webster Nantes(nǎnts; *Fr.* nǎnt) *Fr.*
14. Webster Ghazze. see GAZA. 가 ,
15. land St. ,
16. Webster
17. ,
 Haw aii(hàw iè) = () ()
 Tennessee(těn ěs ě) = () ()
18. () (), () , 黃河 泰山, 大島
 河, 山, 島
 () 黃河
 泰山
 大島
 楊子江, 海南島
 () 楊子江
 海南島
 十和田湖
19. 1958 1959 (1
) 1959 8 (2
) 2 1
 1 2
 , ,

3.

(1959 2)

(1) 3)

. (正字法)

가

(2)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ㅞ
a ya eo yeo o yo u yu eu i ae

ㅟ ㅠ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e ye yae oe wae we wi eui wa weo

ㄱ.

ㅍ ㅂ ㅃ ㅌ ㄷ ㄸ ㅋ ㆁ ㆁ
p b bb t d dd k g gg

ㄴ.

ㅅ ㅆ ㅎ
s ss h

ㅁ.

ㅂ ㄴ ㅇ
m n jg

ㄹ.

ㅈ ㅊ ㅊ
ch j jj

ㅇ.

ㄹ
r, l

ㄱ.

r.

l

()

3) 3 (pp. 7 10, , 1960. 11. 1 ,)

bal bari
 ㄴ. (形態素)
 ○ A B

() A B
 gabsi
 (gabs gwa) gab gwa
 osi
 (os gwa) od gwa
 (osman) odman
 (os-an) od-an

ㄷ. ㅏ (Apostrophe) , - (Hyphen) . “ - ” ng
 가 가

() jang-i (將棋) jang-gi
 jang-ggi (長期) jang-gi
 (長技) jang'gi (殘期) jan-gi
 (慶安) gyeong-an
 ㄷ. “중” 가

() jodta
 ㄹ. ㄷ, ㄴ

() mullyag apnil
 ㅏ gongnil apni
 ㄷ. 3 1

() ggaggggo.....ggaggo nagggo.....naggo
 () ㄱ ㄷ 1

() sinla
 ㄴ ㅏ ㅗ, ㅛ, ㅜ d

() gadji gasseuna bidjang-i ggoja
 ggodgwa ggochi
 ㄷ ‘가 ’ ‘가 ga-e
 ㄹ ㅎ+ㄷ=ㅌ(t), ㅎ+ㅈ=ㅊ(ch)

4.

1958 10 20

4)

●

4) 3 (p.14, , 1960. 11. 1 ,)

•

1.

1948. 8. 15 (86 ,
1949. 12. 31) 8 .5)
1950. 4. 29 336 ‘ , 337 ‘
가 . ,
1950 ,
(‘ , 1955. 10. 6).

128
 , , , , ,
 , , , , ,
 ,
(, 1992. 8. 29)

가 가 .
6.25 가 .
1954. 4. 20 (. .) , 1955. 8. 1 1
 , ‘ , < 1>
1955. 12 가 .

5) , 「 , pp. 11 12, : , 1997.

< 1 >

1.

1955. 10. 6

(1) (判種)

4×6 , 5×6 , 5×7 , 4×6 .
 , 5×7 5×7 ,
 5×7 5×6 4×6 .

(2)

5 (15Q) .
4 (20Q) .
.

(3) , , ,

, 5×7 5
1 750 . , 1 25 1 32
.
 , , . ! ?
.

(4)

(濃淡)

(5)

120 (厚紙) .

(6)

2.

128 6)

(1)

가 (46) (57)

(2)

가 $1\text{m}^2 (841\text{mm} \times 1189\text{mm})$ $1.5\text{m}^2 (1030\text{mm} \times 1456\text{mm})$

가 $1 : \sqrt{2}$

(3)

	가 (mm)	(mm)
1	594×841	728×1030
2	420×594	515×728
3	297×420	364×515
4	$210 \times 297()$	257×364
5	$148 \times 210()$	$182 \times 257(46)$
6	105×148	$128 \times 182(46)$
7	74×105	91×128
8	52×74	64×91

(4)

		mm		(m ²)
가	625×880	+6	가	0.55
	765×1085	+6		" 0.83
가	608×856	+6	가	" 0.52
	745×1047	+6		" 0.78

: 636×940
46 : 788×1092

6) 3 (pp. 30 33, , 1960. 11. 1)

(5)

	(mm)		
가5	148 × 210	16	,
6	128 × 182	32	
5	182 × 257	16	, ,
가4	210 × 297	8	, , , ,
4	257 × 364	8	,
6	106 × 148	32	

· 가 5 , 가 4

· ,

가. 20 148 × 168mm
 . 20 182 × 206 (,)
 가. 40 84 × 148mm
 . 36 121 × 171
 가. 48 74 × 140mm
 . 40 103 ×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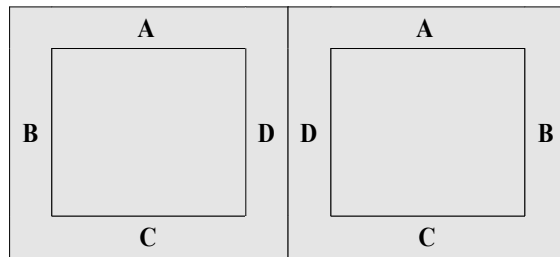
(6) ()

	1 2 3 · 4 5 · 6	20Pt. 18Pt. 18Pt. 16Pt. 14Pt.	}	
	1 2 · 3 1 · 3	12Pt. 10Pt. 10Pt.		24Pt, 18Pt 16, 14 Pt. 14, 12 Pt.
		9Pt.		10, 9 Pt.

(7)

, , (,)	, , , ,

(8) (가 5)



A. 25mm B. 20mm
C. 20mm D. 15mm

(9)

		8Pt	9Pt	10Pt	12Pt	14Pt	16Pt	18Pt	20Pt
가 4		48 54	42 46	40 42	33 35	26 31	25 27	21 23	20 21
		42 48	38 44	32 38	28 30	26 28	21 24	19 22	16 19
5		44 46	42 44	38 40	30 32	26 28	22 23	21 22	19 20
		36 40	32 38	28 30	24 26	21 22	18 20	16 19	14 15
가 5		34 37	29 32	26 28	20 24	18 19	16 18	14 15	13 14
		29 33	26 31	23 26	23 19	16 19	15 16	13 15	11 13
6		28 30	25 27	21 23	18 20	16 18	14 15	13 15	11 12
		25 29	22 27	20 22	17 20	15 17	13 14	11 13	10 11
가 6		24 27	21 23	20 21	17 18	13 15	12 13	10 11	9 10
		21 24	19 22	16 19	14 15	13 14	11 12	10 11	8 9

(10)

. (1)

1.

(1)

가. A

□. a

(a)

*

(11)

	1, 2	3, 4	5, 6	1	2, 3	
가	12mm	11mm	9mm	8,	7mm	6mm
, ,	9mm	8mm	7mm	6mm		5mm
	7mm	6mm	5mm	5mm		5mm

가 .

(12)

,	가 45kg	68kg	68kg
,	68kg	68kg	68kg
,	가 40kg	가 31kg	가 31kg
	가 39kg	가 31kg	가 31kg

[]

$$\text{가4} \quad (\quad) \quad \times 1000 \div 16 \div \quad = \quad (62.5)$$

$$\text{가5} \quad (\quad) \quad \times 1000 \div 32 \div \quad = \quad (31.25)$$

$$5 \quad (46 \quad) \quad \times 1000 \div 32 \div \quad = \quad (31.25)$$

$$6 \quad (46 \quad) \quad \times 1000 \div 64 \div \quad = \quad (15.625)$$

[]

$$\text{가4} \quad \times \quad \div 16 \div 1000 =$$

$$\text{가5} \quad " \quad 32 \div " = "$$

$$5 \quad " \quad 32 \div " = "$$

$$6 \quad " \quad 64 \div " = "$$

, 3% 5% 가 .

[] (Pt. , “ ”)

8 Pt.

9 Pt.

10.5 Pt.

12 Pt.

14 Pt.

16 Pt.

18 Pt.

(13)

7)

: 24 ()

1		14	10	Red	R
2		14	8	Pale Yellow Red	yR
3		15	8	Red Orange	RO
4		15	8	Pale Red Orange	rO
5		16	7	Orange	O
6		17	6	Pale Yellow Orange	yO
7		18	6	Yellow Orange	YO
8		19	6	Pale Red Yellow	rY
9		18	6	Yellow	Y
10		18	5	Pale Green Yellow	gY
11		18	5	Yellow Green	YG
12		16	6	Pale Yellow Green	yG
13		16	6	Green	G
14		15	6	Pale Blue Green	bG
15		15	6	Blue Green	BG
16		14	7	Pale Green Blue	gB
17		14	6	Blue	B
18		13	6	Pale Purple Blue	pB
19		12	6	Blue Purple	BP
20	가	12	5	Pale Blue Purple	bp
21		13	5	Purple	P
22		13	5	Pale Red Purple	rP
23		13	7	Red Purple	RP
24		13	8	Pale Purple Red	pR

●

()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7)

3 (pp. 21 28,

, 1960. 11. 1)



- 539 -

: 가 , 가 10
 .
 14 10 1 2 , 3 5
 , 6 10 .

1

		가				

6

.

2

		가				

2

.

3

		가					

2 (가)

.

(4)

NO.

[illegible]

3.

1992. 8. 29
1992- 13

1 1993- 13 (1993. 12. 23)
2 1994- 8 (1994. 11. 4)
1995. 1. 19

(1)

· ·
· ·
· ·

(2)

가 1
2

(3)

○
○
○ ()
○
○ (), (), (), () ()
○
○
○
○
○

(4)

, , , (), ,
, , ,

1)

○ : , , ,
· · , ,
○ : , , ,
, .

2) (“ ”)

.

< >	<div><div>○ 1 : 28 , 2 : 24 , 3 : 20 , 4 6 : 17</div><div>○ 16 , 1 : 24 , 2 3 : 20 , : 24 18 , .</div><div>: 15 13</div><div>○ 15 , (4 × 6): 18 , (): 15 , : 24 18 ,</div><div>: 18 , : 16</div></div>
< >	○ 13

3) ()

,

.

4) (, , ,)

.

.

(:)

.	90	80	80
	24	24	24
	56	56	56
	-	20	20
	-	28	28
	-	28	28
	-	16	16
.	80	70	70
	-	20	18
	50	56	-
	-	16	16
	-	28	28
	-	16	16
.	-	24	24
	18	44	44
	18	38	-
	-	24	24
	18	24	24
.			
	16	13	13
, , , ,	20	20	20
. .	13	15	15
, ,	14	18	18

5)

(:)

	- 15		13	
	1 2	24	20	18
	3 4	20		
	5 6	18		
		-	15	13
	1 2	-		
	3 4	18		
	5 6	16		
()	3 4	18	13	13
	5 6	16		
()	3 4	18	15	13
	5 6	16		

.

	(1 2), (1 2)	4 × 6
	(3 6)	4 × 6
	(3 6)	4 × 6
	(3 6)	
	(1,2)	4 × 6
	(3 6)	4 × 6
	(3 6)	4 × 6
	(3 6)	4 × 6
		4 × 6

-
- : 110mm
- : 125mm
- 4 × 6 : 140mm
-

○ 2/3 가 ,

2) ,

1	28Q	4 × 6	14cm	19	16Q	
2	24Q	4 × 6	14cm	21	16Q	
3	20Q		11cm	19	13 ^{3/4} Q	
		4 × 6	14cm	24	14 ^{3/4} Q	
4 6	17Q		11cm	21	13 ^{1/2} Q	
		4 × 6	14cm	27	13 ^{3/4} Q	
	16Q		11cm	23	12Q	
		4 × 6	14cm	29	12 ^{3/4} Q	
			12.5cm	27	12Q	
	15Q		11cm	25	11 ^{1/2} Q	
		4 × 6	14cm	32	10 ^{3/4} Q	
			12.5cm	29	11Q	
	13Q	4 × 6	15cm (7 × 2)	42	71/4Q	

(7) ()

,

(8) .

- : (0.0mm)
- :
- .

1 1/2

(9)

- 가
- () ,

, 1 3	1 3	(180)	(120)	-	(120)			-
	1 3	(180)	(100)	(100)	(100)	()		-
		(220)	(120)	-	(120)	(80)		(70)
		(220)	(100)	(100)	(100)	(70)		
				(100)				
		(180)	(100)		(100)	(55)		

1. () g/ m² (1m² g)

2. : ().

(3)

, (.)	(180)	(120)	-	(120)			-
	(180)	(100)	(100)	(100)	()		-
			-		(80)		
	(220)	(120)		(120)			(70)
	(220)	(100)	(100)	(100)	(70)		
	(220)	(100)	(100)	(100)	(70)		
	(220)	(100)	(100)	(100)	(70)		(100)
	(220)	(100)	(100)	(100)	(70)		(100)
	(180)	(100)	-	(100)	(55)		

() g/ m² (1m² g)

(11)

1)

-
-
-

2) ,

	1 2	4	-	-	4	4	4	-
	3 4	4 2 가	-	4	4	4	4	-
		4	8	2 가	8	8	8	1
		4 1 가	-	-	4	4	4	-
		4 1 가	-	-	-	-	-	-
		2	-	-	1	1	1	

.

	1 3	4	4	-	2	4	4	-
	1 3	4	4	-	2	1	2	-
		4	8	-	8	8	8	1
								(
								3)
	1 3	4	4	-	2	4	4	1
()		4	4	4	4	4	4	1
		4	4	4	4	1	1	1
		2	-	-	1	1	1	1

(,) () (.)		4	4	-	2	4	4	-
		4	4	-	2	1	2	-
		4	8	4	2	1	1	4 1
								(3)
		4	4	-	8	8	8	1
		4	4	-	2	1	2	1
		4	4	4	2	1	2	1
		4	4	-	2	1	3	1
		4	4	4	2	1	1	1
		2	-	-	1	1	1	1

4
(. 3 . .)

(12)
1)

,

2) ,
,

	,	,

	,	,
	,	,
	,	,
	,	,

(13)

, . . ,
, .

1)

□ . ,

○

,

.

■



$\begin{array}{l} \text{---} : 1 \\ \text{---} 4 \times 6 : 2 \\ : 4 \times 6 : 3 \end{array}$

■ .



$\begin{array}{l} \text{---} : 4 \\ \text{---} : 5 \\ \text{---} 4 \times 6 : 6 \\ : 4 \times 6 : 7 \end{array}$

○

■

- .

,

“

”

-

,

.

■

: .

.

- 1



$\begin{array}{l} : \text{“} \text{”} \\ : \\ : \text{“} \text{”} \end{array} \quad (\cdot , ,)$

- 2



$\begin{array}{l} : \text{“} \text{”} \quad \text{“} \text{”} \\ : \\ : \text{“} \text{”} \end{array}$

■

:

,

.

“

”

.

■

. ,

-

“1”, “2”, “3”

,

“1- 1”, “2- 1”

,

“ . ”, “ . ”, “1 · 2”, “A · B”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3)
- - ()
 - : (3 4) 2
 - · : 4 (, 2)
- 4)
- 2 ,
 - (· ·) ·
- 5)
- 가 , , ,

(14) 6 1995 3 1 , 6 5

(15)

· · ,

· ,

1. : 1994 1 1 .

< >

(: cm)

					·			·
			4 × 6	4 × 6			4 × 6	4 × 6
		0.7 0.7	1.5 0.7	4.0 5.7 5.7	2.0 2.0	2.5 2.5	3.0 3.0	3.0 3.0
		3.0	4.0	1.0	1.0	1.0	1.5	1.5
	(·)	1.0		1.5	0.5	0.5	0.5	0.5
								1.5
					0.6 가 3.0 1.2 1.0	0.6 가 3.0 1.2 1.0	0.6 가 3.0 1.2 1.0	0.6 가 3.0 1.2 1.0
					1.7	1.7	1.7	2.5
	·			2.0	1.5	1.5	1.5	1.5
				2.0	2.0	2.5	3.0	3.0
		2.0		9.0	7.0	7.0	8.0	8.0
	(·)	6.0		13.0	0.5	0.5		0.5
								1.5
	·	2.0 2.0 ()	2.0 2.0 ()	2.0 3.0 ()	1.0 2.0 ()	1.0 2.5 ()	1.0 3.0 ()	1.0 3.0 ()

1.

1		48. 8. 3	50. 5. 3	
2		50. 5. 4	52. 10. 29	
3		52. 10. 30	54. 4. 20	
4		54. 4. 21	56. 6. 7	
5		56. 6. 8	57. 11. 26	
6		57. 11. 27	60. 4. 57	
7		60. 4. 28	60. 8. 22	
8		60. 8. 23	61. 5. 2	
9		61. 5. 3	61. 5. 19	
10		61. 5. 20	62. 1. 8	
11		62. 1. 9	62. 10. 14	
12		62. 10. 15	63. 3. 15	
13		63. 3. 16	63. 12. 16	
14		63. 12. 17	64. 5. 10	
15		64. 5. 11	65. 8. 26	
16		65. 8. 27	66. 9. 25	
17		66. 9. 26	68. 5. 20	
18		68. 5. 21	69. 4. 10	
19		69. 4. 11	71. 6. 3	
20		71. 6. 4	74. 9. 17	
21		74. 9. 18	73. 12. 3	
22		76. 12. 4	77. 12. 19	
23		77. 12. 20	79. 12. 13	
24		79. 12. 14	80. 5. 21	
25		80. 5. 22	83. 10. 14	
26		83. 10. 15	85. 2. 18	
27		85. 2. 19	87. 7. 13	
28		87. 7. 14	88. 2. 24	
29		88. 2. 25	88. 12. 4	
30		88. 12. 5	90. 12. 26	
31		90. 12. 27	92. 1. 22	
32		92. 1. 23	93. 2. 25	
33		93. 2. 26	93. 12. 21	
34		93. 12. 26	95. 5. 11	

35		95. 5. 16	95. 12. 20
36		95. 12. 21	97. 8. 7
37		97. 8. 8	98. 3. 2
38		98. 3. 3	99. 5. 23
39		99. 5. 24	2000. 1. 13
40		2000. 1. 14	2000. 8. 6
41		2000. 8. 7	2000. 8. 30
42		2000. 8. 31	2001. 1. 28
43		2001. 1. 29	

2.

1		48. 8. 9	48. 10. 4
2		48. 10. 5	50. 5. 11
3		50. 5. 12	51. 9. 20
4		51. 9. 21	52. 11. 13
5		52. 11. 14	55. 3. 9
6		55. 3. 10	56. 6. 18
7		56. 6. 19	57. 12. 2
8		57. 12. 3	60. 5. 2
9		60. 5. 3	60. 8. 22
10()		60. 8. 23	61. 5. 2
11()		60. 8. 30	61. 7. 9
11		61. 5. 3	61. 8. 24
12		61. 8. 28	62. 1. 16
13		62. 1. 17	63. 3. 27
14		63. 3. 28	63. 12. 16
15		63. 12. 17	64. 2. 9
16		64. 2. 10	64. 5. 17
17		64. 5. 18	64. 9. 8
18		64. 9. 9	65. 10. 18
19		65. 10. 19	67. 8. 11
20		67. 8. 12	68. 5. 23
21		68. 5. 24	70. 1. 7

22		70. 1. 8	71. 7. 11
23		71. 7. 12	72. 5. 2
24		73. 5. 3	77. 2. 7
25		77. 2. 8	78. 2. 14
26		78. 2. 15	80. 1. 20
27		80. 1. 21	80. 5. 28
28		80. 5. 27	80. 7. 9
29		80. 7. 15	81. 4. 12
30		81. 4. 13	83. 7. 19
31		83. 7. 20	85. 4. 9
32		85. 4. 10	87. 8. 5
33		87. 8. 6	88. 3. 4
34		88. 3. 5	88. 12. 12
35		88. 12. 13	90. 3. 19
36		90. 3. 20	93. 3. 3
37		93. 3. 4	95. 12. 25
38		95. 12. 26	97. 8. 7
39		97. 8. 8	98. 3. 8
40		98. 3. 9	99. 5. 25
41		99. 5. 26	2000. 1. 26
42		2000. 1. 27	2001. 5. 31
43		2001. 6. 1	

3. (, ,)

	1		46. 3. 1	
"	2		48. 11. 6	49. 4.
"	3		50. 6. 27	
"	4		51. 4. 20	54. 1. 21
"	5		54. 10. 13	55. 8. 31
"	6		55. 11. 17	56. 6. 22
"	7		56. 8. 2	58. 2. 24
"	8		58. 2. 27	60. 5. 19
"	9		60. 5. 19	60. 10. 6
"	10		60. 10. 7	61. 2. 9

	1		61. 5 62. 11	
"	2		62. 11 63. 12	
	11		63. 12. 19 64. 8. 24	
"	12		64. 8. 24 65. 10. 15	
"	13		65. 11. 9 66. 6. 14	
"	14		66. 6. 15 67. 8. 31	
"	15		67. 9. 1 68. 8. 10	
"	16		68. 8. 10 70. 9. 3	
"	17		70. 9. 3 71. 12. 22	
"	18		71. 12. 22 73. 4. 1	
"	19		73. 5. 5 75. 11. 19	
"	20		75. 11. 24 77. 3. 19	
"	21		77. 3. 19 78. 3. 15	
"	22		80. 2. 27 80. 6. 20	
"	23		80. 6. 20 80. 8. 5	
"	24		80. 8. 18 81. 2. 20	
"	25		81. 6. 11 81. 8. 4	
"	26		81. 8. 5 81. 11. 1	81. 11. 2 83. 2. 27 ⁸⁾
	27		83. 2. 28 84. 7. 22	
"	28		84. 7. 23 85. 10. 31	
"	29		85. 11. 1 88. 7. 21	
"	30		88. 7. 22 89. 8. 30	
"	31		89. 9. 1 91. 8. 16	
"	32		91. 8. 17 92. 7. 12	
"	33		92. 7. 23 93. 5. 7	
"	34		93. 5. 8 94. 2. 28	
"	35		94. 3. 1 94. 5. 16	
	36		94. 5. 17 96. 2. 29	
"	37		96. 3. 1 96. 9. 7	
	38		96. 9. 8 99. 2. 28	
	39		99. 3. 1 2000. 8. 31	

: , 「 」, 1970 81·82 , . :

8)

'81. 11. 2 83. 2. 27 , .

4. (,)

(1) (1945. 8 1954. 4)⁹⁾

	.		
	.	1945. 10	.
	.	1945. 10. 8	
		1945. 11. 5	
		1945. 11. 6	
		"	
		"	
		"	
		"	
		"	
		"	
		"	
		"	
		"	
	*	"	* (3)
		"	pp.4 5 " "
		1946	.
		1947. 2	• 1947 1949, 1956 1961
		1945	.
		"	"

9)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3, 1, pp. 6–7, 1999.

[illegible]

	.		
		1945. 9. 18	• 1946. 6
		1945. 10. 1	•
		1946. 6	•
	,	1946	•
		1946	•
		1948. 8	•
		"	
		"	• 1948 1951 () ¹⁰⁾
		"	
		"	• 1948 1951 ()
		"	• 1948 1951 ()
	()	"	
		"	• 1948 1951 ()
		"	
		"	
		"	• 1948 1951 ()
		"	
		"	• 1948 1951 ()
			•

10) , " , p. 13, () 6 · 25 ,
: (), 1999.

(2) 1 (1954. 4 1963. 2)¹¹⁾

	*	1948 1961	* (, ,
	,	1948 1961) .
	()		
	()		
	()	1946 1961	
	()	1946	

11) , " , pp. 51 56 ().

		1955 1957	
		1956 1973	·
		1956 1961	
		1948 1951	·
	가		
	가		
		1957 1961	
		1957 1961	
		1957 1962	·
		1957 1970	·
		1961 1966	
	가		
		1957 1962	· ,
		1961 1966	
	가	1961 1968	
		1961 1973	·
		1962 1969	
		1961 1975	·
		1962 1966	
		1962 1966	
		1962 1967	
		1962 1976	· (1975)
		1962 1977	·
		1962 1977	·
		1962 1970	

(3) 2

(1963. 2 1973. 2)

가
$$\vdots, \quad \Gamma$$

1 pp. 32 37

, Γ

1, pp. 50 51,

: (), 1999.

(4) 2 3 (1973 1981)

12)

1969			1969		
1970			1970		
1971			1971		
1972			1972		
1973			1973		,
					,
1974		,	1974		, ,
1975		,	1975		, , ,
1976			1976		,
					,
1977		, , ,	1977		,
		,			,
1978			1978		,
1979-1980		, , ,	1979-1980		,
		,			
1981		,	1981		, , ,

12) : , 「 」, 1969- 1981 (), , :
, 「 '73 '75」 가 ()가 .

(5) 3 (1973. 2 1981. 12)*

	,	
		. 2 , , , , , , , , , , , , , , , , , (78. 3) , (80. 2) , (81. 11)
	,	
	.	
	가	

*1977. 3 1981. 12 .

(6) 4 (1981. 12 1987. 3)

	,	
		<div><div>. 3 (1977)</div><div>: , , , , ,</div><div>, , , , ,</div><div>, , , , ,</div><div>, , , , ,</div><div>, , , , ,</div></div>
	,	
	,	

	,	
	가 가	
	,	

●

14)

· 1)	,	1987, 1990
2)	, , ,	

14) 「 87, 90」, 「 95. 12 .1」 ().

(8) 6 (1992. 6 1997. 12)¹⁵⁾

	,	
		• 5 :
		, , , , ,
		, , , , ,
		, , , , ,
		, , ,

15) ,「 1994」. ,「 , pp. 95 117. ,「 1995. 12. 1, 1997. 6. 10」 ().

	,	
	가 ()	

•

• • •	, , ,	1994 1997
1)	,	
2)	, , ,	

(9) 7

(1997. 12)¹⁶⁾

	,	
		6 ,
	,	
	,	

16) , 「 , pp. 133 142. , 「 98, 2000, 2001」 . , 「 () , 93. 3. 10. 「 (2000. 9. 1, 2001. 9. 1) () .

	,	
	가	•

•

• • 1)	, , , , , ,	1998 2001
2)	, , , ,	

•

1. 1 (1961. 8) 17)

(1)

(2)

17)

• , 1 7 ,
().
* : , 「
」 , 1961. 8.

2. 2 (1968. 2)

(1)

(2)

	2	

: , 「 , 1968. 2, pp.1- 14.

3. 3 (1973. 3)

(1)

· :
· : ,

(2)

	"		
	"		
	"		
	"		
	"		
	"		
	"		
	"		
	"		

(3)

				• 1
				70. 4. 19 - 4. 25
				• 2
				70. 9. 9 - 9. 14
				• 1971
				-
				-
				• 1972
				-
				-

: , 「 1970 」 , , pp. 11- 12.

		• - 1971 • 1970 - - • 1972 - - • 1973 - - - -

: , pp.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 12 - 74. 3 • 1970 - - • 1971 - 1970 • 1972 - - • 1973 - - - - -

: , 「 1974 」 , , p. 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70. 4. 8 - 4. 18 • 2 70. 9. 8 - 9. 13 • 1971 - 1970 • 1972 - 1970 • 1973 - - 1970

: , 「 1970 」 , , pp. 1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73. 4 - · 19701 - 1972 - · 1974 - - -

: , 「 1973
」 , , p. 13

(. .) 가
1970
3 () 197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 4

4. 4 (1981 1987)
18)

18) ().

5. 5 (1988. 3)

(1)

	.	
	가	• • • •
	가	

(2)

	.	
	가	
	가	

	.	
	가	

	.	
	가	

	.	
	가	

: , 「 (1986. 3. 25 1988. 3. 24)」

(2)

	.	
	,	
	,	

	.	

	.	
	가	
	가	

	.	

7. 7 (1997 - 1999)

(1)

	가				2
	가				

(2)

	가				,

< >

< >

< >

< >

< >

				가	

:
, 「 7
」, 1997 - 1999.

• ,

1. 1 (1956, 1957)

(1) 1956 19)

	57		38	·
	32		53	
	24		62	
	17		3	
	30			
	27		343	

(2) 1957

	24		27	·
	24		32	·
	19		12	
	15		26	
	25		2	
	18		224	

: (3 ,4) p. 30, : , 1965.

19) 「 10 」, pp. 119 123 ()가 .
: 2 , 1991.

(3) 1 (1956)

1					29			
2			"		30		"	
3			"		31		"	
4			"		32		"	
5			"		33		"	
6			"		34		"	
7			"		35		"	
8			"		36		"	
9			"		37		"	
10			"		38		"	
11			"		39			
12			"		40		"	
13			"		41			
14			"		42		"	
15			"		43		"	
16			"		44			
17			"		45		"	
18			"		46		"	
19			"		47		"	
20			"		48			
21			"		49		"	
22					50		"	
					51			
23			"		52			
24			"		53		"	
25			"		54		"	
26			"		55		"	
					56		"	
27			"		57		"	
28			"					

: 「 10 」 , pp. 119 123, : 2 , 1991. 10.

1					29			
2			"		30		가	
3			"		31			
4			"		32			
5			"		1			
6			"		2		"	
7			"		3	6	"	
8					4		"	
9			"		5			
10			"		6			
11					7		"	
12			"		8			
13					9			
14					10			
15			"		11			
16					12		"	
17			"		13			
18			"		14		"	
19					15		"	
20					16			
21			"		17			
22					18		"	
23			"		19			
24					20		"	
25					21			
26					22		"	
27					23			
28					24			

1					14			
2			"		15			
3			"		16			
4			"		17		"	
5			"		18			
6					19		"	
7			"		20			
8					21		"	
9					22		"	
10					23			
11					24		"	
12					25			
13			"		26		"	
14			"		27			
15					28			
16					29		"	
17					30		"	
1					1			
2			"		2		"	
3			"		3		"	
4			"		4	가	"	
5			"		5			
6					6			
7			"		7			
8					8			
9					9		"	
10					10		"	
11			"		11		"	
12			"		12			
13					13			

14					15			
15			"		16		"	
16					17		"	
17					18			
18			"		19			
19					20			
20			"		21			
21					22		"	
22					23			
23			"		24		"	
24					25		"	
25			"		26		"	
26					27			
27					28			
1					29		"	
2			"		30			
3			"		31			
4			"		32			
5			"		33			
6			"		34		"	
7			"		35			
8			"		36			
9			"		37			
10			"		38			
11					1			
12					2		"	
13					3		"	
14					4		"	

5					33			
6			"		34		"	
7			"		35		"	
8			"		36			
9			"		37		"	
10			"		38		"	
11			"		39			
12			"		40		"	
13			"		41		"	
14					42			
15					43			
16			"		44			
17			"		45			
18					46			
19					47		"	
20					48			
21			"		49			
22			"		50			
23			"		51			
24					52			
25			"		53			
26			"		1			
27			"		2		"	
28					3		"	
29					4		"	
30			"		5		"	
31			"		6		"	
32					7		"	

8					38						
9			"		39						
10			"		40			"			
11			"		41			"			
12			"		42						
13			"		43						
14			"		44						
15			"		45			"			
16			"		46			"			
17			"		47						
18			"		48						
19			"		49						
20			"		50						
21			"		51						
22			"		52						
23					53						
24			"		54			"			
25			"		55						
26			"		56			"			
27			"		57			"			
28					58						
29					59						
30			"		60			"			
31			"		61						
32					62						
33					1						
34			"		2			"			
35					3			"			
36								343			
37											

2. 2 (1970)

(1) 1970

	31		26	· ()
	24		34	·
	19		24	·
	15		12	
	25		2	
	15			
			227	

: (8). (1970), p. 24, : , 1969.

(2) 2

(1968. 1)

20)

1					6				
2			"		7				
3			"		8			"	
4			"		9				
5			"		10				
6			"		11				
7			"		12			"	
8			"		13				
9			"		14			"	
10					15				
11			"		16				
12			"		17				
13					18				
14			"		19				
15					20				
16			"		21				
17					22				
18					23				
19					24				
20			"		25				
21					26			가	
22					1				
23					2				
24					3			"	
1					4				
2			"		5			"	
3			"		6				
4			"		7			"	
5									

: 「 12 」 , pp. 100 101, : 2 , 1992. 4.

20) 1968 . , 가
100 224 .

8					1			
9					2		"	
10					3		"	
11					4		"	
12					5			
13					6		"	
14					7			
15					8			
16					9			
17					10		"	
18					11			
19					12		"	
1					13			
2			"		14			
3			"		15			
4			"		16			
5			"		17		"	
6					18			
7					19		"	
8					20			
9					21		"	
10			"		22			
11					23		"	
12					24			
13					25		"	
14					26			
15								

1			"		13			
2			"		14			
3			"		15			
4			"		16		"	
5			"		17			
6			"		18			
7			"		19			
8			"		20			
9			"		21			
10			"		22			
11			"		23			
12			"		24			
13			"		25			
14			"		26			
15			"		27			
16			"		1			
1			"		2		"	
2			"		1			
3			"		2		"	
4			"		3		"	
5			"		4		"	
6			"		5		"	
7			"		6		"	
8			"		7			
9			"		8			
10			"		9			
11			"		10			
12			"					

11					9			
12					10		"	
13			"		11			
14					12			
15					1			
16					2		"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	
24					10			
25					11			
26			"		12			
27					13			
28					14			
29					15			
30					16			
31			"		17			
32					18			
1					19			
2			"		20			
3			"		21			
4					22			
5			"		23			
6			"		24			
7			"		25			
8							224	

3. 3 (1976, 1997)

(1) () 21) 22) 23)

	35		31	· ()
	31		38	·
	17		22	· 1976. 12
	13		14	
	26		1	
	22		250	

: 「 35 」, p.286, : (), 1987.

(2) ()

	41		29	· ()
	25		30	· (.)
	16		24	
	13		10	· 1976. 11. 1
	25		1	
	15		229	

- 21) 1977 8 22 (8660) ‘ , (1)
() (2) 3 .
1950 1977 .
22) 1977 3 1978 1 ,
() ,
30 , 32 33 , () 1977 9 16
, 10 10
23) 3 (1973. 2 1981. 12) 1977 8 22 ‘ ,
4 (1981. 12 1987. 3), 5 (1987. 3 1992. 6), 6
(1992. 6 1997. 12) 7 (1997. 12) 1999 20 .
()가 .

(3) .

	4 2 21 16 11 16		15 25 25 20 3	· () · 1977. 9. 16
			158	

: () , 「 35 」 p. 289, : () 1987.

(4) 3 (1976)

1					28			
2			"		29		"	
3			"		30			
4			"		31		"	
5			"		32		"	
6			"		33			
7			"		34		"	
8			"		35			
9			"		36		"	
10			"		37		"	
11			"		38		"	
12			"		39		"	
13			"		40			
14			"		41			
15			"		1			
16					2		"	
17			"		3		"	
18			"		4			
19			"		5		"	
20					6		"	
21			"		7			
22			"		8			
23			"		9		"	
24			"		10			
25					11			
26			"		12			
27								

: () , 「 」 , pp. 1 21. 1976. 11. 1
가 ()가 .

13					1			
14					2		"	
15					3		"	
16					4			
17					5			
18					6			
19					7			
20					8		"	
21			가		9			
22					10			
23					11			
24					12			
25					13			
1					1			
2			"		2		"	
3					3		"	
4					4		"	
5					5			
6					6		"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	
14					14			
15			"		15			
16					16			

17			"		6			
18					7			
19					8			
20					9			
21					10		"	
22					11			
23					12			
24					13			
25					14			
1			"		15		"	
2			"		16			
3			"		17			
4					18			
5					19			
6					20			
7					21			
8					22			
9					23			
10					24			
11					25			
12					26			
13					27			
14					28			
15					29			
1			"		1		"	
2			"		2		"	
3			"		3		"	
4			"		4		"	
5			"		5		"	

6					6			
7			"		7			
8					8			
9			"		9		"	
10					10			
11					11			
12			"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1			
26					2			
27					3			
28			"		4		"	
29					5		"	
30					6			
31					7		"	
1					8			
2			"		9		"	
3					10			
4					1			
5							229	

4. 7 (1998, 2000)

(1)

< 1998. 6 >

	9	9	9
	180	153	39
	189	162	48

:

(2)

24)

< 2000. 10. 1 >

		()		
	1	4		4
.	6	6	13	19
	136	136		136
	143	146	13	159

24) 1997 2 ‘ , 가 () 8 22 ‘ , . , ‘ 23 가 . 181 . 1998 IMF 2 (2000 2) 가 가

	,	22
	,	23
	, , ,	23
	, ,	26
	,	21
	, ,	21
(6)	16 .	136

: , 「 」 p.34 : , 2000.

, 2001 1
, , 가
, 「
, 160
,

가 .

5.

가

가

가 가

： ，「35」，p.78 p.80.： ()，1987.

1. () 1 27가 62 27가 69
() 1950 6 3 ()
6.25 , 9 70
2. () . ,
(), (), (),
(), (), () (), (),
(), () 1951 .
1. ()
가 가 . ()
2. 20 , , 3 .
3. 가 가 2 7 5 .
4. () () .
- () 27.5% ,
15% .

6.

1	가	6	
2	가	7	
3		8	4
4	가	9	가 8 5
5		10	가 가

* 1952 7 15 가 가 ()

23	2 가	29	
	가 가		
	가	(1)	
		(2)	
29		3 가	
		(3) 가	
24		(4)	
가		(5)	가
		(6)	
25		(7)	가
		(8)	
26		(9)	
	2	(10)	
27		(11)	가
		30	
		가	
	가	31	
			가 가
		4	
28	가	32	1952 8 1

7.

□
□ 1971 6 1

1	「 」	5	,
	「 」		.
2	가	6	가
	.	7	(1)
3			「 」
	.		.
	- -	(2)	,
1.	1		,
2.	1	8	(1)
3.	(2) 1		.
4.	1	(2)	.
5.	1		
6.	1 ()	9	,
7.	1		,
8.	1		,
9.	1		.
10.	1 (2)	10	(1)
11.	1		.
12.	(1 3000		가 .
) 1		
4	(1)		(2) (1)
	,		가
	,		.
(2)	가 (1)		가
3			.
2	.		

: (), .

11 (1) 10 5 (2) (1)	18 (1) , . (2)
12 가 가 가 가 가	19 (1) 가 (2) 가
13 11 가 , 가 가	20 (1) (2) (1)
14 13 . ,	21 가 , .
15 11 가 .	22 .
16 (1) 가 , (2) 2 가	23 가 .
17 (1) . (2) 가	24 (1) 23 가 가 (2) (1) (3)

25	가	1.	3
	가	1.	가
	1		가
26	가	1.	
			가
27		1.	
	2	1.	
28	(1)	1.	,
	가	1.	
	(2)	1.	가
		31	
29	가		가
		32	
30	1	가	
		33	
1.		34	1971 6 1

8. .

- 10
‘ 1’ ,
(‘ , , , .)
- ‘ 2’ , .
‘ 3’ ,
‘ 4’ (11 가
, .
,
25)
1
가
1978
12 10 11
,
가
13
14
2
1978 15
3 2 가
4 3
5
6 5 1 , 1 6
1977 4 25
7 5 1 .
8 2 .
9 3 .
4 .
가 10% .

25) : (), 「 35 」, p.282. 1987.
1977 ‘ , 1978
4 15 () . () , 1 .

26)

- 26) : () 「 35 」 , pp.287 289.
1977 8 22 8660 ‘ , ,
32 ‘ .

10.

(: %)

	()	()	2 ()		
85/ 1	3.8				$\begin{aligned} & x + 1/ 19x = 100 \\ & 19x / 9 + x / 19 = 100 \\ & 20x / 19 = 1900 / 19 \\ & 20x = 1900 \\ & x = 1900 / 20 \\ & x = 95 \\ & 1 / 19 = 5 \% \end{aligned}$
2	5.0				
86/ 1	4.5				
2	5.0				
87/ 1	4.6				
2	4.3				
88/ 1	4.8				
2	4.3				
89/ 1	4.6				
2	5.0				
90/ 1	4.76	4.79	4.69	4.75	
2	4.76)4.78)4.79	-	-	
91/ 1	4.77)4.74)4.74	4.64	4.58	
2	4.75	4.73	-	-	
92/ 1	4.76	4.68	4.66	4.73	
2	4.75	4.79	-	-	
93/ 1	4.71	4.70	4.67	4.77	
2	4.75	4.80	-	-	
94/ 1	4.80	4.77	4.68	4.79	
2	4.80	4.81	-	-	
95/ 1	4.68	4.76	4.70	4.79	
2	4.68	4.73	-	-	
96/ 1	4.67	4.80	6 4.69 ()4. 69	4.79	
2	4.73	4.73	4.71 -	-	
97/ 1	4.77	4.57	4.66 4.71 4.71 4.67 4.70	4.66	
2	4.77	4.67	-	-	
98/ 1	4.794	4.603	4.677 4.693 4.715 4.675 4.700	4.728	
2	4.793	4.759	-	-	
99/ 1	4.780	4.411	4.723	4.709	

: , 「 , p.122, : , 1999.

•

1.

: 1361-5()
344- 12()

(1)

() 1948
, ‘ (教育立國)’, ‘ (實業教育)’, ‘ (出版報國)’ 가
.

(2)

-
-
-
- ,
- DB
-

(3)

(愚石) (金琪午)

(4)

:

(5)

: 1948 9 24

: 53

1948. 9.
1954. 11. “ ” (1955 1)
1963. 12. 4
1986. 12. “ ”
1987. 12. . “ ”
1994. 4. ()
1997. 12. CD-ROM 11 25
1998. 9. () 50
10.
12.
1999. 5.
2000. 7. (())
2001. 2. “ ”

1948. 4. (18)
1948. 5. (1 100 , 400,000)
11. .
1949. 4. 가
1968. 10. ()
1974. 9. 1
1982. 10.
1986. 10.
1992. 5. 2
2000. 10. (CTP) 가

(6) .

: 5 , 6 , 26 , 3 , 1 , 1
: #1
: 861

(:)

13	166	134	508	24	16	86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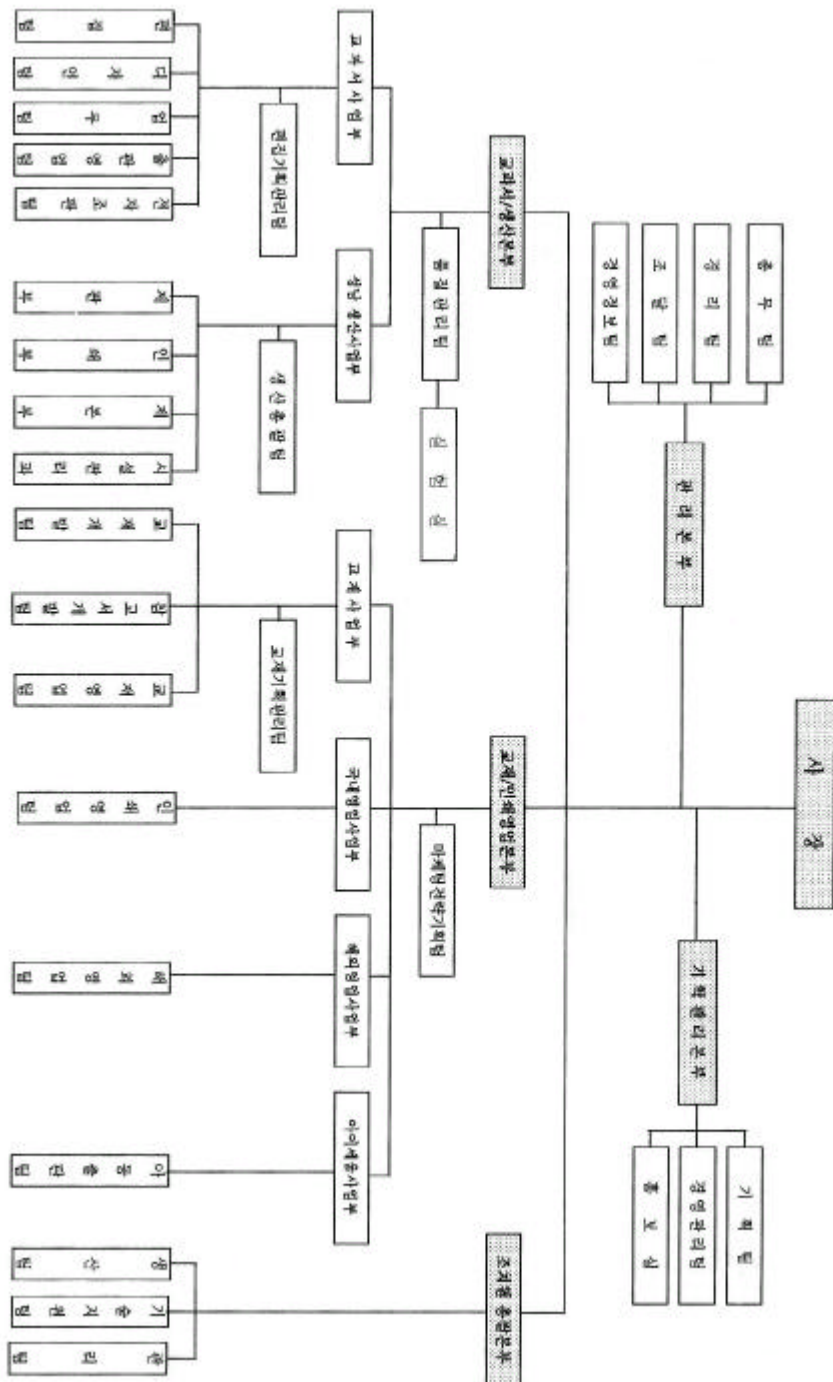
		()			
		9	3	12	2001. 7.
		3	2	5	
	4 · 6	4	4	8	
		16	9	25	
		4	3	7	
		20	12	32	

		2001. 7.
	24	
	48	
	19	
	134	
	225	

: #2

조직도

<별첨 #1>



(8)

(:)

1949	11		7		18	1,315		44		1,359	
1950											- 6·25
1951			19		19			58		58	
1952			18		18			33		33	-
1953		18	17		35		896	15		911	
1954		18	22		40		1,154	16		1,170	
1955		13	34		47		893	35		928	
1956		18	38		56		1,565	41		1,606	
1957		21	38		59		1,281	25		1,306	
1958		21	38		59		804	21		825	
1959		21	42		63		1,466	20		1,486	
1960		21	67		88		1,041	22		1,063	
1961		21	68		89		1,656	22		1,678	
1962		21	61		82		1,672	55		1,727	
1963		21	103		124		1,493	274		1,767	
1964		21	94		115		945	234		1,179	
1965		21	105		126		934	217		1,151	
1966		18	88		106		2,162	179		2,341	
1967		18	107		125		1,967	166		2,133	
1968		18	153		171		1,165	1,147		2,312	
1969		18	203		221		2,047	1,284		3,331	
1970		18	226		244		3,945	1,851		5,796	
1971		19	246		265		4,405	1,890		6,295	
1972		20	277		297		5,125	2,370		7,495	
1973		20	284		304		5,305	2,601		7,906	- ()
1974		24	272		296		6,431	4,887		11,318	
1975		24	290		314		6,605	4,380		10,985	
1976		24	299		323		6,188	4,139		10,327	
1977		24	312		336		6,431	4,887		11,318	
1978		25	323		348		10,372	5,720		16,092	
1979		51	442		493		15,332	12,308		27,640	
1980		61	462		523		15,622	12,259		27,881	

1981			58	494		552			15,525	12,158		27,683	
1982			59	504		563			15,932	13,705		29,637	
1983			59	504		570			15,995	13,937		29,932	
1984			37	629		666			13,218	13,367		26,615	
1985			37	747		784			12,654	12,785		25,439	
1986			37	482		519			12,904	12,079		24,983	
1987			37	485		522			12,381	12,065		24,446	
1988			37	476		513			11,708	12,413		24,121	
1989			37	479		516			11,036	12,121		23,157	
1990		52	39	515		606		37,956	10,562	9,742		58,260	
1991		58	37	541		636		44,542	10,573	9,271		64,386	
1992		52	37	479		568		38,852	11,024	8,637		58,513	
1993		53	37	499		589		33,762	11,479	8,280		53,521	
1994		51	37	501	80	669		29,616	11,941	8,303	52	49,912	
1995		51	41	502	80	674		26,875	12,225	8,775	29	47,904	
1996		50	41	795	83	969		25,340	11,788	8,517	27	45,672	
1997		42	32	835	86	995		19,911	10,753	8,702	24	39,390	
1998	10	223	32	407	465	1,137	14	87,432	11,355	8,992	118	107,911	- () 가
1999	10	223	32	503	437	1,205	11	79,082	9,360	8,336	83	96,872	
2000	12	245	32	513	465	1,267	124	90,067	9,200	7,264	256	106,911	

< # 2>

- 1	: 11H/ 11.5H
- 가	: 276
-	: 4 · 6
-	: 300

(1)

5	'80	'01	· · 4 · 6	12	· 26,893,440

8	'82	'01	4 · 6	8	· 109,958,400

8	'82	'97		5	· 124,531,200

(2)

CTP	'88	'00	4 · 6	10	· 3,312 / 160

(3)

()

	'81	'97	7	· 501,147,000

(4)

IBM	'84	'00	4 · 6	191

· :

2. 2

: 633- 11

(1)

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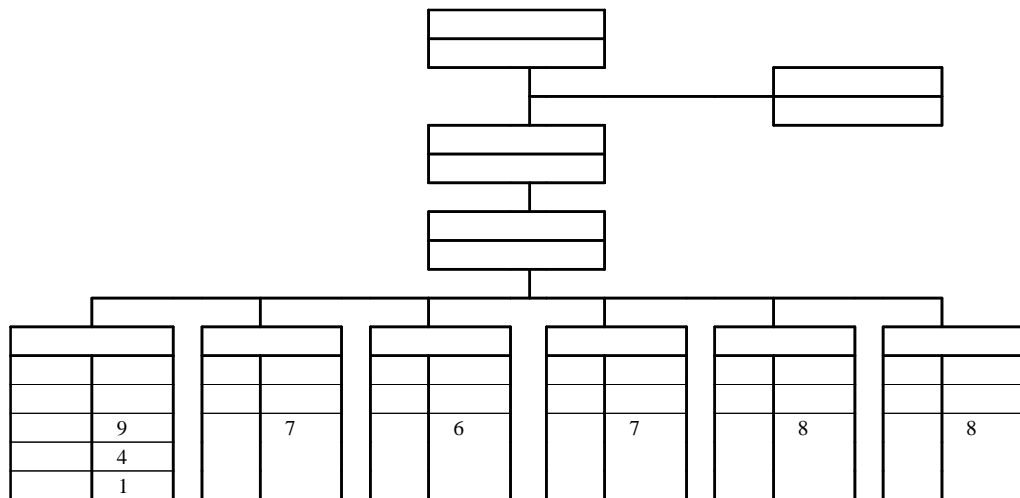
(2)

- 2 .
-
-
- 2
- 2
-
-
-

(3)

(4)

(5) () ()



(6)

1982. 7. 26 2 가
8. 1 2
448-6

1983. 7. 29 4 . 2 20
가 (36)
8. 5 (14) (4 , 10)

1984. 7. 7 (14)
9. 1 2

1985. 2. 8 47가 33
10. 17
11. 15

1986. 7. 30

1988. 6. 30 633 11
“ ” ()
8. 27 2 (20)
9. 13 5 2 7
가
1989. 8. 29 2 (53)
9. 28 5 2 20
가

1990. 8. 6

1992. 2. 27 2

1994. 9. 2 2
12. 1 2 (36)
12. 23

1995. 1. 24
10. 27 2
11. 1 2 (53)
1996. 9. 10 2 4 가(57)

12. 20	2				
12. 31	2				
1997. 1. 1	2		(8)	
4. 4	2		3	가(11)
4. 10					
4. 11					
12. 6		()		
12. 8					
12. 31	2				
1998. 1. 3					
2000. 9. 28	2				
11. 10	2		(31)	

(7)

01	()		1가 62-7	392-0671/4	312-7415
02	()		1 147-13	824-5190	825-2454
03	()		214	737-4919	735-3343
04	()		1 105-67	717-3551-5	718-3976
05			1 105-67	717-3567	712-5150
06	()		242-63	713-9651-8	718-4362
07	()		67-1 A 2 303	332-0127	332-0127
08			B/D 8 1-30	708-2700	3672-5471
09	()		1361-5	3472-8151/5	3472-8156
10	()		4가 79-1	677-1961	679-6287
11			61-3 1210	783-0151	783-0153
12			가 371-7 (053-424-1565 F 053-424-3113)	3281-6901/5	838-4067
13	()		105-67	717-3567	712-5150
14	()		6가 18-12	3398-2471	3398-2665
15	()		4가 260 B/D 701	924-4114	929-7337
16	()		52-1	337-7621	323-2536
17	()		2 516-12	653-0943	653-0946
18			300-83 24-403	792-3887	
19			4 466-18	852-2645	862-9270
20	()		25	707-2057-9	707-2039
21			161-7	703-6541	703-6549
22			2 417 3	3473-4331/2	3462-8757
23			B/D 13-31	737-1999	737-6631
24			B/D 4F 161-7	703-6541-7	703-6549
25	()		5가 8	679-2351	676-2821
26			33-33	714-0521-3	715-0521
27	()		97-1 B/D(6)	6230-1131	6249-4006
28			1 26 6 8	756-0109	773-5923
29			394-67	335-1541	336-2048
30			1 718-8	512-3578	512-3593

< >

31	()		271 15	776- 5621	773- 2993
32			739- 26 1 4	053- 422- 4056	053- 422- 4057
33			166- 6 5	333- 2800	332- 5977
34			485- 14 1	338- 8231- 2	338- 8233
35			6 4579	844- 0513	844- 6513
36	()		271 81- 2	795- 7200	798- 7780
37			30	732- 5100	732- 0834
38			232- 32	714- 0046	719- 2191
39			3	738- 7474/ 6	734- 8800
40			104- 6 107	735- 6189	737- 2260
41	()		271 55- 1	2279- 6621 2274- 0509	2271- 3980 2277- 2610
42			4- 1	745- 1161/ 5	745- 1160
43	()		1 636- 25	3664- 2131	3664- 2130
44			366- 32	338- 6273/ 4	338- 6275
45	()		260 471 701	924- 4114	9297- 337
46			6 4579	844- 0511/ 3	844- 8177
47	()		1623- 10	794- 9000 2588- 0789	2105- 2207
48	()		271 3 279- 39	461- 5588	461- 4700
49			2 3- 328	941- 5551	912- 6007
50			731- 5 4	932- 5151- 5	937- 4574
51	()		112- 2 B/D 5F	3670- 1201	3670- 1470
52	()		46- 1	733- 8152	732- 9154
53			2 360- 3 509	2231- 9001	2236- 9734
54			5- 104	704- 1616	715- 3536
55			237- 11 B/D 1	3446- 8161/ 5	3446- 0799
56	()		55- 5	744- 0033 745- 1976	953- 2236 922- 5975
57			343- 2 671	679- 3041 2637- 3566	2637- 3566
58	()		977- 1	2296- 8000	2299- 3396
59	()		180- 20	3305- 220	325- 5835
60			180- 20	3305- 220	325- 5835

< >

61	()		321- 1	338- 6011	338- 6017
62	()		가 60- 28	3282- 1610/ 3	866- 9309
63			3 486- 9	985- 1451- 6	982- 8679
64	()		B/D 3 925- 3	3487- 3290	3487- 3295
65	()		B/D 5 13- 31	730- 4527- 9	737- 6631
66			8 532- 1	866- 9088	864- 9668
67			680- 24	446- 5621/ 2	452- 7665
68			6 7- 2	738- 5118	733- 8998
69	()		6 7- 2	738- 5118	733- 8998
70			72- 201	467- 7331	467- 7333
71			1 289- 14	864- 2233	864- 0953
72	()		1338- 4	598- 8898	598- 6975
73	()		4 242- 11	3664- 9304	668- 4626
74	()		4 242- 11	3664- 9304	668- 4626
75			37가 190- 5	362- 1284	393- 5088
76			218- 2(2)	2203- 5501	2203- 5504
77	()		1361- 5	3472- 8151/ 5	3472- 8156
78			141	2234- 9627	2238- 2540
79	()		448- 10	2225- 5617	2225- 5619
80			7- 33	738- 6052	736- 7134
81	()		4 57가 11- 30	761- 0880	2633- 8998
82			7- 33	738- 6052	736- 7134
			82		

(8) (5 ())

(: /)

1997		723	1,230,120	21,690	24,826,483	17,264	38,940,488	39,677	64,997,091
		20	156,414	98	412,252	1	10,071	119	578,737
		724	1,845,180	-	-	-	-	724	1,845,180
		27	2,185,280	-	-	-	-	27	2,185,280
		1,494	5,416,994	21,788	25,238,735	17,265	38,950,559	40,547	69,606,288
1998		1,383	3,082,975	19,774	21,693,257	18,297	39,792,307	39,454	64,568,539
		32	254,642	76	312,162	-	-	108	566,804
		1,348	4,500,650	-	-	-	-	1,348	4,500,650
		33	2,777,830	-	-	-	-	33	2,777,830
		2,796	10,616,097	19,850	22,005,419	18,297	39,792,307	40,943	72,413,823
1999		1,608	3,746,174	17,419	19,682,364	16,504	36,898,945	35,531	60,327,483
		31	256,789	49	207,784	-	-	80	464,573
		1,463	5,107,266	-	-	-	-	1,463	5,107,266
		34	2,907,530	-	-	-	-	34	2,907,530
		3,136	12,017,759	17,468	19,890,148	16,504	36,898,945	37,108	68,806,852
2000		2,514	6,738,592	17,525	19,486,342	14,100	31,147,274	34,139	57,372,208
		43	410,260	54	224,887	-	-	97	635,147
		2,299	9,218,188	-	-	-	-	2,299	9,218,188
		36	3,218,480	-	-	-	-	36	3,218,480
		4,892	19,585,520	17,579	19,711,229	14,100	31,147,274	36,571	70,444,023
2001		1,272	3,916,220	19,300	29,376,068	13,641	28,908,097	34,213	62,200,385
		17	191,370	103	611,384	-	-	120	802,754
		1,153	5,317,174	-	-	-	-	1,153	5,317,174
		14	1,149,000	-	-	-	-	14	1,149,000
		2,456	10,573,764	19,403	29,987,452	13,641	28,908,097	35,500	69,469,313
		7,500	18,714,081	95,708	115,064,514	79,806	175,687,111	183,014	309,465,706
		143	1,269,475	380	1,768,469	1	10,071	524	3,048,015
		6,987	25,988,458	-	-	-	-	6,987	25,988,458
		144	12,238,120	-	-	-	-	144	12,238,120
		14,774	58,210,134	96,088	116,832,983	79,807	175,697,182	190,669	350,740,299

(9) ()

(: /)

3	1983		38		104	8,489	4,495,650	
					90	10	9,130	
					194	8,499	4,504,780	
4	1987		14		65	11,300	5,451,761	
					60	13	145,857	
					125	11,313	5,597,618	
			31		169	16,962	11,986,632	
					144	27	698,878	
					313	16,989	12,685,510	
					438	28,302	18,283,128	
5	1994		20		115	18,930	15,245,799	
					110	44	166,270	
					225	18,974	15,412,069	
			52		350	16,279	19,157,441	
					289	45	222,497	
					639	16,324	19,379,938	
					864	35,298	34,792,007	
6	2000		10		64	2,514	6,738,592	
					64	43	410,260	
					64	2,299	9,218,188	
					64	36	3,218,480	
					256	4,892	19,585,520	
			37		232	17,525	19,486,342	
					224	54	224,887	
					456	17,579	19,711,229	
					605	14,100	31,147,274	
							1,317	36,571

· : 2

3.

831- 11 6

· <http://www.kotri.re.kr>

(1)

.

(2)

< >

-

-

.

-

-

-

가

.

-

-

가

-

< >

- 가

-

-

(3)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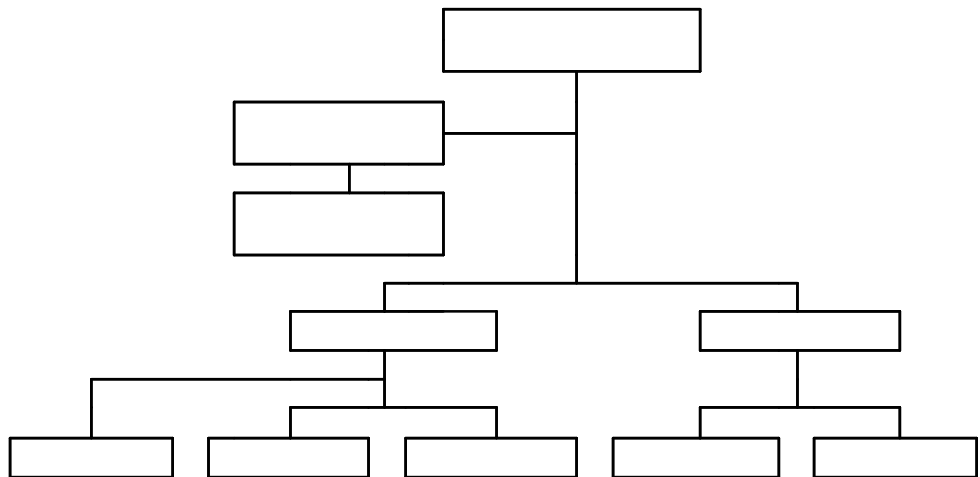
(())

(4)

:

(5)

- (2001. 1. 1)



- .

	1	2	1	3	4	4	3	153	171
	1	2	-	1	4	2	-	144	154
	-	-	1	2	-	2	3	9	17

(/)

- : 6/9 - : 135/ 140

-

- :
- : ,
- : , , , , , ,
- : ,
- : (), (), ()

(6)

1992. 5. 11 :
1992. 8. 12 :
 (: 633- 11)
1995. 2. 8 : 2
1997. 5. 6 : 3
1997. 5. 15 : (60- 11)
1997. 10. 21 : 4
1998. 1. 1 : ()
1998. 10. 1 : 2
1999. 1. 1 :
1999. 2. 25 : 5
1999. 9. 1 : (831- 11)
2000. 1. 1 : 3
2000. 9. 14 : (6)

(7) ('93 2000)

'93	· (·)	(/)
'94	· (, · , , , ,)	
'96	· () · .	(/)
'97	· · · ()	(/) (· /) (/)
'98	· · 가 · · 7 · · () · () · · · · ·	(/) (/) (· /) (/) (/) (/) (/) (/) (/) (/) (/) (/)
'99	· 7 2 · (5 · 6 1) · 2 · ·	(가 /) (() /) (가 /) (가 /) (· /)
2000	· · · · () · · (2)	(/) (/) (가 /) (· /) (/) (가 /)

· :

1. (1945 - 1947)

				27)	
1945					
1945	()	1, 2			
1946	()	3, 4			
1946	()	5, 6			
1945					
1946	()	1, 2			
1947	()	3, 4			
1946	()	5, 6			
1946		1, 2			
1946		3, 4			
1946		5, 6			
1946		1, 2			
1946		3, 4			
1946					
1946		1- 1			
1946		1- 2			
1946		2- 1			
1946		2- 2			
1946		3- 1			
1947		3- 2			
1946		4- 1			
1947		4- 2			
1946		5- 1			
1947		5- 2			
1946		6- 1			
1947		6- 2			
1947		4- 1			
1947		5- 1			
1947		6- 1			
1946		1			
1946		2			
1946		5			
1946		6			

: , 「 : 1948 1998」 p. 123, : (), 1998. 9.

27)

2. (1945 - 1947)

		.		28)	
1945					
1946					,
1946					
1947					,
1946					
1947					
1947					
1947	New Method English				
1947	Grammer Composition				
1947			,		
1947					
1947					
1947					
1947					
1947					
1947			,		
1946					
1946					
1947		1(.)			
1947		4()			
1947		1			
1947		2- 1			
1947		1			
1947		2			
1947		3			
1947		4			
1947					
1946		1, 2			
1947		3			
1947			,		
1947	(1)	3			
1947	()	1	,		
1947	()	2	,		

28)

		.			
1947	()	3	,		
1947	()		,		
1947		4, 5	,		
1947		4, 5	,		
1947					
1947					
1947	()				
1947					
1947		1			
1946					
1947					
1947					
1947	()	1			
1947	()	2			
1947	()	3			
1946		1			
1946		2			
1946		3			
1946		1			
1946		2			
1946		3			
1947					
1947			,		
1947					
1947					
1947	가				

: , 「 : 1948 1998」, pp. 103- 104, : (), 1998. 9.

3. 1 (1958. 2)

			56				9
			47				8
			43			"	8
			42				7
			38				6
		1가	34				6
			34			"	6
			34				4
		2가	27				4
			23				4
			23				4
			21				3
		"	20				3
		"	20			"	3
		"	19			"	3
		"	19			"	3
			19				3
			19				2
			19				2
			18			2	2
			17			"	2
			15			"	2
			15				2
			15				2
			12				2
			12				2
			12				2
		3가	12				2
			10			4	2
			9				2
			9				
			9			62	827

: 「 10 」, p. 113, : 2 , 1991.

4. 2 (1963 - 1967)

29)

	1963	1966	1967		1963	1966	1967
				()			
				()			

29) 1963 72 , 225 , 925 (1 , 1963. 5. p.185). 1965 12 가 , 1967 8 31 가 , 1969 6 가 , 1967 12 29 가 (40 , 1978, p.472). , 1958 3 27 . 1958 1 7 가 ().

	1963	1966	1967
()	(72)	(33)	(35)
	72	54	85

1963 :
1966 :
1967 :

()

1963

5. 3 (1978)

30)

1	()		1()	23			4(3)
2			3(2)	24			3(2)
3			2(1)	25			2(1)
4			1()	26			1()
5			6(5)	27			1()
6			1()	28			1()
7			2(1)	29			1()
8			2(3)	30			1()
9			4(3)	31			1()
10			4(3)	32			1()
11			3(2)	33			1()
12			1()	34			1()
13			4(3)	35			1()
14			7(6)	36			1()
15			8(7)	37			1(.)
16			3(2)	38			1(.)
17			9(8)	39			1(.)
18			3(2)	40			1(.)
19			1()	(40)		23	94
20			4(3)				
21			1()				
22			1()				

30) 1469 (1978. 8. 22) ‘ , 21 1979
2 ().
* , , .

6. 3 (1973)

31)

1.			25		2
1		4	26		2
2		7	27		1
3		11	28		1
4		6			22 79
5		5	2.		
6		4	1		1
7		2	2		13
8		3	3		1
9		3	4		1
10		2	5		2
11		3	6		12
12		2	7		1
13		2	8		1
14		6	9		1
15		2	10		2
16		2	11		2
17		1	12		1
18		1	13		1
19		2	14		1
20		1	15		1
21		1	16		2
22		1	17		3
23		1	18		1
24		1	19		1

31) , 「1973 : , pp. 1 21 ().

1. : 1973. 2. 1

2. : 265 , 「 . . 」

283 .

3. : 105 ()

4. : 1973 1978 , 1977 3 ‘

* ‘ , .

20		2	26		4
21		2	27		3
22		3	28		3
23		1	29		4
		26 55	30		9
3.			31		1
1		2	32		1
2		1	33		1
3		13	34		1
4		5	35		1
5		4	36		3
6		6	37		1
7		1	38		1
8		4	39		2
9		2	40		1
10		4	41		1
11		4	42		2
12		1	43		1
13		6	44		1
14		15	45		1
15		1	46		1
16		2			22 135
17		2	4.		
18		1	1		5
19		6	2		2
20		1	3		1
21		1			7 8
22		5			
23		1			
24		3			
25		1			

5. 가		
1		1
2		1
3		1
4		2
5		1
		5 6
(105)		82 283

7. 4 (1983)

1		6	13		4	25		12
2		4	14		3	26		5
3		22	15		2	27		1
4		23	16		7	28		10
5		2	17		5	29		2
6		1	18		1	30		2
7		3	19		5	31		1
8		1	20		2	32		2
9		39	21		1	33		2
10		6	22		5	34		1
11		5	23		2	35		1
12		2	24		5	36		1

: 2

1. (83-23): '84 (1983. 7. 29)

· : 6 65

· : 22 169

* 「 」

2. 2 , 4 가 36 .

8. 5 (1988-1989)

-
- : 1988. 7. 28
- : 1989. 3. 14

1	()				28	()			
2	()				29	()			
3	()				30				
4					31				
5	()				34				
6	()				33	()			
7	()				34	()			
8					35	()			
9					36				
10					37				
11	()				38	()			
12	()				39				
13					40				
14	()				41	()			
15					42				
16					43				
17	()				44	()			
18					45				
19					46	()			
20	()				47				
21					48				
22					49				
23					50				
24					51	()			
25					52				
26					53				
27	()							20	52

9. 6

- 1996. 10. 15 1998. 12. 4
- 1994. 8. 8
- 1995. 9. 30 1996. 6. 11

1	()						36						
2	()						37						
3	()						38 ()						
4							39 ()						
5	()						40						
6	()						41						
7							42 ()						
8	()						43 ()						
9	()						44						
10							45						
11	()						46						
12	()						47 ()						
13							48						
14							49 ()						
15	()						50 ()						
16							51						
17							52 ()						
18							53 ()						
19							54						
20	()						55 ()						
21							56						
22							57						
23	()						58						
24							59						
25							60						
26							61 ()						
27							62 ()						
28	()						63						
29							64 ()						
30							65 ()						
31							66						
32							67						
33	()						68 ()						
34													
35	()									10	37	54	3

10. 7 (2000 - 2001)

-
- (1) : 2000. 9. 18 11. 30
 - (2) : 2001. 7. 26
 - : 2001. 7. 20

			1		2 ()				1		2 ()	
1 ()									32 ()			
2 ()									33			
3 ()									34 ()			
4									35			
5 ()									36 ()			
6 ()									37			
7									38 ()			
8									39 ()			
9 ()									40			
10									41 ()			
11									42			
12 ()									43 ()			
13 ()									44			
14 ()									45 ()			
15 ()									46			
16									47 ()			
17									48 ()			
18									49 ()			
19 ()									50			
20									51 ()			
21 ()									52			
22 ()									53 ()			
23									54			
24									55			
25									56 ()			
26 ()									57			
27									58			
28									59			
29 ()									60			
30												
31										31	9	28 44

• ,
() ,
.
< > 가

	()			
	1945. 9.22 1945. 9.30 1946. 9.20 1946. 9.20			○ ○
1	1954. 4.20 1955. 8. 1 " " " "	35 44 45 46		○
2	1963. 2.15	119 120 121		○ • ('72) • ('69)
3	1973. 2.14 1973. 8.31 1974.12.31	310 325 350		○ • ('73) • ('73) • ('73)
4	1981.12.31 " " " "	442 " " " "		○ ○ ○ 1, 2
5	1987. 3.31 1987. 6.30 1988. 3.31	87-7 97-9 88-7		○ ○ ○ ○ ○
6	1992. 6.30 1992. 9.30 1992.10.30 1995.11. 1	1992-11 1992-16 1992-19 1995-7		○ • 가 , • , , , • •
7	1997.12.30	1997- 15		○ • • • •

: , 「 7 」 p. 16, . : , 2001.

1.

207 (1969. 2. 19)

32) ,「 」,pp.15 16, : , 1998. 12.

200 , 3 (180)
 , , , ,
 .
 가
 .
 ,
 , 5 ,
 , 가 .

2.

254 (1969. 12. 11)

.
137 (), 139 (), 138 (),
152 (), 71 (), 169 (), 171 ()
,

.
가 ,

.
가 ³³⁾ ,

.
[]

1.

.
, , ,
.

33) , 「 10 , 1) ‘ , .

		1		2		3	
		270	315	220	280	220	280
		105	140	95	140	95	140
		205	245	190	245	190	245
		105	140	95	140	95	140
		105	140	65	140	65	140
		35	70	35	70	65	105
		35	70	65	105	35	70
				95	140	95	210
.		70		70		70	
		70		70		70	
		1,000	1,085	1,000	1,190	1,000	1,190

170 .

1 40 .

1,000

1

1,000

8

2.

3. .

가

,

.

,

가

.

.

.

가

,

,

,

가

가

.

,

.

.

.

.

.

.

.

,

.

4.

가

.

가

.

“

”

.

,

,

,

,

가

가

.

,

.

1970 3 1

.

3.

254 (1969. 12. 11)

·
 137 (), 142 (,), 152 (),
 71 (), 178 ()
 1 3 ,
 ·
 가 ,
 · 가
 34)
 ·

·

[]
 +
 []

1.

·
 , · ,
 ·
 170 , 1 45 ·
 , 1,000
 1 ·
 , , ,
 , ,
 1 1 , 2 1, 2
 ·

34) : , 「 11
 1) , ,

1

		1		2		3	
		150	210	150	210	140	210
		70	140	70	140	70	140
		90	140	90	140	80	140
		70	140	70	140	70	140
		60	105	60	105	70	140
		60	105	40	70	40	70
		40	70	50	105	40	70
	· 가	250	400	260	400	280	400
		70	105	70	105	70	105
·		70		70		70	
		70		70		70	
		1,000	1,260	1,000	1,260	1,000	1,260

2.

· , · , · , · , · , · , · , 가 , 9

·

·

,

·

,

· 가

,

,

,

,

,

,

, 가

3

·

,

,

,

,

, 가

·

2	. 가					
	1		2		3	
	105	175	105		105	
, , , , 가	145	225	155	295	175	295
	250	400	260	400	280	400

, ,
 .

3. . 35)

4.

1970 3 1 .

35) 3. ‘ . ’, 4. ‘ ’

4.

286 (1971. 8. 24)

1

1 ()

()
,
가

- 1.
 - 2.
 - 3.
- 가

2

- 1.
- () ,

1

[:]

	1	2	3
	35(1)	35(1)	35(1)
	105(3)	70(2)	70(2)
	105(3)	70(2)	70(2)
	35(1)	35(1)	35(1)
	105(3)	70(2)	70(2)
	385(11)	280(8)	210(6)

: 286 (1971. 8. 24) 14 .

2

[:]

	1	2	3
	105(3)	70(2)	
	105(3)	70(2)	
	105(3)	70(2)	70(2)
	315 385 (9 11)	529 595(15 17)	735 805 (21 23)
()	175 210 (5 6)	175 210(5 6)	175 210 (5 6)
	805 910 (23 26)	910 1,015(26 29)	1,980 1,085 (28 31)
	1,190 1,295 (34 37)	1,190 1,295 (34 37)	1,190 1,295 (34 37)

3

1. , .
2. ,
가.
 , , , ,
 ,
 , , , ,
3. , ,
 , ()
4. 35 1 45
5. 75% , 78%
6. , ,
7.
8. ,
 ,
9. 가 가
10. 5% , 가
 .

5. , , ,

35 (1954. 4. 20)

1

1 , , ()
2 .
3 .
(年)
4 .
(日課表)
5 (2部)
가 , 가
3 2
6
1
1.
2.
3.
4.

2

7 (1)
8 1
(分)
9 40 2
2
10 35
11 4

3

12 (2) . , (3)
13 50 . 9 .
14 35
15 30%
16 ,
17 (揭記) 70
18 8 .

4

19 (4) .
20 13 , 15 16 .
21

22

23

1

5

24 (5) . ,
(6) .
25 23 .
26 ,
가 , , 2 .

1954(4287)
1955(4288)
1954(4287)

(1)

[: %()]

	1	2	3	4	5	6
	25 30 (240 290)	25 30 (250 300)	27 20 (290 220)	20 23 (220 260)	20 18 (240 220)	20 18 (250 220)
	10 15 (100 140)	10 15 (100 150)	12 15 (130 160)	15 10 (170 110)	15 10 (180 120)	15 10 (190 120)
	10 15 (100 140)	10 15 (100 150)	15 12 (160 130)	15 12 (170 130)	15 12 (180 140)	15 12 (190 150)
	10 8 (100 80)	10 8 (100 80)	10 15 (110 160)	13 10 (140 110)	10 15 (120 180)	10 15 (120 190)
	18 12 (170 120)	15 12 (150 120)	15 10 (160 110)	10 12 (110 130)	10 12 (120 140)	10 12 (120 150)
	12 10 (120 100)	15 10 (150 100)	8 10 (190 110)	8 5 (90 60)	8 5 (100 60)	8 5 (100 60)
	10 8 (100 80)	10 8 (100 80)	8 10 (90 110)	7 10 (80 110)	10 8 (120 100)	10 8 (120 100)
				8 10 (80 110)	7 10 (80 110)	7 10 (90 130)
	5 2 (50 20)	5 2 (50 20)	5 8 (50 80)	5 8 (60 100)	5 10 (60 120)	5 10 (60 120)
	100 (960)	100 (1,000)	100 (1,080)	100 (1,120)	100 (1,200)	100 (1,240)
1	840 (24)	875 (25)	945 (27)	980 (28)	1,050 (30)	1,085 (31)

: 1.

1

2. ()

(2)

[:]

		1	2	3
		140(4)	140(4)	140(4)
		140(4)	105(3)	105(3)
		175(5)	175(5)	140(4)
		140(4)	140(4)	105(3)
		70(2)	70(2)	70(2)
		70(2)	35(1)	35(1)
		70(2)	35(1)	35(1)
	가	175(5)	175(5)	175(5)
		980(28)	875(25)	805(23)
	가	35 245(1 7)	35 245(1 7)	35 245(1 7)
		105 175(3 5)	105 175(3 5)	105 175(3 5)
		0 105(0 3)	0 210(0 6)	0 280(0 8)
		70 105(2 3)	70 105(2 3)	70 105(2 3)
		1,190 1,330(34 38)	1,190 1,330(34 38)	1,190 1,330(34 38)

: ()

.

(3)

()

[:]

		1	2	3
		140	140	140
		140	105	105
		175	175	140
		140	140	105
		84	84	84
	가	84	84	84
		763	728	654
	가	42 252	42 252	42 252
		105 175	105 175	105 175
		42 322	42 357	42 431
		1,008 1,260(24 30)	1,008 1,260(24 30)	1,008 1,260(24 30)

: ()

.

(4)

		1	2	3		
	()		140(4)	140(4)	140(4)	.
			105(3)	105(3)	35(1)	, ,
			35(1)	35(1)	35(1)	,
			104(4)	105(3)		.
			140(4)	-	-	1 , 2 , , , ,
			140(4)	-	-	, , ,
			35(1)	35(1)	35(1)	(). , ,
			140(4)			, , , , , , ,
	. 가		105(3)	105(3)	105(3)	. 가
			770(22)	490(14)	420(12)	.
	()		105(3)	105(3)	105(3)	, , , , , , ,
				195(3)		.
			105(3)		-	.
				105 210(3 6)		()
				70 140(2 4)		()
			140(4)			, ,
			140(4)			, ,
			140(4)			, , ,
			140(4)			, , , , , , ,
			140(4)	140(4)	140(4)	.
	.		-	210(6)		, , , , , , ,
			0 210(0 6)			, , , ,
			0 175 (0 5)	0 175 (0 5)	0 175 (0 5)	, , , , , , ,
						, , , , , , ,
						.
			0 420 (0 12)	0 700 (0 20)	0 770 (0 22)	
			70(2)	70(2)	70(2)	
		1190 1365 (34 39)	1190 1365 (34 39)	1190 1365 (34 39)		

[] ()

(5)

[:]

		1	2	3	
		140 175 (4 5)	105 175 (3 5)	70 175 (2 5)	, , .
		105 175 (3 5)	105 140 (3 4)	70 105 (2 3)	, , , , .
					.
		315 420 (9 12)			, .
					, , .
					가 .
					.
					, , .
			350 420 (10 12)		, .
			35 70 (1 2)		.
		105 175 (3 5)	70 175 (2 5)	70 175 (2 5)	.
		105 175 (3 5)	105 140 (3 4)	70 105 (2 3)	, , .
		70 140 (2 4)	70 140 (2 4)	70 140 (2 4)	.
		70 140 (2 4)	70 140 (2 4)	70 140 (2 4)	.
가		70 140 (2 4)	70 140 (2 4)	70 140 (2 4)	가 , .
		70 140 (2 4)	70 140 (2 4)	70 140 (2 4)	, .
		70 140 (2 4)	70 140 (2 4)	70 140 (2 4)	, .
		140 175 (4 5)	105 175 (3 5)	70 175 (2 5)	, , , , , 1 .
		35 105 (1 3)	35 105 (1 3)	35 70 (1 2)	
		1,190 1,365 (34 39)	1,190 1,365 (34 39)	1,190 1,365 (34 39)	

: ()

(6) ()

[:]

		()	
		70 140 (2 4)	
		70 105 (2 3)	
		70 140 (2 4)	
		70 105 (2 3)	
		70 140 (2 4)	
		105 175 (3 5)	
		105 175 (3 5)	
		70 140 (2 4)	
		70 140 (2 4)	
		245 350 (7 10)	
		1,260 1,365 (36 39)	

: ()

36)

- 1.
- 2.
- 3.
- 4.
- 5.
- 6.

36) , 「 」 , pp. 132 135 , : , 1958.

6.

35 (1958. 6. 5)

1.

가
가
가
가
35
37)
4 3
38)
4 4
4 3
30%
(...)
4 4

37) : , 「 (1958. 6). pp. 1 12 (1954. 4. 20. 35)

38) 117 , 가 , 1958 6 5 35 22 , 117 30% () 1963 2 15 2

39)

()

		1	2	3		
		665(19) 140(4) 70(2)	385(11) 140(4) 70(2)	315(9) 140(11) 70(2)	1,365(39) 420(12) 210(6)	, , , , , , () 35 4)
		875(25)	595(17)	525(15)	1,995(57)	
	가	35(1) 70(2) 35(1) 105(3) 70(2)	70(2) 70(2) 105(3) 70(2) 70(2)	35(1) 35(1) 105(3) 35(1) 70(2) 70(2) 70(2)	35(5) 175(5) 105(3) 315(9) 107(5) 70(2) 70(2) 70(2) 70(2)	() () ()
		315(9)	385(11)	385(11)	1,085(31)	
		0 175 (0 5)	210 285 (6 11)	280 455 (8 13)	490 1,015 (14 29)	
		1,190 1,365 (34 39)	1,190 1,365 (34 39)	1,190 1,365 (34 39)	3,570 4,095 (102 117)	

2. 76 (1958 6 5)

, , _____, ,
22

4 3

4 4

1

315

, 2 3 385

39)

, 가 , , ().

3. (4 4) . 40)

1)

	, , , , , 가 , , ,
	, , , , , , 가
	, , ,가 , 가 , ,
	, , , , , , ,
	, , , , , , (蠶體) , , ,
	, 가 , 가 , (藥理) , , , , (造園), , , , .
	, 가 , 가 ,

40) .

	8	58	
	23	123	
	1	12	
	3	18	
가	6	46	
	41	257	

2)

(1)	， ， ，
(2)	， ， ，
(3)	， ， ， ，
(4)	， ， (機器)
(5)	， (機織) ，
(6)	， ，
(7)	， ， ，
(8)	， ， ， ， ，
(9)	， ， (選鑛)， ，
(10)	， ， ， ，
(11)	， ， ， ，
(12)	， ， ， (爐) ，
(13)	， ， ， ， ，
(14)	， ， ， ， ，
(15)	， ， ， ，
(16)	， ， ， ， ，
(17)	， (油脂)， ， ， ， ， ， ，
(18)	， ， ， ， ，
(19)	， ， ， ， ， ，
(20)	， ， ， ， ， ，
(21)	， ， ， ， ， ， ， ，
(22)	， ， ， ， ， ， ， ， ， ，
(23)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
	, , (浮游) , , (陸水),

5) 가

가	, 가 , , , 가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6)

	가 (歌唱), , , (), (가 ,), , ,
	, , , , , , (彫塑), , , , , , (, ,)
	, , , , , , , , , , , ,

7-1. (,)

- (1967. 4. 15. 181)
- 5, 6

1 () “ 155 1 ,
(‘ , .) ”
2 () “ 1 .
2 .
3 4 .” ,
4 “ 5 6 .”
()

41) ,

1 3 .
()
4 6 .

1 [:]

		1	2	3	4	5	6
		5.5	6 7	5 6	5 6	5.5 6	5 6
		3 4	3 4	2.5 4.5	4 4.5	4 5	4 5
		2 3	2.5 3.5	4 5	4 5	4 5	4 5
		2 2.5	2 2.5	3 3.5	3 3.5	3 4	3 4
		2.5 3	2.5 3	2.5 3	2.5 3	2.5 3	2.5 3
		2.5 3	2.5 3	2.5 3	2.5 3	3 3.5	3 3.5
		1.5 2	1.5 2	1.5 2	1.5 2	1.5 2	1.5 2
					1.5 2	2.5 3	3 3.5
.		1	1	1	1	1	1
		20 24	21 25	23 27	25 29	27 31	27 31
(%)		5 10	5 10	5 10	5 10	5 10	5 10

41) (,), 5, 6 (1967. 4. 15).

2

[:]

		1	2	3
		4 5	4 5	4 5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2 3	2 3	2 3
		1 2	1 2	1 2
		1	1	1
	. 가	7 9*	8 12*	9 14*
		3 5	3 5	3 5
.		1	1	1
		30 35	30 35	30 35
(%)		8	8	8

*‘ . 가 ’

3

.

3

()

	24		2 4
	6		2 4
	4		2 4
	8		4 6
	4		4 6
	12		2 4
	6		12 24
	6		
	70		3 26 46
		96 116	

	6 10		
	6 12		
	8 12		
가 ()	6 12		
	20 46		50 96
	96 116		
	204 222		
(%)	5 10		

4 [:]

		1	2	3	4	5	6
		8 10	9 10	9 10	9 10	9 10	9 10
		3 4	3 4	3 4	3.5 4.5	4 5	4 5
		2 2.5	2 3	3 4	3 4	3 4	3 4
		1 1.5	1 1.5	2 2.5	2 2.5	2 3	2 3
		1 1.5	1 1.5	1 1.5	1 1.5	1 1.5	1 1.5
		2 3	2 3	2 3	2 3	3 3.5	3 3.5
		2 2.5	2 2.5	2 2.5	2 2.5	2 3	2 3
					1.5 2	2 3	2 2.5
.		1	1	1	1	1	1
		20 24	21 25	23 27	25 29	27 31	27 31
(%)		5 10	5 10	5 10	5 10	5 10	5 10

5 [:]

		1	2	3
		6 8	6 8	6 8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2 3	2 3	2 3
		1 2	1 2	1 2
		2 3	2 32	1 3
	. 가	6 8*	7 11*	8 13*
		3 4	2 3	2 3
.		1	1	1
		30 35	30 35	30 35
(%)		8	8	8

* . 가

3 .

6

()

	36	.	2 4
	6		2 4
	4		2 4
	8		4 6
	4		4 6
()	12		4 6
	6		8 12
	76		3 20 40
	96 116		

	6 10		
	6 12		
	6 8		
	4 8		
	4 6		
가 ()	6 10		
	26 46		50 90
	96 116		
	204 222		
(%)	5 10		

7-2. ()

334 (1974. 1. 31)

334 ‘ [1974. 1. 31]’
 () , 2 4
 6 2 ⁴²⁾
 ()

() [:]

	140(4)	245 (7)	70(2)	175 (5)	35(1)	140 (4)
	70(2)		70(2)		35(1)	
	35(1)		35(1)		70(2)	
	175(5)	525 (15)	175(5)	700 (20)	210(6)	910 (26)
					105(3)	
	70(2)		70(2)		140(4)	
	35(1)		105(3)		70(2)	
			70(2)		105(3)	
	105(3)		105(3)		105(3)	
			70(2)		70(2)	
	140(4)		105(3)		105(3)	
	35(1)		70(2)		70(2)	
	805(23)		945(27)		1,120(32)	

42) , () , 1974. 1.

7-3. (,)

83- 13 (1983. 12. 31)

- ‘ 가 ’ ‘ 가 ’ 2 , ‘ 가
, . . (‘ ’) , ‘ 가
, (가) .⁴³⁾
- 가 2 (1, 2, 3)
(4, 5, 6) , ‘ ’ , , , , 5
.

1 (가) [:]

		(1, 2, 3)	(4, 5, 6)
		680(20)	340(10)
			204(6)
			238(7)
		68 204(2 6)	68 204(2 6)
		748 884(22 26)	850 986(25 29)

43) 83- 13 [1983. 12. 31]
1, 2, 3, 4 , 1985
3 1 . , “ 424 [1979. 3. 1] 5(
,) 6() 6 2() 1985 2 28
.” [, 9633 , 9].

2
(가) [:]

		136(4)
		136(4)
		102(3)
		68(2)
		68(2)
		120(3)
		340(10)
34 68(1 2)		
68(2)		
1,054 1,088 (31 32)		

3
(가) [:]

		120(3)
		120(3)
		120(3)
		68(2)
		68(2)
		102(3)
		476(14)
0 68(0 2)		
68(2)		
1,088 1,156 (32 34)		

: , 「 」 , , : , 1983. 12.

4 (가) [:]

(1, 2, 3)				(4, 5, 6)			
		374 (11	408 (12)			374 (11	408 (12)
		204 (6	238 (7)				
		204 (6)				238 (7)	
		782 (23	850 (25)			918 (27	986 (29)
		0 (0	68 (2)			0 (0	34 (1)
						68(2)	
		782 (23	918 (27)			986 (29	1,088 (32)

▪ () , , 3 , .

3 5
가 .

▪ , ‘ 가 ’ 4 .

5 가
 44)
 가
 6
 7
 ,
 ,

5 () [:]

		1	2	3	4	5	6
		374(11)	374(11)	68(2)	68(2)	68(2)	68(2)
				238(7)	204(6)	204(6)	204(6)
				102(3)	102(3)	136(4)	136(4)
		204(6)	136(4)	136(4)	136(4)	170(5)	170(5)
			68(2)	102(3)	136(4)	136(4)	136(4)
		136(4)	170(5)	68(2)	68(2)	68(2)	68(2)
				68(2)	68(2)	68(2)	68(2)
				68(2)	68(2)	68(2)	68(2)
					68(2)	68(2)	68(2)
		714(21)	748(22)	850(25)	918(27)	986(29)	986(29)
		68 (2)	68 (2)	68 (2)	68 (2)	68 (2)	68 (2)
					34 (1)	34 (1)	34 (1)
		782 (23)	816 (24)	918 (27)	1,020 (30)	1,088 (32)	1,088 (32)

44) , 「 , : , 1984.

6

()

[:]

			1	2	3	
가			68(2)	68(2)	68(2)	
			136(4)	170(5)	170(5)	
				68(2)	68(2)	
			102(3)	68 102(2 3)	68 102(2 3)	
			136(4)	102 136(3 4)	102 136(3 4)	
			136(4)	102 136(3 4)	102 136(3 4)	
			68(2)	68(2)	68(2)	
			68(2)	68(2)	34(1)	
			68(2)	68(2)	34(1)	
			34(1)	34 68(1 2)	34 68(1 2)	
	()		136(4)	102 170(3 5)	102 170(3 5)	
	가		()	68(2)	102 170(3 5)	
			가 ()			
			, , , , 가 ,			1 2 170 238(5 7)
				0 34(0 1)	0 34(0 1)	0 34(0 1)
				1,020 1,054(30 31)	1,020 1,088(30 32)	1,020 1,088(30 32)
			68 (2)	98 (2)	68 (2)	
			68 (2)	68 (2)	68 (2)	
			1,156 1,190 (34 35)	1,156 1,224 (34 36)	1,156 1,224 (34 36)	

		6				
	(,)	16 16	14 18	8 10	3 8	
		6(4)				
	(,)	4 6(2 1)	4			
	(,)	4 6 1	4			
		(2 6) 1	2			
		2(2) 1				
	(,)	8 14	6 8	10 18	4 18	
	(,)	4 6 1		4		
	(,)	4 6 2		4		
	(,)	4 6 1		4		
	(,)	4 6 1		4		
		6 8	8 10	8 10	4 8	
		4 6 1	1 1	1 1	1 1	
		4 6 8 10	4 6	4 6	2 6	
	(,)		8 14	4 6	4 6	
	(,)	8 10	14 16	14 16	6 16	
			1 1	1 1	1 1	
			10 12	10 12	6 10	
			1 1	1 1	1 1	
			8 10	8 10	4 8	
			1 1	1 1	1 1	
			8 10	8 10		
			0 8	0 8	0 8	
		90 94(64 76)	90 116	90 116	10 38	82 122
			184 196			
		8				
		12				
			204 216			

8.

286 (1971. 8. 24)

1

1.

45)

2.

1.

1 , 2

, 3

2.

1

	1	2	3
	가	가	가

1 2
1 2

45) , 5961 (1971. 9. 27), 12 「 , 」

3.

- [illegible]

$$2 \qquad \qquad \qquad [\quad : \quad]$$

	1	2	3
	200 600	400 1,200	600 1,800
	600 1,200	1,200 2,400	1,800 3,600
	1,000 1,500	2,000 3,000	3,000 4,500

- 가. 1 1,000 1,500 .
 . 1 45 , , 45
 .
 .
 50% .

4.

1. 80% .
2. 60
3. 80% . , 1 2 , 1 3 2 3
4. , 가
5. , .
6. , .

1972 3 1 , 1972 1 .

9.

286 (1971. 8. 24)

1

1.

46)

,

.

2.

1

, 2 , 3

.

,

.

1

	1	2	3
	<div> }</div> 1	<div> }</div> 1	<div> }</div> 1 <div> }</div> 1
	가	가	가

46) , 5861 (1971. 9. 27), 13 「 」 , .

1 2

1. : , , (가), (가), , , ,
가 ,

3. $\frac{1}{2} : \frac{1}{3} = \frac{1}{2} \times \frac{3}{1} = \frac{3}{2}$, $\frac{1}{2} : \frac{1}{4} = \frac{1}{2} \times \frac{4}{1} = 2$, $\frac{1}{2} : \frac{1}{5} = \frac{1}{2} \times \frac{5}{1} = \frac{5}{2}$

4. : , , , , ,

5. 가 : , , , , , , , ,

	1	2	3
	200 600	400 1,200	600 1,800
	600 1,200	1,200 2,400	1,800 3,600
	1,000 1,500	2,000 3,000	2,000 4,500

4.

- 703 -

10.

37 (1976. 2. 23)

- 379 (1976. 2. 23) ‘ ,
⁴⁷⁾ 15 1976 3 1 (1).
 < 1> .

1

[:]

			1	2	3
			70(2)	70(2)	70(2)
			140(4)	105(3)	105(3)
				35(1)	70(2)
			70(2)	70(1)	70(2)
			105(3)	105(3)	105(3)
			105(3)	105(3)	105(3)
			35(1)	35(1)	35(1)
			35(1)	35(1)	35(1)
			35(1)	35(1)	35(1)
()			105(3)	105(3)	105(3)
(), 가			70(2)	70(2)	70(2)
			35(1)	35(1)	35(1)
			105(3)	105(3)	70(2)
			70(2)	70(2)	70(2)
		()	105(3)	105(3)	105(3)
			70(2)	70(2)	70(2)
		()	140(4)	140(4)	140(4)
			1,295(37)	1,295(37)	1,295(37)
			70 (2)	70 (2)	70 (2)

47) , 「 , , : , 1976. 2.

11.

404 (1977. 2. 28)

- 404 (1977. 2. 28) 48) 1 .

1

		6	.	2 4		6		68 114
		14		2 6		6		
		4		2 6		6		
	.	2		2 6		6		
		8		2 6		6		
		6		2 6		6		
		12		2 6		6		
		6		2 4				
				2 4				
			(' , , , , , 1 2)	6 24				
			()					
			가 ()					
	58		8 52		42		68 114	
	96 110				110 156			
204 222								
	12							

48) , 「 , , : , 1979. 2.

12. 「 2 . 1 」

1997- 12 (1997 12 12)

155 1 「2・1」 49)

1

1.

가.

)

가

(104)

(105

$$r_{2 \cdot 1} =$$

27 6 , .

6 (

1992- 19)

2.

가. 6

•

$$[2 \cdot 1 \quad]$$

3.

가.

•

가

 $[1].$

6

가

가

4

49) , 2.1 1997-12 (1997. 12. 12).

4.
가.

[1]

1.	(6)		
2.	(10)	(4), (4), (6), (4), (8)	
3.		(6)	
4.	(8)	(8), (10), (10)	
5.	(8) (6)	(4), (4), · (4), (6), (6)	
6.	(8)	(4), (4), (4), (4)	
7.	(8)		
8.		(6)	
9.	(4)	1	
10.	(4)		(8), 가 (8), (6), (6), (6), (6), 가 (6), (6), · (6)
11.	· 가		(8), (6), (6), (6), (6), (6), (6), (6), (6), (6)
12.	(8)		(4), (4), (4), (4), (4), (4), (4), (4)
13.			
14.	(4)		
			72
			12 16

1 50 1 (17) .

(12 16) 8 12 , 4

[2]

	1.	85.
	2.	86.
	3.	87.
	4.	88.
	5.	89.
	6.	90. 가
	7.	91.
	8.	92.
	9.	93.
	10.	94.
	11.	95.
	12.	96.
	13.	97.
	14.	98.
	15.	99.
	16.	100.
	17. 가	101.
	18.	102.
	19.	103.
	20.	104.
	21.	105.
	22.	106.
	23.	107.
	24.	108. .
	25.	109. .
	26.	110.
	27.	111.
	28.	112. .
	29.	113.
	30.	114. .
	31.	115.
	32.	116.
	33.	117.
	34.	118.
	35.	119. .
	36.	120.
	37.	121.
	38.	122. .
	39.	123.
	40.	124.
	41. .	125.
	42. .	126.
	43.	127.
	44.	128. .
	45. .	130. . 가
	46. .	131.
	47.	132.
	48.	133.

	49. 50. 51. 52. 53. . 54. 55. 56. 57. . 58. 59. 60. 61. 62. 63. 64. . 65. . 66. .가 67. 68. 69. 70. 71. 72.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83. 84.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142. 143. .
	56	60
	116	

1 17 .
, , .
가 .
[2] , 6
.
, , , .

2 . . 가

가.

< . >

. .

(68)

(56)

(8 12)

가

.

. , , . . .

가, 가, ,

.

< >

. .

, 3

204

(72) 가 68

2

,

가

,

2 2

,

56

.

,

6

50%

， ， ， 4

< >

3 6 6 9

[2]

[2]

(72) 가 4 (68)

60 (1020)

4 (68)

< >

「2・1」

< >

< >

. 가

 $\langle \cdot \rangle$ $\langle \quad \rangle$ [illegible]

가 . 가
, .
< >
가
. 가 , ,
. 가 ,
. 가
, , 가 가
. 가 ,
. 가 가
, , 가
. 1999 3 1 .

13.

· 187 (1968. 1. 25 · ·)

187 ‘ [1968. 1. 25. ,]’

· , “ 2 5 ” , “

7 ”

· , “... ,

· ” 50)

(5

) 1 126 162(360 3

5 45%) .

· , 198 234(360 55%) ,

360(324) , 34 38 .

· , 3% () .

207 [1969. 2. 19.] ‘ ’ 가 .

1

	20		4 8
	4		2 4
	4		2 4
	4	(‘ , , , ’)	6 4
	4		
	16		
(‘ , , , ’ , 1)	12		4 26
			2 4
	16	(‘ , , 1 , 2 , ’)	6 26
	4		
	24	가	4 8
	108		18 54

: , (1968. 1. 25)

50) 5 가 , 5 가 , 5 가

가 , 5 가

1970 1 1 2175 2 .

14.

310 (1973. 2. 14)

▪ 310 ‘ (1973. 2. 14)’

51)

128 6

가

7 2

1

, 122 134(152 80%) 152(137) 36 40

404 (1977. 2. 23)

2

1

	4		2 4
	4		2 4
	4		2 4
	6		4 10
			4 8
			2 4
		(‘ , , , 1 , 2)	4 14
	18		0 12
18 30 (24 44, 3)			

51) , 6376 , 7 2(1973. 2. 14) , (, 1973).

2

	4		2 4
	4(6)		2 4
	2		4 10
	4		4 8
	6		2 4
		(‘ , , , , , , 1 2)	4 10 (4 20)
	20(22)		0 10 (4 22, 3)

3

	18 30	12 20	122 134	80 88	152	137
	24 44	20	184 204	80	228	205

2 152 2 137 . 137
 152 (137)
 .
 가
 . 20 : 80
 . , 50%
 , 4 .

15.

1962 3 1
⁵²⁾ 1962
 1962 1964 1 , 1969
 1960
 110 (42, 51, 15- 18) 1964 1
 100 (30, 58., 12) , 1969 2 74
 (35, 49, 10)

가. 1962

1962

가

가

가

: , ‘ pp. 1 2.(1964 3),
 52)

2 (708

1961 9 1) 6 1962 3
 10 ()가 1961 12 12 1

1962 3 8
 가 100 , 1962 1 12 13 (2) ,

1962 1 22 26 5

(試案)

5

가 ,

가

가

: 40%, 45%

: , , , , , (6)

. 1964

1962

가

. , 1962

가

가 1964 2

26

1964 3

1964 3

- : 1962
- :
- :
- :

: 30%, 58%

: 12%

100

1 (17) 1 ,

23 29

10

2

(1964)

	6 2 3 2 3 10 5 6 6 2 2 4	102 170 102 34 34 68
	30	510

3

(1964)

	6	102
	6	102
	3	51
	2	34
	6	288(48 1)
	4	68
	4	68
	4	68
	4	68
	4(6)	102
	5(7)	119
	5(7)	119
	5(7)	119
	58(66)	1,308

4

(1964)

	10	170
	2	34
	12	204

. 1969

1969 2 19

207

1969

3 1

53)

53) 5181 (1969. 2. 19)

가

54)

가 .

, 가

가 , 가
가 .

54) 1969 1970 34 , 60 , 94 . 1970 () , 1971 (1971 2
19 , 274) , 1974 1 31 (334)
1974 1 31 4 가
가 가
(가 ‘ , ’가
).

5 2		(1969)	
			6 3 5 2 4 6 2(4) 4(8) 2
			34(10)
			4 5 3 2 2 2 2(3) 3(4) 5(7) 4(6) 5(7) 3 8
			48
			<div> <div> 1 6 </div> </div>
			<div> <div> 2 6 </div> </div>
			12
			60
			94(100)

‘ : 207 , () , ‘ , () .

•

- . 4 (1981 1987)
- . 5 (1987 1992)
- . 6 (1992 1997)
- . 7 (1997 2001. 10)

. 4 (1981 1987)

1981.12.31	<p>. 442 “</p> <p>”</p> <p>* :</p> <p>* : 180</p> <p>. 442 “</p> <p>”</p> <p>* : 34 , 1·2 :</p> <p>. 442 “</p> <p>”</p> <p>* .가 , 1·2</p> <p>“ ”, “가 ”,</p> <p>3 “가 ”(5 7</p> <p>)</p> <p>* (0 1)</p> <p>. 442 “</p> <p>”</p> <p>* .</p> <p>, ,</p> <p>. .</p> <p>* :</p> <p>() ,</p> <p>,</p>	1982. 3. 1	<p>. , 1 (</p> <p>)</p> <p>* 2 83</p> <p>. , 4 (1·2)</p> <p>1 (多教科 1教科書).</p> <p>* 「 1 」(3), 「</p> <p>」(1·2), 「 」(1</p> <p>), 「 」(1·2)</p>
		1982. 3.10	KEDI , “
		1982. 3.20	10769 「
		1982. 4. 1	(82- 17) “2
			* : 「 」 5 ,
			: 「 」 22 (,
			1 가)
			* : 1
			* :
			‘ ,
			* : ’83. 1. 31
1982. 1. 1	<p>. , 「 」 「</p> <p>」 35 , 1</p> <p>(’86; (),</p> <p>()) 「</p>	1982. 6. 5	, “ ” ()
1982. 1.19	, 「 」	1982. 6.24	, 「 」 22
1982. 2.19	, ‘ ,	1982. 7.12	, 「 」 「
	가	1982. 7.20	KEDI , “
			”
			* Editorial Design

* 1 3 「 (1) 」

().

1982. 7.26	가(8. 1) 2	1983. 7.29	2 , 4 가
1982. 8. 2	“ , ”		36 (83-23) “84
1982. 8. 3	, (), “ ”		* : 6 65 , : 22 169 * “ ”
1982. 8.18	“ ”	1983. 8. 5	2 (14) , * : 4 , : 10
1982. 8.30	, 1983 . . * “ ”	1983. 8.17	“ , ” , 2
1982. 9. 8	, “ ”	1983. 8.31	, 1984 “ ” (6)
1982. 9.17	, “ 4 2 ” “ ”	1983.11. 2	“ , 1984
1982. 9.22	, “ ”	1983.11.28	, “ 가” (
1982.10.28	, “ 가 ”	1983.12.31	· 83-13 “ ” () · 83-13 “ ” (. .) * 1, 2, 3, 4
1982.11.23	, KEDI “ ”	1984. 1.13	84-1 “ ”
1982.11.26	, “ ”	1984. 1.30	, “ ” ()
1982. 11.	KEDI(), “ ”	1984. 2.10	· , () 9 · , . 877 (
1982.12.31	· 3635 “ ”	1984. 2.14	161) , “ ”
	· KEDI “ 1 ”	1984. 3.30	NHK “ ” 15
	141	1984. 5.12	, “ ” (85. 2. 15)
1983. 1. 1	· . . . (.) “ ”	1984. 7. 7	2 () 14 (’84. 9. 1)
1983. 4. 1	, 1984 “ ” “ ”	1984.12. 7	가 “ ”

1984. 9. 7	” , “ 「 」	1986.	가 : (1987)
1984. 9. 9		1986. 5.30	가 , 「
1985. 3. 1	(KEDI, TV	1986. 8.	」 (.),
1985. 3. 7	11657 , “		“ ”
1985. 3. 7	” (’85. 3. 18 32	1986.11.21	2 (4 7)
1985. 7.18) 「 」		2 , 2
1985. 7.24	(2)		(11. 24) ”
	2 , 2	1986.12.31	* “2000 3916 “ ”
	* (3)	(1987 1992)	
1986. 1. 7	85- 11 “ ”	1987. 1.	(. . .)
1986. 2.19	, 5 (. .)		* , (
1986. 2.20	KEDI (1987. 1.13	29 (
1986. 2.	, 「 」 2		* (
(1986. 3.)			
		1987. 1.28	* 2 ()
			(,
		1987. 2	가 , 「 」 3 (
			1989)
		1987. 3.31	87- 7 “
			”
			* “ ”, “가 ”, “ . 가 ”
		1987. 4. 6	87- 8 “ 2
			”
			* : 8 (
			. . 1 2
		1987. 4.20	2 , 3
			(4. 26;
			3)
			* 2
		1987. 6.27	2 , 3
			(6. 29)
			* ”
		1987. 5. 3	2 , “
			(5. 23)

1987. 6.10	* KEDI, “		* : 「 」 39
1987. 6.27	”		* : 5
	2 , 3	1988. 5. 9	* (88. 5. 10)
	(6. 29)		2 , 4
1987. 6.30	* 87-9 “		* 가 2
	”		* : 4
	* 1 (1988. 6.25	. , 「 」 ()
): 6 11 (. 2 , 5
	1 , , , , ,		(6. 27)
	, , , , ,		* (
1987.11.17	, , 「)」 (-	1988. 6.30) 2 , 「 」
1987.12.10	1 - 3)		* ()
	· KEDI,		* 가
	, , 21		가
	(88. 12)	1988. 7.25	8 , 「
	· KEDI, 「 」 (1988. 7.28	」 , 「 」 8 45
1987.12.17	. . , .)		(: 264)
	()	1988. 8.22	12508 “
1988. 1.19	. 88- 1 “ ”		”
	. 88- 2 “ ”		* 19 (): 2
1988. 2.	. 6		8
	(1)	1988. 9.17	(10. 2)
	18		* (
	:		4)
	(1988.10.30	(), 「 」 (’48
	, 30%) (1992)		’83)
1988. 3	· KEDI,	1988.12. 1	5
	「 」 10	1988.12.28	2 , 「 」
	. “	1989. 2.	「 , 「 」 () 3 ,
1988. 3.31	* 88-7 “ ,	1989. 3.14	「 , 「 1 , 「 2
	”		, 2 1
	* .		* : 273 (「 」 39)
	* “ ” ,		* : 513 ()
	* “ ”	1989. 5.	“
	88-7 “ 2		157
1988. 4.20	”	1989. 5.23	* 157 : ,
			(): ,

1989. 6.16	2 , 6	1991. 1.21	2 5 2 (3. 23) * : 465 (47) * : 16
1989. 8.29	* 2 (1991. 2. 1	(KEDI), (2) 「 」 13 (14),
1989.10.22	TV (8) “ ” (1991. 2.11	· () * (130)
1989.11.15	2 , ,) * (가) (1989. 11)	1991. 3. 7	2 “ ” , 1 () : 2 (1991. 9. 27(28) ;
	1·2 1 2	1991. 3.27	
	146 · 146		
	28 99 127		
	445 336 781		
	619 435 1054		
	* 1 : 600 * :		
1990. 2.21	2 , 5 (2. 24)		(1991)
1990. 7. 1	가 , (6), 가 (1) 13		
1990. 7.20	가 , 가 ,		
1990. 7.25	“ ”		
1990. 8.17	KEDI, (1991. 3) *		
1990. 9.10	473 “ ”		
1990. 9.12	2 , 「 」 ()		
1990. 9.14	36 「 」		
1990.12. 7	2 , 7		
1990.12.15	* 2 가 가 , 「 」 (· · 3), : () , 「 」 1 91		
1991. 1. 1	“ ” (1 1)		

		. 6 (1992 1997)	
1991. 6.	KEDI, 7 5 ()	1992. 6.30	1992- 11 “ ” * 21 * “ .가 ” 8 2 “ ” ”, “가 ” 1992. 8.12 () () 1992. 8.29 1992- 13 “ ” 1992. 8.31 1992- 14 “1995 2 ” * : 「 」 10 * : * : 1994. 1. 31 1992. 9.30 1992- 15 “ ” 1992- 16 “ ” * : , , * : 9 (1·2 5) 1992.10.15 (25140-982), (. ·2) · 2 , 12 (10. 17) * 6 1992. 10 , “ ” * , , , 1992.10.30 1992- 19 “ ” * 21 , , , , * 1992- 20 “ ”
1991. 6.14	2 , 9 * 6		
1991. 6.27	· · (6 · ·)		
1991. 6.31	2 , 「 (. · ·) 」		
1991. 9.27	500 , “ ”		
1991.11.22	2 , 10 (11. 23) * (, ,)		
1991.12.23	(6 , 1) 「 」		
1992. 1.27	2 , (6 ()) * 2 () *)		
1992. 2.11	4 “ ”		
1992. 3. 6	13602 “ 가 ”		
1992. 3.31	, 3 () * 1 : 1984 , 2 : 1990		
1992. 5. 1	2 , 11 (5. 2) * 6 (, , , , , ,) 224 “ 가 ”		
1992. 5.29	“ 가 ”		
1992. 5.30			

1992.11. 5	(),	1993. 7.	“ (9) “ ()”					
1992.11.12	“ ”		()					
1992.11.27	(1989. 5. () 가 157)	1993. 8.	(.)					
1992.12. 4	92- 31 “ ”		“ ”					
1992.12. 8	4529 “ ”	1993. 8.20	, 1 (2 11. 16)					
1992.12.21	(1992- 19), “1996 2 ”	1993. 9.	* , (.), (4)					
	* : 58 (: 54, : 5)	1993.10.28	2 , 14 (10. 29)					
1992.12.22	: 1995. 1. 20 2. 4 , ’93 ()	1993.11.	* 2 (.)					
1993. 2.12	(.)	1993.12.19	: 가 (. 47가)					
1993. 3.	“ ”		, 6					
1993. 4.12	2 , 13 (4. 14)	1993.12.30	(UR, , 2 (’94. 1.20).					
1993. 4.22	2 , UNESCO 가		, 「 」 「 」					
1993. 5.17	“ ”		, 2					
1993. 5.28	, 1995 가		1993 (2)					
1993. 6.	“ ”		115 18,348,400 18,255,992 110 46,110 43,303					
	* 1994. 1. 7 , 5	1994. 1. 6	350 15,944,100 16,352,275 289 47,950 45,455					
		1994. 2. 5	465 34,292,500 34,608,267 399 94,060 88,758					

1994. 2. 3							1994. 7. 8						
1994. 2.24							1994. 8. 2	2 ()					
1994. 2.26							1994. 8. 8	, 6 2					
1994. 3.15	, 2 1						1994. 8.22	* : 88 (232) * : 80 (224) : 168 (456) * : 36					
	* 「 」 9 88 * : 244 (70)							, . 「 」, 25					
1994. 3.26	“ , ” *							1994. 8.31 , “ ” ()					
								* 4·19 4 * 5·16 5·16					
1994. 4.17	「 」 9						1994. 9.10 9. 28						
1994. 4.27	68 ()						1994.11. 7	, 6 '96 (가) * 500 4·6					
1994. 5. 3	가 가 「 」						1994.11.15 12. 5	, “ ” KEDI (
1994. 5.12	, “ ”, (ISO) “							, (
1994. 5.20	2 , 2 ()							(KEDI , 320)					
1994. 6.16	* (6. 18)							1994.11.19	2 “ 16 ”				
1994. 6.21	, .(92)						1994.12. 3	, () * 가 ()					
1994 2 (94. 6. 30)													
	115	18,867,390	18,866,524	110	43,970	41,942							
	350	16,332,020	16,322,520	280	45,200	40,441							
	465	35,199,410	35,189,044	399	89,170	82,383							

1994.12.31	· · · · · · · (5 , 19 , 18)) (2·3 ,)	1. ’93 ’95 ’95. 1.30	
		1993	1994
-		1,443	704
		1,448	134
		-	2,000
-		13,576	-
		-	200
		2,410	2,351
		2,675	2,320
		1,864	639
-		-	30,304
		-	250
		950	824
-		1,328	-
		1,708	1,759
1-6		1,118	701
1-6		-	-
-		-	-
		1,291	995
-		-	-
		337	984
		3,695	2,203
		-	500
		408	407
		766	786
-		4,341	3,103
		931	1,573
		2,032	573
-		62	-
-		3,419	2,260
1995. 1.16	(1995- 1), 2		
*	:		
1995. 1.16	(1995- 1), 2		
1995. 1.16	(12)		
1995. 1.16	· ’95		
*	()		
	가		
	(
,	,		
*	.) (1 2		
	, 가)		
*	. (
	, ,)		
1995. 1.19	(1992- 13 , 1992 8		
29), “ ”		
1995. 1.20	· 2 (76)가		
	“ 2		
	” 1 .		
*	1		
*	.		
*	.		
	(1,000)		

1995. 2.11	· (81152- 146), “ 2 ” · * : 2 59 * : · * · 1995. 2.21 · “ ” · “ ” * 1994. 6. 16 6. 18 94. 11. [] 10·19 4·19 4·19 10·1 1995. 2.24 · , '97 , 3 6 2 * * '97 1995. 2.28 · 14,541 “ ” * 19 () , 22 () , 2 8 () , 6 3 1995. 3. 1 · , “ ” * 1995 : 32 “ 2 6 2 · , ” 1995. 3. 2 · 15 “ ” · 4 (1)		· 15 1 3 “ ” 1995. 3.24 · () “ ” 1995. 3. · , 6 “ 2 ” * 1994. 6. 16 6. 18 94. 11. 1995. 3 6 · , NIE(Newspaper in Education) · 1995. 4.18 · KEDI, 5 (, , · , 가 ,) * () - 1995. 5.25 · , 1995 “ (創氏改名) ” 1995. 5.29 · , “ ” · 1995. 5.31 · , “ ” * * * * * * · “ ” · * * * * * ·
------------	--	--	--

1995. 6. 6	* 가 * * GNP 5% '97		* : 「 」, 「 」, 「 」 5 '98
1995. 6. 9	「 」 「 」 「 KEDI ,	1995. 7.20	* : 「 . 」, 「 '99 「 , 「 」 11 * 1996 3
1995. 6.12	* '99 가 '97 「 -		* * 1 (. .) * * 3 *
1995. 6.17	KEDI , “ 2- 1 ”	1995. 7.24	10 1995. 8. 3 “ (奈良) ” 「 」
1995. 6.28	, '97 5 6 「 」 「 」 가 , 3 「 」 ()가 , 「 」		1995. 8. 5 . 81152-771(95. 8. 5) 2 1 * 1 310 240 * 786 (58) 1 62% 487 , 38% 299 * 가 1995. 8. 11 「 , 「 」 * 55 , 1995. 8. . (學部)가 「 100 .
1995 (95. 6. 30)			
	158 20,998,710 20,623,295 150 83,570 81,050		
	350 17,105,966 17,203,018 289 41,100 38,586		
	508 38,104,676 37,826,313 439 124,670 119,636		
: 2 「 23 」			
1995. 7.15	, , 6 1 2 「 , 3 6 「 1997 “ ” , '97 * : 「 」 '97 「 」 「 」 8 2000		

1995. 9.18	<p>* 「)가 」 (,</p> <p>가 10 ,</p> <p>. 1895 8 .</p> <p>2 1</p> <p>(53) “</p> <p>2 ” (,</p> <p>)</p> <p>*</p> <p>*</p> <p>*</p> <p>*</p>	1995.10.16 25	<p>「)가 」 가 .</p> <p>() 가 .</p> <p>1995.11. 1 . (1995- 7),</p> <p>*</p> <p>(3 6</p> <p>2)</p> <p>* 1997 3</p> <p>1995.11.15 .</p> <p>*</p> <p>1995.11.23 . (1995- 53), 1997</p> <p>2</p> <p>() .</p> <p>* : 3 6</p> <p>* : 1996. 7. 2 7. 3(3</p> <p>)</p> <p>. (1995- 53), 2</p> <p>*</p> <p>: 51</p> <p>* : 1996. 4. 30</p> <p>*</p>																																																												
1995. 9.28	<p>,</p> <p>「 , 」</p>																																																														
1995.10. 2	<p>. , 6</p> <p>2 (1995- 39</p> <p>, 10. 7).</p> <p>* 53 , 483</p>	1995.12.19 12.20	<p>. : 2</p> <p>. :</p>																																																												
1995. 10. 6 10. 31	<p>. 2 (53</p> <p>) “</p> <p>”</p> <p>* 10 10 (. ”</p> <p>) “</p> <p>「 」</p> <p>*</p>	1996. 1. 6	<p>6</p>																																																												
1995.10.21 11. 3	<p>. 2</p> <p>「 」</p> <p>* : 4·6 , 2 ,</p>		<table><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1</td><td></td><td></td><td>1996</td><td></td><td></td></tr><tr><td>2</td><td>”</td><td></td><td>”</td><td></td><td></td></tr><tr><td>3</td><td>”</td><td></td><td>”</td><td></td><td></td></tr><tr><td>4</td><td>”</td><td></td><td>”</td><td></td><td></td></tr><tr><td>5</td><td>”</td><td></td><td>”</td><td></td><td></td></tr><tr><td>6</td><td>”</td><td></td><td>”</td><td></td><td></td></tr><tr><td>7</td><td>”</td><td></td><td>”</td><td></td><td></td></tr><tr><td>8</td><td>”</td><td></td><td>”</td><td></td><td></td></tr><tr><td>9</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1			1996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			1996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illegible]

	* 1995.11.15 . 「 . 」						1996. 8. 4 . ’53 1997 . * (. , , , , , , , ,)
1996	2 (’96.6.30)						1996. 8.19 , 1997 . . ‘ ’()
							1996. 8.20 . , “ 3 ‘ * * * * *
	195	21,738,390	21,302,680	194	89,990	88,804	1996. 8.28 . KEDI (. . 2000) * (10) *
	785	16,331,780	16,212,004	156	13,080	15,267	1996. 9.10 . , , ‘ * 323 (981) 151 (301) ’97. 1. 1 * 가 , 가 .
	980	38,070,170	37,514,684	350	103,040	104,071	1996. 9.13 . , 1 (10) 「 」
: 2 「 26 」							
1996. 7. 5 . (15,113) , . * , . * , 가 , * . 가							1996.10.15 , (8 12)
1996. 7.18 . 1 * 97 3 (, ,) * (33 45 (45 14 1) * 30 , . 20 6 ()							
1996. 7.20 8. 3 (KOEX) * 15 , 25 , 16 * , ,							
1996. 7.31 「 , 」 ,							

1996.12	5 , . (1992. 2. 11) 「 」 " . () () 4 10 「 」		* 가 6 22 () : 가
1997. 1.13	(5273 , 1997. 1. 13) * 1997. 2.11 (, 「 15273), (2) * 1997. 2.26 (, ‘ 546 , 1997. 2. 26) * 1997. 3. 1 3 * 1997. 3.27 (5316 , 1997. 3. 27)	1997. 3 1997. 5.26	가 1. 3 가. : 1997. 2. 12 : 5 6 : 1997. 4. 4 (3 4) : 1997. 7. 1 7. 10 2. 4 가. : 1997. 7. 2 : 11 16 : 1997. 10. 15 (11 15) 3. 4 가. : 1997. 10. 15 (1 1) : 1997. 11. 28 () 「 12. 1 2」 , 1998 12. 12 5. 18 가 * 1997 5 25 「 12. 1 2」 「 5. 18」

6						
()						
		()				
1	, , , (,), , , , , , <13 >	146	76	222		
2	(3 6) <1 >	4	4	8		
	1 <1 >	15	15	30		
		165	95	260		
: , 1998. 4. 16, 「 1·2 ()」, p. 3						
1997. 6. 2	4					
1997. 6.20	(87)					
	가					
	-					
	가					
	가					
1997 2 (6. 30)						
()	16	740,600	713,192	16	22,750	20,276
()	16	723,600	690,973	16	96,490	27,383
	232	21,168,500	21,359,129	224	97,480	96,817
	885	17,633,385	17,535,020	82	1,700	3,523
	1,149	40,266,085	40,298,314	338	218,420	187,573
: 「 29 」, p. 156, : 2 , 1997. 12.						
1997. 8. 5 ()						
'85			2 2	9		11
'86			1 1			1
'87			2 2			2
'88			1 1			1
'89			8 8			8

'90	40		3	43		13	56
'91			3	3		14	17
'92	25		2	27		10	37
'93	21		6	27			27
	86		28	114	9	37	160
'94	40	5	2	47			47
'95	110	9	18	137			137
'96	150	3	25	178		8	186
'97	10	1	5	16			16
	310	18	50	378		8	386
	396	18	78	492	9	45	546
: 「 28 」, p. 133, 1997. 8.							
1997. 8.13	, “ ”						
1997. 8.22	· 1995						
	(200)						
1997. 8.25	2						
	가 (5344 , 1997. 8. 22)						
1997. 9.24	가						
	(EBS)						
1997.10.24	3						
	가						
	21						
	: 2						
	가						
	21						
	() 50						
	(가)						

		. 7 (1997 2001 10)	
1997.12.12	<p>, 2·1 (1997- 12) * 155 1 「 2·1 」 1999 3 1 (56) (60) 1949 12 31 , ‘ , ‘ , 1. (5437 , 1997. 12. 13) · 1 () : 가 · 21 () : 가 2. (5438 , 1997. 12. 13) · 1 () : 9 · 29 () : 가가 가 · 322 () : 4.</p>	1997.12.30	<p>, . (1997- 15). 1. : 21 2. (10) · 2, 3 · · · 가 · · 3. - 2000. 3. 1 : 1, 2 - 2001. 3. 1 : 3, 4 , 1 - 2002. 3. 1 : 5, 6 , 2 , 1 - 2003. 3. 1 : 3 , 2 - 2004. 3. 1 : 3 4. 1998. 3 2001. 12 5. 1998 2002</p>
		1998. 1. 2	<p>, IMF 1998 2 (20 38) 1998. 1.23 () · 1992. 8. 12 · · () () ·</p>

[illegible]

1998. 6.30	<p>* , , , (: 23 2).</p> <p>· : 1998- 10 (6. 30)</p> <p>· : 1998- 11 (6. 30)</p> <p>· : 1998- 12 (6. 30)</p> <p>1. : , 2000 , 2002</p> <p>2. : (3-5)</p> <p>· : 10</p> <p>· : 1 , 3 , (: 1 : , ,).</p>	1998.12.12	<p>: 10. 29 11. 7(10)</p> <p>: 가</p> <p>: 1,300</p> <p>, 1·2 (1998- 17)</p> <p>1.</p> <table><tr><td>1</td><td>2</td><td></td></tr><tr><td>: 23</td><td>: 33</td><td></td></tr><tr><td>: 22</td><td>: 32</td><td></td></tr></table> <p>2.</p> <table><tr><td>1</td><td>2</td><td></td></tr><tr><td>: 15</td><td>: 66</td><td></td></tr><tr><td>: 20</td><td>: 48</td><td></td></tr></table> <p>.</p> <table><tr><td></td><td>1</td><td>2</td></tr><tr><td>가</td><td>40 19 112 36 31 15 80 5</td><td>8 1</td></tr><tr><td></td><td>: 338</td><td>: 9</td></tr></table> <p>: 7</p> <table><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180g/m²</td><td></td><td>· ,</td></tr><tr><td></td><td></td><td>70g/m²</td><td>· , , ,</td></tr><tr><td></td><td>240g/m²</td><td>80g/m²</td><td></td></tr><tr><td></td><td></td><td>120g/m²</td><td>· , ,</td></tr><tr><td></td><td>220g/m²</td><td>70g/m²</td><td>· 「2」</td></tr><tr><td></td><td></td><td>80g/m²</td><td>· 「4」</td></tr></table> <p>: ()</p>	1	2		: 23	: 33		: 22	: 32		1	2		: 15	: 66		: 20	: 48			1	2	가	40 19 112 36 31 15 80 5	8 1		: 338	: 9										180g/m ²		· ,			70g/m ²	· , , ,		240g/m ²	80g/m ²				120g/m ²	· , ,		220g/m ²	70g/m ²	· 「2」			80g/m ²	· 「4」
1	2																																																													
: 23	: 33																																																													
: 22	: 32																																																													
1	2																																																													
: 15	: 66																																																													
: 20	: 48																																																													
	1	2																																																												
가	40 19 112 36 31 15 80 5	8 1																																																												
	: 338	: 9																																																												
	180g/m ²		· ,																																																											
		70g/m ²	· , , ,																																																											
	240g/m ²	80g/m ²																																																												
		120g/m ²	· , ,																																																											
	220g/m ²	70g/m ²	· 「2」																																																											
		80g/m ²	· 「4」																																																											
1998. 7.15	<p>· 가 7 15</p> <p>· 92 124</p>	1998.12.																																																												
1998. 9.29	<p>, (81155-335) “ ”</p> <p>(477</p> <p>1998. 10. 1).</p>																																																													
1998.10.28 (1998. 11. 25)	<p>()</p> <p>· 가 가 1</p> <p>· 가</p>																																																													
1998.10.29	<p>1</p> <p>: ()</p>																																																													

1998.12.15	· , · (2002 2002) * · 1. 12 10 2. · · 3. , , , · 4. 7 · , 2 · ·					
				()		()
				1,921,000		1,487,000
				1,864,000		1,827,000
			(7)	1,566,000		1,920,000
			()	1,566,000		1,729,000
				2,041,000		1,921,000
			·가	1,717,000		2,883,000
				1,721,000		
			*	1	1	·
1998.12.31	, 7 2 (2001 · ·) 1. · (65) : 1 (25), 2 (20), 3 (20) · (125) : (116), (9) 2. · 2 20 3. · 1999. 3. 22 3. 27 가 4. ‘ , 20 5. ‘ , 18 [1]	1999. 1.18	· , 1 · (12.6) : 8,030 · (13) : 15,810 · (13.6) : 24,430 1999. 2. 9 · , 1800 (1972 가 ·) 1999. 2. 9 · , ‘ , , · ·			

	· · · 가 1999. 5. 4 , 1999 1 · : 가 · 8 · 1) : 10 74 (12) 2) : 5 29 (7) 3) : 6 117 1999. 6.28 () , 2 · : 1999. 6. 28 7. 3 · : () () · : 2,750 (, , , , 1999. 7. 1 , ,) (1999- 18) 1. · : 1999. 7. 1 2000. 12. 31 · : , , · : 10,000 2.	2000. 1 2000. 3. 2 2000. 3.14 2000. 3.22 2000. 4.11 2000. 5. 8 2000. 5.13 2000. 7. 7 2000. 7.28	(가), ‘ 7 2 , * 1 (1. 24 31) (, 9. 20) · , · 가 () ·) 가 () 가 , 1 2 1 (520- 35) · : 34 · : 105 (: 6, : 6, 가 : 26, : 7, 가 : 12, : 8, : 7, : 7, : 13, : 7, : 3, : 3) 2000- 23 , ‘ , , , , 2000 1 · : 가 · 1) : 2 8 2) : 16 92 () 70) 3) · · : 3 , ‘ (ICT) 81160- 302) , (2000- 8) * 84 (, , ·
--	---	---	---

2000. 9. 1	2 (),		· : 79
			44 (35)
	·		· : 50% (378
	·		188)
	·		· : 33
	·	2001. 3.22	, ‘
2000. 9.18	, 「		(· · 10
	」).
	·		* 5
	- 가 :		·
	- : 2		2 5
	1 ,		·
2000.10.20	, 「 7	2001.	4 3 :
	」	4. 10.	· 4 :
	· 7		· 10 :
			(19)
	, 가		· 11 :
	- : 7		, 98
	- : , 가		· 12 :
	가		· 19 :
	- : ,		‘ ,
	(4,529)		· 26 :
	- :		· 27 :
	,		· 30 :
	,		5 3 :
	,		· 7 :
	,		· 8 :
	* : 2,199		6 5 :
	* : 1 270		(9 75)
2001. 1.18	, 가		· 12 :
	* 2001 1 (1		71 125
)		
	: 8,510		
	: 16,800		
	: 24,720		
	* : 2,199		
	* : 1 270		
2001. 1.19	, 2 1		
	: 29		
	; 78% (115 90)		
2001. 1.19	, 1		7 9 :
			35
			,

	<div>• 10 : , ‘</div> <div>8 15 : 0.5%</div> <div>• 27 :</div> <div>10 15 : () ,</div> <div>2001. 4.20 ‘</div> <div>* 1 64 . .</div> <div>가 가</div> <div>TV</div> <div>2001. 5. 2 3</div> <div>(1)</div> <div>* 가 가</div> <div>2000. 3. 1 ()</div> <div>1</div> <div>23</div> <div>4</div> <div>: 2001. 9. 3</div> <div>2001. 5. 4 , 1</div> <div>(2001-32).</div> <div>* 28</div> <div>1</div> <div>1. : 7</div> <div>2 3 1</div> <div>(389)</div> <div>: 18</div> <div>() : 33</div> <div>() : 338</div>		<div>2.</div> <div>3</div> <div>70 , 300%</div> <div>10</div> <div>3.</div> <div>200 7</div> <div>3</div> <div>(1)</div> <div>*</div> <div>2000. 3. 1</div> <div>3 6 , , 2</div> <div>23</div> <div>4 : 2001. 6. 8 2001. 10. 7</div> <div>, 1</div> <table><tr><td></td><td></td><td></td><td></td></tr><tr><td></td><td>2 6 2</td><td>1</td><td>112 36</td><td>157</td></tr><tr><td></td><td>6 2</td><td>4</td><td>80</td><td>92</td></tr><tr><td></td><td>3 6</td><td>-</td><td>19 39</td><td>64</td></tr><tr><td></td><td>4</td><td>가 1 5</td><td>가 31</td><td>41</td></tr><tr><td></td><td>8</td><td>2</td><td>15</td><td>25</td></tr><tr><td></td><td>4</td><td>-</td><td>5</td><td>9</td></tr><tr><td>6</td><td>38</td><td>13</td><td>337</td><td>388</td></tr><tr><td colspan="5">:</td></tr></table>						2 6 2	1	112 36	157		6 2	4	80	92		3 6	-	19 39	64		4	가 1 5	가 31	41		8	2	15	25		4	-	5	9	6	38	13	337	388	:				
	2 6 2	1	112 36	157																																											
	6 2	4	80	92																																											
	3 6	-	19 39	64																																											
	4	가 1 5	가 31	41																																											
	8	2	15	25																																											
	4	-	5	9																																											
6	38	13	337	388																																											
:																																															

2001. 8. 8	(30) · , , · 10 20 · (3) · 5 (2002: , , 2003: ,)	2001.10.23 10. 28	· · 5 가 · , 4 · () · (12 , 5,469 ,)
2001.10.23 10. 28			

20 , 「 20 」, : , 1967. 11.
 , 「 7 」, : , 1997. 1998.
 , 「 」, '95. 2 . '96. 8 , : , 1995. 2, 1996. 8.
 , 「 」, : , 1996. 1.
 , 「 」, : , 2000. 12.
 , 「 」, 2001. 3. 2001. 10.
 , 「 」, : , 1997 2000.
 , 「 10 」(1952 1962), : , 1962. 12.
 , 「 」, : , 1998. 12.
 () , 「 」(1948 1983), : , 1988. 10.
 (), 「 40 」, : , 1987. 12.
 40 , 「 40 」, : , 1988. 6.
 , () 「 」(1 6), :
 , 「 」(1973 , 1975), : , 1973. 5, 1975. 4.
 , 「 」, 1997. 7.
 , 「 」, : , 1960. 6.
 , 「 」, : (), 1991.
 5 ‘ ’ 「 2 」, : , 1983. 2.
 「 」,
 () 「 」, : , 1969. 9.
 (), 「 」(1945 1973), : , 1974. 7.
 , 「 」(1972 1988), : , 1989. 6.
 , 「 10 」, : , 1983. 8.
 , 「 」, : , 1979. 12.
 , 「 」 「 」, : ,
 1982. 12.

. ,「 J (. .), : (), 1990. 12.
 30 ,「 30 J , : , 1980. 12.
 2 (),「 J () , : 2 . , 1981. 12.
 2 ,「 J , : , 1992. 9. 1997. 8.
 2000. 12.
 2 , ,「 J (36), : 2
 , , 1988. 2 2001. 6.
 ,「 J , : (), 1994.
 ,「 J (.), : , 1976. 11(), 1980. 7
 ,「 J , : , 2000. 12.

•

1.

<p>·</p> <p>(1997. 12. 13) 5438</p> <p>2 2000. 1. 28. 6209</p> <p>4</p> <p>1</p> <p>29 () 가가</p> <p>가</p> <p>· · · ·</p> <p>가</p> <p>·</p> <p>2</p> <p>32 () ·</p> <p>·</p> <p>4.</p> <p>·</p> <p>(1998. 2. 24) 15664</p> <p>4 2000. 2. 28. 16729</p> <p>4</p> <p>1</p> <p>55 () 29 2</p> <p>·</p> <p>2</p> <p>63 () 31</p> <p>·</p>	<p>(“ ”)</p> <p>(“ ”)</p> <p>” .)</p> <p>·</p> <p>(1998. 8.11) 15864</p> <p>48 2000. 8. 1. 16932</p> <p>44 ()</p> <p>가 .<</p> <p>99. 12. 31></p> <p>1. 78 2</p> <p>2. (“ ”</p> <p>) 36</p> <p>(“ ”)</p> <p>가. 36 1</p> <p>, ,</p> <p>· 36 2</p> <p>· 37</p> <p>· 38 1</p> <p>· 38 2</p> <p>·</p> <p>3. · 29</p> <p>· 가 ·</p> <p>·</p> <p>·</p>
--	--

“ ”) 16 27 3

. 18 1 27 4 .

. 23 2

$$\begin{array}{r} 23 \quad 3 \\ 27 \quad 3 \end{array}$$
$$\begin{array}{ccccccc} & & 23 & & 3 & & \\ & & & & & & \\ & 18 & & 1 & & 27 & 4 \\ & & & & & & \\ & & & & & & \end{array}$$

4. $\frac{21}{2}$ 1

23 3

1

28

. < 99. 12. 31>

<p>·</p> <p>(1990. 9. 10 473)</p> <p>1</p> <p>1 () 30 , 32 33</p> <p>2 ()</p> <p>1. “ ” 32 1</p> <p>2. “ ” () , ()</p> <p>3. “ ” 81 4 8</p> <p>4. “ (“ ”)” ()</p> <p>3 () , () , ()</p> <p>2</p> <p>4 ()</p> <p>1. 2. ,</p>	<p>3. () ·</p> <p>4.</p> <p>5. ()</p> <p>6. ·</p> <p>,</p> <p>5 () ()</p> <p>· ·</p> <p>2</p> <p>,</p> <p>() ·</p> <p>() ·</p> <p>6 ()</p> <p>4</p> <p>1.</p> <p>2.</p> <p>3. ·</p> <p>가</p> <p>,</p> <p>가</p> <p>가</p> <p>3</p>
--	--

7 ()	1 7 , 2
1.	3 ()
2. . :	2. :
3.	2 1 8 ,
8 () 7 1	3. 4
()	4
.	12 ()
,	()
9 ()	4
.	, 1
2	, ()
,	가
()	1 가
10 ()	13 ()
가	12 1
가	()
가	가
2	12 2
가	가
11 ()	()
1.	,

14 ()	1
15 ()	5
16 () ()	19 () 3
() ()	(1990. 9. 10. 473)
가 ()	6
2 3	1991
가 ()	
17 ()	
가	
18 ()	
가	
가	

가

$$\begin{pmatrix} 1991. & 5. & 8. \\ & 213 & \end{pmatrix}$$

1992. 7. 28. 227

가. 가 (), 가 가
가 : 가 가
가 : (), 2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frac{\text{가}}{\text{가}} \div \frac{\text{가}}{\text{가}} = \frac{\text{가}}{4}$$

1) 가 .

3) (가)

) • 4/1 4/0 4/4
 • 5/0 1/0 - 4/0
 (4/0 +)
 • 5/5 1/1 - 4/4
 (4/4 +)
 • 8/8 1/1 - 4/4
 가 가 , 4/4 2

가. 가
() 2 ()
()

2) 가

가

1)

1

2)

1

.)

)

1)

▪ 1/3

30%

▪ 2/3

50%

▪ 2/3

100%

2)

“ , , ”

▪

가 1/2

▪

가 가

2/3

▪ (,)

가 2/3

▪ “ , , ”

▪

:

가

1/3

▪

:

()

가 1/3

3.

가.

▪ (가)

(4 × 6 , ,)

가

▪

8	16 2
	90%
10	8 3/4
16	16 90%
18	16 3/4
25	16 2/3
32	16 1/2
50	16 1/3
80	16 1/4
100	16 1/5

1)

2) ()

,

2

▪

가

2

▪

“(INDEX NUMBER)

) “ 2- 20”

3)

4) ()

,

,

5) . ()

6) 가 ()

가

가

16

() 가

()

- 16

가

2 14 x 가 x

4 12 x 가 x

8 8 x 가 x

가

()

x

가 (

x 6 25 가 16 4

6 18 가 16 , 4 x

4. 가.

1)

2) . ()

3) , , , , ,

1) .

- (, x , , / 16) ÷ x

x 가

2)

- : ÷ 16 (

)

4 x 6

4 x 6

8

가

()

	÷ x x
	x 가
	(x 8 / 16) ÷ x
	x 가
()	<div>- , (</div> <div>x 16)</div> <div>2P, 4P, 8P</div> <div>2P : (x 1 / 16) ÷</div> <div>x x 가</div> <div>4P : (x 2 / 16) ÷</div> <div>x x 가</div> <div>8P : (x 4 / 16) ÷</div> <div>x x 가</div> <div>가</div>

5. 가.

(x / 16) x

가

()

2.

- 1999- 18
23 3
1999 6 30

1.

: 1999 7 1 2000 12 31
(16,040)
10,000
, , 2
50/ 100 ,
70/ 100, 30/ 100

2.

		200 1	590
		1/ 2 1	5,900
		1/ 4 1/ 2	2,950
		1/ 4	1,770
		1/ 2 1	3,800
		1/ 4 1/ 2	1,900
		1/ 4	1,140
		1/ 2 1	5,800
		1/ 4 1/ 2	2,900
		1/ 4	1,740

3.

1993- 13

23 2 36 1 2

1993 6 21

1 () 23 1 3

2 () “ ”
“ (“ ”)”

3 ()

1. 가 (“ 1 ”)
, , (“ ”)

2. 가

3. 가

4. 가

가

4 ()

가

1993 7 1